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Karl Marx

자본론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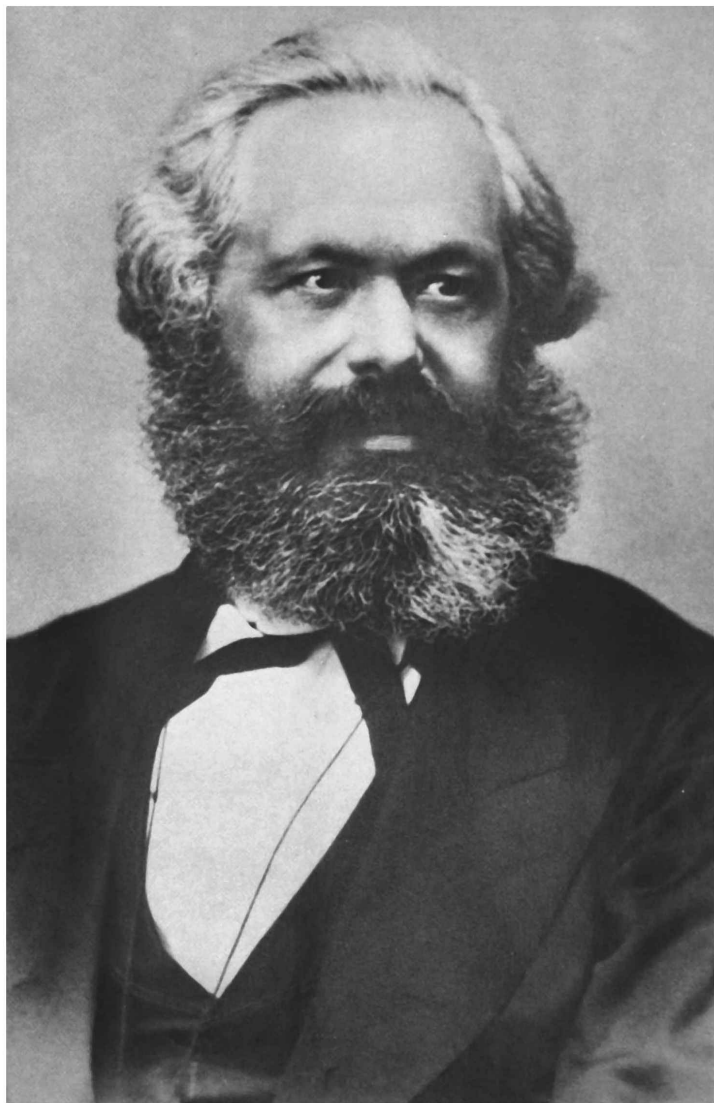
칼 맑스
자 본 론

정치 경제학 비판

제 1 권

제1부 : 자본의 생산 과정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5



Karl Marx

나의 잊을수 없는 벗

프로레타리아트의 용감하고 충실하고
고결한 선봉투사

윌헬름 윌프에게

이 책을 드림.

(1809년 6월 21일 다르나우에서 탄생)
(1864년 5월 9일 만체스터에서 망명중 사망)

목 차

초판 서문	1
제2판 발문	9
불란서어 판 서문	23
불란서어 판 발문	25
제3판 서문	26
영어 판 서문	30
제4판 서문	36

제 1 부 자본의 생산 과정

제 1 편 상품 및 화폐

제 1 장 상 품	47
제 1 절 상품의 두 요인 : 사용 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47
제 2 절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	56
제 3 절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	65
A. 간단한, 단독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 형태	66
1) 가치 표현의 양극 :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	66
2) 상대적 가치 형태	68

a) 상대적 가치 형태의 내용	68
b)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성	74
3) 등'가 형태	77
4) 간단한 가치 형태의 총체	84
B. 전체적인 또는 확대된 가치 형태	87
1)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	87
2) 특수적인 등'가 형태	89
3) 전체적 또는 확대된 가치 형태의 결합	89
C. 일반적 가치 형태	91
1) 가치 형태의 변화된 성격	91
2)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과 등'가 형태의 발전간의 관계	94
3) 일반적 가치 형태로부터 화폐 형태에 로의 이행	97
D. 화폐 형태	97
제 4 절 상품의 물신숭배성(物神崇拜性)과 그 비밀	99

제 2 장 교환 과정118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131

제 1 절 가치 척도131

(가액, 가액의 측정 기준, 가액의 일반적 등
귀 또는 저락, 화폐의 계산 명칭, 계산 화
폐, 가치의 크기와 가액과의 양'적 불일치,
그것들의 질'적 불일치, 가액은 상품의 관념
적인 가치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

제 2 절 유통 수단145

A. 상품의 형태 변화145

(순환 $W—G—W$, 판매 $W—G$, 구매 $G—W$, 상품의 전체 형태 변화, 상품 유통, 상
품 유통과 생산물 교환간의 구별.)

B. 화폐의 유통160

(상품의 형태 변화와 화폐의 유통, 화폐의 두
번의 위치 전환, 유통 화폐량, 유통 속도,
유통의 원활한 진행과 정제, 유통 화폐량을
규정하는 요인들.)

C. 주화(鑄貨), 가치 기호(記號).....174

(주화와 지금(地金), 주화의 마멸, 가치 기
호, 문제 및 통제 기호들, 지폐, 강제 통
용력을 가지는 지폐의 유통 법칙.)

제 3 절 화 폐182

A. 금전 퇴장182

B. 지불 수단183

C. 세계 화폐200

제 2 편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제 4 장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206

제 1 절 자본의 일반적 공식206

제 2 절 일반적 공식의 제 모순.....220

제 3 절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236

(《자유 노동자》, 노동력의 가치, 《노동력》)
이타는 상품의 독특한 성질.

제 3 편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 5 장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251

(노동 과정, 노동 대상, 원료, 노동 수단,
생산 수단, 생산적 소비, 자본가에 의한 노
동력의 소비 과정으로서의 노동 과정, 가치
형성 과정,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과정에서
그것이 창조하는 가치와는 그 크기가 다르다.
가치 증식 과정, 자본의 발생.)

제 6 장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282
제 7 장 잉여 가치를	299
제 1 절 노동력 착취의 정도	299
제 2 절 생산물의 상대적 부분들에 의한 생산물 가치의 표현	311
제 3 절 시노어의 《최후 한 시간》	316
제 4 절 잉여 생산물	324
제 8 장 노동일	326
제 1 절 노동일의 한계	326
제 2 절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 주와 보야르	332
제 3 절 착취의 법률적 제한이 없는 영 국의 산업 부문들	345
{ 레스 제조업, 도기 제조업, 성냥 제조업, 벽지 제조업, 빵 제조업, 철도 경영, 복장 제조업, 단야업.	
제 4 절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	365
(야금 및 금속 공업)	
제 5 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14세 기 중엽으로부터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일 연장에 관 한 강제법들	377
{ 노동자의 건강 및 수명에 대한 자본의 무자비 성. 영국의 노동자에 관한 법제. 대공업 시 대에 이르기까지의 17세기에 있어서의 노동일 의 제한.	
제 6 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노동 시간의 강제적 제한. 1833—18 64년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공장	

립'법	398
(1833년 법률. 1814년 법률. 1817년 법률. 1850년 법률. 전방직 공장. 날염(捺染) 공 장. 염색 공장과 포백 공장.)	
제 7 절 표준 로동일을 위한 투쟁. 영 국의 공장 립'법이 타국에 준 영향	428
제 9 장 잉여 가치의 물과 량	436
제 4 편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10장 상대적 잉여 가치의 개념	449
제11장 협업	463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 그 동업 조합 공 업과의 량'적 차이. 사회적 평균 로동. 생산 수단의 절약. 협업 로동의 사회적 생산력. 협업의 초기 형태들. 그 자본주의적 형태.)	
제12장 분업과 마누팩뚜라	483
제 1 절 마누팩뚜라의 이중적 기원	483
제 2 절 부분 로동자와 그의 도구	487
제 3 절 마누팩뚜라의 두 기본 형태 : 이 질적 마누팩뚜라와 유기적 마누 팩뚜라	491
제 4 절 마누팩뚜라 내부에서의 분업과 사회 내부에서의 분업	504
제 5 절 마누팩뚜라의 자본주의적 성격	516

초판 서문

내가 이제 제1권을 세상에 내놓는 본 저작은 1859년에 발간된 나의 저술 《정치 경제학 비판》〔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의 계속이다. 시작과 계속간의 장기에 걸친 간격은 거듭 거듭 나의 사업을 중단시킨 다년간의 질병에 기인한 것이다.

우에서 말한 이전 저작의 내용은 본권 제1장에 요약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비단 편찬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다. 저술 자체가 개선되어 있다. 이전 저작에서는 아주 간략히 지적하는 데 그친 많은 점들이 이 저작에서는 전후 관계가 허락하는 한 더 상세히 전개되었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는 상세히 설명된 점들이 여기에서는 오직 간단히 지적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가치 학설 및 화폐 학설의 력사에 관한 절들이 여기에서 전연 삭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 비판》을 읽은 독자는 제1장의 주들에서 이 학설들의 력사에 관한 새로운 증거(典據)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사는 시초가 곤란하다는 진리는 모든 과학에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제1장 특히 상품 분석이 들어 있는 절의 이해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의 실체 및 가치의 크기의 분석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그 분석을 될수록 평이하게 하였다¹. 화폐 형태로써 완성되는 가치 형태는 극히 무내용하

1 윌리엄·엘리치를 반박한 애프·랏살의 저작중 서자가 이 제목

며 또 간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리지는 2천여 년 이래 이 가치 형태를 구명해 보려고 시도하여 왔으나 여태껏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반면에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더 복잡한 형태의 분석에는 적어도 근사적으로는 성공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발달한 신체는 신체의 세포보다 연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태들의 분석에 있어서는 현미경도 화학적 시약(試藥)도 리용할 수 없다. 추상력이 양자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는 부르조아 사회의 경제적 세포 형태인 것이다. 소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 형태의 분석은 아주 작고 시끄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것은 사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미경—해부학이 작은 것을 취급하는 그러한 종류의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 형태에 관한 절을 제외하고는 이 책을 리해하기 곤란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나는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며 따라서 또한 독자적으로 사색하려고 하는 독자들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다.

물리학자는 자연 과정을 그것이 가장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란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에서 관찰하든가 또는 만약 가능하다면 과정이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 밑에서 실험을 하든가 한다. 본 저작에 있어서 나의 연구 대상으로

에 관한 나의 이론 전개의 《정신적 진수》를 서술한다고 자칭하는 그 절에까지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왕이니 말하지니와 에프·랴살은 그의 경제학적 로작의 모든 일반적인 이론적 명제들 레컨데 자본의 역사적 성격, 생산 제 판제와 생산 방식간의 면판 등등에 관한 명제들을 나의 저작으로부터, 내가 만든 술어까지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틀림 없이 명성을 높이며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그의 이론의 부분적인 세부 및 그의 실지 적용에 관해서는 나는 물론 말하지 않는다.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Von

Karl Marx.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cess des Kapitals.

Das Recht der Uebersetzung wird vorbehalten.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1867.

New-York: L. W. Schmidt. 24 Barclay-Street.

《자본론》 제 I 권 목문 초판 표지
(속 土)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및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이다. 이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이때까지는 영국이다. 영국이 나의 리론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배증으로 되는 리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만약 독일의 독자가 누구든지 영국의 공업 및 농업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파리사이 교도식으로 눈'살을 찌프리든가 또는 독일에 있어서는 사태가 아직 전혀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고 략관적으로 안심하려 한다면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두어야 하겠다. *De te fabula narratur!* [이 이야기는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적 법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대 관계의 발전 정도가 높은가 또는 낮은가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법칙들 그 자체에 있으며 강철 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며 또 관철되는 이 경향들에 있는 것이다. 공업적으로 더 많이 발전된 나라는 더 적게 발전된 나라에게 바르 그 나라의 미래의 형상을 보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 곳, 레컨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법이라는 대항물이 없는 탓으로 사태는 영국에 비하여 훨씬 더 나쁘다. 기타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서 구라파 대륙의 기타 전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단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발전의 부족에 인해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현대적 고난과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적 및 정치적 제 관계를 수반하는, 케케 묵은, 낡아 빠진 생산 방식의 존속에 유래하는, 과거로부터 내려 오는 허다한 고난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우리는 비단 생자(生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자(死者)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Le mort saisit*

le vif ! [사자가 생자를 붙잡는다 !]

독일 및 서 구라파 대륙의 기타 나라들의 사회 통제는 영국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밑에 베두자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채릴 수 있는 정도로 면사포를 걸거 올린다. 만약 우리의 정부와 의회가 영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상태에 관한 정기 조사 위원회들을 임명한다면, 만약 이들 위원회에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진상을 구명하는 그러한 전권이 부여된다면, 만약 영국의 공장 감독관들, 《Public Health》(《공중 보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영국의 의사들, 부녀자 및 아동의 착취 정형, 주력, 금양 등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영국 위원회의 성원들과 같은, 그러한 전문 지식이 있고 편견 없고 단호한 사람들을 이 목적을 위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태에 깜짝 놀랄 것이다. 페르슈스는 피물을 추적하기 위하여 도깨비 감투를 썼다. 우리는 피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위하여 도깨비 감투를 깊이 눌러 쓰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환상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18세기의 아메리카 독립 전쟁이 구라파의 부르조아지에게 경종을 울린 것과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아메리카 공민 전쟁은 구라파의 노동 계급에게 경종을 울렸다. 영국에 있어서는 변혁 과정이 완전히 명백하게 되었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응당 대륙으로 옮겨 올 것이다. 그것은 대륙에서 노동 계급 자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일층 가속한 형태를 취하든가 또는 일층 인도적인 형태를 취하든가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고상한 동기와는 별개로 현재의 지배 계급의 가장 절실한 리해 관계가 노동 계급의 발전을 구속하는, 그러나 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나는 본권에 있어서 영국의 공장 법의 역사와 내용과 결과에 특히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당한 것이다. 어떠한 민족이

든지 다른 민족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또 배워야 한다. 사회는 비록 자기 운동의 자연적 법칙의 작용을 파악한다 할지라도——그리고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본 저작의 종국적 목적이다——발견의 자연적인 계단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그것을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는 진통을 짧게 하며 또 경감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몇 마더 말하겠다.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의 모습을 나는 결코 아름답게는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정화, 즉 일정한 계급적 관계 및 이익의 담당자로 되는 한에 있어서 뿐이다. 나의 립'장은 경제적 사회 구성의 발견을 자연사'적 과정으로서 보는 립'장이다. 그러므로 나의 립'장에서 볼 때에는 다른 어떠한 립'장에서 보다는도 개별적 인물이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개별적 인물은 설사 주관적으로는 환경을 초월하여 서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의연히 환경의 산물인 것이다.

정치 경제학의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와 동일한 적들파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학이 취급하는 자료의 독특한 성격은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는 투쟁 무대 위에, 인간 정신의 가장 격렬하고 가장 저급한 그리고 가장 추악한 정열을, 사'적 이익으로부터의 격분을 불러 낸다. 그리하여 레컨데 영국의 국교회(國敎會)는 차라리 그의 신앙 조항 39개중 33개의 침해를 용서할 지언정 그의 화폐 수입의 1/99의 침해를 용서하지 않는다. 현 시에 있어서는 무신론 그 자체는 전래적 소유 관계의 비판에 비하면 culpa levis (사소한 죄악)인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진보는 의심할 바 없다. 일례로서 최근 몇 주일 전에 발표된 청서(靑書): 《공업 문제 및 직업 동맹에 관한 제국

재외 사절과의 통신》을 참조하기 바란다. 영국 황제의 국외 대표들은 그 속에서 아주 로골적인 언사로써 진술하기를 독일 에 있어서도 불란스에 있어서도 요컨대 구라파 대륙의 모든 문화적 국가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현존 제 관계의 급진적 변화는 영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촉감할 수 있으며 또 불가 피적이라고 하였다. 이것과 시간을 같이 하여 대서양 저쪽 편 에 있어서 북 아메리카 합중국 부대통령 웨이드 씨는 공개 회 합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노예 제도의 폐지 이후 자본 제 관계 및 토지 소유 제 관계의 급진적 변화가 일정(日程)에 오르고 있다! 라고. 이러한 사실은 자홍색 만도로도 흑색 법 의(法衣)로도 엄폐할 수 없는 시대의 표식이다. 이것은 당장 명일에 기적이 일어 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금일의 사회가 견고한 결정체인 것이 아니라 전화될 수 있으며 또 부단한 전화 과정에 있는 유기체라는 예감이 지 배 제급 내부에서까지 일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저술의 제2권은 자본의 류통 과정 (제2부) 및 자본의 총과정 (제3부)의 제 형상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최종의 제3권 (제4부)은 경제 학설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과학적 비판에 근거하는 의견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 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양보한 일이 없는 소위 여론의 편견에 대해서는 위대한 플로렌쓰인의 다음과 같은 어구가 의연히 나의 표어로 될 것이다.

Segui il tuo corso, e lascia dir le genti! [자기의 길로 나아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라!]

1867년 7월 25일 런던에서

칼 맑스

제2판 발문(跋文)

나는 우선 초판 독자들에게 제2판에서 가해진 수정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겠다. 일견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편별(篇別)이 일층 알기 쉽게 구분되었다. 추가된 주석은 모두 제2판 주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문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제1장 제1절에서는 일체의 교환 가치가 표현되는 방정식들의 분석으로부터의 가치의 도출(導出)이 일층의 과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또 초판에 있어서는 대략 지적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가치의 실체와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의 크기의 결정과의 사이의 련관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1장 제3절(가치 형태)은 전연 개작되었다. 이것은 초판에 있어서 서술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 이왕이니 말하거니와 이 이중적 서술은 나의 벗 하노베르 출신 엘·쿠젤만 박사의 권고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었다. 1867년 봄에 내가 그를 방문하여 그의 집에 체재하고 있었을 때에 함부르그로부터 초교용 인쇄물이 도착하였는바 그는 대다수의 독자를 위해서 가치 형태의 보충적인, 일층 강의식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나를 설득시켰던 것이다. —제1장의 최후의 절 《상품의 물신 숭배성 운운》은 대부분이 수정되었다. 제3장 제1절(가치 척도)은 면밀하게 재 검토되었다. 그 이유는 초판에 있어서 이 절은 산만하게 서술되었고 독자들에게는 《정치 경제학 비판》(베를린, 1859년) 속에 이미 주어진 설명을 참조

하도록 하였던 까닭이다. 제7장 특히 제2절은 현저하게 개작되었다.

때로는 순전히 문체의 수정에 지나지 않는 원문의 변경이 군데 군데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무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전권에 걸쳐서 산재한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파리에서 발간되고 있는 불란서어 역의 교열을 기회로 본문을 재 검토하면서 독일어 원문의 많은 부분이 어떤 개소는 근본적 개작을 요하며 또 어떤 개소는 문체상의 대수정을, 혹은 또 우연적인 유루(遺漏)의 면밀한 제거를 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한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 왜냐 하면 나는 그 동안 연기할 수 없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중 책이 다 팔려서 1872년 정월에는 벌써 재판 인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1871년 가을에야 들었기 때문이다.

《자본론》이 독일 로동 계급의 광범한 범위에 걸쳐서 급속히 리해된 것은 나의 로력에 대한 최상의 보수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부르조아적 틱'장에서 있는 사람인 원나의 공장주 마이에르 씨는 보불 전쟁(普佛戰爭)시에 발간된 어떤 소책자가운데서 독일인의 전태적인 장점으로 생각되었던 리론적 사색에 대한 탁월한 재능은 독일의 소위 유식 계급 속에서는 전연 소멸되었으나 그 대신 독일의 로동 계급 속에서 부활되고 있다고 전혀 옳게 말하였다.

독일에서는 정치 경제학은 현시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학문으로 되어 있다. 구스타브 폰 풀리히는 《상업 공업 및 농업의 역사적 서술》 속에서 특히 이 저작의, 1830년에 발간된, 최초의 두권 속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을, 따라서 또 현대적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을 저해한 역사적 사정을 대부분에 걸쳐서 이미 해명한 바 있었다. 그와 같이 정치 경제학의 생활상 지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 경제학은 영국 및 불란서로부터 기성 상품의 형태로 수입되었

고 독일 정치 경제학 교수들은 의연히 학생들로 남아 있었다. 외국에서의 현실의 이론적 표현이, 그들의 수중에서, 그들이 자기 주위의 소 부르쾆아적 세계의 정신으로서, 다시 말하면 외곽하여 해석한, 독단의 라렬로 전변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학문적 무능력에 대한 전연 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사실상 그들에게는 서투른 분야에서 교사 노릇을 해야 한다는 불안한 의식을 엄폐하려고 애쓰는 나머지 문헌사'적(文獻史的) 박식으로 써 풍을 떨며 또는 소위 관방학(官房學) 즉 회망에 넘치는 독일 관료 후보자들이 견디여 내야 하는 시련의 불인 체제 없는 그 잡다한 지식으로부터 차용한 전연 상판 없는 자료들을 혼합하는 것을 일삼아 왔다.

1848년 이래 자본주의적 생산은 독일에서 신속히 발전되었고 현재에 있어서는 벌써 자기의 '현기'증 나는 투기적 번영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적 학자들에 대해서 운명은 의연히 인자롭지 못하다. 그들이 공평 무사하게 정치 경제학을 연구할 가능성을 가졌을 동안은 독일의 현실에 현대적 경제 관계가 존재해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나타났을 때에는 사정이 부르쾆아적 시야의 한계 안에서는 그 공평 무사한 연구를 그 이상 용허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 경제학이 부르쾆아적인 한에 있어서는 즉 그것이 자본주의적 체제를 사회적 생산의 역사적으로 과도적인 발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반대로 절대적 종국적 형태로서 고찰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계급 투쟁이 아직 은밀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직 간혹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영국을 들어 보자. 그의 고전적 정치 경제학은 계급 투쟁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 속한다. 영국 고전 경제학의 최후의 위대한 대표자 리카도는 소박하게도 계급적 이익의 대립을 사회 생활의 자연 법칙으로서 보면서 결국은 이 계급적 이익들, 즉 임금과 리윤간, 리윤과 지대간의 대립을 의식적으로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경제에 관한 부르조아 과학은 자기의 최후적인 념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리카도가 아직 생존하였을 당시 그에 대립하여 부르조아 경제학의 비판이 시스몬디의 이름으로 나왔다¹.

다음의 1820—1830년의 시기는 영국에서 정치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활기로써 특징 지어진다. 이 시기는 리카도 이론의 비속화 및 보급의 시기인 동시에 구 학파와의 그의 투쟁의 시기이었다. 불만한 편 싸움이 벌어졌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경제학자들의 논쟁 내용은 구라파 대륙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 하면 논쟁은 대부분 잡지 논문 시사 문제에 관한 소책자 및 팜프렛에서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던 까닭이다. 이 논쟁의 공평 무사한 성격은——비록 레외적으로는 리카도의 이론이 그때 벌써 부르조아 경제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리용된 일이 있었지만——그 때의 사정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한편에 있어서 대공업 자체가 겨우 유년기를 면할락 말락 했었는데 이것은 대공업이 그 현대적 생활의 주기적 순환을 1825년의 공황 이후에야 개시한 사실만 보아도 분명하다. 다른 한편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 투쟁이 배후에 밀려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신성 동맹의 주위에 뭉친 정부들 및 봉건 령주들과 부르조아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대중간의 알룩에 의하여 가리워졌으며 경제적 분야에서 공업 자본과 귀족적 토지 소유간의 반목에 의하여 가리워져 있었다. 이 반목은 불란서에서는 분할지 소유와 대토지 소유와의 대립의 배후에 숨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곡물법의 실시 이래 로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정치 경제학 문헌들은 케네 박사의 사망후 불란서에 있는 경제학적 질풍 노도(疾風

1 나의 저술 《정치 경제학 비판》 초판, (베를린 1859년), 39페이지를 참조하라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판, 제12권, 제1부, 47, 48페이지].

怒濤)의 시기를 상기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늦가을의 따뜻한 날씨가 봄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이다. 1830년에는 최후적으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 왔다.

불란서와 영국에서는 부르조아지가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 순간부터 계급 투쟁은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표현된 그리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부르조아 경제학에게 립종의 시각이 왔다. 그 후부터는 벌써 이런 또는 저런 이론이 옳은가 또는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에게 유익한가 또는 유해한가, 편리한가 또는 불편한가, 경찰의 비위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사심 없는 연구는 고용 문서들의 비난 공격과 교체되며 공정 무사한 과학적 탐구는 간사하고 너절한 변호론에 의하여 대치된다. 그러나 공장주 코브덴과 부라이트를 선두로 한 Anti-Corn-law League [곡물법 반대 투쟁 연맹]가 세상에 배포한 건방진 글들도 그것이 지주적 귀족을 반대하여 논쟁을 걸었다는 점에서 비록 과학적인 흥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정한 역사적인 흥미는 가지는 것이었다. 로버트 펠 경(卿)의 시대 이후의 자유 무역 립'법은 이 최후의 자극조차 속류 경제학으로부터 뽑아 버렸다.

1343--1849년의 대륙 혁명은 영국에서도 반응을 일으켰다. 아직도 과학적 의의를 가질 것을 바라며, 지배 계급의 단순한 궤변가 및 아침 분자로 되는 데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의 정치 경제학을, 이제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던 프로테타리아트의 요구와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존 스튜어트 밀을 제일 뚜렷한 대표자로 하는 천박한 절충론이 나왔다. 이것은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이며 평론가인 엔·체르니шев스끼가 벌써 그의 저작 《밀 파의 정치 경제학 대감》에서 훌륭하게 해명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파산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불란

서와 영국에서 그 적대적 성격이 역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소란스럽게 도출된 후에야 겨우 성숙하였고 이때 독일 프로테타리아트는 벌써 독일 부르췌아지보다는 훨씬 더 이론적으로 세련된 계급 의식을 소유하였다. 그러므로 부르췌아 정치 경제학이 이 나라에서 가능하게 된 것 같이 보이자 마자 그것은 다시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사정 밑에서 그의 대변자들은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한쪽의 총명한 실무가들 돈벌이'꾼들은 속류 경제학적 변호론의 가장 천박한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자 바스짜의 기'발 주위에 뭉쳐있다. 다른 쪽의 교수연하게 자기들의 과학의 위신을 자랑하는 인간들은 타협 불가능한 것을 타협시키려고 하면서 존 스튜아트 밀의 뒤를 따라 갔다. 독일 사람들은 부르췌아 경제학의 몰락의 시기에 있어서도 그의 고전적인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연히 단순한 학생들로 외국의 숭배자 모방자로 외국 대상회(商會) 제품의 소행상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독일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특수성은 이 나라에서 그 어떠한 것임을 막론하고 《부르췌아》 경제학의 독창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비판이 대체로 어떤 계급을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오직 하나의 계급만을,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변혁과 계급의 종국적 절멸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그러한 계급, 다시 말하면 프로테타리아트만을 대표할 수 있다.

독일 부르췌아지의 대변자들은 학자 비학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나의 이전 저술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자본론》을 우선 묵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저술이 벌써 정세에 적합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나의 책을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부르췌아적 의식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處方)들을 써

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 신문 속에서 유력한 반대자들에 봉착하여——폐컨대 《Volksstaat》(《인민 국가》) 지상의 요세프 디츠겐의 논문을 보라——지금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한채로 있다¹.

《자본론》의 훌륭한 로씨야어 번역이 1872년 봄에 페페르부르그에서 나왔다. 3,000부 발간된 것이 현재 벌써 거의 매진되었다. 벌써 1871년에 끼에브 대학 정치 경제학 교수 엔·지베르 씨는 자기의 저서 《가치 및 자본에 관한 D·리카도의 이론》에서 가치 화폐 및 자본에 관한 나의 이론이 그 기본 특징에 있어서 스미스—리카도 학설의 필연적인 계승적 발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서 구라파인들이 이 가치 있는 책을 읽고 놀라는 것은 순리론적인 견지가 철저하게 관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본론》에서 채용된 방법은 그것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폐컨대 파리의 《Revue Positiviste》(《실증주의 평론》)

1 독일 속류 경제학의 말머들이 우물들은 나의 저술의 문체와 서술 방식을 힐난한다. 《자본론》의 문장상 결함은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엄격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씨 및 그들의 독자층의 만족을 위하여 나는 여기에 영국인의 의견과 로씨야인의 의견을 하나씩 인용하겠다. 나의 견해에 철두철미 적대하는 《Saturday Review》(《토요 평론》)는 독문 초판에 대한 그의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술은 《가장 무미 건조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까지 독특한 매력(charm)을 주고 있다》. 《성 페페르부르그 신문》은 1872년 4월 20일 호에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서술은 너무나 전문적인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면 평이성과 명료성과 그리고 대상의 과학적인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생기로서 특징 지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자는……보통 사람에게 끝이 깨지는 감을 일으키는 모호하고 건조한 말로써 자기의 저술을 쓰는……독일의 다수 학자들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현대 독일—민족 자유주의적 교수들의 문헌의 두자는 두통과는 전연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는 한편에 있어서는 내가 경제학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무엇인지 추측해 보라!——내가 소녀의 대상의 비판적 분석에 국한하고 미래의 공중 식당을 위한 처방 (콩트류의?)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를 비난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서는 지베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리론이 문제로 되는 한 맑스의 방법은 영국 학파 전체가 채용하는 연역적 방법인바 그의 결점과 장점은 가장 우수한 경제 학자——리론가들에 공통되는 것이다》[엔·지베르 《가치 및 자본에 관한 D·리카도의 리론》로씨야어판, 170페이지], M·블록크 씨는——《독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리론가들, <월간 에코노미스트> 1872년 7월 및 8월호로부터의 발췌》——나의 방법이 분석적 방법이라는 것을 진명하여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맑스 씨는 이 저작에 의하여 그가 가장 탁월한 분석적 정신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7페이지]. 독일 평론가들은 물론 헤겔 학파적 켄벤이라고 떠들고 있다. 페제르부르크 《구라파 통보》는 《자본론》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논문(1872년 5월호 427-436페이지)에서 나의 연구 방법은 엄격히 현실주의적이나 서술 방법은 불행하게도 독일——변증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서술의 외부적 형식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일견 맑스는 상당한 관념론——철학자인 듯이 보인다. 그나마 이 말의 <독일> 적 의미, 다시 말하면 나쁜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는 경제학 비판 사업에 있어서의 그의 일체의 선행자들보다 무한히 더 현실주의자인 것이다……그를 관념론자라고 칭할 수는 도저히 없다》. 나는 이 필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비판으로부터의 약간의 발췌에 의해서보다 더 낮게 대답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발췌는 로씨야어 원문을 볼 수 없는 많은 독자들에게는 흥미 없지 않

을 것이다.

내가 나의 방법의 유물론적 기초를 설명한 《정치 경제학 비판》(베를린, 1859년)에 붙인 나의 서문 4—7페이지로부터 인용한 다음,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

《맑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이니 그것은 즉 그가 연구하고 있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상들이 기성 형태를 가지고, 소여의 시기에 관찰되는 호상 관계하에서 나타나는 그 범위내에서 그 현상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법칙 뿐만이 아니다. 그 밖에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상들의 변동, 현상들의 발전의 법칙, 다시 말하면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이행, 상호 관계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의 이행의 법칙이다. 그는 일단 이 법칙을 발견하자 이 법칙이 사회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그 결과들을 상세하게 연구한다……따라서 맑스는 오직 다음 하나에만 전념한다. 즉 정밀한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사회 제 관계의 일정한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하며 그에게 출발점과 거점으로 되는 사실들을 가급적 완전 무결하게 확인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는, 만약 그가 현존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한 다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그것을 의식하든지 혹은 의식하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이 질서가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한다면 완전히 충분한 것이다. 맑스는 인간의 의지 의식 및 의도와는 독립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의지 의식 및 의도를 결정하는 법칙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으로서 사회의 운동을 관찰한다……만약 의식적 요소가 문화사에 있어서 그러한 종속적인 역할을 논다면 문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판이 도저히 의식의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결과를 그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비판의 출발점으로 될 수 있는 것

은 리념이 아니고 오직 외부적 현상 뿐이다. 비판은 한 사실을 리념과가 아니고 다른 사실과 비교, 대조하는 데 국한될 것이다.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쌍방의 사실이 가급적 더 정확하게 연구되어 양자가 각이한 발전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명되는 그것 뿐이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이 발전 단계들이 나타나는 순서 연속성 및 연관이 그보다 못하지 않게 정확하게 연구되는 그것이다……그런데 세인은 혹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경제 생활의 일반적 법칙들은 동일한 것들이므로 현재에 적용되거나 또는 과거에 적용되거나 결과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바로 이것을 맑스는 승인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추상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그의 견해에 의하면 반대로 매개의 역사적 시대는 자기의 독자적인 법칙들을 갖는다……현실 생활이 발전의 일정한 시기를 경과하여 일정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자마자 그것은 또한 다른 법칙들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경제 생활은 생물학이라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의 역사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넓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법칙을 물리학 및 화학의 법칙과 동일시하여 경제 법칙의 성질을 오해하였던 것이다……현상의 일층 심각한 분석은 사회적 제 유기체가 식물 및 동물의 제 유기체보다 못하지 않게 근본적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보이며 주었다……하나의 동일한 현상이 이들 유기체의 각이한 총체적 구조, 그들의 개개의 기관(器官)의 특이성, 기관이 기능하는 조건의 차이 등등으로 말미암아 점점 각이한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맑스는 폐전대 인구 법칙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는 반대로 각개 발전 단계는 자기의 독자적인 인구 법칙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한다……생산력의 발전 정도가 다름에 따라 제 관계와 그것들을 규제하는 법칙들도 다르게 된다. 맑스는 이 관점으로부터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연구하며 설명하려는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경제 생활의 매개의 정확한 연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목표를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정식화했을 따름이다……이와 같은 연구의 과학적 가치는 소여의 사회적 유기체의 발생 생존 발전 사멸과 다른 고도의 유기체에 의한 그의 교체를 규제하는 그러한 특수적 법칙들의 해명에 있다. 또 이러한 가치를 맑스의 책은 사실상 가지고 있다》.

이 필자는 그가 나의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명명한 것을 그처럼 훌륭하게 특징 지었고 또 이 방법의 적용에 관한 나의 개인적인 수법에 대하여 그처럼 호의적으로 대하였는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변증법적 방법을 특징 지은 것이다.

물론 서술 방식은 연구 방식과는 형식적 면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연구는 마땅히 세밀하게 자료에 정통해야 하며 자료의 각이한 발전 형태들을 분석해야 하며 그 형태들의 내부적 연관을 추적(追跡)해 내야 한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현실적 운동이 정당하게 묘사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고 그리하여 자료의 현실이 관념상에 반영될 때 우리는 마치 선험적(先驗的) 구상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의 그것과 비단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가 리념이라는 명칭 밑에 독립적인 주체로 전화시키기까지 한 사유 과정은 현실의 메미우르그〔조물주〕이고 현실은 리념의 외부적 발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 이식되어 그 속에서 변형된 물질적인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헤겔 변증법의 신비화된 면을 나는 약 30년 전에 그것이 아직 유행중에 있던 그 당시에 비판하였다. 그러나 내가 《자본론》 제1권을 추고중에 있던 바로 그 때에 독일 지식계에서 우

세를 차지하고 있던, 잘난체 하고 거만하고 범속한 아류배(亞流輩)가 일찌기 레쎈그 시대에 대답한 모우제쓰 멘델스존이 스피노자를 대하듯이 헤겔을 바로 《죽은 개》로서 대하는 태도를 감히 취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이 위대한 사상가의 제자로 공표하고 가지 이론에 관한 장에서는 군데 군데 헤겔의 특유한 표현 방식에 영합(迎合)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변증법이 헤겔의 수중에서 당한 신비화는 다름 아닌 헤겔이 처음으로 변증법의 일반적 운동 형태를 남김 없이 또 의식적으로 서술했다는 사실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헤겔에 있어서는 변증법이 거꾸로서 있다. 신비적인 껍질 안에 들어 있는 합리적인 알맹이를 밝혀 내기 위하여는 그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변증법은 그 신비화된 형태에 있어서는 독일의 류행으로 되었던 것이니 왜냐 하면 마치 그것은 현존 사물을 찬미하는 듯이 보이었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그 합리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부르조아 계급과 그 이론적 대변자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자아낼 뿐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변증법은 현존 사물의 긍정적인 이해 속에 또한 그의 부정, 그의 필연적인 몰락의 이해를 동시에 포함하며, 매개의 기성 형태를 운동의 흐름에서, 따라서 또한 그 과도적인 측면으로부터 파악하며, 어떤 것 앞에도 굴하지 않으며 그 본질상 비판적이며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충만한 운동은 현대적 공업이 붕괴하는, 주기적 순환——전반적 공황을 그 절정(絶頂)으로 하는——의 동요 속에서 실천적 부르조아가 가장 통절하게 느끼는 바이다. 이 공황은 비록 아직은 그 준비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박도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그 무대의 전면성과 그의 작용의 강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신 프로찌야-독일 제국의 갑작부자들의 머리 속에까지 변증법을 박아 넣을 것이다.

1873년 1월 23일 런던에서

칼 맑스

Londres 18 Mars 1872

Mon Citoyen Maurice de Châte

Cher Citoyen,

J'applaudis à votre idée de publier la traduction de l'hospital
en livraisons périodiques. Sous cette forme l'ouvrage sera plus accessi-
ble à la classe ouvrière et pour moi cette considération l'emporte
sur toute autre.

Voilà le beau côté de votre médaille, mais en voici le
revers: la méthode d'analyse que j'ai employée et qui n'avait
pas encore été appliquée aux sujets économiques, rend assez
ardue la lecture des premiers chapitres, et il est à craindre
que le public français toujours impatient de conclure, averti
de connaître le rapport des principes généraux avec les questions
immédiates qui le passionnent, ne se rebute parce qu'il n'aura
pu tout d'abord passer outre.

C'est là un désavantage contre lequel je ne puis rien dire
n'est toutefois présent et exprimé les lecteurs soucieux de
vérité. Il n'y a pas de route royale pour la science et celle-là
seulement ont chance d'arriver à ses sommets lumineux
qui ne craignent pas de se fatiguer à gravir ses
sentiers escarpés.

Recevez, cher Citoyen, l'assurance de mes
sentiments dévoués.

Karl Marx.

《자본론》 불문판 발행자 파샤트르에게 보내는
맑스의 서한 칠월 복사
(축 소)

불란서어 판 서문

모리스 라사트르 귀하

친애하는 귀하여!

《자본론》을 정기적 분책으로 발간하려는 당신의 생각에 대하여 나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나오음으로써 이 저서는 로동 계급에게 일층 접근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나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관심사입니다.

매달의 표면은 이려합니다. 그러나 리면도 있습니다. 내가 채용하고 있으며 또 이때까지 경제 문제에 적용된 일이 없는 연구 방법은 최초의 몇 장(章)의 독해를 대단히 곤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종국적 결론을 조금히 서두르며 일반적인 원리가 그들을 열중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를 알려고 갈망하는 불란서 독자층이 읽기에 착수하고 나서 곧 이어 더 전진할 수 없을 때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념려됩니다.

여기서 나는 오직 하나만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갈망하는 독자에게 처음부터 이 곤란을 제시하여 그에게 미리 경고를 주는 그것입니다. 과학에는 탄탄한 대로가 (route royale)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험난한 소로를 기여 올라 가는 자만이 과학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귀하여, 나의 성심으로부터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1872년 3월 18일 런던에서

칼 맑스

불란서어 판 발문

J•로아 씨는 가급적 정확한 심지어 축자적(逐字的)인 번역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자기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의 성실성과 정확성이 나로 하여금 독자가 그것을 일층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문장 배열에 정정을 가하게 하였다. 책이 분책으로 발간된 까닭에 때로는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정정은 언제나 한결 같이 면밀하게는 수행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것은 문체의 불균일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내가 일단 이 교열 사업에 착수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이 교열을 원본(독문 제2판)의 원문에까지 확충하여 어떤 개소는 간략히 하며 다른 개소는 보충하며 역사적 또는 통계적 자료의 증보(增補)를 실시하며 비판적 주석을 붙이는 것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제공되는 불란서어 판에는 실사 문장상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본과 대등한 과학적 가치를 가지므로 독일어에 능숙한 독자들도 이것을 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에 나는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학의 발전에 관하여 또 본 저서에서 채용되고 있는 방법에 관하여 언급된 독문 제2판 발문으로부터의 발췌문을 게재한다.

1875년 4월 28일 뮌헨에서

칼 맑스

제 3 판 서문

맑스에게는 이 제3판의 출판을 몸소 준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위대성 앞에는 현재 그의 적대자까지도 머리를 숙이는 위력 있는 사상가는 1883년 3월 14일에 서거하였다.

40년에 걸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우정으로써 연결되었던 나의 최선의 벗, 말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내가 은혜를 입은 벗 맑스를 잃어 버린 나에게 이제는 이 제1권 제3판 그리고 또 맑스가 원고의 형태로 남긴 제2권의 발간을 준비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내가 이 의무의 첫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데 관하여 나는 여기서 독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맑스는 처음에는 제1권 본문의 대부분을 개작하며 허다한 이론적 명제들을 더 명석하게 정식화하며 새로운 것을 삽입하며 현시에 이르기까지의 최신의 역사적 및 통계적 자료를 보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의 병환과 제2권의 중국적 편찬에 종사해야 할 필요성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오직 가장 필요한 것만을 정정하고 이 시기에 발간된 불란서어 판 (*«Le Capital», Par Karl Marx, Paris, Lachâtre, 1873*)에 이미 실려 있는 보충만을 삽입하기로 되어 있었다.

맑스가 남긴 책을 가운데는 또한 실지로 그에 의하여 군비 군비 정정된, 그리고 또 불란서어 판을 참조할 것이 명시된, 한책의 독일문 《자본론》이 발견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맑스가 신판에서 리용하려고 하였던 모든 개소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한 책의 불란서어 판이 발견되었다. 이 정정들과 보충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본권의 최후 부분인 《자본의 축적 과정》이라는 편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선행하는 편들이 근본적으로 개작되었음에 반하여 이편의 본문은 이때까지 최초의 초고에 비하여 수정을 가장 적게 받은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체가 더 발랄하며 더 미끈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더 산만하였으며 영어식 어'법이 혼용되었으며 군데 군데 명확치 못한 곳이 있었다. 서술 행정에는, 여기 저기에 틈이 남아 있고 개별적인 중요한 모멘트들이 암시되었음에 지나지 않았다.

문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맑스 자신이 여러 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는바 나는 이 수정과 그리고 또 맑스와의 많은 담화에서 얻은 암시에 의하여 내가 어떠한 정도로 영어식 술어(術語) 및 기타의 영어식 어'법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었다. 맑스는 만약 그가 생존했다라면 류창한 불란서어를 자기의 간결한 독일어로 대치함으로써 삽입구와 보충문을 물론 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삽입구와 보충문들을 가급적 불란서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옮겨 놓는 것만으로써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나는 이 제3판에서 저자가 몸소 정정하였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어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정정을 가하지 않았다. 나에게서 독일 경제학자들이 흔히 쓰는 통용어들, 페컨데 현금을 주고 타인의 로동을 받는 자를 로동—공급자(Arbeitgeber)라고 칭하며 샀을 받고 자기 로동을 팔취당하는 자를 로동—령수자(Arbeitnehmer)라고 칭하는 이 잡표대 같은 말을 《자본론》 가운데에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불란서어에서도 역시 일상 생활에서 《일》이라는 의미로 <travail>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러나 불란서인들은 자본가를 donneur de travail (로동—공급자), 로동자물 rece-

veur de travail [로동—령수자]이라고 칭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제학자를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책의 본문에서 일관하여 사용되고 있는 화폐 및 도량형의 영국식 단위를 신—독일의 그것들로 환산하여 놓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책의 초판이 나왔을 당시 독일에는 1년의 날'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도량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위에 또 2종의 마르크가 있었고 (제국 마르크는 당시에는 아직 30년대 말에 그것들고안해 낸 제트베르의 두뇌 속에서만 통용되었다.) 2종의 굴덴이 있었고 적어도 3종의 탈레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 단위가 《신 탈레르의 3분지 2》에 해당하였다. 자연 과학에 있어서는 메터제가, 세계 시장에 있어서는 영국식 도량형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정 밑에서는 그의 현실적 자료들을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산업 관계로부터 취해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책에 있어서 영국식 도량형 단위를 리용한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해당 제 관계가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공업 부문——철 및 변화——에 있어서는 현재도 거의 전'적으로 영국식 도량형이 지배하고 있는 것만큼 더욱 이 마지막 리유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연히 결정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의 리해되어 있지 않은 말스의 인용 방식에 관하여 약간의 말을 하겠다. 순전히 사실을 서술하며 기록하는 데 지나지 않은 개조에서는 폐전대 영국의 청서로부터의 인용 같은 것은 문헌상의 단순한 인증임은 두말할 것 없다.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견해가 인용되는 때에는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기서는 인용은 설명 행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학적 사상이 어디서 어느 때에 또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었는가를 지적하며 할 뿐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다음의 한점 뿐이다. 경제학자의 초여의 견해

가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는 것, 즉 그것이 다소 틀 막론하고 자기 시대의 경제적 상태의 적절한 이론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가 본 저서의 저자의 견지로부터 보아 절대적 또는 상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다만 역사적 흥미를 끄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전연 문제로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 인용들은 오직 경제 과학의 역사에서 차용된, 본문에 대한 연속적인 주석을 형성할 뿐이며 경제 이론의 개개의 비교적 중요한 진보를 년대별 창시자별로 확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극히 필요했다. 그것은 이때까지 그 학설사를 취급하는 자들이 거의 출세주의자들의 편파한 무식만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제 어째서 맑스가 제2판 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 경제학자들을 전연 배외적으로만 인용하게 되었던가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권은 1884년 중에 발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1883년 11월 7일 런던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어 판 서문

《자본론》의 영어 번역판 간행은 설명하거나 그 필요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 책에서 주창(主唱)된 이론이 과거 수년간 영국과 미국의 정기 간행물과 시사 문제적 문헌에서 부단히 심의, 공격, 옹호, 해석 및 외곡의 대상으로 되어 왔음에 비추어, 어째서 이 영어판 번역이 이때까지 지연되었던가 하는 데 대한 이유의 설명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듯 싶다.

1885년 《자본론》의 저자가 사망한 후 얼마 오래지 않아 이 저작의 영어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 무어 씨——맑스 및 본 서문의 필자의 옛날 벗이며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 책의 내용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는 맑스의 유저(遺著) 판권인들이 그 발간을 열망하고 있던 이 책의 번역을 담당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는 원고를 원본과 대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정을 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윽고 무어 씨는 자기의 전문 사업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요망하는 것처럼 빨리 그 번역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겠다는 아벨링 박사의 제안을 즐거이 접수하였다. 동시에 맑스의 막내 딸인 아벨링 부인은 인용문들을 대조할 것 또 맑스가 영어 저서들과 청서로부터 발췌하여 자신이 독일어로 번역한 무수한 인용구를 그 원본 원문대로 회복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녀사는 이 사업을 소수의 불가피적인 폐외를 제하고는 철저히 수행하였다.

이 책의 다음 부분들은 아벨링 박사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1) 제10장 (로동일) 및 제11장 (영어 가치의 불과 량), (2) 제6편 (제19장—제22장에 걸치는 임금), (3) 제24장 제4절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로부터 제24장의 최후 부분, 제25장 및 제8편의 전부 (제26장—제33장)를 포함하는 본권의 종말까지, (4) 저자의 두개의 서문*. 본권의 기타 부분 전부는 무어 씨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이와 같이 각 번역자는 오직 자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전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내가 부담한다.

우리의 전체 사업의 기초로 된 독문 제3판은 1883년 내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그 준비에 있어서 나는 제2판 원문의 어떤 구절들이 1873년에 발간된 불란서어 판 원문¹으로부터 취해온, 구절들로써 대체되어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는, 저자가 남긴 수기를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제2판 원문에 가한 정정은 약 10년 전에 아메리카에서 기도되었으나 주로 적당한 역자가 없었던 탓으로 완수되지 못한 영어 번역에 대한 맑스 자신의 일련의 친필 지시에서 그가 친히 지정해 준 그 정정과 대체로 합치한다. 이 교시의 수고(手稿)를 뉴-자시 주(州) 호보켄 출신인 우리의 오랜 벗 F. A. 초르제가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그것은 불란서어 판으로부터의 약간의 추가적 삽입구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고는 독문 제3판을 위한 최후의 지시보다 여러해 전에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폐의적

* 《자본론》 제1권 영어 판의 장의 번호는 불란서어 판과 마찬가지로 독문판 장의 번호와 합치되지 않는다. 편집부

1 *«Le Capital» par Karl Marx. Traduction de M. J. Roy, entièrement révisée par l'auteur. Paris, Lachâtre* [칼 맑스 《자본론》, M. J. 로아 역, 저자 교열, 파리, 타샤르트 간행], 이 번역은 특히 본권 최후 부분에 있어서는 독문 제2판의 본문에 대한 상당한 정정과 추가를 포함하고 있다.

으로 특히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곤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번역에 제하여 원본 원문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의미로부터 무엇인가가 회생되어야 할 때에 저자 자신은 어떠한 것을 회생시켰겠는가를 알기 위한 지침으로서 불란서어 관 본문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곤난한 구절들에서 참조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자들을 위하여 방지해 들일 수 없었던 하나의 곤난이 있다. 그것은 맑스가 약간의 술어를 비단 일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보통의 정치 경제학에서 쓰는 것까지도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적이었다. 과학의 매개의 새로운 견지는 그 과학의 술어에 있어서의 혁명을 수반한다. 이것은 화학의 실패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화학에서는 술어 전체가 약 20년에 한번씩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일련의 상이한 명칭들로 불려지지 않은 유기 화합물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으리만큼 되어 있다. 정치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상공업 생활의 술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 들여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왔는데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들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개념들의 협소한圈内에 자신을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전연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제전대 고전적 정치 경제학은 리윤패 지대는 노동자가 자기의 기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산물의 지불되지 않은 부분 (기업주는 이 부분을 점유하는 최초의 사람일 뿐이고 그것의 최후적인 유일적인 소유자는 아니다)의 분할 부분이며 몫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심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전적 정치 경제학까지도 리윤패 및 지대에 관한 범속한 관념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했고 생산물의 이 부분 (맑스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칭한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서, 그 총체성에서 연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부분의 기원, 그 성질에 관하여 또는 그 가치의 그 후에 있어서의 분배

를 규제하는 법칙에 관하여 명백한 이해에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산이 농업과 수공업에 제의하고는 구별됨이 없이 마누팩투라라는 술어 속에 포괄되어 왔다. 그리하여 경제사의 본질적으로 각이한 두개의 큰 시대 즉 손 로동의 분업에 기초를 두는 고유의 의미에서의 마누팩투라의 시대와 기계의 적용에 기초를 두는 현대적 공업의 시대간의 구별이 말살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을 다만 일류 경제사의 과도적 단계로서만 고찰하는 리론은 반드시 이 생산 형태를 영원한 또 종국적인 것으로서 간주하는 저술가들의 상용 술어와는 다른 술어를 사용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저자의 인용 방법에 관하여 약간의 말을 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 아닐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인용문들은 보통 방법대로 본문에 있는 주장을 옹호하는 문헌적 실증으로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명제가 어느 때 어디서 또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었는가를 보이며 주기 위하여 경제학자들의 저작으로부터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제가 해당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생산 및 교환 조건의 다소간의 적절한 표현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맑스 자신의 견해와 합치하는 여부 또는 그것이 일반적 타당성을 가지는 여부와는 전연 관계 없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들은 이 과학의 역사로부터 취해진 부차적 주석들로써 본문을 보충하는 것이다.

우리의 번역은 이 저작의 제1부만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제1부는 현저한 정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20년에 걸쳐서 독립적 저작의 지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1885년 나에 의하여 독일에서 간행된 제2부는 제3부가 없이는 두말할 것 없이 미완성의 것이다. 제3부는 아마 1887년 말 이후에야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가 독일어의 원문으로 출판 완료되는 그 때에 이 두 부의 영어 판의 준비에 관하여

생각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륙에 있어서는 《자본론》을 가끔 《로동 계급의 성경》이라고 칭한다. 이 저작에서 도출된 결론들이 비단 독일과 서에서 뿐만 아니라 불란서, 화란, 벨기, 아메리카 및 심지어 이태리와 서반아에서까지도 나날이 가일층 로동 계급의 위대한 운동의 기본 원리로 되고 있다는 것, 모든 곳에서 로동 계급은 이 결론들을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원망(願望)의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로동 운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영국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맑스의 이론은 로동 계급의 대렬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급되어 있는 사회주의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적 상태의 근본적 연구가, 절실한 국민적 필요로서 제기될 그러한 시대가 급속히 박도하고 있다. 생산의 급속한 확대, 또 따라서 시장의 확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산업 체계의 운동은 정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자유 무역은 그 방책이 고갈되었고 만체스터까지도 자기의 이 종래의 경제적 복음(福音)에 의심을 품고 있다¹. 다른 나라들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도처에서 영국의 생산과 충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비단 보호 관세에 의하여 비호되고 있는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립 시장에서도, 그리고 도바 해협이 이 쪽에서까지도 그렇다. 생산력은 기하 급수적으로 장성하고 있는데 시장의 확대는 기껏해야 산술 급수적으로 진행되고 있

1 금일 오후에 개최된 만체스터 상업 회의소 4분기 정기 회의에서는 자유 무역의 문제에 관하여 열렬한 토론이 벌어졌었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의문이 제출되었다. 《다른 민족들이 영국의 자유 무역의 전례에 따르리라는 40년에 걸친 기대가 수포에 돌아 간 결과 본 상업 회의소는 이제 자기의 힘'장을 재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결의문은 단 1표의 다수로써 기각되었다. 즉 찬성——21표, 반대——22표. (《Evening Standard》지 1886년 11월 1일호)

다.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반복되어 온 정세, 번영, 괴임 생산 및 공황의 10년을 1기로 하는 순환은 사실 중지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속적이며 만성적인 침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몰아 넣어야 할 것이다. 것처럼 열렬히 기대되는 번영기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번영기의 접근을 예고하는 듯 한 징후가 감촉될적 마다 이 징후는 즉시에 또 다시 사라지곤 한다. 겨울이 닥쳐 올 때마다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문제가 되풀이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의 수는 해마다 여전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자들이 참다 못 하여 자기 수중에 자기 운명을 장악하게 될 그 순간을 거의 측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순간에 있어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영국 경제의 역사 및 정세를 연구한 결과 자기의 전체 리론을 수립하였고 이 연구에 기초하여 영국은 적어도 구라파에 있어서는 완전히 평화적 합법적 수단으로써 필연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영국의 지배 계급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반란》 없이 이 평화적 합법적 혁명에 굴복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거의 없다고 첨가하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

1886년 11월 5일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 4 판 서문

제4판은 본문 및 그와 아울러 주석(註釋)의 필수록 중국적인 확정을 나에게 요구하였다. 어떻게 내가 이 요구를 수행하였는가를 다음에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불란서어 판과 맑스의 수기(手記)를 대조한 다음 전자로부터 약간의 새로운 보충을 독문 본문에서 채용하였다. 그것들은 80페이지 (제3판 88페이지), 453—460페이지 (제3판 509—510페이지), 547—551페이지 (제3판 600페이지), 591—593페이지 (제3판 644페이지) 및 596페이지 (제3판 648페이지)의 주 79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불란서어 판과 영어 판의 전체에 따라 광산 노동자에 관한 장문의 주 (제3판 509—515페이지)를 본문에 편입하였다 (제4판 461—467페이지). 기타의 사소한 개정들은 순전히 기술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역사적 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개소에는 약간의 해설적인 보충주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보충주는 모두 각괄호(角括弧) 속에 들어있고 나의 성명의 첫 자들로써 표시되어 있다.

얼마 전에 나온 영어 판을 위하여 다수 인용문을 완전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어 판을 위하여 맑스의 막내 딸 엘레아나가 전체의 인용 개소를 원문과 대조하는 수고를 담당하여 준 결과 인용문의 압도적 대다수를 이루는 영문 원본으로부터의 인용문에 있어서는 영어 판에는 독일어 판으로부터의 재번역이 아니고 영어 원본의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리하여 나는 제4판에서는 이 영어 판 본문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여러 개소에서 사소한 부정확한 점이 발견되었다. 일부분은 필가장으로부터 옮겨 쓸 때에 오ഴ하는 때서, 일부분은 판을 세번 거듭하는 동안 쌓이고 쌓인 오식에서 생겨난 인용 페이지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다. 발췌장으로부터 대량적 인용을 할 때에는 불가피한 착오로서 인용부 또는 생략 점선의 위치가 잘못 된 것이 있었다. 여기 저기에 인용문들의 번역에 있어서 그리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선택되어 있었다. 몇 개소는 맑스가 아직 영어를 알지 못하고 영국 경제학 서적들을 불란서어 역으로 읽고 있었을 당시의 1843—1845년에 파리에서 작성된 낡은 필가장으로부터 인용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 이중적 번역의 결과 인용문의 의미가 약간 달라진 개소——페컨데 스튜아트, 유어 기타의 경우——에서는 나는 이제 는 영어 원문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소한 부정확한 점과 소홀히 한 점은 이 밖에도 더 있다. 이제 만약 독자가 이 제4판을 이전 판들과 비교한다면 그는 모든 이 힘드는 교정 수속이 이 책에 이렇다 할만한 변경을 추호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오직 하나의 인용문만이 출처 미상인데 그것은 리차드 존스로부터의 인용문(제4판 562페이지 주47)이었다. 아마도 맑스가 책의 표제를 잘못 썼을상 싶다*. 기타의 인용문 전체는 그 완전한 실증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는 현재의 정확한 형태는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의 낡은 이야기에 소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내가 알기로는 맑스의 인용문의 정당성이 의문으로 되었던 경우는 단 한번 밖에 없다. 그런데 맑스의 사후에도 이 인용문이 이야기꺼리로 되어 있기에 나는 여기서 그것을 묵과할 수

* 맑스는 책의 표제를 잘못 쓴 것이 아니고 페이지 수를 잘못 지시하였다. 즉 그는 37페이지 대신에 36페이지를 지시했던 것이다. 편집부

없다.

독일 공장주 동맹의 기관지인 베를린의 《콘코르디아》(《Concordia》——평화의 신) 지상에 1872년 3월 7일 《칼 맑스는 어떻게 인용하는가》라는 하나의 익명(匿名) 논문이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도덕적 분개를 가지고 비의회적(非議會的) 용어를 담뱃 썩 가면서 1863년 4월 16일에 진술한 글라드스톤의 예산 연설로부터의 맑스의 인용(이 인용은 1864년의 국제 노동자 협회의 창립 선언서에 게재되었고, 《자본론》 제1권 제4판 617페이지, 제3판 671페이지, 편집부에 반복되었다)은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맑스가 인용한 《이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는……전'적으로 유산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문'구는 《한사드》[한사드 상회에서 발행한 영국 국회 의사록]의 준 판본적 속기록에는 한 마디도 실려 있지 않다고 상기 논문 필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 문'구는 글라드스톤의 연설 가운데는 아무 베도 없다. 그 연설에서는 정반대의 말이 언급되어 있다. (이 다 음부러는 굵은 활'자로) 맑스는 이 구절을 형식적으로 또 실질 상으로 위조 첨가한 것이다!》라고.

그해 5월에 《콘코르디아》의 이 호를 총부 받은 맑스는 이 익명자에 대하여 《폴크스슈타트》(《인민 국가》) 6월 1일 호에서 답변하였다. 그는 자기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인용했던 것을 상기할 수 없었던 까닭에 우선 두개의 영국 간행물 속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인용문을 적발해 내고 다음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는 데 국한하였다. 후자에 의하면 글라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라의 재부에 관한 사태는 이와 같다. 만약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가 오직 부유한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거의 불안과 비통으로써 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증대는 노동 주민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내가 방금

진술한 재부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 제급에 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글라드스톤은 만약 그렇다면 유감 천만한 일인데 사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실신할 정도의 권력과 재부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 제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준 관보적인 《한사드》에 관하여 말한다면 맑스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라드스톤 씨는 후일에 틀어 고친 자기 연설의 이 수정문에서는 명리하게도 영국의 재정 대신의 말로서는 확실히 자기 지위를 위협하게 하는 그 개소를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국 의회의 전래의 상투 수단이지 결코 베벤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한 라스케르의 발명은 아니다》.

닉명 씨는 더욱 화를 냈다. 그는 7월 4일의 《콘코르디아》 지상에서의 자기의 답변에서, 일체 간접적인 문거를 찢혀 놓고 의회 연설은 속기록에 의해서 인용하는 것이 《판례》로 되어 있다는 것, 《타임스》(이 속에는 《위조》문'구가 들어 있다)의 보도와 《한사드》(여기에는 이 문'구가 없다)의 보도는 《실질상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또 《타임스》의 보도는 《창립 선언서 중의 그 악명 높은 개소와는 정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듯이 가만가만 말하였다. 그때 이 모씨는 《타임스》의 보도는 이 소위 《정반대》의 것과 아울러 바로 그 《악명 높은 개소》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는 슬쩍 모르는척 해 두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닉명 씨는 그가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 오직 새로운 체계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증명한 바와 같은 《철면피한 거짓》으로 가득찬 자기의 논문에서 《mala fides》[《악의》], 《부정적》, 《허위 인증》, 《이 허위 인용》, 《철면피한 거짓》, 《전연 위조된 인용》, 《이러한 위조》, 《단순히 수치스러운》 등등과 같은 극단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동시에 논쟁 문제를 슬며시 다른 분야에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즉 <비허위적인 너명 씨>가) 클라드스톤의 언사의 내용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는가》를 별개의 논문에서 설명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아무런 의의도 없는 그의 이 전해가 마치 조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듯이! 이 별개의 논문은 7월 11일의 《콘코르디아》 지상에 실렸다.

맑스는 이에 대하여 8월 7일의 《폴코스슈타트》 지상에서 다시 한번 답변하였는데 이번에는 해당 개소에 관한 기사를 1863년 4월 17일의 《모닝 스타》 및 《모닝 아드버라이저》로부터서도 인용하였다. 이 두 신문에 의하면 클라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실진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가 실지로 부유한 계급 (classes in easy circumstances)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불안……으로써 볼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증가는 전연 재산 소유자 계급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entirely confined to classes possessed of property)라고.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기사 속에도 맑스가 《위조 첨가》하였다고 하는 문'구가 문'자 그대로 들어 있다. 더 나아가 맑스는 다음 날 아침에 나온 서로 독립되어 있는 세 개의 신문 기사가 그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실증되는 이 문'구가 유명한 《판페》에 따라서 연설자에 의하여 검열된 《한사드》의 의사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 것, 클라드스톤은 그것을 맑스의 말을 빌려 쓴다면, 《후일에 슬쩍 삭제했다》는 것을 《타임스》지와 《한사드》의 원문들을 대비함으로써 다시 한번 확정하고 끝으로 맑스는 너명 씨를 이 이상 더 상대로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성명했다. 그만 했으면 너명 씨도 다시는 할 말이 없었던지 적어도 맑스는 《콘코르디아》의 그 다음 호들의 기증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은 종말을 지어 망각되어 버린 것 같이 보이다. 하기는 그후 켐브릿지 대학교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로부

머 1,2차 맑스가 《자본론》에서 언어도단적(言語道斷的)인 문필상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정체 불명의 풍설이 전해 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확실한 것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1883년 11월 29일 즉 맑스의 서거후 8개월을 지나서 《타임스》 지상에 켐브릿지 트리니티 대학으로 부터 온 세들리 테일러 라는 서명이 있는 하나의 서한이 나타났다. 극히 온건한 협동 조합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줄자는 그 서한에서 전연 뜻 밖에 우리에게 비단 켐브릿지의 류언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콘코르디아》지의 낙명 씨에 관해서도 드디어 해명을 주었다.

《아주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트리니티 대학의 줄자는 말한다——……글라드스톤의 연설을 선언서(인허내쇼날 창립의)에 인용한 그 분명한 동기로 되어 있었던 악의(mala fides)를 폭로하는 권리가 브렌타노 교수(당시는 브레슬라우 대학에 있었고 현재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있다)에게 보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인용문을……변호하려고 시도하던 칼 맑스 씨는 브렌타노의 당당한 공격을 받자 매번에 곤경에 빠졌으나 그래도 최후 발악(deadly shifts)으로 배'심 중계도 글라드스톤 씨는 1863년 4월 17일의 <타임스> 지상에 실린 자기 연설의 보도를 그것이 <한사드>에 나타나기 전에 뜯어 고쳐 영국 제정 대신의 말로서는 확실히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게 하는 개소를 말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렌타노가 원문들을 세밀하게 대조함으로써 교활하게 전후 관계를 절단시킨 개별적인 인용에 의하여 글라드스톤의 말에 전가된, 그 의미를 절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임스>와 <한사드>의 보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 맑스는 여가가 없다는 구실 밑에 퇴각하여 버렸던 것이다!》.

한 동안 떠돌던 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콘코르디아》지상의 브렌타노 씨의 낙명론전은 켐브릿지

의 생산—협동 조합적 환상에 것처럼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독일 공장주 동맹의 성(聖) 조지인 브렌타노가 바로 이렇게 서서 바로 이렇게 검을 휘둘러 <멋이 있게 치>니 저승의 톱톱스는 그만 <대번에 곤경에 빠져> 그의 발 밑에서 <단말마의 경련>에 꿈틀거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리오스토적 전투기는 우리의 성 조지의 궤계를 엄호하려는 데 불과하다. 여기서 문제로 된 것은 벌써 <위조 첨가된 것>, <위조>가 아니고 오직 <교활하게 전후 판계를 절단시킨 인용> (craftily isolated quotation)인 것이다. 전체 문제는 어느새 다른 분야에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성 조지와 그의 켐브릿지의 방패잡이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엘레아너 맑스는 <타임스>가 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거절한 까닭에 월간 잡지 <투데이> 1884년 2월호에서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서 그는 논쟁을 일찌기 문제로 되어 있었던 다음과 같은 유일한 점에 환원시켰다. 즉 맑스가 문제의 문'구를 <위조 첨가>하였던가 아니 하였던가? 세들리 테일러 씨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맑스와 브렌타노간의 논쟁에 있어서는 <글라드스톤 씨의 연설 가운데 어떤 한 문'구가 있었느냐 또는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인용의 의도가 글라드스톤의 말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었던가 또는 그것을 외곡하는 데 있었던가 하는 문제에 비하면 전연 제2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라고. 그 다음 그는 <타임스>의 보도가 <실지로 모순되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전후 판제는 만약 이것을 정당하게,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적—글라드스톤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글라드스톤 씨가 말하려고 원했던 것을 보이며 주고 있다고 (<투데이> 1884년 3월호). 여기서 가장 우스운 것은 켐브릿지의 우리 출자가 이제는 연설을 다투는 브렌타노의 <판례>

에 따라 《한사드》에서 인용하지 않고 그 보도가 《조잡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같은 브렌타노가 특징 지은 《타임스》로부터 열심히 인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사드》에는 이 속명적인 문'구가 들어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할 밖에!

엘레아너 맑스가 《루테이》의 동일호 지상에서 이 논의를 분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헤일러 씨가 1872년의 논쟁을 읽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나마 그의 거짓말은 비단 없었던 것을 《위조 첨가》하는 데만 있지 않고 있었던 것을 《삭제》하는 데도 있다. 또 그가 이 논쟁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발언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하여튼 그는 맑스가 《위조 첨가》를 했다고 하는 자기 벗 브렌타노의 고발을 다시는 지지할 용기를 상실한 것만은 확실하다. 반대로 이제는 맑스가 허위 첨가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한 문구를 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문'구는 창립 선언서 제5페이지에 소위 《위조 첨가》되었다고 하는 문'구보다 몇줄 앞에 인용되어 있다. 글라드스톤의 연설가운데 있는 《모순》에 관해서 말한다면 《자본론》 618페이지 (제3판 672페이지) 주 105에서 《글라드스톤의 1863—1864년 예산 연설에 있어서의 허다한 경탄할만한 모순》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맑스가 아니고 누구인가! 그는 다만 세들리 헤일러 식으로 (à la) 이 모순을 자유주의의 아름다운 정신 속에 해소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엘레아너 맑스의 답변에 있어서의 결론적 요약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맑스는 인용할 가치 있는 것을 말살하지도 않았고 추호도 허위 첨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글라드스톤의 연설에서는 확실히 언급되었으나 어떻게 되어서 《한사드》의 기사에서는 탈락된 그 연설의 어떤 한 구절을 부활시켜서 망각으로부터 구원해 냈던 것이다》.

이것으로써 그후 세들리 헤일러 씨도 진정하였다. 20년에

결쳤던 또 2대국에 미치였던 이 교수적 전 출정의 결과로 맑스의 문필상량심정을 누구도 그 이상 감히 전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또 금후 브렌타노 씨는 《한사드》의 법왕(法王)적 무과실성을 믿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세들리 테일러 씨는 아마 브렌타노 씨의 문헌적 전투 보고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1890년 6월 25일 런던에서

에프·엔겔스

제 1 부

자본의 생산 과정

제 1 편 상 품 및 화 폐

제 1 장 상 품

제 1 절 상품의 두 요인 : 사용 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¹으로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요소적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상품은 우선 그의 속성에 의하여 인간의 어떤 종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외계의 대상이며 물건이다. 이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레컨대 위(胃)로부터 일어 나는가 또는 환상(幻想)으로부터 일어 나는가 하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². 또 그 물건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

1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3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쎬야어 판, 제12권, 제1부, 13페이지].

2 《욕망은 결핍을 전제로 한다. 욕망은 마음의 식욕이며 그것이 마음에 일어 나는 것은 기아(飢餓)가 육체에 일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다……대다수(물건의)는 마음의 결핍을 채워 주는 까닭에

는가 즉 직접 생활 수단으로서, 다시 말하면 소비 대상으로서인가, 혹은 우회적 방법으로, 생산 수단으로서인가 하는 것도 여기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

철, 종이 등등과 같은 매개의 유용물은 이중의 관점에서 즉 질'적 측면과 량'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매개의 그러한 물건은 다수 속성의 총체이고 따라서 여러 방면에 소용될 수 있다. 이 여러 방면, 따라서 물건들의 다양한 사용 방식을 발전하는 것은 역사적 발전의 업적이다³. 유용물의 량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척도의 고안도 또한 그렇다. 상품 척도의 차이는일부분은 측정되는 대상의 성질의 차이에 기인하며 일부분은사회적 관습에 기인한다.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 가치로 되게 한다⁴. 그러나 이 유용성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품체(商品體)의 제 속성에 의하여 제약되며, 상품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 소맥, 다이아몬드 등등과

가치를 가진다». 니콜라스 바본 《신 화폐를 더 정하게 구조할 때 관한 문술, 루크 씨의……고찰에 대하여 대답함》. 런던, 1696년, 2,3페이지.

3 《물건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내재적 가치 (virtue (가치)) —이것은 바본에 있어서는 사용 가치를 표시하는 독자적 용어이다)를 가진다. 테킨대 철을 끌어 당기는 자석(磁石)의 능력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N·바본 《신 화폐를 더 정하게 구조할 때 관한 문술》. 런던, 1696년, 6페이지). 철을 끌어 당기는 자석의 속성은 그것에 의하여 자극성(磁極性)이 발견되자 비로소 유용하게 되었다.

4 《어떤 물건이든지 그 자연적 가치 (natural worth)는 그것이 인간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또는 편의에 이바지하는 데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존 목크 《리자 인하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 1691년 《저작집》. 런던, 1777년판, 제2권, 28페이지). 17세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국 저술가들이 《worth》 (가치)를 사용 가치의 의미에서 또 《value》 (가치)를 교환 가치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사물을 제르만 계통의 말로, 반성된 사물을 라틴 계통의 말로 표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어의 정신에 완전히 합치한다.

같은 상품체 그 자체가 사용 가치 또는 재물인 것이다. 상품체의 이 성질은 리용되는 제 속성의 점유에 많은 로동이 요구되는가 또는 적은 로동이 요구되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용 가치를 교환할 때에는 폐컨대 몇 타의 시계, 몇 엘레의 아마포(亞麻布), 몇 톤의 철 등등과 같이 항상 그 량⁵적 규정성이 전제로 되어 있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상품학이라는 특수한 학과의 연구 대상으로 된다⁶. 사용 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의 과정에서만 실현된다. 각종 사용 가치는 재부의 사회적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재부의 물재적(物材的) 내용을 형성한다. 우리가 교환하려는 사회 형태에서는 제 사용 가치는 그와 동시에 교환 가치의 물재적 담당자로 된다.

교환 가치는 우선 량⁷적 관계로서 즉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⁸——시간과 장소에 따라 부단히 변동하는 관계——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환 가치는 어떤 우연적이며, 순전히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품 자체 속에 들어 있는 내재적 교환 가치 (valeur intrinsèque)라는 것은 일종의 *contradictio in adjecto* [형용상 모순]인 것 같이 보인다⁹. 이 문제를 더 자세히 교환하여 보자.

특정 상품, 폐컨대 한 킬로의 소맥은 X량의 구두약, 혹은

5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누구나 상품 구매자로서는 상품에 관한 백과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factio juris* [법적 의제——法的擬制]가 지배하고 있다.

6 《가치란 어떤 물건과 다른 물건, 어떤 생산물의 일정량과 다른 생산물의 일정량이 교환되는 비율이다》(르·로르는 《사회적 이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880페이지).

7 《어떠한 물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N·마본 《신 화폐론 더 정확하게 주조할 때 관한 논술》. 런던, 1696년, 6페이지). 혹은 베를테르가 말한 것과 같이

물건의 가치는

그것이 가져 오는 것만큼 그만큼이다.

양량의 명주, 혹은 2량의 금 등등과 교환된다. 즉 각양 각색의 비율로 다른 상품들과 교환된다. 따라서 소맥은 어떤 한개의 유일한 교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환 가치들을 갖는다. 그러나 1량의 구두약, 1량의 명주, 2량의 금 등등은 모두 소맥 한 킬로의 교환 가치들인 까닭에 1량의 구두약, 1량의 명주, 2량의 금 등등은 서로 대치(代置)될 수 있는, 즉 양이 서로 같은 교환 가치들이 아니면 안된다. 이로부터 첫째로 동일한 상품의 상이한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로 도매체 교환 가치는 자기 자신과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내용의 표현 방식, 또는 《현상 형태》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나아가 두개의 상품, 가령 소맥과 철을 실패로 들어 보자. 그것들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교환 비율은 항상 소맥의 소여량이 철의 일정량에 등치(等置)되는 한개의 방정식, 예컨대 1킬로의 소맥 = α 켈트네르의 철로써 표시될 수 있다. 이 방정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개의 각이한 물건 즉 1킬로의 소맥과 α 켈트네르의 철 속에는 동일한 양의 어떤 공통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양자는 결코 제1의 것도 아니며 제2의 것도 아닌 어떤 제3자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교환 가치인 이상 모두 제3자에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간단한 기하학적 실패로써 설명하기로 하자. 모든 직선형의 면적을 결정하며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삼각형들로 분할한다. 또 삼각형 그 자체는 그 외전상의 형상과는 전연 다른 표현으로, 즉 저변과 높이와의 적(積)의 2분의 1으로 환원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교환 가치들도 하나의 공통물——교환 가치들은 그것의 어떤 양을 표시하고 있다——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물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의 자연적 속성일 수는 없다. 상품의 물체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오직 그것이 상품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즉 사용 가치가 되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 교환의 대상으로 된다. 다른 한편 상품의 사용 가치들이 사상(捨象)된다는 바로 그 점이 분명히 상품 교환 관계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즉 상품 교환 관계의 내부에 있어서는 매개의 사용 가치는 그것이 적당한 비율만 가진다면 다른 어떠한 사용 가치와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또는 로(老) 바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상품은 다른 종류의 상품과, 만약 그들의 교환 가치량이 동일하다면 다를 것이 없다. 동일 분량의 교환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구별도 없다»⁸. 사용 가치로서는 상품은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구별되나, 교환 가치로서는 상품은 오직 '량'적 차이만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속에는 단 한 원자의 사용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만약 상품체들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들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속성만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동 생산물도 이것을 벌써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 이상 우리는 그와 동시에 노동 생산물이 사용 가치로 되는 데 필요한 물체적인 구성 부분들과 형태까지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 노동 생산물은 '락자도 집도 방사(紡絲)도 또는 기타의 어떤 유용물도 아니다. 그것의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모든 속성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것은 또한 가구의 노동이나 건축 노동이나 방적 노동이나 기타 어떤 일정한 생산적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다. 노동 생산물의 유용

8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지니는 연 혹은 철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지니는 은이나 금과 교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 동일하다》(N·바본 《신 화폐를 더 정확하게 구조할 데 관한 논술》, 런던, 1696년, 53 및 7페이지).

적 성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노동의 유용적 성질도 사라졌으며 따라서 이 노동들의 각이한 구체적 형태가 사라졌다. 그것들은 이제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모두가 동일한 인간적 노동으로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

그러면 노동 생산물 속에 들어 있는 이 residuum (잔여물)을 고찰하자. 그 속에는 모두 동일하게 투명한 대상성 밖에 남지 않았으며, 차별성을 잃어버린 인간 노동, 즉 그 지출 형태에는 관계 없는 인간 노동력 지출의 단순한 응결물(凝結物)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이 모든 물건들은 이제 그 생산에 인간 노동력이 지출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인간 노동이 퇴적(堆積)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뿐이다. 물건들은 그들에게 공통되는 사회적 실체의 결정(結晶)으로서, 가치, 상품 가치인 것이다.

상품들의 교환 관계 자체에 있어서는 그들의 교환 가치는 그들의 사용 가치와 전연 관계 없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제 만약 우리가 실제로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규정된 것과 같은 그의 가치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상품들의 교환 관계 또는 교환 가치에 표현되는 그 공통물이 그것들의 가치이다. 연구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 방식 또는 필연적인 현상 형태로서의 교환 가치에 다시 돌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가치를 이 형태와는 상관 없이 고찰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사용 가치 또는 향리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오직 그 속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 대상화 즉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실체>인 노동의 분량에 의해서이다. 노동 자체의 양은 그의 시간적 계속으로써 측정되며 그리고 또 노동 시간은 시, 일(時, 日) 등등과 같은 시간의 일정

부분을 자기의 측정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어떤 상품의 가치가 그 생산 과정에서 지출된 노동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상품을 생산하는 인간이 라타하거나 줄릴하면 할수록, 그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까닭에, 그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치의 실체를 형성하는 노동은 동일한 인간 노동력의 지출인, 같은 인간 노동이다. 상품 세계의 가치들로 표현되는 사회의 총노동력은 비록 그것이 무수한 개인적 노동력들로써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동일한 인간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 매개의 개인적 노동력은 그것이 사회적 평균 노동력의 성격을 띠며, 또 그와 같은 사회적 평균 노동력으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역시 평균적으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만을 요하는 한, 다른 노동력들과 다름이 없는 동일한 인간 노동력이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현존 생산 조건 밑에서 또 그 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의 숙련과 강도의 평균적 수준 밑에서 어떤 사용 가치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 시간을 말한다. 레컨대 영국에서는 증기 직조기가 채용된 이후에는 일정량의 면방사를 직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증전에 비하여 아마 절반의 노동량만이 요구될 것이다. 증기 직조기가 나온 후에도 영국의 수직공(手織工)은 이러한 전화에 증전과 같은 노동 시간은 들었을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이제는 그의 개인적인 일노동 시간의 생산물은 사회적인 반노동 시간 밖에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가치는 증전의 가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용 가치의 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 즉 그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인 것이다⁹. 이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상품은 일

9 제2판 주. 《그것들(소비품들)이 상호 교환되는 때에 있어서

반적으로 그 종류에 속하는 평균적 표본(標本)으로 간주된다¹⁰. 따라서 동일한 분량의 노동이 들어 있는, 즉 동일한 노동 시간 내에 생산될 수 있는 상품들은 동일한 크기의 가치를 갖는다. 어떤 상품 가치의 매개 다른 상품 가치에 대한 비례는 전자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후자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대한 비례와 동일하다. 《가치로서는 모든 상품은 일정량의 응결된 노동 시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¹¹.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만약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력이 변화할 때마다 변화한다. 노동 생산력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하여, 개중에도 노동자들의 평균적 숙련 정도, 과학 발전 수준과 그 기술 공학적 응용의 정도, 생산 과정의 사회적 결합, 생산 수단의 규모와 능률에 의하여, 또 끝으로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노동량이 폐천대 풍년에는 8부셀의 소맥으로 표현되며 흉년에는 오직 4부셀의 소맥으로 표현된다. 동일한 노동량의 부광(富鑛)에서는 빈광에서보다 더 많은 금속을 공급하는 등등이다. 금강석은 지구 표면에서 드물게 산출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많은 노동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것은 근소한 체적(體積)으로써 많은 노동을 표현한다. 제코브는 금

의 그것들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또 보통 사용되는 노동의 분량에 의하여 규정된다》(《화폐 일반, 특히 공채 기타의 리자에 관한 약간의 고찰》, 런던, 36페이지). 전 세기의 이 주목되는 녀명 저서는 간행 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 그것은 1739년 혹은 1740년경의 요지 제2세 때에 발간된 것이 분명하다.

10 《동일한 종류의 전체 생산물은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바 그 가격은 개별적 경우의 특수한 조건과는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결정된다》(르·트로는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46년, 893페이지).

11 칸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6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16페이지].

이 일찌기 그의 완전한 가치에 따라 지불된 적이 있었던가를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금강석에 관하여는 일층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에슈웨지에 의하면 1823년에 브라질의 금강석 광의 과거 80년간 전 채굴액은 브라질의 사탕 또는 커피 재배업의 1개년 반의 평균 생산액에도 달하지 못했으나 전자는 훨씬 더 많은 노동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다. 더 부유한 광산이 발견되면 동일량의 노동이 더 다량의 금강석으로 표현될 것이며 따라서 그 가치는 저락할 것이다. 만약 근소한 노동으로써 석탄을 금강석으로 전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금강석의 가치는 벽돌의 가치 이하로 저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물품의 제조에 요구되는 노동 시간은 그만큼 더 작으며 그 속에 결정(結晶)되어 있는 노동의 양이 더 적고 그의 가치가 더 작다. 반대로 노동 생산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그만큼 더 많으며 그의 가치는 더 크다.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이 상품 속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의 양에 대하여는 정비례로, 그 생산력에 대하여는 반비례로 변동한다.

물건은 가치가 아니면서도 사용 가치일 수 있다. 인간을 위한 물건의 유용성이 노동의 중개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레컨대 공기, 처녀지(處女地), 자연적 목장, 야생림 등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하며 또 인간 노동의 생산물일 수 있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으로써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는 사용 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 즉 사회적 사용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또 비단 덮어 놓고 타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다. 중세기 농민은 봉건 영주를 위하여는 공납(貢納)으로 바칠 곡물을 생산하였고 승려를 위하여는 10분의 1세로 바칠 곡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공납으로

바친 폭물이나 10분의 1세로 바친 폭물은 그것들이 타인을 위하여 생산되었다는 것만으로써는 아직 상품으로 되지 않았다.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그 사용 가치를 사용하는 타인의 손에, 교환을 통하여, 이전되어야 한다} 11a. 끝으로 물건은 사용 대상이 아니고서는 가치일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소용 없는 물건이라면 그 속에 들어 있는 노동도 역시 무용한 것으로 되어 그것은 노동으로서 계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못한다.

제 2 절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

원래 상품은 이중적인 것으로 즉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후에 노동도 또한 그것이 가치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벌써 사용 가치의 창조자로서의 그것에 속하는 표징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노동의 이 이중적 성질은 나에 의하여 처음으로 비판적으로 논증된 것이다¹². 이 점은 정치 경제학의 이해를 좌우하는 중심점으로 되는 까닭에 여기서 그것을 더 자세히 해명하기로 한다.

두 상품, 가령 1매의 저고리와 10벌레의 아마포를 실패로 들자. 전자의 가치가 후자의 가치의 2배라고 하자. 그럴 때

11a {제4판 주. 이 팔로 속에 들어 있는 말이 없었던 탓으로 마치 맑스는 생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의하여 소비되는 생산물은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간주했다는 듯한 오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까닭에 나는 이것을 삽입하기로 하였다. F·엔겔스}.

12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12, 13페이지 기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21, 22, 23페이지 기타].

에는 10벨레의 아마포= w 라고 한다면 1매의 저고리= $2w$ 이다.

저고리는 특수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 가치이다.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종류의 생산 활동이 필요하다. 이 생산 활동은 그 목적, 작업 방식, 대상, 수단 및 결과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같이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에, 즉 노동 생산물이 일정한 사용 가치라는 점에, 그 유용성이 표현되는 로동을 우리는 간단히 유용 노동이라고 칭한다. 이 관점에서는 로동은 항상 그것의 유용적 효과와 관련하여 고찰된다.

저고리와 아마포가 질'적으로 각이한 사용 가치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존재를 조건 짓는 노동들 즉 재분과 적조는 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만약 이 두 물건이 질'적으로 각이한 사용 가치, 따라서 질'적으로 각이한 유용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으로서 서로 대립할 수 없을 것이다. 저고리는 저고리와는 교환되지 않으며 어떤 사용 가치든지 동일한 사용 가치와는 교환되지 않는다.

상이한 종류의 사용 가치 즉 상품체들의 총체에는 그만큼 각이한 류, 종, 족(族), 아종(亞種), 변종으로 나누어, 다양한 유용 노동의 총체가, 한 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분업이 나타난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 생산의 존재 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 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존재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인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분업이 수행되었으나 그러나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는 되지 않았다. 혹은 더 비근한 실패를 든다면 매개 공장에서는 체계적으로 분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분업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개인적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매개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독립적인, 호상 의존되어 있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상품으로서 서로 대립한다.

그리하여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매개 상품의 사용 가치 속

에는 일정한 합목적적인 생산 활동 즉 유용 로동이 들어 있다. 사용 가치들은 만약 그것들 속에 질'적으로 각이한 유용 로동이 들어 있지 않다면 상품으로서 서로 매립할 수 없다. 그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상품 생산자 사회에 있어서는, 독립 생산자들의 사'적 행위로서, 서로 관계 없이 수행되는 유용 로동의 이러한 질'적 차이는 많은 가치를 가지는 체계에로, 사회적 분업에로 발전된다.

저고리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을 입는 자가 재봉사 자신이든 또는 재봉사의 주문객이든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 없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저고리는 사용 가치로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저고리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간의 관계도 재봉 노동이 특수한 직업으로 즉 사회적 분업의 독립적인 일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피복에 대한 수요가 절박하게 되었던 그 곳에서는 인간은 전문적인 재봉사가 나오기 전부터 몇 천년 동안이나 재봉일을 하여 왔다. 그러나 저고리들, 아마포와 같은, 완성된 형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재적 재부의 온갖 요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자연 물재를 인간의 일정한 욕망에 적응시키는 특별한, 합목적적 생산 활동을 거쳐서 창조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의 창조자, 유용 노동으로서의 노동은 어떠한 사회적 형태와도 무관계한,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그것 없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 대사가 불가능한, 즉 인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영원한 자연적 필연성이다.

저고리, 아마포 등등과 같은 사용 가치, 한 마디로 말하면 상품체는 자연 물재와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이다. 저고리, 아마포 등등 속에 들어 있는 일체의 각이한 유용 노동의 총화를 제거한다면 뒤에 남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아무런 힘도 없이 천연적으로 현존하는 일정한 물질적 기초 뿐이다. 인

간은 자기의 생산에 있어서 오직 자연 자체가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물재의 제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을 뿐이다¹³. 그 뿐만 아니다. 이 변형로동 자체에 있어서도 인간은 부단히 자연력의 작용에 의거한다. 따라서 로동은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사용 가치, 물재적 재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윌리엄 페리가 말한 바와 같이 로동은 재부의 아버지이고 토지는 그의 어머니이다.

이제는 소비 대상인 한에서의 상품으로부터 상품 가치에로 넘어 가자.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저고리는 아마포의 2배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량'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량'적 차이는 지금 당장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만약 저고리 1매의 가치가 아마포 10벌레의 가치의 2배에 해당한다면 아마포 20벌레는 저고리 1매와 동일한 크기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한다. 가치로서는 저고리와 아마포는 동일한 실체를 가지는 물건들이며 동일 종류의 로동의 객관적 표현들이다. 그러나 재봉과 직조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로동들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인간이 번갈아 재봉도 하며

13 《우주의 모든 현상은 그것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야기되든지 혹은 자연의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 야기되든지 막론하고, 진실한 창조가 아니고 오직 물'질의 형태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결합과 분리, 이것이 인간 의식이 재 생산의 관념을 분석할 때에 발견하는 유일한 요소물이다. 토지와 공기와 물이 틀에서 곡초(穀草)로 전화되며 혹은 벌레의 점액 분비물(粘液 分泌物)이 인간의 수중에서 명주로 전화되며 혹은 개개의 금속 조각이 배합되어 시계라는 기계가 형성되는만큼, 가치(사용 가치를 말함. 하기는 벨리 자신은 여기서 중농주의자와의 자기의 논쟁에 있어서 그가 어떤 종류의 가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있다)와 재부의 재 생산에 있어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이다》(페트로 베리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1773년에 처음 출판됨) 쿠스토디 편찬, 이태리 경제학자 저작집, 현대 부, 제15권, 21, 32페이지).

직조도 하는, 따라서 각이한 이 두 종류의 노동이 동일한 개인의 노동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은 각이한 개인들의 확고히 분화된 기능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사회도 있다. 그것은 마치 재봉사가 오늘에 만드는 저고리와 명일에 만드는 바지가 동일한 개인적 노동의 변종을 대표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이다. 다음 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방향이 변화하는데 따라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부분이 번갈아 혹은 재봉의 형태로 혹은 직조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일견하여 분명한 일이다. 노동의 이와 같은 형태 변화가 마찰 없이 수행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어차피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생산 활동의 일정한 성격, 따라서 노동의 유용적 성격을 사상한다면 생산 활동에서 남는 것은 그것이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하나의 사실 뿐이다. 재봉과 직조는 비록 질'적으로 각이한 생산 활동이기는 하나 둘 다 인간의 뇌수, 근육, 신경, 손 등등의 생산적 지출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모두 인간 노동인 것이다. 그것들은 오직 인간 노동력 지출의 두 각이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노동력이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많거나 적거나 발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에는 단순히 인간 노동, 즉 인간 노동 일반의 지출이 표현되어 있다. 부르조아 사회에 있어서 장군이든 은행가는 거대한 역할을 놀지만 보통 인간은 극히 보잘 것 없는 역할¹⁴밖에 놀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하고 있는 인간 노동도 또한 바로 그렇다. 인간 노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없는 매개의 보통 인간이 자기의 육체 속에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순한 노동력의 지출을 말한다. 단순한 평균적 노동은 각이한 나라에 있어서 또 각이한 문화적 시기에 있어서 그

14 헤겔 《법 철학》. 베를린, 1840년, 250페이지, 제190절 참조.

성격을 달리하는 것만은 틀림 없으나 그러나 소여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것이다. 복잡 노동은 다만 몇군데 또는 승(乘)해진 단순 로동을 의미할 뿐이며 그리하여 더 적은 분량의 복잡 노동은 더 많은 분량의 단순 노동에 해당한다. 복잡 노동의 단순 노동에로의 그와 같은 환산이 부단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경험이 보이여 주는 바이다. 어떤 상품은 가장 복잡한 노동의 생산물일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그 상품을 단순 노동의 생산물과 대등하게 하며 따라서 가치 자체는 단순 노동의 일정량을 대표할 뿐이다¹⁵. 각이한 종류의 노동들이 그것들의 측정 단위로서의 단순 노동에 환산되는 각종 비율은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사회적 과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는 그것이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같이 보인다.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이하의 서술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노동력이든지 이것을 직접 단순 노동력으로 간주할 터언바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환산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저고리와 아마포의 가치들에서는 그것들의 사용 가치의 구별이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들로 대표되는 노동에서는 재봉과 직조라는 노동의 유용 형태상 구별이 소멸된다. 사용 가치로서의 저고리 및 아마포는 특정 목적의 생산 활동이 라사 및 방사와 결합된 것이나 이에 반하여 가치로서의 저고리 및 아마포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의 응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치들 속에 들어 있는 노동도 또한 라사와 면방사에 대한 그들의 생산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재봉 노동과 직조 노동은 바로 그것들의 질'적 차이에 의하여 사용 가

15 독자는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자가 레컨대 일 노동일에 받는 로임 또는 가치가 아니고 그의 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는 상품 가치라는 것을 명두에 두어야 한다. 로임이라는 범주는 도대체 우리 서술의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를 창조하는 요소로 되며 그것들의 특수한 질이 사상되어 랑자가 인간 노동이라는 동일한 질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만 저고리와 아마포의 가치의 실체로 된다.

그러나 저고리와 아마포는 비단 가치 일반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량의 가치이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저고리 1매는 아마포 10엘레보다 2배나 더 큰 가치를 가진다. 그것들의 가치량의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아마포 속에는 저고리 속에 들어 있는 노동의 절반 밖에 들어 있지 않으며 그리하여 저고리의 생산에는 아마포의 생산에서 보다 2배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력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고로 상품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상품에 포함되고 있는 노동의 질만이 의미를 가지나, 가치의 크기에 대해서는 노동의 량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때 노동은 벌써 다른 아무런 질도 가지지 않는 인간적 노동에 환원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며 또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문제로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얼마만큼 지출되는가 또 노동이 얼마'동안 계속되는가가 문제로 된다.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노동의 분량만을 표현하는 까닭에 상품들은 일정한 비율 관계하에서는 항상 동일량의 가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테컨대 1매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유용 노동의 생산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고리들의 가치의 크기는 저고리의 분량에 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다. 만약 1매의 저고리가 X 노동일을 대표한다면 2매의 저고리는 $2X$ 노동일을 대표할 것이다 등등. 그러나 1매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2배로 증가하거나 혹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전자의 경우에는 1매의 저고리는 종전에 2매의 저고리가 가지고 있던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2매의 저

고리가 종전에 1매의 저고리가 가지고 있던 그만큼의 가치 밖에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때 비록 두 경우에 있어서 1매의 저고리가 전이나 후에나 의연히 동일한 봉사를 하며 또 그 속에 들어 있는 유용 노동이 전이나 후에나 의연히 동일한 질을 가져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고리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의 분량만은 변화하였다.

사용 가치의 더 많은 분량 그 자체는 더 많은 물재적 재부를 형성한다. 때컨대 2매의 저고리는 1매의 저고리보다 더 많은 물재적 재부이다. 2매의 저고리으로써는 2명의 인간을 입힐 수 있지만 1매로써는 오직 1명을 입힐 수 있을 뿐이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재적 부의 수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 가치의 크기가 동시에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운동은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서 발생한다. 생산력은 물론 항상 구체적인 유용 노동의 생산력이며 실제로 있어서 소여의 기간내에 있어서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의 효과의 정도만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 노동은 그 생산력의 제고 또는 감퇴에 정비례하여 생산물의 혹은 더 풍부한 혹은 더 빈약한 원천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생산력의 변동 그 자체는 상품의 가치로서 대표되는 노동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력은 노동의 구체적 유용적 형태에 속하는 까닭에 노동의 구체적 유용적 형태가 사상되는 한 그것은 벌써 노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길이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의 생산력의 변화와는 관계 없이 항상 동일한 크기의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변화할 때 노동은 동일한 길이의 시간에 각이한 분량의 사용 가치를 제공한다. 즉 생산력이 증대하는 때에는 더 많이, 그것이 감소하는 때에는 더 적게 제공한다. 노동의 생산성을, 따라서 또 노동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용 가치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생산력의 변동 그 자체는 그것이 이 증대된 사용 가치 총량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량을 축소시킬 때에는 이 증대된 사용 가치 총량의 가치의 요기를 감소시킨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온갖 노동은 한편으로는 생리적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다. 이러한 한결 같은 인간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속성에 있어서는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온갖 노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합목적적 형태에 있어서의 인간 노동력의 지출인바, 이러한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는 속성에 있어서는 노동은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¹⁶.

16 제2판 주. 《노동만이 모든 시기에 있어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평가되며 비교될 수 있는 중국적 현실적 척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량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노동자 자신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는 그의 건강, 힘 및 활동의 정상적 상태에서 또 그가 가질 수 있는 측면의 평균 정도으로써 항상 그의 휴식, 그의 자유, 그의 행복의 동일한 부분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국부론》, 제1편, 제5장)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문헌, 국립 출판소, 1935년, 35 및 32페이지]. 한편으로는 아담 스미스는 여기서 (그러나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상품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에 의한 가치의 결정을 노동의 가치에 의한 상품 가치의 결정과 혼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노동량은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는 노동은 그것이 상품 가치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노동력의 지출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으나 그러나 이 지출을 그는 역시 정상적인 생명 활동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휴식과 자유와 행복의 희생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그가 눈앞에서 현대적 임금 노동자를 보고 있었던 것은 틀림 없다——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주(9)에 인용된 녀명 색인 아담 스미스의 선행자가 훨씬 더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비품을 제작하는데 1주일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과 교환하여 어떤 다른 물건을 제공하는 자는 어떤 물건이 그로 하여금 동일한 노동 (labour)과 시간을 들이게 하였는가를 계산함으로써, 어떤 물건이 상대자의 물건에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일정 시간내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지출한 노동이 그와 동일한 시간내에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지출한 노동과 교환된다는 점에 있다》(《화폐 일반……의 리자에 관한 약간의 고

제 3 절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

상품들은 철, 아마포, 소맥 등등과 같은 사용 가치의 형태, 즉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상품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형태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오직 이중적인 물건인 까닭으로서만, 즉 소비의 대상인 동시에 가치의 담당자이기도 한 까닭으로서만 상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오직 이 이중적 형태를, 즉 자연 형태와 가치 형태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만 상품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

상품의 가치 대상성은 어떤 측면으로부터 그것을 포착해야 할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파부 퀴클리와는 구별된다. 상품체의 감각적인 거칠은 대상성과는 정반대로 그것의 가치 대상성 속에는 단 한 원자의 자연 물'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개개의 상품을 아무리 만져 보며 훑어 보아도 그것은 가치물로서는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상품은 그것이 동일한 사회적 단위인 인간 노동의 표현인 한에 있어서만 가치 대상성을 가진다는 것, 따라서 상품의 가치 대상성은 순전히 사회적 것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가치 대상성은 오직 상품과 상품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시 자명한 것으로 된다. 사실 우리는 상품의 교

참>, 39페이지).

{제1판 주. 영어는 노동의 이와 같은 두 각이한 측면을 표시하는데 두개의 각이한 말을 쓴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용 가치를 창조하는, 절'적으로 규정된 노동은 labour에 대립시켜 work라고 부르며 가치를 창조하는, 오직 양'적으로만 측정되는 노동은 work에 대립시켜 labour라고 부른다. 영어 번역판 14페이지 주 참조—F. 엥겔스} [본서에 있어서는 제1장 주(1)를 참조하라 편집부].

환 가치 또는 교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상품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추적해 냈다. 이제 우리는 가치의 이 현상 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누구나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몰라도 상품이 그 사용 가치의 잡다한 자연적 형태와 뚜렷이 구별되는, 화폐 형태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앞에는 부르쾆야 경제학이 일찌기 넘도 내지 못했던 것을 수행할 과업이 나선다. 그것은 즉 이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히는 것, 다시 말하면 상품의 가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표현의 발전을 그의 가장 간단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위황 찬란한 화폐 형태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폐의 수수께끼가 동시에 소멸될 것이다.

가장 간단한 가치 관계는 두말 할 것 없이 한개의 상품과, 어떤 다른 종류——그것이 어떤 것이든——에 속하는 한 상품과의 가치 관계이다. 그러므로 단 두 상품간의 가치 관계는 그 상품의 가장 간단한 가치 표현을 보이며 준다.

A. 간단한, 단독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 형태

x 상품 $A = y$ 상품 B , 혹은 x 량의 상품 A 는 y 량의 상품 B 와 대등하다.

(20엘테의 아마포 = 1매의 저고리 혹은 20엘테의 아마포는 1매의 저고리와 대등하다).

1) 가치 표현의 양극(兩極) :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等價) 형태

은갖 가치 형태의 비밀은 이 간단한 가치 형태 속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분석이 주요한 난관으로 된다.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 우리의 헤에서는 아마포와 저고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개의 각이한 역할을 논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러한 가치 표현의 재료로 쓰인다. 제1의 상품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제2의 상품은 수동적인 역할을 논다. 제1의 상품의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서 표현되어 있다. 즉 그것은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다. 제2의 상품은 등'가물로서 기능한다. 즉 그것은 등'가적 형태에 있다.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는 동일한 가치 표현의 상호 의존적인, 상호 제약적인 불가분적 계기(契機)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배제적인 또는 대립적인 극단물, 즉 양극이다. 그것들은 가치 표현으로써,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각이한 상품간에 항상 배정(配定)되어 있다. 나는 꽤큰대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써 표현할 수는 없다. 20셀레의 아마포=20셀레의 아마포는 아무런 가치 표현도 아니다. 이 방정식은 오히려 반대로 20셀레의 아마포는 20셀레의 아마포 이외의 아무 것도, 즉 일정량의 아마포라는 소비 대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다시 말하면, 다른 상품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무엇이든지, 다른 상품이 아마포에 대립하여 등'가 형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한편 등'가물의 역할을 논는 이 다른 상품은 동시에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상품의 가치 표현의 재료로 될 뿐이다.

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라는 표현, 즉 20셀레의 아마포의 가치는 1매의 저고리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1매의 저고리=20셀레의 아마포 즉 1매의 저고리의 가치는 20셀레의 아

마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고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는 바와 같이 방정식을 뒤집어 놓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저고리 대신에 아마포가 등'가물로 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치 표현에 있어서는 동시에 양쪽 형태를 취할 수 없다. 그렇기는커녕 이 양쪽 형태는 대극적으로 서로 배척한다.

조여의 상품이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가 또는 그에 대립하는 등'가 형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상품이 가치 표현에 있어서 그때 그때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이 자신의 가치의 표현을 받는 상품인가 또는 자신으로써 가치가 표현되는 상품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상대적 가치 형태

a) 상대적 가치 형태의 내용

한 상품의 간단한 가치 표현이 두 상품의 가치 관계 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 관계를 우선 그의 양'적 측면과는 전연 관계 없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와 정반대의 연구 방법을 취하여 가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상품의 특정 분량이 서로 등치(等置)되는 그 비율만을 본다. 그들은 이때 상이한 물건들은 그것들이 동일한 단위에 환원된 후에야 비로소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오직 어떠한 동일물의 표현으로서만, 그것들은 동일 명칭의, 따라서 공동 측정이 가능한 양으로 되는 것이다¹⁷.

17 B·베일리와 같은 가치 형태의 분석을 일삼은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첫째로는 그들이 가치 형태를 가치 자체와 혼동한 까닭에, 둘째

20알배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이든지, 혹은=20매의 저고리이든지, 혹은= X 매의 저고리이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소여의 분량의 아마포의 가치가 다량의 저고리에 해당하든지 혹은 소량의 저고리에 해당하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비율의 존재 자체는 항상 아마포와 저고리가 가치의 크기로서는 동일물의 표현이며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물건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마포=저고리가 이 방정식의 기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서로 동치되는 이 두 상품은 동일한 역할을 노는 것은 아니다. 오직 아마포의 가치만이 표현될 뿐이다. 어떠한 방식으로써인가? 아마포의 <등'가물>에 대한, 즉 아마포와 <교환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저고리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이다. 이 관계내에서 저고리는 가치의 존재 형태로서, 가치물로서 봉사한다. 왜냐 하면 저고리는 오직 가치로서만 아마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만 이 관계에 있어서만 아마포 자체의 가치적 존재가 발로되며 또는 하나의 독립적 표현을 얻는다. 왜냐 하면 아마포는 오직 가치로서만 그것과 가치가 동등한 물건 즉 그것과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인 저고리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는 까닭이다. 유사한 예를 든다면 락산(酪酸)과 의산(醫酸)·프로필·에테르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그렇지만 양자는 모두 동일한 화학적 실체들인 탄소(C)와 수소(H)와 산소(O)를, 그나마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화합물 즉 $C_4H_8O_2$ 이다. 이제 만약 의산·프로필·에테르를 락산과 동치한다면 이 방정식은 첫째로 의산·프로필·에테르가 $C_4H_8O_2$ 의 존재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둘째로 락산

로는 그들이 실무적 부르조아의 조작한 영향하에서, 당초부터 오로지 [교환 관계의] 양'적 규정성에만 주의할 물렸던 까닭에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양에 대한 지배가……가치를 형성한다> (<화폐와 그 가치 변동>, 런던, 1837년, 11페이지). 저자 B·베일리.

도 역시 $C_4H_8O_2$ 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락산에 의산·프로필·에테르가 등치됨으로써 그것들의 화학적 실체는 그것들의 물리적 형태와는 다른 표현을 받게 된다.

우리가 상품은 가치로서는 인간 노동의 응결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추상적 가치에 환원하는 것이지만, 상품을 그 자연적 형태와는 다른 어떤 가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가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적 성격이 다른 상품과의 관계에서 표면에 나타난다.

폐컨대 저고리가 가치물로서 아마포에 등치된다면 이것으로써 저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이 아마포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에 등치되는 것이다. 저고리를 만드는 재봉 노동이 아마포를 만드는 직조 노동과 다른 종류의 구체적 노동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재봉을 직조에 등치하는 것은 재봉을 두가지 노동에서의 현실적 동등물 즉 그것들에 공통한 인간 노동이라는 성격에 사실상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우회적 방식에 의하여 확증되는 것은 직조도 역시 그것이 가치를 짜내는 한에 있어서는 재봉과 다름이 없고 따라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가치 형성 노동의 독특한 성격을 외부에 발로시키는 것은 종류가 다른 상품들의 등'가 관계의 표현뿐이다. 왜냐 하면 이 등가 관계의 표현이 각종 상품 속에 들어 있는 각종 노동을 그것들에게 공통한 인간 노동 일반으로 사실상 환원시키기 때문이다^{17a}.

17a 제2판 주. 윌리엄 페티 이후에 가치의 성질을 통찰한 최초의 경제학자중의 한 사람인 유명한 프랑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이란 일반적으로 한 노동을 다른 노동과 교환하는 행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까닭에 모든 물건의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가장 정당하

그렇지만 아마포의 가치를 구성하는 로동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류동 상태에 있는 인간 로동력 즉 인간 로동은 가치를 형성하지만 가치 그 자체는 아니다. 로동은 응결 상태에서, 대상적 형태에서 가치로 되는 것이다. 아마포의 가치를 인간 로동의 응결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적으로 아마포 자체와는 구별되며 또 동시에 아마포와 기타의 상품에 공통한 특수한 <대상성>으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벌써 해결되었다.

저고리에 대한 아마포의 가치 관계내에서 저고리는 질'적으로 아마포와 동일한 것으로서, 즉 그것이 가치인 만큼 아마포와 동일 종류의 물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고리는 거기에 가치가 발현되는 물건, 즉 자기의 감축될 수 있는 자연적 형태로서 가치를 표현하는 물건의 역할을 논다. 물론 저고리——저고리 상품체는 하나의 사용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저고리는, 아마포의 임의의 한 조각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저고리가 아마포에 대한 자기의 가치 관계의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금줄을 두른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것을 입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는 것과 흡사하다.

저고리의 생산에는 재봉 로동의 형태로 인간 로동력이 사실상 지출되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인간 로동이 쌓여 있다.

계 평'가될 수 있다(<B·프랑클린.....저작집>, 스파크스 편찬, 보스턴, 1838년, 제2권, 267페이지). 프랑클린은 모든 물건외 가치를 <로동>으로써 평'가한다면, 그것은 교환되는 로동물 간의 차이를 추상하며 또 따라서 그것들을 동일한 인간 로동으로 환원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의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한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 다음에는 <다른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 끝으로 모든 물건들의 가치의 실제로 밖에는 될 수 없는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고리는 《가치의 담당자》이다. 하기는 저고리의 이러한 속성 그 자체는 저고리 천이 아무리 짧아 얇아져도 들여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마포에 대한 자기의 가치 관계에 있어서는 저고리는 오직 자기의 이러한 측면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물체화된 가치, 가치체(價値體)로만 나타난다. 저고리는 단추를 채우고 나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포는 그 속에서 자기와 혈연적인 아름다운 가치의 명혼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저고리가 아마포를 상대로 가치를 표시하자면 아마포에 대하여 가치가 저고리라는 형태를 취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개인 A에 대하여 폐하(陛下)라는 지위가 동시에 개인 B라는 육체적 모습을 취하며 그리하여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폐하에게 고유한 용모와 모발과 기타 여러 가지가 변한다는 사실이 없이는 개인 A는 개인 B에 대하여 폐하로서 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저고리가 아마포의 등'가물로 되는 가치 관계에 있어서 저고리의 형태는 가치의 형태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상품 아마포의 가치는 상품 저고리의 물체로써 표현된다. 즉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로써 표현된다. 사용 가치로서는 아마포는 저고리와 감각적으로 구별되는 물건이지만 가치로서는 아마포는 《저고리와 동등한 것》이며 따라서 저고리와 전연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마포는 그 자연 형태와는 다른 하나의 가치 형태를 얻는다. 아마포의 가치적 존재가 아마포의 저고리와의 동등성에서 발현되는 것은 마치 기독교도의 양(羊)같은 성질이 신(神)의 새끼양과의 그 동등성에서 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상품 가치의 분석이 위에서 우리에게 말해 준 모든 것을 아마포 자신이 그가 다른 상품인 저고리와 교체하게 되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다만 그는 자기에게만 통할 수 있는 언어 즉 상품어로써 자기의 사상을 표현한다. 아마포는

로동이 인간 로동이라는 추상적 속성에 있어서 그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말하기 위하여 저고리는 그것이 아마포와 동등한 의의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 또 따라서 가치일 한에 있어서, 아마포와 동일한 로동으로써 형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마포는 그의 숭고한 가치 대상성이 그의 거칠은 아마 몸통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가치는 저고리의 의견을 가지며 또 그러므로 그 자신은 가치물로서 저고리와 추호도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첨가하여 말해 둔다면, 상품어도 역시 헤브라이어 이외에 다소간 정확한 많은 방언들을 가지고 있다. 페컨데 상품 B를 상품 A에 등치하는 것은 상품 A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독일어의 <Werthsein>은 라틴어 제롬의 동사 *valere, valer, valoir*에 비하여 뚜렷하지 못하다. *Paris vaut bien une messe*! (파리는 너곤히 미사값에 해당한다!)

이렇듯이 가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상품 B의 현물 형태는 상품 A의 가치 형태로 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 B의 물체가 상품 A의 가치의 거울로 된다¹⁸. 상품 A는 가치체로서의, 인간 로동의 체화물로서의 상품 B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B의 사용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 표현의 재로로 삼는다. 상품 A의 가치는 이와 같이 하여 상품 B의 사용 가치로써 표현되어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한다.

18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간도 또한 상품과 같다. 인간은 수중에 거울을 들고 탄생하는 것도 아니며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휘히테류의 철학자로서 탄생하는 것도 아닌 까닭에 인간은 우선 다른 사람이 타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인간 페테르는 자기와 같은 인간 파울과 관계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관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또 파울은 파울이라는 그의 온전한 육체를 가진 그대로 페테르를 위하여 인간이라는 중족의 현상 형태로 되는 것이다.

b) 상대적 가치 형태의 량'적 규정성

그 가치가 표현되어야 하는 매개 상품은 페컨대 15셀의 켈의 소맥, 100파운드의 커피 등등과 같은 소여의 분량의 어떤 소비 대상이다. 이와 같은 소여의 분량의 상품 속에는 인간 노동의 일정량이 들어 있다. 따라서 가치 형태는 비단 가치 일반 뿐만 아니라 량'적으로 규정된 가치 즉 가치의 크기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아마포의 저고리에 대한 가치 관계에 있어서는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가 비단 가치체 일반으로서 아마포에 질'적으로 등치될 뿐만 아니라 페컨대 1매의 저고리라는 일정 분량의 가치체 또는 등'가물이 페컨대 20셀레라는 아마포의 일정 분량에 등치된다.

《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 즉 20셀레의 아마포의 가치는 1매의 저고리에 해당한다》라는 방정식은 1매의 저고리 속에는 20셀레의 아마포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꼭 같은 분량의 가치의 실체가 들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상품들의 이 두 분량은 동일한 분량의 노동 즉 동일 수량의 노동 시간을 들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셀레의 아마포 또는 1매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재봉 또는 직조의 생산력이 변동할 때마다 변동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러한 변동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에 주는 영향을 일층 상세하게 연구해야 하겠다.

I. 저고리의 가치가¹⁹ 불변이고 아마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페컨대 아마 재배지의 비옥도의 감소로 말미암아 2배로 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2배로 될 것이다. 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 대신

19 《가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우의 몇 개소에서든 그럭 했거니와 량'적으로 규정된 가치 즉 가치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있다.

에 20엘레의 아마포=2매의 저고리로 될 것이니 왜냐 하면 1매의 저고리에는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 속에 들어 있는 로동시간의 절반 밖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배컨대 직조 기대의 개량으로 말미암아 절반으로 감소된다면 이에 따라 아마포의 가치도 절반으로 저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 $1/2$ 매의 저고리로 된다. 이와 같이 상품 B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상품 A의 상대적 가치, 다시 말하면 상품 B로써 표현되는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의 가치에 정비례하여 등귀하며 또 저락한다.

II. 저고리의 가치가 변동하고 아마포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 만약 이러한 사정 밑에서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배컨대 양모의 전취(剪取) 성적이 불량한 결과 2배로 된다면 20엘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 대신에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 $1/2$ 매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20엘레의 아마포=2매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상품 B로써 표현되는 상품 A의 상대적 가치는 B의 가치의 변동에 반비례하여 저락 또는 등귀한다.

I 및 II의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 가치의 크기의 동일한 변동이 전연 반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20엘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라는 방정식으로부터 (1)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2배로 되는 까닭에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반감되는 까닭에 20엘레의 아마포=2매의 저고리라는 방정식이 나오며 또 (2)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절반으로 저락하는 까닭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2배로 등귀하는 까닭에 20엘레의 아마포= $1/2$ 저고리라는 방정식이 나온다.

III. 아마포 및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이 동시적으

로 동일 방향에서 또 동일 비율로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상품들의 가치가 여하히 변동하더라도 의연히 20 엘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이다. 이 상품들의 가치의 변동은 그것들을 가치가 변하지 않은 제3의 상품과 비교할 때에만 발견될 수 있다. 만약 일체의 상품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등귀 또는 저락한다면 그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품 가치의 현실적 변동은 동일 노동 시간내에 생산되는 상품량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가 하는 것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IV. 아마포 및 저고리의 생산에 각각 필요한 노동 시간 또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 방향에서 이기는 하나 각이한 정도로 또는 반대 방향 등등에서 변동하는 경우. 그러한 종류의 일체 가능한 배합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주는 영향은 I, II, III의 경우의 적용에 의하여 간단히 알 수 있다.

가치의 크기의 현실적 변동은 보는 바와 같이 그 상대적 표현에는 즉 상대적 가치의 크기에는 십분 선명하게 또 남김 없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그 가치가 의연히 불변이면서도 변동할 수 있다. 또 그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그 가치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불변일 수도 있다. 끝으로 그 상품의 가치의 크기 및 이 가치의 크기의 상대적 표현이 동시에 변동한다 해도 양자는 반드시 언제나 상호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²⁰.

20 제2관 주. 가치의 크기와 그 상대적 표현과의 이 불일치는 속류 정치 경제학에 의하여, 할 볼 수 있는 그 증명성으로써 이용되었다. 여기에 그 일례가 있다. 《만약 A와 교환되는 B가 등귀하는 까닭에 A는 저락하나 물론 그 때에 A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적은 노동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용인하기만 한다면 당시의 보편적 가치 원

3) 등'가 형태

상품 A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상품 B (저고리)의 사용 가치에 의하여 표현함으로써 후자 그 자체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 형태 즉 등'가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다. 상품 아마포는 저고리가 그 물체적 형태와 구별되는 가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마포와 등치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아마포는 저고리가 직접 자기와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적 존재를 실지로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등'가 형태라는 것은 그 상품의 다른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 레컨데 저고리가 다른 종류의 상품 레컨데 아마포에게 등'가물로 봉사하며 그리하여 저고리가 아마포

직은 파탄을 당할 것이다……A의 가치가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귀하는 결과 B의 가치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락한다는 사실이 용인된다면 리카도가 한 상품의 가치는 항상 그 속에 체화된 노동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그의 대명제의 기초로 삼은 토대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 A의 생산비에 있어서의 변동이 비단 A와 교환되는 B와의 관계에 있어서 A 자신의 가치에 변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A와의 관계에 있어서 B의 가치에까지도 변동을 일으키며 이때 B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분량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단 어떤 물품에 지출된 노동의 분량이 그 물품의 가치를 규제한다고 단정하는 학설 뿐만 아니라 어떤 물품의 생산비가 그 물품의 가치를 규제한다고 하는 학설까지도 파탄을 면치못하게 되기 때문이다》(J·브로트히스트 《정치 경제학》, 런던, 1842년, 11, 14페이지).

브로트히스트 씨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20, 10/50, 10/100 등등의 수'적 비례를 잘 보라. 10이라는 수는 의연히 불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대적 크기, 즉 분모 20, 50, 100에 대비한 그 크기는 부단히 감소한다. 따라서 어떤 정수(整數) 레컨데 10의 크기는 그 속에 들어 있는 1이라는 단위의 수량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하는 대원칙은 무너지게 된다고.

와 직접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형태에 있다는 특징적 속성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써는 결코 저고리와 아마포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비율은 아마포의 가치의 크기가 소여의 것이라면 저고리의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저고리가 등'가물로서 그리고 아마포가 상대적 가치로서 표현되든지 혹은 반대로 아마포가 등'가물로서 그리고 저고리가 상대적 가치로서 표현되든지 간에 저고리의 가치의 크기는 의연히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따라서 저고리의 가치 형태와는 관계 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가 가치 표현에 있어서 등'가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때에는 저고리의 가치의 크기는 독립적으로 아무런 표현도 받지 못한다. 그렇기는커녕 이 상품 종류는 가치 방정식에 있어서 다만 어떤 물건의 특정량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폐전대 40엘레의 아마포는 무엇에 <값어치 되는>가? 2매의 저고리에 값어치된다.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는 여기서 등'가물의 역할을 논하며 저고리라는 사용 가치는 가치체의 자격으로 아마포에 대립하는 까닭에 저고리의 일정 분량은 아마포의 가치의 일정 분량을 충분히 표현한다. 그러므로 2매의 저고리는 40엘레의 아마포의 가치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2매의 저고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의 크기 즉 저고리의 가치의 크기를 결코 표현할 수 없다. 가치 방정식에 있어서 등'가물은 항상 어떤 물건, 어떤 사용 가치의 단순한 분량의 형태만을 취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피상적 리해는 베일리틀 소유에 빠뜨려 그로 하여금 그의 선행자 및 후계자의 다수와 같이 가치 표현에 있어서 오직 양적 관계만을 보게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는 상품의 등'가 형태는 가치의 양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등'가 형태를 고찰할 때에 눈에 띄는 첫째 특징은 사용 가치가 자기의 대립물인 가치의 현상 형태로 된다는 점에 있다.

상품의 현물 형태가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나 *nota be*

ne [주의하라]. 이러한 quid pro quo [전환]는 상품 B (저고리 또는 조맥 또는 철 등등)에게 있어서 오직 임의의 다른 상품 A (아마포 기타)가 그것과 맺는 가치 관계의 내부에서만 오직 이 관계의 한계내에서만 일어난다. 어떠한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등'가물로서 관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연적 외형을 자기 자신의 가치의 표현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은 반드시 등'가물로서의 다른 상품과 관계해야 한다. 즉 다른 상품의 자연적 외형을 자기 자신의 가치 형태로 삼아야 한다.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체 자체를, 다시 말하면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량형을 실례로 들기로 하자. 덩어리 사탕은 물체인 까닭에 무게가 있고 따라서 일정한 중량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덩어리 사탕에 있어서도 사람은 그 중량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또는 손으로 감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량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몇 개의 쇠'조각을 취한다. 철의 물체적 형태는 그 자체로서 관찰할 때에는 덩어리 사탕과 마찬가지로, 무게의 현상 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 사탕을 무게로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철과의 중량 관계에 놓는다. 이 관계에 있어서 철은 무게 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철의 제 분량은 사탕의 중량의 척도로 쓰이며 또 그것은 사탕이라는 물체에 대해서는 오직 무게의 체화물 또는 무게의 현상 형태만을 대표한다. 철이 이 역할을 노는 것은 그 중량이 측정되어야 할 사탕 또는 기타의 어떤 물체가 철과 더불어 맺는 그 관계의 내부에서 뿐이다. 만약 이 두 물체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 중의 일방이 타방의 무게의 표현으로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양자를 천평반(天秤盤) 위에 놓을 때에 우

리는 이 량자가 무게로서는 사실 동일하며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서 취한다면, 동일한 중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철의 물체가 중량의 척도로서는 덩어리 사탕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무게만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는 저고리의 물체가 아마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오직 가치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사성이 끝난다. 철은 덩어리 사탕의 중량 표현에 있어서, 쌍방의 물체에 공통적인 자연적 속성인 그것들의 무게를 대표하지만 이에 반하여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 두 물건의 일종 초자연적 속성을, 즉 그것들의 가치를, 순전히 사회적인 것을 대표한다.

한 상품 폐컨대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그 가치 존재를 아마포의 물체 및 이 물체의 속성과는 전연 다른 어떤 것으로 폐컨대 저고리와 비슷한 그 무엇으로 표현하는만큼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그 배후에 어떤 사회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등'가 형태는 이것과는 반대이다. 대체 등'가 형태라는 것은 어떤 상품체 폐컨대 저고리가, 있는 그대로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천연적으로 가치 형태를 가지는 데 있다. 이것은 상품—저고리가 상품—아마포에 대하여 등'가물로 되어 있는 가치 관계의 내부에서 만 타당하다는 것은 물론이다.²¹ 그러나 어떤 물건의 속성은 다른 물건에 대한 그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발로됨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저고리도 또한 무게가 있다든가 또는 체온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그 속성과 전연 마찬가지로 자기의 등'가 형태, 즉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속성을 천연적으로

21 이와 같이 호상 관계로부터 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것이다. 폐컨대 어떤 인간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신하로서"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왕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그가 왕인 까닭에 그들이 신하로 된다고 믿는다.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등'가 형태의 수수께끼가 이로부터 발생하는데 경제학자의 조잡한 부르조아적 안목에는 등'가 형태가 완성되어 화폐로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 때에야 비로소 이 수수께끼가 눈에 띈다. 그 때에 경제학자는 금과 은을, 그보다 덜 찬란한 상품들과 바꾸어 놓음으로써 또 일찌기 등'가 물—상품의 역할을 논 일이 있는 보통 상품의 목록을 항상 새로운 만족감으로써 열거함으로써 금과 은의 신비적 성격을 설명해 치우려고 한다. 그는 20월례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라는 가장 간단한 가치 표현이 벌써 등'가 형태의 수수께끼를 풀 가능성의 제공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등'가물로 되는 상품체는 항상 추상적 인간 노동의 체화물로서 나타나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항상 일정한, 유용한, 구체적인 노동의 생산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의 표현으로 된다. 만약 폐컨대 저고리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 실현되어 있는 물건으로서만 복무한다면 저고리 속에 사실상 실현되어 있는 재봉 노동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실현 형태로서만 복무한다.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 재봉 노동의 유용성은 그것이 의복을, 또 따라서 사람의 몸차림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 곧 가치를 보는 물건, 다시 말하면 아마포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노동의 응결체를 만드는 데 있다. 그와 같은 가치의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봉 노동 그 자체는 인간 노동 일반이라는 자기의 추상적 속성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반영해서는 안된다.

재봉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나 직조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인간 노동력이 지출된다. 그러므로 이 량자는 인간 노동이라는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폐컨대 가치 생산에 있어서는 오직 이 관점에서만 고찰될 수 있다. 이것은 조금도 신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는 사정은 이와 다르다. 레킨때 직조가 직조라는 그 구체적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 노동이라는 그 일반적 속성에 의하여 아마포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포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인 재봉 노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의 감각적인 실현 형태로서 직조 노동에 대립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 노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된다는 것이 등'가 형태의 제2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노동인 재봉 노동은 무차별적인 인간 노동의 단순한 표현으로 되는 까닭에 이 형태에서 그것은 다른 노동 즉 아마포 속에 들어 있는 노동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일체의 노동과 같이 사'적 노동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회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노동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봉 노동은 다른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하나의 생산물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사'적 노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로 즉 직접 사회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노동으로 된다는 것이 등'가 형태의 제3의 특징이다.

등'가 형태의 마지막 두 특징은 만약 우리가 것처럼 많은 사유(思惟) 형태, 사회 형태 및 자연 형태와 아울러 가치 형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위대한 연구가에게까지 소급한다면 일층 더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넘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상품의 화폐 형태는 간단한 가치 형태의, 다시 말하면 한 상품 가치의 어떤 임의의 다른 상품에 의한 표현의, 일층 발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사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개의 침상(寢床)=한채의 가옥》은

《5개의 침상=얼마의 화폐》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는 더 나아가 이 가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 관계는 가옥과 침상의 질'적 동등성을 증명하며,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각이한 물건들은 이와 같은 본질상의 동등성이 없이는 통약되는 수량으로서 서로 관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환은 동등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동등성은 통약성(通約性)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난관에 봉착하여 가치 형태의 그 이상의 분석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종 다양한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측정된다는 것은, 즉 질'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은 《실지로는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등지는 물건들의 진정한 성질과는 다른 것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직 《실천적 수요에 응하는 인위적 조치》일 따름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로 하여금 그 이상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치 개념의 결여이다. 침상의 가치 표현에서 가옥이 침상에게 표현하여 주는 동등물, 즉 그 공통적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은 《실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어째서? 가옥이 침상에 대하여 어떤 동등물을 대표하는 것은 그것이 침상과 가옥의 량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동등물을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동등물은 인간 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의 형태에 있어서는 일체의 노동이 동등한 인간 노동으로서 따라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표현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 형태 자체에서 간파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희랍 사회는 노예 노동에 립각하였고 따라서 인간 및 인간 노동력의 불평등을 그 자연적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체의 노동은 그것이 인간 노동 일반인 까닭에 또 그 한에 있어서 동등하며 동등 자격을 가진다는 가치 표현의 이 비밀은 인간적 평등의 개념이 벌써 인민적

선입견(先入見)의 공고성을 가지게 되는 그 때에랴야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상품 형태가 노동 생산물의 보편적 형태이며, 따라서 또한 상품 소유자로서의 인간 상호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 관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는 바로 그가 상품의 가치 표현 속에서 일종의 동등성 관계를 발견한 그 점에서 광채를 내고 있다. 다만 그는 그가 생존하고 있던 사회의 역사적 한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동등성의 관계가 《실지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명할 수 없었다.

4) 간단한 가치 형태의 총체

한 상품의 간단한 가치 형태는 그 상품의 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가치 관계 속에, 또는 이 후자와의 교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와의, 상품 B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에서 질'적으로 표현된다. 량'적으로는 그것은 소여의 분량의 상품 A와의, 일정 분량의 상품 B의 교환 가능성에 의하여 표현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교환 가치》로서 표현되는 때에 독립적인 표현을 받는다. 우리는 이 장의 시초에서는 관용적(慣用的) 용어에 따라 상품은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다. 상품은 사용 가치 즉 소비 대상이며 또 《가치》인 것이다. 상품은 그 가치가 그 자연 형태와는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현상 형태, 즉 교환 가치라는 현상 형태를 취할 때에 그 이종물로서의 본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품은 그것을 고립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교환 가치 형태를 취하는 일이 없고 항상 그와 종류가 같지 않은 다른 상품과의 가치 관계 또는 교환 관계 속에서만 이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만 한다면 상술한 부정확한 표현은 유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명한 것으로 된다.

우리의 분석은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가치 표현이 상품 가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가치 및 가치의 크기가 교환 가치로서의 그의 표현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들과 페리에, 가닐 등등과²² 같은 그들의 현대적 추종자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적수(敵手)들인 바스찌아 일파와 같은 현대적 자유 무역 행상인들이 이 문제를 바로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 중상주의자들은 중점을 가치 표현의 질'적 측면에, 따라서 화폐에서 완전히 표현되는 상품의 등'가 형태에 두며 이와 반대로 어떠한 값으로든지 자기 상품을 팔아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적 자유 무역 행상인들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 및 가치의 크기는 그것들이 상품 교환 관계에서 취하는 표현 속에만 존재하며 따라서 매일의 상품 시세 표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인(人) 맥크레오드는 론바드 가(街)의 극히 혼란된 관념을 될 수 있는한 박식으로써 분석(粉飾)하는 것을 자기의 직책으로 삼으면서 미신적인 중상주의자들과 개화적인 자유 무역 행상인들과의 그럴듯한 종합을 이루고 있다.

상품 B에 대한 가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A의 가치 표현을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이 관계의 내부에서는 상품 A의 현물 형태는 오직 사용 가치의 모습으로서만 또 상품 B의 현물 형태는 가치 형태 또는 가치의 모습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상품 속에 숨어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와의 내부적 대립은 이와 같이 외부적 대립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두 상품의 관계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리고

22 제2판 주. — F·L·A·페리에 (세관 부검사관) 《상업과 관
 령하여 고찰된 정부》. 파리, 1805년 및 샤르르 가닐 《정치 경제학 체
 제》. 제2판, 파리, 1821년.

이 두 상품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가 표현되어야 하는 한쪽 상품은 직접적으로는 사용 가치만의 역할을 놀며, 자신으로써 남의 가치를 표현시켜 주는 다른 쪽 상품은 이에 반하여 직접적으로는 교환 가치만의 역할을 논다. 이와 같이 한 상품의 간단한 가치 형태는 그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 가치와 가치와의 대립의 간단한 현상 형태이다.

로동 생산물은 어떠한 사회 제도하에서도 소비 대상이지만 그러나 오직 역사적 발전의 일정한 시대만이, 즉 유용물의 생산에 지출된 로동이 이 물건의 《대상적》 속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가치로서 표현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만이 로동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화시킨다. 이로부터 상품의 간단한 가치 형태는 동시에 로동 생산물의 간단한 상품 형태이며, 그러므로 또한 상품 형태의 발전은 가치 형태의 발전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간단한 가치 형태의 불충분성은 일견하여 분명하다. 그것은 일련의 형태 변화를 경과함으로써만 비로소 가격 형태에까지 성숙하는 맹아 형태인 것이다.

상품 A의 가치를 어떤 상품 B로 표현하는 것은 상품 A의 가치를 다만 그 자신의 사용 가치로부터 구별케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상품 A를 다만 한개의 교환 관계에 들어 세우며 그 자체와 다른 종류의 어떤 단독적인 상품에 대한 교환 관계에 놓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체의 다른 상품과의, 상품 A의 질'적 동일성 및 량'적 비불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상품의 간단한 상대적 가치 형태에는 다른 한 상품의 단독적인 등'가 형태가 대응한다. 그리하여 지고리는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표현에서 오직 이 단독적 상품 종류인 아마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등'가 형태, 즉 직접 교환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그렇지만 단독적인 가치 형태는 스스로 더 완전한 형태에

로 이행한다. 비록 이 단독적인 가치 형태를 매개로 하여서는 A라는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종류의 단 한개의 상품으로써만 표현되지만 그러나 이 제2의 상품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즉 저고리든지, 철이든지, 소맥 기타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러므로 상품 A가 혹은 이런 종류의 혹은 저런 종류의 상품과 가치 관계를 맺는때 따라, 한개의 동일한 상품의 여러 가지 간단한 가치 표현들이 나타난다^{22a}. 상품 A의 가능한 가치 표현의 수는 상품 A와는 다른 상품 종류의 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리하여 상품 A의 가치의 단독적인 표현은 한 계열을 이루는 각종 간단한 가치 표현으로 전화되며 그리고 이 계열은 항상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B. 전체적인 또는 확대된 가치 형태

2 상품 A = u 상품 B, 또는 = v 상품 C, 또는 = w 상품 D,
또는 = x 상품 E, 또는 = 기타 등등.

(20엘테의 아마포 = 1매의 저고리, 또는 = 10파운드의 차, 또는 = 40파운드의 커피, 또는 = 1쿼터의 소맥, 또는 = 2온스의 금, 또는 = $\frac{1}{2}$ 톤의 철, 또는 = 기타 등등).

1)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

일정 상품, 레컨대 아마포의 가치는 이제는 상품 세계의 무수한 다른 구성 분자들로써 표현되어 있다. 매개의 다른 상품체는 아마포의 가치의 거울로 된다²³.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

22a 제2관 주. 레컨대 호머에 있어서는 한 물건의 가치가 일련의 각종 물건들로 표현된다.

23 그러므로 사람들은 만약 아마포의 가치를 저고리로써 표현한다면 아마포의 저고리 가치라고 말하며 만약 아마포의 가치를 곡물로써 표현한다면 그것의 곡물 가치 등등이라고 말한다. 매개의 그와 같은

소 이 가치 자체가 참으로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응결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이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이제는 매개의 다른 인간 노동——그것이 어떠한 자연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또 그러므로 그것이 저고리, 혹은 소맥, 혹은 철, 혹은 금 등등의 어느 것에 대상화되어 있든지 간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노동으로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 형태를 통하여 이제는 다른 종류의 단독적인 상품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상품 세계 전체와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상품으로서 아마포는 이 세계의 한개 공민이다. 그와 동시에 상품의 가치 표현이 무한한 계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품 가치가 그것이 발현되는 사용 가치의 특수 형태에 전연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이여 준다.

20엘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라는 제1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 두 상품이 일정한 양'적 비율로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우연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이에 반하여 제2의 형태에 있어서는 우연적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또한 이 우연

표현은 저고리, 목물 등등의 사용 가치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포의 가치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상품이든지 그것의 가치는 그것의 교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그 상품과 비교되는 상대방의 상품 여하에 따라서 그것의 목물 가치, 직물 가치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각이한 종류의 가치가 있다. 즉 현존하는 상품 종류의 수만큼 가치의 종류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현실적이며 또 동일하게 명목적이다》(《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 논술. 주로 리카도 씨 및 그의 추종자들의 저작에 관하여》, 《제 전해의 형성 운운에 관한 논설》의 필자의 저서, 런던, 1825년, 39페이지). 그 당시 영국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이 네명 저서의 저자인 80배일리는 동일한 상품 가치의 이러한 잡다한 상대적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가치에 관한 일체의 개념 규정을 분쇄했다고 망상하고 있다. 그의 식견의 천박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리카도의 이론의 약점을 찔렀다는 사실은 리카도 학파가 런던대 《Westminster Review》(《웨스트민스터 평론》)에서 그를 공격할 때에 나타난 그 격분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적 현상을 규정하는, 그러한 배경이 즉시로 들여다 보인다. 아마포의 가치는 그것이 저고리 또는 커피 또는 철 등등의 어느 것에 의하여 표현되든지 간에, 즉 각양 각색의 소유자에 속하는 무한히 다양한 상품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표현되든지 간에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의연히 동일하다. 두 개인적 상품 소유자간의 우연적 관계는 소멸된다. 교환이 상품의 가치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품의 가치의 크기가 그 교환 비율을 규제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2) 특수적인 등'가 형태

저고리, 차, 소맥, 철 등등의 매개 상품은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 등'가물, 즉 가치체의 역할을 논다. 이 매개 상품의 일정한 현물 형태는 이제는 많은 다른 것들과 아울러 하나의 특수적인 등'가 형태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이한 상품체 속에 들어 있는, 일정한, 구체적인 유용 노동의 여러 종류들은 이제는 인간 노동 일반의 특수한 실현 형태 또는 현상 형태로 된다.

3) 전체적 또는 확대된 가치 형태의 결합

첫째로 여기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은 그 표현 계열이 결코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가치 방정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련책은 새로운 가치 표현에 재료를 제공하는, 매개의 새로 등장하는 상품 종류에 의하여 언제나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력책은 조각 조각 끊어진 각양 각색의 가치 표현의 착잡한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끝으로 만약,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 확대된 형태로써 폐의 없이 모든 상품의 상대적 가치들이 표현된다면 매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자기 이외의 어떠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 표현과도 다른, 가치 표현들의 무한한 계열을 가지게 된다.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의 결합은 이번에는 그에 대응하는 등가 형태에도 반영된다. 여기서 매개의 개별적 상품 종류의 현물 형태는 다른 무수한 특수적 등가 형태들과 병립하는 하나의 특수적인 등가 형태인 까닭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제한된 등가 형태들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 이 제한된 등가 형태들에 있어서도 그 중의 하나 하나는 서로 다른 것을 배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개의 특수적인 등가물—상품 속에 들어 있는 일정한, 구체적인 유용 노동 종류는 인간 노동의 특수적인, 따라서 제한된 현상 형태일 따름이다. 인간 노동이 이 특수적인 현상 형태들의 총체 속에서는 자기의 완전한 또는 전체적인 현상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는 하나 그것은 여기서 한개의 통일적인 현상 형태를 가지지는 못 한다.

대체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는 오직 간단한 상대적 가치 표현들의 총화, 즉 제1 형태에 속하는, 레컨데 다음과 같은 방정식들의 총화로써만 이루어진다.

$$20\text{엘레의 아마포} = 1\text{매의 저고리}$$

$$20\text{엘레의 아마포} = 10\text{파운드의 차 등등}$$

그러나 이 각개 방정식은 또 다음과 같은, 전도하여 놓은, 그와 동일한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다.

$$1\text{매의 저고리} = 20\text{엘레의 아마포}$$

$$10\text{파운드의 차} = 20\text{엘레의 아마포 등등}$$

사실에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마포를 다른 많은 상품들과 교환하며 따라서 그것의 가치를 일련의 다른 상품들로써 표현한다면 그 경우에 다른 많은 상품 소유자들도 역시 자기들의 상품을 아마포와 교환하며 따라서 자기들의 각이한 상품들의 가치를 아마포라는 동일한 제3의 상품으로써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20엘레의 아마포 = 1매의 저고리

또는=10파운드의 차 또는=등등의 계열을 전도해 보자. 다시 말하면 본질상으로는 이 계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꾸로의 관계를 표현하여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된다.

C. 일반적 가치 형태

1매의 저고리	=	} 20벨레의 아마포
10파운드의 차	=	
40파운드의 커피	=	
1쿼터의 소맥	=	
2온스의 금	=	
1/2톤의 철	=	
X 상품 A	=	
등등의 상품		

1) 가치 형태의 변화된 성격

상품들은 자기의 가치를 이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간단하게. 왜냐 하면 그것들은 한개의 단일한 상품으로써 가치를 표현하는 까닭이다. (2) 통일적으로. 왜냐 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상품으로써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품들의 가치 형태는 간단하며 또 공통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이다.

제1 및 제2의 형태는 량자가 모두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자신의 사용 가치 또는 그 상품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그쳤다.

제1의 형태는 1매의 저고리=20벨레의 아마포, 10파운드의 차=1/2톤의 철 등등과 같은 가치 방정식을 제공하였다. 저고리의 가치는 아마포와 동등한 것으로써, 차의 가치는 철과 동등한 것 등등으로써 표현된다. 그러나 아마포와 동등한 것 및 철과 동등한 것인 저고리 및 차의 이러한 가치 표현들은 마치

아마포와 철 자체가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 이 형태는 실지로는 노동 생산물이 우연적인, 폐외적인 교환 행위에 의하여 상품으로 전화되는 교환의 시초 단계에 있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제2의 형태는 제1의 형태보다 더 완전하게 한 상품의 가치를 그 자신의 사용 가치로부터 분리시킨다. 왜냐 하면 이제는 폐컨대 저고리의 가치는 모든 가능한 형태에 있어서, 즉 아마포와 동등한 것, 철과 동등한 것, 차 등등과 동등한 것으로서, 요컨대 저고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다른 물건들과 동등한 것으로서 저고리의 자연 형태에 매립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상품 가치의 온갖 공통적 표현이 직접 배제되어 있다. 왜냐 하면 매개의 개별적 상품의 가치 표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상품은 이제는 오직 등'가물의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확대된 가치 형태는 어떤 노동 생산물, 폐컨대 가죽이 벌써 폐외적으로가 아니고 관습적으로 많은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그 때에 비로소 사실상 출현한다.

우리가 새로 얻은 형태는 상품 세계의 가치들을 그 세계에서 선발된 한 개의 등 종류의 상품, 폐컨대 아마포로써 표현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상품들의 가치를 아마포와의 그것들의 동등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이제는 매개 상품의 가치는 아마포와 동등한 것으로서, 비단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용 가치로부터 구별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상품과, 일체의 다른 상품과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오직 이 형태만이 비로소 상품들을 가치로서 현실적으로 서로 관련시키며 또는 그것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교환 가치로서 나타나게 한다.

종전의 두 형태는 모두 매개 상품의 가치를 혹은 그것과 종류가 같지 않은 어떤 단일한 상품으로써 표현하거나 혹은 그것과 다른 일련의 많은 상품들으로써 표현하거나 한다. 어느 경

우에 있어서나 개별적 상품이 가치 형태를 획득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상품의 사사로운 일이고 또 개별적 상품은 나머지 상품들의 협력 없이 이 일을 수행한다. 나머지 상품들은 그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가물이라는 수동적 역할을 놀 따름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 가치 형태는 오직 상품 세계의 공동 사업으로서만 성립한다. 어떤 상품이 일반적인 가치 표현을 획득하는 것은, 동시에 일체의 다른 상품들이 자기의 가치들을 동일한 등'가물로 표현하며 또 새로 등장하는 매개 상품 종류는 반드시 이것을 모방해야 하는 데 기인할 뿐이다. 상품들의 가치 대상성이란 이 물건들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대상성은 상품들의 전면적인 사회적 관계로써만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 형태는 반드시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로써 명백히 된다.

모든 상품은 아마포와 동등한 것이라는 형태에 있어서 이 제는 비단 질'적으로 동등한 것, 즉 가치 일반으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가치의 량'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크기들로서 나타난다. 모든 상품은 자기 가치의 크기를 아마포라는 동일한 재료에 반영시키는 까닭에 이것들의 가치의 크기는 서로 반영된다. 레컨대 10파운드의 차=20엘레의 아마포 및 40파운드의 커피=20엘레의 아마포. 따라서 10파운드의 차=40파운드의 커피. 바꾸어 말하면 1파운드의 커피 속에는, 1파운드의 차에 비하여 가치의 실체인 로동이 $1/4$ 만 들어 있다.

상품 세계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이 세계로부터 제외된 등'가물—상품인 아마포에 일반적 등'가물의 성격을 부여한다. 아마포 자신의 현물 형태는 상품 세계에 공통적인 가치의 모습으로 되며 따라서 아마포는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아마포의 물체적 형태는 온갖 인간 노동의 눈에 보이는 체화물, 그 일반적 사회적 빈베키(蛹)

로서의 역할을 논다. 아마포를 생산하는 사'적 노동인 직조는 동시에 일반적 사회적 형태에, 모든 다른 노동들과의 동등의 형태에 놓여 있다. 일반적 가치 형태를 구성하는 무수한 방정식은 아마포 속에 실현되어 있는 모동을 순차적으로 매개의 다른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에 등치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직조를 인간 노동 일반의 일반적 현상 형태로 만든다. 이와 같이 상품 가치로 대상화된 노동은 다만 소극적으로 현실적 노동의 모든 구체적 형태와 유용적 속성이 사상된 노동으로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 성질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일체의 현실적 노동들이 인간 노동이라는 그것들에 공통적인 성격으로,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 환원되는 데 나타난다.

노동 생산물을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단순한 응결체로서만 표현하는 일반적 가치 형태는 그 자체의 구조에 의하여 그것이 상품 세계의 사회적 표현이라는 것을 보이며 준다. 그리하여 일반적 가치 형태는 상품 세계의 내부에서는 노동의 일반적 인간적 성격이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2)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과 등'가 형태의 발전간의 관계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 정도에 등'가 형태의 발전 정도가 대응한다. 그러나 —이것을 심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등'가 형태의 발전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의 표현이며 결과일 따름이다.

한 상품의 간단한 또는 단독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다른 한 상품으로 하여금 단독적인 등'가물로 되게 한다.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 즉 한 상품의, 다른 모든 상품들에 의한 이 가치 표현은 이 모든 상품들에 여러 가지 특수적 등'가물들의 형

태를 부여한다. 끝으로 특수한 한 가지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기타의 모든 상품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통일적인 일반적 가치 형태의 재료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 형태 일반이 발전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들의 양극, 즉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간의 대립도 또한 발전한다.

제1 형태——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는 이 대립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을 고정시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방정식을 좌로부터 우로 읽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에 따라 양극 상품들인 아마포도 저고리도 각각 번갈아 혹은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기도 하며 혹은 등'가 형태에 있기도 한다. 여기서는 아직 양극의 대립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제2의 형태에 있어서는 언제나 단 한 종류의 상품만이 자기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히 확대할 수 있다. 또 바로 그 상품이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오직 모든 다른 상품들이 그것에 대립하여 등'가 형태에 있기 때문이며 또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 여기서는 벌써 가치 방정식, 예컨대 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 또는=10파운드의 차, 또는=1쿼터의 소맥 등등의 양변을, 이 방정식의 전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고는, 그것을 전체적 가치 형태로부터 일반적 가치 형태로 전화시키지 않고는 전도시킬 수 없다.

결으로, 마지막 형태인 제3 형태가 상품 세계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여기서는 상품 세계에 속하는 모든 상품들이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등'가 형태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 그러므로 아마포라는 한 상품이 일체의 기타 상품들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에, 즉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에 있는 것은 일체의 기타 상품들이 이러한 형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²⁴.

반대로 일반적 등'가물로서 기능하는 상품은 상품 세계의 통일적인, 따라서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만약 아마포가, 다시 말하면 일반적 등'가 형태에 있는 어떤 한 상품이 동시에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에도 참가한다면 아마포는 자신이 자신에게 등'가물로 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20엘레의 아마포=20엘레의 아마포라는 가치도, 가치의 크기도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개의 등의 반복(同義 反復)을 얻게 될 것이다.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제3의 형태를 전도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등'가물은 기타의 상품들과 공동적으로는

24 사실상 사람들은 일반적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를 보아도 그것이 하나의 대법적인 상품 형태이며, 마치 자석(磁石)의 양극(陽極)이 음극과 불가분적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비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락인을 찍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일체의 카톨릭 신자를 범왕으로 되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품 생산에서 인간적 자유와 개인적 독립의 *nec Plus ultra* [절정—絶頂]를 보는 소 부트초아에게 있어서는 이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결합들, 특히 상품이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합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지극히 소망되는 일일 것이다. 이 속물적 공상에 분칠을 한 것이 프루동의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내가 다른 개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프루동보다 훨씬 이전에 그레이, 브레이 기타가 오히려 더 낮게 전제한 것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학식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science》[《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어떤 학파도 프루동 학파처럼 《science》라는 말을 람용한 일이 없다. 이유는 아매와 같다.

《Wo Begriffe fehlen,

Da stellt zur rechten Zeit ein Wort sich ein》.

[《개념이 없는 곳에 말이 제때에 찾아 온다》. 피터 《파우스트》, 제1부, 메피스트페테스의 말].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그 가치는 일체의 기타 상품체들의 무한한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확대된 상대적 가치 형태, 즉 제2의 형태가 등'가물—상품의 특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로 된다.

3) 일반적 가치 형태로부터 화폐 형태에로의 이행

일반적 등'가 형태는 가치 일반의 형태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상품에도 속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 상품은 오직 그것이 일체의 기타 상품들에 의하여 등'가물로서 선출되기 때문에 또 그 한에 있어서만 일반적 등'가 형태 (제3 형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출이 중국적으로 특수한 한 종류의 상품에 국한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 세계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객관적인 견고성과 일반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한다.

등'가 형태가 그 자연적 형태에 사회적으로 유착(癒着)된 특수한 상품 종류가 화폐—상품으로 된다. 즉 화폐로서 기능한다. 상품 세계 내부에서의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은 이러한 특정 상품의 전문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되며 따라서 그 상품의 사회적 독점으로 된다. 일찍기 제2 형태에 있어서는 아마포의 특수 등'가물로서 기능하였고 그리고 제3 형태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상대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아마포로써 표현하였던 상품들 중에서 일정한 상품, 즉 금이 이 특권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쟁취하였다. 그러므로 제3 형태에 있어서 상품 아마포의 자리에 상품 금을 대치하여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된다.

D. 화폐 형태

$$\begin{array}{lcl} 20\text{엘레의 아마포} & = & \\ 1\text{엘의 저고리} & = & \end{array} \quad \left. \vphantom{\begin{array}{lcl} 20\text{엘레의 아마포} \\ 1\text{엘의 저고리} \end{array}} \right\}$$

10파운드의 차	=	} 2온스의 금
40파운드의 커피	=	
1쿼터의 소맥	=	
$1\frac{1}{2}$ 톤의 철	=	
X상품 A	=	

제1 형태로부터 제2 형태에로의, 또 제2 형태로부터 제3 형태에로의 이행에 제하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반하여 제4 형태가 제3 형태와 구별되는 것은 아마포 대신에 이제는 금이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한다는 점만이다. 금은 제4 형태에 있어서 아마포가 제3 형태에서 노는 역할, 즉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보된 것은 직접적인 일반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 즉 일반적 등'가 형태가 이제는 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금이라는 상품의 특수적인 현물 형태와 종국적으로 유착되었다는 점만이다.

금이 화폐로서 다른 상품에 대립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이전부터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들에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도 또한 모든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등'가물로서, 즉 단일한 교환 행위에 있어서의 단독적 등'가물로서, 또 다른 등'가물—상품들과 함께 특수적 등'가물로서 기능하였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얼마만한 범위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품 세계의 가치 표현에서 이 지위에 대한 독점을 정취하자 마자 화폐—상품으로 되며 또 그것이 이미 화폐—상품으로 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4 형태는 제3 형태와 구별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 가치 형태는 화폐 형태로 진화된다.

이미 화폐—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품, 폐컨대 금에 의한, 한 상품, 폐컨대 아마포의 간단한 상대적 가치 표현은 가격 형태이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엘레의 아마포=2온스의 금

또는 만약 2파운드 스텔링이 금 2온스의 주화(鑄貨) 명칭이라면,

20셀레의 아마포=2파운드 스텔링.

화폐 형태의 리해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일반적 등'가 형태에 관한 리해, 따라서 일반적 가치 형태, 즉 제3 형태 일반에 관한 리해만이다. 제3 형태는 소급적(溯及的)으로 제2 형태, 즉 확대된 가치 형태 속에 해소되며 그리고 이 제2 형태의 구성 요소는 제1 형태, 즉 20셀레의 아마포=1매의 저고리 또는 X상품 A=Y상품 B이다. 그러므로 간단한 상품 형태는 화폐 형태의 맹아인 것이다.

제4절 상품의 물신 숭배성(物神崇拜性)과 그 비밀

상품은 얼핏 보아서는 하나의 자명(自明)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하여 보면 그것이 형이상학적 변태성과 신학적 교활성에 차 있는 기괴 무쌍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상품이 사용 가치인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 속성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고찰하든지, 또는 그것이 인간의 노동 생산물로서 이러한 속성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고찰하든지, 하여간 그 속에는 조금도 신비한 것이 들어 있지 않다. 인간이 자기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 물재의 형태를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경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레컨데 목재의 행태는 그로써 탁자를 만들 때에 변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자는 의연히 목재라는,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보통 물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으로 되자마자 감각적인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비단 자기의 네발로 지상에 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생물들 앞에서 머리로 거꾸로 서기도 한다. 그리고 탁자의 이

나무 대가리는 탁자가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기이한 환상을 빚어 낸다²⁵.

그리하여 상품의 신비적 성격은 상품의 사용 가치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것은 가치 규정의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용 노동 또는 생산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다종 다양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인간 유기체의 기능이라는 것, 또 매개의 그러한 기능은 그 내용과 그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본질상으로는 인간의 뇌수, 신경, 근육, 감각 기관 등등의 지출이라는 것은 생리학적 진리이며, 둘째로 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기초로 되는, 이와 같은 지출의 시간적 계속 또는 노동의 분량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직접 감각적으로도 노동의 질과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회 상태하에서도 생활 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 시간은, 비록 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동일 정도에서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²⁶. 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나 또는 저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하게 되자 그들의 노동은 사회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25 우리는 나머지 전 세계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이었던 바로 그 때에 *pour encourager les autres* (다른 것들을 고무 격려하기 위하여) 중국(中國)과 탁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한다.

26 제2판 주. 고대 독일인 간에서는 1 모르겐 [Morgen — 아침]의 토지 면적은 1일간의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르겐의 명칭이 나왔다. Tagwerk (또는 Tagwanne)(jurnale 또는 jurnalís, terra jurnalís, jornalís 또는 diurnalís) Mannwerk, Mannskraft, Mannsmaad, Mannshauet 등등. 게오르그 루드비히 폰 마우테트 《공동체, 장원, 촌락, 도시 조직의 역사와 사회적 권력의 역사 서론》, 뮌헨, 1851년, 129페이지 이하를 보라 [로썬야어 판, B. 프루슈 번역, 모스크바, 1880년, 135페이지 이하 참조].

그렇다면 노동 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하기마자 발생하는 그 수수께끼적 성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분명히 이 상품 형태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각종 인간 노동의 질'적 동일성은 노동 생산물의 동등한 가치 대상성이라는 물'적 형태를 취하며, 인간 노동력 지출의 그 시간적 계속에 의한 측정은 노동 생산물의 가치의 크기라는 형태를 취하며, 끝으로 생산자들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거기서 실현되는 생산자들 간의 관계는 노동 생산물들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단순히 상품 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들 자체의 물'적 성격, 그 물건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사회적 총로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도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의 사회적 관계로서 보이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quid Pro quo (전환)에 의하여 노동 생산물은 상품으로, 감각적인 동시에 초감각적인, 즉 사회적인 물건으로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이 시신경에 주는 광선 작용을 시신경 자체의 주관적 자극으로 느끼지 않고 눈 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 형태로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선이 현실적으로 한개의 물건인 외부적 대상에 의하여 다른 물건인 눈에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 물체들 간의 물리적 관계이다. 이에 반하여 상품 형태 및 거기서 상품 형태가 표현되는 노동 생산물의 가치 관계는 노동 생산물의 물리적 성질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체적 관계와는 절대로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들의 눈에 물건들 간의 관계인 것 같은 환상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실 인간 자체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종교계의 몽롱한 분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그것들 상호간에 또 인간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독자적 생

명이 부여된 독립적 존재물인 것 같이 생각되고 있다. 상품 세계에서 인간의 손의 산물들이 이와 꼭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을 나는 물신 숭배성이라고 부르는바 그것은 로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 마자 그것에 부착하며 또 그러므로 상품 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상품 세계의 이 물신 숭배적 성격은 이상의 분석이 보이여 준 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 로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한다.

소비 대상들이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되는 것은 오직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사'적 로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로동의 복합체가 사회적 총로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그들의 로동 생산물의 교환에 의해서만 비로소 사회적 접촉을 맺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로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역시 이 교환의 내부에서만 비로소 발현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환에 의하여, 로동 생산물들 간에 수립되는 제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중개로 하여 생산자들 자체간에 수립되는 제 관계를 통해서만 사'적 로동은 사실상 사회적 총로동의 일환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그들의 사'적 로동의 사회적 제 관계는 그것들이 사실상 나타나 있는 바로 그대로, 즉 로동에 있어서의 사람들 자신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로가 아니고 도리어 사람들의 물'적 관계 및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인다.

로동 생산물들은 그 교환 내부에서만 그것들의 감각적으로 각이한 사용 가치로부터 분리된, 사회적으로 동일한 가치 대상성을 획득한다. 로동 생산물의 유용물과 가치물로서의 이와 같은 분별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보급되고 중요하게 되어 유용물들이 전문적으로 교환을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물건들의 가치적 성격이 생산 당초부터 고려되는 때에만 사실상 실현될 수 있다. 이 순간부터 생산자들의 사'적 로동은 이중적인 사회

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가지게 된다. 사'적 노동은 한편으로는 일정 종류의 유용 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적 분업의 자연 생장적 체계에 있어서의 총로동의 일부분이며 그 환절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매개의 특수한 유용적 사'적 노동이 다른 모든 종류의 유용한 사'적 노동과 교환될 수 있는 한에서만 따라서 그것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한에서만 사'적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킨다. *toto coelo* 모든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각종 노동의 동등성은 오직 그것들의 현실적 차이를 사상함으로써만, 즉 그것들이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 소유하는 공통적인 성격에 그것들을 환원시킴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 사'적 생산자들의 두뇌에는 그들의 사'적 노동의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은 실천적인 상품 매매와 생산물의 교환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만 반영된다. 따라서 사'적 생산자들의 두뇌에 그들의 사'적 노동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성격이 반영될 때 그것은, 노동 생산물은 반드시 유용한 것이어야 하기는 하나 그러나 생산자 자신에게가 아니고 타인에게 유용하여야 한다는 형태를 취하며,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이 반영될 때 그것은, 물질적으로 각이한 물건들인 노동 생산물들은 공통적인 가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 생산물이 그들에게 동종의 인간 노동의 물'적 외피(外皮)로서 밖에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가치로서 서로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사람들은 교환시에 그들의 각이한 종류의 생산물을 가치로서 서로 등치함으로써 그들의 각이한 로동을 인간 노동으로서 서로 등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²⁷.

27 제2판 주. 그러므로 갈리아니가 가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므로 가치의 이마에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씌여 있는 것은 아니다. 가치는 오히려 매개의 노동 생산물을 일종의 사회적 상형 문'자(象形文字)로 전환시킨다. 후에 사람들은 이 상형 문'자의 의미를 해독(解讀)하려고 하며 그들 자신의 사회적 산물의 비밀을 찾아 내려고 노력한다. 소비 대상의 가치로서의 규정은 레컨대 언어에 비하여 못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사회적 산물인 것이다. 노동 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에 있어서는 그 생산에 지출된 인간 노동의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후일의 과학적 발견은 인류 발전사에 있어서 획기적(劃期的)인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물'적 외견을 없애 버리지는 못 한다. 서로 독립한 사'적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은 인간 노동 일반으로서의 그것들의 동등성에 있으며 또한 노동 생산물이 가치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 있다는 것은 오직 일정한 특수한 생산 형태인 상품 생산에만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생산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상술한 발견 이전이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상품 생산의 이 특성이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는 듯이 보이는바 이것은 마치 하나의 물리적인 물체적 형태로서의 공기의 속성이, 과학이 공기를 그 구성 원소들로 분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생산물의 교환 당사자들은 우선 실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의 생산물 대신에 얼마만큼 타인의 생산물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어떠한 비불로써 생산물들이 교환되는가? 이 비불은 그것이 관습에 의하여 어느 정도 고정화되게 되면 마치 노동 생산물 자체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다——《La Ricchezza è una ragione tra due Persone》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는 물'적 외피로 가리워진 관계라고 첨가했어야 할 것이다 (갈리아니 《화폐론》, 쿠스투디 편찬 《이태리 정치 경제학 교전집》, 현대 부, 제3권, 밀라노, 1803년, 221페이지).

같이 보인다. 그리하여 때컨대 1톤의 철과 2온스의 금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은 마치 1파운드의 금과 1파운드의 철이 이 물체들의 물리—화학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과 전연 마찬가지로 보인다. 사실상 노동 생산물의 가치적 성격은 그것이 특정량의 가치로서 실현됨으로써만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 가치의 크기는 교환 당사자들의 의지, 예전 및 행동과는 관계 없이 부단히 변동한다. 교환 당사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운동은 그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이 그 통제를 받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서로 독립하여 수행되나 그러나 사회적 분업의 자연 생장적인 일환으로서 전면적으로 호상 권결되어 있는 사'적 로동이 일정한 비율로써 그 사회적 척도에 부단히 환원된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경험 자체로부터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완전히 발전된 상품 생산이 필요하다. 그리 유는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사'적 노동 생산물들의 우연적이며 부단히 동요하는 교환 비율을 통하여 마치 사람의 머리 위에 집이 무너지는 때에 있어서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작용하는, 규제적(規制的)인 자연 법칙으로서 강제적으로만 관철되기 때문이다²⁸. 그러므로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의 크기의 결정은 상대적 상품 가치의, 눈에 보이는, 운동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노동 생산물의 가치의 크기가 마치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듯한 환상을 제거하기는 하나 그러나 결코 가치의 크기의 결정의 물'적 형태를 제거하지는 못 한다.

28 《주기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것의 작용을 받는 사람들의 무의식성에 법각하는 하나의 자연—법칙인 것이다》(프리드리히 엥겔스 《국민 경제학 비판 대강》, 아놀드 루게 및 칼 맑스에 의하여 간행된 《주일—불탄서 년보(年報)》에 실림, 파리, 1844년)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2권, 300페이지].

인간 생활의 제 형태에 관한 고찰 또 따라서 이 제 형태의 과학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현실적 발전과는 반대 방향의 길을 밟는다. 그것은 *Post festum* (일이 지난 후에) 일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발전 과정의 기성 결과로부터 출발한다. 노동 생산물에 상품의 라인을 찍는, 따라서 상품 유통의 전제 조건으로 되는 인간 생활의 제 형태는 사람들이 이 형태들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가 아니라——이 형태들은 오히려 그들이 보는 바에는 불변적인 것이었다——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첫 시도를 하기 전에 벌써 사회 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견고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직 상품 가격의 분석만이 가치의 크기의 규정에 도달케 하였고 또 오직 상품의 공통적인 화폐적 표현만이 상품의 가치적 성격의 확정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상품 세계의 이러한 완성 형태인 화폐 형태야말로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따라서 사'적 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명백히 보이게 할 대신에 그것을 물건들으로써 얹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저고리, 장화 등등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일반적 체화물로서의 아마포에 관계한다고 말한다면 이 표현이 이상하다는 것은 곧 눈에 띈다. 그러나 저고리, 구두 등등의 생산자들이 이 상품들을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아마포에——또는 마찬가지로이지만 금, 은에——관계시킬 때 그들에게는 사회 총노동에 대한 그들의 사'적 노동의 관계가 바로 이 이상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종류의 제 형태는 바로 부르췌아 경제학의 제 범주를 형성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상품 생산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 방식의 생산 제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따라서 객관적인 사유(思惟) 형태이다. 그러므로 상품 생산의 기초 위에서 노동 생산물을 몽롱하게 들터 짜는 상품 세계의 모든 신비, 모든 마술과 환영(幻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생산 형태로 이행하자 마자 즉시로 소멸된다.

정치 경제학은 로빈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에²⁹ 우선 로빈슨의 섬에서의 생활을 보기로 하자. 로빈슨은 그 본성이 검소하기는 하나 그래도 그는 각종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따라서 도구를 만들며 가구를 제작하며 라마를 길들이며 물'고기를 잡으며 사냥을 하는 등등의 각종 유용 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도(祈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의 로빈슨은 이러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활동을 위안거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의 생산적 기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기능의 전체가 동일한 로빈슨의 활동의 각이한 형태, 따라서 인간 로동의 각이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절실한 필요로 말미암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각이한 기능간에 정확히 할당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기의 유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그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곤난성의 다소에 따라서, 이런 또는 저런 기능이 그의 총활동에 있어서 많은 또는 적은 자리를 차지한다. 경험은 그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난선(難船)으로부터 시계와 원장부(元帳簿)와 잉크와 철필을 구원해 낸 우리의 로빈슨은 참다운 영국 사람답게 즉시로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부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의 재산 목록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비 대상들,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작업, 끝으로 이 각종 생산

29 제2판 주. 리카드에게도 역시 그 로빈슨 이야기가 없지 않다. 《그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군으로 하여금 즉시로 상품 소유자로서 물'고기와 짐승을, 이것들의 교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비례하여 교환하도록 만든다. 이때 그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군이 1817년 런던 주식 취인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년리(年利) 재산 포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노동 도구의 평'가를 한다는 시대 착오에 빠지고 있다. <오웬 씨의 평행 사변형>이 부르조아 사회 형태 이외에 그가 알고 있던 유일의 사회 형태인 듯 하다》(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38, 39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판, 제12권, 제1부, 47페이지 참조].

물들의 일정 분량에 그가 평균적으로 들이는 노동 시간 등의 명세서가 포함된다. 로빈슨과 그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부를 구성하는 물건들과의 전체 관계는, 이 경우에 막스 비르트 씨까지도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는 벌써 가치에 관한 일체의 본질적인 규정이 들어 있다. /

이제 우리는 로빈슨의 밝은 섬으로부터 음침한 구라파의 중세기로 옮겨 가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하여 있는 인간 대신에 모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농노와 영주, 가신(家臣)과 제후(諸侯), 속인과 승려——을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인격적 의존성이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제 관계와 또한 그 기초 위에 구축된 생활 제 분야를 모두 특징 짓는다. 그러나 인격적 의존 관계가 소여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까닭에 노동 및 생산물은 그것들의 현실성과는 다른 환상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노동 및 생산물은 현물 부역과 현물 공급으로서 사회 생활의 순환 속에 들어 간다. 노동의 자연적 형태, 즉 노동의 특수성이 여기에서는 상품 생산에 입각하는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노동의 일반성이 아니라 노동의 직접 사회적인 형태로 된다. 부역 노동도 상품 생산 노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기는 하나 매개의 농노는, 그가 자기의 영주를 위한 부역에 지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노동력의 일정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승려에게 바쳐야 하는 10분지 1세는 그가 승려로부터 받는 축복에 비하면 훨씬 더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기 사람들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의 그 특징적인 외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노동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 자신의 인격적 관계로서 나타나지 물건들, 즉 노동 생산물들의 사회적 관계라는 의복으로 엄폐되지 않는다.

공동적인, 다시 말하면 직접 사회화된 노동을 교환하기 위

하여는 우리는 모든 문화 민족의 력사의 초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로동의 자연 성장적 형태에까지 소급하지 않아도 된다³⁰. 자가 소비를 위하여 곡물, 가축, 방사, 아마포, 피복 등등을 생산하는 농민 가족의 농촌 가부장적 생산이 일층 비근한 실태로 된다.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은 그들의 가족 로동의 각이한 생산물이기는 하나 그러나 상품으로서 상호간 매립하지는 않는다. 이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각이한 로동인 경작, 가축 사육, 방적, 직조, 재봉 등등은 그 자연적 형태에 있어서 사회적 제 기능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상품 생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독자적인 자연 발생적 분업을 가진 가족의 제 기능이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별 그리고 또 계절의 교체와 더불어 변동하는 토동의 자연적 제 조건은 가족 성원들 간의 로동의 배당과 개별적 가족 성원의 로동 시간을 규제한다. 그러나 개인 로동력 지출의 시간에 의한 측정은 여기에서는 당초부터 로동 자체에 사회적 성격을 부여한다. 왜냐 하면 개인 로동력은 여기에서는 당초부터 가족의 총로동력의 기관(器官)들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방향을 바꾸어 공동적 생산 수단으로써 일하며 또

30 제2판 주. 《원시 공동체적 소유 형태는 특수적으로 쓸라브적 형태이며 심지어는 오로지 로씨야적 형태라고까지 하는 가소로운 편견이 최근에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인, 게르만인, 켈트인들에게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이며, 이러한 종류의 형태의 훌륭한 포본들은 부분적으로는 황폐화되어 버렸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공동체적 소유의 아제아적, 특히 인도적 형태의 일층 면밀한 연구는 원시 공동체적 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들로부터 어떻게 그 분해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하여 메컨데 로마적 및 게르만적 사'적 소유의 각이한 원형(原型)들은 인도적 공동체 소유의 각이한 형태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10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편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19—20페이지 참조].

자기들의 개인적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동맹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도 로빈손적 노동의 모든 규정들이 반복되나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규모에서이고 개인적 규모에서가 아니다. 로빈손의 전체 생산물은 오로지 그의 개인적 생산물이었고 따라서 직접 그 자신을 위한 소비 대상이었다. 자유인들의 동맹의 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분은 다시 생산수단으로 쓰인다. 이 부분은 의연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부분은 동맹원들의 생활 수단으로서 소비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그들 간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분배 방식은 사회적 생산 유기체 자체의 성격 여하에 따라 또 그에 대응하는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 여하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 생산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매개 생산자의 생활 수단에 대한 몫이 그의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된다면 노동 시간은 이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 시간의 사회적—계획적 분배는 각이한 욕망에 대한 각이한 노동 기능의 적합한 비율을 규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시간은, 그와 동시에, 공동 노동에 대한, 따라서 또한 공동 생산물중의 개인적 소비 부분에 대한 생산자의 개인적 몫의 척도로 된다. 노동과 노동 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여기서 생산에 있어서나 분배에 있어서나 투명하게 명료하다.

상품 생산자들의 일반적 사회적 생산 관계는, 그들의 생산물이 상품, 즉 가치로 되며, 또 이 물'적 형태에서 그들의 사'적 노동이 동등한 인간 노동으로서 호상 관계를 가지는 점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에게 가장 적당한 형태의 종교는 추상적 인간을 숭배하는 기독교, 특히 신교(新敎), 리신론(理神論) 등등과 같은, 부르조아적으로 발전된 기독교이다. 고대—아세아적, 고대적 등등의 생산 방식하에서는 생산물의 상품에로의 전화,

따라서 또한 상품 생산자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종속적인 역할을 놀 뿐이었으나 그러나 그 역할은, 공동체 제도가 몰락하여 가면 갈수록 일층 더 컸던 것이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상업 민족은 에피쿠로스의 신(神)들과 같이 또는 파란 사회의 빈틈에 끼여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고대 세계의 간극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대의 사회적 생산 유기체는 부르조아의 그것에 비하여 비참히 더 간단 명료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적—씨족 관계의 태²출로부터 아직 분리되지 못한 개인들의 미성숙에 립각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립각한 것이었다. 그러한 생산 유기체의 존재 조건으로 된 것은 노동 생산력의 낮은 발전 단계 및 그에 대응하는 생활의 물질적 생산 과정 내부에서의 국한된 인간 관계, 따라서 인간 상호간과 인간 대 자연간의 국한된 관계이었다. 이 현실적 국한성이 관념적으로는 자연 승배의 고대 종교 및 민중 신앙에 반영되었다. 현실 세계의 종교적 반영은 오직 실천적인 일상 생활 관계가 사람들에게 인간 대 인간 및 인간 대 자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련관을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그 때에라야만 일반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 사회적 생활 과정, 즉 물질적 생산 과정의 체제는 그것이 자유롭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산물로서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있게 되는 그 때에라야만 비로소 그 신비하고 몽롱한 얽매음을 벗어 버린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의 일정한 물질적 기초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 자체가 장구하고 고통스러운 발전 력사의 자연 발생적 산물인 일련의 물질적 생존 조건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학이 가치 및 가치의 크기를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나³¹ 분석하였고 또 이러한 형식들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폭

31 가치의 크기에 관한 리카도의 분석——그런데 이것이 제일 우수한 분석이다——에 있어서의 불충분성은 본 저술의 제3부 및 제4부에

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 내용이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가, 확인하면 어째서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며 또 왜 시간적 계속에 의한 노동의 측정이 노동 생산물의 가치의 크기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은 정치 경제학이 한번도 문제로 제기한

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치 일반에 관하여 말한다면 고전 정치 경제학은 어디서나 가치로 표현되는 노동을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의 그 동일한 노동과 뚜렷하게는 또 십분의 의식적으로는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전 정치 경제학이 이 구별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왜냐 하면 하여튼 제1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을 질'적 방면에서, 그리고 제2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량'적 방면에서 고찰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순진한 량'적 구별이 그것의 질'적 통일성 또는 동등성을, 따라서 추상적 인간 노동에로의 그것의 환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고전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레킨데 리카도는 메스튀르 메 트라 씨의 다음과 같은 말에 찬동한다고 인정하였다. 《우리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본원적(本源的) 부입은 의심할 바 없는 까닭에 이 능력의 활용 즉 온갖 종류의 노동은 우리의 본원적 재보(財寶)로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라고 칭하는 모든 물건들이 창조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을 활용하는 결과이다……. 이 모든 물건들은 그것들을 창조한 노동을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만약 이 물건들이 하나의 가치론 가진다면, 혹은 두개의 각이한 가치들을 가진다 해도 이 가치는 오직 그 물건을 산출하는 노동의 가치로 부러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명백하다》(리카도《정치 경제학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334페이지)〔또한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판, 1835년, 178페이지 참조〕. 우리는 다만 리카도가 자기 자신의 일층 더 심각한 뜻을 메스튀르의 말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메스튀르는 사실 한편으로는 부를 형성하는 모든 물건이 《그것을 창조한 노동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물건들이 그 《두개의 상이한 가치》(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부터 획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선 한 상품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를 전제하고 다음에는 또 그것으로 다른 상품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속류 정치 경제학의 천박한 순환 논'법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리카도는 메스튀르의 이 말을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나 할 것 없이 그것들에는 노동 (노동의 가치가 아니요) 이 표현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고 있다. 그러나 리카도 자신은 이중적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을 구별하지 못한 탓으로 《Value and Riches, their Distinctive Properties》〔가치 및 부, 그것들의 각이

일조차 없었다³². 생산 과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생산 과정을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구성에 속한다는 것을 이마우에 써붙인 정식화들이 그들의 부르조아적 의식에는 생산적

한 제 속성》이라는 전 장에 걸쳐서 J·B·세이와 같은 사람의 우둔은 일일이 상대로 하여 논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 그는 에스튀트가,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에 관해서는 틀림 없이 자기의 견해와 일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가치 개념의 규정에 관해서는 에스튀트가 세이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다.

32 고전 정치 경제학의 근본적 결합의 하나는 그것이 상품 특히 상품 가치의 분석으로부터 상품 가치로 하여금 바로 교환 가치로 되게 하는 가치 형태를 끌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바로 A·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그 최선의 대표자들에 있어서도 고전 정치 경제학은 가치 형태를 전연 아무때도 좋은 것으로서 또는 상품 자체의 성질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전 정치 경제학이 가치의 크기의 분석에 전체 주의를 매았겼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더 심각한 데 있다. 노동 생산물의 가치 형태는 부르조아적 생산 방식의 가장 추상적인, 그리고 또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바로 이 형태에 의하여 부르조아적 생산 방식은 사회적 생산의 특수한 형(型)으로서 특징 지어지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동시에 역사적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부르조아적 생산 방식을 사회적 생산의 영원한 자연적 형태로서 잘못 고찰한다면, 가치 형태의 독자적 특수성도, 따라서 상품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폐 형태, 자본 형태 등등의 특수성까지도 필연적으로 간파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의 크기의 측정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제학자들 간에서도 화폐에 관해서는 즉 완성된 일반적 등가물의 형태에 관해서는 가장 기이하며 모순된 편견들을 발견한다. 이것은 레컨데 화폐에 관한 보통 통용되는 정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행 업무를 논하는 경우에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에 대립하여 가치에서 오직 사회적 형태만을, 지어 이 형태의 아무런 실체도 없는 외관만을 보는 부활된 중상주의적 체계 (가닐 등등)가 발생하였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한번 최후적으로 주의해 둘 것은 내가 고전 정치 경제학이라 하는 것은 부르조아적 생산 관계의 내적 면만을 연구하는 W·페티 이후의 모든 경제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속류 경제학은 오직 피상적 면만의 범위내에서만 헤매이며 그것은 이론이면 경제 생활의 가장 조잡한 현상을 그럴듯 하게 설명하여 부르조아의 자가용 수요에 응할 목적으로, 벌써 훨씬 전에 과학적 정치 경제학에 의하여 제공

로동 자체와 마찬가지로 정도로 자명하며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학이 사회적 생산 유기체의 부르조아 이전의 형태들을 취급하는 태도는 대체로 교부(敎父)들이 기독교 이전의 종교들을 취급하는 태도와 흡사하다³³.

된 자료들을 되풀이하여 반추(反誦)하고 있다. 기타 점들에 있어서는 속류 경제학은 부르조아적 생산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제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천박하고 자만적인 편견을 현학적(衡學的)으로 체계화하며 또 이 편견을 영원한 진리로 선포하는 것만에 국한되어 있다.

33 《경제학자들은 기묘한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두 종류의 제도, 인위적 및 자연적 제도가 있을 뿐이다. 봉건 제도는 인위적 제도이고 부르조아 제도는 자연적 제도이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역시 두 종류의 종교를 설정하는 신학자들과 흡사하다. 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고 이에 반하여 그들 자신의 종교는 신의 묵시(默示)이다. 그러므로 한때에는 역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더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반박》, 1817년, 113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모색야어판, 제5권, 373페이지 참조]. 고대 회랍인 및 로마인은 오직 탁탈에 의해서만 생활하였다고 상상하는 바스찌아 씨는 우습기 짝이 없다. 대체 만약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탁탈에 의해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탁탈할 수 있는 물건이 항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반드시 탁탈 대상이 부단히 재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랍인과 로마인도 역시 마치 부르조아 경제가 현대 세계의 물질적 토대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의 물질적 토대로 되었던 어떤 생산 과정, 따라서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혹은 바스찌아는 노예 로동에 법착하는 생산 방식은 탁탈 제도에 법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위험한 길에 들어 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상가까지도 노예 로동의 평'가를 잘 못했었는데 하물며 바스찌아와 같은 그러한 미미한 경제학자가 어떻게 임금 로동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나의 저술 《정치 경제학 비판, 1859년》이 발간된 당시 독일어로 간행되는 어떤 아메리카 신문이 나에게 가한 항의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겠다. 이 신문은 말하기를 특정 생산 방식 및 그에 적응하는 생산 제 편제, 간단히 말하면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그 우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층 구조가 서며

일부 경제학자들이 상품 세계에 내재하는 물신 숭배성, 또는 노동의 사회적 규정의 물'적 외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도로 혼란에 빠졌는가 하는 것은 개중에도 교환 가치의 형성에 있어서의 자연의 역할에 관한 그들의 지리하고 무의미한 논쟁이 보이여 주는 바이다. 교환 가치는 어떤 물건에 지출된 로동을 표현하는 일정한 사회적 방식인 까닭에 그것은 레컨대 위체 시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연 물재도 포함할 수 없다.

상품 형태는 부르조아적 생산의 가장 일반적인, 가장 덜 발전된 형태인 까닭에——그러므로 그것은 비록 현시에 있어서처럼 지배적이며 따라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발생하였던 것이다——그 물신 숭배적 성격이 아직은 비교적 용이하게 포착될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 의견상의 단순성까지도 소멸한다. 중금주의(重金主義)의 환상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 그것은 중금주의가 화폐로서의 금 은에서 극히 이상한 사회적 속성을

사회적 의식의 특정 형태가 그에 대응하는 현실적 토대로 된다》고 하는, 또《물질적 생활의 생산 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제약한다》[K·맑스, F·엔겔스 전집, 제12권, 제1부, 6페이지]고 하는 나의 이 모든 견해는 물질적 리테 관계가 지배하는 현대 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당하나 카톨릭교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기나 그리고 또 정치가 지배하고 있던 아테네 및 로마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선 놀라운 것은 중세기 및 고대 세계에 관한 이 주지의 관용 언사를 어떤 누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전제하고 떠벌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기가 카톨릭교에 의해서는 생활할 수 없었고 고대 세계가 정치에 의해서는 생활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하다. 반대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생활 수단의 획득 방식이 한 경우에는 정치가, 다른 경우에는 카톨릭교가 주요한 역할을 논 리유를 설명하여 준다. 그 뿐만 아니라 레컨대 토지 소유의 역사가 로마 공화국의 리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로마 공화국의 역사에 그다지 정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벌써 돈·키호테는 편력기사(遍歴騎士)가 어떤 사회 경제 형태와도 동일하게 랑립할 수 있다고 망상했던 그 오류에 대하여 특특히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이다.

가치는 자연물들의 형태로써라 할지라도 하나의 사회적 생산 관계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이처럼 존대한 태도로 중금주의를 멸시하는 현대 정치 경제 학도 그것이 자본을 취급하자 마자 물신 숭배성을 아주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지대는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토지로부터 발생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환상이 소멸한 것은 얼마나 오랜 일인가?

그러나 너무 앞으로 뛰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우선 상품 형태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실례로써 만족하기로 하자. 만약 상품이 말할 줄을 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 우리의 사용 가치는 아마 사람들에게는 리해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용 가치는 물건으로서의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물'적 성질에 속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치이다. 상품물(商品物)로서의 우리들 자신의 튜통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교환 가치로서만 피차간 관계한다라고. 이제 이러한 상품의 심정이 경제학자들의 입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들어 보자. 《가치(교환 가치)는 물건의 속성이요 부(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가치는 필연적으로 교환을 전제로 하나 부는 그렇지 않다³⁴⁾.》 《재부(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요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다. 어떤 인간 또는 어떤 공동체는 부유하다. 진주 또는 금강석은 가치 있는 물건이다. ……진주 또는 금강석은 진주 또는 금강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³⁵⁾. 이때까지 아직 단 한 사람의 화학자도 진주 또는 금강석 속에서 교환 가치를 발견한 일이 없다. 그러나 사상의 비판적 깊이를 특히 자부하는 이 화학적 실체의 경제학적 발견

34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상 논쟁에 관한 고찰. 특히 가치 및 수요, 공급에 관하여》. 런던, 1821년, 16페이지.

35 S·베일리 《가치의 성질……에 관한 비판적 논술》, 165페이지.

자들은 물건의 사용 가치는 그 물'적 속성과는 무관계 하며 이에 반하여 가치는 물건으로서의 그것에 내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들의 이와 같은 견해를 확증하는 것은, 물건의 사용 가치는 인간을 위하여 교환 없이 다시 말하면 물건과 사람들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되나 이에 반하여 물건의 가치는 오직 교환에 있어서만, 다시 말하면 일정한 사회적 과정에 있어서만 실현된다는 기묘한 사정이다. 여기에서 《잘 생긴 용모는 환경의 덕택이지만 글썽고 글썽 쓰는 솜씨는 타고난 재질이다》라고 야경(夜警) 씨콜에게 가르치는 선량한 도그베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36 상기 《……교환》의 저자와 S 베일리는 리카도가 교환 가치의 상대적인 성격을 간파하고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전화시켰다고 그를 비난한다. 사실은 이것과 반대이다. 그는 레컨데 금강석, 진주와 같은 이러한 물건들이 교환 가치로서 소유하는 그 외관상 상대성을 이 외관의 배후에 숨어 있는 그것들의 실재적인 관계인, 인간 노동의 단순한 표현으로서의 그것들의 상대성에 환원시켰던 것이다. 만약 리카도 학파가 베일리에 대하여 탄포한 언사를 썼으나 그러나 적절하게는 답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이 리카도 자신에게서 가치와 가치 형태 즉 교환 가치간의 내부적 면면에 관한 아무런 해명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 2 장 교 환 과 정

상품들은 자신이 시장에 가서 스스로 교환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품의 수호자(守護者)인 상품 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은 물건인 것만큼 인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품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다³⁷. 이 물건들을 상품으로서 서로 관계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수호자들은 그의 의지가 이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물들로서 서로 관계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 상품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따라서 각자는 쌍방에 공통된 하나의 의지 행위를 증개로 해서만 자기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면서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피차간 사'적 소유자로서 서로 승인해야 한다.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이 법률적 관계는——법률로써 확정되든 말든 간에——경제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의지 관계이다. 이 법률적 또는 의지적 관계의 내용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에 의하여 주어진다³⁸. 사

37 그 경건성(敬虔性)으로써 소문난 12세기에 있어서도 상품들 중에는 가끔 극히 미묘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불탄서의 한 시인은 탄디의 시장에 나타난 상품들 중에서 천, 구두, 피혁, 농기구, 모피(毛皮) 기타와 아울러 «femmes folles de leur corps» [몸을 파는 여자]를 들었다.

38 프루동은 처음에 정의, (justice éternelle) (영원한 정의)라는 자기의 리상을 상품 생산에 대응하는 법률 관계로부터 끌어 낸다. 말이 난 김에 몇 마디 더 말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상품 생

람들은 여기서 오직 상품의 대표자로서만 따라서 상품의 소유자로서만 서로 존재한다. 연구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물들의 특징적인 경제적 가장(假裝)은 경제적 관계의 인격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 관계의 담당자로서 서로 대립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품 소유자가 상품과 특히 구별되는 점은 상품에게 있어서는 매개의 다른 상품체가 그 자신의 가치의 발현 형태로 밖에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정이다. 상품은 날 때부터 수평주의자(水平主義者)이며 견유 학파(犬儒學派)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어떠한 상품과도, 비록 그것이 마리로든 보라도 더 추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단 그 정신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교환할 용의를 항상 가지고 있다. 상품에게는 다른 상품체의 구체적 속성을 파악할 감각이 없으나 상품 소유자가 이것을 자기 자신의 5관 및 그 이상의 감각으로써 보충하여 준다. 그의 상품은 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용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품 소유자에게는 그것은 교환 가치의 담당자, 따라서 교환 수단으로 된다는 점에만 직접적 사용 가치가 있는

산 형태는 정의와 꼭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라는, 모든 시정배들에게 것처럼 위안이 되는 통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반대로 현실적 상품 생산 및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 법률을 이 정의라는 리상에 합치되도록 개조하려고 한다. 만약 어떤 화학자가 신진 대사의 현실적 제 법칙을 연구하여 그 기초 위에서 일정한 과립들을 해결할 대신에 신진 대사를 《자연성》 및 《친화력(親和力)》이라는 《영원한 리념》에 맞추어 개조하려고 한다면 이 화학자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냐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고리 대금》은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 부조》 및 기타의 《영원한 진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고리 대금에 관하여, 일찌기 그것이 《영원한 자비》 《영원한 신앙》 《영원한 신의 의지》와 모순된다고 밀한 표부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있는가?

것이다³⁹.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는 그에게 필요한 사용 가치를 가진 상품과 교환으로 자기 상품을 양도하려고 원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비사용 가치이고 그것의 비소유자에게는 사용 가치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항상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데서 상품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바 이 교환에서 상품들은 가치로서 피차 관계하며 또 가치로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상품들은 그것이 사용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상품은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사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그에 지출된 인간 노동은 그것이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간에 있어서만 제산에 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아니한가, 따라서 노동 생산물이 어떤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상품 소유자든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 가치를 가지는 다른 상품과 교환으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교환은 그로 보아서 순전히 개인적 과정이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시킬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

39 《왜냐 하면 매개의 재물의 용도는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물건에 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레컨데 쥘신은 신은 메도 쓰일 수 있고 교환에도 쓰일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쥘신의 사용 가치이다. 왜냐 하면 쥘신을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물건, 레컨데 식로폼과 교환하는 사람까지도 역시 쥘신을 쥘신으로서 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쥘신의 자연적인 사용 방식은 아니다. 쥘신은 교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부, 제9장) [로썬야어 판, C·A·제벨레와 번역, 성 페페르부르그, 1911년, 23페이지 참조].

소유자에게 대하여 사용 가치를 가지든지 안가지든지 간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다른 임의의 상품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시킬 것을 원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교환은 그로 보아서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상품 소유자 전체에게 동시적으로 개인적 과정만이 되며 또 일반적 사회적 과정만이 될 수는 없다.

더 세밀하게 고찰하면 매개의 상품 소유자에게 대하여 모든 타인의 상품은 그의 상품의 특수적 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그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쓰인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상품 소유자가 동일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또 상품들은 그것들이 가치로서 등치되며 가치량으로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생산물 즉 사용 가치로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 곤경에 직면 하여 우리의 상품 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처음에 행동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유하기 전에 이미 행동하였던 것이다. 상품 성질의 법칙들은 상품 소유자들의 자연적 본능에서 발현된다. 그들은 자기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어떤 다른 상품과 대립시켜 관현시킴으로써만 비로소 그것을 가치로서 또 따라서 상품으로서 서로 등치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상품 분석이 보이며 준 바이다. 그러나 오직 사회적 행위만이 특정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상품들의 사회적 행동은 그것들 전체가 자신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한 개의 특정 상품을 그것들 중에서 떼어 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 형태로 된다.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이 상술한 사회적 과정에 의하여, 이 선발된 상품의 전문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

하여 이 상품은 화폐로 된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짐승에게 힘과 권력을 부여한다》. 《장차 이 휘장(徽章)을 가지는 자 이외에는 누구나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니 휘장이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자이다》(요하네, 묵시록(默示錄)) [제17상 제13절 및 제13장 제17절].

화폐적 결정(結晶)은 각종 로동 생산물이 실지 서로 등치되며 따라서 또 실지로 상품에 전화되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교환의 확대 심화의 역사적 과정은 상품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간의 대립을 발전시킨다. 교역의 목적상 이 대립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려는 욕망은 상품 가치의 한개의 독립적 형태를 성립시켰고 이 욕망은 이 형태가 상품과 화폐에로의 상품의 분화(分化)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완결될 때까지는 쉬거나 멎는 일이 없다. 따라서 바로 로동 생산물의 상품에로의 전화가 실현되는만큼 그만큼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도 실현된다⁴⁰.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은 한편으로는 간단한 가치 표현의 형태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 간단한 가치 표현의 형태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χ 상품 $A = \varphi$ 상품 B 이다.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의 형태는 χ 의 소비 대상 $A = \varphi$ 의 소비 대상 B 이다⁴¹. 여기서는 A 와 B 라는

40 상품 생산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화폐와 상품간의 대립》을 제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화폐 그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는——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이 대립에서만 존재하는 까닭에——소 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계계를 상술한 바에 의하여 평'가해 보라. 만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법왕(法王)을 폐지하고 카톨릭교를 존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것은 나의 저서 《정치 경제학 비판》 6: 폐지 이하를 보라.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68페이지 이하).

41 두개의 각이한 소비 대상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개인 간에 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물건들의 잡다한 일군(一群)이 어떤 제3의 물건에 대한 등'가물로서 제공되는 그 동안은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까지도 겨우 그 입구에 서 있을 뿐이다.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을 통하여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소비 대상이 잠재적 교환 가치로 되는 첫째 전제는 그 소비 대상이 비사용 가치로 되는 것, 즉 그것의 소유자의 직접적 욕망을 초과하는 량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데 있다. 물건들 그 자체는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오직 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 소유자로서 또 바로 그런 까닭에 서로 독립한 인격들로서 암묵리에 서로 대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호간 독립 관계는 그것이 가부장적 대가족이거나 교대 인도적 공동체이거나 잉카 국가 및 기타 등등이거나 그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자연 발생적 공동체의 성원들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 교환은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 성원과 접촉하는 점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번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내부적 공동 생활에서도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물건들의 량'적 교환 비율은 최초에는 전연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은 그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는 의지 행위에 의해서만 교환될 수 있다. 그러는 중에 라인 소유의 소비 대상에 대한 욕망이 점차로 강화된다. 교환의 부단한 반복은 그것을 정규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분은 미리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한편으로 직접적 수요에 대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을 위한 물건의 유용성 간의 분리가 확고히 된다. 물건의 사용 가치는 물건의 교환 가치로부터 분리된다. 다른 한편 물건들이 교환되는 량'적 비율은 그것들의 생산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그러한 량'적 비율을 가치의 크기로서 고정시킨다.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에 있어서는 매개 상품은 그 소유자

에게는 직접적 교환 수단으로 되며 비소유자에게는 등'가물로 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이 상품이 후자에게 사용 가치로 되는 한에 있어서 뿐이다. 그러므로 교환물은 아직은 그 자신의 사용 가치로부터, 즉 교환 당사자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독립된 가치 형태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독립된 가치 형태의 필요성은 교환 과정에 들어 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과정은 그 해결 수단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품 소유자들이 그들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각이한 물품들과 교환하며 비교하는 상품 류통은, 각이한 상품 소유자들의 각이한 상품이 그 류통 내부에 있어서 동일한 제3의 상품 종류와 교환되며 또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수행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3의 상품은 각이한 다른 상품을 위하여 등'가물로 됨으로써 비록 협소한 한계내에서 일지라도 직접 일반적 또는 사회적인 등'가 형태를 획득한다. 이 일반적 등'가 형태는 그것을 발생시킨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동시에 성립하며 또 소멸한다. 그것은 번갈아 또 일시적으로 흑시는 이 상품에 흑시는 저 상품에 속한다. 그러나 상품 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은 전'적으로 한개의 특종 상품에 고착된다. 즉 화폐 형태로 결정(結晶)된다. 그것이 바로 어떤 종류의 상품과 유착(癒着)하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화폐 형태는 교환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서 사실상 토착 생산물의 교환 가치의 자연 발생적 현상 형태로 되는 물품과 유착하든지 혹은 레컨대 가축과 같은 양도할 수 있는 토착 재산의 주요한 요소로 되는 소비 대상과 유착하든지 한다. 유목 인민들은 자체에서 화폐 형태를 발전시킨 최초의 인민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전 재산은 가동적(可動的)인 따라서 직접 양도될 수 있는 형태에 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은 그들을 부단히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게 하며

그에 따라 생산물 교환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 재로로 전환시킨 일은 가끔 있었으나 그러나 로지를 화폐 재로로 전환시킨 일은 없었다. 그러한 사상은 이미 발전된 부르조아 사회에서만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상은 17세기의 최후 3분의 1시기에 가서 비로소 나타났고 또 그 사상을 국민적 규모에서 실천에 옮기는 일은 그후 100년을 지나 불란서 부르조아 혁명시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상품 교환이 그 협소한 지방적 한계를 돌파하고 따라서 상품 가치가 인간 노동 일반의 체화물로 발전함에 따라 화폐 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천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으로, 즉 다름 아닌 귀금속으로 옮겨 간다.

《금 은은 그 본성에 있어서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그 본성에 있어서 금 은이다》⁴²라는 것은 금 은의 자연적 속성과 화폐의 사회적 기능과의 합치에 의하여 증명된다⁴³.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다만 화폐의 한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 가치의 현상 형태로 복무한다는 것, 즉 상품. 가치의 크기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로로 쓰인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 형태, 즉 추상적인 그리고 따라서 동등한 인간 노동의 체화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을 떼여 보아도 그 질이 동일한 그러한 물'질만이다. 다른 한편 가치의 크기의 구별은 순전히 량'적인 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작은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또 이 작

42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135페이지 (K·맑스, F·엔겔스 편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139페이지 참조). 《귀금속은……그 성질상 화폐이다》(갈리아니 《화폐론》, 쿠스토디 편찬 저작집, 현대 부, 제3권, 137페이지).

43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것은 지금 인용된 나외 저서중의 《귀금속》이라는 책을 보라.

은 부분들을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 은은 이와 같은 속성을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화폐—상품의 사용 가치는 이중적으로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그것에 속하는 특수한 사용 가치——레컨대 금은 이' 발의 충전(充填)과 사치품의 원료 등에 쓰인다——와 함께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형식적 사용 가치를 받는다.

일체의 다른 상품들은 화폐의 특수적인 등'가물들이며 화폐는 이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인 까닭에 그것들은 일반적 상품⁴⁴⁾으로서의 화폐에 대하여 특수적 상품으로서 관계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 형태는 모든 다른 상품들의 제 관계가 고정적으로 한 상품에만 반사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는 사실⁴⁵⁾은 완성 형태로부터 출발하여 거꾸로 화폐를 분석하는 자에게만 하나의 발견으로 된다. 교환 과정은 그것이 화폐로 전화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독특한 가치 형태를 줄 뿐이다. 이 두 규정의 혼동은 금 은의 가치가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44 《화폐는 일반적 상품이다》(베리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 16페이지).

45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금 은은 그 자신이상품이고..... 그 가치는 혹은 등귀 하며 혹은 저락한다... .. 그것들의 더 적은 중량을 가지고 일국의 농산물 또는 공산물의 더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에는 귀금속의 가치가 등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운》(《호상 관계에서 본 화폐, 무역 및 환자의 일반적 관념에 관한 논술, 일상인의 저작》. 런던, 1695년, 7페이지). 《금 은은 주조된 것, 주조되지 않은 것임을 막론하고 모든 다른 물건의 척도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들도 포도주, 기름, 담배, 의복 또는 천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상품이다》(《무역, 특히 동 인도 무역.....에 관한 논술》. 런던, 1689년, 2페이지). 《상국의 자본과 부를 단지 화폐에만 국한시킬 수 없으며 또 금 은을 상품으로부터 제외할 수도 없다》(《가장 유리한 무역으로서의 동 인도 무역》. 런던, 1677년, 4페이지).

그릇된 관념에 이르게 한다⁴⁶.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화폐 기호(記號)로써 대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화폐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른 오류가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이 그릇된 생각 속에는 물건의 화폐 형태는 물건 그 자체와는 무관계한 것이고 그것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 관계의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매개 상품은 일종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가치로서는 그것은 그것에 지출되어 있는 인간 노동의 물'적 외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⁴⁷.

46 《금 은은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금속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가진다》(갈리아니 《화폐론》). 투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의 전반적 합의는 은에 대하여, 그것이 화폐로 되는데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상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반하여 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각이한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상상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또는 어떻게 이 상상적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그러나 그 자신이 사물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든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알 수 있다. 《은은 그것이 가지고 있던 그 사용 가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것의 현실적 가치에 따라서 교환되었다. 그것은 화폐로 쓰인다는 자기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추가적 가치 (une valeur additionnelle)를 받았다 (존 로—, 《통화 및 상업에 관한 고찰》 E·메르편찬 《18세기의 재정 경제학자 문집》, 469, 470페이지).

47 《화폐는 그것들의 (상품들의) 기호이다》(V·드 포르보네 《상업의 기초 개념》, 신판, 타이페, 1766년, 제2권, 143페이지). 《화폐는 기호로서, 상품들에 의하여 끌리운다》(몽상서 155페이지). 《화폐는 물건의 기호이며 물건의 대리자이다》(몬테스키유 《법의 정신》, 저작집, 런던, 1767년, 제2권, 3페이지) [로씨야어 판, 교왈레우쓰끼 감수, 고른펠드 번역, 성 페테르부르그, 1800년, 385페이지 참조]. 《화폐는 단순한 기호는 아니다. 왜냐 하면 그 자신이 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치의 대리자가 아니고 그 자신 가치이다》(르 모로느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910페이지). 《가치의 개념을 검토한다면 물건 그 자체는 기호로만 볼 수 있다. 물건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치 되는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헤겔 《법 철학》, 100페이지)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판, 1934년, 제83절, 87페이지 참조]. 경제

그러나 일정한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 사물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속성 또는 이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 노동의 사회적 규정이 받는 물'적 형태를 단순한 기호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인간理性的의 자의적(恣意的)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18세기 계몽 학자들이 즐겨서 취한 설명 방법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 발생 과정을 해명할 수 없었던 인간 관계의 수수께끼적 형태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신비성의 외관을 제거하려는 기도에서 이 방법을 채용했던 것이다.

우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 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의 크기에 관한 '량'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금은 화폐이며 따라서 기라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폐컨대 10파운드의 금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가를 아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온갖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은 자기 자신의 가치의 크기를 다른 상품으로써 상대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금 자신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학자들 보다는 훨씬 이전에 법학자들이 금은 단순한 기호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을 퍼쳐 놓았는데 이 법학자들은 국왕의 권력에 추종적으로 봉사하면서 중세기의 전 기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전통과 판테크렌의 화폐 개념에 의거하여 국왕의 화폐 위조'권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 법학자들의 눈치 빠른 한 제자인 필리프 바로아는 1346년의 포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화의 주조, 화폐의 공급, 주화에 관한 온갖 처리에 대한……권리, 화폐를 우리에게 유익하며 또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값으로 유통시키는 권리가 오로지 나 및 우리의 국왕 폐하에게 속한다는 것은 누구도 감히 의심하지 않으며 또 의심해서는 안된다》. 황제가 화폐 가치를 명령으로써 제정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독단이었다.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문(明文)으로써 금지되어 있었다. 《화폐는 누구도 매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용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상품으로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좋은 설명은 G·F·파니니 《물건의 정당한 가격에 관한 문술》, 1751년, 쿠스토디의 편찬, 현대부, 제2권을 보라. 파니니는 특히 이 저작 제2부에서 법학자 제서를 논박하고 있다.

결정되며, 같은 분량의 노동 시간이 응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분량으로 표현된다⁴⁸. 이와 같은 금 가치의 상대적 크기의 확정은 금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 교환에 의하여 수행된다. 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 갈 때에는 그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벌써 17세기 최종 수십년대에, 화폐 분석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미 해명하였지만 그것은 역시 분석의 단초에 지나지 않았다. 곤난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째서, 무엇에 의하여,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다⁴⁹.

48 《만약 누구든지 1부셀의 곡물의 생산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시간에 1온스의 은을 제루의 광산에서 채굴하여 런던에 공급할 수 있다면 후자는 전자의 자연 가격으로 될 것이다. 이제 만약 채굴이 더 용이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된 결과 2온스의 은을 중전에 1온스를 생산하던 것과 같은 정도로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caeteris paribus*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자 곡물 값이 1부셀당 10셀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전의 5셀링 때에 비하여 곡물의 자연 가격이, 등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윌리엄 페티 《조세 및 공납에 관한 토론》, 런던, 1667년, 31페이지).

49 교수 로제르 씨는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화폐의 그릇된 정의는 두개의 주요한 그루빠로 나누어는바 화폐를 상품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상품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화폐 제도에 관한 저술의 잡연한 목록을 들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화폐 이론의 현실적 역사에 대한 가장 회미한 인식조차 얻을 수 없다. 또 그 다음 표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버른 최근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다른 상품들로부터 구별 짓는 (그렇다면 화폐는 역시 상품 이하의 것이거나 또는 상품 이상의 것인가?) 특수성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주의할 돌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가빌 기라의 반(半) 중상주의적 반동은 전연 무곤 거한 것도 아니다》(윌헬름 로제르 《국민 경제학 원론》, 제3판, 1858년, 207—210페이지). 이상——이하——불충분하게——그러한 한에 있어서——전연 아니다! 이것이 소위 개념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따위 절충주의적 교수식 잡담을 로제르 씨는 결혼하게도 정치 경제학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방법》[42페이지]이라고 칭한다! 다만 한 가지 발견만은 그의 공적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화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상품》[206페이지]이라는 사실이다.

별치 간단한 가치 표현인 X 상품 $A = Y$ 상품 B 에 있어서도 자신으로써 다른 어떤 물건의 가치의 크기를 표현하는 물건은 마치 상품들의 이러한 관계와는 독립하여 본래 그것에 내재하는 어떤 사회적 속성으로서 자기의 등'가 형태를 가지는 듯한 외관을 띠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이 허위적 외관이 확립되는 유래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일반적 등'가 형태가 어떤 특정 상품의 자연적 형태와 유착하자 마자 즉 화폐 형태로 결정(結晶)하자 마자 완성되는 것이다. 어떤 한 상품은 다른 상품들이 전면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것으로 표시하는 까닭에 비로소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치 그것이 화폐인 까닭에 이들 다른 상품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것으로 표현하는 듯이 보인다. 중개하는 운동은 그 자체의 결과 속에 사라지고 뒤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상품들은 자기 측으로부터는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 자신의 가치의 모습이 그것들의 외부에 그것들과 병립하여 존재하는 한 상품체로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금 은이라는 물건은 지하에서 나오는 바로 그 형태대로 동시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체화물로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화폐의 마술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사회 체제에서는 사회적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만 원자들 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 제 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독립한 '물'적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우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의 물신 숭배성의 수수께끼는 상품—물신 숭배성의 수수께끼이다. 그것은 화폐에서 더욱 강하게 되어 사람의 눈을 현혹케 할 뿐이다.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 류통

제 1 절 가치 척도

나는 이 저서의 어디서나,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금을 화폐—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제1의 기능은 그것이 상품 세계에서 가치 표현의 재로 쓰인다는 점에, 즉 그것이 상품들의 가치를,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동일한 명칭의 크기로서 표현하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일반적 가치 척도로서 기능하며 또 독특한 등'가물—상품인 금이 우선적으로 화폐로 되는 것도 오직 이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다.

화폐가 상품들을 공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전체 상품은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인 것만큼 그 자체가 공통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까닭에 그것들은 자기의 가치를 공동으로 한개의 동일한 독특한 상품으로서 측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독특한 상품을 그것들의 공동적인 가치 척도 즉 화폐로 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의 내재적 가치 척도인 노동 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이다⁵⁰.

50 어째서 화폐는 직접 노동 시간 그 자체를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레컨대 한장의 지표(紙票)는 X 노동 시간을 표시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어째서 상품 생산의 기초 우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한 상품의 금에 의한 가치 표현——X 상품 A=y 화폐—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 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만 한개의 방정식 레컨대 1톤의 철=2온스의 금만으로 충분하다. 이 방정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 방정식과 계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등'가물—상품인 금은 벌써 화폐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이제 또 다시 그것들의 최초의 간단한 또는 단독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의 외견을 취한다. 다른 한편 확대된 상대적 가치 표현 즉 상대적 가치 표현의 무한한 계열은 화폐—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계열은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써 벌써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는 물'가표의 수'자를 거꾸로 읽으면 화폐 가치의 크기가 모든 가능한 상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화폐는 이에 반하여 아무런 가격도 가지지 못

상품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왜냐 하면 상품 본래의 형태가 상품과 화폐—상품에로의 그것의 양분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술한 문제는 어째서 사'적 노동이 직접 사회적 노동으로서 즉 그 반대물로서 취급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상품 생산의 기초 위에서 《노동 화폐》를 채용하려는 천박한 공상론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개소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61페이지 이하) [K. 맑스, F. 엥겔스 편집, 모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68페이지 이하].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려는 것은 레컨대 오웬의 《노동 화폐》는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까 마찬가지로 《화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웬은 직접 사회화된 통용을, 즉 상품 생산과는 정반대로 대립하는 생산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 중'권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공동 노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몫과 공동 생산물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웬은 상품 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 생산의 필연적 제 조건을 화폐의 효용으로써 제거해 보려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다. 다른 상품들의 이러한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에 화폐도 역시 참가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서 자기 자신과 관련을 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상품들의 가격 즉 상품들의 화폐 형태는 그것들의 가치 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것들의 현실적인 물체적 형태와는 구별되는, 따라서 오직 관념적인 또는 표상에만 존재하는 형태이다. 철, 아마포, 소맥 등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들 자체내에 존재한다. 그것은 금과의 그것들의 동등성에 의하여, 말하자면 다만 그 물건들의 머리 속에 그려지는, 금에 대한 관계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 보호자는 상품의 가격을 외부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舌)로 상품을 매번 하여 주든가 또는 상품에 표 딱지를 매달아 주든가 해야 한다⁵¹. 금에 의한 상품 가치의 표현은 관념적인 것이므로 이 일에는 단순히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금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상품 소유자는 비록 그가 상품 가치에 가격 형태 즉 상상적인 금 형태를 부여

51. 야만인 또는 반야만인은 혀를 이것과는 다르게 사용한다. 레킨 대 선장(船長) 파리는 바핀만(灣)의 서해안 주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생산물 교환에 제하여)……그들은 그것 (그들에게 제공된 물건)을 혀로써 두번씩 핥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교환이 만족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 에스키모인 사이에서도 교환에서 물건을 받는 자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핥곤 하였다. 이와 같이 복방에 있어서는 혀가 소유'권 취득의 기관(器官)으로 쓰이고 있다면 남방에 있어서는 배(腹)가 재산 축적의 기관으로 쓰이며, 그리하여 캄페르인이 사람의 재부를 사람의 배'집 나온 정도에 따라서 핥'가한다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캄페르인들은 극히 명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884년의 영국 정부의 위생 보고서가 로동 계급의 대다수에게는 지방질 식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던 바로 그 해에 의사, 하베이——혈액 순환을 발견한 하베이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자는 부트조야지와 귀족 계급에게, 지방 파다증을 고쳐 준다는 영리리 처방을 냄으로써 팔'자를 고친 일이 있었던 까닭이다.

하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변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또 그가 금으로 몇백만이라는 상품 가치를 표현하는 데도 현실적인 금은 단 한푼도 소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화폐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이 가장 엉터리 없는 화폐 이론들을 발생시켰다⁵². 가치 척도의 기능에는 비록 단순히 상상적인 화폐가 쓰인다 할지라도, 가격은 완전히 실재적인 화폐 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폐컨대 1톤의 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즉 인간 노동의 분량은 그것과 동일한 분량의 로동을 포함하고 있는 화폐—상품의 어떤 상상적인 분량에 의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1톤의 철의 가치는 금, 은 또는 동의 어느 것이 가치 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전혀 각이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즉 금, 은 또는 동의 전혀 각이한 분량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각이한 상품, 폐컨대 금 은이 동시에 가치 척도로 쓰인다면 전체 상품은 금 가격과 은 가격이라는 두 각이한 가격 표현을 가질 것이며 또 그것들은 금 대 은의 가치 비율이 폐컨대 1:15로 변하지 않고 있는 한, 무사히 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에는 그 때마다 상품의 금 가격과 은 가격간의 비율이 교란을 당하여, 가치 척도의 이중화는 가치 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이 사실로써 증명된다⁵³.

52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중에서의 《화폐의 척도 단위에 관한 제 학설》, 53페이지 이하를 보라. [K : 맑스, F :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62페이지 이하].

53 제2판 주. 《법물상 금 은이 화폐 즉 가치 척도로서 병립하여 기능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간주하며는 무익한 시도가 일어 나군 하였다. 만약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 금 은 속에는 항상 동일한 노동 시간이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그리함으로써 금 은이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가치가 덜한 금속 즉 은

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품들은 모두 a 상품 $A=x$ 금, b 상품 $B=y$ 금, c 상품 $C=z$ 금 등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 b, c 는 A, B, C 라는 상품 종류의 일정 분량을 표시하며 x, y, z 는 금의 일정 분량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크기가 서로 다른 상상적인 금의 분량으로, 따라서 상품체의 착잡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금량이라는 동일 명칭의 양으로 전화되어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그와 같은 각이한 금의 분량으로서 서로 비교되며 측정된다. 그리하여 기술

의 측정량은 금의 측정량의 불변적인 일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의 통치 시대로부터 조지 2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화폐 제도의 역사는 금 대 은의 가치 비율의 법률적 고정과 그것들의 현실적인 가치 동요와의 충돌에 기인하는, 일련의 부단한 교란 속에서 경과하였다. 어떤 때에는 금이 너무 높게 평'가 되었고 어떤 때에는 은이 그랬다. 너무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리어 나와 용해되어 수출되었다. 그리하여 후에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러나 새로운 명목—가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전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가치 비율과 충돌하였다. 현시에 있어서는 인도—지나의 은 수요에 기인한 은에 대한 금의 가치의 극히 미소한 일시적인 저락이 불탄서에 있어서 동일한 현상일, 즉 은의 수출과 금에 의한 은의 유통으로부터의 구축을 최대의 규모로 야기시켰다. 1855년, 1856년, 1857년 사이에 있어서 불탄서에 있어서의 금 수출액에 대한 금 수입액의 초과는 £41, 580, 000 이었음에 반하여 은 수입액에 대한 은 수출액의 초과는 £ 14, 704, 000 이었다. 사실상, 이 두 금속이 모두 법률상 가치 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불을 받는 측에서는 이 양자중 어느 것이라도 받아야 하나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도 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가치가 동등한 금속은 교환상 차액을 가지게 되며 또 그것은 매개의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파대 평'가된 금속으로 자기 자신의 가격을 측정하며 결국 후자만이 가치 척도로 쓰인다. 이 방면에 있어서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점에 귀착된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언제나 한 상품만이 가치 척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52, 53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61페이지 참조].

상 그것들을 측정 단위로서의 어떤 고정량의 금에 환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측정 단위 자체는 또 다시 그 몇분지 1으로 분할됨으로써 측정 기준으로 발전하여 간다. 금, 은, 동은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그것들의 중량 구분 속에 그와 같은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페컨대 1 파운드가 측정 단위로 쓰이는 경우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시 온스 등등으로 세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쉐트베르 등등으로 통합되게 된다⁵⁴. 그러므로 금속이 류통하는 경우에 중량의 측정 기준의 기성 명칭들이 언제든지 화폐의 측정 기준, 즉 가격의 측정 기준의 본원적 명칭들로도 된다.

화폐는 가치 척도로서 또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 두개의 전연 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인간 노동의 사회적 체화물로서는 가치의 척도이고 어떤 확정된 금속 중량으로서는 가격의 측정 기준이다. 화폐는, 가치 척도로서는 무한히 다양한 상품들의 가치를 가격으로, 즉 금의 상상적인 분량으로 전화시키는데 봉사하며,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의 화폐는 이러한 금의 분량들을 측정한다. 가치 척도로서는 가치로서의 상품들이 측정된다. 이에 반하여 가격의 측정 기준은 금의 일정한 분량으로써 금의 상이한 분량들을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어떤 분량의 가치를 금의 기타 분량의 중량으로써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측정 기준이기 위해서는 금의 어떤 특정 중량이 측정 단위로서 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일 명칭의 수량을

51 제2관 주. 영국에 있어서는 화폐의 측정 기준의 단위로서의 1온스라는 금이 정수(整數)의 단위 부분들로서 표현될 수 없다는 기이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 나라의 조폐 제도는 본래는 은의 조폐에만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온스의 은은 언제든지 어떤 적당한 수의 완전한 주화들로 분할될 수 있다. 그러나 금이 그 후에 이르러, 오직 은에만 적용한 조폐 제도에서 리용되게 된 까닭에 1온스의 금은 정수의 소주화로 주조할 수 없게 되었다》(마클라텐 《물화의 역사》. 런던, 1858년, 16페이지).

결정하는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척도를 호상 관제의 확고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격의 측정 기준은 측정 단위로 쓰이는 어떤 동일한 금의 분량이 불변적일수록 자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금이 가치 척도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체가 토동 생산물이고 따라서 가능성으로 보아서 하나의 가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⁵⁵.

우선 금의 가치 변동이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여하히 변동하더라도 각이한 금 분량들의 가치는 의연히 상호간에서 항상 동일한 비율을 유지한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해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가격 규정에 있어서는 금의 각이한 분량들 상호간의 비율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 금의 가치가 저락 혹은 등귀하더라도 그 1온스의 무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들의 중량도 마찬가지로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여하히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적인 측정 기준으로서는 항상 동일한 봉사할 하는 것이다.

금의 가치 변동은 또한 가치 척도로서의 그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다. 금의 가치 변동은 모든 상품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며 따라서 모든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가 이제는 모두 이전보다 등귀 혹은 저락한 금 가격으로 표현되지만, *caeteris paribus*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것들의 상호적인 상대적 가치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55 제2판 주. 영국의 저서들에서는 가치 척도 (measure of value)와 가격의 측정 기준 (standard of value)에 관하여 말할 수 없이 심한 혼란이 지배하고 있다. 량자의 기능, 또 따라서 량자의 명칭은 항상 혼동되고 있다.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어떤 한 상품의 사용 가치로 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일정 분량의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여의 시기에 있어서 일정 분량의 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 뿐이다. 상품 가격의 운동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우에서 전개된 간단한 상대적 가치 표현의 법칙들이 타당한다.

상품들의 가격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등귀하는 때에만, 그리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때에만 일반적으로 등귀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상품들의 가격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하락할 때에만, 그리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등귀하는 때에만, 일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화폐 가치의 등귀는 항상 그만큼 상품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며 또 화폐 가치의 하락은 그만큼 상품 가격을 등귀시킨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लेकिन 그 가치가 화폐 가치의 등귀와 동시에 같은 비율로 등귀하는 그러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또는 더 급속하게 등귀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하락 또는 등귀는 상품의 가치 운동과 화폐의 가치 운동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등이다.

이제는 가격 형태의 고찰로 되돌아 가자.

급속 증량의 화폐적 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그 원태의 증량 명칭과 점차 분리되게 된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비교적 낮은 인민들에 있어서의 외국 화폐의 류입. लेकिन 고대 로마에 있어서는 금 및 은 주화들은 처음에는 외국 상품으로서 류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 화폐의 명칭은 자국 전래의 증량 명칭과는 다른 것이다. (2) 부의 발전에 따라 하급 급속은 고

금속에 의하여, 즉 동은 은에 의하여, 은은 금에 의하여, 가치 척도의 기능으로부터 구축된다. 시'적(詩的) 년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황금 시대, 은 시대의 순서로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별문제이다⁵⁶. 레컨데 파운드 스텔링은 은의 현실적인 1파운드에 대한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 척도로서의 은을 구축하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 비율에 따라 대체로 $1/15$ 파운드 등등의 금에 적용되게 되었다. 이제는 금의 화폐 명칭으로서의 파운드와 관습적인 중량 명칭으로서의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⁵⁷. (3) 몇백년에 걸친 왕후(王侯)들의 화폐 위조. 이로 말미암아 주조 화폐의 원래 중량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명칭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⁵⁸.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금속 중량의 화폐적 명칭이 그것의 보통 중량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으로 되고 있다. 화폐의 측정 기준은 한편으로는 순전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통제된다. 귀금속의 어떤 일정한 중량 부분, 레컨데 1온스의 금은 공'적으로 일정 부분에 분할되어 파운드, 할베르 등과 같은 법'적 세례명(洗禮名)을 받는다. 이때부터 이 분할 부분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화폐의 측정 단위로서 통용되며 그것은 이번에는 또 다시 쉘링, 펜니 등과 같은 법'적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 부분들에 의해 세분

56 그리고 또 이러한 년대기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57 제2판 주. 그리하여 영국의 파운드는 그 원래 중량의 3분의 1 이하를 대표하고 있으며 합병 이전의 스코틀랜드의 파운드는 겨우 $1/56$ 을, 불란서의 리브르는 $1/74$ 을, 서반아의 카라베디는 $1/1000$ 이하를, 포도아의 페이는 그보다도 더 작은 비율을 대표하고 있다.

58 제2판 주. 《현재는 그 명칭이 벌써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주화(鑄貨)들은 어떤 민족에 있어서도 가장 오랜 주화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 때는 현실적인 주화들이었고 또 그것들은 현실적이었던 까닭에 계산 화폐로 쓰이었던 것이다》(갈리아니 《화폐론》, 153페이지).

다⁵⁹. 이때 금속의 일정 중량이 금속 화폐의 측정 기준으로 되는 것은 의연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분할 방식과 명명(命名) 뿐이다.

그리하여 가격, 다시 말하면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화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 즉 금의 측정 기준의 법률적으로 승인된 계산 명칭들로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쿼터의 소맥이 1온스의 금과 동일하다고 말할 때 신에 그것이 8파운드 스털링 17 셸링 10 $\frac{1}{2}$ 펜스와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품은 자기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자기의 화폐 명칭으로 말하며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서, 따라서 또 화폐 형태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산 화폐로서 쓰인다⁶⁰.

어떤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코브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레르, 프랑, 두카트 등등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 관계의 온갖 흔적이 소멸되어 있다. 이러한 신비한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의미에 관한 혼란은 화폐 명칭이 상품 가치를 표현하는 동시에 화폐의 측정 기준인 어떤 금속 중량의 일정 부분까지도 표현한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59 제2관 주. 다비트 우트카트 씨는 그의 《일상 용어론》에서 금일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화폐의 측정 기준의 단위인 1파운드(파운드 스털링)는 대략 $\frac{1}{4}$ 온스의 금과 같다는 사실을 톡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고 척도를 위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금 중량의 이러한 《허위적인 명명》 가운데서 기타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명이 가지는 위조 작용을 보고 있다.

60 제2관 주. 《아나카르세쉴레 향하여 회람 사람들은 화폐를 무엇에 사용하는가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는 그것을 계산에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아테나우스 《학자의 만찬(晩餐)》, 제1부, 제18절, 슈와이크 호이제르 편찬, 1802년, 제2판, [120페이지]).

심하게 된다⁶¹. 다른 한편 가치가 상품 세계의 잡다한 물체들
과는 구별되어, 이러한 불합리하게 물'적인 또 동시에 순전히
사회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⁶².

가격은 상품 속에 물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 가격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
폐량과의 등'가성은 마치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이 언제나 두 상품의 등'가 관계의 표현인 것과 같이 하

81 제2판 주.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의 화폐는 상품 가격과 동
일한 계산 명칭으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페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철
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3파운드 스텔링 17필링 10 $\frac{1}{2}$ 펜스로 표현되는
까닭에 세인은 화폐의 이와 같은 계산 명칭을 주화 자체의 가격이라고
인정하여 왔다. 그리하여 금 (혹은 은)은 그 자신의 재로써 그 가치를
표현한다는, 또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라서 어떤 고정 가격을 국
가로부터 받는다는 피상한 편견이 이로부터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금
의 일정한 중량의 계산 명칭을 고정시키는 것은 이 중량의 가치를 고정
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킬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52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60페이지 참
조].

82 《정치 경제학 비판》중, 53페이지 이하의 《화폐의 측정 단위에
관한 제 학설》을 참조하라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62페이지 이하 참조]. 《주화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에 관
한 환상들은 모두 법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 혹은 은의 중량 부분에
대한 법정 화폐 명칭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더 큰 혹은 더 작은 중량
부분에 옮겨 놓음으로써 페컨대 $\frac{1}{4}$ 온스의 금을 20필링으로 주조할 때
신에 장차는 40필링으로 주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상에 관하여는 그것이 국가적 및 사'적 채권자에 대한 탄포한 재정적
술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인 《만능 치료법》을 목적으로 하는
한이 있어서는 페티가 《화폐 문답, 하리콕스 후자에게 대답함》(1882년)
에서 벌써 남김 없이 문술하였다. 그 결과 그의 직접적 지순자인 쎄
머트프레이 노스 및 존 루크까지도——그 후의 사람들은 말한 것도 없고
——단순히 그의 학설을 비속화하는 수 밖에 없었다.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약 국민의 부가 일개의 포고에 의하여 10배로
될 수 있다면 그러한 포고가 우리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훨씬 이전에 발
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상기 저서 36페이지).

나의 동의 반복이다⁶³. 그러나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指標)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의 지표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가령 동일한 분량의 사회적 필요 노동이 1쿼터의 소맥으로도 표현되며 2파운드 스텔링 (약 $\frac{1}{2}$ 온스의 금)으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파운드 스텔링은 1쿼터의 소맥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것의 가격이다. 이제 만약 사정이 1쿼터의 소맥에게 3파운드 스텔링의 가격을 붙일 수 있게 하든가 또는 그것에 1파운드 스텔링의 가격을 붙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파운드 스텔링 및 3파운드 스텔링은 이 소맥의 가치의 크기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 소맥의 가격들이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첫째로는 이 소맥의 가치 형태인 화폐이며 둘째로는 이 소맥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의 지표인 까닭이다. 생산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즉 노동 생산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1쿼터의 소맥을 재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연히 동일량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소맥 생산자의 의지에도 또는 기타의 상품 소유자의 의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필연적인, 상품의 창조 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그 상품의 사회적 노동 시간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다. 가치의 크기의 가격에로의 전화와 더불어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는 일정 상품과, 그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과의 교환 관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가치의 크기가 표현되는 동시에 또한 일정한 제 조건 밑에

63 《그렇지 않다면 화폐에 있어서의 백만의 가치는 상품에 있어서의 동일액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트 로트스 《사회적 이익에 관하여》, 919페이지). 따라서 《어떤 하나의 가치가 그것과 동일한 다른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의 상품의 양도에 동반하는 가치 초과분 또는 가치 이하분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의 크기 간의 양'적 불일치, 즉 가격의 가치량으로부터의 배리의 가능성은 가격 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 형태의 결합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 형태를, 규칙이 오직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 법칙으로서 무규칙성을 통하여서만 수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 형태는 비단 가치의 크기와 가격간의, 다시 말하면 가치의 크기와 그 화폐적 표현간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질'적 모순까지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리하여 비록 화폐는 상품의 가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전혀 가치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난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레컨대 망심, 명예 등등과 같은 것이 그것들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화폐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가격을 통하여 상품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들은 아무런 가치도 가짐이 없이 형식적으로 가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 가격 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수량과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적인 가격 형태도——레컨대 그 속에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는 까닭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미간지의 가격 같은 것도——어떤 현실적인 가치 관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한 관계를 그 속에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상대적 가치 형태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어떤 상품, 레컨대 1톤의 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일정량의 등'가물, 레컨대 1온스의 금이 철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지 결코 그와 반대로 철이 자기 측으로부터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은 실제로 교환 가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적인

몸둥이를 탈각하고 자신을 단순한 상상적인 금으로부터 현실적인 금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에게 이 변체(變體)가 지극히 《고난스러운 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헤겔의 《개념》에 있어서 필연으로부터 자유에로의 이행보다도, 혹은 가재(石蟹)에 있어서 자기의 딱지를 떼어 버리는 것보다도, 혹은 교부 히에로니무스에게 있어서 아담의 원죄(原罪)로부터 해탈하는 것⁶⁴ 보다도 더 고난스러운지 모른다. 상품은, 폐컨대 철이라는 그 현실적인 모습과 함께 관념적인 가치 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 모습을 가격 속에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상품은 현실적인 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에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그것에 등치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상품이 그 소유자에 대하여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품은 실지적인 금에 의하여 매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폐컨대 철의 소유자가 어떤 향락용 상품의 소유자와 대면하여 그에게 철 가격을 가리켜 그것이 화폐 형태라고 말한다면 그 향락용 상품의 소유자는, 천국에서 성(聖) 페터르가 그 앞에서 신앙 조항을 랑독한 단테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Affai bene è trascorsa

D'esta moneta già la lega e'l peso,

Ma dimmi se tu l'hai nella tua borsa».

64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청년 시대에는 그가 사막에서 아름다운 나자의 영상(映像)과 씨웠다는 말이 보이며 주는 바와 같이 육체적 정욕과 많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로년에 이르러서는 정신적 정욕과 많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폐컨대 그는 말한다—《나는 세계 심판자의 앞에서 있다고 내심으로 상상하여 보았다》. 《너는 누구냐?》고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기뻐포도 을시다》. 《거짓말이다. 너는 한개의 키케로 도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세계 심판자는 대성 질타(大聲疾咤)하였다.

[《그 돈의 무게와 품질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말해 보라》].

가격 형태는 화폐에 대한 상품의 양도 가능성과 이 양도의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금은 오직 그것이 교환 과정 내부에서 이미 화폐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까닭으로서만 관념적인 가치 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 척도 속에는 금속 화폐가 잠복하고 있다.

제 2 절 유통 수단

A: 상품의 형태 변화

우리는 상품의 교환 과정이 모순되며 서로 배제하는 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 상품의 발전은 이 모순들을 제거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창조한다. 현실적인 모순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레컨데 어떤 물체가 다른 한 물체를 향하여 부단히 락하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로부터 부단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隋圓)은 이 모순이 실현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 형태의 하나이다.

교환 과정은 그것이 상품들을 비사용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사용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 전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물'질 대사(物質代謝)이다. 어떤 유용 노동 방식의 생산물이 다른 유용 노동 방식의 생산물과 대체된다. 상품이 사용 가치로 쓰이는 장소에 한번 도달하면 그것은 상품 교환의 영역으로부터 탈락하여 소비의 영역에 들어 간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전자

의 영역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과정을 다만 형태의 측면으로부터, 따라서 사회적 물'질 대사를 중개하는 상품들의 형태 전환 또는 형태 변화만을 고찰하려 한다.

이 형태 전환에 대한 전연 불충분한 이해는 가치 개념 자체에서의 불명료성을 도외시한다면 상품의 매개, 형태 전환이 두 종류의 상품 즉 보통 상품과 화폐—상품과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우리가 상품 대 금의 교환이라는 불재적 계기에만 정신이 팔릴 때에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우선 보아야 할 것을, 즉 상품 형태에서 일어 나는 일을 간과하게 된다. 즉 우리는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금은 아직 화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격을 통하여 그것들 자신의 화폐적 모습으로서의 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상품은 도금도 하지 않고 사탕 칠도 하지 않고, 자기가 타고 난 그 모습대로 우선 교환 과정에 들어 간다. 교환 과정은 상품 및 화폐 에로의 상품의 이중화를, 즉 상품이 그것에 내재하는 사용 가치 및 가치간의 대립을 표현하는 외부적 대립을 산출한다. 이 대립에 있어서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이 교환 가치로서의 화폐에 대립한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쌍방은 모두 상품이고, 따라서 사용 가치와 가치와의 통일이다. 그러나 서로 구별되어 있는 양자의 이 통일은 양극중의 매개 극에서 서로 반대로 표현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상품은 현실적으로는 사용 가치이다. 상품의 가치적 존재는 오직 그것의 현실적인 가치—형상으로서 그것에 대립하고 있는 금에 대한 그것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격에서 관념적으로만 나타난다. 그와 반대로 금이라는 물재는 오직 가치의 체화물인 화폐의 역할만을 논다. 따라서 금은 현실적으로 교환 가치이다. 금의 사용 가치는 아직 일련의 상대적 가치 표현들 속에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 상대적

가치 표현의 제렬 속에서 금은 그것에 대립하는 제 상품을 자신의 현실적인 사용 가치 형태들의 총체로 만든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대립적 형태들은 상품 교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운동 형태들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상품 소유자, 례컨대 우리의 옛 친구인 아마포 직조자의 뒤를 따라 교환 과정의 무대인 상품 시장에 가 보기로 하자. 그의 상품, 20벨레의 아마포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다. 그 가격은 2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는 이것을 2파운드 스텔링과 교환하고 다음에는, 구식 사람인 것만큼, 그 2파운드 스텔링을 다시 같은 가격의 가정용 성경책과 교환한다. 그 직조자에 대해서는 가치의 담당자인 상품에 지나지 않는 아마포는 그 가치의 체화물인 금과 맞바꾸어 양도되며 다음 이 형태에서 또 다시 성경책이라는 하나의 다른 상품과 맞바꾸어 양도된다. 이제 이 성경책은 소비 대상으로서 직조자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명혼 구제를 위한 독서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상품의 교환 과정은 두 대립적인 또 상호 보충적인 형태 변화에 의하여 즉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역 전화에 의하여 수행된다⁶⁵. 상품의 형태 변화의 제 제기는 동시에 상품 소유자의 거래 행위이니 그것은 즉 상품을 화폐와 교환하는 판매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는 구매와, 두 행위의 통일인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이제 아마포 직조자가 이 거래 행위의 최후 결과를 검토해 본다면 그는 아마포 대신에 성경책을, 즉 그의 본래의 상품 대신에 그것과 가치는 같으나 유용성이 같지 않은 한개의 다른

65 《불에서 만물이 발생하며 만물에서 불이 발생하는 것은 금에서 상품이 발생하며 상품에서 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F·랏살 《온사(隱士) 헤타크라이로스의 철학》, 베를린, 1858년, 제1권, 222페이지). 이 개소에 대한 랏살의 주(221페이지 주3)는 화폐를 부당하게도 단순한 가치의 기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는 자기의 기타의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을 입수한다. 그의 '립'장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그의 노동 생산물과 타인의 노동 생산물과의 교환을, 즉 생산물들의 교환을 중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품의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 전환으로써 수행된다.

상품——화폐——상품

W——G——W

이 운동은 그 물재적 내용을 본다면 W——W, 즉 상품 대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 대사인바 이 물'질 대사가 결말을 지을 때에 과정 자체도 사라진다.

W——G.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 즉 판매. 상품 가치가 상품이라는 몸뚱이로부터 금이라는 몸뚱이로 건너 뛰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개소에서 일컬은 바와 같이 상품의 *falso mortale* (생사를 결하는 비약)이다.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상품 자신에게는 별 일이 없을지라도 상품 소유자에게는 분명히 큰 일이 나는 것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 소유자의 욕망을 다면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의 노동을 일면적으로 만든다. 바로 그 까닭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는 교환 가치로서 밖에는 쓰이지 못한다. 그의 생산물은 오직 화폐로써만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하나 그러나 그 화폐는 타인의 주머니 속에 존재한다. 화폐를 타인의 주머니로부터 끌어 내기 위하여는 그 상품이 우선 화폐 소유자에 대하여 사용 가치가 아니면 안되며 따라서 그 상품에 지출된 노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분업의 현실적인 일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 발생적인 생산 조직이며

서 그 날과 썬는 상품 생산자의 배후에서 이미 짜졌고 또 계속하여 짜지는 것이다. 그 상품은 어떤 새로 발생한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사명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험으로 어떤 욕망을 처음으로 환기하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노동 생산물일지도 모른다. 어제까지는 동일한 상품 생산자의 다수 기능중의 한 기능이었던 특수한 노동 작업이 어찌면 오늘은 이련결을 끊고 독립적인 것으로 되며 또 바로 그 때문에 그의 부분적 생산물을 독립적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 보낼지도 모른다. 주위의 사정은 이 분리 과정을 위하여 성숙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성숙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소여의 생산물은 금일에는 하나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것은 명일에는 어찌면 어떤 유사한 종류의 생산물에 의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기의 지위로부터 구축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마포 직조자의 노동과 같은 노동은 비록 그것이 사회적 분업의 일환으로 공인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아직 바로 그의 20벨레의 아마포가 사용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만약 기타의 모든 사회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아마포에 대한 사회적 욕망이 벌써 그 아마포 직조자의 경쟁자들에 의하여 충족되어 있다면 우리의 친구의 생산물은 파잉한 것으로, 여분의 것으로 되며 따라서 또 무용한 것으로 된다. 선물이라면 물건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친구는 결코 선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이 과연 사용 가치를 가진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화폐가 그 상품에 의하여 끌리어 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체 얼마만큼의 화폐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인 그 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이미 예상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즉시 객관적으로 수정을 받는 상품 소유자의 있을 수 있는 순전히

주관적인 오산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 시간만을 지출하였다고 하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은 그 속에 대상화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량의 화폐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아마포 직조자의 허락이 없이 또 그의 배후에서 아마포 직조업의 전통적인 생산 조건에 돌변이 일어났다. 어제까지는 틀림 없이 1엘레의 아마포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었던 것이 금일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고 이 사정은 화폐 소유자가 우리 친구의 여러 경쟁자들이 내놓은 가격들에 근거하여 가장 열심히 증명하는 바이다. 직조업자에게 불행한 일은 세상에 동업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시장에 있는 매 조각의 아마포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들의 총량은 과도히 지출된 노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시장의 배'집이 1엘레당 2펠링이라는 표준 가격으로는 아마포의 총량을 흡수할 수 없다면 이 사실은 사회적 총노동 시간중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마포 직조의 형식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그 결과는 마치 매개의 개별적 아마포 직조자가 자기의 개인적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을 지출한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경우에는 《함께 잡혀 함께 묶매여 달린다》는 격이다. 시장에 있는 일체의 아마포는 오직 한 개의 상품으로서 기능하며 그 매개 조각은 오직 이 한 개의 상품의 해당 부분으로서만 기능한다.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매 1엘레의 가치는 모두 사회적으로 규정된, 동일 분량의 균일한 인간 노동의 체화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 맑스는 1878년 11월 28일부 H·Φ·다니엘손(니콜라이 다니엘손——당시 《자본론》의 로쎈야어 번역자 [역자주]——)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할 것을 제외하였다. 《또 사실에 있어서 매 1엘레의 가치는 엘레의 총분량에 지출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은 화폐를 현모(戀慕)하고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분업의 체계 속에 자기의 분산된 구성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사회적 생산 유기체의 양'적 구조는 그 질'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자연 생장적, 우연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품 소유자들은, 그들을 독립적인 사'적 생산자로 만드는 분업 그 자체가 사회적 생산 과정 및 이 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관계를 그들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개개인의 상호간 독립은 하나의 전면적인 물'적 의존성의 체계로써 보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분업은 노동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화시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분업은 동시에 이 전생(轉生)의 성공 여부를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정상적인 진행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 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상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상품의 형태 전환은 항상 일어난다. 하기는 이 형태 전환의 비정상적 경우에는 전환되는 실체——가치량——가 감소 혹은 증대될 수 있다.

일방의 상품 소유자로 보면 금이 그의 상품에 대치되며 상대방으로 보면 상품이 그의 금에 대치된다. 이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현상은 상품과 금이 즉 20벨레의 아마포와 2파운드 스털링이 소유자의 손을, 즉 그것들의 위치를 바꾸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서로 교환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그 자신의 가치의

의 일부분의 물화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27권, 18페이지). 맑스가 가지고 있던 《자본론》 제1권 독일문 제2판의 한 책에 이와 같은 수정이 가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것은 맑스가 손수 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편집부.

일반적인 체화물과이다. 또 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자신의 사용 가치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와이다. 어째서 금은 화폐로서 아마포에 대립하는가? 2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아마포의 가격 즉 아마포의 화폐 명칭이 벌써 화폐로서의 금에 대한 아마포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그 본래의 상품 형태를 벗어 버리는 것은 상품의 양도에 의하여 완수된다.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의 사용 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에서 오직 상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금을 현실적으로 자기측에 끌어오는 그 순간에 완수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격의 실현 즉 상품의 오직 관념적인 가치 형태의 실현은 반대면에서는 동시에 화폐의 오직 관념적인 사용 가치의 실현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화폐예로의 전화는 동시에 화폐의 상품예로의 전화이다. 한개의 과정은 두 측면을 가지는 과정이니 그것은 상품 소유자의 극에서는 판매이며 화폐 소유자의 반대 극에서는 구매이다. 즉 판매는 구매로, $W—G$ 는 동시에 $G—W$ 로 된다⁶⁶.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들의 경제적 관계를 하나만 알고 있을 뿐이니 그것은 상품 소유자들의 판매 즉 자기의 노동 생산물을 내줌으로써만 타인의 것을 취득하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일방의 상품 소유자에 대하여 타방이 화폐 소유자로서 대립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자의 노동 생산물이 천연적으로 화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금 동등의 화폐 물질로 되어 있는 때문이든지 혹은 그 자신의 상품이 벌써 탈피하여 그의 본래의 사용 가치 형태를 벗어 버린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

66 《온갖 판매는 동시에 구매이다》(케네 박사 《상업 및 장인(匠人)의 노동에 관한 문답》,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16년, 170페이지). 혹은 케네가 그의 《일반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파는 것은 사는 것이다》[《케네 박사의 적언집》 Dupont de Nemours 발간, E.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16년, 362페이지를 보라].

다. 금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상품 시장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지점은 금의 원산지 에 있는바, 거기에서는 금은 직접적인 노동 생산물로서 가치가 동일한 다른 노동 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금은 언제든지 실현된 상품 가격을 표현한다⁶⁷. 금의 원산지에 있어서의 상품과 금과의 교환을 도의시킨다면 금은 어떠한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있는 것임을 막론하고 그가 양도한 상품의 전형된 모습이며 판매 즉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인 $W \rightarrow G$ 의 산물이다⁶⁸. 금이 관념적 화폐 즉 가치 척도로된 이유는 일체의 상품이 그것들의 가치를 금으로 측정하며 그리하여 금을 그것들의 사용적 모습의 상상적인 대립물로, 그것들의 가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이 현실적인 화폐로 되는 이유는 상품들이 그것들의 전면적인 양도에 의하여 금을 상품들의 사용 가치의 현실적으로 전형된 형태, 즉 전화한 형태로 만들며 따라서 상품들의 현실적인 가치의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치의 모습으로서는 상품은 그 자연 생장적인 사용 가치의 온갖 흔적과 그 상품을 창조한 특수적인 유용 노동의 온갖 흔적을 상실하고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한결 같은 사회적 체화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화폐를 아무리 보아도 그 속에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 전화되었는지 도저히 알아 내지 못한다. 하나의 상품은 그 화폐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상품과 외견상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결코 화폐가 아니지만 화폐는 쓰레기를 대표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마포 직조자가 그의 상품과 교환하여 얻어 온 두개의 금화가 1쿼터의

67 《한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오직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써만 지불될 수 있다》(메르세드 타 리베르 《정치적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2부, 554페이지).

68 《이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판매하지 않았으면 안된다》(동상서, 543페이지).

소매의 전화된 형태이라고 가정하자. 아마포의 판매인 $W—G$ 는 동시에 그 구매인 $G—W$ 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마포의 판매로서는 이 행위의 대극인 성경책의 구매로써 끝나는 하나의 운동을 개시시키며 아마포의 구매로서는 이 행위의 대극인 소매의 판매로써 시작된 하나의 운동을 끝낸다. $W—G—W$ (아마포—화폐—성경책)의 최초 단계인 $W—G$ (아마포—화폐)는 동시에 $G—W$ (화폐—아마포)이며 그것은 즉 하나의 다른 운동 $W—G—W$ (소매—화폐—아마포)의 최후 단계이다. 어떤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 즉 그것의 상품 형태로부터 화폐에로의 전화는 언제나 동시에 어떤 다른 상품의 대립적인 제2차 형태 변화, 즉 이 다른 상품의 화폐 형태로부터 상품에로의 재 전화이다⁶⁹.

$G—W$. 상품의 제2차적 또는 최종적 형태 변화, 즉 구매. 화폐는 일체의 기타 상품의 전형된 모습이며 또는 그것들의 일반적 양도의 산물인 까닭에 철대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상품이다. 화폐는 모든 가치를 거꾸로 읽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폐 자신의 상품화에 재료를 제공하는 모든 상품들의 몸통이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그와 동시에 상품들이 화폐에게 던지는 추파(秋波)인 이 가치들은 화폐의 전화 능력의 한계를, 즉 화폐 자신의 분량을 표시한다. 상품은 그것이 화폐로 될 때에 그 자체는 사라져 없어지는 까닭에 사람은 화폐를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어떻게 하여 그 소유자의 손에 들어 왔으며 또는 무엇이 그것으로 전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화폐의 유래야 어찌 되었든, 화폐는 《냄새를 피지 않는다》. 화폐는 한편으로 판매된 상품을 대표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할

69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금 혹은 은의 생산자는 배외로 되는데 그는 그의 생산물을 미리 판매하지 않고도 그것을 다른 것과 교환한다.

수 있는 상품을 대표한다⁷⁰.

$G \rightarrow W$, 즉 구매는 동시에 $W \rightarrow G$, 즉 판매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최후의 형태 변화는 동시에 다른 어떤 상품의 최초의 형태 변화이다. 우리의 아마포 직조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상품의 생애(生涯)는 그가 2파운드 스털링을 재 전화한 성경책으로써 끝난다. 그러나 성경책 판매자는 아마포 직조자로부터 받은 2파운드 스털링을 화주(火酒)로 전화시킨다. $W \rightarrow G \rightarrow W$ (아마포—화폐—성경책)의 최후 단계인 $G \rightarrow W$ 는 동시에 $W \rightarrow G \rightarrow W$ (성경책—화폐—화주)의 제1 단계인 $W \rightarrow G$ 이다. 상품 생산자는 오직 어떤 한 방면의 생산물만을 시장에 공급하는 까닭에 그는 그 생산물을 보통 다량으로 판매하지만 그 반면에 그는 그의 다방면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가격 즉 취득한 화폐액을 부단히 무수한 구매에로 세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한개의 판매는 각종 상품의 허다한 구매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어떤 상품의 최후의 형태 변화는 다른 상품들의 최초의 형태 변화의 총화를 형성한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 예컨대 아마포의 총체적 형태 변화를 고찰한다면 우리는 우선 그것이 두 대립적인 서로 보충하는 운동인, $W \rightarrow G$ 와 $G \rightarrow W$ 로써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상품의 이 두 대립적인 전화는 그 상품 소유자의 두 대립적인 사회적 행위로써 실현되며 또 그 상품 소유자의 두 대립적인 경제적 역할에 반영된다. 그는 판매의 매리자로서는 판매자로 되며 구매의 매리자로서는 구매자로 된다. 그러나 상품의 어떠한 전화에 있어서는 상품의 양 형태인 상품 형태와 화폐 형태는 오직 서로 대립하는 양극에서만 동시에 존재

⁷⁰ 《우리 수중에 있는 화폐는 우리가 구매하려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대표하며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화폐를 받고 판매한 물건들을 대표한다》(메르세드 라 리베르 《정치적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586페이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 소유자에 대해서 그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자가 구매자로서 대립하며 그가 구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자가 판매자로서 대립한다. 동일한 상품이 서로 반대되는 두 전화 즉 상품으로부터 화폐에로의, 및 화폐로부터 상품에로의 전화를 연속적으로 경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 소유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교대로 논다. 따라서 이 역할은 결코 고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상품 류통의 내부에서 부단히 그 출연자를 교체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한 상품의 총체적 형태 변화는 그 가장 간단한 형태에 있어서는 4개의 극(極)과 3인의 등장 인물을 전제로 한다. 처음에는 상품에 상품의 가치—모습으로서의 화폐가 대립하는바, 이 가치—모습은《저 편에서》 타인의 주머니 속에서, 물'적으로 감각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상품 소유자에게는 한 사람의 화폐 소유자가 대립한다. 이제 상품이 화폐로 전화하자 마자 그 화폐는 그 상품의 일시적인 등'가 형태로 되는데 이 등'가 형태의 사용 가치 또는 내용은《이 편에서》 다른 상품체들 속에 존재한다. 화폐는 상품의 제1차 전화의 중점으로서 동시에 상품의 제2차 전화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리하여 제1막에 있어서는 판매자는 제2막에 있어서는 구매자로 되며 거기에서는 제3의 상품 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그에게 대립한다⁷¹.

상품 형태 변화의 반대 방향을 가진 이러한 두 운동 단계는 하나의 순환을 형성한다. 상품 형태, 상품 형태의 탈각, 상품 형태에로의 복귀가 그것이다. 어떠한 상품 그 자체는 여기서 대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품은 출발점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로 보아서 비 사용 가치이고 중점에 있어서는 사용 가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폐도 첫 단계에서는 상품이 전

71 《이와 같이 여기에는……4개의 극점과 3명의 계약 당사자가 있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두번 등장한다》(트트로스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8년, 909페이지).

화되는 확고한 가치 결정체로서 나타나고 다음 단계에서는 상품의 순간적인 등'가 형태로 해소해 버린다.

한개의 상품의 순환을 형성하는 두개의 형태 변화는 동시에 두개의 다른 상품의 반대 방향으로의 부분적 형태 변화를 형성한다. 동일한 상품(아마포)이 그 자신의 형태 변화의 계열을 개시하는 동시에 다른 한 상품(소맥)의 전체 형태 변화를 종결 짓는다. 그 상품은 자기의 제1차 전환인 판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신 양역을 담당한다. 다음에 그 상품은 모든 상품체가 한번은 반드시 그것으로 되어야 하는 금 번메기(金蟬)로 된 후에 어떤 제3의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를 완성시킨다. 이와 같이 매개 상품의 형태 변화의 계열이 그리는 순환은 다른 상품들의 여러 순환과 불가분리적으로 엉켜져 있다. 그러한 과정 전체가 상품 유통인 것이다.

상품 유통은 다만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본질상으로도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과 구별된다. 이제 방금 기술한 과정을 좀 세밀히 고찰하여 보자. 아마포 직조자는 아마포를 성경책과 즉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틀림 없이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직 그 자신에게만 진실인 것이다. 서늘한 신성(神聖)보다 사람을 돕히는 술을 더 좋아하는 성경책 판매자는 성경책이 아마포와 교환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포 직조자는 소맥이 그의 아마포와 교환되었다는 등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B라는 사람의 상품은 A라는 사람의 상품을 대체하나 그러나 A와 B는 그들의 상품을 서로 교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A와 B가 상호간에서 서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우연적인 면관은 상품 유통의 일반적 조건으로부터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품 교환이 어떻게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의 개인적 및 지방적 한계를 초과하고 인간 노동 일반의 물'질 매사를 발전시키는가를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으며, 자연적인 판매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 제련관의 복잡한 총체가 전개된다. 직조업자가 아마포를 팔 수 있는 것은 오직 농민이 벌써 소맥을 팔았기 때문이며 화주 애호자가 성경책을 팔 수 있는 것은 오직 직조업자가 벌써 아마포를 팔았기 때문이며 양조업자가 사람을 유쾌케 하는 물을 팔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이 벌써 영생 분사의 물을 팔았기 때문이다 등등.

그런 까닭에 류통 과정은 생산물의 직접적 교환과 같이 사용 가치가 장소와 소유자를 바꾸기만 하면 종말을 고향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그것이 한 상품의 형태 변화의 계열로부터 최후적으로 리탈한다고 해서 소멸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화폐는 류통에서 상품들이 비여준 자리에 부단히 침전(沈澱)한다. 폐권대 아마포의 전체 형태 변화인 아마포—화폐—성경책에 있어서는 우선 아마포가 류통에서 리탈하여 화폐가 그 자리에 들어 서고 다음에는 성경책이 류통에서 리탈하여 화폐가 그 자리에 들어 선다. 상품에 의한 다른 상품의 대치는 동시에 화폐—상품을 제3자의 손에 붙게 한다⁷². 류통은 부단히 화폐라는 땀을 내뿜는다.

매개의 판매는 동시에 구매이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한 까닭에 상품 류통은 반드시 판매와 구매간의 균형을 조성한다고 하는 독단이야말로 황당 무제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판매의 수는 구매의 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내용한 동의 반복이다. 그러나 이 독단설의 본의는 판매자가 그 자신의 구매자를 시장으로 베풀 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다. 판매와 구매는 대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간의, 즉 상품 소유자와 화폐 소유자간의 상호 관계로서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이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

⁷² 제2관 주. 이 현상은 극히 명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 특히 속류 자유 무역론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 행동으로서는 그것들은 대극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판매와 구매와의 동일성은, 만약 상품이 유통이라는錬金術적(鍊金術的) 도가니 속에 투입되어 그 다음에 화폐의 모습으로 그 속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즉 상품 소유자에 의하여 판매되지 못하며 따라서 화폐 소유자에 의하여 구매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상품은 무용지물로 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동일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즉 교환 과정은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상품의 생애에 있어서의, 장단간, 일시기로 되는 일종의 휴식기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는 판매인 동시에 구매인 까닭에 이 부분적 과정은 동시에 독립적 과정으로 된다. 구매자는 상품을 가졌고 판매자는 화폐를 가졌다. 그런데 이 화폐는 어느 때 실지로 다시 시장에 나타나든지 간에 유통할 수 있는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이다. 타인이 구매함이 없이는 누구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그 자신이 판매했다고 해서 즉시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통은 바로 그것이 생산물 교환의 경우에서 보는, 자기의 노동 생산물의 양도와 그에 대신하는 타인의 노동 생산물의 취득간의 직접적 동일성을 판매와 구매와의 대립적 행위로 분열시킴으로써 생산물 교환의 시간적, 장소적, 인신적 한계를 타파한다. 독립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과정들이 하나의 내부적 통일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 과정들의 내부적 통일이 외부적 대립 속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이 두 과정의 외부적 독립화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그 내부적 통일은 공황의 형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유지된다.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 가치와 가치와의 대립, 사'적 노동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으로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립, 특수적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오직 추상적

일반적 로동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그러한 대립, 물건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건화간의 대립——이러한 내재적 모순은 상품의 형태 변화상의 제 대립에 있어서 그 발전된 제 운동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가능성을, 그러나 그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능성의 현실성으로의 발전은 단순 상품 류통의 틱'장에서는 아직 전연 존재하지 않는 제 관계의 총체를 요구한다⁷³.

화폐는 상품 류통의 중개자로서 류통 수단이라는 기능을 획득한다.

B. 화폐의 류통

로동 생산물의 물'질 대사가 수행되는 형태 변화인 $W—G—W$ 는 동일한 가치가 상품으로서 과정의 출발점이 되며 또 상품의 형태로 다시 동일점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이 운동은 순환이다. 다른 한편 이 순환 운동

73 《정치 경제학 비판》, 74—76페이지(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쎬야어 판, 제12권, 제1부, 81—83페이지)에서 내가 제임스 밀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참조하라. 경제학적 용호론의 방법상 여기에서는 두개의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로는 상품 류통과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과를, 당사 간의 차이점을 전혀 추상함으로써 동일시하는 것. 둘째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생산 당사자들의 제 관계를 상품 류통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관계에 해소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모순을 부정하여 버리려는 시도. 그러나 상품 생산과 상품 류통은 비록 그 범위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각이하다 할지라도 가장 다양한 생산 방식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것들에 공통적인 추상적인 상품 류통의 범주들을 안다 할지라도 이 생산 방법들의 특징적 차이점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 정치 경제학 이외의 어떠한 과학에서도 초보적인 평범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평장히 떠돌아 대는 일이 없다. 제컨대 J·B·세이는 그가 상품이 생산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공황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덤벼 든다.

의 형태 자체는 화폐의 순환을 배제한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서 화폐는 자기의 출발점에서 부단히 멀리 떨어져 가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그의 상품의 전화된 모습인 화폐를 쥐고 놓지 않는 동안은 상품은 의연히 제1차 형태 변화의 단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통의 전반을 통과하였을 뿐이다. (구매를 위한 판매라는 이 과정이 완료되는 때에 화폐는 그 본래의 소유자의 손에서 또 다시 멀어진다. 아마포 직조자가 성경책을 구매한 뒤에 또 새로이 아마포를 판매할 때에는 화폐가 그의 수중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화폐는 최초의 20엘레의 아마포의 유통에 의하여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통에 의해서는 화폐는 도리어 아마포 직조자의 수중으로부터 성경책 판매자의 수중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다. 화폐는 새로운 상품이 동일한 유통 과정을 새로 시작함으로써만, 즉 반복함으로써만 복귀하며 또 이 유통 과정도 그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로써 끝난다. 그러므로 상품 유통에 의하여 화폐에게 직접 부여되는 운동 형태는 화폐의 출발점으로부터의 부단한 격리(隔離)이며, 화폐의 한 상품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상품 소유자의 수중으로의 이전 또는 화폐의 유통 (currency, cours de la monnaie)이다.

화폐의 유통은 동일한 과정의 부단하고 단조한 반복이다. 상품은 항상 판매자 측에 있고 화폐는 항상 구매 수단으로서 구매자 측에 있다. 화폐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시킴으로써 구매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화폐는 가격을 실현시킴으로써 상품을 판매자의 수중으로부터 구매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며 그와 동시에 자신은, 구매자의 손으로부터 판매자의 손으로 넘어가 다른 상품과 더불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화폐 운동의 이와 같은 일면적인 형태가 상품 운동의 양면적인 형태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은 엄폐되어 있다. 상품 유통의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이와 반대되는 외관을 빚어 낸다. 상품의 제1차 형태 변

화는 일견하여 비단 화폐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상품 자신의 운동이지만 상품의 제2차 형태 변화는 오직 화폐의 운동인 것 같이 보인다. 상품은 그 류통의 전반(前半)에 있어서 화폐와 위치를 바꾼다. 그와 동시에 상품의 사용 가치로서의 모습은 류통 분야로부터 탈락되어 소비 분야로 옮겨 간다⁷⁴. 상품의 가치로서의 모습 즉 상품의 화폐적 가면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 선다. 상품은 류통의 후반을 벌써 자신의 자연적인 외형대로가 아니고 금의 외피를 쓰고 통과한다. 이와 같이 운동의 연속성은 전혀 화폐측에서만 볼 수 있다. 즉 상품의 텃'장에서 보면 두 태립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그 동일한 운동이 화폐 자신의 운동으로서는 그것이 항상 다른 상품과 자리를 바꾸는 항상 동일한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품 류통의 결과인 다른 상품에 의한 한 상품의 대체는 마치 그 상품 자신의 형태 전환에 의해서가 아니고 류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의하여 발생되는 듯이 보이며 마치 류통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자체로서는 운동하지 않는 상품들을 류통시키여, 그 상품들을 사용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소유자로부터 사용 가치로 인정하는 소유자에게로, 항상 화폐 자신의 경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전시키는 듯이 보인다. 화폐는 류통중에서 상품들과 부단히 자리를 바꾸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부단히 상품들을 류통 분야로부터 리탈시킨다. 그러므로 화폐 운동은 비록 상품 류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외관상으로는 반대로 상품 류통이 화폐 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⁷⁵.

74 같은 상품이 여러 차례 판매되는 경우——이러한 현상은 여기에서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에 있어서도 그 상품은 최후의 종국적인 판매로써 류통 분야로부터 소비 분야에로 떨어져 들어가 거기서 생활 수단 내지 생산 수단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75 《그것(화폐)은 생산물들에 의하여 그것에 부여되는 운동 이외

다른 한편 화폐에게 유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돌아 가게 된 이유는 오직 화폐가 상품의 독립적인 가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은 사실상 상품 형태 자체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 형태의 운동은 일목了然하게 화폐 유통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레컨데 아마포는 우선 자기의 상품 형태를 자기의 화폐 형태로 전화시킨다. 그 다음, 그것의 제1차 형태 변화인 $W—G$ 에 있어서의 최후의 극인 화폐 형태는 그 최후의 형태 변화인 $G—W$ 에 있어서의, 즉 아마포의 정책책에로의 재 전화에 있어서의 최초의 극으로 된다. 그러나 이 양 형태 전환은 어느 것이나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을 통하여, 그것들 상호간의 위치의 전환에 의하여 수행된다. 동일한 화폐 조각이 상품의 탈각된 모습으로서 판매자의 수중에 들어 왔다가 상품위, 절대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모습으로서 그 수중으로부터 떠나간다. 화폐는 두번 위치를 바꾼다. 아마포의 제1차 형태 변화는 이 화폐 조각을 직조업자의 주머니 속에 넣어 주며 제2차 형태 변화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품의 독립적인 양 형태 전환은 반대 방향에 있어서의 화폐의 두번의 위치 전환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만약 상품의 일면적인 형태 변화만이 일어난다면——팔기만 하든지, 혹은 사기만 하든지 간에——동일한 화폐는 역시 한번 밖에 위치를 전환하지 못한다. 화폐의 제2차 위치 전환은 언제든지 상품의 제2차 형태 변화를, 즉 상품의 화폐로부터 상품에로의 재 전화를 표현한다. 동일한 화폐 조각의 위치 전환의 빈번한 반복에는 비단 어떤 한 상품의 일련의 형태 변화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상품 세계 전체의 무수

에는 아무런 운동도 하지 못한다》(르•트로즈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885페이지).

한 형태 변화간의 연결어진 관계도 또한 반영된다. 그러나 물론 이 모든 사실은 오직 여기서 고찰되는 단순 상품 류통의 형태에만 타당한다.

매개의 상품은 류통에 있어서의 그 제1보에서, 그 제1차 형태 전환에서 벌써 류통으로부터 탈락되어 나가고 거기에는 부단히 새로운 상품이 들어 온다. 이에 반하여 화폐는 류통 수단으로서는 항상 류통 분야에 체류하여 항상 그 속에서 뛰여 다닌다. 그리하여 이 류통 분야가 항상적으로 흡수하는 화폐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 국내에서는 날마다 무수한, 동시적인, 따라서 공간적으로 병행하는, 일면적인, 상품들의 형태 변화가, 바꾸어 말하면 일방에 있어서는 판매만이, 타방에 있어서는 구매만이 수행되고 있다. 상품들은 그것들의 가격에 의하여 벌써 상상적으로 표시되는 일정 화폐량에 등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찰되는 직접적인 류통 형태는 상품과 화폐를, 항상 물체적으로 전자는 판매라는 극에, 후자는 구매라는 반대 극에 서로 대립시키는 까닭에 상품 세계의 류통 과정에 필요한 류통 수단의 수량은 이미 상품들의 가격 총액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 사실 화폐는 상품들의 가격 총액에 있어서 이미 관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금의 총액을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총액이 동일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상품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상품 가격은, 금(화폐—재료) 자체의 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하여, 만약 금의 가치가 저락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등귀하며, 만약 그것이 등귀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저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증대 혹은 감소한다면 류통 화폐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류통 수단 수량의 변동이 화폐 자체에 기인하는 것은 틀림 없으나 그것은 류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은 상품들의 가격이 화폐 가치에 반비례하여 변동하고 그 다음에 유통 수단의 수량이 상품들의 가격에 정비례하여 변동한다. 만약 폐컨대 금의 가치가 저락하지 않더라도 은이 금 대신에 가치 척도로 되든가, 또는 은의 가치가 등귀하지 않더라도 금이 은을 가치 척도의 기능으로부터 구축한다면 이와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의 금보다 더 다량의 은이 유통하게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의 은보다 더 소량의 금이 유통하게 될 것이다. 이들 중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변동하는 것은 화폐 재료의 가치, 다시 말하면 가치 척도로서 기능하는 상품의 가치이며 이에 따라 상품 가치의 가격적 표현이 변동할 것이며 또 이에 따라 이 가격의 실현에 쓰이는 유통 화폐량이 변동할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유통 분야에는 하나의 아가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금 (또는 은, 요컨대 화폐 재료)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서 유통 분야에 들어 온다. 이 가치의 존재는 화폐의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따라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제 폐컨대 가치 척도 자체의 가치가 저락한다면 이것은 우선, 귀금속의 원산지에서 상품으로서의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그러한 상품들의 가격의 변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특히 부르조아 사회의 낮은 발전 단계에서 그렇지만 기타 상품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는 벌써 낡아진, 환상적으로 된, 종전의 가치 척도의 가치에 의하여 계속 평'가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한쪽 상품은 상호간의 가치 관계를 통하여 다른쪽 상품에 영향을 주며, 상품들의 금 가격 혹은 은 가격은 점차로 그 상품들의 가치 자체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비율에 합치하도록 조정되어 가며 드디어 일체의 상품 가치가 화폐 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대응하여 평'가 될 것이다. 이 조정 과정은, 귀금속과 직접 교

환되는 상품들을 대신하여 흘러 들어 오는, 귀금속의 분량의 부단한 증대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품들 간에 이러한 새로운 수정된 가격이 보급되는 정도에 따라, 다시 말하면 상품들의 가치가 귀금속의 새로운, 이미 저락한 또 일정한 점까지 계속 저락하고 있는, 가치로 평'가되는 정도에 따라 그것과 같은 정도로 이 새로운 가격들의 실현에 필요한 귀금속의 추가량도 벌써 현존한다. 새로운 금 산지 및 은 산지의 발견에 뒤이어 일어난 제 사실의 일면적인 관찰은 17세기 및 특히 18세기에 있어서 물'가가 등귀한 것은 금 은의 더 많은 분량이 류통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하에서 우리는 금 가치를 소여의 것으로 전제하겠는바 사실상 그것은 가격 평'가의 순간에 있어서는 소여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류통 수단의 수량은 실현되어야 할 상품 가격 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제 만일 우리가 더 나아가 매개의 상품 종류의 가격을 소여의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 가격 총액은 분명히 류통 내부에 존재하는 상품 수량에 의존할 것이다. 만약 1쿼터의 소맥의 가치가 2파운드 스털링이라면 100쿼터의 소맥의 가치는 200파운드 스털링으로 될 것이며 200쿼터는 400파운드 스털링 등등으로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소맥의 수량의 증가에 따라 그것이 판매될 때에 그것과 위치를 바꾸는 화폐의 수량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만약 상품 수량이 소여의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면 류통하는 화폐의 수량은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된다. 그것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은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그 가격 변동의 결과 증가 혹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일체의 상품 가격이 동시적으로 등귀 또는 저락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일정수의

주요 상품들의 가격이 어떤 경우에 등귀하든가 또는 다른 경우에 저락하든가 하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유통 상품의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은 증대 또는 감소하며, 또 이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이 증대 혹은 감소한다. 상품의 가격 변동이 상품의 현실적인 가치 변동을 반영하진 혹은 시장 가격의 단순한 동요를 반영하진 유통 수단의 수량에 대한 그의 영향은 동일하다.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 나는, 따라서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일정수의 판매, 즉 부분적인 형태 변화가 수행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1쿼터의 소맥, 20엘레의 아마포, 1권의 성경책, 4갈론의 화주의 판매라고 가정하자. 이 물품들의 가격이 어느 것이나 모두 2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은 8파운드 스텔링이라면 도합 8 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화폐 수량이 유통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동일한 이 상품들이 각각 우에서 고찰한 형태 변화 계열의 일환을 형성하여, 1쿼터의 소맥——파운드 스텔링——20엘레의 아마포——2파운드 스텔링——1권의 성경책——2파운드 스텔링——4갈론의 화주——2파운드 스텔링으로 되어 있다면 이 2파운드 스텔링은 이들 각종 상품의 가격을 차례 차례로 실현하면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유통시키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도합 8파운드 스텔링에 달하는 가격 총액을 실현시키고 나서야, 나중에 양조업자의 손에서 휴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4차의 회전을 수행한다. 동일한 화폐 조각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위치 전환은 상품의 이중적인 형태 전환을, 즉 두 대립적인 유통 단계를 통과하는 상품의 운동을 표현하며 또 그와 동시에 각종 상품의 형태 변화의 앙글어진 관계를 표현한다⁷⁶. 이 과정이 통과하는 대립적이며 상

76 《오직 생산물들만이 그것 (화폐)을 운동시키며 유통시킨다…… 그것 (화폐)의 운동 속도는 그것의 수량을 대신한다. 그것은 필요할 때에는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이 손으로부터 저 손으로 옮겨 간다》(프·크

호 보충적인 제 단계는 공간적으로는 상호 병립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만 전후 연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이 이 과정의 계속을 측정하는 척도로 된다. 다시 말하면 소여의 시간내에 있어서의 동일한 화폐 조각의 회전수에 의하여 화폐의 유통 속도가 측정된다. 상술한바 네 가지 상품의 유통 과정이 폐컨대 1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실현되어야 할 가격¹⁾ 총액은 8파운드 스텔링이고 1일간의 동일한 화폐 조각의 회전수는 4회이고 유통 화폐 수량은 2파운드 스텔링이다. 즉 유통 과정의 일정 기간에서 보면 $\frac{\text{제 상품의 가격 총액}}{\text{동일 명칭의 화폐 조각들의 회전수}} = \text{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수량}$ 이다. 이 법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소여의 기간에 있어서의 일국의 유통 과정은 한편으로는 다수의 분산적인, 동시적인, 공간적으로 병행하는 판매 (또는 그에 대응하는 구매)를, 즉 동일한 화폐 조각이 다만 한번만 위치를 바꾸는 즉 다만 1회의 회전만을 수행하는 부분적 형태 변화를 포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화폐 조각이 많은 적든 여러 차례의 회전을 수행하는, 다수의, 부분적으로는 서로 병행하며 부분적으로는 서로 엇갈려져 있는, 많은 적든 여러 환전을 가진 형태 변화의 다수 계열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 내부에 존재하는 일체의 동일 명칭의 화폐 조각의 총회전수를 알기만 한다면 개개의 화폐 조각의 평균 회전수를, 즉 화폐 유통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다. 유통 과정의 시초——폐컨대 하루의 유통 과정의 시초——에 있어서 유통 속에 투입되는 화폐 수량은 동시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병행하여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 총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내부에서는 한개의 화폐 조각은 다른 화폐 조각과 이르면 연대 책임을 지게

로는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46년, 915, 916페이지).

되어 있다. 만약 그것들 중의 하나가 자기의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기타의 것의 유통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며 지어 기타의 것을 유통 분야로부터 전면 구축할 수까지도 있다. 왜냐 하면 유통 분야는 오직 금의 일정 수량만을 흡수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수량은 그것과 그 개별적 요소들의 평균 회전수를 승(乘)한 것이,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과 합치되는 그러한 수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 조각들의 회전수가 증가하면 그 유통 수량은 감소하며 그것들의 회전수가 감소하면 그 수량은 증가한다. 평균 유통 속도가 소여의 것이라면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화폐의 수량은 소여의 것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레컨대 1과운드권의 일정량을 유통에 투입하기만 하면 그만한 수량의 소비된 금화를 유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는바 이것은 모든 은행이 잘 알고 있는 실책이다.

화폐 유통 일반에 있어서는 오직 상품들의 유통 과정만이 즉 대립적인 형태 변화에 의한 상품들의 순환만이 나타난다면, 화폐의 유통 속도에 있어서는 상품들의 형태 전환의 속도, 형태 변화 계열들의 연속적으로 서로 엉켜져 있는 관계, 물'질 대사의 신속성, 유통 분야로부터의 상품들의 급속한 소멸 및 그것들의 새로운 상품들에 의한 그만큼 급속한 대체가 나타난다. 따라서 화폐 유통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상품의 사용적 모습의 가치적 모습에로의 전화 및 가치적 모습의 사용적 모습에로의 재 전화라는 대립적이며 상호 보충적인 두 단계, 즉 판매와 구매라는 양 과정의 원활한 통일이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화폐 유통의 완만성에 있어서는 이 양 과정의⁹ 분렬과 두 대립적 극들로의 독립화가, 즉 형태 전환 따라서 물'질 대사의 정체가 나타난다. 이 정체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그 자체에서는 알아 낼 수 없다. 유통은 이 현상의 존재 자체를 보이며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화폐 유통의 완만화에

따라서 류통면의 도처에서 화폐의 출몰 도수가 떠지는 것을 보고, 통속적 견해가 이 현상을 류통 수단의 양⁷⁾적 부족으로서 설명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⁷⁷⁾.

그리하여 매개의 소요 기간의 류통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총량은 한편으로는 류통중의 전체 상품의 가격 총액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상품의 대립적 방향을

77 《화폐는……매매에 사용되는 보통 척도인 까닭에 누구나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매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일국적 혹은 일지방적 범위에 있어서의 화폐의 결핍이 그의 상품이 팔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그리하여 화폐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화폐가 더 필요하다고 웨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농업 경영자는 불평을 말한다…… 만약 국내에 더 많은 화폐가 있다면 자기의 생산물을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그렇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고 그가 팔기를 원하나 팔리지 않는 자기의 곡물과 가축의 상당한 가격일 것이다……어째서 그는 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는가? ……그 이유는 (1) 국내에 곡물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가 그와 마찬가지로 팔려고만 하고 사기를 원하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든가 혹은 (2) 수출에 의한 평상시의 국외 판로가 두절되어 있든가……혹은 (3) 사람들이 빈궁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에서의 지출이 충전에 비하여 극감된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가 감소되었든가 그 중의 어느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경영자들의 물품을 팔리게 하는 것은 현금의 증가가 아니고 실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 세 원인 중 어느 하나의 제거이다……상인과 소상점주도 꼭 같은 의미에서 화폐를 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판로를 요구하고 있다……국민은 부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부단히 이전되고 있을 때에 가장 번영한다》(쎈 머프데이 노스 《상업에 관한 논술》, 런던, 1691년, 11—15페이지의 여타 개조). 헤렌 슈완트의 모든 사기사적 고안은 상품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따라서 또 상품 류통에서 발로되는 모순이 류통 수단의 증가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귀착된다. 생산 과정 및 류통 과정의 정체를 류통 수단의 부족으로써 설명하는 것은 통속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메켄데 정부의 클렬한 《통화 조절》의 결파인 류통 수단의 현실적 부족이 그것만으로는 정체를 야기할 수 없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가진 유통 과정들의 속도 여하에 의하여 규정되는바, 가격 총액중의 얼마만한 부분이 동일한 화폐 조각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흐름의 속도에 의존한다. 그런데 상품들의 이 가격 총액은 매개 상품 종류의 가격에 의존함과 동시에 그 수량에도 의존한다. 이 세계의 요인 즉 가격의 운동, 유통 상품의 수량, 그리고 끝으로 화폐의 유통 속도는 각이한 방향에서 또 각이한 비율로 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 따라서 이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유통 수단의 수량은 역시, 이 세 요인의 무수한 결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결합들 중에서 상품 가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들기로 한다.

상품 가격이 불변인 경우에는, 유통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든가 또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되든가 또는 이 양자가 함께 작용하든가 하는 데 따라 유통 수단의 수량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 수량의 감소 또는 화폐의 유통 속도의 증가에 따라 유통 수단의 수량은 감소될 수 있다.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등귀하는 경우에는 유통 상품의 수량이 그것의 가격 등귀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든가, 또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가격 등귀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되 유통 상품 수량이 불변이든가 하면 유통 수단의 수량은 불변일 수 있다. 상품 수량이 가격의 등귀에 비하여 더 급속히 감소하든가 또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가격의 등귀에 비하여 더 급속히 증가하든가 하면 유통 수단의 수량은 감소할 수 있다.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저락하는 경우에는 상품 수량이 그 가격 저락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든가 또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그 가격 저락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든가 하면 유통 수단의 수량은 불변일 수 있다. 상품 가격의 저락에 비하여 상품 수량이 더 급속히 증가하든가 또는 유통 속도가 더 급속히 감소하든가 하면 유통 수단의 수량은 증가할 수 있다.

각이한 요인들의 변동은 서로 상쇄(相殺)될 수 있고 그 결과 그 요인들의 부단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은, 따라서 또 류통 화폐의 수량도, 불변일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비교적 장기간을 두고 관찰할 때에는 각국에서, 류통 화폐량의 평균 수준은 일견하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변적이며 또 이 평균 수준으로부터의 이탈도 그리 현저하지 않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다만 주기적으로 산업공황 및 상업 공황에 의하여 또 드물게는 화폐 가치 자체의 변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격렬한 동요의 시기는 예외로 된다.

류통 수단의량이 류통 상품의 가격 총액과 화폐 류통의 평균 속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법칙⁷⁸은 또 다음과 같이 표현

78 《일국의 상업을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화폐에는 일정한 한도와 비율이 있어서 그 보다도 많든가 적든가 하면 상업에 저해할 것이다. 그것은 명세 소매 상업에 있어서 은화를 거슬러 주며 또는 최저 액면의 은화로써도 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불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화당 동화가 필요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이제 상업에 필요한 화당 동화수의 비율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매매의 빈번성과 또 특히 최저 액면의 은화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업에 필요한 화폐 (금화 및 은화)의 비율도 역시 교역의 빈번성과 지불 액수의 대소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윌리엄 페티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 런던, 1687년, 17페이지). A·영은 그의 저서 《정치 산술》, (런던, 1774년)에서, 《물'가는 화폐량에 의존한다》라는 하나의 특별한 제목 (112페이지 이하)하에 흙의 학설을 옹호하고 J·스루아트 기라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나는 《정치 경제학 비판》 119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151페이지 참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A·스미스)는 전연 부당하게도 화폐를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류통 주화에 관한 문제를 묵살하여 버린다》. 이 말은 A·스미스가 정식으로 화폐를 고찰하고 있는 개소들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그는 약간의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는 테컨대 정치 경제학의 이전 체제들을 비판할 때에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주화의량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그것에 의하여 류통될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일국에서 1년간에 매매되는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류통시키며 또 해당 소비자들 간에 분배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화폐를 필요로 하나 이 일정량 이상의 화폐는 류통시킬 수

될 수 있다. 즉 상품들의 가치 총액과 상품들의 형태 변화의 평균 속도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는 유통하는 화폐 또는 화폐 재료의 양은 그 자신의 가치에 의존한다. 이와 반대로 상품 가격이 유통 수단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이 후자는 그것대로 일국내에 존재하는 화폐 재료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뜻이 생각하는 환상⁷⁹은, 그 최초의 대표자들에 있어서는 상품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또 화폐는 가치를 가지지 않고서 유통 과정에서 들어 가며 그 다음 그 곳에서 상품 총량의 일정 부분이 금속 더미의 해당 부분과 교환된다는 엉터리 없는 가설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⁸⁰.

없다. 유통의 수로는 그것을 채우는데 충분한 액수를 자기 쪽에 필연적으로 끌어 들이나 그 이상은 결코 받아 들이지 않는다》(《국부론》, 제4편, 제1장) [로썬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5년, 제2권, 18, 19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A·스미스는 자기의 저서를 정식으로 분업의 찬미로써 시작하고 있으나 후에 이르러 국가 수입의 원천에 관한 최후 편에서는 때때로 그의 스승인 A·확가손의 분업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다.

79 《물'가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인민들 사이에 유통하는 금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물론 등귀할 것이다. 따라서 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금은이 감소될 때에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화폐의 이러한 감소에 비례하여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자코브 반머린트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런던, 1734년, 5페이지). 반머린트의 저서와 그의 《론문집》파를 상세히 비교하여 보면 흥미 대체로는 훌륭한 반머린트의 이 저서를 알았고 또 인용했다는 것을 나는 추호도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유통 수단의 수량이 가격을 규정한다는 견해는 바본과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저술가들에서도 볼 수 있다. 반머린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 무역에 의하여서는 아무런 불평도 일어날 수 없고 막대한 이익만이 생겨날 수 있다……왜냐 하면 만약 어떤 나라의 정금(正金)이 자유 무역의 영향하에 감소된다면——보호 관세와 수입 금지는 이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그 정금을 받아 들이는 나라들에서는 정금이 국내에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일제히 등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오래지 않아 우리 나라의 공업 제품과 기타 온갖 물건은 무역 차액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렬'가로 되어 화폐는 국내로 환류하게 될 것이다》(《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43, 44페이지).

80 매개의 개별적 상품 종류의 가격이 유통하는 상품 전체의 가격

C. 주화, 가치 기호(記號)

유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화폐의 주화 형태가 발생한다. 상품들의 가격, 즉 그것들의 화폐적 명칭 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금의 중량 부분은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총액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공통단위로써 비교 측정될 수 없는 사용 가치들이 어떻게 한덩어리가 되어 일국에 존재하는 금 은의 일정 수량과 교환되는가 하는 것은 전연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상품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상품 총체로 간주하고 매개의 개별적 상품은 오직 그것의 해당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대답하게 가정한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훌륭한 산수 계산식이 나온다. 상품 총체 = Σ 켈트베르트의 금, 상품 A = 상품 총체의 일정 부분 = Σ 켈트베르트의 금의 그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을 바로 문'자 그대로 몬테스큐가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세계에 현존하는 금 은의 총량을 세계에 현존하는 전체 상품의 총량과 대비시킨다면 하나 하나의 생산물 또는 상품을 모두 금 은 총량의 일정 부분에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세계에는 오직 한 종류의 생활 물'자 또는 상품이 존재한다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가지 물건만이 판매된다고 가정하며 또 그것은 화폐와 마찬가지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일부분은 화폐 총량의 해당 부분과 상응하게 되어 전체 상품의 절반은 전체 화폐의 절반과 상응하는 등등으로 될 것이다…… 물'자의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물건의 총체와 그화폐 기호의 총체 간의 비례에 의존할 것이다》(몬테스큐 《법의 정신》, 전집, 런던, 1767년, 제3권, 12, 13페이지) [로씨야어 판, 제22부, 제7장 389페이지, 표할렘 쓰끼 갑수 번역, 성 테페르부르그, 1900년], 리카도와 그의 제자들인 제임스 밀, 오버스톤 경(卿) 및 기타에 의한 이 이론의 일층의 발전에 관해서는 《정치 경제학 비판》 140—148페이지 및 150페이지 이하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142—148페이지, 152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존 스튜어트 밀 씨는 그에 특유한 절충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부친인 제임스 밀의 견해와 그에 정반대되는 견해를 동시에 채용하는 재간을 피우고 있다. 만약 우리가 레컨데 그의 교과서인 《정치 경제학 원리》의 본문을, 그가 현대적 아담 스미스로 자처하고 나선 그의 서문(초판)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소박성과 이 사람을 정말 아담 스미스로 믿은 일반 독자의 소박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금 조각으로서 즉 주화로서 상품에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격의 측정 기준의 확정과 마찬가지로 주화 제조는 국가에 진속된다. 금 은이 주화의 자격으로 몸에 두르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 시장에 나타날 때에는 다시 벗어 버리는, 그 각이한 국민적 제복에는 상품 유통의 내부적 즉 국민적 영역과 세계 시장이라는 전반적 영역간의 구분이 나타난다.

따라서 금의 주화 형태와 금의 지금(地金) 형태와는 원래 외형상으로만 구별될 뿐이고 금은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무단히 전화될 수 있다⁸¹. 조폐국(造幣局)으로부터 나오는

성의 어느 것을 더 놀랄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사람과 아담 스미스와의 대비는 윌리엄스 카르스 장군과 웰링톤 공작(公爵)과의 대비와 흡사하다.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의 존 스튜어트 밀 씨의 독창적 연구는 넓이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보잘 것 없는 것이요 그것은 1814년에 간행된 《정치 경제학의 약간의 이해할 문제》라는 그의 소책자 속에 몽땅 그대로 타월되어 있다. 목크는 금 은의 무가치성과 그것들의 가치의 양에 의한 결정과의 관련은 다음과 같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금 은에 상상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이 두 금속의 내재적 가치는 그것들의 양 이외의 아무 것도 이니다》(《리자 인하의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 1691년, 저작집, 1777년판, 제2권, 15페이지).

81 주조로 기타와 같은 세부 문제를 취급하는 일은 물론 전혀 나의 과업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무료로 화폐를 주조하는》《판대한 아담》에 감탄하고 있는 랑만주의적 아침 분자 아담 클러에 대해서는 새 메트레이 노스의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대치시키면 충분하다. 《금 은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한다. 일정량의 은이 서반아로부터 도착하면…… 그것들은 런던 함으로 이동되어 거기서 주조된다. 그후 얼마 오래지 않아 금 은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지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그 때에 지금이 조금도 없고 모두가 주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다시 녹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손실은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소유자는 주조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국민은 무용한 손해를 당했던 것이니 그것은 마치 노새에게 먹일 짚을 새끼로 판 셈이 된다. 만약 상인이 (노스 자신은 찰스 2세 시대의 거상(巨商))

길은 동시에 도가니에로 가는 길이다. 다름 아니라 금 주화는 류통하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다소간 마멸된다. 금화의 칭호와 금의 실체과가, 즉 명목적 내용과 현실적 내용과가 점차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액면이 같은 금 주화들이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류통 수단으로서의 금은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의 금으로부터 배리하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격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상품들의 현실적인 등'가물로 될 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나오는 알뜰의 력사는 중세기와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근세의 주화사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주화의 금 존재를 금의 가상적(假象的) 존재로 전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주화를 그의 공인된 금속 내용의 일종의 상징으로 전화시키는 류통 과정의 자연 발생적 경향은 최근의 법률까지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금화가 통용될 수 없게 되는, 즉 그것이 주화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마멸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화폐의 류통 그 자체가 주화의 현실적 내용을 그 명목적 내용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것의 금속상의 존재를 그것의 기능상의 존재로부터 분리시킨다면 화폐 류통에는 벌써 주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금속 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기호 또는 단순한 상징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다. 금 또는 은의 극히 사소한 중량 부분을 주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과 그리고 타면 원래 저급 금속이 고급 금속에 앞서서——은이 금에 앞서서, 동이 은에 앞서서——가치 척도로 쓰이었고 따라서 고급 금속이 그것을 퇴위(退位)시키는 그 순간까지 저급 금속은 화폐로서 류통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은

의 한 사람이었다) 주조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 그는 그가 소유하는 은을 상당한 리유 없이는 런던 함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조 화폐는 항상 주조되지 않은 은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노스 《상업에 관한 논문집》, 런던, 1691년, 18페이지).

제 기호와 동제 기호가 금화의 대리자의 역할을 논 사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그것들은 주화가 가장 빨리 유통하는, 따라서 가장 빨리 마멸하는 그러한 유통 분야에서, 다시 말하면 매매 행위가 가장 소규모로 부단히 반복되는 그러한 곳에서 금을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금의 위성(衛星)들이 금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점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그것들만을 금 대신에 지불할 때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한도액을 극히 적은 액수로 제정한다. 각이한 종류의 주화가 유통되는 특수한 분야들은 물론 서로 엉켜져 있다. 보조 화폐는 최소 금화의 분수 부분의 지불을 위하여 금과 병행하여 나타난다. 금은 부단히 소매 유통 부문에 들어 오나 그러나 보조 화폐와 바꾸어져서 마찬가지로 부단히 그 곳으로부터 쫓겨 나온다⁸².

은제 기호와 동제 기호의 금속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들은 유통에 있어서 금 주화보다도 더 빨리 마멸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적 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중량으로부터 즉 어떠한 가치로부터서도 전연 독립한 것으로 된다. 금의 주화로서의 존재는 그 가치—실체와는 완전히 분리된다. 그런 까닭에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물건인 종

82 《만약 은화가 소매 지불에 요구되는 양을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아서 대액 지불에 충분한 양으로 만들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대액 지불에 있어서 금화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소매 상업에 있어서도 금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금 주화를 소유하는 자는 소매 구매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 대신에 구매한 상품과 아울러 은화로 거스름 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됨으로써 그렇지 않다면 소매상의 수준에 집중되어 그를 귀찮게 할 은화의 여분은 그로부터 리탈되어 일반 유통에 산포된다. 그러나 만약 은화가 금화 없이도 소매의 거래를 실현시키는 데 충분한 정도로 많이 있다면 그 때에는 소매상은 소매의 구매에 대하여 은화만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수준에 축적되지 않을 수 없다》(다비드 부카난 《영국의 조세 및 상업 정책에 관한 연구》, 에딘버러, 1844년, 218, 240페이지).

이 쪽지가 금을 대신하여 주화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금속제의 화폐—기호에 있어서는 그것의 순전히 상징적인 성격은 아직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다. 지폐에 있어서는 그러한 성격이 뚜렷하게 노출된다. 과연 어려운 것은 제1보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국가 지폐만을 문제로 잡는다. 국가 지폐는 직접 금속 류통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신용 화폐는 단순 상품 류통의 한계내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왕이니 여기서 특히 말해 둔다면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폐가 류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자연 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⁸³.

1파운드 스텔링, 5파운드 스텔링 등등과 같은 화폐 명칭을 박은 인쇄된 종이 쪽지가 국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류통 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그와 동일한 명칭의 금량을 대신하여 현

83 중국의 재정관(財政官) 왕무음(王茂蔭)은 중국의 국가 지폐를 은밀히 태환 은행'권으로 전화시키려는 계획안을 삼가천자(天子)에게 제출했다. 1851년 4월의 국가 지폐 위원회의 보고에서 그는 되게 두드러 맞았다. 그가 참'대 몽둥이로 매맞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고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 <본 위원회는 그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모두가 상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고 황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북경 주재 영국 공사관의 중국에 관한 조사 연구>, K. 아벨 박사 및 F. A. 메크멘부르그에 의한 로어로부리의 번역, 제1권, 베를린, 1858년, 47페이지 이하). 금 주화가 그 류통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마멸되는 현상에 관하여는 영탄 은행 <총재>의 한 사람이 <상원 위원회>(<은행법>에 관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매년 소베렌(sovverign) (군주라는 의미에서의 소베렌이 아니고 금화 1파운드 스텔링의 명칭으로서의 소베렌이다)의 새로운 한 집단은 너무나 가벼워진다. 어느 때에는 완전한 중량을 가지고 류통하던 한 집단이 다음 해에는 마멸됨으로써 저울'대가 기울어질 정도로 중량을 잃어 버린다> (상원 위원회, 1818년, 제429호).

실적으로 유통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운동에는 화폐 유통 그 자체의 법칙이 반영될 따름이다. 지폐 유통의 특수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리하는 비율로부터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지폐의 발행은, 지폐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금(혹은 은)이 지폐가 없을 때 실지 유통하게 될 량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통 분야에 의하여 흡수될 수 있는 금의 분량은 부단히 변동하여 폭시는 일정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되며 폭시는 그 이하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 수단의 수량은 조여의 나라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일정한 최소한 이하로 감소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최소한의 수량이 끊임 없이 자기의 구성 부분을 변경한다는 사정,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성하는 금조각들이 부단히 달라진다는 사정은 물론 이 최소한의 규모에도, 유통 부면 내부에서의 그 부단한 회류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한의 수량은 종이 쪽지로 만든 상징에 의하여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오늘에 전체 유통 수로가 그 화폐 흡수 능력의 한도까지 지폐로써 충만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일에는 상품 유통에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범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한도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폐가 자기의 한도를, 다시 말하면 실지로 유통할 수 있는 동일 명칭의 금화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신용 저락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때에 상품 세계의 내부에서 지폐가 대표하는 것은 지폐가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금량 즉 상품 세계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베킨대 종이 쪽지의 일정 수량이 명목상으로는 금 2온스씩을 대표하나 실지로 금 1온스씩을 대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1파운드 스털링은 이틀레면 이전의 금 $\frac{1}{4}$ 온스 대신에 $\frac{1}{8}$ 온스의 화폐적 명칭으로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금이 가격의 척도로서

의 기능에 있어서 변경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으로 표현되었던 동일한 가치가 이제는 2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지폐는 금 기호 또는 화폐 기호이다. 지폐의 상품 가치에 대한 관계는 종이 조각에 의하여 상징적일망정 -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금량으로서 상품 가치가 관념적으로 표현되는 데 있다. 가치량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상품량과 다름이 없는 금량을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만 지폐는 가치의 기호로 된다⁸⁴.

끝으로 그러면 어째서 금은 그 자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호들에 의하여 대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이 이러한 것에 의하여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이 주화로서의 즉 류통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기능에 있어서 고립화 또는 독립화되는 그 한에 있어서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의 독립화는 마멸된 주화들이 계속 류통되는 사실에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개개의 금 주화들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 조각들은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류통되고 있는 동안에만 다만 주화 또는

84 제2관 주. 화폐 문제에 있어서의 최선의 저술가까지도 화폐의 각종 기능을 얼마나 분명치 못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레컨대 플라톤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이여 준다. 《우리의 국내 상업을 문제로 하는 한, 보통 금 주화 및 은 주화에 의하여 수행되는 화폐의 일체 기능은 법률로써 제정된 인위적인 또 관습적인 가치만을 가지는 불환 지폐(不換紙幣)의 류통에 의하여 동일하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생각 같아서는 누구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종류의 가치는 현재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화의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만약 지폐의 발행액이 적당한 한계를 넘지만 않는다면 가치와 가격의 척도의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플라톤 《유헤의 조절》, 제2관, 런던, 1845년, 21페이지). 보는 바와 같이 화폐-상품이 류통에 있어서 단순한 가치의 기호로써 대치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화폐-상품은 가치 척도 및 가격의 측정 기준으로서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유통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금 주화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지폐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금의 최소한의 수량에는 적용된다. 이 금의 최소한의 수량은 부단히 유통 분야에 머물러 있으며 끊임 없이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또 그런 까닭에 다만 이 기능의 담당자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금의 이 최소한의 수량의 운동은, 상품의 가치 모습이 일시 상품에 매립하였다가 즉시로 다시 사라져 없어지곤 하는 그러한 상품의 형태 변화 $W—G—W$ 의 매립적인 두 과정의 부단한 상호 전환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상품의 교환 가치의 독립적 표현은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시로 다른 상품에 의하여 다시 대체된다. 그러므로 화폐가 한 손으로부터 다른 손으로 부단히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전히 상징적인 화폐의 존재만으로써도 충분하다. 이를테면 화폐의 기능상 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존재를 흡수하여 버리는 셈이다. 상품 가격의 순간적으로 객관화된 반영으로서의 화폐는 그 자신의 기호로서 복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까닭에 그것은 단순한 기호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⁸⁵. 화폐의 기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체의 객관적—사회적 타당성 뿐이며 그리고 종이로 만든 상징은 이것을 강제 통용에 의하여 획득한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다

85 금 은이 주화로서는, 즉 다만 유통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기호로 된다는 사실로부터 니콜라스 바본은 정부가 《주화 가치를 인상하는》 권리를, 다시 말하면 페넨대 이때까지 그로센이라고 칭하여 온 어떤 분량의 은을 이룰때면 탈페르라고 칭하는 더 큰 량의 은의 명칭으로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탈페르 대신에 그로센을 반환하는 권리를 끌어 냈다. 《화폐는 자주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 감으로써 다멸되어 차츰 더 가볍게 된다…… 상업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은 은의 량이 아니고 화폐의 명칭과 통용력이다……금속편을 화폐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다》(N. 바본 《신 화폐를 더 경하게 주조할 데 관한 문술. 루크씨의…… 고찰에 대한 답변》, 런던, 1696년, 29, 30, 25페이지).

만 소여 사회의 경계(境界) 내에서만 또는 국내적 유통 분야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그러나 또한 화폐는 오직 여기에서만 유통 수단 즉 주화로서의 자기의 기능 속에 완전히 융해되며 따라서 지폐라는 형식으로서 자기의 금속적 실체로부터 외부적으로 분리되어 순전히 기능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화폐

가치 척도로서 기능하며, 또 이에 의하여 몸소 혹은 대리자를 통하여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이다. 그러므로 금(혹은 은)은 화폐이다. 금(혹은 은)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금이라는(혹은 은이라는) 몸뚱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가치 척도의 기능에 있어서와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으로서도 아니고 또 유통 수단의 기능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의 대리자에 의하여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서도 아니고 화폐—상품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경우에 화폐로서 기능한다. 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기능이——그것이 이 기능을 몸소 수행 하든지 혹은 대리자를 통하여 수행 하든지를 막론하고——단순한 사용 가치로서의 다른 모든 상품에 대립하여 자신을 유일한 가치 모습으로서, 즉 교환 가치의 유일의 적당한 존재로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화폐로서 기능한다.

A. 금전 퇴장

상품의 두 대립적인 형태 변화의 연속적인 순환 즉 판매와 구매와의 끊임 없는 교체는 화폐의 철재 없는 유통에서 즉 유통의 Perpetuum mobile [무한 동작 기구]로서의 화폐 기능

에서 나타난다. 형태 변화 계열이 중단되어 판매가, 그 뒤에 변달리는 구매에 의하여 보충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화폐는 동작을 멈춘다. 즉 그것은 보아규베르가 말한 바와 같이 meuble [가동체]로부터 immeuble [부동체]에로, 주화로부터 화폐에로 전화한다.

상품 유통 그 자체의 발전의 최초부터, 제1차 형태 변화의 산물인, 상품의 전화된 모습 즉 상품의 금번베기(金蛹)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열망이 발전한다⁸⁶.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품 형태를 화폐 형태와 바꾸기 위하여 판매된다. 이러한 형태 전환은 물'질 대사에 있어서의 단순한 중개적 환절로부터 자체--목적으로 된다. 상품의 외화된 모습인, 상품의 절대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즉 오직 순간적인 화폐 형태로서 기능하는 것을 저해 당한다. 이리하여 화폐는 퇴장금으로 화석(化石)하며 상품 판매자는 금전 퇴장자로 된다.

바로 상품 유통의 초기에는 사용 가치의 과잉 부분만이 화폐로 전화한다. 그리하여 금 은은 그 자체로서 유족(裕足), 즉 부의 사회적 표현으로 된다. 전통적인 자금 자족적 생산 방식에 적응하여 욕망의 범위가 고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인민들 간에는 이 조박한 형식의 금전 퇴장이 영구화된다. 이것은 아세아인 특히 인도인에 있어서 보는 바이다. 상품 가격은 일국에 존재하는 금 또는 은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망상하는 반더린트는 어째서 인도의 상품이 것처럼 '럼'가인가? 를 스스로 묻는다. 그는 대답하기를 인도인은 화폐를 땅 속에

86 《화폐 형태로서의 부는……화폐로 전화된 생산물로서의 부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마르세 드 라 리베르 《정치적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16년, 573페이지). 《생산물들으로써 표현된 가치는 오직 자기의 형태를 변화하였을 뿐이다》(동상서, 486페이지).

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말하는 바에 의하면 1602년부터 1734년에 이르는 동안에 인도안은 1억 5,000만 파운드 스털링의 은을 매장하였는데⁸⁷ 이것은 본래는 아메리카로부터 구라파로 이송되어 온 것이었다. 1856년부터 1866년에 이르는 동안 즉 10년간에 영국은 그 전에 호주의 금과 교환하여 1억 2,000만 파운드 스털링의 은을 인도와 중국에 수출하였다 (중국에 수출된 금축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 갔다).

상품 생산이 일층 발전함에 따라서 매개 생산자는 *nexus rerum*(물건의 신경)인 일종의 《사회적으로 승인된 담보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⁸⁸. 그의 욕망은 끊임 없이 새로 일어나 그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끊임 없이 구매하게 하는 데 다른 한편 그 자신의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시간을 요하며 또 우연성에 의존한다. 판매함이 없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 이전에 구매함이 없이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만약 그것이 일반적 통폐로 된다면 자체 모순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귀금축은 그 원산지에서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된다. 여기에서는 구매(금 은의 소유자 측에서의) 없는 판매(상품 소유자 측에서의)가 수행되고 있다⁸⁹. 그리고 뒤따르는 구매를 수반하지 않는 후일의 판매는 귀금축을, 모든 상품 소유자들 간에 광범히 분배하는 것을 증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류통의 모든 지점들에서 각종 규모에 있어서의 금, 은 재보(財寶)의 축적이 일어난다. 교환 가치로서의 상품 또는 상품으로서의 교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남과 동

87 《바로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물품과 제조품을 것처럼 렬'가하게 만들었다》(반머린트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런던, 1734년, 95, 96페이지).

88 《화폐는 일종의 담보물이다》(존 벨 머스 《빈민, 공업, 상업, 식민(植民) 및 부도덕(不道德)에 관한 논문집》, 런던, 1699년, 13페이지).

89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매는 상품의 전화된 형태로서의, 즉 판매의 산물로서의 금 혹은 은을 전제로 한다.

시에 금에 대한 갈망이 환기된다. 상품 유통의 확대와 함께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의 절대적 사회적 형태인 화폐의 권력이 성장한다. 《황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진 자는 그가 소망하는 모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황금을 통하여 사람은 명혼을 천당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다》(콜럼부스의 자마이카로부터의 서한, 1503년). 화폐의 외판에 의해서는 무엇이 그것으로 전화되었는가를 알 수 없는 까닭에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 것이 화폐로 전화한다.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된다. 유통은 모든 것이 그것에 뛰어들어 갔다가 화폐적 결정체(結晶体)로 되어 다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도가니로 된다. 이런 금술(鍊金術)에는 성자(聖者)의 배조차도 대항할 수 없다. 하물며 그 보다는 연약한 *res sacrosanctae, extra commercium hominum* (사람들의 상업상 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성한 물건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⁹⁰. 화폐에 있어서는 상품들의 온갖 질적 차별이 소멸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 자체도 금진적 수평주의자로서 온갖 차별을 소멸시킨다⁹¹. 그러나 화폐는 그 자신 상품이

90 가장 기록요적인 불탄서 왕 앙리 제3세는 수도원 및 기타에서 전래의 보물을 약탈하여 그것을 팔아 은으로 만들었다. 포케아 인베 의한 델피 사원(寺院)의 보물의 약탈이 회람 력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랐던가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데네에 있어서는 사원은 상품 신(神)의 안주지(安住地)로 되어 있었다. 사원들은 《신성한 은행》이었다. *Par excellence* (탁월한) 상업 인민인 페니키아 인은 화폐를 모든 물건의 외화된 모습으로 각주하였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신(女神)의 축제일에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몸을 바친 처녀들이, 보수로서 받은 돈을 이 여신에게 헌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91 《금! 휘황 찬란한 황금이며!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도 회개,

미운 것도 곱게,

그른 것도 옳게, 천한 것도 귀하게

며 누구든지 사'적 소유물로 할 수 있는 외계(外界)의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권력이 사'적 개인의 사'적 권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는 화폐를, 그 사회의 경제적 및 도덕적 생활 제도의 와해자라고 하여 비난하였다⁹². 벌써 그 유년

늙은 것도 젊게,
 겁쟁이도 용감하게,
 만들 수 있구 말구.
 ……신들이여! 이것은 웬 일인가?
 이 물건은 당신들의
 제관(祭官)이든 하인이든
 모두 다 끌어 갈 수 있으며,
 아직은 살 수 있는 병자의 머리 밑에서
 벼개를 빼가기도 하니……
 이 황색의 노예, 이 늙은
 신앙을 만들었다 부시며
 저주(呪呪) 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며
 문둥병자 앞에서
 절하게 한다.
 도적도 원로(元老)의 자리에 앉혀
 칭호와 궤배(跪拜)와 영예를 준다.
 이제는 다 산 파부를 시집가게 하는 자도 이것.
 ……에익, 이 망할놈의 물건,
 인류 공동의 매음부야!》.

(셧스피어 《아테네인의 다이몬》) [제4막 제3장, 로썸야어 번역,
 П. Вейнберг, 1903년, 저작집, 제7권, 518페이지].

92 《세상에 돈 같이

간악한 것은 다시 없다.
 돈 때문에 성시(城市)는 멸망하며
 사람도 집에서 쫓겨 난다.
 금전은 준절한 심정을 타락시키며
 혐치 없는 행위와
 간악한 생각과 배신(背信)을
 사람에게 가르친다》.

(쇼프클레쓰 《안치고베》, [로썸야어 판 П. С. Метелли우스키 번역,
 1914년, 17페이지].

시대에 땅 속으로부터 《플루토의 머리 털을 잡아 끌어 낸》⁹³현
대 사회는 금을 자기의 가장 독특한 생활 원리의 찬란한 화신
으로서 환영하고 있다.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은 일정한 욕망을 충족시키며 물재적
부의 일정한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물재적
부의 모든 요소에 대한 그 상품의 인력의 정도를 측정하며 따
라서 그 상품 소유자의 사회적인 부를 측정한다. 미개한 단순
상품 소유자에게 있어서 또 심지어 서 구라과의 농민에게 있어
서 가치는 가치 형태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금 은 형
태로의 재보의 축적은 즉 가치의 증가로 된다. 화폐 가치가
그 자신의 가치 변동의 결과 또는 상품 가치의 변동의 결과 변
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가치
변동의 전이나 후에나 200온쓰의 금은 100온쓰의 금보다, 300
온쓰의 금은 200온쓰의 금보다……의 연히 더 많은 가치를 가지
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건의 금속적 현물 형태는 의연히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 형태 즉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 사
회적인 체화물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퇴장금을 축적하
고자 하는 충동은 그 성질상 한량이 없다. 화폐는 직접 어떠
한 상품에도 변형될 수 있는 까닭에 질적으로나 또는 형태적
으로나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재적 부
의 일반적인 대표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매개의 현실적인
화폐액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또 제한된 효력을
가지는 구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의 이러한 양'적 제한
성과 질'적 무제한성 간의 모순은 금전 퇴장자로 하여금 항상
축적이라는 시슈푸스적 수고를 하도록 내몬다. 그는 재 나라
를 하나씩 정복할 때마다 재 국경에 다달으는 때 지나지 않는

93 《탐욕은 플루토 그 자신을 땅 속으로부터 머리털을 잡아 끌어
내려고 한다》(아테나우스 《학자의 만찬》 [제6부, 제23장, 슈와이그호
이 제트, 1802년, 제2권, 397페이지]).

세계 정복자와 비슷하다.

금을 화폐로서 즉 금전 퇴장의 요소로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이 유통하는 것을, 즉 구매 수단으로서 향락 자료에 해소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금전 퇴장자는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금이라는 물신에 희생으로 바친다. 그는 진심으로 금욕(禁慾)의 복음(福音)을 받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오직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던진 것만을 유통으로부터 화폐의 형태로 끌어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과 절약과 린색은 그의 주되는 도덕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정치 경제학의 전부이다⁹⁴.

퇴장금의 직접적 형태와 아울러 금 제품과 은 제품의 소유라는 그 미학적(美學的) 형태가 발전된다. 이러한 소유는 시민 사회의 부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부자로 되자, 그렇지 않으면 부자로 보이게 하자》(디드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금 은의 화폐적 기능과는 관계 없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금 은 시장이 형성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회적 폭풍우의 시기에 흘러 나오는, 화폐의 잠재적인 공급 원천이 형성된다.

금전 퇴장은 금속 유통의 절약에 있어서 각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가장 비근한 기능은 금 주화 또는 은 주화의 유통 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는 상품 유통이 그 규모와 가격과 속도에 있어서 부단히 동요함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이 부단히 증감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화폐의 유통량은 신축 자재(伸縮自在)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가 주화로서 끌려 들어 가야 되며, 어떤 때에는 주화가 화폐

91 《모든 상품의 판매자의 수를 될수록 더 늘이고 구매자의 수를 될수록 더 줄이는 것은 정치 경제학의 모든 방책이 귀착되는 근본 문제이다》(베리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 쿠프스도르프 편찬 이래리 경제학자들의 논문집, 현대 부, 제15권, 52페이지).

로서 밀려 나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이 항상 유통 분야의 포화점(飽和點)에 적응되어 있기 위해서는 일 국내에 존재하는 금 또는 은의 분량이 사실상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금 또는 은의 분량보다 더 커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은 화폐의 퇴장금에로의 전화에 의하여 충족된다. 금전의 저수지는 동시에 유통 화폐의 류출과 류입의 수로로 쓰이며 따라서 유통 화폐는 결코 그 유통 수로로부터 범람하지 않는다⁹⁵.

B. 지불 수단

이때까지 고찰하여 온 상품 유통의 직접적 형태에 있어서 는 동일한 가치의 크기가 항상 이중적으로 존재하였다. 즉 한 쪽 극에는 상품이, 반대 극에는 화폐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는 서로 맞서 있는 현존 등'가물의 대표자로서

95 《국민이 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현금이 필요하나 그 액수는 그때 그때의 사정의 요구에 따라서 혹은 많아지기도 하며 혹은 적어지기도 함으로써 변동하는 것이다……화폐의 이러한 간만(干滿)은 정치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주위 사정에 순응한다……량전의 드레박이 교대식으로 작용한다. 즉 주화가 부족하게 되면 지금이 주조되고 지금이 부족하게 되면 주화가 녹여 진다》(著 D·노스 《상업에 관한 논술》, 런던, 1691년, 22페이지). 오래 동안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던 존 스튜아트 밀은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은제 장식품이 직접 퇴장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은제 장식품은 리자률이 높아지면 골리여 나와 주조되고 리자률이 떨어지면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 간다》(존 스튜아트 밀의 《1857년 은행법에 관한 보고서》중의 주언, 제2084호 및 2101호). 인도에 있어서의 금은의 수출 수입에 관한 1864년의 의회 문서에 의하면 1863년에는 금은의 수출에 비한 수입 조파는 19,367,764파운드 스텔링에 달하였다. 1864년 이전의 최종 8년간에는 귀금속의 수출에 비한 수입 조파는 108,852,917파운드 스텔링이었다. 현 세기중에 인도에서는 200,000,0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이 화폐로 주조되었다.

접촉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 류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가 그의 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제 관계가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이 제 관계중의 가장 간단한 것만을 지적하면 충분할 것이다. 어떤 상품 종류는 그 생산에 비교적 긴 시간을, 그리고 다른 상품 종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서로 다른 상품의 생산은 '서로 다른 계절(季節)과 결부되어 있다. 다음 또 어떤 상품은 그 자신의 시장 소재지에서 산출되나 다른 상품은 멀리 떨어진 시장에까지 여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어떤 상품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가 구매자로서 등장하기 전에 판매자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인물들 간에 동일한 거래가 빈번히 반복될 때에는 상품의 판매 조건은 그 생산 조건에 의하여 조절된다. 다른 한편 어떤 종류의 상품, 폐컨대 가옥의 리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된다. 구매자는 기한이 만료된 후에라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남김 없이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상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사는 것이다. 한편의 상품 소유자는 현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다른 한편의 상품 소유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서 즉 장래의 화폐의 대표자로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로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로 된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 변화가, 즉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이 변경되는 까닭에 화폐도 또한 하나의 다른 기능을 획득한다.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된다⁹⁶.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역할이 여기에서는 단순 상품 류통

96 루테르는 구매 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구별하고 있다. 《너 (채무자)는 나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지불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마르틴 루테르 《고리 대금을 반대하여 실패하도록 승미당에게 줌》 뢰벤베르크, 1510년).

으로부터 발생한다. 그 유통 형태의 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이 새로운 도장을 찍는다. 따라서 이 역할들은 처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통, 당사자간의 의하여 번갈아 연출되는 일시적인 역할이다. 그렇지만 이 메커니즘은 최초부터 그리 기분 좋은 것이 아니며, 그것은 더 굳게 결정화(結晶化)할 수 있는 것이다⁹⁷. 그러나 이 두 배역(配役)은 상품 유통과 관계 없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레킨대 고대 세계의 계급 투쟁은 주로 채권자 채무자간의 투쟁의 형식으로 벌어졌다. 로마에 있어서는 그것은 평민 채무자들의 몰락으로써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노예로 되어 버렸다. 중세기에 있어서는 이 투쟁은 봉건—채무자들의 몰락으로써 끝났고 이 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자기의 경제적 토대와 함께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화폐 형태는——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과연 하나의 화폐 관계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나——일층 더 깊은 곳에 근원을 둔 경제적 생활 조건의 적대성을 반영한 뿐이었다.

상품 유통 분야에도 되돌아 가자. 상품과 화폐라는 '등'가 물들이 판매 과정의 양극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는 화폐는 첫째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의 가치 척도로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를, 다시 말하면 그가 일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할 화폐액을 측정한다. 화폐는 둘째로 관념적인 구매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구매 수단은 비록 구매자의 화폐 지불 약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상품의 이전을 실현시킨다. 지불

97 18세기 초엽의 영국 상인간에 있어서의 채권자 대 채무자의 관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여기 영국에서는 상인들 간에, 다른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도 또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일세기 있어 보지 못한 그러한 잔혹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신용 및 파산법에 관한 논설》, 런던, 1707년, 2페이지).

기일이 도래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불 수단은 현실적으로 류통에 들어 간다. 즉 구매자의 손으로부터 판매자의 손으로 옮겨 간다. 류통 수단이 퇴장금에로 전화한 것은 류통 과정이 제1 단계에서 중단된 결과, 즉 상품의 전화된 모습이 류통으로부터 끌려 나온 결과이었다. 지불 수단은 류통에 들어 가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상품이 이미 류통으로부터 빠져 나온 후이다. 화폐는 이제는 과정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 가치의 절대적 존재로서, 즉 일반적 상품으로서, 과정을 독립적으로 결말 짓는다. 판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 것은 화폐로써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며, 금전 퇴장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 것은 상품을 화폐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이며, 채무자—구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 것은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물은 강제 판매를 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품 가치의 체화물인 화폐는, 이제는 류통 과정 그 자체의 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필연성에 의하여, 판매의 자체 목적으로 된다.

구매자는 그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기 전에 화폐를 상품으로 재 전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에 앞서서 제2차 형태 변화를 수행한다. 판매자의 상품은 류통하나 그러나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화폐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청구권으로써만 실현된다. 그것은 미처 화폐로 전화되기 전에 사용 가치로 전화된다. 그 상품의 제1차 형태 변화는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수행된다⁹⁸.

98 제2판 주. 어찌서 내가 본문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형태물 고매에 넣지 않는가 하는 것은 1859년에 공포된 나의 저작으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G \rightarrow W$ 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화폐는 화폐의 사용 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즉 상품을 양도 받기 전에 현실적 구매 수단으로서 양도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품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레천대 선불(先拂)이라는 일상적인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또는 영국 정부가 인도의 농민으로부터 아편을 구

유통 과정의 매개의 일정 기간에 있어서 지불 기일이 도래한 채무는 이 채무를 발생시킨, 판매된 상품들의 가격 총액을 대표한다. 이러한 가격 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 수량은 우선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에 의존한다. 이 속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의하여 제약된다. 즉 A는 자기의 채무자 B로부터 화폐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자기의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등등과 같은 채권자 채무자간의 관계의 연쇄(連鎖) 및 각이한 지불 기일간에 놓여 있는 시간상 간격이 그것이다. 지불, 즉 후일에 수행되는 제1차 형태 변화의, 순차적인 연쇄는 이전에 고찰한 형태 변화 계열의 엉클어진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유통 수단의 유통에는 비단 판매자 구매자간의 연관이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관 자체가 화폐 유통에 있어서만 또 화폐 유통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성립된다. 이에 반하여 지불 수단의 운동은 그 이전에 벌써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연관을 표현한다.

판매들의 동시성과 병행성은 통화의 수량을 그 유통 속도가 보상하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은 지불 수단의 절약을 위한 새로운 공간(楨杆)으로 된다. 지불이 동일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다. 레컨대 중세기의 리용에 있어서의 *virements* [환치]같은 것이 그것이다. A의 B에 대한, B의 C에 대한, C의 A에 대한 등등의 채권은 서로 맞세우기만 하면 일정액까지는 정(正)량과 부(負)량으로서 상쇄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오직 채무 차액만이 청산되면 그뿐이

매하는 형태로도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화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매 수단이라는 형태로써 작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자본도 역시 화폐 형태로써 선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지는 단순 유통의 시야(視野)에는 아직 들어 오지 않는다》(《정치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119, 120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12권, 제1부, 124페이지 참조].

다. 지불의 집중이 대량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만큼 차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며 이에 따라 류통중의 지불 수단의 수량도 일층 적어진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하나의 직접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지불이 결제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 화폐 또는 가치 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한다. 현실적으로 지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류통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즉 물'질 매사의 오직 일시적 중개적인 형태로서가 아니고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체화로서, 교환 가치의 독립적 존재로서, 즉 절대적 상품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모순은 화폐 공황이라고 칭하는 생산 공황 및 상업 공황의 순간에 특별한 힘을 가지고 발로된다⁹⁹. 이 화폐 공황은 지불의 순차적인 연쇄와 그 결제의 인위적 제도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만 일어난다. 이 기구의 전반적 교란이 일어 날 때, 이 교란을 산생시킨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화폐는 계산 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돌연히 또 직접적으로 경화(硬貨)로 전화된다. 그것은 보통 상품에 의해서는 대신될 수 없게 된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무가치한 것으로 되며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 형태 앞에서 볼 것 없게 된다. 금방 어제 까지도 부르쵸아는 호경기에 도취하여 계몽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화폐는 공허한 환영(幻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명하며, 상품만이 화폐라고 떠벌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화폐만이 상품이다!

99 본문에서 매개의 일반적 생산 공황 및 상업 공황의 특수적 단계로서 규정한 화폐 공황은, 역시 화폐 공황이라고 불리우는 하나 그거나 독립적으로 출현할 수 있으며 산업과 상업에는 다만 반작용적인 영향을 줄 뿐인 특수한 종류의 공황과 구별해야 한다. 이 후자에서는 화폐 자본이 그 운동의 중심으로 되며 따라서 은행, 주식 취인소, 재정(財政)이 그 직접적인 명목으로 되는 그러한 공황이다 {제3판에 대한 말스의 주}.

라고 웨치는 소리가 세계 시장에서 들려 온다. 사슴(鹿)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여 웨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조아의 령혼은 유일의 부인 화폐를 갈망하여 웨친다¹⁰⁰. 공황 때에는 상품과 그 가치--모습인 화폐와의 대립은 절대적 모순에로까지 장성한다. 그러므로 화폐의 발현 형태는 여기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 지불을 금으로 하든지 은행'권과 같은 신용 화폐로 하든지 화폐 기근은 의연히 완화되지 않는다¹⁰¹.

만약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내에 있어서의 유통 화폐의 총액을 고찰한다면, 그것은 유통 수단 및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가 조여의 것이라면 실현되어야 할 상품 가격의 총액에, 기일

100 《신용 제도로부터 현금 제도로의 이와 같은 급격한 이행은 실제적 공황에다 이론적 공황을 첨가한다. 그리하여 유통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제 관계의 통찰할 수 없는 비밀 앞에서 벌벌 떠다》(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126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130페이지 참조]. 《빈민에게 일거리가 없는 것은 부자들이 식량과 의복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노동력을 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나 빈민을 고용할 화폐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참다운 부는 바로 이 토지와 노동력이요 결코 화폐가 아니다》(존 벨러스 《공업 대학의 창립에 대한 제안》, 런던, 1696년, 3페이지).

101 이와 같은 순간이 《amis du commerce》 [《장사 친구》] 들에 의하여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때와 같다. 《어떤 사건 때에 (1839년에) 어떤 육식 많은 노(老) 은행가 (런던셔리에 사는)는 그의 사실(私室)에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사무용 탁자의 뚜껑을 열고 자기의 친구에게 은행'권 문치를 보이며 주고 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여기에 800,000파운드 스텔링이 있는데 이것은 금융 필박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걸어 두었던 것이다. 금일 3시 이후에는 전부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환자의 이론, 1811년의 은행 특허법》, 런던, 1861년, 81페이지)라고. 반어용 신문인 《The Observer》 (《옵서버》)는 1861년 4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은행'권의 결핍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채용된 방책에 관하여 약간의 대단히 기괴한 풍설이 떠돌고 있다…… 그런 종류의 간책이 채용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의심스럽기는 하나 우에 말한 풍설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만큼 그에 관하여 언급할 가치는 정말 있다》.

이 도매한 지불 종액을 가산한 다음 상채되는 지불들을 감하고
결으로 동일한 화폐 조각이 어떤 때에는 류통 수단으로서 또
어떤 때에는 지불 수단으로서 번갈아 기능하는 회전수를 감한
것에 해당한다. 레컨대 농민이 그의 곡물을 2파운드 스털링을
받고 판다고 하면 이 금액은 갈 데 없이 류통 수단으로 쓰인다.
그는 이 2파운드 스털링을 가지고 이전에 직조업자가 그에게
공급하여 준 아마포 값을 지불 기일이 돼서 지불한다. 이 때
에는 같은 2파운드 스털링이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다음
에 직조업자는 성경책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그리하여 이 금
액은 다시 류통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등등. 그러므로 물'가와
화폐의 류통 속도와 지불의 절약이 소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일
정 기간의, 레컨대 1일간의 류통 화폐의 수량과 류통 상품의
수량과는 벌써 일치하지 않는다. 벌써 오랜 이전에 류통에서
되탈한 그러한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류통한다. 또 그 등'가
물인 화폐가 장래에 가서야 비로소 나라날 그러한 상품이 류통
한다. 다른 한편 매일 계약이 체결되는 지불과, 같은 날'자
에 기한이 되는 지불과는 전연 그 크기가 같지 않는 수량
이다¹⁰².

102 《어떤 소녀의 1일간에 체결되는 판매, 또는 계약의 액수는 바
로 그 날에 류통하는 화폐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대다수의 경
우에 있어서 얼마간 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류통에 들어 올 화폐량
을 상대로 하는 각종 잡다한 수형으로 화할 것이다…… 금일에 체결된
수형 또는 신용 거래는 그 수에 있어서나, 총액에 있어서나 또는 기한
에 있어서나 매일 또는 매월일에 체결될 신용 거래들과, 유사할 필연성
은 조금도 없다. 금일 체결된 신용 거래와 금일 발행된 수형들 중 약
간의 것은 전연 일정하지 않은 각종의 이전 날'자에 체결된 허다한 채무
들과 그 지불 기일을 같이 할 것이다. 레컨대 12개월 만기, 6개월 만
기, 3개월 만기, 1개월 만기의 수형들이 가끔 서로 합치되어 같은
특정 날'자를 기한으로 하는 채무액을 증가시킨다……》 《통화 이론의
검토, 스코틀랜드 인민에게 보내는 서한, 잉글랜드의 일은행가의 저
작》, 에딘버러, 1845년, 28, 30페이지의 여러 개소.

신용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이때 판매된 상품에 대한 채무 증서 그 자체가 채'권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전시키면서 유통하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 신용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는 대규모적 상업 거래의 분야에 적합한 특유한 존재 형태를 취하며 그 반면에 금화와 은화는 주로 소매상의 분야에 밀려 나간다¹⁰³.

상품 생산이 일정한 높이와 넓이를 가지게 되면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상품 유통의 영역을 넘어 선다. 화폐는 계약상의 일반적 상품으로 된다¹⁰⁴. 지대, 조세 등은 현물

103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업 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적게 사용되는가 하는 실례로서 여기에 런던의 가장 큰 상회중 하나 (모리슨 빌몬 상회)의, 1년간 화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람표가 있다. 1856년도에 있어서의 이 상회의 거래액은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였으나 이때에 게재하는 표에서는 그것을 100만파운드 스털링이 되도록 동일 비율로 축소시켰다.

수 입	지 출
은행 및 상인의 기한부 수형.....533,596 파운드 스털링	기한부 수형..... 302,674 파운드 스털링
은행 등의 일람불 행표.....357,715 " "	런던 제 은행에 대한 행표 663,672 " "
지방 은행'권..... 9,627 " "	영국 국립 은행'권 22,743 " "
영국 국립 은행'권.....88,554 " "	금화 9,427 " "
금화..... 28,089 " "	은화 및 동화...1,484 " "
은화 및 동화.....1,486 " "	
우편 환자..... 933 " "	
합계 1,000,000 파운드 스털링	합계 1,000,000 파운드 스털링

(《은행법에 관한 특별 위원회 보고서》, 1858년, 7월, 별제지 71제지).

104 《상업 거래의 성격은 이와 같이 물품 대 물품의 교환으로부터 즉 물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부터 판매와 지불에도 전환된 까닭에

납부로부터 화폐 지불로 전화한다. 이 전화가 어떠한 정도로 생산 과정의 일반적 성격에 의하여 제약되는가 하는 것은 폐건 때 일체의 조세를 화폐로 징수하려던 로마 제국의 시도가 두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보아규페르, 보방장군 기타가 그처럼 웅변으로 힐난한, 루이 제14세, 룽치하에 있어서의 불란서 농민의 놀랄만한 빈궁의 원인은 바단 가림 주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조세로부터 화폐 조세에로의 전화에도 있었다¹⁰⁵. 라면 동시에 국가 조세의 주요한 요소로 되는 지대의 현물 형태가 자연 제 관계와 같이 불변한 형태로 재 생산되는 아세아에서는 이 현물적 지불 형태가 반작용을 통하여 낡은 생산 형태를 공고화한다. 그것은 로이기 제국이 자기를 보존하는 비밀적 수단의 하나로 된다. 만약 구라파에 의하여 강요된 일본의 외국 무역이 현물 지대의 화폐 지대체로의 전화를 초래한다면 일본의 모범적 농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 농업의 협소한 경제적 생존 조건은 분해될 것이다.

매개 나라에 있어서 일정한 일반적 지불 기한이 확립된다. 이러한 일반적 지불 기한은, 재 생산상의 다른 순환성을 무시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계절의 교체와 결부된 생산의 자연적 제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일반적 지불 기한은 조세, 지대 등등과 같은 직접 상품 류통에 기인하지 않는 그러한 지불까지도 역시 규제한다. 1년중의 특정한 날'자에 사회의 각 방면에 산재하여 있는 이러한 지불들을 위하여 요구되는 화폐량은 지불 수단의 절약에 있어서의, 주기적인 그러나 전연 고면적인

이제는 모든 거대한…… 순전히 화폐의 거대한 귀착된다》(《공'적 신용에 관한 논술》, 제3권, 런던, 1710년, 8페이지).

105 《화폐는 일반적 사형 집행인으로 되었다》. 재정 기술은 《이 숙명적인 침전물(沈澱物)을 획득하기 위하여 방대한 량의 재물과 생활 수단을 종류시키는 종류기이다》. 《화폐는 전체 인류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한다》(보아규페르 《부, 화폐 및 공납의 성질에 관한 연구》, 데르핀판 《새징 경제학자》, 파리, 1813년, 제1권, 413, 419, 417페이지).

교란을 초래한다¹⁰⁶.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에 관한 법칙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일체의 주기적 지불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불 수단의 수량은 그 지불의 유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불 기간의 장단에 반비례한다¹⁰⁷.

106 1826년의 국회 조사 위원회에 대하여 크레이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24년의 성령 강림제(聖靈 降臨祭) 당일에> 에딘버러에서 은행'권에 대한 비상한 수요가 일어 난 결과 11시 경에는 단 한 장의 은행'권도 우리의 수중에 없었다. 우리는 은행'권을 빌리려고 차례 차례로 여러 은행에 사람을 보냈으나 조금도 입수할 수 없었고 다수의 거래는 <slips of paper, [《종이 쪽지》]>로써 처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후 3시 경에는 벌써 전체 은행'권은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로 환류하였다. 그것은 다만 몇 사람의 손을 거쳤을 뿐이다>. 스코틀랜드에 있어서의 은행'권의 현실적 평균 유통고는 300만 파운드 스티링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의 각종 지불 기일에는 은행가의 수중에 있는 도합 약 700만 파운드 스티링에 달하는 은행'권이 쇠다 동원된다. 이 경우에 은행'권은 단 하나의 특수 기능만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자 마자 그것을 발행한 은행'권으로 환류한다 (곧 몰라톤 <통화의 조절에 대하여>, 제2판, 런던, 1815년, 86페이지 주). 설명상 하나 보충할 것은 몰라톤의 저작이 발간된 그 당시의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예금에 대하여 조절수가 아니고 오직 은행'권만이 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07 <1년간에 4,000만의 지불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과연 이 600만(금화)이, 상업상 요구되는 모든 회전과 유통을 위하여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페티는 그가 늘 보이며 주는 재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왜냐 하면 지출은 4,000만이지만 만약 폐전대 때 토요일에 지불을 받는 빈곤한 수공업자 및 노동자들 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이 1주일이라는 짧은 주기로서 실현된다면 100만의 화폐의 $\frac{40}{100}$ 으로도 4,000만의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대의 지불과 조세와 징수에 관한 우리 나라의 관습에 따라 회전이 1분기적으로 실현된다면 1,000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불이 1주일과 13주일 간에서 각종의 주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100만의 $\frac{40}{100}$ 에 1,000만을 첨가한 다음 그 반분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550만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여 이 550만만 가지면 충분할 것이다> (윌리엄 페티 <애란의 정치적 해부>, 1672년, 런던판, 1691년, 13, 14페이지).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발전은 채무의 지불 기일전에 화폐를 축적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부르조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독립적인 치부(致富) 형태로서의 금전 퇴장은 소멸되거나 지불 수단의 예비금 축적의 형태로서는 화폐 저장에 반대로 장성한다.

C, 세계 화폐

화폐는 국내 유통 분야를 넘어 섬과 동시에 그것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가격의 측정 기준의 지방적 형태, 즉 주화, 보조 화폐, 가치—기호의 지방적 형태를 다시 벗어 버리고 귀금속의, 본래의 지금(地金) 형태로 되돌아 간다. 세계 무역에 있어서는 상품은 그 가치를 보편적으로 전개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또한 상품의 독립적인 가치 모습도 세계 화폐로서 상품에 대립한다. 화폐는 세계 시장에서 비로소 그 현물적 형태가 동시에 추상적 인간 노동의, 직접적, 사회적 실현 형태인 상품으로서 완전한 규모로 기능한다. 화폐의 존재 방식이 화폐의 개념에 적합한 것으로 된다.

국내적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오직 어떤 한 상품만이 가치 척도로, 따라서 화폐로 쓰인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중의 가치 척도가, 즉 금과 은이 지배한다¹⁰⁸.

108 그러므로 국립 은행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국내에서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는 귀금속만을 축적하게 하는 '온갖 법'법은 불합리한 것이다. 뢰켄데 영국 국립 은행 자신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애교 있는 장매물》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 은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이 걱정하였던 역사적 대시기들에 관해서는 칼 맑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136페이지 이하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12권, 제1부, 139페이지 이하]를 보라. 이하, 제2권에 대한 추가, 쾰른에 있는 그가 제정한 1844년 은행법에서 영국 국립 은행에 대하여 은 준비가 금 준비의 $\frac{1}{4}$ 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은 준비로서 은행'권을 발

세계 화폐는 일반적 지불 수단, 일반적 구매 수단으로서, 부 일반 (universal wealth)의 절대적 사회적 체화물로서 기능한다. 국제 차액의 결제에 복무하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행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이 곤경으로부터 모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은의 가치는 런던 시장에서의 그것의 시장 가격 (금에 의한)에 따라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3판에 참가함. 우리는 이제 다시 금 은의 상대적 가치의 격심한 변동의 시기에 살고 있다. 약 25년전에는 금대 은의 가치 비율은 $15\frac{1}{2}:1$ 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대략 $22:1$ 로 되어 있고, 금에 의한 은 가치는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이 두 금속의 채취 방식에 변혁이 일어난 결과이다. 이전에는 금은 거의 그 전부가 금 광맥(金鑛脈)의 동화 작용의 산물인 금을 포함하는 층적 지층의 세척(沖積地層의 洗滌)에 의하여 채취되었다. 현재는 이 방법은 벌써 불충분한 것으로 되어, 그것은 금을 포함하는 석영층(石英層) 그 자체의 정련(精練)——벌써 고대인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나 (디오도로스 제3권, 12—14절 [《시빌리 출신 디오도로스의 역사 문고》, 제3권, 제12—14절, 슈투트가르트, 1828년, 258—261페이지]) 이때까지는 제2차적으로만 실천되고 있던 방법——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단 아메리카의 록키 산맥의 서부에서 거대한 새로운 은 광맥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광과 멕시코 은광에는 철도가 개통되어 근대적 기계 및 연료의 공급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은의 채취가 최대의 규모에서 또 더 적은 비용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금속이 광맥 속에 나타나는 형태들은 판이하다. 금은 대체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나 그 대신 극히 미소한 량으로 석영 속에 산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금을 채취하는 데는 전체 광맥을 분쇄하여 금을 물에서 이끌어내든지 혹은 수은으로 잡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100만그램의 석영에서 겨우 1 내지 3그램의 금 밖에 나오지 않을 수가 가끔 있고 30 내지 60그램의 금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은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나 그 대신 그것은 비교적 용이하게 광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특수 광석 속에서 발견되며 또 이와 같은 광석은 보통 40내지 90퍼센트의 은을 함유한다. 혹은 또 그 자체가 동, 연, 기타의 채취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광석 속에 은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벌써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금을 생산하는 노동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에 은을 생산하는 노동은 결정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은의 가치 저락은 전연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치 저락은 만약 은의 가격을 현시에도, 쓰이고 있는 인공적 수단에 의하여 인상시키는 일이 없었다면 더 격심한 가격 저락으로써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은 광맥은 이제

기능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무역 차액!이라는 중상주의의 구호가 나왔다¹⁰⁹. 금 은은, 여러 국민들 간의 물'질 대사의 일상적인 균형이 돌연히 파괴되는 그러한 때에는 그 본질상 국제적 구매 수단으로 쓰인다. 끝으로 그것이 부의 절대적

격우 그 소부분만이 채굴에 착수되었으며 따라서 은 가치는 아직도 오랜 시일에 걸쳐서 의연히 저락하리라는 모든 전망이 존재한다. 또 이 밖에도 일용품 및 사치품을 위한 은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 즉 은 조금 제품과 알미늄 및 기타가 은에 대응된다는 것도 이 경향을 조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말한 바에 의하여 국제적인 강제 통용이 은을 금에 비하여 $1:15 \frac{2}{3}$ 이라는 전일의 가치 비율에까지 다시 끌어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금 은량 분위론의 공상을 판단해 보라. 오히려 은은 세계 시장에서 그 화폐적 성질을 가일층 상실하게 될 것이다—F·엥겔스).

109 중상주의는 금 은에 의한 무역 차액의 절제를 세계 무역의 목적으로 간주하였지만 이 중상주의 반대자들도 역시 세계 화폐의 기능을 전연 잘못 이해하였다. 류통 수단의 수량을 규제하는 법칙의 그릇된 이해가 어떻게 귀금속의 국제적 운동의 그릇된 이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리카도를 실패로 하여 상세하게 논증한 바이다 (《정치 경제학 비판》, 150페이지 이하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썸버어 판, 제12권, 제1부, 152페이지 이하]). 《불리한 무역 차액은 오히려 류통 수단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다…… 주조 화폐의 수출은 그것의 렬'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불리한 무역 차액의 결과가 아니고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리카도의 그릇된 독단은 다음과 같은 바본의 말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무역 차액은 (만약 그것이 발생하여도), 어떤 나라가 화폐를 수출하는 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화폐의 수출은 각국에 있어서의 귀금속 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N·바본 《새로운 화폐를 더 경제하게 주조할 데 관한 논술》, 런던, 1686년, 59, 60페이지). 맥커루크는 《정치 경제학 문헌》 분류 목록》(런던, 1845년)에서 바본의 이 선견을 찬양하고 있으나, 그러나 바본에 있어서도 가장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currency Principle》(《통화주의》)의 불합리한 전제들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것조차도 용의 주도하게 회피하고 있다. 맥커루크의 목록의 무비판성파 심지어 불실실성은 화폐 이론의 역사에 관한 제전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맥커루크는 여기에서는 그가 《facile Princeps argentariorum》(은행계(界)의 공인적 명수)이라고 부르는 오바스톤 경 (전 은행가 로이드)에 대한 주증자로서 꼬리물 내무르고 있다.

사회적 체화물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구매나 지불이 문제로 되지 않고 부를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에 이전시키는 것이 문제로 되는 때에 그리고 이 이전을 상품 형태로 수행하는 것은 상품 시장의 경기 형편 또는 소기의 목적 자체에 비추어 적당치 않은 그러한 경우이다¹¹⁰.

매개 나라는 국내 유통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에서의 유통을 위해서도 일정액의 예비 기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퇴장금의 제 기능은 일부분은 국내적 유통 수단 및 국내적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며 일부분은 세계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110a}. 이 후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화폐—상품인 금 은의 몸통 아리가 언제나 요구된다. 그런 까닭에 제임스 스튜아트는 금 은을 그것들의 단순한 지방적인 대리자와 구별하여 money of the world (세계 화폐)로서 특징 짓고 있다.

금 은의 유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자기의 원산지로부터 출발하여 전 세계 시장에 흘러 나

110 레컨데 보조금, 전쟁 수행을 위한 차관 또는 은행의 정화(正貨) 지불의 재 개시를 위한 차관 등등에 있어서는 바로 화폐 형태로서의 가치가 요구된다.

110a 제2판 주. 《금속 화폐가 유통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예비 파운드의 기구가 일반적 유통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방조를 받음이 없이 국제적 채무 결제상 모든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증거로서는 불란서가 일찌기 파괴적인 외적 침입의 타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하고 있던 당시 37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에게 부과된 약 2,000만파의 배상금을 자기의 국내 통화에 아무런 현저한 수축 또는 교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또 자국의 환자 시제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동요를 일으키는 일까지도 없이, 그나마 그 대부분을 금화로 동맹국 측에 지불했다는 사실 이상으로 실로 더 확실한 증거를 바랄 수 없다. (콜라트 《통화의 조결》, 제2판, 런던, 1815년, 141페이지) [제3판에 첨가함. 이보다도 더 주목할만한 실례는 같은 불란서가 1871—1873년간의 30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보다도 10배나 더 큰 전쟁 배상금을,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을 금속 화폐로 용이하게 지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I·엔겔스].

가 거기서 각이한 정도로 여러 가지 국민적 류통 분야에 흡수되어, 그 나라들의 국내적 류통 수로로 들어 가며, 마멸한 금은 주화를 보충하며,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퇴장금으로서 침전한다¹¹¹. 이 제1의 운동은 상품 속에 실현되어 있는 국민들의 노동과 귀금속 속에 실현되어 있는 금은 생산국들의 노동과의 직접적 교환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른 한편 금은은 각이한 국민적 류통 분야의 사이를 부단히 왕래한다. 이것은 환자 시세의 끊임 없는 변동에 따르는 운동이다¹¹².

부르조아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이라는 저수지에 대량적으로 집적되는 퇴장금이 그것의 독특한 제 기능에 필요한 최소 한도로 제한된다¹¹³. 일정한 테외는 있지만, 퇴장금의 저수지가 그 평균 수준 이상으로 현저하게 범람하는 것은 상품 류통의 정제 또는 상품의 형태 변화의 흐름의 중단을 입증하는 것이다¹¹⁴.

111 《화폐는…… 도처에서 상품들에 의하여 끌리어 들어 감으로써…… 여러 국민들 간에, 그들의 그것에 대한 수요에 따라 분배된다》(프·로르노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트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916페이지). 《끊임 없이 금은을 산출하고 있는 광산들은 모든 국민에게 그와 같은 필요량을 공급하는데 충분한만큼 제공하고 있다》(J·박머턴트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런던, 1734년, 40페이지).

112 《환자 시세는 매주일 등락하여 1년중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것은 어떤 국민에게 불리하게 등귀하며 또 다른 시기에는 유리하게 등귀한다》(N·바본 《새로운 화폐론 여 정하게 주조할 때 관한 문술》, 런던, 1698년, 39페이지).

113 이 각종 기능은 은행'권외 태환 준비금이라는 기능이 그에 세로 첨가되자 마자 위험한 중물을 일으킬 수 있다.

114 《국내 상업에 절대 필요한 분량 이상의 화폐는 죽은 자본이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아무런 리익도 가져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외국 무역을 통하여 혹은 수출되며 혹은 수입될 뿐이다》(존·윌터스 《빈민에 관한 문헌집》, 런던, 1699년, 13페이지). 《만약 우리가 너무 많은 주조 화폐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녹여서 금은제의 화려한 대접과 그릇, 또는

기구를 만들든지, 혹은 그것이 요구되며 또는 소망되는 곳에 상품으로서 반출하든지, 혹은 리자가 비싼 곳에 빚으로 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W·페티 《화폐 문답》 1683년, 39페이지). 《화폐는 국가라는 육체의 지방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파다하면 가끔 이 육체의 민활성을 방해할 것이며 또 파소하면 가끔 그것을 병들게 할 것이다…… 지방은 근육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영양이 부족할 때에 그것을 보충하며, 우묵한 데를 메우며, 신체를 아름답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의 화폐는 국가의 동작을 민첩하게 하며, 국내에 흉작이 있을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가져 오며, 채무를 갚으며…… 전체를 아름답게 한다. 하기는》하고 그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화폐를 담뱃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주로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윌리엄 페티 《개란의 정치적 해부》, 1672년, 런던판, 1691년, 11페이지).

제 2 편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제 4 장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제 1 절 자본의 일반적 공식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발전된 상품 유통 즉 상업은 자본이 성립하는 역사적 전제 조건으로 된다. 세계 상업과 세계 시장은 16세기에 자본의 현대적 생활사를 열어 놓았다.

만약 우리가 각이한 사용 가치의 교환이라는 상품 유통의 물재적 내용을 무시하고 오직 이 과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경제적 형태들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의 최후 산물로서 화폐를 발견할 것이다. 상품 유통의 이 최후의 산물은 자본의 최초의 현상 형태이다.

역사적으로는 자본은 우선 화폐의 형태로, 화폐 재산으로서 즉 상인 자본과 고리대 자본으로서 도처에서 토지 소유에 대립한다¹. 그러나 화폐가 자본의 최초의 현상 형태라는 것을

¹ 인격적인 예속과 지배의 관계에 법각하는 토지 소유의 권력과 화폐의 비인격적인 권력간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불탄서 리언(俚諺)에 명백히 표현되어 있다. «Nulle terre sans seigneur»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성립사에 일부러 소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력사는 매일 우리의 안전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매개의 새로운 자본은 처음으로 무대에, 즉 상품 시장, 노동 시장, 또는 화폐 시장에 등장할 때에는 지금도 언제든지 화폐로서,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할 그러한 화폐로서 등장한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와는 우선 그것들의 각이한 류통 형태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상품 류통의 직접적 형태는 $W—G—W$ 이며 그것은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에로의 재 전화, 즉 구매하기 위한 판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형태와 아울러 그것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G—W—G$ 라는 제2의 형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화폐의 상품에로의 전화와 상품의 화폐에로의 재 전화, 즉 판매하기 위한 구매이다. 그 운동에서 이 후자의 류통을 그리는 화폐는 자본화하고 있다. 즉 자본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벌써 자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G—W—G$ 라는 류통을 더 자세히 고찰하여 보자. 이 류통은 단순 상품 류통과 마찬가지로 두 대립적인 단계를 통과한다. 제1 단계인 $G—W$, 즉 구매에 있어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한다. 제2 단계인 $W—G$, 즉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이 화폐에로 재 전화한다. 이 양 단계는 하나의 통일된 총체적 운동을 이루는바 이 총체적 운동에서 화폐가 상품과 교환된 다음 같은 그 상품이 다시 화폐와 교환된다. 즉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된다. 바꾸어 말하면 구매와 판매간의 형식적 차이를 도외시킨다면 화폐로써 상품이 구매되며 또 그 상품으로써 화폐가 구매된다². 이 전체 과정이 끝난

[《주인 없는 토지는 없다》], *«L'argent n'a Pas de maître»*

[《돈에는 주인이 없다》].

2 《사람들은 화폐로써 상품을 구매하며 또 상품으로써 화폐를 구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남은 것은 화폐와 화폐와의 교환인 $G—G$ 이다. 만약 내가 1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2,000파운드의 면화를 구매하고 이 2,000파운드의 면화를 110파운드 스텔링으로 다시 판매한다면 나는 결국 100파운드 스텔링을 11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한 것이다.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한 셈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G—W—G$ 라는 유통 과정은,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우회적인 행로를 거쳐서 어떤 화폐적 가치를 그것과 동일한 화폐적 가치와 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10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하게 된다면 전연 무의미하며 무내용한 것이다. 이 보다는 차라리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유통의 위험에 내맡기는 대신에 그것을 움켜 쥐고 있는 금전 퇴장자의 방법이 비교적 안되리만큼 더 간단하며 더 확실한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구매한 면화를 110파운드 스텔링에 다시 팔든지 혹은 그가 그것을 100파운드 스텔링에, 심지어 50파운드 스텔링에 팔지 않으면 안되든지 간에 어차피 그의 화폐는 단순 상품 유통, 레컨대 농민이 곡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써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아주 판이한, 독자적이며 특이한 경로를 밟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G—W—G$ 와 $W—G—W$ 라는 두 순환간의 형식적 차이를 특정 지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 형식적 차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내용상 차이도 관명될 것이다.

우선 두 형태에 공통적인 것을 보기로 하자.

이 두개 순환은 모두 동일한 대립적인 두 단계 $W—G$, 즉 판매와 $G—W$, 즉 구매로 나누인다. 이 두 단계의 어느 쪽에 있어서나 동일한 두개의 물'적 요소인 상품과 화폐가 서로 대립하며, 동일한 경제적 가면을 쓴 두명의 인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개 순환의 어느 것이나 모두

매한다》(메르세 드 라 리베르 《정치적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2부, 513페이지).

동일한 대립적인 두 단계의 통일이고 이 통일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3인의 계약 당사자의 등장에 의하여 증개된다. 그 중의 한 사람은 팔기만 하며 다른 한 사람은 사기만 하며 제3자는 번갈아 사기도 하며 팔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순환 $W \longrightarrow G \longrightarrow W$ 와 $G \longrightarrow W \longrightarrow G$ 와를 당초부터 구별케 하는 것은 동일한 대립적인 두 류통 단계의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점이다. 단순 상품 류통은 판매로써 시작되어 구매로써 끝나고,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은 구매로써 시작되어 판매로써 끝난다. 전자에 있어서는 상품이, 후자에 있어서는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과 종점을 형성하고 있다. 전자의 형태에 있어서는 화폐가, 후자의 형태에 있어서는 반대로 상품이 총행정을 매개한다.

$W \longrightarrow G \longrightarrow W$ 라는 류통에 있어서는 화폐가 결국에는 사용 가치로 쓰이는 상품으로 전화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는 중국적으로 지출된다. 이에 반하여 $G \longrightarrow W \longrightarrow G$ 라는 반대의 형태에 있어서는 구매자는 나중에 판매자로서 화폐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서만 화폐를 지출한다. 그가 상품을 구매할 때에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 것은 그 화폐를 구매한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다시 류통으로부터 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그는 화폐를 다시 손에 넣으려는 교환의 의도를 가지고서만 그것을 내놓는다. 그러므로 화폐는 오직 선대(先貸) 될 따름이다³.

$W \longrightarrow G \longrightarrow W$ 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화폐 조각이 두번 그 위치를 바꾼다. 판매자는 그것을 구매자로부터 받아

3 《어떤 물건이 다시 판매되기 위하여 구매되는 경우에는 그에 사용된 금액을 선대 화폐라고 칭한다. 물건이 다시 판매되기 위한 목적 없이 구매되는 경우에는 그에 사용되는 금액은 지출되었다고 부른 수 있는 것이다》(제임스 스튜어트 《지작집》, 그의 아들 씨 제임스 스튜어트 장군 편찬, 런던, 1805년, 제1권, 274페이지).

가지고 다른 판매자에게 지불하여 버린다. 상품 대신에 화폐를 받는 것으로써 시작되는 총과정은 상품 대신에 화폐를 넘겨주는 것으로써 종결된다. $G—W—G$ 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반대이다. 여기에서는 동일한 화폐 조각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 두번 그 위치를 바꾼다. 구매자는 상품을 판매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구매자의 손으로 넘겨 준다. 단순 상품 류통에 있어서는 동일한 화폐 조각의 두번의 위치 전환이 한 사람의 손으로부터의 다른 사람의 손으로의 그 화폐 조각의 종국적 이행을 야기시키지만 여기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두번의 위치 전환은 화폐를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환류시킨다.

화폐의 그 출발점으로의 환류는 상품이 구매된 값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가 안되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정은 오직 환류하는 화폐액의 대소에 대해서만 영향을 준다. 환류의 현상 그 자체는, 구매된 상품이 다시 판매되지만 한다면 즉 $G—W—G$ 라는 순환이 완전히 그러지기만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일어 난다. 따라서 화폐의 이와 같은 출발점으로의 환류는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이,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류통과 감각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W—G—W$ 라는 순환은 한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화폐가 들어 오고 그 화폐가 다른 상품의 구매에 의하여 다시 나가지만 한다면 완전히 종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에서도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면 그것은 다만 전체 과정의 갱신 또는 반복에 기인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1쿼터의 곡물을 3파운드 스텔링에 판매하고 다음 이 3파운드 스텔링으로써 의복을 구매한다면 이 3파운드 스텔링은 나로 보아서는 종국적으로 지출된다. 나는 벌써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복 상인의 것이다. 이제 만약 내가 제2차로 1쿼터의 곡물을 판매한다면 화폐는 나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제1차의 거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다만 그 반복의 결과이다. 내가 제2차의 거래 행위를 끝까지 수행하여 새로운 구매를 하기만 한다면 화폐는 또 다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다. 따라서 $W—G—W$ 라는 류통에 있어서는 화폐의 지출은 그것의 환류와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G—W—G$ 에 있어서는 화폐의 환류는 화폐의 지출 방식 그 자체에 의하여 조건 지어져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환류가 없다면 거래가 실패로 돌아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정의 제2 단계 즉 구매를 보충하며 종결 짓는 판매가 결여(缺如)되어 있는 까닭에 과정이 중단되어 아직 완결되지 못하였거나 이다.

$W—G—W$ 라는 순환은 한 상품의 극(極)으로부터 출발하여, 류통 분야를 떠나 소비 분야로 들어 가는 다른 한 상품의 극으로써 종말을 짓는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 욕망의 충족, 한 마디로 말하면 사용 가치이다. 이에 반하여 $G—W—G$ 라는 순환은 화폐의 극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 화폐의 극으로 되돌아 간다. 그러므로 이 순환을 추동시키는 동기와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 가치 그 자체이다.

단순 상품 류통에 있어서는 쌍방의 극은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진다. 쌍방의 극은 모두 상품이다. 그것들은 또한 동일한 가치량의 상품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폐진대 욕물 및 의복과 같은 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용 가치이다. 여기에서는 운동의 내용은 생산물의 교환, 즉 사회적 노동이 표현되어 있는 각이한 물'질들의 대사이다. $G—W—G$ 라는 류통에 있어서는 사태는 이와 다르다. 이 류통은 동의 반복적(同義 반복的)이기 때문에 일견 무내용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의 극은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진다. 쌍방의 극은 모두 화폐이고 따라서 질'적으로 각이한 사용 가치가 아니다. 왜냐 하면 화폐는 바로 상품들의 특수한 사용 가치가 소멸되어 버린, 그러한 상품

의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100파운드 스털링을 면화와 교환하고 그 다음 이 면화를 다시 100파운드 스털링과 교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회적 경로를 밟아 화폐를 화폐와 즉 동일물을 동일물과 교환하는 것은 우둔한 일인 동시에 부질 없는 일인 것 같이 보인다⁴. 일반적으로 어떤 화폐액은 그 크기에 있어서만 다른 화폐액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G \rightarrow W \rightarrow G$ 라는 과정의 내용은, 양극이 모두 화폐인 만큼, 양극간의 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양'적 차이에 기

4 《사람들은 화폐를 화폐와는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메르세 드 라 리베르는 중상주의자들에 향하여 뱀치고 있다 (《정치적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데르 뮈한 《중농주의자》, 186페이지). 특별히 《상업》 및 《투기》를 취급한 어떤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매체 상업이라는 것은 각이한 종류의 물건들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리익 (상인으로 보아서의?)은 바로 이 카이성으로부터 발생한다. 한 파운드의 빵을 한 파운드의 빵과 교환해도 아무런 리익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상업과 화폐 대 화폐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 도박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토마스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 및 양식에 관한 연구, 혹은 상업 및 투기의 원리에 관한 해설》, 런던, 1817년, 5페이지). 코베트는, 비록 그가 $G \rightarrow G$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 비단 상업 자본 뿐만 아니라 일체의 자본의 특징적인 유통 형태라는 것을 간취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상업의 한 종류인 투기에 있어서의 이 형태가 도박과 합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맥커룩스가 나타나서 판매하기 위한 구매는 모두 투기이고 따라서 투기와 상업과의 구별은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생산물을 다시 판매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매개의 거래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종의 투기이다》 (맥커룩스 《실제적…… 상업사전》, 런던, 1817년, 1009페이지). 암스테르담 주식 취인소의 서정 시인인 핀트는 훨씬 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은 도박이다 (이 문'구는 무크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돈을 따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돈을 따냈다면 그는 도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딴 돈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핀트 《유통 및 신용에 관한 연구》, 암스테르담, 1771년, 231페이지).

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시초에 류통에 투입된 것보다 많은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끌려 나온다. 1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구매된 면화는 레컨대 100+10파운드 스텔링 즉 110파운드 스텔링에 다시 판매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G \longrightarrow W \longrightarrow G'$ 이다. 이 식에서 $G' = G + \Delta G$ 이고, G' 는 최초의 선대된 화폐액 플라스 일정한 증가분에 해당한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 이상으로 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 가치 (surplus value)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로 선대된 가치는 류통에서 비단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크기를 변동시켜 일정한 잉여 가치를 자체에 첨가한다. 즉 증식한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W \longrightarrow G \longrightarrow W$ 에 있어서도 양극인 W 와 W 레컨대 곡물과 의복이 양'적으로 각이한 가치량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민은 자기의 곡물을 가치 이상으로 팔 수도 있으며 또는 의복을 그 가치 이하로 살 수도 있다. 타면 그가 의복 상인한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의 차이는 이 류통 형태 자체로 보아서는 전혀 우연적인 것이다. 이 류통 형태는 $G \longrightarrow W \longrightarrow G$ 와는 달라서 양극 레컨대 곡물과 의복이, 등'가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 의미와 의의를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양극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 과정의 정상적 진행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구매하기 위한 판매의 반복 또는 갱신은 이 과정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의 외부에 놓여 있는 소비 즉 일정한 욕망의 충족이라는 종국적인 목적에 의하여 그 한도와 목표가 정하여져 있다. 이에 반하여 판매를 위한 구매에 있어서는 시초와 종말이 동일물인 화폐 즉 교환 가치이므로 벌써 이 사정 하나만으로도 이 운동은 무한한 것으로 된다. 하여간 G 가 $G + \Delta G$ 로 되며 100파운드 스텔링이 100+10파운드 스텔링으로 되는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단순히 질'적으로만 고찰한다면 110파운드 스텔링은 100파운드 스텔링과 동일한 물건 즉 화폐이다. 또 량'적으로 고찰하여도 110파운드 스텔링은 100파운드 스텔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정된 가치액이다. 만약 이 11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서 지출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때에는 그것은 자본으로 되는 것을 그만 두는 것이다. 또 만약 그것이 유통으로부터 끌려 나 온다면 그것은 퇴장금으로 화석(化石)되어 설사 세계의 최종 심판일까지 계속 보존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동전 한푼도 더 붙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치 증식(増殖)이 문제로 되는 한, 100파운드 스텔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110파운드 스텔링에 있어서도 동일한 증식의 욕망이 내재한다. 왜냐 하면 량자는 모두 교환 가치의 한정된 표현이고 따라서 량자는 모두 량'적 증대에 의하여 절대적 부에 접근하여야 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선택된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는 유통중에 그것에 첨부된 1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 가치와 잠시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 구별은 즉시로 다시 사라진다. 과정이 끝날 때 한편으로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본래의 가치가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잉여 가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오는 것은 1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단일한 가치이고 그것은 최초의 100파운드 스텔링과 전연 마찬가지로 자기 증식 과정을 거듭 개시하는 데 적합한 형태에 있다. 운동의 종말에 가서 화폐가 나타나는바, 그것은 다시 운동의 시초로 된다⁵. 그러므로 판매를 위한 구

5 《자본은…… 시초 자본과 자본의 증가 부분인 리윤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있어서는 이 리윤은 즉시로 다시 자본에 첨가되어 자본과 함께 유통되는 것이지만》(F·엔겔스《국민 경제학 비판 대강》, 아놀드 루게와 칼 맑스의 공동 편찬인 《독일—불탄서 년보》, 파리, 1844년, 99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2권, 306페이지].

매가 수행되는 매개의 개별적 순환의 종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순환의 시초를 형성한다. 단순 상품 류통——구매를 위한 판매——은 사용 가치의 취득, 욕망의 충족이라는, 류통의 외부에 놓여 있는 궁극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이에 반하여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 하면 가치의 자기 증식은 부단히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에는 한계가 없다⁶.

6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술을 화식술(貨殖術)에 대립시켰다. 그는 경제술로부터 출발한다. 경제술은 재물 획득의 방책이라는 견지에서 보아도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가정 또는 국가에 유용한 재물의 획득에 국한된다. 《진정한 부는 이와 같은 사용 가치들로서 형성된다. 왜냐 하면 윤택한 생활에 필요한 이와 같은 종류의 소유물은 그 분량이 무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 획득 방책에는 우리가 보통 정당하게도 화식술이라고 칭하는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 이것에는 부와 소유의 제한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상품 거래 (베이 하페이윅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소매상을 의미하는 첫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태를 위한 리유는 소매상에서는 사용 가치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는 그 성질상 화식술에는 속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교환은 그들 (구매자와 판매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다——상품 거래의 시초 형태는 물물 교환이었고 그 확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화폐가 발생하였다. 화폐의 발명과 더불어 물물 교환은 필연적으로 상품 거래에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상품 거래는 그 본래의 경향과는 반대 방향인 화식술에로 즉 돈벌이술에로 전환되었다. 더 나아가 화식술이 경제술과 구별되는 점은 《화식술에 있어서는 류통이 부의 원천으로 된다. 그리고 화식술은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왜냐 하면 화폐는 이 종류의 교환의 시초이며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식술이 지향하는 부도 역시 무제한한 것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제 방책은 이 목적 자체가 수단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까닭에 무제한한 것이 아니게 반하여 추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최후의 궁극적 목적으로 되는 그러한 방책은 어떠한 것임을 막론하고 모두 이 최후 목적에 가일층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까닭에 그 지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이 운동의 의식적 담당자로서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로 된다. 그의 인격 또는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주머니가 화폐의 출발점이며 귀환점이다. 이러한 류통의 객관적 내용——가치의 증식——은 그의 주관적 목적이고 또 추상적인 부의⁷·가일층의 점유가 그의 활동의 유일한 추진적 동기로 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는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를 결코 자본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⁷. 또한 자본가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별적 리윤의 획득이 아니라, 리윤의 끊임 없는 운동이다⁸. 절대적 치부에 대한 이와 같은 지향,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열정적 추구⁹는 자본가와 금전 퇴장자에 공통적이나 그러

이와 꼭 마찬가지로 화식술에 있어서도 그 목표는 한계가 없으며 그 목표로서 하는 것은 절대적 치부(致富)이다. 화식술이 아니라 경제술이 하나의 한계를 가진다…… 화식술은 화폐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술은 화폐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로 교차(交叉)되어 있는 이 양 형태의 혼동이 약간의 사람들로 하여금 화폐의 무한량의 보존과 증식을 경제술의 궁극 목적으로 간주하게 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베키토프판, 제1부, 제8, 제9장의 여타 곳) [로씨야어 판, 제벨레브 번역, 성 베제르부르그 1911년, 제1부, 22—26페이지의 여타 곳 참조].

7 《상품 (여기에서는 사용 가치라는 의미이다)은, 산업 자본가의 중국적 목적이 아니다……화폐가 그의 최종 목적이다》(토마스 칼머스 《정치 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글라스고, 1832년, 165, 166페이지).

8 《상인은 이미 획득한 리윤을 증식하지 않으며 그는 항상 새로운 리득을 추구한다》(A·제노베시 《시민 경제학 강의》, 1765년, 루스토티 편찬, 이태리 경제학자 저작집, 현대 부, 제8권, 139페이지).

9 《리윤에 대한 진정시킬 수 없는 정열, auri sacra fames [금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항상 자본가들의 활동을 규정한다》(맥커투크 《정치 경제학 원론》, 런던, 1830년, 179페이지). 맥커투크는 이런 견해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와 그의 일파가 리론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때에는 레컨대 파잉 생산을 연구할 때에는 같은 그 자본가들, 오직 사용 가치만을 문제로 하는, 즉 구두, 모자, 계란, 먼지들, 기타 가

나 금전 퇴장자는 얼마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음에 반하여 자본가는 합리적인 금전 퇴장자이다. 금전 퇴장자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구출해 냄으로써¹⁰ 달성하려고 애쓰는 그 가치의 실재 없는 증거를 보다 병리적인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 없이 류통에 내맡김으로써 달성한다^{10a}.

상품 가치가 단순 류통 과정에서 취하는 독립적인 형태 즉 화폐 형태는 다만 상품 교환을 증대할 뿐이고 운동의 종국적 결말에 가서는 소멸한다. 이에 반하여 $G—W—G$ 라는 류통에 있어서는 상품도 화폐도 다 가치 그 자체의 각이한 존재 방식으로서만 기능한다. 즉 화폐는 가치의 일반적인 존재 방식으로서, 상품은 가치의 특수적인, 이를테면 가장(假裝)한, 존재 방식으로서 기능한다¹¹. 가치는 이 운동에 있어서 상실됨이 없이 부단히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이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자동적인 주체으로 전화된다. 만약 자기증식을 수행하는 가치가 그 생활의 순환에 있어서 번갈아 취하는 특수적인 현상 형태들을 고정화시킨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얻게 될 것이다. 자본은 화폐이다, 자본은 상품이 다¹².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가치가 이 경우에 있어서 과정의

장 평범한 류통의 사용 가치를 끊임없이 승양이와 같이 갈망하는 선량한 시민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물론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10 《소제인》(《구출한다》)이라는 말은 금전 퇴장을 의미하는 회랍어에 특유한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to save 라는 말은 구출한다는 의미와 저축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0a 《물건이 한 방향으로 전진할 때에는 가지지 못하는 무한성을 순환할 때에는 가진다》(갈리아니 [《화폐론》, 제2부, 쿠스토디 편찬 《이태리 정치 경제학 고전집》, 제3권, 미라노, 1803년, 156페이지]).

11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물재 그 자체가 아니고 이 물재의 가치이다》(J. B. 세이 《정치 경제학 개론》, 제3판, 파리, 1817년, 제2권, 429페이지).

12 《생산적 목적에 사용된 류통 화폐(!)는 자본이다》(매크로드 《은행업의 이론과 실천》, 런던, 1855년, 제1권, 제1장, 55페이지). 《자

주체로 되며 이 과정에서 가치는 화폐 형태를 상품 형태로, 또 그 반대로 부단히 형태를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크기를 변동시키며 시초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잉여 가치로서의 자신을 산생시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킨다. 왜냐 하면 가치가 잉여 가치를 자체에 첨가시키는 운동은 가치 자신의 운동이고 따라서 가치의 증식은 자기 증식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그가 가지인 까닭에 가치를 낳는다는 마술적 능력을 획득하였다. 가치는 산 자식을 낳는다. 또는 적어도 금 알(金卵)을 낳는다.

화폐 형태와 상품 형태를 폭시는 취하며 폭시는 벗어 버리며 동시에 이러한 전환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며 또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의 자기 증식적 주체로서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체 동일성이 확인되는 하나의 자립적인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치는 오직 화폐에서만 이 형태를 가진다. 그런 까닭에 화폐는 온갖 가치 증식 과정의 출발점과 종결점으로 된다. 그것은 전에는 100파운드 스털링이었으나 지금은 110파운드 스털링 등등이다. 그러나 화폐 그 자체는 여기에서 가치 형태들 중 하나만의 역할을 논다. 왜냐 하면 가치는 여기서 두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화폐는 상품 형태를 취함이 없이는 자본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는 금전 퇴장에 있어서 처럼 상품을 배경하는 태도로는 나오지 않는다. 모든 상품은 그들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며 아무리 흉악한 냄새를 풍기더라도 신앙과 진리에 있어서는 화폐이며 내심의 할례(割禮)를 받은 유테인이며 그 위에 또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드는 기적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자본가는 알고 있다.

단순 류통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사용 가치에 대립하여 기껏해서 독립적인 화폐 형태를 취할 뿐이나 여기에서는

본은 상품이다》(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런던, 1821년, 74페이지).

그것은 돌연히 하나의 자체 발전하며 자체 운동하는 실체로서 나타나며 그것에게는 상품과 화폐의 양자가 모두 단순한 형식들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 뿐만 아니다. 가치는 이제 자체로서 상품 제 관계를 표현하는 대신에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의 사'적 관계를 맺는다. 신(神)이 아버지 신으로서 자신을 아들 신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는 최초 가치로서는, 자신을 잉여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한다. 하기는 부자(父子)가 다 연령이 같고 또 실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 하면 10파운드 스털링의 잉여 가치에 의해서만 선대된 100파운드 스털링은 자본으로 되며 또 그것이 자본으로 되자 마자, 즉 아들이 생겨 나자 마자 또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가 생겨 나자 마자 그들 간의 구별은 다시 소멸되어 양자는 11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하여 가치는 자체 운동하는 가치, 자체 운동하는 화폐로 되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가치는 유통에서 빠져 나왔다가 다시 유통으로 들어 가며 유통 속에서 자신을 유지 증식하며 더 커져 가지고 유통으로부터 복귀하여 동일한 순환을 항상 다시 새롭게 개시한다¹³. $G \rightarrow G$ 즉 화폐를 낳는 화폐 — money which begets money — 이터한 것이 자본의 최초의 해석자인 중상주의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자본의 묘사이다.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G \rightarrow W \rightarrow G'$ 가 오직 자본의 한 종류인 상인 자본에만 특유한 형태인 것 같이 보이

13 《자본은…… 부단히 자기를 증대시키는 가치이다》(익스몬드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1권, 88—89페이지) [로썬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0년, 제1권, 185페이지 참조].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자본도 역시 자신이 상품으로 전화되었다가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더 많은 화폐에로 재 전화되는 그러한 화폐이다. 구매와 판매와의 사이에 있어서 유통 분야의 외부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운동의 이 형태에 아무런 변경도 일으키지 않는다. 최후로 리자를 가져 오는 자본에 있어서는 $G—W—G'$ 라는 유통은, 단축되어 중간 고리가 없이 결과만으로 말하자면 비문체(碑文体)의 간결한 문체로 $G—G'$ 로서 즉 더 많은 양의 화폐와 같은 화폐, 그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서 표시된다.

그런 까닭에 $G—W—G'$ 는 사실 직접 유통 분야에 나타나는 자본의 일반적 공식이다.

제 2 절 일반적 공식의 제 모순

화폐라는 변태기가 자본이라는 나비로 되어 나오는 유통 형태는 상품, 가치, 화폐 및 유통 그 자체의 성질에 관하여 위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들과 모순된다. 이 형태가 단순 상품 유통과 구별되는 점은 판매와 구매라는 동일한 두 대립적 과정들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전히 형식적인 차이가 이 과정의 성질을 어떻게 것처럼 마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이 전도(顛倒)된 순서는 상호간 매매 관계를 맺는 세 사람의 매매 당사자 중 오직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존재한다. 나는 단순 상품 소유자로서는, 상품을 B에게 판매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A로부터 구매하나 자본가로서는, 나는 상품을 A로부터 구매하여 그것을 다시 B에게 판매한다. 매매 당사자 A와 B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품의 구매자 혹은 판매자로서 등장할 뿐이다.

나 자신은 두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화폐 소유자 혹은 상품 소유자로서 즉 구매자 혹은 판매자로서 그들에게 대립한다. 그리하여 나는 두 순서의 어느 쪽에 있어서나 일방의 인물에게는 다만 구매자로서 또 타방의 인물에게는 다만 판매자로서 즉 전자에게는 다만 화폐의 자격으로서 또 후자에게는 다만 상품의 자격으로서 대립하는 것이고 결코 쌍방의 어떤 쪽에도 자본의 자격으로서, 즉 자본가로서, 다시 말하면 화폐 또는 상품 이상의 어떤 물건의 대리자로서, 즉 화폐 또는 상품에 고유한 작용 이외의 어떤 다른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의 대리자로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대하여서는 A로부터의 구매와 B에의 판매는 하나의 순차적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행위간의 연계는 다만 나에게 대하여서만 존재한다. A는 B와 나와의 매매 행위에는 상관이 없으며 또 B는 A와 나와의 매매 행위에는 상관이 없다. 만약 내가 매매의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 특수한 공적이라고 나의 매매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내가 바로 이 순서를 잘못 보았다는 것, 총체로서의 매매 행위는 구매로써 시작되어 판매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판매로써 시작되어 구매로써 종결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론증하여 줄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나의 제1의 행위인 구매는 A의 '팁' 장에서는 판매이었고 또 나의 제2의 행위인 판매는 B의 '팁' 장에서는 구매이었다. A와 B는 이것만으로써는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순차 전체가 없어도 좋은 것이며 속임수이었다고 언명할 것이다. A는 상품을 직접 B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또 B는 그것을 A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매매 행위는 보통 상품 류통의 일면적 행위로, 즉 A의 '팁' 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로 또 B의 '팁' 장에서는 단순한 구매로 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여도 결코 단순 상품 류통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 상품 류통이 그 성

질상 자기 내부에서의 '가치'의 증식을, 따라서 잉여 가치의 형성을 허용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상품 교환으로 되는 그러한 형태의 류통 과정을 고찰하여 보자. 두 사람의 상품 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들 피차간의 채무 차액을 지불 기일에 결제할 때에 류통 과정은 언제나 그런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으로 표현하기 위한 계산 화폐로 쓰이나 그러나 물'적으로 상품 자체에 대립하지는 않는다. 사용 가치가 문제인 한에 있어서는 분명히 쌍방의 교환자가 모두 리득을 볼 수 있다. 쌍방은 모두 그들 자신에게 사용 가치로시는 무용한 상품을 양도하고 그들이 소비상 필요로 하는 상품을 취득한다. 그러나 리득은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포도주를 판매하고 곡물을 구매하는 A는 아마 동일한 노동 시간내에 곡물 경작자 B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며 또 곡물 경작자 B는 동일한 노동 시간내에 포도 재배자 A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쌍방의 각자가 교환에 의거함이 없이 포도주와 곡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보다는 동일한 교환 가치에 대하여 A는 더 많은 곡물을, B는 더 많은 포도주를 받는다. 따라서 사용 가치에 관해서는 《교환은 양편에게 리득을 주는 거래이다》¹⁾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 가치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다. 《포도주는 많이 가졌지만 곡물은 조금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곡물을 많이 가졌지만 포도주는 조금도 가지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과 거래 관계를 맺고 그들 간에 50의 가치를 가지는 소맥이 50의 가치를 가지는 포도주와

1) 《교환은 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 리득을 보는 기이(奇異)한 거래이다》(메스튀트 드 트라세 《의지와 그 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 68페이지). 이 책은 후에 《정치 경제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교환된다고 하자. 이 교환은 전자로 보나 후자로 보나 교환 가치의 증가가 아니다. 왜냐 하면 교환 이전에도 그들의 각자는 이 거래를 중개로 하여 입수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벌써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⁵. 화폐가 류통 수단으로서 상품과 상품 사이에 개재하여 구매 행위가 판매 행위와 감각적으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¹⁶. 상품의 가치는 류통에 들어 가기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류통의 전제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¹⁷.

추상적으로 고찰한다면 즉 단순 상품 류통의 내재적 법칙들로부터는 흘러 나오지 않는 제 사정을 도외시한다면 단순 상품 류통 내부에서 일어 나는 것은 한 사용 가치의 다른 사용 가치에 의한 매치 이외에는 오직 상품의 형태 변화, 상품의 단순한 형태 전환 뿐이다. 동일한 가치가, 즉 동일한 분량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이 동일한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처음에는 그의 상품의 모습으로, 다음에는 그 상품이 전화된 화폐의 모습으로, 최후에는 이 화폐가 재 전화된 상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 전환은 가치량의 어떠한 변동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품 가치 자체가 당하는 변화는 그것의 화폐 형태의 변화에 국한된다. 이 화폐 형태는 처음에는 판매에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다음에는 이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화폐액으로서, 최후에는 등'가—상품의 가격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 전환은, 5파운드 권을, 쏘베렌

15 에르세 드 타 리베르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2부, 514페이지.

16 《이 두 가치중 하나가 화폐이든 혹은 그들의 량자가 모두 보통 상품이든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전연 아무 상관도 없다》(에르세 드 타 리베르 동상서, 513페이지).

17 《계약 당사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계약 체결전에 벌써 결정되어 있다》(르 드모느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916페이지).

금화나 반(半)소베덴 금화나 셀링 화와 환전(換錢)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량의 변동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품의 류통은 다만 상품 가치의 형태 전환만을 일으키는 만큼, 현상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되는 조건하에서는 등'가물들 간의 교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가치가 무엇인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속류 정치 경제학까지도 그것에 가능한 한계내에서나마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은 소멸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설사 사용 가치에 관해서는 쌍방의 교환 당사자가 리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환 가치에 있어서는 쌍방이 리득을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평등이 있는 곳에는 리득이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¹⁸. 상품은 그 가치로부터 배리된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배리는 상품 교환 법칙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¹⁹. 상품 교환은 그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는 등'가물간의 교환이고 따라서 가치 증식의 수단으로는 될 수 없다²⁰.

그러므로 상품 류통을 잉여 가치의 원천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보통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와의 혼동이 숨어

18 칼리아니 《화폐론》, 쿠스토디 편찬, 저작집, 현대 부, 제1권, 244페이지.

19 《어떤 외부적 사정이 가격을 인하 혹은 인상시킬 때에 교환은 당사자의 일방에 불리하게 된다. 그 때에는 평등이 침해되나 그러나 그것은 이 외부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교환 자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프 로토스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48년, 904페이지).

20 《교환은 그 성질상 평등에 필착하는 계약이며 동일한 가치를 주고 받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것은 치부(致富)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받는 것만큼 주기 때문이다》(프 로토스 동상서, 803페이지).

있다. 그리하여 레컨대 콘디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품 교환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와 교환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반대이다. 두 계약 당사자의 각자는 항상 큰 가치에 대하여 작은 가치를 내준다……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동등한 가치만을 서로 교환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어느 쪽도 아무런 리득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은 모두 리득을 보며 또는 리득을 보아야만 한다. 왜 그런가?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과 우리들의 욕망과의 관계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으며 또 그 반대이다……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불가결한 물건을 판매에 내놓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용한 물건을 내놓으려고 원한다. 우리는 많이 받고 적게 주기를 원한다……교환되는 두 물건의 가치가 동일액의 화폐와 동등할 때에 교환에서 동등한 가치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그러나 또한 사물의 다른 측면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즉 우리들은 쌍방이 모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과잉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²¹. 보는 바와 같이 콘디야크는 비단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치하게도 발전된 상품 생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생산자 자신이 자기의 생존 수단을 생산하여,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과잉물만을 류롱에 투입하는 그러한 체제와 슬쩍 바꾸어 놓았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콘디야크 《상업과 정부》(1776년), 메르 및 볼리나의 편찬 《정치 경제학 잡집(雜集)》, 파리, 1817년, 267페이지, 281페이지.

22 그러므로 르 트로느는 극히 정당하게도 자기의 벗 콘디야크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발전된 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과잉물도 없다》[《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907페이지]. 동

콘디아크의 논의는 가끔 현대 경제학자들 간에서 반복되고 있는바 상품 교환의 발전된 형태인 상업을 잉여 가치 생산의 원천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때에 바로 그러하다. 례컨대 아택와 같은 말이 있다. 2) 《상업은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한다. 왜냐 하면 동일한 생산물이 소비자의 수중에서는 생산자의 수중에서 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업은 문'자 그대로 생산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²³. 그러나 사람들은 상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즉 한번은 그 사용 가치에 대하여, 또 한번은 그 가치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만약 상품의 사용 가치가 판매자에게보다도 구매자에게 더 유용하다면, 상품의 화폐 형태는 구매자에게보다도 판매자에게 더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겠는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매자는 례컨대 상인의 양말을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문'자 그대로 「생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만약 동등한 교환 가치의 상품과 상품이, 혹은 상품과 화폐가, 다시 말하면 등'가물들이 서로 교환된다면 분명히 누구나 류통으로부터 그가 류통에 투입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끌어 내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잉여 가치는 형성되지 못한다. 상품의 류통 과정은 그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는 등'가물간의 교환을 일으킨다. 하기는 현실에 있어서 사물은 순수한 형태로는 진

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콘디아크를 야유하고 있다. 《만약 쌍방의 교환 당사자가 모두 똑 같이 덜 주고 똑 같이 많이 받는다면 그를 쌍방은 모두 똑 같이 받는 것으로 된다》〔동상서 801페이지〕. 콘디아크가 교환 가치의 성질에 관하여 아직 최소의 관념조차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야말로 교수 윌헬름 로쉐르 씨는 그를 자기 자신의 유치한 개념을 논증하는데 가장 적당한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다. 로쉐르의 《국민 경제학의 기초》, 제3권, 1858년을 보라.

²³ S. P. 뉴만 《정치 경제학 요론》, 안도버 및 뉴욕, 1835년, 175페이지.

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등'가물들 간의 교환을 가정하여 보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상품 시장에서는 다만 상품 소유자가 상품 소유자에 대립할 뿐이며 이 인물들이 상호간에 행사하는 권력은 그들의 상품의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의 물재적 차이는 교환의 물재적 기초로 되며 상품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하게 한다. 왜냐 하면 그들 중의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각자는 타인의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들의 사용 가치의 이러한 물재적 차이 이외에 상품들 간에 아직도 구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것들의 자연적 형태와 그것들의 전화된 형태간의, 즉 상품과 화폐간의 구별 뿐이다. 그리하여 상품 소유자들은 오직 상품의 소유자인 판매자와 화폐의 소유자인 구매자로서만 서로 구별된다.

이제 판매자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특권에 의하여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레컨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으로, 즉 가격을 명목적으로 10%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판매자는 10의 잉여 가치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판매자로 된 다음 구매자로 된다.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상품 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그의 앞에 나타나 상품을 10% 더 비싸게 판매하는 특권을 행사한다. 우에서 말한 그 사람은 판매자로서는 10의 리득을 보았으나 다음 구매자로서는 10의 손실을 보게 된다²⁴. 모든 사태는 요컨대 상품 소유자 전체가 자기들의 상품을 상호간 그 가치보다 10%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는바 이것은 그들이 상품을 가치대로

24 《생산물의 명목 가치의 증가에 의해서는…… 판매자는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그가 판매자로서 리득 보는 꼭 그만큼을 그는 구매자로서 손실 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의 주요 원리》, 런던, 1797년, 66페이지).

판매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상품 가격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명목적 인상은 상품 가치가 배천대 금 대신에 은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한다. 상품의 화폐적 명칭 즉 상품의 가격은 팽창할 것이나 그러나 상품의 가치 비율은 의연히 불변일 것이다.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할 특권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구매자로 되기 전에 판매자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가 구매자로서 10%의 리득을 보기 전에 벌써 판매자로서 10%의 손실을 당했던 것이다²⁵. 사태는 역시 중전과 차이가 없다.

모는 비와 같이 잉여 가치의 형성, 따라서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는 판매자가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으로써도 또 구매자가 그것을 가치 이하로 구매한다는 것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다²⁶.

이제 우리가 전연 상관 없는 제 관계를 밀수입하여, 배천대 로렌스 대좌(大佐)와 더불어 <유효 수요(有效需要)라는 것은 직접적 교환에 의해서든지 또는 간접적 교환에 의해서든지 막론하고 '상품의 대'가로서, 자본의 전체 구성 부분들을 그 생산

25 <만약 어떤 판매자가 2리브르의 가치를 가지는 일정량의 생산물을 18리브르에 양도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는 판매에 의하여 입수한 이 화폐를 구매에 사용할 때 이번에는 2리브르를 지불해야 할 물건을 18리브르로 입수할 것이다> (르 로르는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897페이지).

26 <어떤 판매자든지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정도로 항상 더 비싸게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상품을 항상 비싼 값으로 팔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유르 어떤 소비자든지 그가 판매하는 물건 값을 같은 정도로 낮추지 않고서는 그가 구매하는 모든 물건 일반에 대하여 더 싼하게 지불할 수 없다> (메르세 드 라 리베르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2부, 555페이지).

에 든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소비자의 능력 및 경향(!) 이다²⁷라고 말해 보았자 문제는 그에 의해서 조금도 간단화되지 않는다. 류통 내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만 대립한다. 생산자가 획득하는 잉여 가치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하여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 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명제를 분식(粉飾)하는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자신이 생산했거나 또는 상품 생산자의 대리자인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매자도 그의 화폐로 표현된 상품을 자신이 생산했거나 또는 그 상품 생산자의 대리자인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생산자에 매립한다. 그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일방은 구매하고 타방은 판매한다는 사실이다. 상품 소유자가 생산자라는 이름으로서는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라는 이름으로서는 상품에 대하여 그 가치 이상 지불한다고 가정했듯이 우리는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다²⁸.

그러므로 잉여 가치가 명목상의 가격 인상으로부터 즉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의 특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환상의 철저한 옹호자들은 판매함이 없이 오직 구매만을 하며 따라서 또 생산함이 없이 오직 소비만을 하는 하나의 계급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의 존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달한 뭉'장, 즉 단순 류통의 뭉'장으로부터는 아직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좀 앞질러 나가기로 하자. 이와 같은 계급이 부단히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화폐는 교환을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어떤 권리 또는 법'적 강력에 기초하여 상품

27 R. 토렌트 《부의 생산에 관한 논술》, 런던, 1821년, 349페이지).

28 《리윌은 소비자들에 의하여 부담된다는 관념은 확실히 아주 불합리하다. 이 소비자들이란 누구인가?》(G. 램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183페이지).

소유자들 자체로부터 이 계급에게 부단히 류입(流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급에게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오직 무상으로 내여 준 화폐의 일부분을 기만적으로 다시 찾아 오는 것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²⁹. 페킨대 소 아세아의 도시들은 고대 로마에게 매년 화폐 공납을 지불하였다. 로마는 이 화폐를 가지고 이 도시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때 대단히 비싼 값으로 샀다. 소 아세아인들은 자기의 정복자에게서, 그가 지불한 공납의 일부분을 상업을 통하여 기만적으로 회수함으로써 로마인을 속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자는 의연히 소 아세아인이였다. 그들의 상품 가격은 의연히 그들 자신의 화폐로써 지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치부(致富)의, 즉 잉여 가치 형성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매자가 동시에 구매자이며 구매자가 동시에 판매자인 상품 교환의 한계내에 머물러 있기로 하자. 우리가 곤난에 빠지게 된 것은 인물들을 인격화된 범주로서만 고찰하고 개인들로서는 고찰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했을는지도 모른다.

상품 소유자 A는 대단히 교활하여 자기의 동료인 B 혹은 C에게 속이여 팔며 그 반면에 속은 사람들은 아무리 보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A는 B에게 4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팔고 그 대신에 5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있는 곡물을 입수한다고 하자. A는 자기의 40파운드 스털링을 50파운드 스털링으로 전화시켰으며 소액의 화폐를 다액

29 《어떤 사람이 수요의 부족을 느낄 때에, 말사스 씨는 그에 대하여,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상품을 사게끔 하기 위하여 화폐를 주라고 충고할 것인가?》 이와 같이 리카도 학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은 분노하여 말사스에게 질문하였는데, 말사스는 그의 제자인 승려 찰머스 와 마찬가지로 순전한 구매자 즉 순전한 소비자의 계급을 경제적으로 찬양하였던 것이다. 《최근 말사스 씨에 의하여 제창된 수요의 성질 및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계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 55페이지를 보라.

의 화폐로 만들었으며, 자기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화시켰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보자. 교환전에는 40파운드 스텔링의 포도주가 A의 수중에 있었고 50파운드 스텔링의 곡물이 B의 수중에 있어서 총가치는 9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교환후에도 9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총가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류롱중의 가치는 한푼도 증가하지 않았으나 A와 B간에 있어서의 그 가치의 배분에는 변동이 일어났다. 한편 쪽에서 잉여 가치로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부족 가치로 되며 한편 쪽에서 플러스로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된다. A가 교환이라는 업체된 형태를 기치지 않고 B로부터 10파운드 스텔링을 직접 훔쳐 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류롱중의 가치 총액은 그 분배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도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유대인이 안나 네왕 시대의 1화팅 동전을 1기니 금화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일국에 있어서의 귀금속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국의 자본가 계급 총체가 자기 자신의 부담으로 리득을 볼 수는 없다³⁰.

이와 같이 아무리 이모 저모 따져 보아도 귀결점은 의연히 동일하다. 만약 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면 잉여 가치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실사 비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잉여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³¹. 류롱 즉 상품 교환

30 베스류트 드 트라쎈은 불란서 학사원의 일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아마 그의 일성원이었던 까닭에——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산업 자본가들의 리윤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그 생산에 든 비용 이상으로 비싸게 판매한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판매하는가? 우선 상호간에 서이다》(《의지 및 그 효과에 관한 분석》, 파리, 1826년, 239페이지).

31 《두 동등한 가치간의 교환은 사회에 현존하는 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지도 않으며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동등하지 않은 가치간의 교환은……이 역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으며 다

은 아무런 가치도 참조하지 않는다³².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어째서, 우리가 자본의 기본 형태 즉 현대 사회의 경제 조직을 규정하는 그러한 자본의 형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본의 통속적인,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제 형태, 다시 말하면 상업 자본과 고리대 자본을 우선은 전연 고려에 넣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업 자본에 있어서 $G—W—G'$ 라는 형태 즉 더 고'가로 판매하기 위한 구매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상업 자본의 전체 운동은 유통 분야의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유통 그 자체로부터는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잉여 가치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등'가물들이 서로 교환되는 한에 있어서는 상업 자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³³ 따라서 상업 자본은 오직 구매하는 상품 생산

만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해 온 것을 일부 사람의 재산에 첨가할 뿐이다》(J·B·셰이 《정치 경제학 개론》, 파리, 1817년, 제2권, 443, 444페이지). 셰이는 이 명제의 논리적 귀결에 관하여는 물론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이것을 거의 문'자 그대로 중농주의자들로부터 차용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거의 완전히 망각되어 있었던 중농주의자들의 저작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용하였던가는 다음의 실례가 보이여 준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으로써만 구매된다》(동상서, 제2권, 141페이지)라는 셰이 셰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중농주의자의 원문(르 르토느 《사회적 이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46년, 89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으로써만 지불된다》.

32 《교환은 생산물에 조금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F·웨이만드 《정치 경제학 요론》, 보스톤, 1843년, 169페이지).

33 《불변적인 등'가물들이 지배하는 데서는 상업은 불가능한 것이다》(G·올다이크 《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술》, 뉴욕, 1851년, 66—69페이지). 《현실적 가치와 교환 가치와의 구별의 기초에는 하나의 사실이——즉 물건과 가치는 상업에서 그 물건에 대하여 제공되는 소위 등'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이러한 등'가는 등'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F·엔겔스 《정치 경제학 비판 대강》, 《독일—볼탄서년보》에 게재됨. 파리, 1844년, 95, 96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자와 판매하는 상품 생산자가, 그들 간에 기생적으로 개재하는 상인에 의하여 양면적으로 기만 당하는 결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클린은 《전쟁은 강탈이고 상업은 기만이다》³⁴라고 말하고 있다. 상업 자본의 증식을 상품 생산자들에 대한 단순한 사기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상품 유통과 그 단순한 제 계기가 우리의 유일의 전제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아직 전연 존재하지 않는 일련의 긴 중간 고리가 필요하다.

상업 자본에 타당한 것은 고리대 자본에는 일층 더 타당하다. 상업 자본에 있어서는 그 양극인,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와 시장에서 끌려 나오는 증가된 화폐와는 적어도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유통 운동으로서 중개된다. 고리대 자본에 있어서는 $G—W—G'$ 라는 형태는 중간 고리가 없는 양극인 $G—G'$ 으로 단축되어 있다. 이 $G—G'$ 은 더 많은 화폐와 교환되는 화폐, 즉 화폐의 본성과 모순되며 따라서 상품 교환의 '립' 장으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돈벌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상업에 속하며 다른 하나는 경제에 속한다. 후자는 필요한 것이며 찬양할 가치가 있는 것이나 전자는 유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물의 본성에 립각하지 않고 상호 기만에 립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리 대금업이 미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고리 대금업에 있어서 화폐는 그 자체가 리득의 원천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발명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화폐는 상품 교환을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리자는 화폐로부터 새로운 화폐를

전집, 로씨야어 판, 제2권, 302페이지].

34 벤자민 프랑클린, 저작집, 스파크스 편찬, 제2권, 《국민의 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제 명제》중의 1구절, 376페이지].

만들어 낸다. 리자라는 명칭(로호스——리자라는 뜻과 자식이라는 뜻을 겸한 것)도 이로부터 나왔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니까 그런 명칭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리자는 화폐로부터 나온 화폐인 것만큼 이것은 모든 영리 부문중에서 가장 반자연적인 것이다》³⁵.

우리는 우리 연구의 진행에 따라 리식 자본도 역시 상업 자본과 마찬가지로 파생적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어쩌서 이 량자가 력사적으로는 자본의 현대적인 기본 형태보다 먼저 출현하였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잉여 가치는 류통으로부터 발생할 수 없는만큼 그것이 형성될 때에는, 류통 그 자체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일이 반드시야 류통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³⁶. 그러나 잉여 가치는 류통 이외의,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류통은 상품 소유자들의 모든 상호 련관의 총화이다. 류통의 외부에서는 상품 소유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상품과만 관계를 맺는다. 그의 상품의 가치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 관계는 그의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 법칙에 따라 측정되는 그 사람 자신의 로동의 어떤 분량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국한된다. 이 로동의 분량은 그의 상품의 가치량에 의하여 표현되며 또 가치량은 계산 화폐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예컨대 1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가격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그의 로동은 그 상품 가치에 그 상품 자신의 가치 이상의 초과분을 가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즉 10에 해당함

3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부, 제10장, [17페이지] [트색야어 판, 제펠레브 번역, 성 페페트부르크, 1911년, 제1부, 28페이지, 제23절].

36 《리운은 시장의 보통 조건하에서는 교환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교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환 이후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람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9년, 184페이지).

과 동시에 11에도 해당하는 가격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상품 소유자는 자기의 로동으로써 가치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자기 증식을 하는 가치를 형성할 수는 없다. 그는 새로운 로동에 의하여 현존하는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부함으로써, 폐컨대 피혁으로써 장화를 만들므로써 한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는 있다. 동일한 물재는, 그것이 더 많은 로동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런고로 장화는 피혁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나 그러나 피혁의 가치는 의연히 전과 같다. 피혁의 가치는 자기를 증식시킨 것도 아니며 장화 제작 중에 잉여 가치를 자체에 첨가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 생산자는 류통 분야의 외부에서 다른 상품 소유자들과 접촉함이 없이 가치를 증식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화폐 또는 상품을 자본으로 전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은 류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으며 또 마찬가지로 류통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것은 류통의 내부인 동시에 내부 아닌 데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이중적 결과가 나왔다.

화폐의 자본배로의 전파는 마땅히 상품 교환에 내재하는 법칙의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가물간의 교환이 우리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³⁷. 아직까지는

37 이상의 해설에 의하여 독자는 이렇게 말하는 본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형성은 상품 가격이 상품 가치와 동일한 경우에도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의 형성은 상품 가치로부터의 상품 가격의 배리로써는 설명할 수 없다. 만약 가격이 사실상 가치로부터 배리된다면 우리는 우선 가격을 가치에 환원(還元)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 교환의 기초에서의 자본의 형성이라는 현상을 순수한 형태로 파악하며 또 그것을 관찰함에 있어서, 과정의 고유한 진행과는 무관제한 교란적(攪亂的)인 부차적인 사정들로 말미암아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의 가치로부터의 배리라는 이러한 사정을 우연적인 것으로서 무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후에 또

자본가의 유충(幼虫)으로서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 우리의 화폐 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구매하며 그 가치대로 판매하면서도 과정의 종말에 가서는 그가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끌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나비에로의, 진정한 자본가에로의 발전은 반드시 류통 분야의 내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또 그러면서도 류통 분야의 내부에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이 이 문제의 조건이다. *Hic Rhodus, hic fa'ta!* [여기가 로두스 섬(島)이다. 여기서 뛰여 보라!].

제 3 절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으로 전화해야 할 화폐의 가치 증식은 화폐 그 자체에서는 일어 날 수 없다. 왜냐 하면 화폐는 구매 수단 및 지불 수단으로서는 그것으로써 구매 또는 지불되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시키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또 그 자신의 형태대로 머물러 있는 화폐는 가치의 크기가 항상 동일한 화석(化石)으

우리는 그러한 환원이 결코 단순한 과학 연구의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가격의 부단한 동요, 그 등귀와 저락은 서로 보상(補償)되며 서로 상쇄되어 시장 가격의 내'적 규준으로서의 평균 가격에 자체로 환원된다. 이 평균 가격은 비교적 장기간을 타산하는 매개 기업에서 상인 혹은 실업가의 향도성(嚮導星)으로 된다. 따라서 상품 소유자는 비교적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상품들은 실지로 그 평균 가격 이하나 이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평균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리해 관계를 초월한 사유(誤惟)가 그들의 관심사로 된다면 그들은 자본 형성의 문제를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가격이 평균 가격에 의하여 즉 결국은 상품 가치에 의하여 규제(規制)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자본이 성립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결국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균 가격은 $A = \text{스미스}$, 리카도 등이 믿고 있었던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품 가치의 크기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³⁸. 또 마찬가지로 이 변동은 류통의 제2의 행위인 상품의 재 판매로부터도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상품을 다만 현물적 형태로부터 화폐 형태로 재 전화시키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변동은 바로 $G—W$ 라는 제1 행위에서 구매되는 상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 상품의 가치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등'가물들이 교환되는만큼 상품들은 그 실지 가치대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변동은 다만 그 상품의 사용 가치 그 자체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의 소비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상품의 소비로부터 가치를 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의 화폐 소유자는 다행히 류통 분야의 내부, 즉 시장에서 한 상품—그 사용 가치 자체가 가치의 원천으로 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며 그 현실적 소비 자체가 로동의 대상화 과정, 따라서 가치 창조의 과정으로 되는 그러한 상품—을 발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화폐 소유자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품을 발견하는바, 그것은 로동 능력 또는 로동력이다.

로동력 또는 로동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기체 속에, 즉 산 사람 속에 존재하는, 또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에는 언제나 발동시키는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화폐 소유자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을 실지로 시장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 교환은 그 자체로서는 그 자신의 성질에 유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존 관계도 포함하지 않는다.

38 《화폐 형태에 있어서는……자본은 아무런 리윤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리카도《정치 경제학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267페이지)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5년, 142페이지 참조].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그 소유자 즉 그 노동력이 속하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거나 또는 판매하는 때에만 또 그만큼만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그것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자기 노동 능력,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³⁹. 노동력의 소유자와 화폐 소유자는 시장에서 서로 만나 대등한 상품 소유자로서 상호 관계를 맺는다. 그들 간에는 일방이 구매자이고 타방이 판매자라는 점 이외에는 구별이 없다. 따라서 쌍방은 법률상 평등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을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만약 그가 노동력을 한꺼번에 몽땅 판매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자유로운 인간으로부터 노예로, 상품 소유자로부터 상품에 전화하기 때문이다. 인격으로서의 그는 언제든지 자기 노동력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보존해야 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으로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는 오직 그가 자기의 노동력을 항상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구매자의 자유 처분에 맡겨서 사용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 따라서 노동력의 양도에 의하여 노동력에 대한 자기의 소유⁴⁰ 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⁴⁰.

39 우리는 희랍, 로마의 고전적 고대 사회에 관한 백 파 사전물에서, 고대 세계에 있어서도 《자유 노동자와 신용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본이 심분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엉터리 없는 말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쾰도 역시 자기의 《로마 사》에서 이 점에 관하여 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3)

40 그러므로 각종 법¹법은 노동 계약 기자의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 노동이 우세한 국민들에 있어서의 법전(法典)은 모두 계약 해제의 예고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특히 멕시코

화폐 소유자가 노동력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발견하는데 필요한 제2의 본질적 조건은, 노동력의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이 대상화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의 산 유기체 안색단 존재하는 자기의 노동력 자체를 부득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노동력과는 다른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생산 수단, 재컨대 원료, 노동 도구 등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피력 없이는 장화를 제조할 수 없다. 그는 그 밖에도 생활 수단을 필요로 한다. 누구도 심지어 미래과 음악가 까지도 미래의 생산물로서는 살아 갈 수 없으며 그 생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용 가치로서는 살아 갈 수 없다.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가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또 생산을 하는 동안에도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된다면 그것은 그 생산이 끝난 뒤에 판매되어

코에 있어서는 (아메리카의 공민 전쟁전에는 멕시코로부터 탈취된 지역에 있어서도 또 쿠자 혁명 이전에는 실질상 도나우 강 유역 제 주(州)에 있어서도) 노예 제도는 소위 피오네지 라는 형태로 업제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품으로 갈아야 하는 그나마 대대로 물려 받는 선대 형식의 채무로 말미암아 비단 개개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사실상 타인 및 그 가족의 소유로 된다. 파레스는 피오네지를 폐지하였다. 참칭(僭稱) 황제 막제밀리안은 칙령(勅令)에 의하여 그것을 재 실시하였는바 워싱턴의 대의원(代議院)에서 정당하게도 이 칙령은, 멕시코에서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난되었다. 《나는 나의 특수한 육체적 및 정신적 기능 및 활동 능력의 리용을……기한 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제한을 붙이면 이 기능과 능력은 나의 전체성 및 일반성에 대해서는 외적 관계를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노동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나의 전체 시간과 나의 생산 행위의 전체를 양도한다면 나는 이 생산 행위의 실체물, 나의 일반적인 활동과 현실성을, 나의 인격을 타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으로 될 것이다》(헤겔 《법 철학》 베를린, 1810년, 101페이지, 제 67절) [로썬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831년, 전집, 제7권, 81페이지, 제87절 참조].

야 하며 또 생산물이 판매된 후에라야만 비로소 생산자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시간 이외에 판매에 요하는 시간이 첨가된다.

이와 같이 화폐가 자본에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화폐 소유자는 자유로운 노동자를 상품 시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자는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자기의 상품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노동력 이외에는 판매할 아무런 다른 상품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어찌해서 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류통 분야에서 화폐 소유자에게 대립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품 시장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노동 시장을 기존 상태에서 발전하는 화폐 소유자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아직은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화폐 소유자가 실천적으로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어차피 하나만은 분명하다. 즉 자연이 한편으로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를 낳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만의 소유자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 사'적 관계도 아니며 또 그와 동시에 모든 역사적 시대에 공통한 사회적 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분명히 선행한 역사 발전의 결과이며, 허다한 경제적 변혁의 산물이며 사회적 생산의 수 많은 낡은 제 구성(構成)의 멸망의 산물이다.

우리가 위에서 고찰한 경제적 제 범주도 역시 그것들의 역사적 흔적을 띠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존재는 일정한 역사적 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자신을 위한 직접적 생활 수단으로서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어떠한 사정 밑에서, 일체의 생산물 혹은 적어도 대다수의 생산물이 상품 형

태를 취하는가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직 하나의 전연
독특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만 일어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상품⁴⁰의 직접
적 분석의 범위를 훨씬 벗어 날 것이다. 상품 생산과 상품 류
통은, 비록 압도적 대량의 생산물이 직접 자가 소비에 충당되
여 상품으로 전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 과정이 그
전체 넓이와 깊이에서 대체로 교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일어 날 수 있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화되기 위해
는, 직접적인 물물 교환에서 비로소 그 기초가 시작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와의 분리가 완성될 정도로 사회 내부의 분업
이 발전하는 것이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 단
계는 역사적으로 극히 각이한 사회—경제적 제 구성에 공통되
는 것이다.

화폐로 말 할지라도 그것은 상품 교환의 일정한 고도(高度)를 전제로 한다. 화폐의 상이한 제 형태인 단순한 상품—
등, 가물, 또는 류통 수단, 또는 지불 수단, 퇴장 화폐, 세계 화
폐 등은 이런 또는 저런 기능의 작용 범위가 상이하며 또 그
중 어느 한 기능이 상대적 우세를 차지하는 데 따라, 사회적
생산 과정의 관이한 제 단계를 보이며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보이며 주는 바와 같이 화폐의 이 모든 형태가 형성
되기 위해서는 발전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상품 류통으로써도
충분하다. 그러나 자본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자본의 력
사적 존재 조건은 결코 상품 류통과 화폐 류통의 존재만으로써
는 확립되지 못한다. 자본은 오직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의 소
유자가 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자유 노동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이 하나의 력사적 조건만해도
전체 세계사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자본은 그 발생 당초부터
사회—생산적 과정의 특수한 시대를 선포한다⁴¹.

11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에게 대

이제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을 더 상세하게 고찰해야 하겠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⁴². 그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독특한 매체 대상의 생산에, 따라서 또 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것이 가치인 한에 있어서 노동력 그 자체는 그 속에 대상화되어 있는 사회적 평균 노동의 일정량을 대표할 뿐이다. 노동력은 오직 산 개인의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은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생존이 소여의 것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력의 생산이란 개인 자신의 재 생산 즉 그의 생존의 유지를 말한다. 살아 있는 개인은 자기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량의 생활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귀착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가치라는 것은 노동력 소유자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이다. 그러면 노동력은 그것의 발현에 의해서만 현실화되며 오직 노동에서만 실현된다. 노동력의 실현 과정인 노동에서 인간의 근육, 신경, 뇌수 등등의 일정 분량이 지출되며 그것들은 갱신,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⁴³. 오늘 노동을 한 노동력 소유자는明日에도 전과 동일한

하여 그에게 속하는 상품의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그의 노동이 임금 노동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순간부터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가 비로소 전반화하게 된다.

42 《인간의 가치 또는 값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물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격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의 힘의 사용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만큼 금액이다》. 로마스 롬베스 《리바이아산》, 문츠 원스 편찬 《저작집》, 런던, 1839—1841년, 제3권, 78페이지 [로씨야어판, 성 페테르부르크, 1868년, 58페이지 참조].

43 그러므로 고대 로마에서 농업 노예의 선두에 있던 노예 팔리인

힘과 건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생활 수단의 총량은 노동하는 개인을 노동하는 개인으로서, 그의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식료품, 피복, 난방, 주택 등등과 같은 자연적 욕망 그 자체는 이런 또는 저런 나라의 기후적 및 기타 자연적 특성에 따라 각이하다. 다른 한편 소위 필수적 욕망의 범위는, 그 충족의 방식과 아울러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대부분이 나라의 문화 수준에 의존하는바 개중에도 상당한 정도로 어떠한 조건하에, 따라서 어떠한 관습과 생활상 요구를 가지고, 자유 노동자 계급이 형성 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존한다⁴⁴. 그러므로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노동력 가치의 결정은 역사적 및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정한 나라에서, 또 일정한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필수 생활 수단의 평균적 범위가 주어져 있다.

노동력의 소유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화폐의 자본에로의 계속적인 전화가 요구하는 대로 그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은갓 생긴 개체가 자기를 영구화하는 것처럼 생식(生殖)에 의하여》⁴⁵ 노동력의 판매자가 영구화되어야 한다. 소모와 사망의 결과 시장에서 빼앗겨 나가는 노동력은 적어도 같은 수의 새로운 노동력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총량은 그러한 보충 인원,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자식들의 생활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하여 이 독특한 상품 소유자

인 빌리쿠스는 《보통 노예보다 험한 노동을 한 탓으로 보통 노예보다 더 적은 생활 물'자를 받았다》(데오도르 몸젠 《로마사》, 1856년, 810페이지) [토씨 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6년, 787페이지].

11 W. 토마스 소문론 저작 《과잉 인구와 그 대책》, 런던, 1816년, 참조.

45 페티.

의 종족은 상품 시장에서 영구화된⁴⁶.

일반적인 인간적 본성을 개조하기 위하여는 즉 그것이 일정한 노동 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획득하며 발전된 독특한 노동력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양 또는 훈련이 필요하며 그것은 또 그것 대로 얼마만큼의 '상품 등'가물을 필요로 한다. 노동력의 자격 여하에 따라 이 교양비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훈련비는, 보통 노동력에 있어서는 무시할 정도로 미소한 것이지만 노동력의 생산에 지출되는 가치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량의 생활 수단의 가치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이 생활 수단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크기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

생활 수단의 일부분, 레컨대 식료품, 연료 등은 나날이 소모되는 것이므로 나날이 새로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의복, 가구 등과 같은 다른 생활 수단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소모되며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한 후 보충되면 된다. 어떤 종류의 상품은 매일, 다른 종류의 상품은 매주일, 매 4분기 등등에 구매되며 또는 지불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의 총액은, 그것이 레컨대 1년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든지 간에, 나날이, 평균 수입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노동력의 생산을 위하여 요구되는 상품 총량중, 매일 요구되는 수량=A, 매주 요구되는 수량=B, 매 4분기에 요구되는 수량

46 《그것(노동)의 자연 가격은……로동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로동자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노동의 동일한 공급을 보장할만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기후 풍토상 및 생활 관습상 요구되는 분량의 생활 필수품과 향리품으로써 구성된다》(R. 토렌즈 《곡물의 외국 무역에 관한 논설》, 런던, 1815년, 62페이지). 여기서의 로동이라는 용어가 노동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C 등등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상품들의 매일 평균량=
$$\frac{365A+52B+4C+\text{등등}}{365}$$
이다. 이러한 평균일에 필요한 상품

수량 속에는 6시간분의 사회적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노동력 속에는 매일 반일분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노동력이 나날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노동일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나날이 생산되기 위하여 필요한 이와 같은 노동의 분량은 노동력의 1일분 가치 즉 나날이 재 생산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형성한다. 만약 반일분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3셀링 또는 1탈레르의 금량으로 표시된다면 1탈레르는 노동력의 1일분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만약 노동력의 소유자가 그 노동력을 매일 1탈레르에 판다면 그 판매 가격은 그 가치와 같다. 또 우리의 점제에 의하면 자기의 탈레르를 자본으로 전파시킬 것을 갈망하여 마지 않는 화폐 소유자는 실지로 이 가치를 지불한다.

노동력의 가치의 최저 한계 또는 최소 한계는 노동력의 담당자인 인간이 자기의 생명 과정을 갱신할 수 있기 위하여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 수량의 가치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생활 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형성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이 최소한에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은 가치 이하로의 저락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은 위축된 형태로서 밖에는 유지 및 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품의 가치든지 그것은, 그 상품을 정상적인 품질로 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이와 같은 노동력 가치의 규정을 야박한 것이라고 하여 로씨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극도로 값싼 감상주의(感傷主義)이다. <생활과정의 진행중에 있어서의 노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활 수단을 도외시하면서 노동 능력을 고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

상 (être de raison)을 고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노동이라고 말하며, 노동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는 동시에 '노동자와 생활 수단, 노동자와 임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노동 능력이라는 것은 아직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소화(消化) 능력이 결코 실지 소화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화 과정이 진행되자면 좋은 위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노동 능력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노동 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생활 수단의 가치가 노동 능력의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 능력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한다. 반대로 이 경우에 그는 그의 노동 능력이 그 생산을 위하여 일정량의 생활 수단을 필요로 했다는 것 및 그 재 생산을 위하여 생활 수단을 거듭 거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하나의 가혹한 자연적 필연으로 느낀다. 그 때에 그는 시스몬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노동 능력은…… 만약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⁴⁸.

노동력이라는 이 특수한 상품의 독특한 성질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사용 가치가 아직 현실적으로 구매자의 수중으로 넘어 가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치는 온갖 다른 상품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류통에 들어 오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 왜냐 하면 노동력의 생산에는 벌써 일정 분량의 사회적 노동이 지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행되는 힘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힘의 양도와 힘의 현실적인 발현 즉 사용 가치로서의 힘의 현실적 존재와는 시간

47 로제 《정치 경제학 강의》, 보통셀 1842년, 370페이지.

48 시스몬디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1권, 113페이지 [로제 야어 판, 국립 사회 경제 서적 출판소, 1836년, 197페이지 참조].

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판매에 의한 사용 가치의 형식적 양도와 구매자에로의 그것의 현실적 이전이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품에 있어서는⁴⁹ 구매자의 화폐는 보통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노동력은 매매 계약에서 확정된 기간에 걸쳐서 이미 작용을 끝마친 후에, 레컨매 매주(週) 말에야 비로소 지불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언제나 노동력의 사용 가치를 자본가에게 선대한다. 그는 노동력의 가격의 지불을 받기 전에 노동력을 구매자의 소비에 맡긴다. 그런 까닭에 노동자는 언제나 자본가에게 신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신용 행위가 결코 공허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비단 자본가가 파산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⁵⁰ 뿐만 아니라 더 영속적인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실⁵¹이 또한 보이여

49 《모든 노동은 그것이 끝난 뒤에 지불을 받는다》(《수요 및 기타의 성질에 관한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 103페이지). 《상업 신용의 시초는 온갖 생산의 첫째 창조자인 노동자가 자기의 절약에 의하여 자기의 노동대가의 지불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등등의 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샤르 가닐 《정치 경제학 체계》, 제2판, 파리, 1821년, 제2권, 150페이지).

50 《노동자는 자기의 근로를 신용으로 판매한다》고 슈트로프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포괄하게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노동자는 《자기의 로임을 손실》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왜냐 하면 노동자는 생산에 아무런 물리적인 것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슈트로프 《정치 경제학 강의》, 페제르부르크, 1815년, 제2권, 36, 37페이지) [로썸야어 판, B. 웨트나노프씨 번역, 성 페제르부르크, 1881년, 제1권, 제3부, 제2장, 193페이지 참조].

51 하나의 실례를 들자. 런던에는 빵을 그 완전한 가치대로 판매하는 《full Priced》(《재값 장사》)와 빵을 가치 이하로 판매하는 《undersellers》(《눅거리 장사》)의 두 종류의 빵집이 존재한다.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자가 빵집 총수의 $\frac{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빵 제조 직공들의 불평 불만》에 관한 정부 위원 H.S. 르메네히르의 《보고서》, [런던, 1862년]의 32페이지). 이 눅거리 장사들은 거의 배의 없이 백반, 비누, 탄산-가리, 석회, 다비샤 들'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 있고

주는 바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구매 수단으로서 기능하든지 또는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든지 간에 그것은 상품 교환 그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노동력의 가격은, 비록 그것이 가옥의 임대 가격처럼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약상 확정되어 있다. 노동력은, 비록 그대'가의 지불이 후일에 미루어졌다 할지라도 벌써 판매되어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순수한 형태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의 판매와 동시에 언제나 즉시로 계약상 정해져 있는 가격을 받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양분 있고 위생적인 성분의 혼합에 의하여 조악하게 제조된 빵을 판매하고 있다(우에서 인용한 청서 및 《조악한 빵의 제조에 관한 1855년의 위원회》의 보고, 그리고 또 하랄 박사의 《발각된 조악품》, 제2판, 런던, 1861년 참조). 새 존 고르돈은 1855년의 위원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조악품이 제조되는 결과 매일 2파운드의 빵으로 살아 가는 빈민들은 이제는, 자기의 건강에 대한 유해로운 영향은 고사하고라도, 실지로는 이 분량의 4분의1의 영양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 계급의 거대한 부분》이 이러한 조악품 제조의 사실을 잘 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서 백반, 돌'가루 등등을 구태여 사가는가 하는 데 대한 이유로서 트테멘히르는(상술한 보고서 4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빵집 또는 소매점에서 빵을 주는 대로 받아 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노동 주말(週末)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을 받는 까닭에 그들도 역시 《그 한 주일 동안에 그들의 가족이 소비한 빵값을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할 수 있다》. 또 트테멘히르는 증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물로써 구성되는 빵이 일부터 이러한 종류의 고개를 목표로 제조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의 다수 농업 지대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농업 지대에서는 일층 더 심하지만} 노동 임금은 2주일만에 1회씩 또 심지어 1개월만에 1회씩 지불된다. 이와 같이 지불의 간격이 긴 까닭에 농업 노동자들은 자기의 상품을 외상으로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는 그에게 외상으로 사는 그 소매점에 사실상 얽매어 있다. 그리하여 레컨데 로임이 1개월만에 지불되는 윌트셔아주의 호트넵 삼에서는 농업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1스톤 [1파운드] 당

이제 우리는 로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의 소유자에 대해서 화폐 소유자가 지불하는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고 있다. 화폐 소유자가, 교환을 통하여 받는 사용 가치는 다만 로동력의 현실적 사용에서 즉 로동력의 소비 과정에서 비로소 발현된다. 화폐 소유자는 원료 등등과 같은,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상품 시장에서 구매하며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그 가격대로 지불한다. 로동력의 소비 과정은 동시에 상품 및 잉여가치의 생산 과정이다. 로동력의 소비는 온갖 다른 상품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시장 즉 유통 분야의 외부에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란스럽고 사회 표면에서 진행되는, 누구의 눈에나 쉽게 떠는 분야를 작별하고 화폐 소유자 및 로동력 소유자와 함께, 무용자 출입 금지라고 그 입구에 써여 있는 은폐된 생산 장소에로 들어가 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비단 자본이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본 그 자체가 생산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리윤 획득의 비밀은 드디어 폭로되고야 말 것이다.

1원링 10펜쓰하는 밀¹가루에 2원링 4펜쓰물 치른다》(《추밀원 의무관(樞密院 醫務官)에 의한 《공중 보건》에 관한 《제6차 보고서》, 1864년, 264페이지). 《레이즐리 및 킬마르노크(서부 스코틀랜드)의 갱사날염공(更紗捺染工)들은 1853년에 동맹 파업에 의하여 지불 기간을 1개월로부터 11일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185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 34페이지).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주는 신용이 일종의 은근하게 발전한 것을, 우리는 영국의 다수 탄광 소유자들의 방법에서 관찰할 수 있는바 이 방법에 의하면 월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을 받는 로동자는 그 중간 시기에 자본가로부터, 상품 형태로 선대를 받는데 그에 대해서 그는 가끔 시장 가격 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을 트럭크써스템(Trucksystem)이라고 칭한다). 《탄광주들 간에서는 로동자들에게 월 1회씩 로임을 지불하고 중간의 매 주말에는 현금을 선대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 되어 있다. 이 현금 선대는 매점(로미 쇼프—*tommy-shop*—라고 칭하는 것인데 기업주 자신에게 속하는 잡화점이다)에서 내어준다. 로동자들은 한 구석에서 그것을 받고 다른 구석에서 그것을 지출한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3차 보고서》, 런던, 1864년, 38페이지, 제192호).

그 내부에서 로동력의 매매가 수행되고 있는 류통 즉 상품 교환의 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天賦人權)이 지배하는 참다운 낙원(樂園)이었다.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와 평등과 소유와 배합이다. 자유! 왜냐 하면 상품, 특히 대 로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기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법률상 대등한 인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사가 공통적인 법률적 표현을 받는 최종 결과이다. 평등! 왜냐 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 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왜냐 하면 각자는 모두 자기의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배합! 왜냐 하면 그들 쌍방은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유일의 힘은 그들의 리기적 행동, 그들의 사리 사욕, 그들의 사'적 이해 관계에 대한 지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자는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배려하고 누구도 타인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야말로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적 조화(調和)의 덕택으로 또는 전능한 신의 지도 밑에 그들 상호간의 리익으로 되며 공통적 리득으로 되며 전반적 리익으로 되는 일만을 수행한다.

단순한 류통 또는 상품 교환의 분야——속류적 자유 무역론자들이, 자본 및 임금 로동 사회에 관한 그들의 모든 판단을 위한 전제, 개념, 기준을 끌어 내는 원천인 이 분야로부터 떠나면서 우리는 우리 등장 인물들의 면모가 벌써 얼마간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전의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로서 선두에서 걸어가며 로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로동자로서 그 뒤를 따라 간다. 전자는 의미 심중하게 미소를 띠고 사업에 착수할 열의에 차 있다. 후자는 자기 자신의 가축을 팔아 버리고 이제는 그 가축이 이기여지는 것 이외에는 기대할 아무 것도 없는 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주춤 주춤 걸어 간다. ~

제 3 편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 5 장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

제 1 절 노동 과정

로동력의 사용은 노동 그 자체이다. 로동력의 구매자는 로동력의 판매자를 노동시킴으로써 로동력을 소비한다. 로동력의 판매자는 노동함으로써 실지 발현되는 로동력 즉 노동자로 된다. 이전에는 그는 오직 잠재적으로만 노동자였다. 그는 자기의 로동을 상품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로동을 사용 가치로서 즉 어떤 종류의 욕망의 충족에 쓰이는 물건으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로 하여금 어떤 특수한 사용 가치 즉 어떤 특정 물품을 만들게 한다. 사용 가치 즉 향리품의 생산은 그것이 자본가를 위하여 또 자본가의 통제 밑에서 수행된다고 해서 그 일반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 과정을 어떠한 특정 사회 형태와도 상관 없이 관찰해야 할 것이다.

로동은 우선 인간과 자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인간이 그 자신의 활동에 의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 대사를 중개하며 조절하며 통제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연 물'질에 대하여

그 자신이 하나의 자연력으로서 대립한다. 인간은 자연 물'질을 자기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어떤 형태로 ^⑥점유하기 위하여 그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적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하여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주어 이것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천성(天性)을 변화시킨다. 그는 자신의 천성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며 이 힘의 활동을 자기 자신의 통제 밑에 둔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최초의 동물적 본능적 노동 형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상품 시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상태에 비하면, 인간 노동이 아직도 그 초보적인 본능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을 당시의 상태는 로원한 원시 시대에 속한다. 우리가 전제로 하는 노동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노동이다. 거미는 직조자와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은 벌집의 건축으로써 많은 인간 건축가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최악의 건축가라도 최선의 꿀벌과 처음부터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그가 벌집을 남(蠟)으로 짓기 전에 그것을 벌써 자기의 머리 속에 짓는다는 사실이다. 노동 과정의 종말에 이르러, 이 과정의 시초에 벌써 노동자의 머리 속에 즉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결과가 나타난다. 노동자는 기존 자연물의 형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존 자연물 속에서 자기의 의식적인 목적을, 즉 법칙으로서 그의 행동의 방식과 성격을 규정하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의지를 그것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의 복종은 결코 고립 분산적인 행위가 아니다. 노동을 수행하는 육체적 기관(器官)의 긴장 이외에 주의력으로서 발현되는 합목적적 의지가 노동의 전 기간에 걸쳐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이 그 자신의 내용과 그 수행 방식에 의하여 노동자의 흥미를 끄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을 자기 자신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의 활동으로서 즐겨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노동 과정의 간단한 제 계기(契機)는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이다.

인간에 대하여 제일 처음으로 식량과 기성 형태의 생활 수단을 공급하여 주는 토지 (경제학적 견지에서는 물도 이 속에 포함된다)¹는 인간측으로부터의 아무런 협력을 받음이 없이 인간 노동의 일반적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사람이 노동에 의하여 토지와의 직접적 관계로부터 떼내기만 하면 되는 물건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노동 대상이다. 폐컨대 그 생활 요소인 물로부터 분리시켜 잡아 내는 물'고기, 원시림에서 벌채하는 원목, 광맥으로부터 뜯어 내는 광석이 그러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노동 대상 그 자체가 벌써 선행하는 노동에 의하여 익률되면 한번 떠과(濾過)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료라고 칭한다. 폐컨대 이미 광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척(洗滌) 과정에 들어 가는 광석이 그것이다. 일체의 원료는 노동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 대상이 원료인 것은 아니다. 노동 대상은 그것이 이미 노동에 의하여 중개된 어떤 변화를 받은 경우여야만 원료이다.

노동 수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 대상간에 개재(介在)시키며 이 대상에 대한 그의 작용의 전도체(傳導體)로서 리용하는 물건 또는 물건들의 복합체(複合體)이다. 노동자는 자기 목적에 따라 이러한 물건들을 그의 권력 수단으로 작

1 《토지의 천연적 산물은 그 양이 근소하며 또 인간으로부터 천연 독립되어 있는바, 그것은 마치 어떤 청년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활동하여 재산을 만들게 할 목적으로 그 청년에게 약간의 근소한 금액을 주어 주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자연에 의하여 제공되는 듯이 보인다》
(제임스 스투아트 《정치 경제학 원리》, 머블린 판, 1770년, 제1권, 116페이지).

용케 하기 위하여 그 물건들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속성을 리용한다². 로동자가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대상은, —로동자 자신의 육체적 기관만이 로동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인 기성 형태의 생활 수단, 레컨대 파실의 채취같은 것을 도외시킨다면 —로동 대상이 아니고 로동 수단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자연물 그 자체가 로동자의 활동의 기관으로, 즉 그가 성경(聖經)을 위반하여 자기 본래의 모습을 연장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육체적 기관에 첨가하는 기관으로 된다. 토지는 사람의 식량의 제일 처음 창고이며 또한 그의 로동 수단의 제일 처음 무기고(武器庫)이다. 토지는 사람에게 레컨대 들을 공급하는바 그는 이것을 던지며, 문지르며, 누르며, 베는 등등의 일에 리용한다. 토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로동 수단이기에는하나 그러나 그것이 농업에서 로동 수단으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이 밖에 다른 많은 로동 수단과 이미 비교적 고도로 발전된 로동력을 전제로 한다³. 도매체 로동 과정은 그것이 얼마간이라도 발전되어 있다면 벌써 가공된 로동 수단을 필요로 한다. 태고 시대 인간의 동굴(洞窟) 속에서도 우리는 석제 도구와 석제 무기를 발견한다. 인류 력사의 시초에 있어서는 가공된 돌, 목재, 뼈, 조잡지와 아울러 길들인. 따라서 그 자체가 벌써 로동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이 키운 동물이 로동 수단으로서 주요한

2 《리성은 강력하미 또한 그만큼 효율하다. 효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여금 그것들 자신의 성질에 따라 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주게 함으로써 자신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자신의 목적만은 달성하는 그러한 중개적 활동을 말한다》(헤겔 《백과 전서》, 제1부, 《논리학》, 베를린, 1810년, 382페이지) [로씨야어판, 국립 출판소, 1929년, 318---319페이지 참조].

3 가릴은 다른 점에서는 보잘 것 없는 저작 《정치 경제학의 리론》(파리, 1815년) [제1권, 236페이지]에서 중농주의자들과 반대하여 직접 하지도 소유한 의미에서의 농업의 진계로 되는 허다한 일련의 로동 과정을 열거하고 있다.

역할을 논다⁴. 로동 수단의 사용과 창조는, 맹아적 형태로서는 비록 어떤 종류의 동물들의 속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간 로동 과정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프랑클린은 인간을 <a tool-making animal> 즉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로동 수단의 유물이 멸망한 경제적 사회—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은 유골(遺骨)의 구조가 멸망한 동물 종족의 신체 조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과 동일하다. 경제적 시대들은 무엇이 생산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로동 수단으로써 생산되는가에 의해서 구별된다⁵. 로동 수단은 비단 인간 로동력 발전의 측도기(測度器)로 될 뿐만 아니라 로동이 수행되는 사회적 제 관제의 지표(指標)로도 된다. 로동 수단 그 자체중에서는 그 총체를 생산의 골격—체계 및 근육—체계라고 칭할 수 있는 기계적 로동 수단이, 로동 대상의 용기(容器)로 쓰일 뿐인, 그리고 그 총체를 일괄하여 생산의 맥관(脈管) 체계라고 칭할 수 있는, 레컨대 도관, 튕, 바구니, 독 등등과 같은 로동 수단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생산의 일정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적 표식(標識)으로 된다. 후자의 로동 수단은 화학 공업에서 비로소 중요한 역할을 논다^{5a}.

로동 대상에 로동이 작용하는 것을 중개하며, 따라서 이런 또는 저런 방식으로 그 활동의 전도체로 쓰이는 그러한 물건들

4 류트고는 《부의 형성 및 분배에 관한 고찰》, (1766년) [데르 뤼 찬, 전집, 제1권]에서 길쭉인 동물이 문화의 시초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5 모든 상품들 중,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치품은 자이한 생산 시대를 기술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의의를 가진다.

5a 제2판 주. 종래의 역사적 기술(記述)은, 물질적 생산의 발전, 따라서 사회 생활 전체의 기초를, 그러므로 또 현실적 역사 전체의 기초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유사(有史) 이전의 시대는 소위 역사 연구가 아니라 자연 과학적 연구에 접근하여 도구와 무기의 제도에 따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및 철기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 과정의 수단에는 노동 과정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모든 대상적 제 조건이 속한다. 그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노동 과정에 들어 가지 않으나 그러나 노동 과정은 그것 없이는 전연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밖에는 진행되지 못한다. 이러한 종류의 보편적인 노동 수단은 역시 토지 그 자체이다. 왜냐 하면 토지는 노동자에게는 설 장소를 제공하며 또 그의 노동 과정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노동 수단중 이미 노동 과정을 통과한 것을 실패로 든다면 노동용 건물, 운하, 도로 등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노동 과정에서 인간 활동은 노동 수단을 통하여 노동 대상에, 미리부터 기도하고 있던 변화를 일으킨다. 노동 과정은 생산물의 출현으로써 소멸된다. 노동 과정의 생산물은 하나의 사용 가치이며 형태 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된 하나의 자연 물체이다. 노동은 노동 대상과 결합되었다. 노동은 대상화되었고 대상은 가공되었다. 노동자측에서는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생산물 측에서는 정지된 속성으로서 즉 존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자는 방적 로동을 했고 그 생산물은 방사이다.

만약 전체 과정을 그 결과인 생산물의 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양자는 생산 수단⁶으로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⁷으로서 나타난다.

6 때론대 아직 잡히지 않은 물'고기를 고기잡이를 위한 생산 수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역설(逆說)인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물'고기를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물 속에서 잡는 기술은 이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7 생산적 노동의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 노동 과정의 립'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 보아서는 전연 불충분한 것이다.

어떤 사용 가치는 생산물의 형태로서 노동 과정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의 노동 과정의 생산물인 다른 어떤 사용 가치는 생산 수단으로서 노동 과정에 들어 간다. 어떤 노동 과정의 생산물인, 동일한 사용 가치가 다른 어떤 노동 과정의 생산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비단 노동 과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 과정의 조건이기도 하다.

채광(採鑛), 수렵, 어렵 (농업은 처음으로 치녀지 그 자체를 개간하는 한에 있어서만) 등등과 같은, 자기의 노동 대상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채취(採取) 산업을 제외한다면 모든 산업 부문은 원료, 다시 말하면 노동 과정에 의하여 한번 더과된, 그 자체가 벌써 노동 생산물인 그러한 대상을 취급한다. 레컨대 농업에 있어서의 종자가 그러한 것이다. 보통 자연의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동물과 식물도 실은 비단 전년도(前年度)의 노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현재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간의 통제하에 인간의 노동을 매개로 하여 계속 수행된 변형의 산물이다. 그리고 특히 노동 수단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매다수는 가장 피상적인 관찰자의 눈에도 과거 노동의 흔적을 보이며 준다.

원료는 생산물의 주요 실체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또는 오직 보조 재료로서 그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할 수도 있다. 보조 재료는 레컨대 석탄이 증기 기관에 의해서, 기름이 차륜에 의해서, 건조(乾草)가 역마(役馬)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과 같이 노동 수단에 의해서 소비되며, 혹은 레컨대 염소(鹽素)가 바래우지 않은 아마포에, 석탄이 철에, 물'감이 양모(羊毛)에 부가되는 것과 같이 원료에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원료에 부가되며 혹은 또 레컨대 작업 현장의 조명과 난방에 사용되는 재료와 같이 노동 그 자체의 수행을 방조한다. 주 재료와 보조 재료간의 구별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화학 공업에서는 소멸된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사용된 원료가 생

산물의 실체로서 재현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⁸.

매개의 물건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양 각색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까닭에 동일한 생산물이 아주 관이한 노동 과정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 폐컨대 곡물은 제분업자, 풀 제조업자, 양조업자, 목축업자 등등의 원료로 된다. 그것은 중자로서는 자신을 생산하는 원료로 된다. 마찬가지로 석탄은 생산물로서 광산업으로부터 나와 생산 수단으로서 광산업에 들어 간다.

동일한 생산물이 동일한 노동 과정에서 노동 수단 겸 원료로 쓰일 수 있다. 폐컨대 가축을 비육할 때 가축은 가공을 받는 원료인 동시에 비로 제조의 수단이다.

소비를 위하여 준비된 형태에 있는 어떤 생산물이 또 다시 어떤 다른 생산물의 원료로 될 수 있다. 폐컨대 포도가 포도주의 원료로 될 때 그러하다. 혹은 또 노동은 그 생산물을, 원료 이외로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남겨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료, 폐컨대 면화, 실, 방사 같은 것을 반제품이라고 칭하는데 중간 제품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시초의 원료가 그 자신 벌써 생산물이기는 하나,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각이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그것은 이 여러 과정 속에서 항상 변화하는 형태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원료로서 기능하며, 드디어 최후의 노동 과정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생활 수단 또는 완성된 노동 수단의 형태로 되어 나온다.

- 8 슈트르호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원료를 <matière> 라고 칭하여 <matériaux> 라고 칭하는 보조 재료와 구별한다 [H. 슈트르호 《정치 경제학 강의》, 파리, 1815년, 제1권, 제2부, 제6장, 288페이지, 로썸야어 판, 웨트나드쓰끼, 감수 번역, 성 페제르부르그, 1881년, 129페이지 참조]. 세르볼리에는 보조 재료를 <matières instrumentales> 라고 칭하였다 [세르볼리에 《부와 빈곤》, 파리, 1841년, 14페이지].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용 가치가 원료로 되는가, 로동 수단으로 되는가 또는 생산물로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용 가치의 로동 과정에서의 특정 기능에, 즉 그것이 로동 과정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존하며 이 위치가 변하는 때 따라 위에서 말한 제 규정도 또한 변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생산 수단으로서 새로운 로동 과정에 들어 가면서 생산물이라는 성격을 상실한다. 생산물은 이 경우에 벌써 산 로동의 물질적 요인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방적공은 방추(紡錘)를 실 뽑는 수단으로만 간주하며, 아마는 실 뽑는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방적 재료와 방추가 없이는 물론 방적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산물들의 현존은 방적의 개시에 있어서 전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아마와 방추가 과거 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관심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영양 행위에 대하여서는 빵이 농민과 제분업자와 빵 제조업자 등등의 과거 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관심사가 아닌 것과 꼭 같다. 도리어 반대이다. 만약 생산 수단이 로동 과정에서 과거 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자기의 성격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다만 그 생산 수단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이다. 베여지지 않는 칼, 끊어지기만 하는 실 등등은 그 칼을 만든 사람 A와 그 실을 만든 B라는 사람을 생생하게 상기시킨다. 우수한 생산물에 있어서는 그 쓸모 있는 제 속성이 과거의 로동에 의하여 중개되었다는 사실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로동 과정에 쓰이지 않는 기계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 오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기계는, 자연적 물'질 대사의 파괴적 작용을 받는다. 철은 녹 쏘며 재목은 썩는다. 직포에도, 편직에도 리용되지 않는 면방사는 못 쓰게 된 솜인 것이다. 산 로동은 이 물건들을 붙잡아 그것들을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며 그것들을 단순한 기능적인 사용 가치로부터 현실적인, 작용하

는 사용 가치에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물건들은 로동의 회염(火焰)속에 끌려 들어가 로동의 육체로서 동화(同化)되며 로동 과정 내부에서 그것들의 리념과 직분에 합치하는 기능에 고무 추동되며, 어차피 소모되기는 하나 그러나 이러한 소모는, 생활 수단으로서 개인적 소비 분야로 들어 가든지 혹은 생산 수단으로서 새로운 로동 과정에로 들어 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용 가치,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 요소로서의 합목적적인 소모인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현존하는 생산물이 비단 로동 과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 로동 과정의 존재 조건이기도 하다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 그 생산물의 로동 과정에로의 투입, 즉 그 생산물의 산 로동과의 접촉은 과거 로동의 이 생산물을 사용 가치로서 유지하며 실현하기 위한 유일의 수단으로 된다.

로동은 그 물재적 요소인 로동 대상과 로동 수단을 소비하며 그것들을 먹어 버린다. 그런 까닭에 로동은 소비 과정이다. 이러한 생산적 소비가 개인적 소비와 구별되는 점은, 개인적 소비에 있어서는 생산물이 산 개인의 생활 수단으로서 소모되며, 생산적 소비에 있어서는 그것이 로동의, 즉 활동하고 있는 그의 로동력의 생활 수단으로서 소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소비에 의한 생산물은 소비자 그 자체이고 생산적 소비의 결과는 소비자와는 구별되는 생산물이다.

로동은,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 그 자체가 벌써 생산물인 한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물을 소비한다. 즉 생산물의 생산 수단으로서 생산물을 리용한다. 그러나 로동 과정이 제일 처음에는 오직 인간과 그의 협력 없이 존재하는 토지와와의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의연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즉 자연 물재와 인간 로동의 결합이 아닌 그러한 생산 수단이 로동 과정에서 쓰이고 있다.

우리가 그 간단한 추상적 제 제기에 있어서 서술한 로동

과정은, 사용 가치의 생산을 위한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망을 위한 기존 자연물의 점유이며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 대사의 일반적 조건이며 인간 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 생활의 어떠한 형태로부러도 독립되어 있으며 오히려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동일하게 공통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의 인간과 그 노동,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자연과 그 물재, 이것만으로 충분하였다. 소맥의 맛을 보더라도 그 소맥을 누가 경작하였는가를 알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노동 과정을 보기만 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가, 즉 노예 감시인의 잔인한 제책 밑에서인가 또는 자본가의 주의 깊은 눈초리 밑에서인가 혹은 썬넨나루스가 그의 약간의 발뺨기의 경작에 있어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돌로써 야수를 죽이는 야만인이 이 과정을 수행하는가⁹ 하는 것은 알 도리가 없다.

우리의 장래 자본가 한테로 돌아 가자. 우리는 그가 상품 시장에서 노동 과정에 필요한 일체 요소 즉 물'적 요소인 생산 수단과 인'적 요소인 노동력을 구매한 뒤에 그와 작별하였던 것이다. 그는 전문가다운 약바른 눈초리로 방적업, 제화업 등등과 같은 그의 특수한 기업에 알맞는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골라냈다. 그리하여 우리 자본가는 그가 구매한 상품인 노동력을

9 이 비사상히 논리적인 근거 위에서 로렌츠 대화는 야만인의 물에서 자본의 기원을 발견하고 있다. 《야만인이 자기가 추적(追跡)하는 야수를 향해서 던지는 최초의 돌맹이에서와 그가 손이 닿지 않는 과실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손에 쥐는 최초의 몽둥이에서 우리는 다른 물품을 획득할 목적을 가지는 어떤 물품의 점유를 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기원을 발견한다》(R: 로렌츠 《부의 생산에 관한 문헌》, 70, 71페이지). 영어로 stock (몽둥이) 라는 말이 자본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리유까지도 아마 위에서 말한 최초의 몽둥이로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소비하는 데 착수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노동력의 담당자인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 수단을 소비하게 한다. 노동 과정의 일반적 성격은, 노동자가 노동 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본가를 위해서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물론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장화를 제조한다는 지 실을 뽑는다든지 하는 일정한 방식도 역시 자본가가 개재하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변화될 수 없다. 자본가는 우선은 그가 시장에서 발견하는 그대로의 노동력을, 따라서 아직 자본가가 없었던 시대에 발견한 그대로의 노동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이 자본에 종속된 결과로서의, 생산 방식 그 자체의 변화는 후일에야 비로소 일어 날 수 있으며 또 그런 까닭에 후에 가서야 비로소 고찰될 것이다.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 과정으로서 진행되는 노동 과정은 두개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여 준다.

노동자는 그의 노동이 속하는 자본가의 통제 밑에서' 노동한다. 자본가는 노동이 질서 정연하게 수행되도록, 생산 수단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리하여 원료가 낭비되지 않으며 노동 도구가 신중하게 취급되도록, 다시 말하면 작업에서 그것들이 사용될 때에 도저히 피치 못할 정도 이상으로는 조금도 파손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물이고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본가는 레컨때 노동력의 1일분 가치를 지불한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사용은 온갖 다른 상품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레컨때 1일간 샀내온 말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그 1일간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상품의 사용은 상품의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자기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은 그에 의하여 판매된 사용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자본가의 작업 장소에 들어 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노동력의 사용 가치, 다시 말하면 그의 노동력

의 사용인 노동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에 의하여 노동 그 자체를 산 효모로서 역시 그에게 속하는 생산물의 죽은 제 구성 요소와 결합시켰다. 그의 립'장에서 본다면 노동 과정은 그에 의하여 구매된 상품인 노동력의 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노동력에 생산 수단을 부가함으로써만 노동력을 소비할 수 있다. 노동 과정은 자본가가 구매한 물건들 상호간의, 즉 그에 속하는 물건들 상호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생산물은 마치 그의 포도주 움 속에서의 발효(醱酵) 과정의 생산물이 그에게 속하는 것과 꼭 같이 그에게 속한다¹⁰.

제 2 절 가치 증식 과정

생산물——자본가의 소유물——은 방사, 장화 등등과 같은 일정한 사용 가치이다. 그러나 비록 레컨대 장화가 어떤 의미

10 《생산물은 그것이 자본으로 전락되기 이전에 점유된다. 이 전하는 생산물을 그와 같은 점유로부터 떼어 내지는 못한다》(셰르블리에 《부와 빈곤》, 파리 1841년, 53, 54페이지). 《프로테타리아는 그의 노동을 일정량의 생활 수단을 목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생산물에 대한 어떠한 몫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생산물의 점유는 의연히 이전과 같다. 그것은 상술한바 계약에 의해서는 조금도 변경을 받지 않는다. 생산물은 원료와 생활 수단을 제공한 자본가에게 전'적으로 속한다. 이것은 이와 반대로 매개 노동자가 자기 생산물에 대하여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던 점유 법칙의 엄격한 귀결이다 (동상서, 58페이지). 《노동자가 로임을 위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는…… 자본가는 비단 자본 {여기서는 생산 수단의 의미이다}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만약 보통 하는 것과 같이 로임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을 자본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노동을 자본으로부터 분리시켜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이라는 용어는 자본과 노동의 양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런던, 1821년, 70, 71페이지).

에서 사회적 진보의 기초로 되며, 그리고 우리의 자본가는 결정적인 진보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는 장화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제조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치는 상품 생산하에서는 도대체 《그 자체가 사랑 받는》 물건은 아니다. 사용 가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것이 교환 가치의 물질적 기체 즉 담당자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만 또 그한에 있어서만 생산된다. 그리하여 우리 자본가가 념두에 두는 것은 다음의 두점이다. 첫째로 그는 교환 가치를 가지는 사용 가치, 즉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품인 상품을 생산하려고 원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그 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총액보다, 즉 그가 상품 시장에서 자기의 귀중한 화폐를 선대하고 입수하여 온 생산 수단과 로동력의 가치 총액보다 그 가치가 더 큰 상품을 생산하려고 원한다. 그는 비단 사용가치일 뿐만 아니라 상품을, 비단 사용 가치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또 비단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를 생산하려고 원한다.

사실, 여기서는 상품 생산이 문제로 되는 만큼 이때까지 우리는 과정의 일 측면만을 고찰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상품 그 자체가 사용 가치와 가치의 통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생산 과정도 반드시 로동 과정과 가치 창조 과정의 통일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생산 과정을 또한 가치 창조 과정으로서도 고찰하여 보자.

우리는 매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 가치에 물체화되어 있는 로동의 분량에 의하여,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 자본가가 취득한 생산물에도 타당한다. 따라서 우선 이 생산물 속에 물체화되어 있는 로동을 계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생산물을 떼किन대 면방사라고 하자.

면방사의 생산에는 우선 해당하는 원료, 레컨대 10파운드
의 면화가 필요하다. 이 면화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여기서 세
삼스럽게 따져 볼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자본가는 시장에서
그것을 그 가치대로 레컨대 10셸링에 구매하여 왔기 때문이다.
면화의 가격에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벌써 일반적 사회적
노동으로서 표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면화의 가공에
소모된 방추량이 사용된 다른 모든 노동 수단을 대표한다고 가
정하고 그것이 2셸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자. 약 12셸링의 금
량이 24 노동 시간 즉 2 노동일의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우선
면방사에는 2 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는 셈이 된다.

우리는 면화가 자기의 형태를 변화하였으며 방추의 소비된
부분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착
오에 빠져서는 안된다. 레컨대 만약 40파운드의 면방사의 가
치 = 40파운드의 면화의 가치 + 온근 한개의 방추의 가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이 방정식의 양변을 생산하는데 동일
한 노동 시간이 요구된다면 일반적 가치 법칙에 따라 10파운드
의 면방사는 10파운드의 면화 및 $\frac{1}{4}$ 방추의 등'가물로 된다.
이 경우에 동일한 노동 시간이 한편에서는 면방사라는 사용 가
치로써 표현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면화와 방추라는 사용 가
치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가치로 보아서는 그것이 면방사로서
나타나든지 방추 혹은 면화로서 나타나든지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방추와 면화가 조용하게 나란히 놓여 있지 않고 방적
과정에서 결합됨으로써 그것들의 사용 형태가 변화되어 면방사
로 전화한다는 사정은, 그것들이 단순 교환을 통하여 면방사라
는 등'가물로 대체되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가치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면화를 원료로 하는 면
방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일부분이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면방사에 포함되어 있다. 면화를 실로 뽑는 데 마멸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즉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한 분량의 방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¹¹.

그리하여 면방사의 가치, 즉 면방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면화 그 자체와 소모된 방추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면화와 방추로써 면방사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다양하고 특수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된 노동 과정들은, 이것을 하나의 동일한 노동 과정의 각이한 축차적 제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면방사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노동은 과거의 노동이다. 면방사를 형성하는 제 요소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벌써 오랜 이전에 지나갔고 그리하여 과거 완료(過去完了)에 속하는데 이에 반하여 최종 과정인 방직에 직접 사용된 노동은 현재에 가깝고 그리하여 현재 완료(現在完了)에 속한다는 사정은 전연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만약 한채의 집을 건축하는데 일정량의 노동, 예컨대 30일분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이 집에 체화된 노동 시간의 총량은, 제30일째의 노동이 제1일의 노동보다 29일 만큼 늦게야 생산에 들어 갔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또 그런고로 노동 재료와 노동 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은, 그것이 마치 방직의 형태로서 방직 과정에서 제1끝으로 첨가된 노동보다 얼마 전 단계에서 지출된 데 불과한 듯이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12셀링의 가격으로써 표현되는 면화 및 방추라는 생산 수단의 가치는 면방사라는 생산물의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다.

11 《비단 상품에 직접 사용된 노동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기구, 도구, 건물에 지출된 노동도 역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16페이지)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6년, 12페이지].

다만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면화와 방추는 실지 사용 가치의 생산에 이바지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들로부터 면방사가 제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로 보아서는 어떠한 사용 가치가 자기를 담당하는가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어떤 사용 가치가 가치를 담당해야 한다. 둘째로 오직 소여의 사회적 생산 조건하에서 필요한 노동 시간만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1파운드의 면방사를 뽑아 내는데 오직 1파운드의 면화만이 필요하다면 1파운드의 면방사를 형성하는 데는 오직 1파운드의 면화만이 소비되어야 한다. 방추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설혹 자본가가 망상을 일으켜 철제 방추 대신에 금제 방추를 사용한다 해도 면방사의 가치에는 의연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만이, 다시 말하면 철제 방추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만이 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생산 수단인 면화와 방추가 면방사의 가치의 얼마만큼한 부분을 형성하는가를 알고 있다. 그 부분은 12셸링에, 즉 2 노동일의 제화물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방적공 자신의 노동이 면화에 첨가하는 가치 부분이다.

우리는 이제는 이 로동을, 노동 과정을 고찰할 때와는 전연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는 면화를 면방사로 전화시키는 데 필요한 합목적적 활동이 문제로 되어 있었다.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이 합목적적일수록 면방사는 그만큼 더 좋을 것이다. 방적공의 노동은 다른 종류의 생산적 노동과는 특수하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방적공의 특수한 목적, 그의 작업의 특수한 방식, 그의 생산 수단의 특수한 성질, 그의 생산물의 특수한 사용 가치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발현되었다. 면화와 방추는 방적 노동에는 필요하나 그것들으로써 강선포(腔線砲)를 만들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방적공의 노동은 그것이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가치의 원천인 한에 있어서는 란코의 강선을 짜는 노동자의 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혹은 여기서 우리에게 더 비근한 것으로서 면방사의 생산 수단에 실현되어 있는 면화 재배자와 방추 제조자의 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오직 이 동일성 때문에 면화 재배와 방추 제조와 방적은 면방사의 가치라는 동일한 총가치의, 단순히 양적으로만 서로 구별되는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벌써 노동의 질, 즉 노동의 속성과 내용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노동의 양만이 문제로 된다. 이 양은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우리는 방적 노동이 단순 노동, 사회적 평균 노동이라고 가정한다. 후에 이르러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가정도 사태를 조금도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동은 부단히 활동의 형태로부터 존재의 형태로, 운동의 형태로부터 대상성의 형태로 이행한다. 한 시간의 종말에 이르러서 방적이라는 운동은 면방사의 일정량으로써 표현되며 따라서 1노동 시간이라는 일정 분량의 노동이 면화 측에 대상화된다. 우리가 1노동 시간, 즉 한 시간에 걸쳐서의 방적공의 생명력의 지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방적 노동은 여기에서는, 그것이 노동력의 지출인 한에 있어서만 의의가 있고 그것이 방적이라는 특수한 노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즉 면화의 면방사에서의 전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만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표준적인 즉 평균적인 사회적 생산 조건 밑에서 1노동 시간에 a 파운드의 면화가 b 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되어야 한다면 $12 \times a$ 파운드의 면화를 $12 \times b$ 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시키는 그러한 노동일만이 12시간 노동일로서 동용

된다. 왜냐 하면 오직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만이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산에 들어 가기 때문이다.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원료와 생산물도 또한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 과정의 립'장에서 볼 때와는 전연 다른 광경을 보이여 준다. 원료는 이 경우에 오직 일정량의 노동의 흡수자(吸收者)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사실상 이 흡수의 결과에 원료는 면방사로로 전화된다. 왜냐 하면 노동력은 방적의 형태로써 지출되어 원료에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산물인 면방사는 이제는 오직 면화에 의하여 흡수된 노동의 계량기로서만 의의를 가진다. 만약 한 시간 동안에 $12\frac{2}{3}$ 파운드의 면화가 실로 뽑혀 그것이 $12\frac{2}{3}$ 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된다면 10파운드의 면방사는 흡수된 6노동 시간을 표시한다. 경험적으로 확정되는 일정량의 생산물은 이제 오직 일정한 노동량 즉 일정량의 응결된 노동 시간 이외의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노동의 1시간분, 2시간분, 1일분의 제화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 노동이 다름 아닌 방적 노동이고 그 노동의 재료가 면화이고 그 노동의 생산물이 면방사라는 사정은, 여기서 노동대상 그 자체가 벌써 생산물이고 따라서 원료라는 사정과 꼭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 만약 노동자가 방적 공장에서가 아니고 탄광에서 일한다면 그 노동 대상인 석탄은 자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층으로 부터 채굴해 낸 일정량의, 페컨대 1헨트메르의 석탄은 흡수된 노동의 일정량을 대표할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노동력의 판매를 고찰할 때 노동력의 1일분 가치=3셸링이고 이 3셸링 속에는 6노동 시간이 체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노동량은 노동자의 1일분 생활 수단의 평균액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었다. 이제 만약 우리의 방적공이 1노동 시간 동안에 $12\frac{2}{3}$ 파운드의 면화를 $12\frac{2}{3}$ 파운

드의 면방사¹²로 전화시킨다면 6시간에는 10파운드의 면화를 10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면화는 방적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6로동 시간을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6로동 시간은 3셸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이 면화에는 다름 아닌 방적에 의하여 3셸링의 가치가 첨부된다.

이제 우리는 이 10파운드의 면방사라는 생산물의 총가치를 검토하자. 그 속에는 $2\frac{1}{2}$ 의 로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다. 즉 2로동일은 면화와 방추 속에 포함되어 있고 $1\frac{1}{2}$ 로동일은 방적 과정 진행중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로동 시간은 15셸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10파운드의 면방사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15셸링이고 1파운드의 면방사의 가격은 1셸링 6펜스이다.

우리 자본가는 깜짝 놀란다. 생산물의 가치가 선대된 자본의 가치와 동일하다. 선대된 가치는 증가되지 않았고 잉여 가치는 생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았다. 10파운드의 면방사의 가격은 15셸링인데 상품 시장에서 15셸링이 이 생산물의 형성 제 요소에 대하여, 또는 같은 말이지만 로동 과정의 제 요인에 대하여 지출되었다. 즉 10셸링은 면화에, 2셸링은 방추의 소모된 분량에, 그리고 3 셸링은 로동력에 대하여 지출되었다. 면방사의 가치는 더 커졌지만 이것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왜냐 하면 면방사의 가치는 이전에 면화와 방추와 로동력 간에 배분되어 있던 가치의 총계에 불과하며, 기존 가치의 이러한 단순한 합계로부터는 잉여 가치가 결코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³. 이 모든 가치들이 이제

¹² 여기에서의 수'자는 전연 자의적(恣意的)인 것이다.

¹³ 이것은 일체의 비농업적 노동의 비생산성에 관한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의 토대로 되는 기본 명제이고 또 이것은 경제학자들——전문적인——에게는 흔박한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한 물건에, 다른 많은 물

는 한 물건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15셸링이라는 화폐액이 세계의 상품 구매에 의하여 분열되기 전에도 집중되어 15셸링의 화폐액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 그 자체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1파운드의 면방사의 가치는 1셸링 6펜스이다. 그러므로 10파운드의 면방사를 사자면 우리 자본가도 상품 시장에서 15셸링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자본가가 자신의 주택을 시장에서 기성 형태로 구입하든 혹은 자신이 그것을 사람을 시켜 신축하든 이 두 경우의 어느 쪽도 가옥의 획득에 지출되는 화폐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속류 경제학에 통달하고 있는 자본가는 아마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들려는 의도로 선택하였다고.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향한 의도로써 포장되어 있는지라, 바로 그와 같이 그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돈벌이를 할 의도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는 위협적으로 말한다. 다시는 머저리 노릇을 안 하겠다. 앞으로는 상품을 자신이 제조하지 말고 시장에서 기성품을 사겠다고. 그러나 만약 그의 친구 자본가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시장에서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화폐를 먹을 수는

건들의 가치를 가하는 (베컨데 아마포에, 직조공이 소비하는 물품들의 가치를 가하는) 이 방법, 즉 이물테면, 하나의 가치 위에 몇개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이 방법은 그 하나의 가치를 그만큼 증대시킨다……가한다는 용어는 노동 생산물의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다. 이 가격은 소비되었고 합산된 많은 가치들의 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합산은 증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메트제 드 락 티베르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메트 편찬 《중농주의자》, 제2부, 599페이지).

14 그리하여 베컨데 자본가는 1844—1847년간에 자기 자본의 일부분을 생산 사업으로부터 끌어 내어 그것을 철도 주권(株券)의 무기로써 탐진하여 버렸다. 또 아메리카 공민 전쟁시에 자본가는 리버풀 면화 취인소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공장을 폐쇄하였고 공장 노동자들도 가루로 죽을하였다.

없다. 그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나의 절욕(節慾)을 고택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15필링을 허투루 써 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소비하여 그것으로써 면방사를 만들어 냈다라고. 그러나 그는 그 때'가로 이제는 망심의 가책 대신에 면방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이전에 금전 퇴장자가 한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욕(禁慾)의 소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금전 퇴장자가 우리에게 보이여 준 바이다. 그 밖에 또 아무 것도 없는 데서는 황제라도 권리를 상실하는 법이다. 그의 금욕의 공적이 어떠한 그 때'가를 특별히 치를만한 밀천이 도대체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의 가치는 오직 이 과정에 투입된 상품 가치의 총량과 동일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덕(德)이 덕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대신에 자본가는 더 집요하게 주장한다. 면방사는 나에게서 소용이 없다. 나는 그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였다고.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팔면 될 것이며, 혹은 더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그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만을 생산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의 가정 의사 맥키록크가 벌써 파임 생산이라는 류행병에 대한 특효약으로서 그에게 써 준 처방(處方)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완강하게 더 주장한다. 노동자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자기의 손만으로 노동 생산물을 창조해 내며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 나 자신은 노동자에게 그 속에서만 그리고 그것으로서만 자기의 모동을 체화시킬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회의 대부분은 그러한 적빈자(赤貧者)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산 수단, 즉 나의 면화와 나의 방추로써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위에 또 내가 생활 수단까지도 제공하여 준 노동자 그 자신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공헌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이 공헌을 제산에 넣어서는

안되는가? 라고. 그러나 노동자도 또한 그에 대하여 면화와 방추를 면방사에 전화시켰다는 대등한 공헌을 하지 않았는가? 그 위에 또 여기서 문제는 공헌에 있는 것이 아니다¹⁵. 공헌이라는 것은, 상품이든 노동이든 간에, 어떤 사용 가치의 유용한 작용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¹⁶.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 가치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3셸링의 가치를 지불하였다. 노동자는 면화에 첨가된 3셸링의 가치로써 그에게 정확한 등'가물을, 즉 가치에 대하여 가치를 반환하였다. 금방 것처럼 자본을 가지고 뽐내던 우리의 친구는 이제는 돌연히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 모양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한다. 나 자신도 일하지 않았는가? 방적공을 감시하며 감독하는 노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이러한 노동도 역시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가? 라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감독과 지배인은 눈'살을 찌

15 《뽐내타, 단장하타, 분식하타……그러나 더 많이 또는 더 좋은 것 (준 것에 비하여)을 취하는 자는 고리 대금업자이다. 그런 자는 절도나 강도가 하듯이 자기의 이웃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 세상에서 이바지와 선행이라고 칭하는 것이 모두가 반드시 이웃사람에 대한 이바지와 선행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잔류(蠶通)하는 남녀는 상호간에서 대단한 이바지와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기사(騎士)는 살인 방화자들에게, 그들이 길'가에서 탁탈하며 나라와 인민들을 박해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커다란 이바지를 한다. 로마 교도들은 전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며 불태워 죽이며 학살하며 옥사(獄死)하게 하지는 않고 그때도 사람을 얼마간은 살려 두고 주방 혹은 소유물의 박탈만을 한다는 것으로써 우리들에게 커다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악마까지도 자기에게 복무하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이바지를 한다. ……요컨대 이 세상에는 커다란 훌륭한 일상적인 이바지와 선행이 가득 차 있다》(마르틴 루테르 《고리 대금을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들에게 줄》, 뮌헨베르그, 1540년, [8—9페이지]).¹⁵

16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정치 경제학 비판》, 14페이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바지〉(service)라는 범주가 J. B. 세이 및 F. 바스찌아와 같은 종류의 경제학자들에게 어떠한 〈이바지〉문해야 할 것인가는 알만한 일이다》(K. 맑스, F. 엥겔스 전집, 1953년 판, 제12권, 제1부, 23페이지).

푸린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명량한 미소를 띠우면서 본래 표정으로 돌아가 말한다. 내가 지금 역정 내서 말한 것은 모두 통답이다. 그런 말은 한푼어치 가치도 없다. 나는 이따위 쓸데 없는 구실이나 공담은 그것을 위하여 일부러 고용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학 교수에게 일임한다. 나 자신은 실천가인 것만큼 사업의 범위 밖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생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업의 범위내에서 하는 일은 언제나 잘 알고 있다라고.

더 상세하게 고찰하여 보자. 노동력의 1일분 가치는 3셸링이었는데, 왜 3셸링이었던가 하면 노동력 그 자체에는 반(半) 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생산을 위하여 매일 요구되는 생활 수단의 가치는 반노동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력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과거 노동과 노동력이 제공할 수 있는 산 노동과는, 즉 노동력의 매일의 유지비와 노동력의 매일의 지출과는 두개의 전연 각이한 크기이다. 전자는 노동력의 교환 가치를 규정하며 후자는 노동력의 사용 가치를 형성한다. 노동자의 생활을 24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노동일이면 충분하다는 사정은 결코 노동자가 온 종일 노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와는 크기가 서로 같지 않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가치의 이와 같은 차이를 녀두에 두고 있었다. 면방사 또는 장화를 제조한다는 노동력의 유용직 속성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오직 그 이유로서만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가치의 원천으로, 그나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으로 된다는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 가치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가 이 상품에 기대하는 특수한 봉사인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에 있어서 상품 교환의 영원한 법

칙에 따라 행동한다. 실제로 있어서 노동력의 판매자는 온갖 다른 상품의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교환 가치를 실현시키며 그 사용 가치를 양도한다. 그는 후자를 내어 주지 않고서는 전자를 받을 수 없다. 노동력의 사용 가치인 노동 그 자체는 판매된 기름의 사용 가치가 기름 장수에게 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판매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화폐 소유자는 이미 노동력의 1일분 가치를 지불하였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1일간 사용 즉 1일분 노동은 그에게 속한다. 노동력을 1일간 유지하는 데 반노동일 밖에 필요치 않으며 이에 반하여 노동력은 온 종일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즉 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정, 따라서 노동력의 1일간 사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는 그 자신의 1일분 가치보다 2배의 크기라는 사정은 구매자에게는 특별한 행복으로 될지언정 판매자에 대한 어떠한 부정의로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자본가는 그로 하여금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이 사정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비단 6시간의 노동 과정에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12시간의 노동 과정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발견한다. 만약 10파운드의 면화가 6로동 시간을 흡수하여 10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된다면 20파운드의 면화는 12로동 시간을 흡수하여 20파운드의 면방사로 전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연장된 노동 과정의 생산물을 교차하여 보자. 이 20파운드의 면방사에 이제 6로동일이 물화되어 있다. 즉 4로동일은 소비된 양의 면화와 방추 속에 물화되어 있었고 1로동일은 방적 과정의 진행중에 면화에 의하여 흡수되었다. 그러면 5로동일의 화폐적 표현은 30셸링 즉 1파운드 스털링 10셸링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 20파운드의 면방사의 가격이다. 1파운드의 면방사의 가치는 전과 같이 1셸링 6펜스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적 과정에 투입된 상품들의 가치 총액은 27셸링이다. 면방사의 가치는 30셸링에 달한다. 생

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에 선행된 가치보다 $\frac{1}{3}$ 만큼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7셀링은 30셀링으로 전화하였다. 그것은 3셀링의 잉여 가치를 가져 왔다. 요술(妖術)은 드디어 성공하였다.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되었다.

문제의 모든 조건은 해결되었으며 상품 교환 법칙은 조금도 위반되지 않았다. 등'가물이 등'가물과 교환되었다. 자본가는 구매자로서 면화, 방추, 로동력이라는 매개 상품에 대하여 그 가치대로 지불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매개의 상품 구매자가 하는 일을 하였다. 즉 그는 그것들의 사용 가치를 소비하였다. 동시에 상품의 생산 과정이기도 한, 로동력의 소비 과정은 30셀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파운드의 면방사라는 생산물을 산출하였다. 자본가는 이전에 상품을 구매하던 그 시장으로 돌아 가서 이제는 상품을 판매한다. 그는 면방사를 1파운드당 1셀링 6펜스에 판매하는데 이것은 한푼도 그 가치 이상이나 이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류통으로부터, 처음에 류통에 투입한 것보다 3셀링만큼 더 많이 고집어 낸다. 그의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라는 이 전체 과정은 류통 분야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류통 분야 내부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류통을 매개로 하여 수행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상품 시장에서의 로동력의 구매에 의하여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류통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류통은 오직 생산 분야에서 일어나는 가치 증식 과정을 준비하여 주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능한 최선의 세계에서 만사는 최선의 상태에 있다>.

자본가는 화폐를, 새로운 생산물의 물'적 요소, 즉 로동 과정의 요인으로 쓰이는 상품들으로 전화시킴으로써, 그 상품들의 죽은 대상성에 산 로동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과거의 물화된 죽은 로동인 가치를 자본으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으로, 가

슴 속에 애욕(愛慾)을 품은 듯이 《일하기》 시작하는 환기면 괴물(怪物)에로 전화시킨다.

이제 만약 우리가 가치 형성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과를 비교한다면 가치 증식 과정은 일정점 이상에까지 연장된 가치 형성 과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 만약 가치 형성 과정이, 자본에 의하여 지불된 로동력의 가치가 새로운 등'가물에 의하여 보상(補償)되는 그 점까지 밖에 계속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치 형성 과정일 것이다. 만약 가치 형성 과정이 이 점을 넘어서 계속된다면 그것은 가치 증식 과정으로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가치 형성 과정을 로동 과정과 비교한다면, 로동 과정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유용 로동으로써 구성되여 있다. 여기에서는 운동은 질'적으로, 즉 그것의 특수한 방식과 목적과 내용의 방면으로부터 고찰된다. 가치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이 동일한 로동 과정이 오직 양'적 방면으로부터만 표현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로동이 그 작업상 필요로 하는 시간, 즉 로동력이 유용하게 지출되는 계속 기간 만이다. 여기에서는 로동 과정에 들어 오는 상품들도 역시,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로동력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물'적 요인들로서는 벌써 의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대상화된 로동의 일정 분량으로서 계산될 뿐이다. 로동은, 생산 수단 속에 들어 있는 것이거나 로동력에 의하여 첨가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오직 시간의 척도에 의해서만 계산된다. 그것은 몇 시간분, 몇 날분 등등이다.

그러나 로동은 사용 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 한에 있어서만 계산에 들어 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여 준다. 로동력은 반드시 표준적 조건 하에서 기능해야 한다. 만약 방적 기계가 방적업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생산 수단으로 되어 있다면 로동

자에게 물레를 쥐여 주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는 면화를 받을 대신에 매 순간마다 끊어지는 부스러기 솜을 받아서는 안된다. 양자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노동자는 1파운드의 면방사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이상을 들이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 여분의 시간은 가치 또는 화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물질적 제 요인의 표준적 성격은 노동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본가에게 의존한다. 또 하나의 조건은 노동력 그 자체의 표준적 성격이다. 노동력은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에 있어서, 지배적인 평균 정도의 숙련과 기능과 민첩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 시장에서 표준적 품질의 노동력을 구매하였다. 이 노동력은 보통의 평균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보통 정도의 강도(強度)를 가지고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는 이 점이 리행되도록 그리고 또 노동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시한다. 그는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부터 구매하였다. 그는 자기 것을 확보하려고 애쓴다. 그는 도적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 끝으로——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자본가 나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형법을 가지고 있다——원료와 노동 수단의 합목적적이 아닌 소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랑비된 재료나 노동 수단은 물화된 노동의, 파도도 지출된 분량을 표시하며, 따라서 그것은 계산에 들어 가지 않으며, 생산물의 가치 형성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⁷.

17 이것은 노예 제도에 기초를 둔 생산을 비싸게 하는 사정의 하나이다. 노예 제도에에서는 노동자는 고대인의 적절한 표현에 의하면 오직 말하는 도구로서만 절반 말하는 도구로서의 동물 및 말 못 하는 도구로서의 무생물 노동 도구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자신은 동물 및 노동 도구를 사용할 때 자기는 그것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들에게 느끼게 한다. 그는 그것들을 학대하며 또 폐질을 가지고 그것들을 못 쓰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그것들과는

사용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 있어서의 노동과,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 있어서의 그 동일한 노동간의 구별은 벌써 이전의 상품 분석이 보이여 준 바이지만, 이 차이는 이제는 보는 바와 같이 생산 과정의 ³각이한 두 측면의 구별로 나타난다.

다르다는 자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조잡하고, 가장 둔중한 노동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원칙으로 되는바, 대체 이러한 노동 도구는 바로 그 조잡성과 둔중성 때문에 못 쓰게 만듦이 어렵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가 있는 멕시코 만(灣) 연안의 제 주에서는 공민 전쟁의 개시 전까지 고대 중국식 구조를 가진 보습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산'패지와 두더지 모양으로 땅을 파 헤치기는 하나 고랑을 치며 땅을 파 뒤집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J. E. 케안즈 《노예의 힘》, 런던, 1862년, 48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윌슨스페드는 자기의 저서 《연안 노예 제주》에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나라에서라면 건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삼으로 일시키는 노동자에게 내어 줄 수 없는 그러한 도구들, 즉 노동자의 능률을 해할 그러한 도구들을 보았다. 그것들의 엄청난 중량과 둔중성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도구에 비하여 적어도 10퍼센트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노예들이 반드시 한다고 보아야 할 그러한 부주의와 졸렬한 취급 방식 밑에서는 더 가볍고 정교한 도구들 노예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이 아니라는 사실 및 우리가 우리의 노동자들에게 할 주고 있는, 또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리득을 보는 그러한 도구는 버지니아의 곡물 밭에서는, 비록 그 토지가 우리 나라 밭에 비해서 더 연하고 물이 적기는 하지만 아마 하루 동안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또 나는 어째서 농장에서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노새가 사용되는가 하고 질문하였는데 그 첫째의, 그리고 분명히 가장 결정적인 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말은 그것이 흑인족으로부터 항상 당해야 하는 그러한 취급에는 견디며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은 언제나 흑인에 의하여 속히 절름바리로 되며 또는 병신으로 되는데, 이에 반하여 노새는 매질에도 견디며 가끔 한끼 두끼 굶어도 이로 인해서 치명적인 해는 입지 않으며 또 설사 물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거나 혹은 좀 파도끼 부러도 감기들거나 병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글 쓰고 있는 이 방의 창문에서 내다 보기만 해도 나는, 거의 매번이나 다름 없이, 북방에서는 어떤 농장주라도 대개는 들림 없이 당장에 마부꾼 해고시키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가족의 취급 방식을 목격하게 된다》 [46, 47페이지].

로동 과정과 가치 형성 과정과의 통일로서는 생산 과정은 상품의 생산 과정이다. 로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과의 통일로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며 상품 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가치 증식 과정으로 보아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점유되는 로동이 단순한 사회적 평균 로동이든 또는 더 복잡한 로동 즉 더 높은 비중을 가지는 로동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사회적 평균 로동에 비하여 더 고급한 더 복잡한 로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로동은, 그것을 양성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며 그것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로동 시간이 드는 따라서 단순 로동력에 비하여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로동력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로동력의 가치가 더 높다면 그것은 그 대신 더 고급한 로동으로 발현되며 동일한 시간내에 비교적 더 높은 가치에 물화된다. 그러나 방적 로동과 보석 세공 로동간의 등급의 차이가 어떻든지 간에 보석 세공 로동자가 자기 자신의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데 지나지 않는 로동 부분은 그가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추가 로동 부분과 질'적으로는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잉여 가치는 오직 로동의 양'적 초과에 의해서만 동일한 로동 과정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방사의 생산 과정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보석의 생산 과정의——시간적 연장에 의해서만 생겨나온다¹⁸.

18 복잡 로동과 단순 로동간의 차이, 《속된 로동》과 《미속된 로동》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환상에 입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미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전통적인 관습으로서만 계속 존재하는 그러한 차이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또 부분적으로는 로동 계급중의 어떤 층이 다른 층과 같이 자기의 로동력에 대하여 그 가치대로 지불할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처하여 있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이 구별에 있어서는 우연적 사정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며 그리하여 동일한 종류의 로동들이 위치를 전도하는 경우까

다른 한편 매개의 가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메컨데 고급 노동 1일은 단순 노동 X일에 환원되 듯이 고급 노동은 항상 사회적 평균 노동에 환원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⁹. 따라서 자본에 의하여 사용되는 노동자가 단순한 사회적 평균 노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면 무용한 제산이 생략되며 분석이 간단하게 될 것이다.

지 생겨 난다. 메컨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 계급의 체력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피폐된 곳에서는 근육의 힘이 더 요구되는 거칠은 노동이 도리어 일반적으로 더 고급한 등급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반하여 많은 더 정밀한 노동이 단순 노동의 등급으로 전락하게 된다. 메컨데 영국에 있어서는 벽돌공의 노동이 농작 직조공의 노동보다 훨씬 더 고급한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면 비로우드 전모공(剪毛工)의 노동은 비록 그것이 많은 육체적 긴장을 요구하며 그 위에 또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단순> 노동으로서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소위 <숙련 노동>이 국민의 노동 가운데서 광'적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메이의 계산에 의하면 잉글랜드(및 웨일스)에서 1,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단순 노동으로 살고 있다. 그의 저서가 발간되었을 당시의 인구 총수 1,800만중에서 100만의 귀족과 150만의 구혼 빈민, 부랑자, 범죄자, 매음부(賣淫婦) 등을 제외하면 465만의 중류 계급이 남는데 이 속에는 소금리(金利)생활자, 판리, 저술가, 예술가, 학파 교원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 465만을 끌어 내기 위하여 중류 계급의 근로자 부문에, 은행가 등등 이외에도, 고액의 임금을 받는 모든 <공장 노동자>를 산입(算入)하고 있다! 벽돌공까지도 <고급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그계제는 위에서 말한 1,100만이라는 것이 남게 된다 (S·메이 <국민적 재산>, 런던, 1844년, [51—52페이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보통의 노동 이외에는 제공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큰 계급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임스 밀, 논문 <식민지> 중의 1절, <영국 백과 사전> 추가판 1831년).

19 <가치의 척도로서의 노동을 말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다른 종류의 노동에 대한 그 노동의 비율은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다> (<정치 경제학 개론>, 런던, 1832년, 22, 23페이지).

제 6 장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로동 과정의 각이한 제 요인은 생산물의 가치 형성에 각이하게 참가한다.

로동자는 그의 로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과 기술적 성격 여하를 막론하고 로동 대상에 일정량의 로동을 첨가함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한다. 다른 한편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서 재현(再現)한다. 레컨대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면방사의 가치에 재현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됨으로써 보존된다. 이 이전은 생산 수단이 생산물로 전화되는 동안에, 즉 로동 과정에서 수행된다. 그것은 로동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러면 어떻게 매개되는가?

로동자는 동일한 시간에 이중으로 로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번은 자기의 로동으로써 면화에 가치를 첨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번은 면화의 낱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혹은 같은 말이지만 그가 가공하는 면화의 가치와 그의 로동 수단인 방추의 가치를 생산물인 면방사에 이전시키기 위하여 이중으로 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가치의 단순한 첨가만으로써 낱은 가치를 보존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로동 대상에 첨가하는 것과 생산물 속에 낱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비록 로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이중으로 로동하는 것은 아니나 한지라도, 동일한 시간에 로동자에 의하여 달성되는 두개의 전혀 각이한 결과인 까닭에 결과의 이 이중성은 분명히 그의

로동 그 자체의 이중성으로부터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의 로동은 동일한 시간내에 한 속성에 의하여서는 가치를 창조해야 하며 다른 한 속성에 의하여서는 가치를 보존하며 또는 이전시켜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매개 노동자는 로동 시간을, 따라서 또한 가치를 첨가하는가? 언제나 오직 자기의 독특한 생산적 로동 방식의 형태으로써이다. 방적공은 오직 실을 뽑음으로써만, 직조공은 오직 천을 짤으로써만, 단야공은 오직 쇠를 베틀함으로써만 로동 시간을 첨가한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일반적으로 로동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합목적적 형태를 통하여서만 즉 방적, 직조, 단야를 통하여 면화와 방추, 면방사와 직조기, 쇠와 단야대(台)라는 생산 수단은 생산물 즉 새로운 사용 가치의 창조를 위한 요소들로 된다²⁰. 그것들의 사용 가치의 낡은 형태는 소멸하나 그러나 그 결과 그것들은 사용 가치의 새로운 형태로 재현할 뿐이다. 그러나 가치 형성 과정의 고찰에서 벌써 관명된 것이지만 어떤 사용 가치가 새로운 사용 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소비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소비된 사용 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은 새로운 사용 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소비된 생산 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되는 로동 시간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 즉 그것을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으로서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것은 노동자가 로동 일반을 첨가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첨가 로동의 특수한 유용적 성격에 의하여 되는 것이며 특수한 생산적 형태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방적, 직조, 야장과 같은 그러한 합목적적 생산 활동으로서는 로동은 그 접촉만으로 생산 수단을 죽음으로부터 소

20 《로동은 그것에 의하여 소멸된 창조를 대신에 새로운 창조물을 제공한다》(《국민 경제학에 관한 문술》, 런던, 1821년, 13페이지).

생시키며 그것을 고무하여 노동 과정의 요인으로 전화시키며 그것과 결합되어 생산물로 된다.

만약, 노동자의 독특한 생산적 노동이 방적이 아니라면 그는 면화를 면방사에 전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면방사에 이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같은 그 노동자가 설사 직업을 전환하여 가구사(家具師)로 된다고 해도 그가 노동일로서 해당하는 원료에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의연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방적 노동 또는 가구사의 노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추상적 사회적 노동 일반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일정한 크기의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특수한 유용적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적공의 노동은,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의 그 추상적 일반적 속성에 있어서는 면화와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또 방적 과정으로서의 그 구체적 특수적 유용적 속성에 있어서는 생산물에 이 생산 수단들의 가치를 이전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생산물 속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내에 수행되는 노동의 결과의 이중성이 나온다.

노동의 단순한 양'적 첨가에 의해서는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며, 첨가되는 노동의 특수한 질에 의하여서는 생산 수단의 낡은 가치가 생산물 속에 보존된다. 노동의 이중적 성격의 결과로서의 동일한 노동의 이와 같은 양면적 작용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명백히 발로된다.

가령 어떠한 발명이 방적공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36시간 걸며 방적하던 만큼한 면화를 이제는 6시간에 실로 뽑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하자. 그의 노동은, 합목적적 유용적 생산 활동으로서는 그 힘이 6배로 증가되었다. 그의 생산물은 이전의 6배로 즉 6파운드가 아니고 36파운드의 면방사로 되었다. 그러

나 이 36파운드의 면화는 이제 는 이전에 6파운드의 면화가 흡수하였던 것과 같은 분량의 노동 시간을 흡수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6파운드의 면화에는 이전의 방법에 비하여 다만 6분의 1만의 새로운 로동이, 따라서 이전에 첨가되던 가치의 6분의 1만이 첨가된다. 다른 한편 이제 는 생산물인 36파운드의 면방사 속에는 6배의 면화 가치가 들어 있다. 이 방적 과정의 6시간 동안에는 6배 더 많은 원료 가치가 보존되어 생산물에 이전된다. 하기는 원료의 동일 분량에 대하여 이제 는 이전의 6분의 1만의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지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과정중에 로동이 가치를 보존하는 속성과, 가치를 창조하는 속성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보이여 준다. 방적 작업중에 소여의 분량의 면화에 들어 가는 필요 노동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화에 부과되는 새로운 가치는 그만큼 더 클 것이며 타면 동일 시간내에 실로 뽑히는 면화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물 속에 보존되는 남은 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반대로 방적 노동의 생산 능력이 변동하지 않고 따라서 방적 공은 1파운드의 면화를 면방사에로 전화시키는 데 이전과 같은 분량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면화 그 자체의 교환 가치는 변동하여 1파운드의 면화의 가격이 6배로 등귀하였거나 또는 6분의 1로 저락하였다고 하자. 양자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방적 공은 소여의 분량의 면화에 의연히 동일한 노동 시간을,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첨가할 것이며 또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는 동일 시간내에는 의연히 동일 분량의 면방사를 생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면화로부터 면방사라는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가치는 이전에 비하여, 한 경우에 있어서는 6배로 되며 다른 한 경우에 있어서는 6분의 1로 된다. 노동 수단이 고'가로 되거나 또는 렴'가로 되더라도 그것이 노동 과정에서 의연히 종전과 같은 봉사(奉仕)를 하는 경우

에 있어서도 사태는 이와 동일하다.

만약 방적 과정의 기술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고 그 생산수단의 가치에도 역시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방적공은 동일한 노동 시간내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동일 분량의 원료와 기계를 종전대로 소비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가 생산물 속에 보존하는 가치는 그가 첨가하는 새로운 가치에 정비례한다. 2주일간에는 그는 1주일간에 비하여 2배 더 많은 로동을 따라서 2배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며, 또 그와 동시에 2배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2배 더 많은 재료를 소비하며, 2배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2배 더 많은 기계를 소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2주일분의 생산물 속에는 1주일분의 생산물 속에 있어서보다 2배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한다. 소여의 불변적인 생산 조건 밑에서는 노동자는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한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그가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노동에는 의존하지 않는 불변적인 조건 하에서 가치를 첨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항상 그가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낡은 가치를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면화가 1셸링으로부터 2셸링으로 등귀하든지 혹은 6펜스로 저락하든지 간에 노동자는 한 시간분의 생산물 속에는 언제나, 면화 가치의 변동의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두 시간분의 생산물 속에 들어 있는 면화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화 가치만을 보존한다. 더 나아가 만약 노동자 그 자신의 노동의 생산 능력에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제고되든가 또는 저락된다면, 그는 폐전대 1노동 시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 면화를 실로 뽑을 것이며 또 이에 대응하여 1노동 시간의 생산물 속에는 면화의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 가치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2노동 시간에 있

어서는 1로동 시간에 있어서보다 2배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할 것이다.

가치는 가치 기호에 있어서의 그 순전히 상징적인 표현을 도외시한다면 오직 일정한 사용 가치 즉 일정한 물건 속에만 존재한다 (인간 그 자체는 단순한 로동력의 현실적 존재로서만 고찰할 때에는 하나의 자연물이고 비록 자기 의식이 있는 산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물건이고 그리고 로동 그 자체는 로동력의 물'적 발현이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가 상실되면 가치도 또한 상실된다. 그런데 생산 수단은 그 사용 가치가 상실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 수단은 로동 과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용 가치의 본래의 형태를 상실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은 그 후에 생산물에서 다른 사용 가치의 형태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가 어떠한 사용 가치의 형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치로 보아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사용 가치의 형태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상품의 형태 변화가 보이여 주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로동 과정에서 생산 수단이 자기의 독자적인 사용 가치와 함께 자기의 교환 가치까지도 상실하는 그만큼 가치가 생산 수단으로부터 생산물로 이행한다. 생산 수단은 그것이 생산 수단으로써 잃어 버리는 가치만을 생산물에 넘겨 준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로동 과정의 상이한 물질적 제 요인이 상이한 형편에 있다.

기계에 대해서는 석탄은 바퀴의 축에 바르는 기름 등등과 마찬가지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물'감 및 기타의 보조 재료도 사라져 없어지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들은 생산물의 속성으로 되어 나타난다. 원료는 생산물의 실체를 형성하나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형태를 변경시켜 버린다. 따라서 원료와 보조 재료는 그것들이 사용 가치로서 로동 과정에 들어 가는 당시의 독

자적인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 수단은 이와 다르다. 기구, 기계, 공장 건물, 용기(容器) 등등은 오직 그것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래일도 어제와 똑 같은 형태로 다시 노동 과정에 들어 갈 수 있는 때까지만 노동 과정에서 복무한다. 그것들은 그 생존중에 즉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후(死後)에도 또한 그 모습을 유지한다. 기계, 도구, 노동용 건물 등등의 시체는 그것들의 방조 밑에 형성된 생산물과는 별개로 의연히 계속 존재한다. 이제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노동 수단이 작업장에 들어간 날부터 폐물 창고 속으로 추방되는 날까지 복무한 그 전체 기간을 고찰한다면, 그것의 사용 가치는 이 기간에 노동에 의하여 완전히 소비되었고 따라서 그것의 교환 가치는 전적으로 생산물에 이전되었다. 레컨대 만약 방적 기계가 10 년간에 그 생애를 끝 마쳤다면 그것의 총가치는 10년간의 노동 과정에서 10년간의 생산물에서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노동 수단의 생존 기간은 그것을 가지고 부단히 새롭게 반복되는 노동 과정의 얼마만큼한 수를 포괄한다. 그리고 노동 수단은 인간과 비슷한 점이 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매일 24시간씩 손모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의 생명이 벌써 며칠간이나 줄었는가가 썩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 보험회사가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부터 아주 확실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유리한 결론을 끌어 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 수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노동 수단, 레컨대 어떤 종류의 기계가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험상 알려져 있다. 노동 수단의 사용 가치가 노동 과정에서 겨우 6일 동안만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 수단은 평균적으로 매 노동일 당 자기 사용 가치의 $\frac{1}{6}$ 을 상실하며 따라서 또

자기 가치의 $1/8$ 을 그날 그날의 생산물에 넘겨 준다. 모든 노동 수단의 마멸은, 따라서 폐쇄된 그 사용 가치의 매일의 상실 및 이에 대응하는, 생산물에서의 그 가치의 매일의 이동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로부터 완전히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생산 수단은 그것이 노동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의 소멸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이상의 가치를 결코 생산물에 넘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 수단이 잃어 버릴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생산 수단 그 자체가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넘겨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용 가치의 형성에는 봉사하나 교환 가치의 형성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협력 없이 천연적으로 현존하는 생산 수단 즉 토지, 바람, 물, 광맥 내부의 철, 원시림의 나무 등등은 모두 이러한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하나의 흥미 있는 현상에 부딪친다. 어떤 기계의 가치가 폐쇄된 1,000파운드 스털링이고 그것이 1,000일 동안에 소모되어 버린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계의 가치의 $1/1,000$ 이 매일 그 자신으로부터 그날 그날의 생산물에서 이행한다. 그와 동시에 노동 과정에서는 종체로서의 기계가, 비록 그 생명력은 점차로 감퇴된다 할지라도, 계속 작용한다. 이로부터 노동 과정의 한 요인인 동일한 생산 수단이, 노동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나 가치 증식 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간의 구별은 여기서 이 두 과정의 물질적 요인들에 반영된다. 왜냐 하면 동일한 생산 수단이 노동 과정의 요소로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생산 과정에 들어 가나 가치 형성 요소로서는 부분적으로만 계산에 들어 가기 때문이다²¹.

²¹ 여기에서는 기계, 건물 등등과 같은 노동 수단의 수선은 문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반대로 어떤 생산 수단은, 노동 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들어 가지만 가치 증식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가령 솜에서 실을 뽑을 때 115파운드의 면화로부터 매일 15파운드의 폐품이 생겨 나와 그것은 면방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직 리콜로만 된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15%의 폐품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즉 그것이 면화 가공의 평균 조건하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면방사의 요소를 형성하지 않는 이 15파운드의 면화의 가치도 면방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100파운드의 면화의 가치와 전

로 되지 않는다. 수선을 받는 기계는 노동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노동제로써 기능한다. 즉 그것으로써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사용가치를 보수하기 위하여 그 자체가 가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선 로동을 언제나 그 노동 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문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점차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모이며 《그때 그때 수선할 수 없는, 가령 칼이라면 결국 칼 수리공이 새 날을 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소모》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폐컨대 기계는 매개의 개별적 노동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나 그러나 그와 동시적인 가치 증식 과정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의 혼동을 적절히 펴'가할 수 있다. 《리카도 씨는 양말 제조기의 제작에 지출된 기계공의 노동의 일부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폐컨대 한켠의 양말의 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 한켠의 양말을 생산한 전체 노동 속에는…… 기계공의 노동의 일부분이 아니고 그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 하면 비록 한대의 기계는 여러 켠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단 한켠때도 기계의 전체 부분의 참가 없이는 제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특히 가치 및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약간의 이구(語句)상 논쟁에 관한 고찰》, 런던, 1821년, 54페이지). 대단히 자고자대하며 아는척하는 이 저자의 혼란과 또 따라서 그의 논쟁에서 어떤 정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리카도나 그 전후의 어떠한 경제학자도 노동의 두 측면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매우 가치 형성에 있어서의 이 두 측면의 각이한 역할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뿐이다.

연 마찬가지로 면방사의 가치 속에 들어 간다. 100파운드의 면방사를 만들기 위하여는 15파운드의 면화의 사용 가치가 폐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화의 사멸은 면방사의 하나의 생산 조건으로 된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것은 면방사에 자기의 가치를 넘겨 준다. 이것은 로동 과정의 모든 폐물에 타당한다. 적어도 이 폐물이 다시 새로운 생산 수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독립적인 사용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레컨대 만체스터의 대기계 제작 공장에서는 거대한 기계에 의하여 대패밥 모양으로 깎기운 쇠부스터기의 산더미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녁 때에는 큰 달구지에 실리어 공장으로부터 제철소로 이송되어 다음 날에는 대량의 철 덩치로 되어서 제철소로부터 다시 공장에 돌아 온다.

생산 수단은 로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낡은 사용가치의 형태로 존재하던 가치를 상실하는 한에 있어서만 생산물의 새로운 형태에 가치를 이전한다. 생산 수단이 로동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가치 상실의 최대한은 그것이 로동 과정에 들어 갈 당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량,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산 수단은 자신이 복무하는 로동 과정과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물에 부가할 수는 도저히 없다. 어떤 로동 재료, 어떤 기계, 어떤 생산 수단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가치가 150파운드 스털링에, 이를테면 500 로동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복무에 의하여 형성되는 그 생산물 전체에 150파운드 스털링 이상을 첨가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 수단으로서 들어 가는 그 로동 과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물로서 물터 나오는 그 로동 과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 과정에서 그것은, 오직 사용 가치로서 즉 유용적 속성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복무할 뿐이

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이 과정에 들어 가기 전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물에 넘겨 주지 못할 것이다²².

생산적 노동이 생산 수단을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 요소에
로 전화시킬 때에 생산 수단의 가치에는 일종의 령혼 이주(移
住)가 일어난다. 생산 수단의 가치는 소모된 육체로부터 새
로 형성된 육체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이 령혼 이주는 이룰테
면 현실적 노동의 배후에서 일어난다. 노동자는 낡은 가치를

22 그러므로 로지, 도구, 피혁 등등의 생산 수단이 노동 과정에서
자기의 사용 가치로써 수행하는 그 《services productifs》[생산
적 봉사]로부터 잉여 가치(리자, 리윤, 지대)를 끌어 내려고 하는 어
리석은 J·B·셰이의 모든 황당 무계성은 가히 알만하다. 포환한 번
호몬적 외곡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록해 놓는 윌헬름 로쉴트 씨는 다음
과 같이 뵈친다. 《I·B·셰이가 《착유(搾油) 공장에 의하여, 모든 비
용을 공제한 후, 조성된 가치는 실은 어떤 새로운 가치이고 착유 공장
그 자체를 창설한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정치 경제학 개
론》, 제1권, 제4장)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국민 경제학의
기초》, 제3판, 1858년, 82페이지, 주). 지극히 정당하다! 착유 공장에
의하여 제조된 《기름》은 착유 공장의 건설에 지출된 노동과는 판이한
것이다. 그리고 로쉴트 씨는 《가치》라는 것을 《기름》과 같은 물건으로
비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름》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연 속에는》비교적 《대단히 많이》는 아니지만도 석유가 존재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의견을 말한다. 《그것(자
연!)은 교환 가치를 거의 전연 만들어 내지 않는다》[동상서 79페이지].
로쉴트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교환 가치와의 관계는 미숙한 처녀와 그가
날기는 했지만 《전연 작은 아이》와의 관계와 같다. 바로 이 《학자》는
우에서 말한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카도 학
파는 자본까지도 《저축된 노동》이라고 하여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잘못하다(!) 왜냐 하면(!) 사실(!)
자본의 소유자는(!) 어쨌든(!) 그것의(무엇의?) 단순한(!?) 생산
(?) 및(??) 유지 이상의 것(!)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 자신의 향락을 절제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 대신에 뵈킨대
(!!!) 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동상서) 단순한 《요구》로부터 《가치》
를 끌어 내는 정치 경제학의 이러한 《태부—생리학적 방법》이야말로 그
얼마나 《포포》한가?

보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로동을 첨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는 로동을 언제나 반드시 일정한 유용적 형태로 첨가해야 하는데, 그는 생산물들을 새로운 한 생산물의 생산 수단으로 전회시키지 않고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생산물들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키지 않고서는 로동을 유용적 형태로 첨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를 첨가함으로써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활용되고 있는 로동력, 즉 산 로동의 자연적 속성이며, 그것은 로동자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나 자본가에게는 기존 자본 가치의 보존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연적 선물이다^{22a}. 사업이 순조로히 진행되는 동안은 자본가는 돈벌이에 너무나 몰두하는 결과 로동의 이 무상의 선물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로동 과정의 강제적인 중단, 즉 공황은 자본가로 하여금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²³.

22a 《농장(農場) 생산의 모든 도구들 중에서 인간 로동은…… 농장주가 자기의 자본을 회수하는 데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다른 두 물건 즉 역축(役畜)과…… 달구지, 보습, 삽 등등——은 일정량의 인간 로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에드먼드 버크 《궁핍에 관한 의결 및 자제한 사정. 1795년 11월에 W·필드 작자에게 제출된 서한의 원문》, 런던, 1800년, 10페이지).

23 1862년 11월 28일부 《타임스》 지상에서 방적 사업에 80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여 매주 평균 150작의 인도 면(綿) 혹은 약 130작의 아메리카 면을 소비하는 어떤 방적 공장주가 그의 공장의 매년의 조업 정지중의 경비에 대하여 공증물 앞에 탄식하고 있다. 그는 이 경비들 6,000파운드 스텔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비생산적 비용중에는 폐천대 지대, 세금, 보험료, 그리고 1년 계약으로 고용된 로동자, 지배인, 부기 일'군, 기사에 대한 봉급 등등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와는 관계 없는 그러한 허다한 항목이 들어 있다. 그 다음 그는 공장을 때때로 닫히며 또 중기 기관을 이따금 운전시키는 데 필요한 석탄과 그 밖에 또 그때 그때의 로동으로써 모든 기계 설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그러한 로동자들에 대한 임금으로서 150파운드 스텔링을 가산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기계 설비의 손상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여 1,200파운드 스텔링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기 기관

생산 수단에서 소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용 가치이고 이 사용 가치의 소비에 의하여 노동은 생산물을 창조한다. 생산 수단의 가치는 사실상 소비되지 않으며²⁴ 따라서 또 재 생산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보존되지만 그것이 보존되는 것은 노동 과정에서, 가치 그 자체에 어떠한 조작(操作)이 가하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의 원래의 존재 형태이었던 사용 가치가 사라지기는 하나 오직 다른 사용 가치로 됨으로써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기는 하나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재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되는 것은 낡은 교환 가치의 재현 형태인 새로운 사용 가치이다²⁵.

이 운전을 정지하였다고 해서 천후(天候)와 자연의 파괴적 영향은 그 작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1,200파운드 스틸링이라는 이 금액은 기계 설비가 벌써 대단히 마멸된 상태에 있는 까닭에 낮게 책'가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4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상품의 소비가 생산 과정의 일부분으로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치의 소비는 없다》(S·P·뉴만 《정치 경제학 요론》, 안도버 및 뉴욕, 1835년, 296페이지).

25 북 아메리카에서 발견되어 아마도 20판은 거대한 어떤 입문서(入門書)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자본이 재현하는 형태는 아무 때도 좋다. 자기 가치를 생산물에 재현시키는 모든 가능한 생산 제 요소를 장황하게 열거한 다음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안락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 의복, 주택 등도 역시 변화한다. 그것들은 부단히 소비되며 그리고 그 가치는 그것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부여하는 새로운 활력(活力)에 재현되어 생산 사업에 다시 사용되는 새로운 자본을 형성한다》(F·웨이트먼드 《정치 경제학 요론》, 보스턴, 1843년, 31, 32페이지). 기타의 모든 기피한 점은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생산된 활력에 재현되는 것은 텍컨대 땅의 가격이 아니라 피(血)를 만들어 내는 땅의 제 요소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활력의 가치로서 재현되는 것은 생활 수단이 아니라 생활 수단의 가치이다. 동일한 생활 수단은 설사 그 가치가 반감된다 할지라도 똑 같은 분량의 근육 골격 등등을, 간단히 말하면 동일한 활력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전과 동일한 가치의 활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가치》를 《활력》과 바꾸어 놓는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파타샤이 코드적 애매성은

로동 과정의 주체적 요인인 활동중의 로동력에 있어서는 사태가 이와 다르다. 로동이 그 합목적적인 형태에 의하여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키며 보존하는 동안에 로동의 운동의 매 순간은 부가적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로동자가 자기 자신의 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등'가물을 생산하였을 때에, 예컨대 그가 6시간의 로동에 의하여 3월링의 가치를 부가하였을 때에, 그 점에서 생산 과정이 중단된다고 가정하자. 이 3월링이라는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 수단의 가치가 옴아 온 부분 이상의 초과분을 형성한다. 이것은 생산 과정 내부에서 발생한 유일의 새로운 가치이며 생산물 가치중에서 이 과정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유일의 가치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로동력을 구매할 때 자본가에 의하여 선대되었으며 또 로동자 자신에 의하여 생활 수단에 지출된 그 화폐를 보상(補償)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지출된 3월링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는 3월링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오직 전자의 재생산으로 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생산되었고 생산 수단의 가치처럼 외판상으로만 재생산된 것이 아니다. 한 가치의 다른 가치에 의한 보상은 이 경우에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매개로 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로동 과정은 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등'가물이 재생산되어 로동 대상에 부가되는 점을 넘어서 계속된다. 로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재생산하는 데는 6시간만으로 충분하지만 로동 과정은 이 6시간이 아니라 예컨대 12시간 계속된다. 따라서 로동력의 활동에 의하여 비단 그 자신의 가치가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일정한 초과분이 생산된다. 이 잉여 가치는 생산물 가치중, 그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요소들 즉 생산 수단 및 로동력의 가치 이

루하된 가치의 단순한 재현으로부터 그럴듯하게 잉여 가치를 끌어 내려는 시도문, 그야말로 소용 없는 시도문 일체라고 있는 것이다.

상의 초과분을 형성한다.

로동 과정의 각이한 요인들이 생산물 가치의 형성에서 도는 각이한 역할들을 서술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는 자본 그 자신의 가치 증식 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의 각이한 구성 부분들의 기능을 특징 지었다. 생산물의 총가치중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한 제 요소의 가치 총액 이상으로 되는 초과분은 증식된 자본이 최초로 선대된 자본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한편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과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로동력은 최초의 자본 가치가 자기의 화폐 형태를 벗어 버리고 로동 과정의 제 요인들로 전화할 때에 취한 각이한 존재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산 수단, 즉 원료, 보조 재료, 로동 수단으로 전화되는 자본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의 크기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자본의 불변 부분, 또 간단히 불변 자본이라고 칭한다.

이에 반하여 로동력으로 전화되는 자본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를 변동시킨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과 그 이상의 초과분인 잉여 가치를 재 생산하는바 이 잉여 가치 자체도 역시 변동하여 크게도, 작게도 될 수 있다. 자본의 이 부분은 불변의 수량으로부터 부단히 가변의 수량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 부분 또는 간단히 가변 자본이라고 칭한다. 로동 과정의 견지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들로 즉 생산 수단 및 로동력으로 구별되는, 같은 자본 구성 부분들이 가치 증식 과정의 견지에서는 불변 자본 및 가변 자본으로 구별된다.

불변 자본이라는 개념은 그 구성 제 부분의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가령 1파운드의 면화가 금일에는 6펜스의 가치를 가지나 명일에는 면화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1셸링에까지 등귀한다고 하자. 계속 가공되고 있는 중전의 면화는 6펜스의 가치로써 구매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

것은 생산물에 1셸링의 가치 부분을 첨가한다. 그리고 이미 실로 되어 있는, 아마 벌써 면방사의 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면화도 역시 그 시초 가치의 2배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변동은 방적 과정 그 자체에 있어서의 면화의 가치 증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만약 종전의 면화가 아직 로동 과정에 들어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는 6펜스 대신에 1셸링에 다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그것이 이미 로동 과정에 들어 갔다면 그것이 통과한 로동 과정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한 결과는 더욱 확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치의 격변이 있을 때에는 가장 적게 가공된 형태에 있어서의 원료를 다시 말하면 직물보다는 차라리 면방사를 또 면방사보다는 차라리 면화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하는 것이 투기의 법칙이다. 가치의 변동은 이때 면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면화가 생산 수단으로서, 따라서 불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치는 비록 그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로동의 분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할지라도 이 분량 자체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만약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 시간이 변동한다면——그리하여 동일 분량의 면화가 레컨대 흡작시에는 풍작시에 비하여 더 많은 로동량을 대표한다면——이에 따라 종전의 상품들에 대한 소급적 영향이 일어 나는바 이러한 상품들은 언제나 오직 동일 종류 상품의 개별적 견본으로서만 통용되는 것이며²⁸ 그 가치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에 의하여, 따라서 또한 언제나 그 당시에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 밑에서 필요한 로동에 의하여

28 《동일한 종류의 전체 생산물은 엄밀히 말하면 한개의 총량을 형성하는바 이 총량의 가격은 개별적 경우의 특수한 조건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프·트로는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메르 편찬 《중농주의자》, 파리, 1816년, 893페이지).

측정된다.

생산 과정에서 벌써 쓰이고 있는 노동 수단, 즉 기계 등등의 가치도, 또 따라서 그것들이 생산물에 넘겨 주는 그 가치 부분도, 원료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변동될 수 있다. 만약 레컨대 신 발명의 결과 동일 종류의 기계 설비가 노동의 더 적은 지출로써 재 생산된다면 종전의 기계 설비는 그 정도는 어떠한 가치가 저락할 것이며 또 따라서 그에 비례하여 더 적은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가치의 변동은 그 기계가 생산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생산 과정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 내부에서는 그 기계는 그것이 이 과정과는 관계 없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넘겨 줄 수는 결코 없다.

생산 수단의 가치의 변동은 생산 수단이 벌써 생산 과정에 들어 간 후에도 소급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불변 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은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간의 비율의 변동도 이 두 종류의 자본의 기능상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레컨대 이전에 10명의 노동자가 적은 가치 밖에 없는 10개의 도구를 가지고 비교적 적은 불량의 원료를 가공하고 있었는데 노동 과정의 기술적 제 조건이 개량되어 이제는 단 1명의 노동자가 한개의 비싼 기계로써 100배의 원료를 가공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불변 자본, 즉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량은 비상이 증가할 것이나 자본중 노동력에 선대되는 가변 부분은 비상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변동은 오직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간의 양'적 관계를, 다시 말하면 총자본의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으로 배분되는 그 비율을 변경시킬 뿐이고,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간의 구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제 7 장 잉여 가치률

제 1 절 노동력 착취의 정도

전대 자본 C에 의하여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 가치, 즉 전대 자본 가치 C의 증식 부분은 우선 생산물 가치중에서 생산물의 생산 요소들의 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 C는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 즉 생산 수단에 지출된 화폐액 c와 노동력에 지출된 또 하나의 화폐액 v가 그것이다. c는 불변 자본에 전화된 가치 부분을 대표하며 v는 가변 자본에 전화된 가치 부분을 대표한다. 따라서 최초에는 $C=c+v$ 이

다. 예컨대 루하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 = $\overbrace{410}^c$ 파운드 스텔링 + $\overbrace{90}^v$ 파운드 스텔링 이다. 생산 과정의 종말에 가서는 상품이 나오는데, m을 잉여 가치라고 한다면 상품의 가치 = $\overbrace{c+v}^{\quad}$

+ m이다. 예컨대 $\overbrace{410}^c$ 파운드 스텔링 + $\overbrace{90}^v$ 파운드 스텔링 + $\overbrace{90}^m$ 파운드 스텔링 이다. 최초의 자본 C는 C'으로 전화되었으며 그것은 500 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590파운드 스텔링으로 전화되었다. 이 양자간의 차액 = m, 즉 90의 잉여 가치이다. 생산 제 요소의 가치는 루하 자본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

문에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 제 요소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루하 자본의 가치의 증식 부분과 동일하다든가 또는 생산된 잉여 가치와 동일하다든가 하는 주장은 실은 동의 반복(同義 反復)이다.

그러나 이 동의 반복은 더 상세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생산물의 가치와 비교되는 것은 그것을 형성할 때 소비된 생산 제 요소의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용된 불변 자본중 로동 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은 자기 가치의 일부분만을 생산물에 넘겨 주며 나머지 부분은 자기의 종전의 존재 형태로 보존된다. 이 후자의 부분은 가치 형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는 까닭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도 좋다. 그것을 제산에 넣어도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가령 $c=410$ 파운드 스텔링은 312파운드 스텔링의 원료와 44파운드 스텔링의 보조 재료와 과정에서 소모되는 54파운드 스텔링의 기계 설비로써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설비의 가치는 1,054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우리는 기계 설비가 그 기능의 결과 잃어 버리는, 따라서 생산물에 넘겨 주는 이 54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을 생산물 가치의 생산에 전대된 것으로 계산한다. 만약 우리가 이전 형태대로, 중기 기관 등등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1,000파운드 스텔링을 제산에 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쪽에 즉 전대된 가치의 쪽과 생산물의 가치의 쪽에 산입(算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26a}. 그리하여 그것들은 각각 1,500파운드 스텔링과 1,590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 그 차액 즉 잉여 가치는 의연히 90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의 생산에 루

26a 《만약 우리가 적용되는 고정 자본의 가치를 선대 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말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본의 잔존 가치를 년 수입의 일부분으로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말사스《정치 경제학 원리》, 제2판, 런던, 1836년, 269페이지).

하된 불변 자본이라고 말할 때에는, 서술상 전후 관계에서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언제나 생산 중에 소모된 생산 수단의 가치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C=c+v$ 라는 공식으로 되돌아 가자. 이 공식은 $C'=c+v+m$ 으로 전화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C 는 C' 으로 전화된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불변 자본의 가치는 생산물에 재현될 뿐이다. 그러므로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새로 생산된 가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산물의 가치와는 다르며, 따라서 그것은 얼핏 보아서는 $c+v+m$ 즉

$\underbrace{c}_{410\text{파운드스털링}} + \underbrace{v}_{90\text{파운드스털링}} + \underbrace{m}_{90\text{파운드스털링}}$ 인 듯

이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고 $v+m$ 즉 $\underbrace{v}_{90\text{파운드스털링}} + \underbrace{m}_{90\text{파운드스털링}}$

파운드 스텔링이다. 다시 말하면 59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80파운드 스텔링이다. 만약 불변 자본 $c=0$ 이라면, 바꾸어 말하면 만약 어떤 산업 부문에서 자본가가, 생산된 생산 수단은 원료든, 보조 재료든, 노동 도구든 간에 하나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재와 토동력만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생산물에는 불변 가치의 부분이 조금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의 예에서 말한다면 4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생산물 가치의 이 요소는 떨어져 나갈 것이나 그러나 9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잉여 가치를 포함한 18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새로 생산된 가치는, 그 크기에 있어서 c 가 거대한 가치액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와 전연 같을 것이다. 우리의 예에 있어서는 $C=0+v=v$ 로 될 것이며 가치가 증가한 자본 $C'=v+m$ 으로 될 것이며 $C'-C$ 는 외연히 $=m$ 으로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m=0$ 이라면, 바꾸어 말하면, 만약 그 가치가 가변 자본의 형태로 선대된, 토동력이

오직 '등' 가물만을 생산한다면 $C=c+v$, C' (생산물 가치) = $c+v+0$, 따라서 $C=C'$ 로 될 것이다. 투하 자본은 가치에 있어서 증식되지 않을 것이다.

잉여 가치는 단순히 v 에 기인하는, 즉 로동력에 전환된 자본 부분에 기인하는 가치 변동의 결과라는 것, 따라서 $v+m=v+\Delta v$ (v 플러스 v 의 증가분) 이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치 변동 및 가치 변동의 비율은, 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 자본 전체도 또한 증가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애매하게 된다. 그것은 500이었던 것이 지금 590으로 된다. 그러므로 과정을 순수한 형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가치 중 불변적 자본 가치가 재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부분을 전연 사상(捨象)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변 자본 $c=0$ 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변량이 다만 가(加) 감(減)으로 가변량과 연결되었을 때 수학이 가변량과 불변량의 운산에서 리용하는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곤란은 가변 자본의 시초 형태로부터 발생한다. 상술의 예에 있어서는 $C'=110$ 파운드 스털링의 불변 자본+90파운드 스털링의 가변 자본+90파운드 스털링의 잉여 가치이다. 그러나 90파운드 스털링은 소여의, 따라서 불변의 수량이고 따라서 그것을 가변의 수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overset{v}{90}$ 파운드 스털링, 즉 90파운드 스털링의 가변 자본은 여기에서는 실은 이 가치가 통과하는 과정의 상징(象徵)으로 되어 있을 따름이다.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된 자본 부분은 대상화된 로동의 일정량이고 따라서 그것은 구매된 로동력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의 가치량이다. 그러나 생산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선대된 90파운드 스털링 대신에 활동하는 로동력이 등장한다. 즉 죽은 로동 대신에 산 로동이, 부

동한 수량 대신에 류동하는 수량이, 불변량 대신에 가변량이 등장한다. 그 결과가, v 의 재 생산 플러스 v 의 초과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견지에서 보면 이 전체 과정은 로동력에로 전환된, 본래는 불변적인 가치의 자기 운동이다. 과정과 그 결과는 이 가치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만약 9 파운드 스틸링의 가변 자본 또는 자기 증식하는 가치라는 공식이 어떤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모순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불변 자본을 명으로 등치하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기이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 생활에서 부단히 수행되고 있다. 레컨대 누구든지 영국의 면공업의 리윤을 계산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합중국, 인도, 애급 등등에 지불된 면화 가격을 공제한다. 즉 그는 생산물 가치에 재현하는데 지나지 않는 자본 가치를 명으로 등치하는 것이다.

비단 잉여 가치가 직접 발생하는, 또 잉여 가치에 의하여 그 가치 변동이 표시되는 그 자본 부분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만이 아니라 루하 총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도 또한 카다란 경제학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저서의 제3부에서 이 비율을 상세하게 고찰할 터이다. 자본의 일부분을 로동력에 전환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기타 부분은 반드시 생산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변 자본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변 자본이 로동 과정의 일정한 기술적 성격에 대응하여 적당한 비율로 루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화학적 과정이 증류기와 기타 용기(容器)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은 분석에 제하여 증류기 그 자체를 사상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가치 창조와 가치 변동이 그 자체로서 즉 순수하게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이라는 불변 자본의 이 물질적 형태는 가치를 창조하는 류동적인 힘이 고정될 재료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 그런 까닭에 또 이 물'질의 성질은 먼화이든 철이든 무엇이든지 괜찮다. 이 물'질의 가치도 또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이 물'질은 오직 생산 과정에서 지출될 노동량을 흡수할 수 있기에 충분한 분량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분량이 소여의 것이라면 그 가치가 등귀하든 저락하든 또는 토지 바다와 같이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가치 창조와 가치 변동의 과정은 이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²⁷.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불변 자본 부분을 m 이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루하 자본은 $c+v$ 로부터 v 에 환원되며 생산물의 가치 $c+v+m$ 은 새로 생산된 가치 $v+m$ 에 환원된다. 만약 생산 과정이 계속되는 전 기간에 걸쳐서 류동하는 노동이 대표되어 있는 새로 생산된 가치=180파운드 스털링이 소여의 것이라면, 우리는 잉여 가치=90파운드 스털링을 얻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의 가치=90파운드 스털링을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90파운드 스털링= m 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대적인 크기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크기, 다시 말하면 가변 자본이 증식된 비율은 분명히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는 분수 $\frac{m}{v}$ 에 의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상술한 례에서는 그것은 $\frac{90}{90} = 100\%$ 이다. 가변 자본의 이와 같은 상대적 증식 또는 잉여 가치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는 잉여 가치율이라고 칭한다²⁸.

27 제2판 주.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바와 같이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Titus Lucretius Carus : 《De rerum natura》, 제1권, 156, 157페이지]. 《가치의 창조》라는 것은 노동력의 노동에로의 전환이다. 또 노동력이라는 것은 우선은 인간 유기체로 전화된 자연 물'질이다.

28 이것은 영국인이 rate of profits (리윤율), rate of interest (리자율) 등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표현이다. 독자는 잉여 가치 법칙을 알기만 한다면 리윤율을 리해하는 것은 용이하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노동 과정의 어떤 한 기간중에는 오직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만을, 즉 그에게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만을 생산한다. 그는, 사회적 분업에 참가하는 관계하에서 생산하는 까닭에, 자기의 생활 수단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레컨데 면방사와 같은 어떤 특수한 상품의 형태로 생산하며 그의 생활 수단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 또는 그가 이 생활 수단을 구매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의 노동일중 그가 이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그의 평균적인 매일의 생활 수단의 가치 여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것의 생산에 요구되는 평균적인 매일의 노동 시간 여하에 따라서 혹은 크기도 하며 혹은 작기도 하다. 만약 노동자의 매일의 생활 수단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물화된 6노동 시간을 대표한다면 노동자는 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6시간씩 노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설사 그가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노동한다 하더라도 그는 기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유지 또는 부단한 재 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의연히 평균적으로 1일중 그만큼한 부분을 노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동력의 1일분 가치, 레컨데 3링을 생산하는 노동일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이미 그에게 지불된 ^{28a}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한 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로 창조된 가치에 의하여 선대된 가변 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치의 이러한 생산은 단순한

는 것을 본서 제3부에서 알게 될 것이다. 순서를 거꾸로 하여서는 이것도 저것도 이해할 수 없다.

28a (제3판 주. 저자는 여기에서는 관용적(慣用的)인 경제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선대》하는 것이라고 본서 137페이지에서 논증된 것을 상기하라. —F. 엥겔스}.

재 생산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재 생산이 수행되는 노동 일 부분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칭하며 이 시간중에 지출되는 노동을 필요 노동이라고 칭한다²⁹. 그것은 노동자로 보아서 필요한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의 사회적 형태와는 무관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자본 및 자본 세계로 보아서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 하면 노동자의 부단한 생존이 그것들의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필요 노동의 한계를 넘어서 노동하는, 노동 과정의 둘째 시기는 비록 노동자의 노동, 즉 노동력의 지출이 들기는 하나,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자본가를 유혹하는 잉여 가치를 형성한다. 나는 노동일의 이 부분을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칭하며 이 시간중에 지출되는 노동을 잉여 노동 (Mehrarbeit, surplus labour) 이라고 칭한다. 가치 일반의 인식을 위해서 가치를 단순히 노동 시간의 응결로서, 단순히 대상화된 노동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의 인식을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잉여 노동 시간의 응결로서, 단순히 대상화된 잉여 노동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경제적 사회 구성을, 서로——레컨데 노예제의 사회를 임금 노동의 사회로부터——구별케 하는 것은 이 잉여 노동이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로부터 착취되는 그 형태만이다³⁰.

29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저서에서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여 왔다. 우리는 금후로는 이 말을 노동력이라는 독특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의미에서도 사용할 것이다. 동일한 술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에 있어서도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레컨데 고등 수학과 초등 수학과를 비교하라.

30 윌헬름 루슈디메스 로세르 씨는 참으로 고르체드적 독창성을

가변 자본의 가치는 그것에 의하여 구매된 노동력의 가치와 동일한 까닭에 그리고 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일의 필요 부분을 규정하며 다른 한편 잉여 가치는 노동일의 초과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 까닭에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잉여 가치의 가변 자본에 대한 비율은 잉여 노동의 필요 노동에 대한 비율과 같다. 바꾸어 말하면 잉여 가치율 $\frac{m}{v} = \frac{\text{잉여 노동}}{\text{필요 노동}}$ 이다. 이 두 비율은 동일한 관계를 각이한 형태로 표현한다. 즉 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화된 노동의 형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류동적인 노동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 정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 정도의 정확한 표현이다^{30a}.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치 =

$$\overbrace{410 \text{ 파운드 스텔링}}^c + \overbrace{90 \text{ 파운드 스텔링}}^v + \overbrace{90 \text{ 파운드 스텔링}}^m$$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있다——만약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 및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축적의 형식이 현상에 있어서는, 그때 '가'로 《레컨데 티자를 요구하는》자본가의 《결약》에 의거하고 있다면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문화 단계에 있어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결약을 강제한다》(《국민 경제학의 기초》, 제3판, 1858년, 82, 78페이지)는 것이다. 그 강자는 노동의 결약을 강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생산물의 여분의 결약을 강제하는가? 사실상의 무지와 아울러, 가치 및 잉여 가치의 망실적인 분석을 무서워하며 경찰의 덫³¹장에서 보아 혹은 위험한 결론이 나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변론적 공로심, 이것이 로베르와 그 일파로 하여금 현존하는 잉여 가치의 점유율 변명의 자본가들의 어느 정도 그런듯해 보이는 구실을 잉여 가치 발생의 근거라고 주장케 하는 것이다.

30a 제2판 주. 잉여 가치율은 노동력의 착취 정도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러나 결코 착취의 절대량의 표현으로는 될 수 없다. 레컨데 만약 필요 노동 = 5시간, 잉여 노동 = 5시간이라면 착취 정도 = 100%이다. 착취의 크기는 여기서 5시간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필요 노동 = 6시간, 잉여 노동 = 8시간이라면 100%의 착취 정도는 의연히 불변이나, 착취의 크기는 20%만큼 증가된다. 즉 5시간으로부터 6시간으로 증가된다.

이었고, 투하 자본=500파운드 스털링이었다. 잉여 가치=90, 투하 자본=500인 까닭에 보통 계산 방식에 의하면 잉여 가치율 (세인은 이것을 리윤율과 혼동하고 있다)은 18%로 계산될 것인바 이것은 케리씨 및 기타의 조화론자가 감동할만한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잉여 가치율은 $\frac{m}{C}$ 또는 $\frac{m}{C+v}$ 이 아니고 $\frac{m}{v}$ 이며 따라서 $\frac{90}{500}$ 이 아니고 $\frac{90}{90} = 100\%$ 인바 이것은 외견상의 착취 정도보다 5배 이상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비록 로동일의 절대적 크기도, 로동 과정이 계속되는 기간 (일, 주〔週〕 등등)도, 또 끝으로 90파운드 스털링의 가변 자본이 동시적으로 운동시키는 로동자의 수도 모두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잉여 가치율 $\frac{m}{v}$ 은, 그것이 잉여 로동 필요 르동에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로동일의 두 구성 부분간의 상호적 비율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이여 준다. 그것은 100%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는 반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로동했고 나머지 반날은 자본가를 위하여 로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잉여 가치율의 산출 방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생산물의 총가치중에서 그것에 재현될 뿐인 불변 자본 가치를 명으로 만든다. 잔여의 가치액은 상품의 형성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새로 생산된 유일한 가치이다. 만약 잉여 가치가 소여의 것이라면 우리는 가변 자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 생산된 가치에서 잉여 가치를 공제하면 된다. 만약 가변 자본이 소여의 것이고 찾아 내려는 것이 잉여 가치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면 된다. 만약 잉여 가치와 가변 자본의 양자가 모두 소여의 것이라면 최후적 운산을 실행하여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 $\frac{m}{v}$ 을 계산해 내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기는 하나 몇 개의 실패로서 독자

가 이 방법의 기초에 놓여 있는 그리고 독자에게는 관습되어 있지 않는 관찰 방식을 습득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10,000개의 물-방추를 설비한 방적 공장을 실패로 들자. 이 공장에서는 아메리카 면화로부터 32번수(番手) 면방사를 뽑으며 매주 방추 1개당 1파운드의 면방사를 생산한다고 하자. 폐면(廢綿)은 6%이다. 그리하여 매주 10,600파운드의 면화가 가공되어 10,000파운드의 면방사와 600파운드의 폐면으로 된다. 1871년 4월 현재, 이 면화의 가격은 1파운드당 $7\frac{3}{4}$ 펜스로 되어 있다. 따라서 10,600파운드는 약 342파운드 스텔링이다. 이 10,000개의 방추는 준비 공정의 설비와 증기 기관을 포함하여, 방추 1개당 1파운드 스텔링, 즉 10,000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걸린다. 방추의 1년간 마멸은 $10\% = 1,000$ 파운드 스텔링, 즉 매주 20파운드 스텔링이다. 공장 건물의 임차료는 300파운드 스텔링 즉 매주 6파운드 스텔링이다. 석탄(1시간 1마력당 4 파운드, 건물 난방도 제산에 포함하여 100마력(표시기로 표시되는 마력)으로 매주 60시간에 대한 것) 값은 매주 11톤, 1톤당 8셸링 6펜스라 하고 매주 약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다. 가스에는 매주 1파운드 스텔링이 들고 기름에는 매주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든다. 따라서 전체 보조 재료에는 매주 10파운드 스텔링이 든다. 그리하여 불변적 가치 부분은 매주 378파운드 스텔링이다. 임금은 매주 52파운드 스텔링이다. 면방사 가격은 1파운드당 $12\frac{1}{4}$ 펜스, 즉 10,000파운드 = 510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잉여 가치는 $510 - 430 = 80$ 파운드 스텔링이다. 378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적 가치 부분은, 매주의 가치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는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overset{v}{m}$ 으로 만든다.

남는 것은 매주 새로 생산된 가치인 132 파운드 스텔링 = $\overset{m}{52}$ 파운드 스텔링 + 80 파운드 스텔링이다. 따라서 잉여 가치 $\text{결} = 80\frac{1}{2}\% = 153\frac{1}{2}\%$ 이다. 10시간 평균 노동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필요 노동= $3^{11}/_{33}$ 시간, 잉여 노동= $6^2/_{33}$ 시간³¹.

제코브는 1815년도에 소맥 가격은 1 퀴터당 80셸링이고 1 에이커당 평균 수확은 22부셸이고 따라서 1에이커당 수익은 11 파운드 스텔링이 된다는 가정 밑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였는데 그것은 여타 항목을 미리 상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1에이커당 가치 생산

종자 (소맥) 1파운드 스텔링 9셸링				10분지 1세, 각종 세금 1파운드 스텔링 1셸링			
비료	2	"	10 "	지대	1	"	8 "
				소작 농업 경			
로임	3	"	10 "	영자의 리운	1	"	2 "
				및 리자			
합계 7파운드 스텔링 9 셸링				합계 3파운드 스텔링 11 셸링			

생산물의 가격= 그 가치라고 항상 전제하고, 잉여 가치는 여기서 리운, 리자, 10분지 1세 등등의 각종 항목애로 나누인다. 이 항목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래도 좋다. 그것들을 합산하면 3파운드 스텔링 11셸링이라는 하나의 잉여 가치가 나온다.

종자 대금 및 비료 대금인 3파운드 스텔링 19셸링을, 우리는 불변 자본 부분으로서 영으로 만든다. 남는 것은 3파운드 스텔링 10셸링이라는 투하된 가변 자본인데 이에 대신하여, 3파운드 스텔링 10셸링+3파운드 스텔링 11셸링 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었다. 따라서 $\frac{m}{v} = \frac{3\text{파운드 스텔링 } 11\text{셸링}}{3\text{파운드 스텔링 } 10\text{셸링}}$ 이

31 제2관 주. 조판에서 인용된 1880년에 속하는 어떤 방적 공장의 실례는 약간의 사실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문에 인용된 완전히 정확한 자료는 만체스터의 어떤 공장주가 나에게 제공한 것이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에서는 구 마력은 서린머의 직경(直徑)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었으나 신 마력은 포시거가 표시하는 실지 힘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 그것은 100% 이상이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일의 절반 이상을 잉여 가치의 생산에 충당하고 있으며 이 잉여 가치를 여타 가지 사람들이 각종 구실 밑에 서로 분배하는 것이다^{31a}.

제 2 절 생산물의 상대적 부분들에 의한 생산물 가치의 표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본가가 화폐를 자본화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여 준 그 실례에 되돌아 가기로 하자. 그의 방적공의 필요 노동은 6시간이고 잉여 노동도 그와 같고 따라서 노동력의 착취 정도는 100%이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은 3)셸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파운드의 면방사이다. 이 면방사의 가치의 $\frac{2}{10}$ (24셸링) 만큼은 소비된 생산 수단 (20셸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파운드의 면화, 4셸링의 가치를 가지는 방추 등등)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 가치로써 형성되어 있다. 즉 불변 자본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frac{8}{10}$ 는 방적 과정의 진행중에 발생한 6셸링의 새로운 가치인데 그중 절반은 투하된 노동력의 1일분 가치 즉 가변 자본을 보상하며 기타의 절반은 3셸링의 잉여 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20파운드의 면방사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ext{면방사의 가치 3)셸링} = \overbrace{24}^c \text{ 셸링} + \overbrace{3}^v \text{ 셸링} + \overbrace{3}^m \text{ 셸링.}$$

이 총가치는 20파운드의 면방사라는 총생산물로써 표현되

31a 여기에 인용된 제산은 오직 예해(例解)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때 가격=가치라고 전제되어 있다. 제3부에 가서 우리는 이 등치가 평균 가격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 있는 까닭에 가치의 각이한 구성 요소들도 또한 생산물의 상대적 부분들로써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30셸링이라는 면방사의 가치가 20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존재한다면 이 가치의 $\frac{8}{10}$, 즉 그 불변 부분인 24셸링은 생산물의 $\frac{8}{10}$ 속에, 다시 말하면 16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존재할 것이다. 그 중 $13\frac{1}{2}$ 파운드는 원료의 가치, 즉 방적된 면화의 가치 20셸링을 대표하며 $2\frac{2}{3}$ 파운드는 소비된 보조 재료와 노동 수단인 방추 등등의 가치 4셸링을 대표한다.

그러하여 $13\frac{1}{2}$ 파운드의 면방사는 20파운드의 면방사라는 총생산물을 만드는 데 소비된 면화 전체를, 즉 총생산물의 원료를 대표하며 그 이상은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비록 그 속에는 모두해서 $13\frac{1}{2}$ 셸링의 가치를 가지는 $13\frac{1}{2}$ 파운드의 면화 밖에 들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첨가된 $6\frac{2}{3}$ 셸링의 가치는 나머지 $6\frac{2}{3}$ 파운드의 면방사에 소비된 면화의 등가물을 형성한다. 그것은 마치 이 나머지 $6\frac{2}{3}$ 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들어 있는 면화를 빼내어 총생산물에 사용된 면화 전체를 $13\frac{1}{2}$ 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밀어 넣은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13\frac{1}{2}$ 파운드의 면방사는 이제는 소비된 보조 재료 및 노동 수단의 가치나 방적 과정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치를 단 한 분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의 잔여분 (=4셸링)이 들어 있는 그 다음 $2\frac{2}{3}$ 파운드의 면방사는 20파운드의 면방사라는 총생산물에 소비된 보조 재료와 노동 수단의 가치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frac{8}{10}$, 즉 16파운드의 면방사는, 그것을 그 현물 형태에서 사용 가치로서, 면방사로서 고찰할 때에는, 비록 생산물의 다른 부분들과 꼭 같은 정도로 방적 노동의 창조물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관련에 있어서는 그것은 방적 노동 즉 방적 과정 자체의 진행중에 흡수된 로동을 조금도 포함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방적 작업이 없이 면방사에 전회된 듯이, 마치 면방사라는 그 형태는 순전한 기만인 듯이 되어 있다. 사실에 있어서 만약 자본가가 그것을 24셸링에 판매하고 이 24셸링으로써 다시 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면 이 16파운드의 면방사는 면화, 방추, 석탄 등등이 변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된다.

반대로 생산물의 나머지 $\frac{2}{10}$, 즉 4파운드의 면방사는 이것은 12시간의 방적 과정에서 생산된 6셸링이라는 새로운 가치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소비된 원료 및 노동 수단의 가치는 벌써 그것으로부터 뺏혀 나와 최초의 16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들어 갔다. 20파운드의 면방사에 체화된 방적 노동은 생산물의 $\frac{2}{10}$ 속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방적 공이 4파운드의 면방사를 공중으로부터 뺏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간 노동의 협력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생산물에 어떠한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 그러한 면화 및 방추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매일의 방적 과정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4파운드의 면방사중 그 절반은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補償)하는 가치만을, 다시 말하면 3셸링이라는 가변 자본만을 대표하며 나머지 2파운드의 면방사는 3셸링이라는 잉여 가치만을 대표한다.

방적공의 12노동 시간은 6셸링 속에 대상화되기 때문에 30셸링이라는 면방사의 가치에는 60노동 시간이 대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20파운드의 면방사 속에 존재하나 이 20파운드의 면방사중 $\frac{8}{10}$, 즉 16파운드는 방적 과정 개시 이전에 지나간 48노동 시간의 물'질화, 다시 말하면 면방사의 생산 수단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물'질화이고 그중 $\frac{2}{10}$, 즉 4파운드는 이에 반하여 방적 과정 그 자체의 내부에서 지출된 12노동 시간의 물'질화이다.

면방사의 가치는 면방사의 생산중에 창조된 새로운 가치에, 그 생산 수단 속에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던 가치를 가한 총액과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이다. 이제 우리는 생산물 가치의, 기능상 또는 개념상, 각이한 구성 부분들이 생산물 그 자체의 상대적 부분들으로써 어떻게 대표될 수 있는가를 본다.

이와 같이 생산 과정의 결과인 생산물이 생산 수단 속에 들어 있는 로동, 즉 불변 자본 부분만을 대표하는 어떤 분량의 생산물과, 생산 과정 내부에서 첨가된 필요 로동, 즉 가변 자본 부분만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분량의 생산물과, 바로 이 과정 내부에서 첨가된 잉여 로동, 즉 잉여 가치만을 대표하는 최후의 분량의 생산물들로 분절된다는 사정은 후에 이것을 착잡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 문제에 적용할 때에 분명히 되는 바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방금 우리는 총생산물을 12시간 로동일의 완성된 결과로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총생산물의 발생 과정을 따라가면서도 부분적 생산물들로서 기능적으로 각이한 생산물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

방적공은 12시간에 20파운드의 면방사를 생산하는 까닭에 한 시간에는 $1\frac{2}{3}$ 파운드를 생산하며 8시간에는 $13\frac{1}{3}$ 파운드를, 다시 말하면, 전 로동일에 걸쳐서 실로 뽑히는 면화의 총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생산물을 생산한다. 바로 그와 같이 그 다음 1시간 33분의 부분 생산물은 $2\frac{1}{3}$ 파운드의 면방사이고 따라서 그것은 12로동 시간에 걸쳐서 소모된 로동 수단의 가치를 대표한다. 마찬가지로 방적공은 그 다음의 한시간 12분에는 2 파운드의 면방사=3펠링을 생산하는바 이것은 그가 6필요 로동 시간내에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 전체와 동일한 생산물 가치이다. 끝으로 그는 최종의 $\frac{1}{3}$ 시간에 또 다시 2파운드의 면방사를 생산하는바 그 가치는 그의 반일분 잉여 로동에 의하여

산출된 잉여 가치와 동일한 것이다. 이 계산 방식은 영국의 공장주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는 페컨데 자기는 로동일의 최초의 8시간 또는 $\frac{1}{8}$ 로동일에는 다만 자기의 면화대를 회수하고 운운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공식이 정당하다는 것, 즉 이 공식은 사실에 있어서는 최초의 공식을, 생산물 부분들이 완성 형태로 나뉘어 놓여 있는 공간으로부터 그것들이 전후로 편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옮겨 놓고 해석한 것이 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공식은 또한 극히 야만적인 관념들을 수반할 수도 있는바 특히 실천적으로 가치 증식 과정에 리해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리론적으로 폭해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리해 관계를 가지는 두뇌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방적공은 페컨데 자기 로동일의 최초의 8시간으로는 면화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그 다음의 1시간 36분으로는 소모된 로동 수단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또 그 다음번의 1시간 12분으로는 로동 임금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오직 저 유명한 <최후의 한 시간> 만을 공장주에게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바친다고. 그리하여 방적공은 이중의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바 그는 면화, 방추, 증기 기관, 석탄, 기름 등등을, 그가 이것들을 가지고 실을 뽑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생산하여야 하며 그리고 소여의 강도(強度)의 1 로동일로써 그는 그러한 로동일을 다섯개 만들거 내야야 된다. 그리하여 페컨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료와 로동 수단의 생산은 $\frac{1}{8}$ 일분, 즉 4일분의 12시간 로동일을 요구하며 그것들의 면방사에로의 전화는 또 1일분의 12시간 로동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약탈욕이 이와 같은 기적을 믿는다는 것, 또 이 기적을 논증하려는 리론적 야심 분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아래에서 력사적 명성을 가지는 하나의 실례가 보이며 줄 것이다.

제 3 절 시노어의 《최후 한 시간》

1833년 천기 명량한 어떤 아침, 경제학적 식견과 아름다운 문체로써 소문난, 이를테면 영국 경제학자 중의 클라우젠인 낫쏘우 윌리엄 시노어는 옥스포드에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칠 대신에 만체스터에서 정치 경제학을 배우기 위하여 옥스포드로부터 만체스터에로 불려 갔다. 공장주들은 얼마 전에 공포된 공장법과 또 그 이상의 요구를 들고 나온 10시간 노동일 운동을 반대하는 투사로서 그를 선발한 것이었다. 공장주들은 그들에게 보통 있는 실천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교수 씨가 《아직 상당히 최후 완성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만체스터로 불려 왔던 것이다. 이 교수 씨는 그로서 만체스터에서 공장주들로부터 받은 교훈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서 다음과 같은 팜플렛트를 내놓았다. 《면방직 공업에 미치는 공장법의 영향에 관한 서한》, (런던, 1837년). 이 책자에서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은 교훈적인 구절을 읽을 수 있다.

《현행법(現行法) 밑에서는 18세 이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어떠한 공장도 매일 $11\frac{1}{2}$ 시간 이상을, 즉 처음 5일간은 12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9시간 이상을 작업할 수 없다. 다음의 분석(!)은 그러한 공장에서 순리운 전체가 최후의 한 시간에 나온다는 것을 보이여 준다. 공장주는 100,000파운드 스텔링을 투자하되 80,000파운드 스텔링은 공장 건물과 기계에, 20,000파운드 스텔링은 원료와 노동 임금에 투자한다고 하자. 자본의 회전율을 년 1회, 총리운을 15%라고 가정하면 이 공장의 1년간의 상품 매상고(賣上高)는 115,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로 되어야 할 것이다…… 1노동일 속에 들어 있는 23개의 반노동 시간의 하나 하나는 이 115,000파운드 스텔링의 $\frac{1}{115}$, 즉

$1/23$ 을 생산한다. 115,000파운드 스털링의 총액을 구성하는 이 $23/23$ 중의 $20/23$ 은, 다시 말하면 115,000 중의 100,000은 단순히 자본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고 $1/23$, 즉 총리윤(!) 15,000파운드 스털링 중의 5,000파운드 스털링은 공장과 기계 설비의 마멸을 보상한다. 나머지 $2/23$ 즉 매일의 최후의 두 반시간이 10%의 순리윤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만약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 공장이 $11\frac{1}{2}$ 시간 대신에 13시간을 작업할 수 있게 된다면 류동 자본을 약 2,600파운드 스털링만큼 추가함으로써 순리윤은 2배 이상으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노동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단축된다면 순리윤은 소멸될 것이며 또 만약 $1\frac{1}{2}$ 시간씩 단축된다면 총리윤까지도 소멸될 것이다>³².

32 시노어《면방직 공업에 미치는 공장법의 영향에 관한 서한》(런던, 1837년) 12, 13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때도 좋은 약간의 기묘한 점들, 폐권대 마치 공장주들이 마멸된 기계 설비 등들의, 즉 자본의 어떤 구성 부분의 보상을 리윤에——총리윤에든 혹은 순리윤에든——가산하는듯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것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또 제공된 수'자가 정확한 것인가 또는 거짓인가도 역시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것이 자칭《분석》이상의 가치불 안 가진다는 것은 테오나드 호너가《시노어 씨에게 주는 서한》(런던, 1837년)[30—12페이지]에서 논증한 바이다. 테오나드 호너는 1833년의 공장 사정 조사위원회 성원의 한 사람이며 1859년까지는 공장 감독관——실질상으로는 공장 검열관——이었으며 영국 노동 계급에게 불멸의 공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비단 격문한 공장주들을 상대로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장내《직공》들의 노동 시간수준 세는 것보다 하원(下院)에서의 공장주들의《투표》수준 세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게 쳤던 대신들을 상대로 투쟁하였다.

주 32에 대한 추가. 시노어의 서술은 그 내용상의 허위는 고사하고라도 전연 혼란된 것이다. 그가 본래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공장주는 노동자를 매일 $11\frac{1}{2}$ 시간 즉 $23/2$ 시간 일시킨다. 개개의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노동도 $11\frac{1}{2}$ 시간 즉 $23/2$ 시간으로써 (이 시간수준 1년간의 노동일의 수도 승한 시간으로써) 구성된다. 이러한 가정 밑에서는 $23/2$

그런데 이 교수 씨는 이런 것을 <분석>이라 칭하고 있다! 만약 그가 노동자들은 1일중의 대부분을 건물, 기계, 면화, 석탄 등등의 가치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들의 재 생산 또는 보상에 낭비한다는 공장주들의 개탄(慨嘆)을 참으로 믿었다라면 온갖 분석은 쓸데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11 $\frac{1}{2}$ 시간 대신에 10시간을 일시킨다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면화, 기계 설비 등등의 매일의 소모는 1 $\frac{1}{2}$ 시간분만큼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들은 당신들이 손실을 보는 것만큼 그만큼 리득을 볼 것이다. 장차로는 당신들의 노동자들은 선대된 자본 가치의 재 생산 또는 보상을 위하여 11 $\frac{1}{2}$ 시간만큼은 적게 낭비하게 될 것이라라고. 또 만약 시노어가 공장주들의 말을 그대로는 믿지 않고 전문가로서 특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면 그는 우선 공장주 제씨에게 노동일의 결이에 대한 순리윤의 비율만에 관한 문제의 요찰에서는 기계 설비와 공장 건물, 원료와 로동을 뒤섞어 놓지 말고 아무쪼록 공장 건물, 기계 설비, 원료 등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을 한 쪽에 놓고 로동 임금에 선대된 자본을 다른 쪽에 놓아 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것이다. 그때 만약 어찌다가 공장주들

로동 시간은 1년간에는 115,0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frac{1}{2}$ 로동 시간은 $\frac{1}{2} \times 115,000$ 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하며 또 $\frac{10}{2}$ 로동 시간은 $\frac{10}{2} \times 115,000$ 파운드 스텔링 = 100,000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오직 선대된 자본을 보상할 뿐이다. 뒤에 남은 것은 $\frac{3}{2}$ 로동 시간인데 이것은 $\frac{3}{2} \times 115,000$ 파운드 스텔링 = 15,000파운드 스텔링을, 즉 총리윤을 생산한다. 이 $\frac{3}{2}$ 로동 시간 중 $\frac{1}{2}$ 로동 시간은 $\frac{1}{2} \times 115,000$ 파운드 스텔링 = 5,000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공장 및 기계 설비 소모의 보상만을 생산한다. 최후의 두개의 방로동 시간, 즉 최후의 1로동 시간은 $\frac{2}{2} \times 115,000$ 파운드 스텔링 = 10,000파운드 스텔링, 즉 순리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시노어는 생산물의 최후의 $\frac{2}{2}$ 분 로동일 자체의 최후의 $\frac{2}{2}$ 로 전파시키고 있다.

의 계산에 의하여 노동자는 $2\frac{1}{2}$ 노동 시간에 즉 1노동 시간에 노동 임금을 재 생산 또는 보상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우리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어야 할 것이었다.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노동자는 최후로부터 둘째번의 1 시간에 자기의 노동 임금을 생산하고 최후의 1시간에 당신들의 잉여 가치, 즉 순리윤을 생산한다. 그는 동일한 시간내에는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까닭에 최후로부터 둘째번 1시간의 생산물은 최후 1시간의 생산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또 노동자는 그가 로동을 지출하는 한에 있어서만 가치를 생산하며 또 그의 로동의 분량은 그의 노동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이 노동 시간은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에 $11\frac{1}{2}$ 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 $11\frac{1}{2}$ 시간의 일부분을 그는 자기의 노동 임금의 생산 또는 보상에 사용하며 다른 일부분을 당신들의 순리익의 생산에 사용한다. 그는, 1노동일 동안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임금과 그에 의하여 제공되는 잉여 가치는 동일량의 가치인 까닭에 그는 분명히 자기의 노동 임금을 $5\frac{3}{4}$ 시간에 생산하며 당신들의 순리익을 나머지 $5\frac{3}{4}$ 시간에 생산한다. 더 나아가 2시간분의 생산물인 면방사의 가치는 그의 노동 임금에 당신들의 순리윤을 가한 가치액과 동일한 까닭에 이 면방사의 가치는 반드시 $11\frac{1}{2}$ 노동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즉 최후로부터 둘째번 1시간의 생산물은 $5\frac{3}{4}$ 노동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최후 1시간의 생산물도 또한 그렇다. 우리는 이제 아주 신중히 고찰해야 할 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주의하여 들으라! 최후로부터 둘째번의 1노동 시간도 최초의 1노동 시간이나 다름 없는 보통의 1노동 시간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방적공은 $5\frac{3}{4}$ 노동 시간을 대표하는 면방사의 가치를 1노동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가? 실제로 있어서는 그는 결코 그와 같은 기적을 수

행하지 않는다. 그가 1로동 시간에 생산하는 사용 가치는 일정 분량의 면방사이다. 이 면방사의 가치는 $5\frac{3}{4}$ 로동 시간으로 측정된다. 그중 $4\frac{3}{4}$ 로동 시간은 매 시간 소모되는 생산 수단 속에 즉 면화, 기계 설비 등등 속에, 방적공 측으로부터의 조력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중 $\frac{1}{4}$ 즉 1시간은 방적공 자신에 의하여 첨가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로동 임금은 $5\frac{3}{4}$ 시간에 생산되며 또 1방적로동 시간에 생산된 면방사라는 생산물도 또한 마찬가지로 $5\frac{3}{4}$ 로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5\frac{3}{4}$ 방적로동 시간중에 그에 의하여 생산된 새로운 가치가 1방적로동 시간의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마술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방적공은 면화, 기계 설비 등등의 가치를 재 생산하며 또는 《보상》하는때 그의 로동일의 단 일순간이라도 지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그의 로동이 면화와 방추로써 면방사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의하여, 즉 그가 방적을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스스로 면방사으로 이전하여 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로동의 질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 량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한 시간에는 $\frac{1}{2}$ 시간에 있어서보다 더 많은 면화의 가치 등등을 면방사에 이전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오직 그가 한 시간에는 $\frac{1}{2}$ 시간에 있어서보다 더 많은 면화를 실로 뽑는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동자가 최후로부터 둘째번 1시간에 자기의 로동 임금의 가치를 생산하고 최후 1시간에는 순이익을 생산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그의 로동일중의 두 시간분 생산물인 면방사 속에는, 그 두 시간의 선후 관계는 어떻든지 간에 $11\frac{1}{2}$ 로동 시간이, 즉 그의 전 로동일과 꼭 같은 시간이 체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또 그가 전반의 $5\frac{3}{4}$ 시간에는 자기의 로동 임금을 생산

하고 후반의 $5\frac{3}{4}$ 시간에는 당신들의 순리윤을 생산한다고 하는 주장은 당신들이 전반의 $5\frac{3}{4}$ 시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나 후반의 $5\frac{3}{4}$ 시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내가 여기서 노동력에 대한 지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지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당신들의 통용어로써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당신들이 당신들의, 값을 지불하는 노동 시간과 값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 시간과의 비율을 비교하여 본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반날 대 반날의 비율, 즉 100%라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이것은 물론 대단히 좋은 퍼센트이다. 또 만약 당신들이 당신들의 《직공》들을 $11\frac{1}{2}$ 시간 대신에 13시간 일하도록 강요하여 당신들의 마음에 꼭 들게 이 여분의 $1\frac{1}{2}$ 시간을 단순히 잉여 노동에 합친다면 잉여 노동은 $5\frac{3}{4}$ 시간으로부터 $7\frac{1}{4}$ 시간으로 증가할 것이며 또 이에 따라 잉여 가치물은 100%로부터 $126\frac{2}{23}\%$ 으로 증가하리라는 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11\frac{1}{2}$ 시간의 추가에 의하여 잉여 가치물이 100%로부터 200%로, 또 심지어 20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고, 즉 그것이 《2배 이상으로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사려 없는 객관주의자이다. 다른 한편——인간의 마음이란, 이상한 것이며 특히 인간이 돈지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더욱 그런 것만큼——만약 당신들이, 노동일을 $11\frac{1}{2}$ 시간으로부터 $10\frac{1}{2}$ 시간으로 단축하면 당신들의 순리윤이 모두 날아가 버린다고 걱정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우울한 비관주의자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기라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면 잉여 노동은 $5\frac{3}{4}$ 시간으로부터 $4\frac{3}{4}$ 시간으로 감소될 것이나 그것은 아직도 $82\frac{14}{23}\%$ 나 되는 상당히 높은 잉여 가치물을 준다. 그러나 당신들의 속명적인 《최후의 1시간》이라는 것은——당신들은 그것에 대하여 저 1천년 태평설 신자들이 세계의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허무한 이야기들을 했지만——《전염

황당 무계》한 것이다. 그것을 잃어 버린다 해도 당신들의 《순리윤》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며 또 당신들이 고역시키고 있는 소년 소녀들의 《명혼의 순수성》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32a}.

32a 만약 서노예가 공장주들의 순리윤과 영국 면방직 공업의 존립과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영국의 지배적 지위가 《최후의 1로동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면 안드류 유어 박사 [《공업의 철학》, 런던, 1835년, 406페이지 참조]는 이에 첨부하여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논증하였다. 즉 만약 공장 아동들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온근 12시간 동안 공장 구내의 따뜻하고 깨끗한 도덕적 분위기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그들을 《한 시간》 더 빨리 행복하고 타락한 외부 세계에 몰아 낸다면 타타와 악습에 의하여 그들의 명혼의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1818년 이후 공장 감독관들은 자기들의 매 반년 《보고》 가운데서 《최후의》 《속명적인 1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공장주들을 야유(揶揄)하여 왔다. 그 일례로 하우엘 씨는 1855년 5월 31일부 자기의 공장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이하의 교묘한 계산(그는 시노예를 인용하고 있다)이 정당한 것이라면 영국내의 모든 면방직 공장은 1850년 이때 손실을 보면서 조업해 온 것으로 된다》

《1855년 4월 30일에 끝나는 반년간의 공장 감독관 보고》, 19, 27페이지). 1818년에 10시간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을 때에 도어세트주(州)와 도어세트주와의 사이에 산재한 농촌의 아마 방직 공장 제조업자들은, 로동 시간 제한의 혜택을 입게 된 약간의 로동자들에게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는데 이 청원서에서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 《자식들의 부모인 우리들 청원자는, 한가한 시간을 한 시간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을 타락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런 결과도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타타는 모든 악습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1818년 10월 31일부 공장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유덕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어린 자녀들이 로동하고 있는 아마 방직 공장 내부의 공기는, 원로에서 발산되는 무수한 티끌과 섬유류의 가루로써 충만되어 방적실 내부에서 10분간만 지내는 것도 아주 불쾌할 지경이다. 왜냐 하면 거기서는 대번에 사람의 귀, 눈, 입, 코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구름 같은 아마 티끌이 들어가 가장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로동 그 자체로 말하면 엄격한 감시하에 기계의 연병적인 속도 때문에 부단한 민첩성과 운동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근 10시간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작업에 얹매어 있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하여 《타타》라는 말을 쓰도록 강요하는

당신들의 《최후 시간》의 중 소리가 정말 울릴 때에 이 옥스포드의 교수를 회상하라. 그러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33……라고. 1836년에 시노어에 의하

것은 좀 잔인한듯 하다…… 이 아이들은 그 부근 농촌의 쫓팔이'군보다 더 장시간 노동한다. 《타타, 악습》 운운의 무자비한 고발은 전혀 무근 거한 허위이며 가장 파충치한 위선이라고 탁인 적혀야 할 것이다…… 약 12년 전에, 공장주의《순리윤》 전체는《최후 한 시간》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며, 또 그런 까닭에 노동일을 한 시간 단축하는 것은 순리윤을 몽땅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높은 권위의 확인 밑에 공공연하게 또 아주 진실하게 선포되었을 때, 그 확인에 분개했던 사회 일부 사람들은 이제 만약 《최후 한 시간》의 채택에 관한 그 독창적 발전이 그후 훨씬 개량되어 그 채택은 《도덕》과 《리윤》을 같은 정도로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 노동의 길이가 온군 10시간으로 단축된다면, 도덕도 리윤도 모두 이 최후의, 《숙명적인 한 시간》에 달려 있는 것만큼, 아동 고용주의 순리윤과 아울러 아동들의 도덕도 또한 남아 가 버린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기필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181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1페이지). 같은 이 공장 보고서는 그 다음에 이 공장주 제씨의 《도덕》 및 《선행》의 표본을, 즉 그들이 소수의 전연 무책임한 노동자를 시켜서 그와 같은 종류의 청원서문에 서명하게 하고 그후 그것들을 한 공업 부문 전체, 주 전체의 청원서라고 칭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사한 제제, 술책, 유혹, 협박, 위조 등등의 표본을 제공하고 있다. 소위 경제 《파학》의 현상을 보이며 주는 지극히 특징적인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은 시노어——이 사람은 후일에 명예롭게도 정면적으로 공장 립'법을 옹호하여 나섰다——그 자신도, 그의 최초 및 그 후의 반대론자들도 모두 그 《독창적 발전》의 제변을 폭로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만 사실과 경험에 의거하였다. 《무슨 리유로》와 《어째서》는 그들에게 의연히 비밀로 남아 있었다.

33 그렇지만 이 교수 씨는 자기의 만체스터 여행에서 다소의 소극은 얻었다! 《공장법에 관한 서헌》에서는 순리윤 전체가 즉 《리윤》과 《리자》와 심지어 《그 이상의 무엇》까지도 모두 노동자의 노동 시간중 지불되지 않는 그 한 시간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보다 1년 전에 그가 옥스포드 대학생들과 유식한 숙물들을 위하여 저술한 《정치경제학 개론》에서 그는, 가치가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리카도의 전해를 반대하여 리윤은 자본가의 노동으로부터, 리자는 자본가의 절제, 그의 《Abstinence》〔절욕(節慾)〕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여 발견된《최후의 한 시간》이라는 신호 라팔은 1848년 4월 15일의, 런던 《에코노미스트》 지상에서 경제학계 최고 권위의 한 사람인 제임스 월손에 의하여 10시간 노동일 법을 반대하는 논쟁에서 또 한번 울리었다.

제 4 절 잉여 생산물

생산물중 잉여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 (제2절의 례에 있어서는 20파운드의 면방사의 $1/10$ 즉 2파운드의 면방사)을 우리는 잉여 생산물 (Mehrprodukt, surplus produce, produit net)이라고 칭한다. 잉여 가치불이 자본 총액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 생산물의 정도도 총생산물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잉여 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 로동을 대표하는 생산물 부분에 대한 잉여 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 규정된다. 잉여 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규정적인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의 정도도 생산물의 절대적인 수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 생산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하여 측정된다³⁴.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 구먹넨 이야기 자체는 낡은 것이지만 'Abstinenz' [《절속》]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었다. 로베르 씨가 그것을 독일어의 'Enthaltung' [《절속》]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그의 동국인(同國人)중 월트, 쉴제, 미헬 등등의 라틴어에 그리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Entagung' [《금욕》]이라고 승며 냄새가 나는 말로 번역하였다.

31 《매년 2,000파운드 스텔링의 리윤을 내는 20,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을 소유하는 어떤 개인에게는 그의 자본이 100명의 노동자를 일시키는 1,000명의 노동자를 일시키는 간에 또 생산된 상품이 10,000파운드 스텔링에 판매되든, 20,000파운드 스텔링에 판매되든 간에, 만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과의 합계, 즉 노동자가 그의 노동력을 보상하는 가치와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은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Arbeitstag, working day)을 형성한다.

약 그의 리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2,000파운드 스틸링 이하로 떨어지지만 많다면 전연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일 국민 전체의 현실적 이익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만약 어떤 국민의 현실적 순수 입, 그 국민의 지대와 리윤이 의연히 동일하기만 하다면 이 국민이 1,000만의 주민으로 구성되든, 혹은 1,200만의 주민으로 구성되든 간에 그것은 조금도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416페이지) [로썸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국립 출판소, 1935년, 제26장, 232페이지]. 리카도보다 훨씬 이전에, 잉여 생산물의 맹목적 신자이며, 대체로 잡담가적 무비판적 저술가이며, 공적에 반비례하여 명성이 높은 아서 영은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지가 고대 로마식으로 독립적 소농민들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그러한 주 전체가 아무리 잘 경작된들 그것은 현대 국가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단순히 인간을 번식시키는 유일한 목적 이외에 다른 무슨 목적에 소용이 될 것인가? (아서 영 《정치 산술……》, 런던, 1771년, 47페이지).

주 31에 대한 추가. 기묘하게도 《순수 소득을…… 노동 계급에게 유리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수 소득이라는 것을 리유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토마스 호프킨스 《지대 등등에 관하여》, 런던, 1828년, 126페이지).

제 8 장 로동일

제 1 절 로동일의 한계

우리는 로동력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로동력의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만약 로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생산에 6시간을 요한다면 그는 자기의 로동력을 나날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즉 그것을 판매할 때에 받은 가치를 재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의 로동일의 필요 부분은 6시간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소여의 크기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로동일 그 자체의 크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a ————— b 라는 선이 이를테면 6시간에 해당하는 필요 로동 시간의 계속 또는 길이를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로동이 ab 를 넘어서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등 만큼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7시간, 9시간, 12시간이라는 세 개의 각이한 로동일을 표시하는 세 개의 각이한 선을 얻는다.

제1의 로동일 a ————— b — c ,

제2의 로동일 a ————— b ————— c ,

제3의 로동일 a ————— b ————— c

연장된 선 bc 는 잉여 노동의 길이를 표시한다. 노동일 = $ab + bc$, 즉 = ac 인 까닭에 그것은 가변량 bc 가 변동함에 따라 변동한다. ab 는 소여의 양인 까닭에 bc 의 ab 에 대한 비율은 항상 측정될 수 있다. 그것은 제1의 노동일에 있어서는 ab 의 $1/6$ 이고, 제2의 노동일에 있어서는 $3/6$ 이고, 제3의 노동일에 있어서는 $6/6$ 이다. 또 더 나아가 $\frac{\text{잉여 노동 시간}}{\text{필요 노동 시간}}$ 이라는 비율은 잉여 가치분을 규정하는 만큼 이 선들의 비율이 알려져 있다면 잉여 가치분은 소여의 것으로 된다. 그것은 상기의 세 개의 각이한 노동일에 있어서 각각 $16\frac{2}{3}\%$, 50% , 100% 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잉여 가치분만으로는 노동일의 크기를 알아 낼 수 없다. 그것이 헤켈대 100% 라 하더라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등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일의 두 구성 부분인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보이며 주지만 그 각개 부분이 얼마나 큰가는 보이며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고 가변량인 것이다. 노동일의 두 부분중 그 하나가 노동자 그 자체의 부단한 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 노동의 길이 또는 계속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인 것이다³⁵.

노동일은 이와 같이 고정적인 길이가 아니고 변동적인 길이이기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오직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일의 최소 한도는 규정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연장선 bc , 즉 잉여 노동 = 0이라고 가정

35 《노동일——이것은 불확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니명쎈 《상공업에 관한 논술, 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함》, 런던, 1770년, 73페이지).

한다면 하나의 최소 한도가, 즉 노동일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노동해야 하는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 필요 노동은 항상 그의 노동일의 일부분만으로 되는데만큼 노동일은 결코 이와 같은 최소한에까지는 단축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노동일은 하나의 최대 한도를 가진다. 그것은 일정 한계를 넘어서 더 연장될 수는 없다. 이 최대 한도는 이중적으로 규정된다. 첫째로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은 24시간이라는 1자연일 동안에는 생명력의 다만 일정한 분량만을 지출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매일 일을 한다고치면 8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일간의 일정 부분 동안 노동력은 휴식하며 수면하지 않으면 안되며 노동일의 다른 일정 부분 동안에는 인간은 식사를 하며 세수와 목욕을 하며 외복을 입는 등등의 기타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이러한 순수한 육체적인 한계 이외에 또한 도덕적인 한계에 부딪친다. 즉 노동자에게는 일반적 문화 상태에 따라서 그 범위와 수량이 결정되는 정신적 및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동일의 변화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극히 신축 자재한 성질을 가지며 변동의 여지가 극히 크다. 그리하여 폐컨대 우리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의 극히 상이한 길이를 가지는 노동일을 볼 수 있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1일분의 가치대로 구매하였다. 1로동일에 걸쳐서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노동자를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하여 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1로동일이란 무엇인가? ³⁶ 그것

36 이 질문은 새 로버트 필이 비밍엄 상업 회의소에 제출한 <파운

은 어차피 자연적인 1일 간보다는 적은 것이다. 얼마나 적은가? 자본가는 이 최대한에 대하여 즉 노동일의 필연적인 한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진다. 자본가로서의 그는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명혼은 자본의 명혼이다. 그런데 자본은 단 하나의 생활 충동을, 즉 자기를 증식하며 잉여 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 부분인 생산 수단으로써 되도록 많은 분량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려고 하는 충동만을 가진다³⁷. 자본이란, 흡혈귀(吸血鬼)처럼 오직 산 노동을 흡수하는 때에야만 활기를 띠며 또 산 노동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일층 더 활기를 띠는 그러한 죽은 노동인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³⁸.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리에 맡겨진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된다³⁹.

자본가는 이와 같이 상품 교환의 법칙에 빙자한다. 그는

도 스털링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질문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이 후자의 질문은 펄이 버밍감의 《little shilling men》(《소 셸링파》)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으로만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37 《자본가의 파업은 지출된 자본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분량의 노동을 짜내는 데 있다》(J. G. 쿠틀셀 스튜이유 《공업 기업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술》, 제2판, 파리, 1857년, 63페이지).

38 《하루에 1노동 시간씩을 잃어 버리는 것은 상업 국가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로 된다》. 《이 왕국의 노동 빈민들 안에서 특히 제조 공업의 하층민들 안에서 사치품이 대단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들은 이때 그들의 시간까지도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망비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년명제 《상공업에 관한 논술》, 런던, 1770년, 47페이지, 153페이지).

39 《만약 노동자가 작업에서 해방되어 일순간이라도 휴식에 잠긴다면 초조하게 그를 감시하고 있는 탐욕적인 경제는 이 휴식을 절도 행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N. 랑제 《시민법의 이론》, 런던, 1787년, 제2권, 166페이지).

다른 온갖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의 사용 가치로부터 되도록 많은 효용(效用)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생산 과정의 요란한 소리에 놀리어 들리지 않던 노동자의 소리가 갑자기 들리어 온다.

내가 너에게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그나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평범한 상품 등속과는 다르다. 내가 그것을 구매한 리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너에게 자본의 가치 증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에게는 노동력의 과도한 지출로된다. 너와 나와는 시장에서 상품 교환의 법칙이라는 오직 하나의 법칙만을 안다. 그리고 상품의 소비는 상품을 양도하는 판매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나의 그날 그날의 노동력의 사용은 너에게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날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나날이 그것을 재 생산하여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년령 등등에 기인하는 자연적 소모를 문제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명일도 금일과 마찬가지로의 정상적 상태의 힘과 건강과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너는 나에게 부단히 《점약》과 《절제》의 복음(福音)을 설교한다. 그것은 좋다! 나는 사려 있는 겸소한 세대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며 노동력의 온갖 무사려한 낭비를 억제하고자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지속과 전전한 발전에 배치되지 않을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류동 상태에 두어 그것을 운동 즉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너는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의하여 하루 동안에 내가 사흘 걸려 회복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나의 노동력을 류동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내가 노동에서 리득을 보는 그만큼을 나는 노동의 실체에서 잃어버린다. 나의 노동력을 리용하는 것과 그것을 략탈하는 것과는 전연 상이한 일이다. 만약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정도의 노동을 할 때에 생존을 계속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이 30년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하루 하루 지불하여 주는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그 총가치의 $\frac{1}{365 \times 30}$

즉 $\frac{1}{10950}$ 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나의 노동력을 10년 간에 소비해 버린다면 너는 매일 나에게 그 총가치의 $\frac{1}{3650}$ 대신에 $\frac{1}{10950}$ 을, 다시 말하면 그 1일분 가치의 겨우 $\frac{1}{3}$ 만을 지불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는 매일 나의 상품 가치의 $\frac{2}{3}$ 를 훔치는 것이다. 너는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나에게 1일분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 위반되며 또 상품 교환의 법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을 가지는 노동일을 요구한다. 이때 나는 너의 심장에 호소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모범적인 시민일는지도 모르며 아마 동물 애호 협회 회원일 것이며 또 겸하여 성인이라는 명성을 누리는 사람일는지도 모르나 네가 나와서 관계에서 대표하고 있는 물건의 가슴 속에는 고동 치는 심장이 없다. 만약 그 속에서 무엇인가 고동 치는 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내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것이다. 나는 온갖 다른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는 까닭에 정상적인 노동일을 요구한다⁴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만약 극히 신축 지대한 노동일의 한계를 도의시킨다면 상품 교환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는 노동

40 노동일을 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1860—1861년의 런던 건축 노동자들의 대파업 때에 그 파업 위원회는 본문에서 말한 우리 노동자의 항변(抗辯)과 거의 일치하는 성명서를 공포하였다. 이 성명서는 《신축 기업가》를 통해서도 가장 탐욕적인 새·M·피토라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명칭》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 피토는 1867년 이후에 슈트루우쓰베르그와 더불어 몰락해 버렸다!).

일의 아무런 한계도, 따라서 또 잉여 노동의 아무런 한계도 나오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시키어, 만약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시도할 때에 그는 구매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되는 상품의 독특한 성질은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는만큼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에 그는 판매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종의 이불 배반(二律背反)이 일어 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상품 교환 법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러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서 있을 때 해결을 짓는 것은 힘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 있어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위한 투쟁, 다시 말하면 총체로서의 자본가, 즉 자본가 계급과 총체로서의 노동자, 즉 노동 계급간의 투쟁으로서 나타난다.

제 2 절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 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부분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노동자는 자유, 부자유의 구별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의 여분의 노동 시간에 생산 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 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⁴¹ 그것은 생산 수

41 《노동하는 사람들은……실은 부자라고 칭하는 년금(年金) 생활자와 자기 자신의 쌍방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에드먼드 버크 《공평에 관한 의견과 실정(實情)》, 런던, 1800년, 2, 3페이지).

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이든, 에트루리아의 승려이든, 로마의 시민이든, 노르만의 귀족이든, 아메리카의 노예 소유자이든, 왈라키아의 보야르이든, 현대적인 지주 또는 자본가이든, 다 마찬가지이다⁴². 그렇기는 하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 구성에 있어서 주되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 생산물의 교환 가치가 아니라 그 사용 가치인 경우에는 잉여 노동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욕망의 범위에 의하여 국한되며 생산 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는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한 욕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대에 있어서도 교환 가치를 그 독립적인 화폐 형태로 획득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그러한 경우와 장소에 있어서는 즉 금, 은의 생산에 있어서는 과도 노동이 놀랄만한 정도에 달했다. 여기서는 죽도록 일시키는 강제 노동이 과도 노동의 공인적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디오도루스 시쿨루스의 글을 읽으면 충분하다⁴³. 그러나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예외이다. 그러나 그 생산이 아직도 노예 노동, 부역 노동 등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국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지배를 받는 세계 시장——그들

42 니브르는 자기의 저서 《로마사》가운데서 [제5판, 1853년, 73페이지] 극히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에트루리아의 건축물 같은 그 폐허만 보아도 우리를 경탄케 하는 건축물들은 적은(!) 국가들에서는 명주와 농노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엄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스몬디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통의 테스》는 고용주와 고용 노동자의 존재물 전제로 한다고 말하였다.

43 《우리는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며 자기의 타체문 가리우는 것까지도 좀처럼 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사람들 (에지프로, 에치오피아 및 아라비아의 경계 사이에 있는 금광에서 일하고 있는)을 보고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병자, 허약자, 로인, 연약한 부녀자에 대해서도 추호의 고역도 용서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구타에 이기지 못하여 죽음이 그들의 고통과 고통을 끝내게 할 때까지는 끝끝내 노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역사 문고》, [슈루트가르트, 1828년], 제3부, 제13장, [280페이지]).

로 하여금 자기 생산물의 외국에 대한 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되게 하는 세계 시장——에 끌리어 들어 가자 마자 노예 제도, 농노 제도 등등의 미개한 학대 우에 과도 노동이라는 문명적 학대가 첨가된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합중국 남방주(州)들에 있어서의 흑인의 노동은 생산의 목적이 주로 직접적인 자기 수요의 충족이었던 동안은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면화의 수출이 이 주(州)들의 사활적 관심사로 되여감에 따라, 때로는 흑인의 생명이 7년간의 노동에 의하여 소모되어 버릴 정도의, 과도 노동이 수지 계산 제도의 요인으로 되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벌써 유용한 생산물의 일정량을 흑인으로부터 짜내는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잉여 가치 그 자체의 생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페컨대 도나우 제 공후국(公侯國)에서 보는 부역 노동에 있어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이었다.

도나우 제 공후국에 있어서의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을 영국의 공장에 있어서의 동일한 갈망과 비교하는 것은 특별히 흥미 있는 일이다. 왜냐 하면 부역 노동하에서의 잉여 노동은 하나의 독립적인 일목로 연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노동일이 필요 노동 6시간과 잉여 노동 6시간으로써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자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6 즉 36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마치 그가 1주일에 3일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 시간의 분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은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일한 관계를 페컨대 노동자가 매 1분간에 30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고 30초는 자본가를 위하여 노동한다는 등등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 부역 노동에 있어서는 사태가 이와 다르다. 페컨대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기 생존의 유지를 위하

여 수행하는 필요 노동은 보야르를 위하여 수행하는 그의 잉여 노동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는 전자의 노동을 자기 자신의 경작지에서 수행하고 후자의 노동을 영주의 장원(莊園)에서 수행한다. 그러므로 노동 시간의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병행하여 존재한다. 잉여 노동은 부역 노동의 형태로서 필요 노동으로부터 엄밀히 분리되어 있다. 현상 형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구별이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간의 '량'적 관계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1주일에 3일간의 잉여 노동은 이 노동의 명칭이 부역 노동이든, 임금 노동이든 간에 의연히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등'가물도 형성하지 않는 3일간의 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이 자본가의 경우에는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으로의 충동으로 나타나며 보야르의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부역일에 대한 직접적 추구(追求)로 나타난다⁴⁴.

도나우 제 공후국에서 부역 노동은 현물 지대 및 농노 제도의 다른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배 계급에 대한 결정적인 공급이었다. 부역 노동이 존재한 곳에서는 부역 노동이 농노 제도로부터 발생 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반대로 농노 제도가 부역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보통이다^{44a}. 루마니아의 주들에서도 그랬다. 그 곳의 시초에 있어

44 다음에 말하는 것은 크림 전쟁 후의 변혁 이전에 조성되었던 루마니아 제주(州)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44a (제3판 주. 이것은 독일, 특히 엘베강 동쪽 프로이센에 대해서도 또한 타당한다. 15세기에는 독일 농민은 비록 거의 도처에서 생산물과 노동으로써 일정한 공납을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기타 관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자유인이었다. 브란덴부르크, 쾰른, 슬레제 및 동(東)프로이센에 있어서의 독일 식민지 개척자들은 법률상으로도 자유인으로 인정되어 있었다. 농민 전쟁에서의 귀족의 승리는 이러한 사태에 중단을 지었다. 비단 남부 독일의 정부된 농민이 다시 농노로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벌써 16세기 중엽부터는 동 프로

서의 생산 방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기초를 둔 것이었으나 그 공동체적 소유는 쓸라브적 또는 특히 인도적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다. 토지의 일부분은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서 공동체의 성원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경작되었고 다른 일부분——공유지——은 그들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로동의 생산물은 일부분은 흉작 및 기타의 재난에 대한 예비 기금으로 쓰이었고 일부분은 전쟁과 종교에 관한 비용 및 기타의 공동체의 지출에 충당할 목적을 가지는 국가적 기금으로 쓰이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군사상, 종교상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들이 공동체적 소유와 함께, 그것과 결부된 로역(勞役)까지도 빼서가졌다. 공동체 토지에서의 자유 농민들의 로동은 공동체 토지의 강점자들에 대한 부역 로동으로 전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노적 관계가 발전하였지만 세계의 《해방자》인 로씨야가 농노제를 폐지한다는 구실 밑에 그것을 법제화하기 까지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발전하였을 뿐이고 법률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로씨야의 장군 끼셀로브에 의하여 1831년에 포고된 부역 로동 법전은 물론 보야르들 자신이 불러 준 것이었다. 이리하여 로씨야는 일석 이조(一石二鳥)격으로, 도나우 제 공후국의 귀족들을 전취하는 동시에 구라파 전체의 자유주의적 천치들의 박수 갈채를 획득하였다.

이 부역 로동 법전은 «Règlement organique» (레글망 오르가니크)라 불리우는바 그것에 의하면 매개의 왈라키아 농민은 세목에 걸쳐 려겨된 허다한 현물 공납 이외에 소위 로

이센, 브란덴부르크, 폼메른 및 슐테젠의 자유 농민들이 또 그후 얼마 안되어 슐테쓰밋히—홀슈타인의 자유 농민까지도 농노로 전락하여 버렸다 (마우터 《독일에 있어서의 부역 농장》, 제4권. —마이첸 《1866년의 명토 범위내 나타난 프로쎈야 국가의 토지 및 농업 제 관계》, 베를린, 1873년. —한센 《슐테쓰밋히—홀슈타인에 있어서의 농노 제도》, J. 옹겔스).

지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12로동 일분의 일반 로동. (2) 1일분의 경작 로동. (3) 1일분의 장작 운반. 이상의 총계는 1년에 14일이다. 그러나 법전의 집필자들은 정치 경제학에 대한 심각한 리해를 가지고 1로동일을 그 보통의 의미로는 해석하지 않고 1일분의 평균적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적 생산물이란 것은 교환하게도 어떠한 거인이라도 24시간내에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그러한 양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레글망》 그 자체가 진짜 토씨야식 풍자의 로골적인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12로동일이란 것은 36일간의 손 로동 생산물로 리해해야 할 것이고 전야 로동 1일분이란 3일분을 의미하며, 장작 운반 1일분도 역시 그 3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도합 42부역일이 된다. 그러나 이 위에 또 소위 《Jobagie》(《요바기》)라는 것이 첨가되는데 이것은 임시적으로 생산상 요구에 따라 지주에게 제공되는 로동 봉사를 말한다. 매개 농촌은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년 《요바기》를 위하여 일정한 수의 인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추가적인 부역 로동은 왈라키아의 농민 매인당 14일로 계산된다. 그리하여 매년 의무적인 부역 로동은 56로동일에 달한다. 그런데 왈라키아에서 1년간의 농업일수는 기후 불순으로 말미암아 210일밖에 되지 못한다. 그 중에서 일요일과 명절날이 40일, 비오는 날이 평균 30일, 도합 70일이 떨어져 나간다. 나머지는 140로동일이다. 필요 로동에 대한 부역 로동의 비율인 $56/84$, 즉 $66\frac{2}{3}\%$ 는 영국의 농업 로동자 또는 공장 노동자의 로동을 규정하는 잉여 가치비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잉여 가치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써 규정된 부역 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레글망 오르가니크》는 영국의 공장 법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회피(回避)를 용이하게 할 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12일을

54일로 만들고 나서 또 다시 54 부역일의 각개의 명목상 1일간 작업을 그 다음 날에 일부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컨대 하루' 동안에 제초(除草)를 해야 하는 지면이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데는, 특히 옥수수 밭에 있어서는, 2배의 시간이 드는 그러한 면적으로 되어 있다. 약간의 농업 노동에 대한 법정의 1일분 노동은 그 1일이 5월에 시작되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물다비야 지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일층 더 가혹하다. 승리에 도취한 어떤 보야르는 다음과 같이 웨쳤던 것이다. <레굴망 오르가니크>에 의한 12 부역일은 1년간 365일이다! >⁴⁵.

만약 도나우 제 공후국의 <레굴망 오르가니크>가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의 적극적 표현이며 그 각개 조항은 이 갈망을 법문화(法文化)한 것이라면, 영국의 공장법은 이 동일한 갈망의 소극적 표현이다. 이 법률은 국가에 의하여 그나마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국가측으로부터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의 무제한한 흡수에 대한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가일층 위력적으로 장성하는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공장 노동의 제한을 필요케 만든 것은 구아노(海조분)를 영국의 전야(田野)에 뿌리지 않을 수 없게 한 그 동일한 필연성이었다. 즉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력(地力)을 고갈시킨 맹목적인 약탈 행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엄습하였다. 영국에 있어서의 주기적인 전염병은 독일과 불란스에 있어서의 병사들의 신장(身長)의 저하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하여 준다⁴⁶.

45 이 이상 더 상세한 것은 E·테노의 다음 저서에서 볼 수 있다. <도나우 제 공후국의 정치 사회사>, 파리, 1855년 [301페이지 이하].

46 <일반적으로 어떤 유기체의 평균적 신장이 장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그 유기체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인

현재 (1867년) 실시되고 있는 1850년의 공장법은 평일의 주간 평균 노동일을 10시간으로 제정하고 있다. 즉 1주일의 처음 5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씩인 데 이 시간중에서 법률상 반시간은 조반 식사에, 한 시간은 점심 식사에 배정되어 있는 결과 나머지 노동 시간은 10시간 반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8시간인 데, 그중에서 반시간은 조반 식사에 배정된다. 남은 것은 60노동 시간인 데, 1주일의 처음 5일간은 10시간 반씩이고 최후의 하루 즉 토요일은 7시간 반이다⁴⁷. 이 법률의 집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내무 대신에게 직속하는 공장 감독관들이 임명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는 반년마다 의회에 의하여 공포되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는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갈망에 관하여 계속적인 공인적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간의 신장은 만약 육체적 또는 사회적 제 조건이 인간의 번영을 침해할 때에는 감소된다……징병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구라파 제국에서 그 제도의 실시 이래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과 그의 일반적인 병역 적격성(兵役 適格性)이 감퇴되었다. 혁명 (1789년) 이전에 있어서는 볼탄서 보병의 신장의 최저한은 165센치메터이었는데 1818년 (3월 10일의 법률) 에는 157센치메터이었고 1832년 3월 21일의 법률에 의하면 156센치메터이었다. 볼탄서에서는 평균적으로 신장의 부족과 육체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징모자의 반수 이상이 불합격으로 인정된다. 병역상 표준이 작센에 있어서는 1780년에 178센치메터이었던 것이 지금은 155센치메터로 되어 있다. 그것은 프로이센에 있어서는 157센치메터이다. 1862년 5월 9일부 <바이에른 신문>에 게재된 마이에트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8년간의 평균을 볼 때 프로이센에서 1,000명의 징모자 중 716명의 병역 불합격자가 나왔는데 그중 317명은 신장 부족에, 그리고 399명은 육체적 결함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베를린에서는 1858년에 보충병 인원에 대한 규정상 할당수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156명의 결원이 생겼다》(J. V. 리비히 《화학의 농업 및 식물 생리학에 대한 응용》, 제 7판, 1862년, 제 1권, 117, 118페이지) [로썸야어 판, 일리엔코브프수 번역, 제 3판, 모스크바, 1870년, 83페이지 참조].

47 1850년 공장법의 역사는 본장(本章)의 이하 서술에서 주어진다.

이제 우리는 잠간 동안 공장 감독관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⁴⁸.

「사기 수단을 쓰는 공장주는 작업을 오전 6시부터 15분 일찌기——15분 이상 될 때도 있고 이하 될 때도 있다——개시하여 오후 6시부터 15분 늦게——15분 이상 될 때도 있고 이하 될 때도 있다——끝마친다. 또 그는 명목상은 조반 식사에 배정되었다고 하는 반시간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5분씩을 떼어 내며 점심 식사에 배정되었다고 하는 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10분씩을 횡령한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15분 늦게——때에 따라 15분 이상도 되며 이하도 된다——작업이 끝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리득을 보게 된다.

48 영국에 있어서의 대공업의 초창기로부터 184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 자신은 약간 개소에서만 언급하기로 하고 이 기간에 관하여는 독자들이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영국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 (K. 맑스, F. 엥겔스 전집, 3책 1책 1권, 제3권)를 참조하기 바란다. 엥겔스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정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이해하였던가는 1815년 이후에 발간된 공장 감독관 보고서, 광산 감독관 보고서 등등이 보이며 주는 바이다. 또 그가 노동 계급의 실정을 얼마나 놀랄만큼 상세하게 묘사하였는가는 그의 저작을 그보다 18—20년 후에 발간된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1863—1867년)의 공식적 제 보고서와, 극히 과장적으로라도,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 후자는 바로 1862년까지는 공장 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또 부분적으로는 현재도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산업 부문들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는 엥겔스에 의하여 묘사된 상태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다소간이라도 본질적인 변경은 가하여 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실례를 주로 1848년 이후의 자유 무역 시대 즉 그것에 관하여 거 과학적으로는 보잘 것 없으면서, 허장성제를 일삼는 자유 무역 사상의 행상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지어낸 이야기문 한 그 락원 시대로부터 차용하겠다. 하여튼 여기서 영국이 큰 역할을 노는 것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형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만이 지금 취급되는 대상에 대해서 공식적이며 면속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에 다른 리유는 없다.

오전 6시 이전.....15분	
오후 8시 이후.....15〃	5일간 총계 300분
조반 식사 시간에서 ...10〃	
점심 식사 시간에서 ...20〃	
합계	60분

토요일에 대한 것

오전 6시 이전.....15분	1주일간의 총리득 340분
조반 식사 시간에서 ...10〃	
오후 2시 이후.....15〃	

이것은 1주일당 5시간 40분에 달하며 이것을 명절일 또는 임시 휴업의 2주일을 공제한 50로동 주간으로써 승하면 27로동일로 된다⁴⁹.

《만약 로동일이 표준적 계속 시간을 넘어서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것은 1년간에는 $2\frac{1}{2}$ 로동일로 될 것이다⁵⁰. '이곳 저곳에서 틈을 타 한 조각 한 조각 떼어 뽀뽀로써 얻어지는 매일 한 시간의 추가 시간은 1년의 12개월을 13개월로 만든다⁵¹.

공황——그 기간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단축된 시간》으로만, 1주일에 오직 몇날간만 작업이 수행되지만——은 물론 로동일의 연장에 대한 지향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더 커야 한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게 되면 될수록 잉여 로동 시간은 더 길어야 한다. 그리하여 1857—1858년의 공황기에

49 《공장 단축법. 하원(下院)의 지시에 의하여 1859년 8월 8일 인쇄》 가운데 게재된 《공장 감독관 L. 호너씨에 의한……제안》8, 5페이지.

50 《1859년 10월의 반년간 공장 감독관 보고》, 35페이지.

51 《1858년 4월 30일의 반년간 공장 감독관 보고》, 9페이지.

관하여 공장 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처럼 경기가 나쁜 때에 파도 로동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자가 당착(自家撞着)인듯이 보이지만 불경기 상태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충동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추가 리윤을 확보한다.』⁵². 페오나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관찰 지구에서 122개의 공장은 전연 폐업하였고 143개의 공장은 조업을 중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공장 전체는 조업 단축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때에 법정 시간 이상의 파도 로동은 계속 수행되고 있다』⁵³. 하우엘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공장에서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조업 시간이 반감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로동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침해 당함으로써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빼우고 있다는 신소를 이전과 같은 수만큼 받았다』⁵⁴.

이와 동일한 현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치참한 면화 공황 시기에도 더 작은 규모로 반복되었다⁵⁴.

『만약 우리가 식사 시간중이거나 혹은 기타의 비법적인 시간에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게 된다. 즉 노동자들은 아무리해도 공장을 떠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강제가 필요하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그렇다, 운운. 그러나 만약 <직공>들이 기계의 운전이 정지된 후에도 공장에

52 동상 보고서 10페이지.

53 동상 보고서 25페이지.

54 『1861년 4월 30일에 끝나는 반년간의 공장 감독관 보고』, 부록 제2호를 보라. 『1862년 10월 31일……보고』, 7, 52, 53페이지. 법령 위반 건수는 1863년 후반기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1863년 10월 31일에 끝나는……보고』, 7페이지 참조.

머물터 있다면 그 이유는 다만 그들에게 오전 6시와 오후 6시의 사이에는, 즉 법정 노동 시간내에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여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⁵.

‘《법정 시간을 넘는 파도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추가 리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요행히도 발각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발각되는 경우에도 벌금 액과 재판 비용은 사소한 까닭에 결국 그 차액은 의연히 그들의 리익을 보장한다고 타산하고 있다》⁵⁶. 《추가적 시간이 1일간에 수행되는 사소한 절도 행위의 집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에는

55 《1867년 10월 31일……보고》, 23페이지. 공장주들의 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공장 직공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공장 노동의 온갖 중간에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묘한 사실이 이것을 실증한다. 즉 1835년 8월 초에 듀스베리 (요크셔)의 치안(治安) 관사는 배틀리 부근의 8대 공장 소유자들이 공장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받았다. 신사들 중 일부는 그들이 12세 내지 15세의 소년 5명을 금요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식사 시간과 야반(夜半) 한 시간의 수면 시간 이외에는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고 고역을 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구멍이라 불리우는 소위 ‘Rhoddy Lole’ (《누메기’간》) 속에서 30시간을 쉼 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방에서는 털누메기물 젖는 작업을 하며 그 안의 공기는 성인 노동자라도 항상 손수건으로써 입을 가리워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티끌과 털부스러기 등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기소된 신사들은 웨이커 포도로서 선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중풍인들이었던 만큼 선서 대신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즉 그들은 대대한 인자심을 가지고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4시간의 수면을 허여하려고 했으나 이 완고한 아이들은 아무리해도 침대에 누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웨이커 포도 신사들은 20파운드 스털링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드라이펜은 일찌기 이러한 웨이커 포도들을 예상하였다.

《남 보기에야 신성이 가득 찬 여호, 선서는 무서워하면서도 악마 같이 거짓말한다. 경건한 태도로 주변을 살피 보며 사순제제(四旬齋戒)도 거절듯하다. 기도를 들이지 않고서는 죄지를 생각을 감히 못한다!》.

56 《1856년 10월 31일……보고》, 34페이지.

감독관은 그들의 위법 행위를 증명함에 있어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곤란에 봉착한다》⁵⁷.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서 흠쳐 내는 이 《좁 도적질》을 공장 감독관들은 《분(分) 도적》⁵⁸ 《분 흠치기》⁵⁹라고 칭하며 혹은 노동자들의 술어에 따라 《식사 시간의 뜯어 먹기》라고도 칭한다⁶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잉여 노동에 의한 잉여 가치의 형성은 아무런 비밀도 아닌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극히 존경을 받는 공장주의 한 사람은 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매일 10분씩만 규정 시간 이상으로 작업하는 것을 허가하여 준다면 당신은 나의 주머니 속에 매년 1,000파운드 스텔링을 집어 넣어 주는 셈으로 된다》⁶¹. 《시간의 원자(原子)는 리운의 요소이다》⁶².

이 점에 있어서 온근 하루' 동안 일하는 노동자를 《온근 시간 노동자》라고 칭하며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절반 시간 노동자》라고 칭하는 것 이상으로 더 특징적인 것은 없다⁶³. 이 경우에 노동자는 인정화된 노동 시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일체의 개인적 차이는 《온근 시간 노동자》와 《절반 시간 노동자》간의 차이에 귀착된다.

57 동상보고서 35페이지.

58 동상보고서 48페이지.

59 동상보고서 48페이지.

60 동상보고서 48페이지.

61 동상보고서 48페이지.

62 《1860년 4월 30일……보고》, 59페이지.

63 이 표현은 공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 보고서에서도 공인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제 3 절 착취의 법률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 부문들

이때까지 우리는, 영국의 어떤 부르조아 경제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아메리카 인디안에 대한 서반아인들의 잔인성에 비해서도 못하지 않는 무제한한 권리 탐욕이⁶⁴ 드디어 법률적 통제와 사슬로써 자본을 얹매지 않을 수 없게 한 그러한 분야에서 로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 로동에 대한 참으로 숭양이와 같은 탐욕을 관찰하였다. 이제 우리는 로동력의 착취가 천재도 아직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주 최근 까지도 구속을 받고 있지 않던 약간의 생산 부문에 시선을 돌리자.

《주(州) 치안 판사 브로우톤 씨는 1860년 1월 14일 노팅엄 공회당에서 개최된 어떤 집회의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이 도시 주민중 레쓰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문명 세계에서는 들어 보지도 못할 정도의 궁핍과 고난이 지배하고 있다……9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들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로부터 끌리어 나와 밤중 10, 11, 12시까지 로동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지는 마비되고 체구는

64 《공장주들의 탐욕, 그들의 티운 추구에 있어서의 잔인성은 서반아인들이 황금을 추구하여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나타낸 잔인성에 비하여 결코 못하지 않다》(존 웨이드 《중간 계급 및 로동 계급의 역사》, 제3판, 런던, 1835년, 114페이지). 일종의 정치 경제학 개론인 이 책의 이론적 부분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꽤나 대 상업 공황에 관한 견해와 같은 약간의 독창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역사적 부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씨 콜튼 이튼의 《민민의 상태》(런던, 1797년)로부터의 파렴치한 표절(剽竊)이다.

위축되며 용모는 우둔한 표정을 띠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목석 같은 둔중한 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마메트 씨 및 기타의 공장주들이 등단하여 어떠한 토론에도 반대하여 항의한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이러한 제도는 몬타규 발피 목사가 서술한 바와 같이 무제한적 노예 상태의, 즉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및 지'적 제 관계에 있어서의 노예 상태의 제도이다……성인 남자들의 로동 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할 목적으로 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우리는 버지니아 및 캐롤라이나의 면화 재배자들을 대단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체적의 위력으로써 하는 그들의 흑인 장사와 인육 매매가 자본가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면사포(面紗布)와 칼라 제조에서 날마다 수행되고 있는 이 완만한 인간 살육에 비해서 더 흉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⁶⁵.

스탐포드사의 도기 제조업은 최근 22년간에 세 번이나 의회의 조사 대상으로 되었다. 조사의 결과들은 1841년에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에 제출된 스크리벤 씨의 보고와 추밀원(樞密院) 의무관(醫務官)의 지령에 의하여 공표된 1860년의 그린하우 박사의 보고(공중 보건 제3회 보고, 제1부, 102—103페이지)와 그리고 끝으로 1863년 6월 13일부,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중의 1863년도의 론지 씨의 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나의 과업을 위하여는 착취를 당한 그 아동들 자신의 약간의 증언을 1860년 및 1863년의 보고서로부터 인용하면 족하다. 우리는 이 아동들의 상태에 의하여 성인들 특히 처녀들과 부인들의 상태를, 그나마 면방적업 기타와 같은 것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

65 1860년 1월 17일부, 《런던 메일리 텔레그라프》.

는 그러한 산업 부문에서의 그들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다⁶⁶.

아홉살 되는 윌리엄 우드는 《그가 만 7세 10개월 되던 때에 노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릇 형 나르기》(형 속에 든 제품을 전조실에 운반해 가고 다음 빈 형만 가지고 돌아 오는 일) 일을 하였다. 그는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쯤에 일을 끝마치곤 했다. 《나는 평일에는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그 실례로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7세 아동이 15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12세의 소년 J·버레이는 다음과 같이 공술한다. 《나는 그릇 형을 운반하며 록로(轆轤)를 돌립니다》. 《나는 아침 6시에 오곤합니다. 새벽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밤 철야해서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밤 이후는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밤은 나 이외에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철야해서 일했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죄다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셸링 6펜스 (1탈레르 5그로셴)를 받고 있습니다. 철야해서 일해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먼저'주 일에는 나는 두밤을 철야해서 일했습니다》. 10세의 소년 퍼니하우는 다음과 같이 공술한다. 《나의 점심 시간은 언제나 온건한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반시간만일 때가 자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번번이 그렇습니다》⁶⁷.

그런하우 박사는 스톡-아폰-트렌트 및 월스탄톤의 도기 제조 지방에서 수명이 비상히 짧다고 언명하였다. 스톡 지방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 인구의 30.6% 이하, 월스탄톤

66 엥겔스 《영국에 있어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249—251페이지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3권, 489—490페이지] 참조.

67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63년》. 부록, 16, 19, 18페이지.

에서는 그 30.4% 이하가 도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년령에 속하는 성인 남자중 흉부(胸部) 질환으로 죽는 사망자수 중에서 전자의 지방에서는 그 반수 이상이, 후자의 지방에서는 약 그 $\frac{2}{5}$ 가 도기공에 속한다. 해리의 개업의(開業醫) 부트로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도기공들은 대대로 전 세대에 비하여 체소(體小)하고 허약하다》. 다른 의사 맥크빈 씨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25년전에 도기공들을 상대로 개업을 한 이래 이 계급의 현저한 퇴화는 신장과 체중의 격감(激減)에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증언들은 1860년의 그린하우 박사의 보고서에서 취해 온 것이다^{6,8}.

1863년의 위원 보고서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부 스타포드셔 병원의 의사장 J·T·아렛지 박사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도기공은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퇴화한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보통 키가 작으며 체격이 나쁘며 가끔 흉곽(胸廓)이 이지러져 있다. 그들은 조로(早老) 단명하다. 또 그들은 지둔(遲鈍)하며 피'기가 없고 체질이 허약하여 만성 소화 불량과 간장과 신장(腎臟)의 기능 장애와 류마티즘에 잘 걸린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은 폐염,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흉부 질환이다. 천식의 한 종류로서 그들에게만 특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기공의 천식 혹은 도기공의 폐'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선(腺)과 뼈와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을 침범하는 Skrophulose(瘰癧)는 도기공의 $\frac{2}{3}$ 이상이 걸리고 있는 병이다. 이 지방 주민의 퇴화가 아직 더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은 오로지 린접 농촌 지방으로부터의 인원 보충과 더 건강한 주민층과의 결혼의 덕택이라고 할 것이다》. 얼마 전

68 《공중 보건, 제3회 보고》, 103, 105페이지.

까지 이 병원의 진숙 의'과 의사이었던 찰스 피어슨 씨는 위원회 성원인 문지에게 준 한통의 서한 가운데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통계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개인적 관찰에 근거를 두는 것이지만 나는 이 불쌍한 아동들의 건강이 그들의 양친과 고용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으로 제공된 것을 보고 비분 강개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에게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는 도기공의 질병의 원인들을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긴 노동 시간>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전 세계를 통하여 그러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조업이 금후로는 그 거대한 성공에 노동자들의——이 노동자들의 노동과 기능에 의하여 그러한 대성과가 거두어지는 것이다——육체적 퇴화와 각종 신체적 고난과 조사(早死)가 수반한다는 수치스러운 사실과 융화하지 못할 것⁶⁹을 기대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도기업에 관하여 여기서 말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도기업에도 타당한다⁷⁰.

성냥 제조업은 1833년 이래 즉 린(燐)을 나무개피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1845년 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하였고, 런던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 특히 만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틀, 노르위치, 뉴캐슬, 글래스코에로 확대되어 갔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 1845년에 벌써 원나의 어떤 의사가 성냥 제조공들에게 특유한 병으로서 발견한 저작근 경련증(咀嚼筋痙攣症)이 만연되었다.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반수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 제조업은 건강에 좋지 못한 것과 작업 조건이 나쁜 탓으로 아주 평판이 나쁘며 그

69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63년>, 24, 22페이지 및 별제지 11페이지.

70 동상 보고서, 별제지 57페이지.

결과 오직 로동 계급의 가장 명략한 부분——굶주리는 과부 등등——만이 그들의 아동을, 《누뭇기를 입은, 굶어 죽어 가는, 접연 방임되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⁷¹⁾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 있다. 위원회 성원 화이트가 (1863년에) 설문한 중인들 중에서 270명은 18세 미만, 50명은 10세 미만이었고 10명은 겨우 8세, 5명은 겨우 6세이었다. 로동일의 길이는 12시간으로부터 14, 15시간의 사이를 왕래하고 있으며 야간 로동이 수행되며 식사는, 시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에 린독(磷毒)이 충만한 작업장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단테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다라면 그가 그린 가장 처참한 가상적인 지옥의 광경도 이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벽지(壁紙) 공장에서 조악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되고 더 정교한 것은 손으로 인쇄된다 (목판 인쇄). 이 공장에서 생산이 가장 활기를 띠는 때는 10월 초부터 4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중 작업은 가끔 거의 중단 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더 늦게 십야까지 계속된다.

J·리치의 공술. 《지난 겨울 (1862년)에 19명의 소녀중 6명이 과도 로동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W·더퍼의 공술. 《아이들은 가끔 피로로 인하여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은 우리를 자신도 가끔 그렇게 되군합니다.》 J·라이트번의 공술. 《나는 13세입니다……지난 겨울에 우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재작년 겨울에는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나는 발이 쓰아서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습니다.》 G·왓스덴의 증언. 《나의 이 아이가 7세되던 때에 나

71 동상 보고서, 별폐지 54페이지.

는 매일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왕복하였으며 이 아이는 보통 16시간씩 일했습니다!……그 애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애에게 음식을 먹여 준 적이 가끔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그 애는 기계에서 떠나도 안되고 기계를 멈추어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체스터의 어떤 공장의 공동 경영자이며 관리자인 스미스의 말을 듣자, 《우리들 (우리들이란 <우리들>을 위하여 노동하는 <직공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은 식사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노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10시간 반이라는 1일분 노동은 대체로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그후 시간은 죄다 시간외 노동으로 된다⁷² (이 스미스 씨 자신은 10시간 반 동안에 과연 한번도 식사를 하지 않는가?). 우리들 (스미스 그 사람을 의미함)은 오후 6시 이전에 끝마치는 일은 드물다 (끝마친다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우리들>의 산 기계의 사용을 끝마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들 (또 다시 순교자(殉敎者)를 의미함)은 실은 1년간을 통해서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아동과 성년자 (아이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합하여 152명, 성년자 140명)는 똑같이 최근 18개월 동안에 평균해서 아무리 적더라도 1주일에 7일 5시간을, 즉 1주일에 78시간 반씩을 일하였다. 금년 (1863년) 5월 2일까지의 6주간에 있어서는 평균이 더 높아져서 1주일에 8일 즉 84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잉여 노동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들 제제는 10시간반 노동을 표준 노동일, 따라서 표준적인 잉여 노동도 포함되어 있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표준 노동일이 끝난 후에는 《시간외 노동》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많이 지불된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보겠지만 소위 표준 노동일 시간내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사용은 가치 이하로 지불되는 것이며 따라서 《시간외 노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술책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설사 《표준 노동일》 동안에 사용되는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

pluralis majestatis (존칭 복수)를 것처럼 좋아 하는 바로 이 스미스 씨는 미소를 띠고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기계 로동은 험한 것이다》라고. 그런데 목관 인쇄를 채용하는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 로동은 기계 로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공장주 제씨는 《적어도 식사 시간중에는 기계 운전을 정지할 것》이라는 제안에 대하여 분격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보로 (런던 시내)의 어떤 벽지 공장 지배인 오들리 씨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로동 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이라면 그것은 우리 (!) 에게 지극히 요망되는 바이다. 그러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로동 시간은 우리 (!) 에게는 적합치 않다……우리는 점심 식사 시간에 기계 운전을 정지한다 (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이 운전 정지는 종이와 물'감에는 이렇다할만한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그는 동정적으로 부연한다——나는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시간의 손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의 의견은 소박하게도 다음과 같다. 약간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상회》들은 시간, 즉 타인의 로동을 점유하는 시간을 잃어 버린다는 것, 또 그렇게 함으로써 《리윤을 잃어 버린다》는 것을 근심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12—16시간 동안에 점심 식사를 《잃어 버리게》 해도 좋다는, 또는 그들에게 대하여 마치 증기 기관에 석탄과 물을, 양모에 비누를, 차륜에 기름을 주는 등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 그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로동 수단의 단순한 보조재로서 점심 식사를 주어도 좋다는 《충분한 리유》로는 되지 못한다라고⁷³.

73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63년》, 증거 자료, 123, 124, 125, 140페이지 및 별표지 54페이지.

영국의 어떠한 산업 부문도 빵 제조업 이상으로 (우리는 금방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있는 기계에 의한 빵 제조는 도외시한다) 구식인, 심지어 로마 제정 시대 시인의 작품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전(前) 기독교적 생산 방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미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이 점령하는 노동 과정의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 과정을 발전하는 그대로 접수한다.

믿을 수 없이 조악한 빵의 제조, 특히 런던에 있어서의 그것은 《조악 식료품의 제조에 관한》 하원 위원회 (1855—1856년)와 하랄 박사의 《발각된 조악품》에 의하여 처음으로 폭로되었다⁷⁴. 이러한 폭로의 결과가 1860년 8월 6일의 《조악 음식물 제조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었으나, 이것은 조악품의 매매에 의하여 《정직한 돈 벌이를 할 것》을 기도하는 매개 자유 상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최대한의 은근성(殷勤性)을 보이며 주고 있는 까닭에, 하나의 효과 없는 법률이였다⁷⁵. 위원회 그 자체는 자유 상업은 본질상 조악품의 또는 영국인들의 재치 있는 표현에 의하면 《궤변적 상품》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자기의 확신을 상당히 소박한 형태로 표명하였다. 실지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궤변》은 프로타고라스 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만

74 분말(粉末)로 되었거나 혹은 소금을 섞은 백반이 《빵'가루》라는 특이한 명칭을 가진 정상적인 매매품으로 되어 있다.

75 거림이 탄소의 극히 정력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굴욕 청소인이 영국 농업 경영자에게 판매하는 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1862년에 어떤 소송 사건에서 영국의 《배심판》은,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90%의 먼지와 모래를 혼합한 거림이 《상업상》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거림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 의미에 있어서 《위조된》 거림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사동무들》은 이것이 《진정한》 상업상 거림이라고 결정하고 원고인 농업 경영자를 패소(敗訴)시켰고 그러나마 원고는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들며 백을 흑으로 만들 줄 알고 있으며 또 에레아 학파 이상으로 일체의 실재를 가상(假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목전에서 증시할 줄 알고 있는 것이다⁷⁶.

어쨌든 위원회는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그날 그날의 빵》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빵 제조업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공개 집회와 의회에 대한 청원에서 과도 노동 등등에 대한 런던의 빵 직공들의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불평 불만은 자못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에서 재삼 언급한 1863년의 위원회의 성원이기도 하였던 H·S·트레멘허어 씨가 칙명(勅命) 조사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보고⁷⁷는 증인의 증언과 함께 공중을——그들의 심장이 아니고 그들의 위장을——자극하였다. 성경을 잘 외우고 있는 영국 사람은 만약 인간이 신(神)의 은총(恩寵)에 의하여 자본가나 지주나 벼슬 자리에 앉은 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마에 땀을 흘림으로써 자기의 빵을 먹는 것이 그의 본분(本分)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백반과 모래와 기타 그리 기분 나쁘지 않은 광물성 혼합물은 고사하고라도, 기름(脂)과 거미줄과 죽은 기름벌레와 색은 독일제 효모(酵母)와 혼합된 일정량의 사람의 땀을 자기의 빵이라하고 매일 먹지 않으면 안

76 불탄서 화학자 슈발리에는 상품의 《케번화》[위조]를 취급한 논문에서 그가 검사한 600 여종의 제품중 그 다수에 대하여 10, 20, 30종의 각이한 위조 방법을 들고 있다. 그는 부언하기를 자기는 전체 방법을 남김 없이 알지도 못하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조리 털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에는 6종의 위조 방법이, 올리브 유(油)에는 8종, 버터에는 10종, 소금에는 12종, 우유에는 19종, 빵에는 20종, 화주에는 23종, 밀*가루에는 24종, 초코페르에는 28종, 포도주에는 30종, 커피에는 32종 등등의 위조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자하신 주(主)님까지도 이러한 운명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루아르 드 카르 《성체(聖體)의 위조에 관하여》(파리, 1858년)을 보라.

77 《빵 직공의 불평에 관한……보고》, 런던, 1862년, 및 《제2회 보고》, 런던, 1863년.

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까지 《자유》로웠던 빵 제조업은, 그 신성한 수호자인 《자유 상업》에 대해서 일체 고려함이 없이, 국가 감독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고 (1863년 의회 회기 끝에) 그리고 그 의회의 법령에 의하여 오후 9시와 오전 5시까지에 있어서의 18세 미만의 빵 직공의 노동이 금지되었다. 이 법령 조항은, 것처럼 가부장적 풍습이 농후한 이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과도 노동에 관하여 여타 권의 책보다도 더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런던의 빵 직공의 노동은 보통 밤 11시에 시작된다. 이 시간에 그는 반죽을 하는 데 이 일은 한 가마분의 빵 분량과 품질에 따라 반시간 내지 $\frac{3}{4}$ 시간 계속되는 극히 어려운 과정이다. 이것이 끝난 다음 그는 반죽판——이것은 동시에 가루 통의 뚜껑으로도 쓰인다——위에 누어서 한장의 밀'가루 포대를 머리에 베고 또 다른 한장의 밀'가루 포대를 몸에 덮고 두 시간 쯤 잠잔다. 다음 그 뒤를 이어 5시간에 걸친 신속하고 쉴새 없는 노동이, 즉 반죽을 이기며 그 중량을 달며 그 형태를 만들며 그것을 가마에 얹히며 가마로부터 집어 내는 등등의 노동이 시작된다. 빵 굽는 방의 온도는 화씨 75도 내지 90도 (섭씨 24도 내지 32도)에 달하며 그리고 작은 방에 있어서는 온도가 그보다 낮지 않고 도리어 높다. 빵, 고급 빵 등등을 만드는 일이 완료되면 빵의 배달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용 노동자의 대부분은 우에서 발한 어더운 야간 노동이 끝난 후에 낮에는 빵을 빵주리에 담든지 혹은 손수레에 싣고 집집에 날라다 주며 또 중간 시간에는 간간이 빵 굽는 방에서 작업도 한다. 이 노동은 계절과 영업의 규모 여하에 따라 오후 1시와 6시 사이에 끝나며 다른 한편 직공들의 다른 한 부분은 밤 늦도록 빵 굽는 방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⁷⁸. 《런던의 사교(社交) 계절에

78 동상 보고서, 《제1회 보고》, 별제지 6페이지.

웨스트 엔드에서 《완전 가격》으로 매매되는 고급 빵의 제조에 종사하는 직공들은 의례히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회 혹은 2회의 대체로 극히 짧은 휴식을 할 뿐이고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빵 굽기에 종사한다. 다음에 그들은 4시, 5시, 6시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7시까지도 빵의 배달에 종사하며 혹은 간간이 빵 굽는 방에서 비스케트 굽기에 종사한다. 작업이 끝난 뒤에 그들은 6시간 밖에 되지 못하는, 가끔 5시간, 4시간 밖에 되지 못하는 수면을 취한다. 금요일에는 로동은 언제나 더 일찍이, 례컨대 저녁 10시에 시작되어 빵의 제조이든 혹은 빵의 배달이든 간에 중단 없이 다음 날 토요일 저녁 8시까지, 그리고 매다수의 경우에는 일요일 새벽 4시 내지 5시까지 연장된다. 빵을 《완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고급 빵집에서도 역시 일요일에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다음 날을 위한 준비 로동을 해야 한다…… 《늑거리 빵집》에서 일하는 직공들——그리고 이 종류에 속하는 빵집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런던의 전체 빵집의 $\frac{3}{4}$ 이상에 달한다——의 로동 시간은 이 보다 더 길지만 그러나 그들의 로동은 거의 전히 빵굽는 방 내부에 국한되어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고용주는 조그만 소매점에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의 전방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빵집에서는 주말에 가서는……즉 목요일부터는 작업이 밤 10시부터 시작되어 사소한 중단이 있을 뿐,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냥 계속된다⁷⁹.

《늑거리 빵집》에 관하여 말한다면 《직공들의 부지불 로동이 그들의 경쟁의 기초로 된다》⁸⁰는 것이 부르조아적 텃'장으로 부르셔도 리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완전 가격 빵집》은 자기 경쟁자인 《늑거리 빵집》을 라인 로동의 도적이며 위조자라고

79 동상 보고서, 별제지 71페이지.

80 조지 리드 《빵 제조업의 역사》, 런던, 1818년, 16페이지.

조사 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오직 공중을 기만함으로써만 또 그들의 직공으로부터 겨우 12시간분의 로임의 대'가로서 18시간분을 착취함으로써만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⁸¹.

조제빵의 제조 및 빵을 제값 이하로 판매하는 빵집 부류의 형성은 영국에서 18세기 초엽 이래 즉 이 직업의 동업 조합적 성격이 해체되고 자본가가 제분업자 혹은 밀'가투 상인으로서 명목상의 빵집 주인의 배후에 진출하게 되자 발전한 것이다⁸².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노동일의 무제한적 연장과 야간 노동에 대한 기초가 이루어졌다. 하기는 야간 노동은 런던에서도 1824년부터야 겨우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확립하였지만⁸³.

상술한 바에 의하여 우리는 어째서 위원회의 보고서가 빵 제조 직공을 단명(短命)한 노동자의 부류에 소속시키는가를 리해할 수 있다. 그들은 노동 계급의 전체 부분을 통하여 정상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유년시의 사망을 다행히도 면했을 뿐이고 그들이 그후 42세 까지 연명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현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제조업에는 언제나 후보 노동자가 넘치고 있다. 이들 《노동력》의 런던에로의 공급의 원

81 《보고서 (제1회)》 증거 자료. 《완전 가격 빵집》 주인 치즈만의 증언, 108페이지.

82 조지 리드 《빵 제조업의 역사》, 런던, 1848년. 17세기 말엽과 18세기 초엽에 있어서는 온갖 가능한 사업에 침입하고 있던 중개상이 아직은 《사회적 안전 방해》라는 판권추의 고발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레컨대 쓰머셋 주(州)에서 치안 판사의 4분기 재판 개정(開廷) 기간에 예심 배심판은 하나의 《진술서》를 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판례월 홀에서의 이 중개상들은 사회적 안전 방해이며 의복상들에게 해를 끼치는만큼, 마땅히 하나의 방해물로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영국의 양모업 소송 사건》, 런던, 1685년, 8, 7페이지).

83 《빵 제조 직공의 불평에 관한 제1회 보고》, 런던, 1862년, 별 페이지, 8페이지.

천지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서부 농업 지대 및 독일이다.

1858—1860년 간에는 아이슬랜드의 빵 제조 직공들은 야간 노동과 일요 노동을 반대하는 선동을 위한 일련의 대집회를 자기비들의 비용으로 조직하였다. 민중은 페컨데 1860년 떠블린에 있어서의 5월 집회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이슬랜드인에 특유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 편에 가담하였다. 웨스포드, 킬켄너, 클론멜, 워터포드 등등에 있어서는 이 운동에 의하여 주간 이외의 노동을 금지하는 제도가 사실상 성파 있게 실시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용 일' 군들의 고용이 온갖 척도를 초월하고 있는 리머리크에서는 이 운동은 빵집 주인들 특히 빵집 겸 제분업자들의 반항에 봉착하여 실패로 돌아 갔다. 리머리크의 실패는 앤느 및 티페라리에 있어서의 퇴각을 야기시켰다. 공중의 분격이 가장 활발한 형태로 발로되고 있던 코크에서는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직공들을 가두에 몰아 넣으로써 이 운동을 좌절시켰다. 떠블린에서는 고용주들은 가장 단호하게 저항하였고 운동의 선두에 서 있던 직공들을 박해함으로써 기타 사람들로 하여금 부득이 야간 노동과 일요 노동에 찬동하도록 양보하게 하였다》⁸⁴. 영국 정부는 아이슬랜드에서 손톱까지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원회는, 떠블린, 리머리크, 코크 등등의 완고한 빵집 주인들에 대하여 애원하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 《본 위원회는, 노동 시간은 자연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며 이 자연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없을 수 없다고 믿는 바이다. 고용주들은 해고의 위협에 의하여 자기의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신념의 파괴와 국법에 대한 불복종과 여론의 경멸 (이 모든 것은 일요 노동에 관련된 것이다) 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

84 《1861년도의 아이슬랜드에 있어서의 빵 제조업에 관한 위원회 보고》.

으로써 자본과 노동간의 불화의 씨를 뿌리며 종교, 도덕 및 사회 질서에 대하여 위대한 실패를 제공하고 있다……본 위원회는 노동일의 12시간 이상으로의 연장은 노동자의 가정 생활과 사'적 생활의 황명으로 되는 침해이며 또 그것은 인간의 가정 풍습에 대한 방해로 통하여 자식, 형제, 남편, 아비로서의 그의 가족적 의무 이행에 대한 방해로 통하여 파멸적인 도덕적 결과를 가져 온다고 믿는 바이다. 12시간 이상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며 조로와 조사를 초래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에 불행은 가져 오는바 노동자의 가족은 세대주의 보호와 조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⁸⁵.

우리는 이상에서 아이슬랜드의 사정을 알았다. 해협(海峽)의 건너 편 쪽인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발갈이에 종사하는 농업 노동자들이 준렬한 기후를 무릅쓰고 또 일요일에 4시간의 시간의 노동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 13—14시간의 노동을 한다는 데 대해서 분격하고 있는데⁸⁶ 이때 런던의 배집 재관정 앞에는 3명의 철도 노동자——려객 차

85 동상 보고서.

86 1866년 1월 5일에 글라스코 부근의 라스웨이에서 개최된 농업 노동자들의 공개 집회 (1866년 1월 13일부 《Workman's Advocate》(《노동자의 주장》)지를 보라). 1865년말에 농업 노동자들의 직업 동맹이 우선 스코틀랜드에서 결성된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압박 받고 있는 농업 지대의 하나인 벅킹샴프에 있어서 임금 노동자들이 1867년 3월에 주간(週間) 임금을 8—10필링으로부터 12필링에까지 인상시킬 목적으로 일대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다 (상술한 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농업 프로테타리아트의 운동은 1830년 이후의 그 정력적인 시위 운동들이 진압을 당한 이때, 그리고 또 특히 새로운 빈민 구제법이 실시된 이때 전연 좌절되어 있었으나 60년대에 다시 시작되었고 1872년에는 드디어 획기적인 것으로 되었다. 나는 제2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동시에 1867년 이후에 발간된 영국 농업 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청서에 대해서도 언급 하겠다. 제3권에 대한 추가).

장, 기관사, 신호수——가 출두(出頭)하였다. 대철도 사고가 수백명의 려객을 황천(黃泉)길로 보냈던 것이다. 불상사의 원인은 철도 노동자들의 부주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배심관 앞에서 이구 동성으로 언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0—12년 ‘전에 그들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 계속되었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5—6년 동안에는 노동 시간이 14시간, 18시간, 20시간에까지 증가하였고 또 유람 계절의 한창 때와 같이 특히 려객이 쇠도할 때에는 노동이 가끔 중단 없이 40—50시간 계속된다. 그들 철도 노동자는 보통의 인간이지 신화 중의 거인들이 아니다. 어떤 점에 도달하면 그들의 노동력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지각 마비 상태에 빠진다. 그들의 뇌수는 사유하기를 중지하며 그들의 눈은 보는 것을 중지한다 운운. 극히 《존경할만한 영국의 배심관》은 이 공술에 대하여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배심 재판에 회부한다는 판결로써 대답하고 그 보충 조항에서 철도 관제의 대자본가 제씨가 금후로는 《노동력》의 필요한 수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좀 더 돈을 아끼지 말며 구매된 노동력을 착취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절도 있게》 또는 《욕심 적게》 또는 《절약해서》 하면 좋겠다는 경건(敬虔)한 희망을 부드러운 어조로 표명하였다⁸⁷.

87 1866년 1월 29일부 《데이닐즈 신문》. 그후 같은 이 주간 신문은 매호에 걸쳐서 《처참한 숙명적인 사고》 《참혹한 비극》 등등의 《선정적(煽情的)인 표제》 밑에 허다한 새로운 철도 사고물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다. 북부 스랍포드사 선(線)의 어떤 노동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기관사와 화부(火夫)의 주의가 일순간이라도 늦추어지는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준엄한 날씨에 중단도 휴식도 없이, 노동 시간을 무제한하게 연장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 밖에는 없지 않은가? 매일의 정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이며 주는 하나의 실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물어 보자. 지난 월요일에 어떤 화부는 아침 일찍부터 그의 그날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14시간 50분을 지나 일을 끝마쳤다. 그는 자 한잔도 마실 사이가 없이 또 다시 작업에 불려 나왔다……

모든 직업과 연령과 성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극히 잡다한 군중이 오디쉴스의 뒤를 따르는 학살 당한 자들의 명혼보다도 더 집요하게 우리의 뒤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청서를 보지 않더라도 그들의 외모를 일견하여 그들의 과도 노동에 관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잡다한 군중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부인 복장 제조공과 단야공이라는 2명의 인물을 들기로 하자. 이 량자간의 현저한 대조(對照)는 자본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실증하여 준다.

1868년 6월의 최후 주간(週間)에 런던의 모든 일간 신문은 <순전한 과도 노동에 기인하는 사망>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를 붙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것은 대단히 평판이 좋은 어떤 궁정용(宮廷用) 부인 복장 제작소에서 일하고 있던, 그리고 엘리쓰라는 얌전한 이름의 귀부인한테 착취 당하고 있던 당년 20세의 메리 안 워클리라는 부인 복장 제조 여공의 사망에 관한 것이었다. 가끔 사람의 입에 오르고 있던 낡은 이야기의 진상이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⁸⁸. 여기서 일하는 소녀들은 하루'동안에 평균 16시간 반씩을, 그리고 사교 계절 중에는 가끔 30시간을 휴식 없이 노동하였으며, 그 우에 그들의 <노동

이와 같이 그는 29시간 15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의 1주간 작업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수요일 15시간, 목요일 15시간 35분, 금요일 14시간 반, 토요일 14시간 10분, 일주간 총계 88시간 40분. 이만큼 말하면 그가 도합 겨우 6분동 일분과 임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은 신참자(新參者)이었으므로 1일분의 일이란 대체 얼마만큼인가 하고 질문하였다. 그것은 13시간, 다시 말하면 1주일에 78시간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여분의 10시간 40분에 대한 지불은 어찌 되었는가? 장황한 언쟁 끝에 그는 10펜스(10그로센은화만큼도 못되는)의 수당을 받았다(동상 신문 1866년 2월 4일호).

88 F·엥겔스 <영국에 있어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253, 254페이지 [K·맑스, F·엥겔스 전집, 토씨야어 판, 제 3권, 492—494페이지]를 보라.

떡》이 다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때때로 셰리주(酒), 포도주와 커피를 공급함으로써 기운을 차리게 하였다. 때 마침 사교 계절의 한창 때이었다. 금방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온 황태자 비(妃)를 축하하는 무도회(舞踏會)에서 사용할 귀부인들의 호화로운 복장을 화급히 만들어 내야만 하였다. 메리 안 워플리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된 그리고 필요한 용적(容積)의 공기의 $1/9$ 도 들어 있지 않는 한방에서 중단 없이 26시간 반 동안 일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침실이 이모 저모 관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숨이 막힐 듯한 구멍'간의 하나 속에서 한 침대에 두명씩 누어 잤다⁸⁹. 그런데 이것은 런

89 보건국 근무 의사 리즈비 박사는 그 당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성인에게 필요한 공기의 최소한은 침실에 있어서는 300 킬방 피트이고 살림'방에 있어서는 500 킬방 피트이어야 한다》. 런던의 어떤 병원의 의사장 리차드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인 복장 제조공, 의복 재봉사, 내의 재봉사 등 각종 재봉 녀공들은 파도 로동과 공기 부족과 영양 부족 또는 소화 불량이라는 삼중의 재난을 당하고 있다. 대체로 보아 이런 종류의 로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이 직업의 폐단은 그것이 특히 수노에서 약 26명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고 이 자본가들은 자본에 유대하는 권력 수단을 리용함으로써 로동으로부터 경제를 짜낸다(로동력을 탐용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는 점에 있다. 그들의 권력은 이 녀공 계급 전체가 느끼고 있는 바이다. 만약 어떤 여자 재봉사가 비록 사소한 고객권(顧客權)일지라도 획득하는데 성공한다면 경쟁은 그로 하여금 이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죽도록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또 그 여자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파도 로동으로써 자기의 조수 녀공들을 혹사(酷使)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여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든가 혹은 만약 그 여자가 독립적으로 전방을 낼 수 없게 된다면 그 여자의 일은 더 험하지 않으며라도 그 대신에 벌이는 더 확실한 어떤 전방에서의 고용살이로 옮겨 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여자는 일종의 순수 노예로 전락하여 사회가 물'결을 칠 때마다,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니게 된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어떤 때에는 자기 집 조그마한 방 구석에서 아사(餓死)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게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어떤 때에는 또 다시 절식할 지경의 공기 속에서, 그리고 음식물은 신선한 공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실사 좋은 것을

던의 부인 복장 제작소중에서 좋은 편에 속하는 하나이었다. 메리 안 워클리는 금요일에 병들어 일요일에 죽었다. 이 소녀가 손에 잡았던 최후의 무도복을 완성하지 못한채로 죽은 것을 보고 엘리쓰 부인은 대단히 놀랐던 것이다. 너무나 늦게 이 소녀의 림종에 불리여 온 의사 케이즈 씨는 《검시(檢屍) 배심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수직 없는 말로 증언하였다. 《메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만원된 작업실 속에서 장시간 로동한 결과, 또 공기 류통이 나쁜 너무나 협소한 침실에서 수면한 결과 사망하였습나다.》. 《검시 배심관》은 이 의사에게 폐절을 가르쳐 줄 목적으로 그의 증언에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사망자는 중풍(中風)으로 죽었소. 그러나 이 녀자의 사망이 과도로 만원된 작업실 속에서의 과도 로동 등등에 의하여 촉진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만한 리유도 있기는 하오.》. 자유 무역 주의자 고브덴과 브라이트의 기관지인 《모닝 스타》는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웨쳤다. 《우리의 백인(白人) 노예는 무덤에 들어 가는 순간까지 고역하다가 짹 소리도 못내고 쓰러져 죽는다》⁹⁰.

취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1주야에 15시간, 16시간, 때로는 18시간씩 일하게 되기도 한다. 공기가 나쁜 데로부터 오는 병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폐결핵은 이러한 희생자들에 의하여 배양되고 있는 것이다》(리차드슨 박사 《로동과 과도 로동》, 《사회 과학 평론》, 1863년 7월 18일호에 게재됨).

90 1863년 6월 23일부 《모닝 스타》, 《타임스》지는 브라이트 등등을 반대하여 아메리카의 노예 소유자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리용하였다. 《우리를 중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타임스〉지는 말한다——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우리들은 우리를 자신의 젊은 녀성들을 채찍 소리 대신에 기아의 고통으로써 위협하면서 죽도록까지 일시키고 있는 동안은, 노예 소유자로서 출생하였지만 적어도 자기의 노예는 잘 먹이며 또 자기의 노예를 오직 적당하게 일시키고 있는 가족들에게 포화와 충점으로써 위협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타임스》지, 1863년 7월 2일). 트리당의 신문 《스탠다드》는 동일한 논'법으로 휴만 홀 목사

《죽도록 로동한다는 것, 이것은 비단 부인 복장 제조 녀공들의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몇 천개의 장소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 잘되는 온갖 장소에서 일정(日程)에 올라 있다... 이제 우리는 단야공의 실태를 들어 보자. 만약 우리가 시인(詩人)의 말을 신용한다면 이 세상에 야장 이상으로 더 원기왕성하고 더 명량 유쾌한 인간은 없는 것이다. 그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태양보다도 먼저 불꽃을 튀긴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먹으며 잘 마시며 잘 잠잔다. 순수히 육체적으로만 고찰한다면, 로동을 과도히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야장은 실로 가장 좋은 상태의 하나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도시에 가서 그의 강력한 두 어깨에 부과되는 로동의 부담을 보며 또 우리 나라의 사망물표에서 그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마릴본(런던의 가장 큰 구역중의 하나)에서는 단야공의 사망률은 매년 1,000명에 대하여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성

분 비난하였다. 《그는 노예 소유자들을 교회로부터 파문(破門)하지만 그러나 그는 런던의 승합(乘合) 마차의 마차물리와 차장 등등을, 극히 사소한 임금으로 하루에 16시간씩이나 일시키는 접잡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불 틀이고 있는 것이다》. 최후로 토마스 카탈일 씨의 신략(神託)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나는 벌써 1850년에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천재(天才)의 승배에서...천재는 종적 없이 사라지고 승배만이 남았다》[K·왁스 《T·카탈일의 저작 현대적 팜프렛트》, K·왁스, F·엥겔스 편집, 로씨야어 판, 제8권, 282페이지를 보라]. 그는 현대 역사의 유일의 대 사건인 아메리카의 공민 전쟁을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간단한 비유에 귀착시켰다. 즉 북방의 페테르는 전력을 다하여 남방의 파울의 두개골을 깨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북방의 페테르는 자기 로동자를 《일공(日工)》으로 고용함에 반하여 남방의 파울은 《일생 동안》 고용하기 때문이다 《마크밀란 잡지》, 아메리카의 소(小) 일리아드, 1863년, 8월호. 그리하여 트리 당이 도시의 임금 로동자에 대해서——농촌의 임금 로동자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표시한 하업 없는 동정의 물거품은 드디어 꺼지고 말았다. 이 동정의 핵심은 노예 제도라 칭한다!

인 남자의 평균 사망률을 11명이나 초과하고 있다. 인류의 거의 본능적인 기술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보아서는 비난할 아무 것도 없는 이 직업은 단순히 과도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파괴자로 된다. 인간은 하루에 얼마 가량은 최 방망이로 내리칠 수 있으며 얼마 가량은 걸음 걸을 수 있으며 얼마 가량은 호흡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얼마 가량은 노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균적으로 폐천대 50년은 연명할 수 있다. 그가 매일 얼마 가량 더 많이 방망이 칠 하며 얼마 가량 더 많이 걸음 걸으며 얼마 가량 더 자주 호흡하도록 강제를 당하여 이런 것이 모두 그의 생명력의 지출을 매일 4분의 1만큼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시험하여 본다면 그 결과는 그가 어떤 국한된 기간에 있어서 실지로 4분의 1만큼 더 많은 일을 하는 대신에 죽는 연령은 50세가 아니고 37세로 될 것이다》⁹¹.

제 4 절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

불변 자본인 생산 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의 전지에서 고찰한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의 매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분량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생산 수단이 이것을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의 무익한 존재는 자본가로 보아서 일종의 소극적인 손실이다. 왜냐 하면 생산 수단은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무용하게 투하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중단되었던 생산이 재개되면서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된다.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

91 리차드슨 박사 《노동과 과도 노동》, 《사회 과학 평론》, 1863년 7월 18일 호에 게재됨.

제를 넘어서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로동이라는 산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동을 1주야 24시간 전체에 걸쳐서 점유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으로 된다. 그러나 동일한 로동력을 밤 낮으로 편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주간에 소모되는 로동력과 야간에 소모되는 로동력을 교대할 필요가 생긴다. 이 교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레컨대 로동 인원의 일부분이 어떤 주일에는 주간 로동만 하고 다른 주일에는 야간 로동만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교대제, 이와 같은 튜번제는 영국의 면방직 공업 및 기타가 발달한 기세로 장성하고 있던 그 청소년 시대에 지배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는 개중에도 모스크바 현의 면방직 공장에서 성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24시간제 생산 과정은 대 부리헨의 아직까지 《자유 방임적인》 많은 산업 부문에, 개중에도 잉글랜드, 웰쓰, 스코틀랜드의 용광(熔鑪) 공장, 단야 공장, 압연 공장 및 기타의 금속 가공 공장에, 현재도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는 로동 과정은 비단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의 매 평일(平日)에 24시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매다수의 경우에는 일요일의 24시간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로동자는 남자와 여자, 즉 남녀 양성의 성인 및 아동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아동 및 소년의 연령은 8세부터 (약간의 경우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연령에 걸쳐 있다⁹².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처녀와 부인도 남자 종업원과 함께 야간 로동에 종사하고 있다⁹³.

92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3회 보고》, 런던, 1864년, 별제지 4, 5, 6페이지.

93 《스탑포드셔 및 남부 웰쓰에서는 젊은 처녀들과 부인들이 비단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탄갱(炭坑) 속에서의 폭스 적치장에서

야간 노동의 일반적인 해독적인 결과는 고사하고라도⁹⁴, 생산 과정의 24시간에 걸치는 중단 없는 계속은 명목상의 노동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를 제공한다. 레컨대 우에서 서술한 극히 긴장된 로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부문들에서는 매개 노동자에 대한 공인적인 노동일은 대체로 주야를 불문하고 12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는 시간의 노동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국의 공식 보고서의 말을

일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가운데서 이와 같은 현상이 누구나 아는 엄청난 폐해를 수반한다는 것을 재삼 지적되었던 것이다. 남자와 같이 일하며 거의 남자와 구별되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으며 먼지와 매연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여성들은 그들의 비녀성적인 직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바 자존심의 상실에 기인하는 품성의 타락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동상 보고서, 191, 별제지 26페이지, 제4회 보고서(1865년) 61, 별제지 13페이지 참조). 유리 공장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4 야동을 야간 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강소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밤에 일하는 소년들이 낮에는 잘 수도 없고 휴식다운 휴식을 할 수도 없어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이리 저리 뚫이 다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야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3회 보고》, 63, 별제지 13페이지). 어떤 의사는 신체의 유지 발달에 있어서의 태양 광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광선은 또한 신체의 제 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이 제 조직에 견고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정상적 량의 광선이 공급되지 않으면 동물의 근육은 연약하게 되어 탄력성을 상실하며, 신경력은 자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긴장력을 상실하며, 장성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발전을 저해 당한다……야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풍부한 일광이 부단히 들어 오며 1일중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태양 광선의 직사를 받는 것이 건강에 절대로 필요하다. 광선은 식물이 양호한 조형적(造形的)인 혈액으로 변형되는 것을 촉진하며 새로 형성된 근섬유(筋纖維)를 강인하게 한다. 광선은 또한 시각 기관에 대한 자극물로서 작용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뇌수 기능의 보다 강력한 활동을 활기한다.》. 우리는 이상 구절을 우스티 《중환 병원》의 의사장 W.스프렌지 씨의 저서 《건강에 관하여》(1864년)에서 인용하였는바, 그는 조사 위원회 성원의 한 사람인 화이트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전에 란 카사에서 유년공에 미치는 야간 노동의 영향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었습

빌린다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truly fearful>)⁹⁵ 이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 《증인이 공술한 바와 같은, 9—12세의 아동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그러한 노동량을 생각하여 볼 때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모와 고용주의 이와 같은 권력 탐용은 이 이상 더 용인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⁹⁶.

《일반적으로 아동을 주야 교대로 일시키는 방법은 사업이 활기를 띠는 때나 보통으로 진행되는 때나를 막론하고 노동일을 파렴치하게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노동일의 이와 같은 연장은 많은 경우에 비단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다. 때때로 교대할 소년들 중 이런 또는 저런 이유로 결근하는 자가 생겨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때에는 벌써 자기의 노동일을 끝마친 출근 아동중에서 1명 내지 수명이 그 결근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벌써 아무런 비밀도 아닌 까닭에 어떤 압연 공장 지배인은, 결근 아동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는가고 내가 질문한 데 대하여 그것은 아마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제실터일테요라고 대답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에서 말한 사실을 증언 하였다》⁹⁷.

《명목상의 노동일이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계속되는 어떤 압연 공장에서 어떤 소년은 매주일 네 밤을, 적어도

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간의 고용주들의 상투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아동의 건강은 야간 노동에 의하여 곧 나빠진다고 결정적으로 단언하는바입니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4회 보고》, 284, 55페이지). 또 대체 이런 것이 정말 논의의 대상으로 된다는 그 사실을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본가와 그 앞잡이의 《뇌수 제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가장 잘 실증한다.

95 동상 보고서 57, 별제지 12페이지.

96 동상 보고서 (제1회 보고, 1865년), 58, 별제지 12페이지.

97 동상 보고서.

다음 날의 저녁 8시 반까지 일 하였다……그리고 이것이 6개월간 계속되었다. 《다른 어떤 소년은 9세 때에는 가끔 12시간 로동 3교대분을 계속 일하였고 10세 때에는 이틀낮 이틀밤을 계속하여 일하였다. 《당년 10세의 제3의 소년은 1주일에 사흘 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밤은 저녁 9시까지 일하였다. 《당년 13세의 제4의 소년은 온군 1주일 동안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일하였고 또 때로는 3교대분을, 레킨대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 연속하여 일한 적도 있었다. 《당년 12세의 제5의 소년은 스테이블리에 있는 어떤 주철(鑄鐵) 공장에서 2주일 동안이나 계속하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였다. 그는 이제는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아홉살 먹은 죠지 알린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나는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들은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여기에 머물며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5마일 되는 곳에 삽니다. 나는 가축 앞 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짜켈을 덮고 마루 위에서 잤습니다. 다음 이틀에는 아침 6시에 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더운 곳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나는 온군 1년간 용광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있는 대단히 큰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집에 돌아 가서 잘 수는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나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여 저녁 6시 혹은 7시에 끝 마치곤 했습니다》 등등⁹⁸.

98 동상 보고서, 별제지 13제지. 이러한《로동력》의 교양 수준은 조사 위원회 성원의 한 사람과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 나타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예테미안 해인즈, 12세, 《……1의 4배는 8이지요. 그러나 넷이 배개면 16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돈과 금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여왕이고 그

이제 우리는 자본 그 자체가 이 24시간제를 어떻게 리해

이름은 알렉산드라 공주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여왕의 아들에게 시집 갔다고 합니다. 공주는 남자입니다». 윌리엄 터너, 당년 12세, 《내가 사는 나라는 영국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존 모리스, 당년 14세, 《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과, 한 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조그만 새(鳥)이었다고 하드군요». 윌리엄 스미스, 당년 15세, 《하느님이 사나이를 만들었고 사나이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 데일러, 당년 15세, 《나는 런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릅니다». 헨리 마류만, 당년 17세, 《몇 번 교회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설교에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밖에 다른 이름들도 나오지만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는 살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지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는 어딘가 종교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동상 보고서, 71, 별표지 15페이지). 《악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트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소녀(10세)는 God(하느님)를 Dog(개)라고 썼으며 여왕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5회 보고서, 1886년, 55페이지, 제278호). 위에서 말한 금속 공장에서도 같은 제도는 유리 공장파 제지(製紙) 공장에서도 지배적이다. 증기를 기제로 제조하는 제지 공장에서는 누메기를 선별하는 파정을 제외하고는 전체 파정에서 야간 노동이 예사(例事)로 되어 있다. 야간의 경우들에게는 교대제를 실시함으로써 야간 노동이 중단됨이 없이 1주일 전체를 통하여 보통은 일요일 밤부터 다음 토요일 밤 12시까지 그냥 계속된다. 주간 교대반에 속하는 노동 인원은 매주 5일간은 12시간씩 1일간은 18시간 노동하며 야간 교대반에 속하는 노동 인원은 다'새 밤은 12시간씩, 하루'밤은 6시간 노동한다. 다른 경우에는 매 교대반은 하루전저 1일 교대반으로 24시간씩 일한다. 그 중의 한 교대반은 2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월요일에 6시간, 토요일에 18시간 일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중간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제지 기계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1주일간의 매일을 15—16시간씩 일한다. 《이 제도는——조사위원회 성원인 로드는 말한다——12시간 교대제와 24시간 교대제와의 모든 폐해를 결합한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은 야간 노동의 제도 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과 부인들이 일하고 있다. 12시간 제도 밑에서도 그들은 가끔 교대사의 결근을 메우기 위하

하는가 들어 보자.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지나친 악용, 노동일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람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한다. 자본은 오직 《정상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이 제도에 관하여서만 말한다.

네일러, 워커스 량씨의 제창소에서는 중업원 600 내지 700명 중에서 겨우 10%만이 18세 미만이고 또 그 중에서도 겨우 20명만이 야간 교대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아이들은 전연 더위를 타지 않는다. 온도는 아마 86—90도 [화씨 온도. 섭씨로는 30—32도] 는 될 것이다……단야 공장과 압연 공장에서는 직공들이 주야 교대로 일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기타의 모든 작업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이르는 주간 작업만이 실시되고 있다. 단야 공장에서는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한다. 약간의 직공들은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을 교대하지 않고 항상 야간 노동만 한다……우리들은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건강(네일러, 워커스 량씨의 건강에?)에 대하여 상이한 영향을 준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휴식을 같은 시간에 취하는 때에 휴식 시간이 변할 때보다 더 잘 잘 것이다……약 20명의 18세 미만 소년들이 야간 교대반에 속하여 일하고 있다……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없이는 우리 일은 잘 되어

여 두 교대 즉 24시간을 일해야 한다. 중업원의 공술은 소년 소녀들이 흔히 21시간 심지어 36시간까지 연속 노동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의 노동을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는 것을 보이며 주고 있다. 유리에 광택(光澤)을 내는 《변속적이고 단조한 과정》에서 우리는 12세의 소년들이 《식사 때문에 반시간씩 두 차례, 기껏해야 세 차례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정규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단이 없이》 하루에 11시간씩을 온근한달 동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규적인 야간 노동이 전연 폐지된 약간의 공장들에서는 시간의 노동이 놀랄만한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또 《그것은 가끔 가장 불결한, 가장 더운, 가장 단조(單調)한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4회 보고, 1885년》 별 제지 38, 39페이지).

갈 수 없다. 생산비의 증가——이것이 곤란하다. 숙련 노동자들과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구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으나 소년들은 얼마든지 얻어 올 수 있다……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년들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념두에 둔다면 야간 노동의 제한은 우리로 보아서는 물론 중요한 의미도 리해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⁹⁹.

제강--제철 공장인 존 부라운 합명 회사는 3,000명의 성년 남자와 미성년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부 제강 제철 작업의 중로동에서 《주야 교대》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상회의 J·엘리스 씨의 언명 하는 바에 의하면 제강 공장의 곤란한 조건 하에서 성년공 2명에 미성년공 1명 내지 2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회사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00명 있고 그중 약 1/3인 170명은 13세 미만이다.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는 엘리스 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직공을 1주야에 12시간 이상 일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야간 노동에 있어서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어떠한 확증을 내릴 수 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벌써 고용하고 있는 소년공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률을 승인하기 보다는 차라리 13세 미만 혹은 심지어 15세 미만 소년의 고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 주간 교대반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들은 순번을 바꿔 야간 교대반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성년 남자들이 쉬지 않고 밤'일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건강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주간 교대로 하는 야간 노동은 유해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와는 반대로 네일러 씨와 헉커스 씨는 자기 기업의 리익을 옹호하면

99 《제4회 보고, 1865년》, 79, 별제지 16페이지.

서 련속적인 야간 노동보다도 바로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야간 노동이 아마 더 유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주야 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낮' 일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들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야간 노동의 금지를 반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그것이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이 점이 유일한 이유이다 (얼마나 유치하고 후안무치한 말인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지출의 증대는 영업의 성과 있는 운영을 고려했면서 정당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얼마나 매끄러운 표현인가!) 지출액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구하기 힘든 노동이, 그와 같은 법률 규정이 나온다면 부주하게 될 수 있다》(주 엘리스, 부라운 합명 회사는 노동력의 가치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치명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¹⁰⁰)

《카펠 합명 회사의 제강—제철 공장 <거인(巨人)>은 상술한 존 부라운 합명 회사의 그것과 같이 대규모로 경영되는 공장이다. 그 회사의 상무 취체역은 정부 위원회 성원인 화이트에게 자기의 증언을 서면으로 낸 일이 있었으나 그는 후에 이르러 수정을 위하여 그에게 반환된 원고를 갈아 버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이트 씨는 기억력이 좋았다. 그가 아주 정확히 회상하는 바에 의하면 이 거인 공장의 제철로 보아서는 아동과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금지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그들의 공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회사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6%를 조금 초과할 뿐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겨우 1%에 지나지 않는다!》¹⁰¹.

100 동상 보고서, 80, 별표지 16페이지.

101 《제1회 보고, 1865년》, 82, 별표지 17페이지.

애터클리프에 있는 제강, 압연 겸 단야 공장 찰더손 형제(兄弟) 상회의 E·F·찰더손 씨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야간 로동을 금지하면 그 결과로 막대한 곤란이 발생할 것이다. 주요한 곤란은 아동의 로동을 성인의 로동으로써 대치할 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증가이다. 나는 이것이 얼마 가량이냐 될지를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마 공장주가 강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손실은 공장주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노동자들은 (이 무슨 고집쟁이 사람들인가!) 물론 그 손실을 부담할 것을 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찰더손 씨는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아마 그것은 매주 1인당 4 내지 5펄링일 것이다……소년 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지 물론 <특수적으로>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들의 힘으로도 완전히 충분한 작업들이고 따라서 그러한 일에서는 성인 노동자들의 더 큰 힘은 손실을 메꿀만한 리득은 내지 못할 것이다. 또 혹은 그것이 리로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무거운 금속을 처리해야 하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일 것이다. 성년 노동자들도 또한 소년공을 자기 부하로 쓰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성년공은 소년공보다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 소년공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로동을 시작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의 로동을 주간 로동에만 국한한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미성년자들은 자기들의 《손'일'》을 낮에는 배울 수 없을 것인가? 그때의 론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한다면 1주간 교매로 1주일 동안은 낮에만, 그리고 다른 1주일 동안은 밤에만 일하는 성인 노동자들은 야간 로동을 하는 동안은 자기 교매반의 미성년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들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리득의 절반을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다름 아니라 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는, 그 지도는 이 미성년자들의 노동 임금의 일부로서 계산되며 따라서 이것은 성인 노동자들에게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비교적 '렴'가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년공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면 매개의 성인 노동자는 자기의 리득의 절반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싼더손 상회는 성인 노동자들의 노동 임금의 일부분을 미성년자들의 야간 노동으로써 지불할 대신에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싼더손 상회의 리윤은 이 경우에 약간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싼더손 상회로 보아서는 어찌서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의 손'일을 낮에는 배울 수 없는가 하는 데 대한 훌륭한 논거로 되는 것이다¹⁰².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규적인 야간 노동을 이제는 미성년자들과 교대되는 성인들에게 전가(轉嫁)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곤난은 극히 커서 그 결과 아마도 야간 노동의 전폐(全廢)에까지 도달하고야 말 것이다. 《강철 생산 그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E·F·싼더손은 말한다——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싼더손 상회는 강철 생산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철 생산, 이것은 리윤 획득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용광로, 압연 공장 등등과, 건물, 기계 설비, 철, 석탄 등등은 자신을 강철로 진화시키는 일 이외에 더 많은

102 《반성이 많고 리치만 캐는 현대에 있어서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심지어 가장 나쁘고 잘못된 것까지 대해서까지, 그럴듯한 리유를 붙일 줄 모르는 인간은 벌써 전도가 유망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못쓰게 된 모든 것은 상당한 리유로 인해서 못 쓰게 된 것이다》(해경 《백과 전서》, 제1부, 《논리학》, 베를린, 1810년, 249페이지) [로씨야어 관, 《논리학》, 제2편, 제121절, 국립 출판사, 1929년, 212페이지].

일을 해야 한다. 그것들은 잉여 로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또 그것들은 물론 24시간 동안에는 12시간 동안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잉여 로동을 흡수한다. 실지에 있어서 그것들은 온근 1주야에 걸쳐서의 일정수의 직공의 로동 시간에 대한 청구'권을 쥔더손 상회에 대하여 하느님과 벌꿀의 이름으로 부여한다. 로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중단되자마자 그것들은 자본으로서의 그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쥔더손 상회에게는 순전한 손실로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단히 비싼 기계들을 종시간의 절반 동안 놀며 둠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생길 것이다. 또 우리들은 현재의 제도 밑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내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와 기계의 분량을 2배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지출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본가들은 주간 작업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건물, 기계 설비, 원료가 야간에는 《놀고》 있는데 어찌서 이 쥔더손 상회만이 유달리 구권을 요구하고 있는가? 《기계 설비가 노는 탓으로——H. I. 쥔더손은 쥔더손 상회의 이름으로 대답한다——생지 나는 이러한 손실은 주간 작업만을 하는 모든 공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광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한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업로가 랑비될 것이고 (현재에는 로동자들의 생명이 탕비되고 있는 그 대신에) 또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끈다면 다시 불을 살라 넣어 가지고 필요한 열도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손실된다 (다른 한편 심지어 8세 밖에 안되는 아동들의 수면 시간의 손실은 쥔더손 형제에게는 로동 시간의 리득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이 용광로는 주간 로동과 야간 로동의 교대로 인해서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3.

103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65년, 85. 별폐지

제 5 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14세기 중엽으로부터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일 연장에 관한 강제법들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1일분의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노동력을 자본은 몇 시간 동안이나 소비할 수 있겠는가? 노동

17세기. 아동들의 《규칙적 식사 시간》은 그것이 로에서 방사(放射)되는 일정량의 열의 《순수한 손실》과 《람비》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유리 공장주 제씨의 이와 유사한 미묘한 교활에 대하여 조사 위원회 성원 화이르는, 자기의 화폐 지출에 있어서의 자본가들의 《절제》가 《극기(克己)》와 《검약》에 그리고 또 인간 생명의 지출에 있어서의 그들의 티무르—라메르란적 《람비》에 감격하는 “유어, 시노어 등등 및 독일에 있어서의 그들의 가련한 아류(亞流)인 로베르 뫼기타와 같은 자들과는 전연 달라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규칙적 식사 시간이 보장되는 결과 약간 량의 열이 천재의 정도 이상으로 랑비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랑비는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유리 공장에서 일하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취하며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 현재 우리 왕국에 일석 나고 있는 생명력의 랑비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동상 보고서, 별표지 45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진보의 해》인 1885년의 일이다! 물건을 들어올리며 운반하는에 있어서의 힘의 지출은 교사고라노 병(甁)과 연초자(鉛硝子)를 제조하는 유리 공장에서 아동들은 쉬지 않고 작업하면서 6시간 동안에 15—20(영국) 마일을 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은 가끔 14—15시간 계속된다! 많은 유리 공장들에서 모스크바의 방적 공장들에서와 같은 6시간 교대제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1주일간의 노동 기간 사이에 가장 길게 중단 없이 계속되는 휴식 시간은 6시간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공장에 왕복하는 시간과, 세수하며, 옷을 입으며, 식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극히 짧은 휴식 시간이 남을 뿐이다. 그처럼 머운 풍기 속에서 것처럼 힘든 일을 하는 아동들에게 수면은 절

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서 얼마만큼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다. 노동일이란 1주야 24시간을 말하는데 다만 그 중에서 노동력이 다시 쓸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약간의 휴식 시간만은 공제한 다라고. 우선 자명한 것은, 노동자는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철두 철미 노동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자유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노동 시간이고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자기 증식 과정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적 교양과 정신적 발전과 사회적 기능의 수행과 사교와 육체적 및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 시간까지도——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나라에서일지라도¹⁰⁴——그야말로

대로 필요한 것인데 아동들은 이 수면을 회생으로 하지 않고서는 윤회하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시간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다……이 짧은 수면까지도 밤에는 아이들 자신이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까닭에 중단되며 낮에는 외부에서 들려 오는 소음 때문에 잠이 깨이는 까닭으로 중단된다》. 화이트 씨가 인증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미성년자가 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도 있고 12세 되는 소년들이 밤 2시까지 일한 후 아침 5시까지 공장에서 자고(세 시간 동안!) 떠날아 또 낮'일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보고서의 작성자인 트레멘히어 및 터프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년들과 소녀들과 부녀자들이 주간 또는 야간의 교대 근무 시간중에 수행하는 노동의 양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동상 보고서, 별제지 13 및 14제지). 그들이 이와 같이 고역하고 있는 동안에 《금욕적인》 유리 공업 자본가는 아마 밤 늦게 포도주에 취하여 비를 거리면서《영국 사람이 노예로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이렇게 바보 모양으로 중얼거리면서 구락부로부터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101 레컨대 아직까지도 영국에서는 도처에서 노동자가 자기 집 앞의 정원(庭園)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모독(冒瀆)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요형(禁錮刑)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 바로 같은 그 노동자가 일요일에 금속 공장이나 제지 공장이나 혹은 유리 공장을 결근하면, 그것이 비록 종교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계약 위반이라는 리유로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본은 자기의 무제한한 맹목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 노동에 대한 자기의 야수적 탐욕으로부터 비단 노동일의 도덕적 최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순전히 육체적인 최대한까지도 돌파하여 버린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전과 건전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와 일광을 리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략취한다. 그것은 식사 시간을 깎아 내며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생산과정 그 자체 속에 편입시키며 그리하여 마치 보일라에 석탄이 공급되며 기계에 지방 또는 기름이 공급되듯이 단순한 생산 수단으로서의 노동자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자본은 생명력의 수습, 갱신, 회복에 필요한 안면(安眠)을, 기진 맥진한 유기체가 소생되는데 절대로 필요한 몇 시간의 무지각 상태로 단축시킨다. 이 경우에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력의 가급적 많은 일상적 지출이——그것이 아무리 병'적으로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노동자의 휴식 시간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로 하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내에 운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 그것 뿐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처벌을 당한다. 정교(正教)를 신봉하는 의회도 안식일의 모독이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내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모르는 척 해버린다. 린던의 어물상(魚物商) 및 조류상(鳥類商)에 고용되어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일용 노동의 폐지를 요구한 진정서(1863년 8월)를 보면 그들의 노동은 평일의 6일간은 매일 평균 15시간씩이고 일요일에는 8—10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진정서에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엑세서 줄에 집합하는 귀족적 위신자(僞信者)들의 까다로운 식도락(食道樂)이 일용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체적 쾌락의 탐구에》 것처럼 여념이 없는 이 《성자(聖者)》들은 제3자들의 과도한 노동과 빈궁과 기아를 심상하게 여기는 참을성을 통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적 정신을 실증하고 있다. 그들(노동자들)에게 미식(美食)은 지극히 해로운 것이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는바 그것은 마치 탐욕적인 농업 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함으로써 토지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하여 그 본질상 잉여 가치의 생산이고 잉여 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비단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및 육체적 발전 조건과 활동 조건을 탈취하면서 인간 노동력의 위축을 가져 올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력 그 자체의 너무나 이른 피폐(疲弊)와 사멸을 가져 온다¹⁰⁵. 그것은 노동자의 생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정 기간내의 그 생산 시간을 연장한다.

그러한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 생산, 즉 노동 계급의 번식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만약 자본이 자기 증식에 대한 그 무제한한 충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노동일의 반(反)자연적 연장이 개개의 노동자의 생존 기간을, 또 그와 동시에 그들의 노동력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더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력의 재 생산에 더 큰 액의 소모비를 가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매일 재 생산되어야 하는 기계 가치 부분이 기계가 더 빨리 소모되면 될수록 더 큰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기 자신의 리해관계에 의하여 표준 노동일을 제정할 필요를 느낄 것 같이 보인다.

노예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자를 구매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말(馬)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가 노예를 잃어 버린다면 그것은 자본을 잃어 버리는 것과 같으며 이 잃어 버린

105 《우리는 우리의 이전 보고서들에서 시간의 노동이……확실히 인간 노동력의 시기 상조한 피폐를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경험 있는 여러 공장주들의 공술을 제공하였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4회 보고, 1865년》, 61, 별표지 13페이지).

자본은 노예 시장에서의 새로운 지출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지아의 벼》논(稻畚)과 미치씨피의 소택지(沼澤地)가 인간 육체에 아무리 치명적인 파괴적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의 인간 생명의 람용은 그것이 버지니아와 켄터키의 풍부한 흑인 양육소로부터 보충을 받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노예를 유지하는 것이 노예 소유자의 이익에 합치하는 한에는 경제적 고려가 노예의 인간적 취급에 대한 일종의 보장으로 될 수도 있었으나 노예 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고려는 그와는 반대로 노예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흑인의 원인으로 전화된다. 왜냐 하면 노예가 외국의 흑인 양육소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생명의 지속은 그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있어서의 그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 수입국에 있어서의 노예 경제의 정책은 인간 가축(human cattle)으로부터 가급적 단시간내에 가급적 다량의 로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라는 것이다. 년 리율이 재배업에 투하된 총자본과 동일한 액에 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바로 열대 지방의 경작에 있어서는, 흑인의 생명은 그저 닳지는 대로 희생되고 있다. 수백년 이래 옛말과 같은 재부의 요람지(搖籃地)인 웨스트--인디아의 농업은 수백만의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 버렸다. 오늘날 큐바에서는, 수입이 기백만으로써 계산되며 재배업자는 왕후(王侯)나 다름 없지만 노예들 중 많은 부분이 비단 극히 조악한 음식물과 가장 힘든, 월새 없는 고역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과도한 로동과 수면 및 휴식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서서한 쇠약으로 인해서 해마다 직접 쓰러지고 있다¹⁰⁶.

이름은 다르지만 이 이야기는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노예 무역 대신에 로동 시장을, 그리고 켄터키, 버지니아 대신에

106 J·E·케악즈 《노예의 힘》, 런던, 1862년, 110, 111페이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농업 지방과 아이를랜드를, 또 아프리카 대신에 독일을 바꿔 놓라! 우리는 이미 과도 노동이 어떻게 런던의 빵 제조 직공들의 대렬을 드물게 만드는가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노동 시장은 빵 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의 후보자들으로써 언제나 넘쳐 있다. 도기 제조업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수명이 가장 짧은 산업 부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도기공들이 부족한가? 현대적 도기 생산의 발명자이고 보통 노동자 출신인 조사이아 켈지우드는 1785년 하원(下院)에서 언명하기를 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도합 15,000명 내지 20,000명이라고 하였다¹⁰⁷. 그런데 1861년에는 매 브리텐에서 이 공업의 도시적 중심지의 인구만도 101,302명이였다. <편방직 공업은 이미 90년간 존재하여 왔다……영국 종족의 3개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그것은 방직 노동자들의 9대를 먹어 버렸다>¹⁰⁸. 열병적 양양의 개별적 시기들에는 노동 시장이 노동력 공급의 대부분을 보이며 준 것도 사실이다. 페컨대 1834년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 때에 공장주 제씨는 Poor Law Commissioners (빈민 구제 위원회)에 대하여 농업 지방의 <파임 인구>를 북부로 보낼 것을 제안하였고 <공장주들은 그것을 흡수하고 소비할 것이다>라고 부언하였던 것이다¹⁰⁹. 이것은 그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빈민 구제 위원회의 동의로써 만체스터에 주선인들이 파견되였다. 농업 노동자들의 명부가 작성되어 이 주선인들에게 수교되였다. 공장주들은 사무소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였고 그

107 존 워드 <스토크-아곤-트렌트 시의 역사>, 런던, 1813년, 42페이지.

108 1863년 4월 27일 하원에서의 페컨드의 연설.

109 <공장주들은 그것을 흡수할 것이며 소비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편방직업자들은 말했던 것이다>. 동상 연설.

터자 전 가족이 잉글랜드의 남부로부터 이송되었다. 이 인간 화물은 짐짝 모양으로 꼬리표를 달아 운하로 또 말달구지로 송달되었다. 그 중에는 보행으로 온 자도 약간 있었는데 그들의 다수는 길을 잘못 들어 해매였고 반아사 상태로 공장 지대를 방황하였다. 이러한 것이 발전되어 정말 하나의 상업 부문을 이루게 되었다. 하원은 이것을 거의 믿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규적인 상업이, 이와 같은 인육(人肉)의 매매가 끊임 없이 계속되어 왔고 이 사람들은 마치 흑인들이 남부 제주의 면화 재배자들에게 팔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만체스터의 주선인들에 의하여 만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다……1860년은 명방직 공업이 절정에 도달한 해이었다. ……또 다시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공장주들은 또 다시 인육 주선인한테로 쫓아 갔다……그리고 이 주선인들은 도아세트 해변의 모래땅과 미본의 고지들과 월츠의 평지를 모조리 훑었다. 그러나 파잉 인구는 벌써 다 먹히우고 더는 없었다. 신문《베리 가디안》은 통탄하여 말하기를, 영 불 통상 조약의 체결 후에는 1만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흡수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오래지 않아서 아직도 3—4만명이 더 필요하게 될 터인 데라고 하였다. 인육 거래의 주선인들과 보조 주선인들이 1860년에 거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농업 지방을 찾아 다닌 후에 공장주의 한 대표자는 빈민 구제국 장관 빌리어스 씨를 방문하고 빈민 아동과 고아들을 빈민 구제원으로부터 공장으로 채용하는 일을 다시 허가하여 주도록 청원하였다¹¹⁰.

110 동상 연설. 빌리어스 씨는 공장주들에 대하여 다대한 호의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공장주 제씨는 지방의 빈민 구제 기관들의 알선에 의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공장 감독관 A·테드그메이브 씨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고아와 빈민 아동을 《법률상》 노제(徒弟)로 간주하는 《제보》는 물론 일찌기 《스코틀랜드의 농업 지방으로부터 탄카싸와 제싸에 데려온 소년들과 젊은 부녀자들에

일반적으로 경험은 자본가에게 과잉 인구, 즉 자본의 가치

대해서는 이 제도가 탐용된 일이 있었다》할지라도 이번에는 《전파 같은 폐해를 수반하지 않았다》(이 《폐해》에 관해서는 엥겔스의 《영국에 있어서의 노동 제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K·팜스, F·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3권]을 참조하라) 라고, 이 《제도》에 있어서는 공장주가 빈민 구제원의 행정 당국과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한다.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의, 식, 주를 조달하며 또 그들에게 소액의 보조금을 급여하기로 되어 있다. 테드그레이브 씨의 아태와 같은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특히 영국의 면방직 공업의 번영기중에서도 1860년은 특별히 튜데가 없는 해였고 그 해에 노동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렇다. 그 해에 노동 임금이 비쌌던 이유는 노동에 대한 격심한 수요가, 아이슬랜드의 인구 감소 및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농업 지방으로부터 오스트랄리아와 아메리카에로의 튜데 없는 이민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요가 성과적으로 달성된 생명력의 파괴의 결과로 그리고 또 인육 상인들이 벌써 리용할만한 과잉 인구를 죄다 처리하여 버린 결과로 생겨난 잉글랜드의 약간의 농업 지방에 있어서의 인구의 적극적 감소와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테드그레이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노동 (빈민 구제원 아동의 노동)은 오직 다른 어떠한 노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비싼 노동이기 때문이다. 13세의 소년공의 보통 임금은 1주일 에 약 4필링이다. 그러나 50명 내지 100명의 이와 같은 소년공에게 의, 식, 주를 공급하며 의약과 적당한 감독을 보장하여 주며 그 위에 또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보조금을 급여하기 위해서는 1주일, 1인당 4필링으로는 부족하다》(《1860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27페이지). 공장주는 합숙 생활을 하며 공동적인 급양과 감독을 받는 50명 내지 100명의 소년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노동자 자신은 자기의 아이가 받아 오는 4필링의 노동 임금으로써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조달하여 줄 수 있을 것인가, 테드그레이브 씨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본문의 서술로부터 잘못된 결론들을 끌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 두어야 하겠다. 즉 영국의 면방직 공업은 그것이 노동 시간 동등을 규정한 1850년의 공장법에 복종하게 된 이때 영국의 모범 공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면방직 노동자는 대륙에 있어서의 동일 부문 노동자들에 비하여 모든 점으로 보아 높은 위치에 처하여 있다. 《프로이센의 공장 노동자는 그의 영국의 경쟁자에 비하여 1 주일에 적어도 10시간은

증식에 대한 그때 그때의 욕망에 비한 파잉 인구가 얼마만큼 부단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며 준다. 하기는 이 파잉 인구는 시들어, 빠진, 빨리 생애를 마치는, 신속히 밀려 나가는, 말하자면 아직 익기도 전에 따이는 그러한 인간 세대들으로써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¹¹¹. 다른 한편 경험은 역사적 절지에서 볼 때 바로 어저께 탄생하였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대단히 급속하게 또 심각하게 인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엄습하였으며, 공업 인구의 퇴화는 농촌에 아직 그대로 있는 생명 요소들의 부단한 흡수에 의해서만 완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농촌 노동자들까지도, 신선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간에는 가장 강력한 개체(個體)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연 도태의 원칙이 전능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려 있는 관찰자들에게 보이며 주고 있다¹¹². 자본은 자기 주위의 현재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

더 많이 노동한다. 그리고 그가 자택에서 자기 자신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의 첨부적 노동 시간에 대한 이러한 한계도 없어진다》(《185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3페이지). 상술한 공장 감독관 테트그레이브는 1851년의 산업 박람회 후에 대륙에, 특히 불란서와 프로이센에 여행하여 대륙 제국의 공장 상황을 조사한 일이 있다. 그는 프로이센의 공장 노동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그가 관습되어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 간단한 식사와 사소한 안락을 얻을만큼한 노동 임금을 받는다……그는 영국 경쟁자에 비하면 생활은 더 나쁘고 일은 더 고되다》(《185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85페이지).

111 《파도 노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랄만한 속도로 사망한다. 그러나 사멸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즉시로 다시 메워지며 그리고 등장 인물의 빈번한 교체는 무대 위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1권, 55페이지, 저자는 E. G. 웨이크필드).

112 《공중 보건. 추밀원 의무관(樞密院 醫務官)의 제6회 보고, 1863년》을 보라. 이것은 1864년에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농업 노동자를 취급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써덜랜드주를 아주 개량된 주라고 일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는 일찍이 아름다운

할만한 《홀통한 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의 사멸은 결국 면치 못할 것이라든가 하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 우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의하여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떠한 주식 투기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폭풍우가 엄습하여 올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雨)를 모아 가지고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 놓은 뒤에 폭풍우가 이웃 사람의 머리 우에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나간 후에는 될대로 돼라! 이러한 것이 온갖 자본가와 온갖 자본주의적 국민의 구호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¹¹³. 육체적 및 정신적 위축, 너무나 이른 사망, 과도 노동의 고난에 관한 불평에 대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러한 고통은 그것이 우리의 패락(利運)을 증가시켜 주는 이상 어째서 우리의 가책(苛責)으로 될 수 있겠는가?

남자와 썩썩한 병사(兵士)로써 명성이 높았던 이 주의 지방들에서도 주민은 어위고 위축된 인종으로 퇴화하여 버렸다는 것을 보이며 주었다. 가장 건강에 좋은, 언덕바지에 놓여 있는 해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안색은 런던의 어떤 뒤'골목의 부패한 분위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들고 창백한 안색이다》(〈초론 《파인 인구와 그 구제책》, 런던, 1846년, 74, 75페이지). 그들은 실지로 클라스코의 골목길과 빈민굴에서 갈보, 도적들과 한데 뒤섞여 우글 우글하고 있는 3만명의 《썩썩한 고지(高地)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113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 자본의 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게는 이 재보를 보존하며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공장주들은 강제된 것이다》(《타임스》지 1861년 11월 5일). 《웨스트 타이딩의 남자들은 전 인류를 위한 타사(羅紗) 제조자로 되었다……노동 인민의 건강은 희생되었다. 그때로 몇대(代) 지나 간다면 전 중추가 퇴화하여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반작용이 왔다. 아동의 노동 시간은 제한되었다 운운》(1861년 10월의 동기초 장관의 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개별적 자본가들의 선의 또는 악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 경쟁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은 개별적 자본가에 대해서 외부적 강제 법칙으로서 작용한다¹¹⁴.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서로 대립하는 두 조류를 보이며 준다. 메컨대 현재의 영국의 공장 법과 14세기로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노동자 법들과를 비교하여 보라¹¹⁵.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는데 반하여 이 노동자 법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114 그러므로 우리는 메컨대 1863년초에 스탬포드셔에 광대한 도기 제조소를 소유하고 있는, 28개 상회——그 속에는 J. 헛지우드 부자(父子) 상회도 있음——가 일종의 각서 형식으로 《국가의 권력적 간섭에 관하여》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은 그들도 하여금 아동의 노동 시간 및 기타에 대하여 어떠한 《자원적》 제한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상술한 바 패배한 유감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공장주를 상호간의 어떤 협정에 의하여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우리들은 강제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63년》, 322페이지).

주 114에 대한 추가. 최근의 사건은 일종 주목할만한 실례를 제공하였다. 특별한 호경기 시기에 면화 가격의 등귀는 플랙번의 면직물 공장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호간의 협정에 의하여 자기 공장들에서의 노동 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하였다. 이 기한은 11월달(1871년) 경에 이르러 만료되었다. 그 간에 있어서 방적과 직조를 접하고 있는 몇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의 결과로 생겨난 생산의 감소를 리용하여 자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업주들을 희생으로 하여 몇 많은 리윤을 끌어 냈다. 그와 같은 난관에 직면한 소기업주들은 드디어 공장 노동자들에게 9시간 노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또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부금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

115 이러한 노동자 법은 불탄서, 화탄 등등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그것이 생산 관계로 말미암아 효력을 잃어 버린지 훨씬 뒤인 181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연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이 금방 발생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충분한 분량의 잉여 로동을 흡수하는 권리를 비단 경제제 관계의 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아직은 국가 권력의 원조에 의해서도 보장하는 맹아 상태에 있어서의 자본의 요구는, 만약 그것을 자본이 그 성년기에 있어서, 내심에는 불만이면서도 마지 못해, 하는 양보와 대비하여 본다면 극히 겸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의 결과 《자유》로동자가 그의 관습적인 생활 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활동적인 생활 시간 전체를, 심지어 자기의 로동 능력 그 자체까지를 팔아 넘기는데, 이를테면 한 점시의 납작콩 로리와 맞바꾸어 자기의 장자 상속권(長子相續權)을 팔아 넘기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강제당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는 수 세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14세기 중엽으로부터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에 국가 권력으로 성년 로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한 로동일의 연장,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血)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데 대하여 국가가 이곳 저곳에서 설정하고 있는 로동 시간의 한계와 그 길이가 대략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까지 북 아메리카 공화국의 가장 자유로운 주이었던 마싸쥬세츠 주에서, 12세 미만 아동의 로동의 법¹¹⁶적 한계로 지금 선포되어 있는 것이 영국에서는 아직도 17세기 중엽에 원기 왕성한 수공업자들과 튼튼한 농촌 품팔이¹ 군들과 거인 같은 야장들의 표준 로동일이었던 것이다¹¹⁶.

116 《년령 12세 미만 아동은 어떠한 공업 시설에 있어서나 1일 1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금한다》(《마싸쥬세츠 일반 법령집, 63, 제 12장》)(이 법령들은 1838—1858년 간에 발포된 것이다). 《일체의 면방직 공장, 양모 공장, 견직물 공장, 제지 공장, 유리 공장 및 아마포 공장에 있어서, 또 제철소, 옷서 제조소에 있어서 1주야 10시간 동안에 수행되는 로동이 법정 1일분 로동으로 간주된다. 또 금후

최초의 <Statute of Labourers> [《노동자 법》] (에드워드 제3세 통치 하 제23년인 1349년)이 발포된 직접적인 구실(구실이고 원인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법¹⁾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은 당시 대규모로 유행한 흑사병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토리 당(黨)의 저술가가 《로동자들을 상당한 가격으로 (즉 그 고용주에게 상당한 분량의 잉여 로동을 남겨 줄만한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는 곤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¹¹⁷⁾ 라고 말한 정도로 인구를 격감시켰다. 그리하여 법률은 노동일의 한계와 아울러 적당한 로동 임금을 강제적으로 지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 (헨리 제7세 통치 시대)의 법령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그 당시 일체의 수공업자와 농업 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의 아침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로 되어 있었고——그러나 그렇게 실시되지는 못했다——그리고 식사 시간은 조반에 한 시간, 점심에 1½ 시간, 또 오후 4시의 간식에 반시간으로, 즉 현행 공장법에 규정

토는 어떤 공장을 막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미성년자¹⁾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혹은 1 주일에 60시간 이상 결코 작업에 억류(抑留) 또는 강제하지 못하며 또 연령 10세 미만의 소년 소녀를 본주(本州)령역내의 어떠한 공장에서도 노동자로서 채용하지 못한다》(《뉴 자시주(州), 노동 시간 제한법》, 제1조 및 제2조, 1851년 3월 11일의 법률). 《어떠한 공업 기업소에 있어서나 연령 12—15세의 미성년자¹⁾를 1주야 11시간 이상 일시키는 것²⁾과 또한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7시 반 이후에 일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드 아일랜드주(州), 개정 법령》, 제130장, 제23절, 1857년 7월 1일).

117 《자유 무역의 계변》, 제7판, 런던, 1850년, 205페이지. 같은 이 토리 당원은 이 밖에 다음과 같이 첨가하여 말한다.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며 고용주에게는 유리하도록 로동 임금을 규정한 의회 법령들은 461년의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존속되어 왔다. 그 동안 인구는 증가하였다. 이제는 이 법규들은 쓸 데 없는 것, 귀찮은 것으로 되었다》(동상서 206페이지).

되어 있는 것보다 꼭 2배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¹¹⁸. 저
 율에는 아침 5시부터 어둡기까지 작업하기로 되어 있었고 중간
 의 식사 시간은 하기(夏期)와 마찬가지로였다. 《일용 노동자나
 주간(週間) 고용 노동자나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된 1562년의 엘리자베스의 법령은 노동일의 길이는 변경하지
 않고 중간의 휴식 시간을 하기에는 2시간 반으로 동기에는 2시
 간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이에 의하면 점심 시간은 한 시간에
 그치고 《간시간의 오침》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사이
 에 한하여 허가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론할 때에는 한 시간
 당 1페니씩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사정이 법전(法典)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
 게 훨씬 더 유리하였다. 정치 경제학의 아버지이고 어떤 의미
 에서는 통제학의 발명자인 윌리엄 페티는 17세기의 마지막 3분
 기에 발간된 하나의 저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의 농업 노동자)는 하루에 10
 시간씩 노동하고 1주일에 20회의 식사 시간을, 즉 평일에는
 하루에 3회, 일요일에는 2회의 식사 시간을 받는다. 이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명백하여진다. 즉 만약 노동자들이 금요일 저녁
 에는 단식하고 점심 식사에는, 현재 그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

118 이 법령에 관하여 J·웨이드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1496년의 법령을 보면 음식물에 대한 지출이 수공업자에 있
 어서는 그 수입의 $\frac{1}{3}$, 농업 노동자에 있어서는 그 수입의 $\frac{2}{3}$ 에 해당
 한다고 간주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독립성
 의 정도가 현재에 비하여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재에는 농업
 및 제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식사비는 그들의 임금에 대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J·웨이드 《중간 계급 및 노동 계급의 역사》,
 제3판, 런던, 1835년, 24, 25, 577페이지). 이 차이를 현재와 그 때에 있
 어서의 식도품과 의류들 간의 가격 비율의 차이에 귀착시키려는 견해는
 승정(僧正) 플리트우드에게 의하여 작성된 《물가 년표》(제1판, 런던,
 1707년, 제2판, 런던, 1745년)를 아주 피상적으로 일瞥(一瞥)하는 것만
 으로써도 논박된다.

까지의 2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 시간 반을 사용한다면, 즉 만약 그들이 $1/20$ 만큼 로동 시간을 늘이고 또 같은 $1/20$ 만큼 소비를 주린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에서 말한 조세의 10분의 1이 너끈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¹¹⁹. 안드류 유어 박사가 1833년의 12시간 법안을 가리켜 암흑 시대에서의 후퇴라고 규탄한 것은 정당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법령들에서 서술된 그리고 페티에 의하여 언급된 규정들이 《도제》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에 아동 로동이 아직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영국 소년들은 도제로 될 때까지 전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제로 된 후에도 완전한 수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장구한 세월——7년——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요람 시대(搖籃時代)부터 적어도 《절마간은 일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저자는 독일을 찬양하고 있다¹²⁰.

119 윌리엄 페티 《아이들행도의 정치적 해부》, 1672년, 1691년 판, 10페이지.

120 네명씩 《기계 공업 장려의 필요에 관한 본술》, 런던, 1690년, 13페이지. 영국의 역사를 휘그당파 부트조아지의 리익에 합치하도록 위조한 마콜레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고 있다. 《아이들을 시기 창조하게 일시키는 관습이……17세기에 있어서, 당시 공업의 상태로 보아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지배하고 있었다. 양모 공업의 주요 중심지인 노위치에서는 6세의 어린이가 로동 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각종 저술가들——그들 중에는 마음이 극히 착하다고 해서 존경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 소년 소녀들만도 1년 간에 그들 자신의 생활비를 12,000파운드 스털링이나 초과하는 재부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상의 기쁨》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적 재산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더욱 많이 발견한다……새로운 것은 이러한 재산을 밝혀 내는 지성(知性)과 그것을 퇴치하는 인도주의이다》(《영국의 역사》, 제1권, 417페이지). 마콜레이는 더 나아가 17세기의 《마음이 극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서,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자본은 노동력의 1주일분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1주일 전체를 점령하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농업 노동자만은 예외이었다. 노동자가 4일분의 노동 임금을 받고 온근 1주일을 살아 갈 수 있었다는 사정은 노동자들이 나머지 두날도 자본가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충분한 리유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영국 경제학자들 중 자본에 복무하는 일과는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규탄하였고 다른 일과는 노동자들을 옹호하였다. 레컨대 포츠스웨이트——그의 상업 사건은 막걸로크 및 막그레가의 같은 종류 저서가 현재 호평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호평을 받고 있었다——와 우에서 인용한 《무역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간에 일거 났던 논쟁을 들어 보기로 하자¹²¹.

히 착한》장사 친구들이, 화란의 어떤 빈민 구제원에서는 배살 먹은 어린아이를 일시켰다는 사실을 《무상의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천에 적용된 선행》의 이와 같은 실례는 A·스미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마콜레이 류의 인도주의자들의 모든 저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수공업과는 구별되는 마누팩처가 발생함과 동시에, 벌써 전부터 어느 정도까지 농민간에 존재하였고 또 농민들에 대한 가렴 주구가 심하게 됨에 따라 일층 발전하여 온 아동 착취의 형적(形跡)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의 경향은 명백하나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자체는 쌍두아(雙頭兒)의 출현과 같이 아직은 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의 예감에 가득찬 《장사 친구》들은 현대 사람 및 후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무상의 기쁨》을 가지고 특히 주목할만한 또 경탄할만한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또 그것들을 모방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침' 군이며 말재주' 군인 마콜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듣는 것은 퇴보 뿐이며 보는 것은 진보 뿐이다》. 대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히 어떠한 귀를 가지고 있던 말인가!

121 노동자를 비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자는 본문에서 말한 《무역 및 상업에 관한 론술, 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함》(런던, 1770년)의 익명(匿名) 저자이다. 벌써 그 이전에도 그는 자기의 저

포살스웨이트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5일 간에 1주일간의 생활에 충분하리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온근 6일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진부한 언사인데 나는 이에 매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이 잔략한 서술을 끝마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공업자들과 마누팩처라 노동자들로 하여금 부득이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 또는 기타의 어떤 수단으로써 생활 필수품 가격까지라도, 등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실행이지만 나는 이 왕국의 노동 인민을 영원한 노예 상태에 두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이들 위대한 정치가와는 의견을 달리하는 바이다. 그들은 <놀지 않고 일만하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이때까지 영국의 상품에 일반적 신용과 명성을 보장하여 준 영국 수공업자들과 마누팩처라 노동자들의 재질과 기능은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것은 어떠한 사정의 덕택이었던가? 그 사정은 아마도 그 성격상 쾌활한 우리의 노동 인민들이 기분을 전환시킬 줄 아는 그 방식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만약 그들이 1주간의 6일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작업을 부단히 반복하면서 온근 한해를 계속하여 일하도록 강제 당한다면 이것은 그

서 《조세에 관한 고찰》(런던, 1765년)에서 동일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통계학에서 형언할 수 없이 다변가인 톨로니우스 아서 영도 이 파에 속한다. 노동자의 옹호자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런던, 1731년)에 있어서의 제코브 반머런트, 《식료품의 현재의 고가(高價)의 원인에 관한 연구》(런던, 1767년)에 있어서의 신학 박사, 나타니엘, 포스터 목사, 그리고 프라이스 박사, 또 그리고 특히 《일반 상공업 사전》의 한 부류, 및 《대 부리덴의 상업적 리익의 설명 및 개선》, (제2판, 런던, 1775년)에 있어서의 포살스웨이트이다. 사실 그 자체는 같은 시대의 많은 기타의 저술가들에 의하여 개중에도 조사되어 턱키에 의하여 확인된 바이다.

들의 능력을 둔화(鈍化)시키며 그들을 할기 있는 능숙한 사람들 대신에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로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 상태의 결과로서 자기의 명성을 유지할 대신에 그것을 잃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 처럼 혹사(酷使)를 당하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어떠한 기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그들 중 많은 사람은 불탄서 사람이 5일이나 6일 동안에 수행하는 분량의 일을 4일 동안에 해 치운다. 그러나 만약 영국 사람들이 영원한 고역 로동자로 패야 한다면 그들은 불탄서 사람 이하로까지 퇴화할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인민이 전쟁에서 용감하다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좋은 영국제 불'고기와 푸딩의 덕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적지 않은 정도로 우리의 헌법에 규정된 자유의 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수공업자들과 마누파처라 로동자들의 재질과 정력과 기능은 그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그들의 자유에 유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나는 그들이 다시는 이 특권을 잃어 버리지 않을 것과 또 로동에 있어서의 그들의 숙련과 아울러 그들의 용기의 원천으로도 되는 그들의 양호한 생활을 결코 잃어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¹²².

이에 대하여 《무역 및 상업에 관한 논술》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만약 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安息日)로 하는 것이 하느님의 제도라고 인정된다면 주일의 기라의 날들이 로동에 (자본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래서 곧 알게 된다) 속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하느님의 명령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가혹하다고 칭할 수 없다……인류는 일

122 포울스웨이로, 동상서, 《제1 서론》, 14페이지.

반적으로 날 때부터 안일과 라타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마누팩투라 서민(庶民)들의 행동으로부터 얻어진 속명적인 경험의 확증하는 바이며 그들은 생활 수단의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1주일에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이제 1부셀의 소맥이 노동자의 생활 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셸링이고 그리고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하루에 1셸링을 번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1주일에 5일간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1부셀의 소맥이 4셸링이라면 4일간만 일하면 된다……그런데 이 왕국에서는 노동 임금이 생활 수단의 가격에 비하여 훨씬 비싼 까닭에 4일 동안 노동하는 마누팩투라 노동자는 주일의 나머지 날을 놓고 지낼 수 있을만한 돈의 여유를 가진다……내가 위에서 말한 바에 의하여 1주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십분 분명히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 노동자들은 1주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느 모로 보든지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¹²³. 또 화란 사람들은 마누팩투라에서도 이와 같은 6일간 노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단히 행복스러운 인민으로 보인다. 불란서 사람들도 노동일을 중단시키는 다수의 휴일이 중간에 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¹²⁴……그러나 우리 나라 서민들의 머리 속에는, 영국인으로서는 타고난 권리에 의하여 그들이 다른 어떤 구라파 나라에

123 낙명 저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논술》, 런던, 1770년. 벌써 1770년에 영국 농업 노동자들의 《행복》이 무엇에 있었던가는 저자 자신이 이 책의 98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항상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현재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활할 수도 없으며 더 고되게 일할 수도 없다》.

124 신교(新敎)는 그것이 거의 일체의 전통적인 휴일을 노동일로 전환시킨다는 리유만으로도 자본의 발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있어서 (그곳의 로동 인민)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그것이 우리 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 영향을 주는 한에 있어서는 얼마간 유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누팩투라 로동자들은 이 사상에 감염(感染)된 정도가 덜하면 덜할수록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로동자는 결코 자기가 자기의 옷 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아마 전체 인구의 $\frac{1}{8}$ 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혹은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공업국에 있어서 민중의 원기를 도꾸어 주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¹²⁵……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 빈민들이 그들이 현재 4일 간에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고 달걀게 6일간 로동하게 될 때까지는 치료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¹²⁶. 이 목적을 위하여 또 그리고 《라타와 방탕과 자유에 관한 낭만적(浪漫的)인 환상의 근절》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빈민 구제세(救濟稅)의 저감, 근로 정신의 고무 및 마누팩투라에 있어서의 로동 가격의 인하를 위하여》 우리 자본의 충실한 엑카르트는 공적 자선 사업의 혜택을 입는 로동자들, 한 마디로 말하면 국민자들을 《리상적인 로동 수용소》에 감금하자는 확실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같은 로동 수용소는 반드시 하나의 공포의 집으로 되어야 한다》¹²⁷. 이 《공포의 집》, 이 《리상적인 로동 수용소》에서는

125 너명 씨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논술》, 런던, 1770년. 15, 41, 86, 97, 55, 56, 57페이지.

126 동상서, 69페이지. 제코브 반버린트는 벌써 1734년에 로동자의 타라에 대한 자본가들의 불평의 비밀은 단순히 그들이 동일한 임금을 주고 4로동일 대신에 6로동일을 요구한 데 있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127 동상서, 242—243페이지. 《그와 같은 리상적 로동 수용소는 반드시 하나의 《공포의 집》으로 되어야 하며 그것은 풍부한 음식물과 따뜻한 말숙한 의복이 공급되며 일은 극히 적게 시키는 빈민들의 피난

《로동 시간만이 온근 12시간으로 되도록, 적당한 식사 시간까지 포함시켜 로동은 하루에 14시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¹²⁸.

1770년의 이상적 로동 수용소 즉 공포의 집에서 노동일은 1일, 12시간이었다! 그후 63년을 지나, 1833년에 영국의 의회가 4종의 공장 부문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로동일을 온근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 공업의 최종 심판의 날이 시작될 것 같이 생각되었다! 1852년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정 로동일을 철폐하려고 하였을 때 불탄서의 로동 인민은 이구 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웨쳤던 것이다. 《로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은 공화국의 립'법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다!》¹²⁹. 류리히에서는 1 세 이상 아동의 로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아르코에서는 1862년에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로동 시간은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지리에서는 1860년에 14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을 위하여 로동 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¹³⁰. 《1770년 이래의 진보》는 어떠한가 보라고 마콜레이는 《무상의 기쁨》을 가지고 소리칠 것이다!

쳐로 되여서는 안된다》.

128 동상서 [260페이지] 《불탄서인은——그는 말한다——우리의 열광적인 자유 사상을 비웃고 있다》(동상서, 78페이지).

129 《그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특히 반대한 이유는 그러한 로동일을 제정한 법률이 공화국의 립'법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는 데 있었다》(185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80페이지). 1850년 9월 5일의 불탄서의 12시간 로동법은 1848년 3월 2일의 립시 정부 포고의 부르주아적 수정판(修正版)으로서 일체의 작업장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률 이전에는 불탄서에 있어서의 로동일은 제한이 없었다. 공장들에서 로동일은 14, 15시간 혹은 그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 불랑키 씨의 저작 《1848년에 있어서의 불탄서의 로동 제급》을 보라. 혁명가인 불랑키 씨가 아니고 경제학자인 이 불랑키 씨는 정부로부터 로동자의 실태 조사를 위임 받았던 것이다.

130 벨기는 로동일의 규제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국가의 표본으로

1770년에 자본의 정신이 아직 꿈에만 그리고 있었던 국민자의 《공포의 집》은 그후 몇해를 지내서는 마누팩투라 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로동 수용소》로서 실현되었다. 그것을 공장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상이 현실 앞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제 6 절 표준 로동일을 위한 투쟁. 로동 시간의 강제적 제한, 1833—1864년 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공장 립'법

자본이 로동일을 그 표준적인 최대한에까지 연장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적인 한계에까지 연장시키는 데¹³¹ 수세기를 들인 후 이번에는 18세기의 최

되어 있다. 브루셀 주재의 영국 전권 공사 호워드 드 월렌 경(卿)은 1862년 5월 12일부터 영국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신 로지에는 나에게, 아동 로동은 현재 일반법에 의해서나 또 지방적 법법에 의해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3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그 때마다 완전한 로동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립'법에는 무엇에나 반대하는 시기적인 불안이 극복될 수 없는 장애로 되었다는 것을 언명하였다》!

131 《어떤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매일 12시간씩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확실히 통탄할만한 일이다. 만약 이 12시간에 식사 시간과 작업장에 왕복하는 시간을 가산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1주야 21시간 중 14시간에 달한다……건강에 관해서는 교사하교라도 도덕적 전지로 보아서 로동 계급의 시간을, 13세라는 어린 때부터, 그리고 《자유로운》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중단 없이 그러한 완전히 흡수하여 버리는 것은 극도로 유쾌하고 처참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나는 생각한다……공중 도덕의 리익을 위하여 건전한 주민을 길러 내기 위하여 또 인민의 대다수에게 생활을 합리적으로 향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후 3분의 1기간에 있어서의 대공업의 탄생 이래 이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장해를 물리치고 돌진하는 눈사태와 같은 전진이 시작되었다. 풍습과 자연에 의하여, 연령과 성별에 의하여, 낮과 밤에 의하여 설정되는 모든 한계는 분쇄되었다. 낮은 법령들에 있어서는 문제로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던 낮과 밤에 관한 개념까지도 극히 애매하여졌고 그 결과 어떤 영국 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결상》 해명하기 위하여 참으로 탈무드적인 명민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¹³². 자본은 기뻐 날뛰며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였다.

생산의 소음(騷音)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노동 계급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 그들의 반항이 시작되었다. 우선 대공업의 발상지(發祥地)인 영국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30년 동안에는 노동 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 의회는 1802—1833년간에 5개의 노동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는,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 실시와 필요한 관리(官吏) 정원 등등에 대해서는 한 톨의 경비도 찬성 투표하지 않았다¹³³. 그 법률들은 죽은 문(文

주기 위하여 전체 산업 부문에서 매개 노동일의 일부분이 휴식과 여가를 위하여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경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1841년 12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에 실린, 테오나드 호너의 말).

132 《1860년, 안트워프 주(州) 벨파스트 고등 법원 재판정에 있어서의 J·H·오르웨이 씨의 판결》을 보라.

133 부르주아 왕인 루이 필리프의 통치 시대에 있어서 극히 특이적인 것은 그 시대에 발포된 1811년 3월 22일의 유일한 공장법이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 법률은 아동 노동만을 문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8세 내지 12세의 아동 로동을 8시간으로, 12세 내지 16세의 아동 로동을 12시간 등등으로 제정한 것이었지만 8세 나는 아동에게까지 야간 로동을 용인하는 허다한 예외가 설정된 것이

字)에 지나지 않았다. 《1833년의 법률 이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이 온밤이든 온낮이든 또는 온낮 온밤이든 시키는 대로 노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¹³⁴.

면직물 공장, 모직물 공장, 아마 공장 및 견직물 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 실시 이래 비로소 현대적 산업에서 표준 노동일의 단서(端緒)가 열렸다. 1833년부터 1864년에 이르는 영국 공장 법의 력사 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특징 짓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고한다. 즉 공장에 있어서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되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15시간의 한도내에서는 미성년자 (다시 말하면 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의 노동을 1일중 어떤 시간에 리용해도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히 예견된 일정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 법률 제6조는 《그 노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각인에게는 1일중에 적어도 1½시간의 식사 시간을 허여(許與)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세 미만의 아동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서 말하는 예외적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고 9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 노동 즉 이 법률에 의하면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노동은 9세부터 18세

였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장사 친구》들의 선의(善意)에 맡겨져 있었다. 한 마리의 쥐까지도 경찰의 단속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겨우 1853년부터야, 듀노르 한개 현만에 1명의 유급 정부 감독관이 존재한다. 불탄서 사회의 발전상 이보다 못하지 않게 특징적인 것은 모든 생활 분야를 다 얹어 매는 불탄서의 법률 공장에서 오직 이 루이 필립프의 법률만이 1848년의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공장법이었다! 는 사실이다.

134 《1860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0페이지.

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립' 법자들에게는 성년 노동력의 흡수에 있어서의 자본의 자유, 즉 그들이 말하는 소위 《노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까닭에 그들은 공장법에서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독특한 제도까지 고안해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 제도의 일대 폐해는——1833년 6월 25일에 개최된 위원회 중앙 회의의 제1차 보고서는 말한다——그것이 아동 로동을 성년 노동일의 최대한에까지 연장시키는 필연성을 조성한다는 점에 있다. 성년 로동을 제한하지 않고——성년 로동을 제한하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폐해 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야기될 것이다——이 폐해를 제거하는 유일의 수단은 생각건대 아동의 2교대제를 채용하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이 《계획》은 릴레이 제도(《System of Relays》 영어나 불란서어에서 릴레이(Relay)라는 말은 각이한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교대한다는 뜻을 가진다)라는 명칭하에, 폐건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공장주 제씨가 최근 22년 동안에 발포된 아동 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을 가장 파렴치하게 무시한 데 대한 보수로서, 이번 에 그들이 삼키게 된 환약은 금칠한 것이었다. 의회는 결정하기를, 1834년 3월 1일 이후는 11세 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5년 3월 1일 이후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또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자본》에 대하여 것처럼 관대한 이 《자유주의》는 파레 박사, A·카라일 경(卿), B·브로디 경, C·텔 경, 거스리 씨 등등 요컨대 런던의 가장 탁월한 내'과의와

의'과의들이 하원에서 그들의 증언에서 《위험은 지체(遲滯)에 있다!》라고 언명했던만큼 너 주목할만한 것이였다. 파레 박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신랄하게 다음과 같이 언명했던 것이다. 《어떤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조사(早死)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립'법이 동일하게 필요하며 이 방식 (공장적 방식)은 확실히 조사를 야기시키는 가장 가혹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¹³⁵. 공장주 제씨에 대한 부드러운 정으로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을 아직도 몇해 동안 1주 72시간의 공장으로동이라는 지옥 속에 얹매둔 같은 이 《개혁된》의회는 역시 자유를 한 방울씩 나누어 준 노예 해방령에 있어서는 이에 반하여 재배가(栽培家)가 흑인 노예를 1주간에 45시간 이상 강제 로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요란스러운 선동을 개시하였다. 주되는 문제로 된 것은 아동이라는 명칭하에 그 로동이 8시간에 제한되었고 또 일정한 의무 교육을 받기로 된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연령이었다. 자본가적 인간학(人間學)에 의하면 아동으로서의 연령은 1세에, 또는 기껏해서 11세에 끝난다는 것이였다. 공장법의 완전 실시의 기한인 악운의 해 1836년이 가까워 오면 을수록 공장주 폭도들은 더욱 미칠듯이 날뛰었다. 사실 이들은 정부가 1835년에 아동으로서의 연령의 최종 한계를 13세로부터 12세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을만큼 정부를 위협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pressure from without*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위력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원은 이 제안을 접수할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을 1일 8시간 이상 자본의 자제로노트 수레바퀴 밑에 던지는 것을 거부

135 [《제작소, 공장에 있어서의 아동 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안에 관한 선발 위원회의 보고》, 런던, 1831—1832년, 602페이지].

하였으며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적으로 공장 로동을 통제하고 있던 10년 동안 공장 감독관의 공식적 보고서는 이 법률의 실시 불가능에 대한 불평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즉 1833년의 법률은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한도내에서는 매개의 《미성년자》와 매개의 《아동》이 12시간 로동 또는 8시간 로동을 어느 때 시작하며 중단하며 종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자본가 제씨에게 일임하였으며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식사 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재량에 일임한 까닭에 자본가 제씨는 그후 곧 새로운 《Relais-system》(《릴레이 제도——교대 제도》)을 발명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로동자라는 말(馬)은 일정한 역(驛)에서 교대되는 것이 아니고 역이 바뀔에 따라 부단히 새로 교체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후에 다시 이 제도의 훌륭한 점에 관하여 말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를 비단 그 정신 뿐만 아니라 문'자 그 자체까지도 무(無)로 돌려 보였다는 것은 일견해서 명백하다. 공장 감독관들은, 매개의 개별적 아동들과 매개의 미성년자들에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복잡한 부기(簿記) 제도하에서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 로동 시간과 법률적으로 지정된 식사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얼마 오래지 않아 종전의 잔인한 만행이 또 다시 처벌을 받음이 없이 성행되게 되었다. 내무 대신과의 회견(1844년)석상에서 공장 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Relais-system(릴레이 제도) 밑에서는 어떠한 통제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¹³⁶. 그러나 이럭 저럭하는 동안에 사태는 매우 달

136 《1849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8페이지.

라졌다. 공장 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Charter (차터)를 그들의 정치적 구호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 법안을 자기들의 경제적 구호로 삼았다. 1833년의 법률에 따라 공장 경영을 조절하고 있던 공장주의 일부까지도, 더 심한 철면피인 탓으로, 또는 지방적 사정이 더 행운적인 탓으로 감히 법률을 위반한 《비량심적인 동포들》의 비도덕적인 《경쟁》에 관하여 의회에 진정서를 퍼부었다. 또 그 위에 개별적 공장주들이 아무리 중전의 탐욕을 마음대로 채우려고 원해도 공장주 제급의 대변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노동자에 대하여 태도와 언사를 달리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들은 폭물법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고 그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방초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 무역이라는 1천년 태평왕국의 비호 밑에 비단 빵의 덩어리를 2배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10시간 법안도 채택할 것을 약속하였다¹³⁷. 따라서 그들은 더욱이나 1833년의 법률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 방책들을 반대하여 싸우지는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토리당은 그 신성 불가침한 이익인 지대에 위협이 미치자 자기의 적(敵)의 《흉악한 행위》¹³⁸에 대한 의분(義憤)을 금치 못하여 동렬이 비난하였다.

1844년 6월 7일의 추가적 공장법은 이렇게 하여 성립되었다. 그것은 1844년 9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를 법률의 피보호자(被保護者)의 부류에 넣었다. 부녀자들의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들의 야간 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이와 같

137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8페이지.

138 테오나드 호너는 심지어 공식적으로 《nefarious practices》 [《흉악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859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7페이지).

이 법'법은 처음으로 성년자의 노동도 역시 직접적인 국가적 통제하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44—1845년의 공장 보고서 가운데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성인 부녀자가 그 권리를 이와 같이 침해 당했다고 해서 불평을 말해 온 경우를 우리는 한전도 알지 못한다>¹³⁹. 13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은 1일 6 $\frac{1}{2}$ 시간으로, 그리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¹⁴⁰.

허위적 <Re'aisssystem> (<릴레이 제도>)의 탐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은 개중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細則)을 제정하였다.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아동 또는 미성년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그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만약 레컨대 A는 아침 8시에, 그리고 B는 10시에 노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노동일은 B에 대해서도 A에 대한 것과 꼭 같은 시간에 종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일의 개시는 공공적(公共的)인 시계 레컨대 근처의 철도 시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장의 종(鐘)은 이것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장주는 대형 활'자로 인쇄된 노동일의 개시와 종료와 중단을 표시하는, 일람표를 공장 구내에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전의 노동을 12시 전에 시작한 아동들은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킬 수 없다. 따라서 오후 교대반은 오전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점심 식사에 배정되는 1 $\frac{1}{2}$ 시간은 일체의 피보호 노동자에게 1일중 동일한 시간에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그중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전에 허여되어야 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는 식사를 위한 적어도 반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고서

139 <1844년 9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5페이지.

140 이 법률은 아동들이 매일 노동하지 않고 다만 격일(隔日)로 노동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하루에 10시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는 오후 1시전에 5시간 이상 일시켜서는 안된다. 아동들, 미성년자들 또는 부녀자들은 어떠한 식사 시간이나 어떤 종류의 노동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 작업실 내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등등.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의 기간과 한도와 중단은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균일하게 종 소리에 맞추어서 규제하는 이 세밀한 제 규정은 결코 의회의 고안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현대적 생산 방식의 자연 법칙으로서 소여의 제 관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법칙들의 정식화, 공식적 승인 및 국가에 의한 선포는 장구한 계급 투쟁의 결과이었다. 그 법칙들의 가장 비근한 결과의 하나는 실천상 성인 남성 공장 노동자의 노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대다수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아동,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서 1844—1847년 간에 12시간 노동일은 공장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 같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퇴보>에 의한 보상(補償) 없이는 이와 같은 <진보>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청(懇請)에 따라 하원은 하느님과 법률에 의하여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 아동의 추가적 공급>¹⁴¹을 보장할 목적으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 연령을 9세로부터 8세에로 인하하였다.

1846—1847년은 영국 경제사에서 하나의 시기를 획정(劃定)한다. 곡물법이 폐지되었고 면화 및 기타의 원료에 대한 수입세가 폐지되었고 자유 무역이 법의 향도성(嚮導星)으로 선포

141 《그들의 노동 시간의 단축은 작업에 요구되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8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의 추가적 공급은 증가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1844년 9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3페이지).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1천년의 태평 왕국이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이 년간에 차티스트 운동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토리당에서 동맹자를 발견하였다. 브라이트와 코브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背信的) 자유 무역군(軍)의 열광적인 반향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래 동안 추구되어 온 10시간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였다.

1847년 6월 8일의 신 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및 부인 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예비적으로 11시간으로 단축시킬 것, 그리고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제정하였다. 기라의 점에 있어서는 이 법률은 1833년의 법률 및 1844년의 법률에 대한 정정 증보(訂正增補)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실시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나의 예비적인 출정(出征)을 기도하였다. 그나마 노동자들 자신이 마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또 다시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1847년의 흑심한 공황의 결과 다수 공장은 조업을 단축하였고 기라의 공장은 조업을 전연 중지한 까닭에 공장 노동자들 간에는 심한 곤궁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노동자의 현저한 수가 극심한 압박(逼迫)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에 당한 손실을 메꾸며 행여나 채무도 반환하며 혹은 자기들의 가구를 전당포에서 물려내며 혹은 팔아 치운 살림 도구를 다시 사들이며 혹은 자신과 가족이 새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긴 노동 시간도 좋다고 할 것은 십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바이었다》¹⁴². 공장주 제씨는 노동 임금을 일

142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6페이지.

반적으로 10% 인하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의 자연적 효과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 무역 시대의 개시를 축하하는 것이었다. 다음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 뒤이어 노동 임금은 또 다시 $8\frac{1}{3}\%$ 가 인하되었고 그후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 그 2배만큼 더 인하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사정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노동 임금이 적어도 25% 인하되었다¹⁴³. 이처럼 유리하게 준비된 기회를 리용하여 노동자들 간에서 1847년 법률의 폐지를 위한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와 유혹과 협박의 어떠한 수단든지 다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이었다. 노동자들이 《이 법률에 의한 그들의 압박》에 대하여 진정한 6동의 청원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 자신이 구두 심문 때에 그들의 서명이 강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압박을 당하고 있기는 하나 그 압박은 공장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한 것이다》¹⁴⁴. 그러나 공장주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 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 한층 떠들어 댔다. 그들은 공장 감독관들이 불행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도 세계 개조에 관한 망상의 희생물로 하는 불탄서 력

143 《한주일에 10펄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10%의 일반적 로임 인하를 구실로 1펄링의 감봉(減俸)을 당하였고 다음 노동 시간의 단축을 구실로 또 한번 1펄링 6펜스의 감봉을 당하여 도합 2펄링 6펜스의 감봉을 당하였는데 그때도 대다수는 10시간 법안에 절절히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다》(《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6페이지).

144 《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서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그러면 어째서 당신은 서명하였는가?——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쫓겨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청원자는 사실 <압박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압박감은 결코 공장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2페이지).

명 당시의 국민 의회 의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책략도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 감독관 레오나드 호너는 몸소 또 자기 부하인 보조 감독관들을 통하여 란카셔의 공장들에서 다수의 증인 심문을 진행하였다. 심문을 받은 노동자중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전연 보잘 것 없는 소수가 종전의 12시간을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¹⁴⁵.

다른 하나의 《온건한》 책략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12—15시간 일시켜 놓고 후에 이 사실을, 프로테타리아의 내심으로 부러의 소망의 가장 진정한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 감독관 레오나드 호너가 또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다. 《시간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차라리 임금을 조금 받고 10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많은 자가 실업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방적공들이 단순한 Piecers (실 잇는자)로서 노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만큼 만약 그들이 노동 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자리는 즉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보아서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즉 더 장시간 노동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두로 쫓겨 나가든가 그 어느 쪽이다》¹⁴⁶.

145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7페이지. 호너 씨의 관할구(管轄區)에서는 이와 같이 181개소의 공장에서 1만 270명의 성인 남성 노동자가 심문을 받았다. 그들의 공술은 1848년 10월에 종결되는 반년간의 공장 감독 보고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이 증인 공술은 다른 점에 있어서도 역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146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의 부록에 게재된 레오나드 호너 자신에 의하여 수집된 공술, 제69, 70, 71, 72, 82, 83호 및 보조 감독관 A에 의하여 수집된 공술, 제51, 52, 58, 59, 62, 70호를 보라. 공장주중에도 솔직하게 진술한 자가 한 사람 있었다. 동상 제265호 [37페이지]를 본 다음에 제14호를 보라.

자본의 예비적 출정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 노동일 법은 1848년 5월 1일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동안에, 차티스트당이 실패하였고 그 지도자들은 감옥에 구금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었는바, 이것은 벌써 영국 노동 계급의 자신심을 동요시켰다. 그후 얼마 오래지 않아 파리의 6월 반란과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구라파 대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어서도 재산과 종교와 가족과 사회의 구원(救援)! 이라는 하나의 공동 구호 밑에 지배 계급의 모든 분과를 즉 지주와 자본가, 주식 투기사와 소매 상인, 보호 관세론자와 자유 무역론자, 정부와 반정부당, 승려와 무신론자, 젊은 갈보와 늙은 녀승을 한데 뭉치게 하였다. 노동 계급은 도처에서 저주(呪咀)를 받았으며 추방을 당했으며 <loi des suspects> (<위험 인물 취체령>)의 단속을 받았다. 이와 같이 되어 공장주 제씨는 사양할 필요가 조금도 없게 되었다. 비단 1 시간 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흡수를 약간이라도 억제하려고 시도하였던 일체의 법을 반대하여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Proslavery Rebellion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노예 제도 옹호 폭동)의 축재관으로서 2년 이상에 걸쳐 파렴치한 폭행과 테로적 정력으로써 감행되었는데 폭동을 일으킨 자본가는 자기의 노동자들의 피부(皮膚) 이외에는 아무 것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이 없었던만큼 이 두 방법은 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다음에 서술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33년, 1844년 및 1847년의 공장법들은 그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세개가 모두 법률상 효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1833년 이래 의연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주간(晝間)>이며 그 한도내에서만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처음에는 12시간

노동, 후에는 10시간 노동이 법률에 규정된 제 조건 밑에서 수행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장주들은 이곳 저곳에서 그들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 노동자의 일부를, 어떤 경우에는 그 절반을 해고(解雇)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신 거의 망각되고 있던 성년 남성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10시간 노동일 법 밑에서는 그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⁴⁷.

진공의 둘째 걸음은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 보자. 《노동일을 10시간으로 제한한 때부터 공장주들은, 비록 아직은 자기들의 전해의 극단적인 결론을 실천에까지는 옮기지 않았지만 꽤 큰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할 때에 아침 9시전에 한 시간을 그리고 저녁 7시후에 반시간을 그렇게 해서 도합 1½ 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제공하기만 한다던 법률의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그들은 점심 식사에 반시간 또는 온근 한시간을 허여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전기(前記) 1½시간의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10시간 노동일에 포함시킬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⁸. 그리하여 공장주 제씨의 주장에 의하면, 식사 시간에 관한 1844년 법률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 규정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 전과 공장으로부터 퇴근한 후에, 다시 말하면 자택에서 음식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째서 노동자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점심 식사를 해서는 안되는가? 그렇지만 국왕(國王)의 법률가들은 법정 식사 시간은 《반드시 현실적 노동일의 중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

147 《181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33, 134페이지.

148 《181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47페이지.

없이 10시간, 연속적으로 일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하였다¹⁴⁹.

이 온화한 시위 운동이 있은 후 자본은 자기의 반역 행위에 대한 준비로 1844년의 법률 조문에 합치되는 따라서 합법적인 일책(一策)을 강구하였다.

1844년의 법률은 물론 정오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한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오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로동을 개시한 아동들의 6 1/2시간의 로동을 조금도 단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은, 그들이 정오 12시에 로동을 시작했다고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에 한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에 2시간,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에 3 1/2시간을, 즉 모두해서 법정 시간인 6 1/2시간을 일시킬 수 있었다! 혹은 또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 로동의 사용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 남성 로동자들의 로동에 배합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꺼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 없이 공장내에 억류(抑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기계 설비를 1주야에 10시간 이상 돌리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8세 내지 13세의 남녀 아동들을, 미성년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공장으로부터 퇴근한 후에, 오직 성인 남자와만 함께 저녁 8시 반까지 일시키는 관습이 수립되어 있는바 이것은 현재 별찌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¹⁵⁰. 로동자들과 공장 감독관들은 위생상 및 도덕상의 이유로 항의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49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30페이지.

150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42페이지.

《내가 하는 일에
부당한 것은 없다!
나는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
나는 증서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실지에 있어서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에는 275개소의 공장에서 3,742명의 아등이 이 《관습》에 복종하고 있었다¹⁵¹. 그것 뿐이 아니다! 자본의 교활한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을 위한 중단 없이는 오전중의 5시간 로동을 허가하지 않으나 그러나 오후 로동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유년 로동자를 비단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새 없이 고역시킬 뿐만 아니라 굶기기 까지 하는 패락을 요구하였으며 또 확보하였다!

《그렇다 그의 심장이다.
증서에 그렇게 써여 있다》¹⁵².

151 《1850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 6페이지.

152 자본의 본성은 그 미발전한 형태에 있어서나 발전된 형태에 있어서나 의연히 동일하다. 아메리카 공민 전쟁이 개시되기 얼마 전에 뉴·멕시코에서의 노예 소유자들의 지배에 의하여 제정된 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로동자는, 자본가가 그의 로동력을 구매한 이상, 그의 (자본가의) 화폐이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 간에도 통용되고 있었다. 귀족들에 의하여 평민—채무자에 대부된 화폐는 그 생활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의 살과 피로 전화되었다. 따라서 이 《살과 피》는 《그들의 화폐》이었던 것이다. 10동표(銅鑄)의 사이로크적 법률의 유래는 이러하다! 귀족—채권자들이 때때로 티베르 강의 저편에서 채무자의 고기로 만든 로리를 차리고 축연(祝宴)을 베푸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단계의 가설(假說)은 크리스크의 성찬(聖餐)에 관한 다우머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확증되지 못한채 남겨 두자.

1844년의 법률이 아동 로동을 규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문'구를'그처럼 사이토르코식으로 고집한 자들이 다른 한편 그것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로동을 규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역 행위로 넘어 갔다. 우리는 허위적 《릴레이 제도》의 철폐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성명으로써 그들의 반역 행위를 개시하였다.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 노동일중에서 임의의 짧은 시간을 빼여 내어 임의로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로동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동안은 비교적 해롭지 않았다. 그러나 10시간 노동일 법 밑에서는 그것은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한 것이다》¹⁵³.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랭정하게 감독관들에게 동고하기를 그들은 법률 조문을 무시하고 자력으로써 구(舊) 제도를 재 실시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¹⁵⁴. 이것은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신의 리익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로동자들에게 더 고액의 모임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10시간 법 밑에서 대영 제국의 공업상 패'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가능한 방책이다》¹⁵⁵. 《릴레이 제도하에서는 법률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 다소 곤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공장 감독관들과 보조 감독관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려는 목적으로 이 나라의 크나큰 공업적 리익을 제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¹⁵⁶.

153 《184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28페이지.

154 개중에서 박애주의자 아슈워스는 테오나드 호너에게 보낸, 웨이커적으로 불유쾌한 서한 가운데서 그렇게 언급하였던 것이다(《184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페이지).

155 《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38페이지.

156 동상 《보고》, 140페이지.

이러한 모든 술책들은 물론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¹⁵⁷ 공장 감독관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서 내무 대신 조지 그레이 경에게는 공장주들의 청원서가 구름 같이 모여 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부 회장(回章)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일시키려는 목적으로 릴레이 제도를 람용하는 사실이 확증되지 않는 한, 법률 조문의 위반을 일반적으로 고발하지 말 것》을 감독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공장 감독관 J·스튜아트는 15시간의 공장일(工場日) 범위 내에서 소위 교대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체에 걸쳐서 허가하였고 그 결과 여기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 모양으로 다시 성행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잉글랜드의 공장 감독관들은 대신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독재권이 없다는 것을 성명하고 노예 제도 옹호 반란자들에 대한 고소를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재판관들, 주(州) 치안 판사들¹⁵⁷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런 재판소에 불려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재판소들에서는 공장주 제씨가 자기 자신을 재판하였다. 하나의 실례를 들자, 커쇼 리즈 상회의 방적업자 에스크리지 라는 자는 그의 공장에서 예정된 릴레이 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그것이 거절된 후 그는 당분간은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수개월을 지내서 같은 방적업자이고 프라이메이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에스크리지의 친척인 로빈손이라는 자가 에스크리지에 의하여 고안된 것과 동일한 릴레이 제도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 시의 치안 판사 앞에 불려 나왔다. 4명의 판사가 열석(列

157 이 《주 치안 판사》 즉 W·코베르가 말하는바 소위 《위대한 무급(無給)판리》는 각주의 명망가들 중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급 주치안 재판관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은 지배 계급들의 령지(領地) 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다.

席)하였는데 그중 3명은 방적업자이고 수석 판사는 틀림 없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이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포하고 아울러 이제 로빈슨에게 합법적인 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법률상 유효한 자기 자신의 판결에 법각하여 즉시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서 실시하였다¹⁵⁸. 물론 이 재판소의 구성 자체부터가 공공연한 법률 위반이었다¹⁵⁹. 《이와 같은 종류의 재판 연극은——감독관 하우엘은 웨친다——그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한다…… 들 중에 하나이다. 즉 그러한 모든 경우들에…… 법률을 이러한 판결에 적응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판결을 법률에 합치시키는 그러한, 정확한 재판소가 재판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유급 재판관제의 실시가 절실히 요망된다!》¹⁶⁰.

국왕의 법률가들은 1848년 법률의 공장주적 해석을 부당한 것으로 선포하였으나 사회의 구제자(救濟者)들은 이것으로써 랑패를 당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페오나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나는 7개소의 각이한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의 기소를 하여 법률의 집행을 강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오직 한 건에 있어서만 치안 판사의 지지를 받았다…… 그후 나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 이상 더 추궁해도 쓸 데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률중 로동 시간을 서로 같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그 부분은…… 란카샤에서는 벌써 실시되지 않는다. 그

158 《1819년 4월 30일의…… 보고》, 21, 22페이지. 유사한 실례에 관해서는 동상 보고서, 4, 5페이지를 참조하라.

159 존 호브하우스 경의 공장법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제4세 치하(治下) 제1년 및 제2년 법률 제21장 제10절에 의하여 누구든지 방적 공장 혹은 직물 공장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들의 부자형제는 공장법에 관계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치안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1819년 4월 30일의…… 보고》, 22페이지, 주).

160 《1819년 4월 30일의…… 보고》 [22페이지].

나마 또 나와 나의 보조관들은 모두 소위 텔레이 제도가 지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장들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849년 4월말에 나의 관찰구내에서는 벌써 114개 소의 공장이 이 방법에 의하여 작업하였고 그 수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의 13½시간 작업하고 있으며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동안 작업하고 있다》¹⁶¹. 이와 같은 텔레이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감독 제도도 과도 노동의 가장 광범한 보급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이구 동성으로 단언한, 65명의 공장주와 29명의 공장 감독의 명록을 레오나드 호너는 벌써 1848년 12월에 가지고 있었다¹⁶².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을 어떤 때에는 방적 작업실로부터 직조 작업실 등등으로 보내며 어떤 때에는 15시간 동안에 한 공장으로부터 다른 공장으로 보내곤 하였다¹⁶³. 《로동자들을 화투'장을 뒤섞듯이 무한히 다양하게 섞어 놓아 가지고 각종 개인들의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매일 번동시켜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의 전원(全員)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에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대라는 말을 람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¹⁶⁴.

그러나 이 소위 텔레이 제도는 그것이 현실에서, 야기하는 과도 노동을 전연 도외시하더라도 <courtes séances> [《단시간 노동제》]라는 기묘한 계획안을 작성한 푸리에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의 환상의 산물이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

161 《1849년 4월 30일의……보고》, 5페이지.

162 《1849년 10월 31일의……보고》, 6페이지.

163 《1849년 4월 30일의……보고》, 21페이지.

164 《1848년 10월 31일의……보고》, 65페이지.

은 여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인력(引力)이 자본의 인력으로 전
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량한 어떤 신문이 《리성적인 정도의
배려와 방법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사물》의 모범이라고 찬
양한 공장주들의 이 계획안을 보기로 하자. 노동 인원은 흔히
12—15개의 부류에 나뉘어 있었고 이러한 부류들의 구성 부분
도 부단히 교체되었다. 15시간 동안의 공장일(工場日)이 계속
되는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 시간씩 끌
어 들였다가는 또 다시 밀어 내어 10시간 노동이 끝날 때까지
그를 해방시키지는 않으면서 분산된 얼마 안되는 시간씩 노동
자들을 이리 저리로 몰아 댔다. 극장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각이한 막의 각이한 장면에 번갈아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배우가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은 무
대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 퇴
근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고도 15시간 동안 공장
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휴식 시간은 강요된 무위의 시간으로
되었으며 그리하여 소년 노동자들은 술'집으로 가는 수 밖에 없
고 젊은 녀공들은 갈보'집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
본가가 노동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 설비를 12시
간 내지 15시간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생각해 낸 매개의 새로
운 고안은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점심 식사를 이런 또는 저
런 틈을 타서 삼시간에 삼켜 버리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10
시간 노동일 운동 당시에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이 10시간 노동
에 대하여 12시간 분의 로임을 받으려고 청원하는 것이라고 고
함쳤다. 이제 그들은 메달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노동력
을 12시간 내지 15시간 자유롭게 사용하고 10시간 분의 로임을
지불하였다¹⁶⁵.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었고 이것이 10시간 법

165 《1849년 4월 30일의…… 보고》, 6제지 및 《1848년 10월 31일
의…… 보고》에 게재된 공장 감독관 하우엘 및 쾰머쓰의 Shifting
System [이동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라. 그리고 1849년 롬

의 공장주 관(版)이었다! 이 자들은 곡물법 반대 운동 당시에 10년간이나 곡물의 자유 수입하에서는 영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으로써 자본가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시간 노동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여 노동자들에게 보이며 준, 인류애에 불타는 감격적인 자유 무역론자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¹⁶⁶.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역 행위는 드디어 영국의 배개 최고 재판소들 중 하나인 Court of Exchequer (국가 재정(財政)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였는바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 사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 법률의 의미를 위반하여 행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법률 자체가 이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떤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었다. <이 판결로써 10시간 법은 폐지되었다>¹⁶⁷.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와 여자 노동자에 대하여 릴레이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이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¹⁶⁸.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즉시로 급격한 전환이 생겼다. 이때까지 노동자들은 비록 꾸준하고 매일 갱신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수동적인 반항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란카셔와 요크셔에서 위력적인 집

에 아슈톤 및 그 근방의 승머들이 여왕에게 제출한 shift system [이동 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또한 보라.

166 레컨대 R·H·그레그의 <공장 문제와 10시간 법안> [런던] 1837년, 참조.

167 F·엥겔스 <영국의 10시간 법안> (나에 의하여 편찬된 <신타인 신문, 정치 경제 평론>, 1850년, 4월호, 13페이지에 실림)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8권, 108페이지]. 같은 이 <고급> 재판소는 아메리카의 공민 전쟁 때에도, 해적선(海賊船)의 무장을 금지한 법률을 그 정반대로 전도시키는 애매한 문'구를 발견하였다.

168 <1850년 4월 30일의…… 보고>.

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즉 소위 10시간 법은 단순한 사기(詐欺)이며 의회적 기만이며 그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 감독관들은 정부에 대하여 계급적 적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긴장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고하였다. 공장주들의 일부분자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을 이야기하였다. <치안 판사들의 모순된 판결에 의하여 전연 비정상적인 무정부적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크셔에서와 란카셔에서 통용되는 법률은 서로 다르며 같은 란카셔에서도 어떤 교회구(敎會區)에서 통용되는 법률은 그 린접 교회구에서 통용되는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法網)을 피해 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촌 지방의 공장주는 릴레이 제도에 필요한, 그리고 더우기 노동자들을 한 공장으로부터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인원을 발견하지 못한다 운운>. 그런데 노동력의 착취에 있어서의 평등, 이것은 자본으로 보아서 제1의 인'권(人權)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밑에서 공장주와 노동자간에는 타협이 성립하였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인 공장법으로서 의회의 비준을 얻었다.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간의 처음 5일간은 10시간으로부터 10¹/₂ 시간에까지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¹/₂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되¹⁶⁹ 식사를 위한 1¹/₂ 시간의 중단을 두어야 하며 이 식사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그나마 1844년의 규정에 따라 허여되어야 한다 등등. 이것으로써 릴레이 제도는 영영 폐지되었다¹⁷⁰. 아동 노동에 대

169 동기에는 이 사이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사이로 바꾸어도 된다.

170 <현행법(1850년)>은 그 노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의 노동이 균일적인 개시 시간과 종결 시간을 가지게 되는 특득을 얻기 위하여

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어떤 부류에 속하는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프로테라리아 아동에 대한 특수한 영주권(領主權)을 확보하였다. 그것은 견직물 공장주들이었다. 1833년에 그들은 위력적으로 다음과 같이 쉰했던 것이다. 《만약 온갖 연령의 아동들을 하루 10시간씩 일시키는 자유를 빼앗긴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장은 멎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13세 이상 아동을 충분한 수만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특권을 강탈하였다. 이러한 구실은 후일의 조사에 의하여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나¹⁷¹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결상 우에 얹히여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을만한 조그만 아동들의 피로부터 10년 간이나 하루에 10시간씩 전사를 뽑아 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⁷². 1844년의 법률은 비록 그들로부터 11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에 6½시간 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하였다 할지라도 이 법률은 그때진 그들에게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시키는 특권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또 다른 공장 아동들에게는 적용되는 취학(就學)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실로 되었다. 《직물의 섬세성(纖細性)은 손끝의 유연성(柔軟性)을 요구하며 이것은 오직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 움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¹⁷³는 것이다. 남부 토씨야에서 유각(有角)가축이 가축과 지방 때문에 도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드디어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여된 특권이 실 싼 부분과 실 감는 부분에

노동자가 10시간 법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의 산물이었다》(《1852년 4월 30일의……보고》, 14페이지).

171 《1844년 9월 30일의……보고》, 13페이지.

172 동상.

173 《1846년 10월 31일의……보고》, 20페이지.

한하여 잔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박탈 당한 자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부문들에서는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 시간이 10시간으로부터 10½ 시간에까지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전직물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은 다른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에 비하여 더 용이하며 또 결코 건강에 그리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⁷⁴. 후에 이르러 정부의 의학 적 조사에 의하면 그와는 반대로 《전직물 생산 지방에 있어서의 평균 사망률은 극히 높고 주민의 여성 부문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심지어 탄카샤의 면방직 생산 지방에 있어서보다도 더 높다》¹⁷⁵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년마다 반복되는 공장 감독관들

174 《1861년 10월 31일의…… 보고》, 26페이지.

175 동상 27페이지. 일반적으로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 인구의 육체적 상태는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의사들의 모든 증언은 이 점에 있어서 일치하며 또 각이한 시기에 있어서의 나 자신의 관찰도 나로 하여금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년기에 있어서의 아동의 비참히 높은 사망률은 고사하고라도 그런하우 박사의 공식적 보고는 공장 지방의 건강 상태가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 있는 농업 지방》에 비하여 불량하다는 것을 보이며 주고 있다. 그 증거로 나는 개중에도 1861년의 그의 보고로부터 다음 표를 인용한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년 남자의 백분율	남자 10만명중 폐'병'에 의한 사망들	지 방 명	여자 10만명중 폐'병'에 의한 사망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년 여자의 백분율	여자의 직업 종류
14.9	598	위간	644	18.0	면업
42.6	708	몰렉번	734	34.9	면업
37.3	547	헬리콕스	564	20.4	양모 가공
41.9	611	브랫드포드	603	30.0	양모 가공
31.0	691	맥클스필드	804	26.0	전직업
14.9	588	렉크	705	17.2	전직업
36.6	721	스토크—아	665	19.3	도자기 제조
30.4	726	몬—로렌트	727	13.9	도자기 제조
—	305	8개의 건강 한 농업 지방	340	—	

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¹⁷⁶.

1850년의 법률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위하여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게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로동 시간은 $6\frac{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말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 $1\frac{1}{2}$ 시간과 이 기간이 끝난 후 $2\frac{1}{2}$ 시간은 의연히 아동을 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에 공장 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변칙(變則)의 파렴치한 탐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이면서 성인 노동자의 노동일을 다시 15시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의 3년간의 경험은 그러한 시도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의 반항에 부닥쳐 좌절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며 주었다¹⁷⁷.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드디어 1853년에 이르러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후에 아동로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써 보충되었다. 이때로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을 받는 산업 부분들에서 일체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¹⁷⁸. 최초의 공장법이 발포된 이때 이때까지에 반세기

17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자유 무역론자들》은 전직물 공업을 위한 보호 관세론 마지 못해 단념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불탄서로부터의 수입을 막기 위한 보호 관세론 대신하는 것은 영국의 공장 아동들의 무보호 상태이다.

177 《1853년 4월 30일의……보고》, 31페이지.

178 영국 면방직 공업의 최고 번영의 해인 1859년과 1860년에 약간의 공장주들은 시간외 노동에 대한 고액 로임이라는 미끼(餌)로 성년 남자 방직공 동등으로 하여금 노동일의 연장에 찬동하게 하려고 시도하

가 경과하였다¹⁷⁹.

립'법은 1845년의 《날염(捺染) 공장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자기 본래의 분야를 일탈하였다. 자본이 립'법의 이 새로운 《칼 선 행위》를 용인할 때에 어떤 불만을 가졌겠는가 하는 것은 이 법률의 매행(行)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법률은 8세 내지 13세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식사를 위한 아무런 법정 휴식 시간도 없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13세 이상의 소년 노동자를 임의로 주야를 통하여 교역시키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¹⁸⁰. 그것은 의회의 조산아(早産兒)인 것이다¹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현대적 생산 방식의 특유한 산

였다. 수동(手動) 물 방적기와 자동 방적기에서 일하는 방적공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시도에 증말을 짓게 하였는데 각서에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1주일일에 다른 노동자를 보다 거의 2일(20시간)이나 더 오랜 공장내에 얹매여 있는 이상 우리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노예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육체적 및 도덕적으로 해독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 자신이 영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랴심상 가책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의 첫날부터는 1½시간의 법정 휴식 시간을 공제하고 6시부터 6시까지 1주간 60시간 이상은 1분도 더 노동하지 않겠다는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통고하는 바이다》(《1860년 4월 30일의…… 보고》, 30페이지).

179 이 법률의 어구를 리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수단에 관하여는 의회 보고서인 《공장 단속법》(1859년 8월 6일)과 그 약에 붙어 있는 테오나드 호너의 《감독관들이 현재 성행되고 있는 비법적 작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보라.

180 《지난 반년간(1857년) 나의 관찰구에서는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상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혹사 당하고 있었다》(《1857년 10월 31일의…… 보고》, 39페이지).

181 《날염(捺染) 공장법은 포육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인정된다》(《1862년 10월 31일의…… 보고》, 52페이지).

물인 대공업 부문들에서 승리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1853—1860년 간에 있어서의 대공업 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그에 수반된 공장 노동자들의 육체적 및 도덕적 재생(更生)은 장님들의 눈에도 보일만한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의 공민 전쟁에 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통제를 강제 당하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이 공업 부문들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착취 분야들 간의 현격한 차이를 자랑삼아 지적하였다¹⁸². 《정치 경제학》의 파리사이 교도적 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립법적 통제의 필연성에 관한 식견(識見)이 그들의 《과학》의 새로운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포하였다¹⁸³. 용이하게 리해되는 일이지만 공장 기부들이 불가피한 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에 순응하게 된 후에는 자본의 반항력은 점차로 약화되고 이에 반하여 노동 계급의 공격력은, 직접적으로는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회층들 속에서의 그의 동맹자수가 증가하는 데 따라 강화하였다. 1860년 이래의 비교적 급속한 진보는 이에 유래하는 것이다.

염색 공장과 표백(漂白) 공장¹⁸⁴은 1860년에, 레쓰 공장과

182 레컨대 1863년 3월 21일의 《타임스》지에 보낸 서한 가운데서 E·롯데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타임스》는 그에게 10시간 법을 반대하는 공장주들의 반역 행위를 상기시키고 있다.

183 개중에도 투크의 《가격의 역사》의 공저자(共著者)이며 출판자인 W·뉴마치 씨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여문에 대하여 비겁한 양보를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 진보이겠는가?

184 1860년에 발포된 표백 공장과 염색 공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하면 노동일은 1861년 8월 1일부터 예비적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1862년 8월 1일부터 중국적으로 10시간으로, 즉 평일에는 10¹/₂ 시간으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7¹/₂ 시간으로 단축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운의 해 1862년이 도래했을 때 이전 연극이 재연되었다. 공장주 제제는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취업을 금주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산업의 현 상태하에 서는》(변화 기근시에는) 만약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씩 노동하고 가 급적 더 많은 로임을 받도록 허가해 준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대단

양말 공장은 1861년에 각각 1850년 공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제1회 보고(1863년)의 결과로서 일체의 사기 제조소(비단 도기 공장 뿐만이 아니라) 성냥 제조업, 퇴관(雷管)제조업, 탄약 제조업, 벽지(壁紙)공장, 면모달이 제조업 그리고 《완성 작업》이라는 명칭하에 종괄되어 있는 허다한 과정들이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野外)포백업》¹⁸⁵과 빵 제조업이 특별법의 적

히 유리할 것이다…… 이 취지에서 작성된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때는 벌써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부결 당한 것은 수코틀랜드의 포백 공장 노동자들의 선동의 결과이었다》(《1862년 10월 31일의…… 보고》, 14, 15페이지).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 하다가 바로 그 노동자들에 의하여 이처럼 봉변을 당한 자본은 이제는 법률가의 안정(眼鏡)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1860년의 법률도 《노동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의회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애매한 문'구로 씌여져 있어서, <calenderers> [《천 대리는 노동자》]와 <finishers> [《완성공》]은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언제나 자본에 충실한 노복(奴僕)인 영국의 사법 당국은 <Common Pleas> [《민사 재판》]의 법정을 통하여 법률의 이와 같은 곡해(曲解)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노동자 사이에 대불만을 야기 하였는데 어구의 정의(定義)가 불충분하다는 구실 밑에 법'법의 명백한 의도를 수포로 몰아 가게 하는 것은 유감 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동상 보고서, 18페이지).

185 《야외 포백업자》들은 자기들은 부녀자의 야간 노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적인 성명에 의하여 1860년의 포백 공장법의 적용을 면제 받고 있었다. 이 허구(虛構)는 공장 감독관들에 의하여 폭로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의회도, 노동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야외 포백》은 《향기롭고 서늘한 잔디 밭》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자기의 목가적(牧歌的)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 야외 포백업에서는 화재 90—100도 [섭씨 32—38도]의 건조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주로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몸 식히기》라는 술어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때때로 건조실에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건조실 속에는 15명의 소녀가 있고 온도는 보통 아마포(亞麻布)의 경우에는 80—90도 [섭씨 27—32도] 이고 고급 아마포의 경우에는 100도 [섭씨 38도] 이상이다. 복판에 밀폐식(密閉式) 난로를 들어 얹힌 약 10피트 평방의 조그만 방 속에서 12명의 소녀가 다림질을 하며

용을 받게 되었는바 그것에 의하여 전자는 개중에도 아동,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야간 노동(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을 금지 당하였고, 후자는 저녁 9시와 아침 5시 사이에, 18세 미만의 빵 제조공의 노동을 리용하는 것을 금지 당하였다. 후

또 갬질을 한다(고급 아마포 등등을). 소녀들은 무섭게 달아 가지고 있는 난로를 땡들러 싸고 서 있으며 난로의 열은 다림질'군들이 다리고 있는 아마포를 삼시간에 마르게 한다. 이 <직공>들에게는 시간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일'감이 많을 때에는 그들은 여러 날을 계속하여 밤 9시 내지 12시까지 일한다>(<1862년 10월 31일의……보고>, 56페이지). 어떤 의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바람 쓰이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허가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나 견디기 어렵게 되든가 혹은 녀공들의 손이 땀으로 더러워질 때에는 그들에게 수분간 밖에 나가는 것을 허가하여 준다…… 이 녀공들의 질병을 취급하여 온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 상태가 방적 녀공들의 건강 상태에 비하여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그런데 자본은 의회에 제출한, 그 청원서에서 그들을, 화가(畫家) 루벤스 식으로, 원기 왕성한 건강체로 묘사(描寫)하였다!}. 그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질병은 폐'병, 기관지염, 자궁'병, 악성 히스테리, 류마치즘이다. 이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 간접의 원인은 공장내 공기가 지나치게 더운 것과 그들이 겨울에 집에 돌아 갈 때에 습기를 띤 찬 공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출만한 따뜻한 의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다>(<동상 보고서, 56, 57페이지). 실천적인 <야외 표백업자>에게 억지로 적용시킨 1863년의 보충적 법률에 관하여 공장 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비단 의견상 그가 보장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 노동 보호를 노동자에게 보장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아동 및 부녀자가 저녁 8시 이후에 작업하는 현상이 발각되었을 때에 비로소 노동의 보호가 시작되도록 작성되었으며 그나마 발각된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틈'증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해석상 극히 애매한 까닭에 법률 위반자는 처벌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동상 보고서, 52페이지). <이 법률은 인도적 및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로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고 성의 차별도 없고 또 표백 작업장 부근에 사는 가정의 사회적 관습에 주의를 돌림이 없이 부녀자와 아동에게 하루에 14시간씩——식사 시간은 형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또 아마 그 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경우에는 허가라기 보다는 강제이다——이것을 인도적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1863년 4월 30일의……보고>, 40페이지).

에 이르러 상기 위원회는 농업과 광산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일체 중요 산업 부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협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술하기로 하자.^{185a}

제 7 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 립'법이 타국에 준 영향

독자는 잉여 가치의 생산, 즉 잉여 노동의 추출(抽出)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예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 방식 그 자체에 있어서의 제 변화와는 상관 없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독자는 또 우리가 이때까지 전개하여 온 견지에서는 오직 독립적인 따라서 법률상 성년의 노동자만이 상품 판매자로서 자본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현대 산업이,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상 및 법률상 미성년자의 노동이 주요한 역할을 논다면 우리로 보아서 전자는 오직 노동 흡수의 특수 분야로서만, 후자는 오직 이 노동 흡수의 특히 뚜렷한 실패로서만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적 제 사실의 단순한 현관만으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노동일의 무제한하고 무자비한 연장에 대한 자본의 지향은, 우선 수력과 증기력과 기계 설비에 의하여 맨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 제 부문에서, 즉 현대적 생산 방식의 최초의

^{185a} (제2판 주), 내가 이 글을 쓴 1866년 이때 또 다시 반동이 시작되었다.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잠전 방직업과 직조업에서 우선 증축된다. 물질적 생산 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¹⁸⁶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의 무제한한 침범을 조성하며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규제(規制)하며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조래한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 있어서는 립'법에 의한 이러한 통제의 설정은 다만 폐외적인 일에 불과하였다¹⁸⁷. 그러나 이 통제가 새로운 생산 방식의 최초의 영역에 보급되자마자 비단 허다한 다른 생산 부문도 그 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 제도에 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도기 제조소, 유리 공장 등등과 같은 다소간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마누팩투라와, 또 빵 제조업 같은 구식 수공업과, 최후로 못(釘) 제조업 등등과 같은 분산적인 소위 가내 노동¹⁸⁸ 까지도 벌써 오래 전부터 공장과 같은 정도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영향하에 들어 왔다는 사실이 관명되었다. 그러므로 립'법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폐외적인 성격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는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립'법이 로마식 시비 판단론(是非判斷論)을 하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고 있는 일체의 가옥을 임의로 공장(factory)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⁸⁹.

186 《이 두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중 각자의 행동은 그것들이 놓여 있는 호상 관계의 결과이었다》(《1851년 10월 31일의……보고》, 113페이지).

187 《제한을 당한 기업은 증기력 또는 수력이 적용되는 직물(織物) 제조와 이터 저터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기업이 감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두개의 조건이 필요하였으니 증기력 또는 수력의 채용과 일정한 종류의 설비의 가공이 그것이었다》(《1861년 10월 31일의……보고》, 8페이지).

188 이 소위 가내 공업의 '상대에 관하여는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최근의 보고 가운데 비상이 풍부한 자료가 들어 있다.

189 《최근 의회(1861년)의 법률들은…… 그 생산 방법이 각이

둘째, 약간의 생산 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일 통제와 력사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통제를 위한 투쟁은, 고립된 노동자, 즉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숙(成熟)의 일정 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간의 장기에 걸친, 많거나 적거나, 엄폐된 공민 전쟁의 산물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그것이 현대 산업의 영역내에서 개시되는 것인만큼 우선 이 현대 산업의 발상지(發祥地)인 영국에서 일어 난다¹⁹⁰. 영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리론가가 역시 자본주의적 리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도전(挑戰)한 것과 마찬가지로¹⁹¹ 비단 영국의 노동 계급 뿐만 아니라 현대 노동

한 각양 각색의 생산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 기계 설비를 움직이기 위하여 기계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벌써 전에 있어서와 같이 법률상 《공정》으로서 간주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1861년 10월 31일의……보고》, 8페이지).

190 대목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탁월인 벨기는 이 운동의 흔적도 보이지 주지 않는다. 벨기에서는 탄갱과 광산에 있어서까지 노동자들은 성과 연령의 차이를 막론하고 시간의 장단과 시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된다. 탄갱 및 광산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매 1,000명당 733명은 남자, 88명은 여자, 135명은 16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44명은 16세 미만의 소녀이다. 용광소(熔鑄所) 등등에 있어서는 매 1,000명당 668명이 남자, 149명이 여자, 98명이 16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85명이 16세 미만의 소녀이다. 그런데다가 성숙, 미성숙 노동력의 엄청난 착취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은 극히 적으며 1일 평균 남자는 2펜링 8펜스, 여자는 1펜링 8펜스, 소년은 1펜링 2¹/₂펜스이다. 그러나 그 대신 벨기가 1863년에 수출한 석탄, 철 등등의 분량 및 가치는 1850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되었다.

191 로버트 오웬이 현 세기의 20년대 초에 비단 노동일 제한의 필요성을 리론적으로 주장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뉴 타나크의 자기 공장 에서 10시간 노동일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세인은, 그가 주장한 《생산적 노동과 아동 교육과의 결합》을 조소(嘲笑)하며 또는 그가 참철한 노동자의 협동 조합적 기업을 조소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급 일반의 선진 투사이었다. 그러므로 공장 철학자 유거는 《로동의 완전 자유》를 위하여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해해서 영국 로동 제급은 겨우 《공장법이라는 노예 제도》를 자기의 가치로 삼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서 락인(烙印)하였던 것이다¹⁹².

불란서는 영국의 뒤를 따라 천천히 발자국을 옮기고 있다. 영국의 원형(原型)에 비하여 훨씬 불충분한 12시간 법¹⁹³이 탄생하기 위하여는 2월 혁명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란서의 혁명적 방법은 역시 자기의 특유한 우'침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립'법이 혹은 이런 점 혹은 저런 점에서 사정의 압력에 본의 아닌 양보를 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법률적 체계(詭計)를 꾸며 내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¹⁹⁴

공산주의적 공상이라고 조소하였던 것이다. 원시세 와서는 첫째 공상은 공장법으로 되었고 둘째 공상은 전체 《공장법》에 있어서의 공식적 문'구로 나타나 있고 셋째 공상은 반동적 기만의 암호문로까지 되고 있다.

192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불란서어 역), 파리, 1836년, 제 2권, 39, 40, 67, 77페이지 및 기타.

193 《1855년의 파리 국제 《통계가 대회》의 보고에는 개중에도 다 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공장 및 작업장에 있어서의 매일의 로동위 계속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불란서의 법률은 이 로동을 일정한 고정적 인 시간(기간)의 범위내에 국한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오직 아동 로 동에 대해서만 오전 5시와 저녁 9시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일부 공장주는 이 숙명적인 침묵이 그들에게 주는 권리 물 리용하여 아마 일요일이나 제외하고는 나날이 중단 없이 일을 시키 고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로동자의 자이한 2코대 반을 채용 하고 있는바 그중 어느 것도 12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지내지는 않으 나 그러나 기업소의 작업은 주야로 계속된다. 법률의 요구는 충족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인도상(人道上) 요구도 충족되어 있는가?》 《야간 로동 이 인체(人體)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이외에 《어둠 캄캄한 하나의 동 일한 작업장내에서 남녀 광상이 밤에 함께 머물러 있는 데로부터 생겨 나는 운명적인 영향》도 역시 강조되어 있다.

194 《레칸대 나의 관찰구에 있어서의 동일한 공장 건물 속에서 동일한 공장주가 포백업자와 염색업자로서는 <포백 공장 및 염색 공장

에 반하여 불란서의 혁명적 방법은 일거(一擧)에 전체 작업소와 공장에 대하여 차별 없이 로동일의 동일한 한계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이름으로만 정취되었으며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법으로서 요구되기 시작한 그것을 불란서의 법률은 원칙으로서 선포하고 있다¹⁹⁵.

북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공화국의 일부분이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병신으로 되어 있었던 동안은 온갖 독립적인 로동 운동은 마비 상태에 있었다. 백인의 로동은 흑인의 로동이 치욕적인 락인을 찍히우고 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죽음으로부터 즉시로 새로운 젊은 생명이 싹텄다. 공민 전쟁의 제1의 산물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까지, 뉴 잉글랜드로부터 칼리포니아까지, 1보 7마일(哩)의 기관차 구두로 출달을질 하는 8시간 로동일을 위한 운동이었다. 발티모아에 있어서의 일반 로동자 대회 (1866년 8월 16일)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고 있다. 《이 나라의 로동을 자본주의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현재의 제1차적인 중대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날염(捺染)** 업자로서는 《날염 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완성업자》로서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다……》(《1861년 10월 31일의……보고》, 20페이지에 실린 베이커 씨의 보고). 이 법률들의 각이한 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착잡한 판계를 떨거한 후에 베이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공장 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탈법 행위(脫法行爲)를 할 생각을 가진다면 이 세계의 의회적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할 것인가는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가 제씨에게는 소중 사건들이 보장되어 있다.

195 그리하여 드디어 공장 감독관들은 파감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항의 (로동 시간의 법률적 제한을 반대하는 자본의 항의)는 로동의 권리라는 대원칙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설사 로동자가 기진 맥진해진다는 문제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로동자의 로동에 대하여 행사하는 고용주의 권리가 중지되고 로동자의 시간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되는 그러한 시점(時點)이 있는 법이다》(《1862년 10월 31일의……보고》, 51페이지).

요구는 8시간 로동을 아메리카 연방의 전체의 주(州)에 있어서 표준 노동일로 인정하는 법률의 발포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의 전력을 경주(傾注)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⁹⁶. 이것과 때를 같이 하여 (1866년 9월초) 제네바에 있어서의 《국제 노동자 협회》의 대회는 런던의 총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우리는 노동일의 제한을, 그것 없이는 해방을 위한 모든 다른 노력이 좌절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예비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성명한다……우리는 8시간 로동을 노동일의 법'적 한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 걸쳐서 생산 관계 그 자체로부터 본능적으로 장성하여 온 노동 운동은 영국의 공장 감독관 R. J. 쏜더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정당화한다. 《만약 미리부터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그 법정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개혁을 위한 이 이상의 방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다》¹⁹⁷.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들어 갈 때와는 다르게 되어 생산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서 다른 상품

196 《우리, 던커크의 노동자들은, 현 제도하에서 요구되는 노동 시간의 길이는 너무 길어서 노동자에게 휴식과 발전을 위한 시간을 남겨 주지 않으며 도리어 노동자를 노예 제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예속 상태에까지 끌어 내린다는 것을 성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8시간이 1노동일로서 충분하며 또 그것이 법률상 충분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유력한 공간(槓杆)인 신문이 우리에게 방조를 줄 것을 호소하며……누구든지 이 방조를 거부하는 자는 모두 노동의 개량과 노동의 권리에 대한 원수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을 결의한다》(1866년의, 뉴욕 주, 던커크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결의).

197 《1848년 10월 31일외……보고》, 112페이지.

의 소유자와, 즉 상품 소유자로서 상품 소유자와 대립하고 있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한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중서에 밝혀 명시한 것이었다. 거래가 끝나고 보면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시간은 그가 그것을 판매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¹⁹⁸ 실지에 있어서 흠철귀는 《아직도 짜낼만한 한 편의 근육, 한 줄기의 힘줄, 한 방울의 피가 남아 있는》¹⁹⁹ 그동안 그를 놓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관명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피롭게 하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하며 계급으로서 노동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한 자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과 자기의 자녀를 사멸과 노예 상태에로 팔아 먹는 것을 방지하는 유력한 사회적 장애물인 법률을 국가가 제정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²⁰⁰. 《양도할 수 없는 인’

198 《이 밖에도 이러한 행동 (폐컨대 1848—1850년間に 있어서)의 자본의 책략》은 마치 노동자들은 보호가 필요 없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손의 노동과 그들의 이마의 땀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빈번히 제기되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데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였다》(《1850년 4월 30일의……보고》, 45페이지). 《자유 노동은, 만약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다면, 자유로운 나라에 있어서까지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라는 강력한 팔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1861년 10월 31일의……보고》, 34페이지). 《식사 시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형편에서 1주야에 1시간씩……노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강제하는 것은 운운》(《1863년 4월 30일의……보고》, 40페이지).

199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의 10시간 법안》(《신 타인 신문》, 1850년 4월호에 게재됨, 5페이지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썸야어판, 제8권, 101페이지]).

200 10시간 법안은 그것의 적용을 받는 산업 제 부문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완전한 퇴화로부터 구제하였으며 그들의 육체적 상태를 보호하였다》(《1859년 10월 31일의……보고》, 47페이지). 《자본 (공장에서의)은, 중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않고서는 기

권(人權)》의 화려한 목록 대신에 《드디어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이 어느 때에 끝나는가, 그 자신에 속하는 시간이 어느 때에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²⁰¹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노동일의 겸손한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한다. 먼저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변화인가!

계 설비를 제한된 시간 이상에 걸쳐서 운전시킬 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방위할 수 없다》(동상 보고서 8페이지).

201 《그보다도 더 큰 복리는 노동자 자신의 시간과 그의 고용주의 시간 사이에 드디어 명백한 한계가 지어졌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는 이제는 언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는 이것을 미리부터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분, 초의 시각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미리 배정할 수 있게 된다》(동상 보고서, 52페이지). 《그것 (공장법)은 노동자들을 자기 자신의 시간의 주인 공으로 만들므로써 그들을 정치적 권력의 장악으로 향하게 하는 도덕적 에네르기를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동상 보고서, 17페이지). 공장 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풍자와 극히 신중한 표현으로써 현재의 10시간 노동일 법은 자본의 단순한 화신으로서의 자본가에게 내재하는 본래의 조야성(粗野性)으로부터 자본가까지도 어느 정도 해방시키며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고용주는 돈 벌이 이외의 다른 일에는 어떠한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피고용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에는 어떠한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동상 보고서, 48페이지).

제 9 장 잉여 가치의 톨과 량

우리는 본장에 있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를, 따라서 노동력의 재 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노동일 부분을, 소여의 불변적인 크기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잉여 가치분이 소여의 것일 때에는 개별적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에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 가치량도 또한 소여의 것으로 된다. 만약 레컨데 필요 노동이 하루에 6시간이고 그것을 금의 분량으로 표현한 것이 3펠링, 즉 1탈레르라고 한다면 1탈레르는 1노동력의 1일분 가치, 즉 1노동력의 구매에 선대된 자본 가치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잉여 가치분이 100%라고 한다면 이 1탈레르의 가변 자본은 1탈레르의 잉여 가치량을 생산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는 매일 6시간분의 잉여 노동량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가변 자본은 자본가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되는 노동력 전체의 총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따라서 선대된 가변 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 가치를 사용되는 노동력의 수로써 승(乘)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 가변 자본의 크기는 동시적으로 종업하는 노동자 수에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만약 1노동력의 1일분 가치 = 1탈레르라고 한다면 매일 100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100탈레르의 자본을, 매일 n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n 탈레르의 자본을 선대해야 할 것이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만약 1노동력의 1일분 가치인 1탈레르

의 가변 자본이 매일 1탈레르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면 100탈레르의 가변 자본은 매일 100탈레르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 것이며 n 탈레르의 가변 자본은 매일 1탈레르 $\times n$ 의 잉여 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 가치의 양은 개별적 로동자의 1로동일에 의하여 제공되는 잉여 가치를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로써 총(乘)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개별적 로동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로동력의 가치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는 잉여 가치불에 의하여 결정되는 까닭에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1의 법칙이 나온다. 즉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선택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잉여 가치불을 승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동일한 자본가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착취 당하는 로동력의 수와 개별적 로동력의 착취 정도와의 복비(複比)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잉여 가치량을 M 으로써, 개별적 로동자에 의하여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잉여 가치를 m 으로써, 1로동력의 구매에 매일 선택되는 가변 자본을 v 으로써, 가변 자본의 총액을 V 로써, 평균적 로동력의 가치를 k 로써, 그 착취 정도를 $\frac{a'}{a}$ $\left(\frac{\text{잉여 로동}}{\text{필요 로동}} \right)$ 로써, 그리고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를 n 으로써 각각 표시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는다.

$$M = \begin{cases} \frac{m}{v} \times V \\ k \times \frac{a'}{a} \times n \end{cases}$$

우리는 비단 평균적 로동력의 가치가 불변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자들이 평균적 로동자에 환원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전제한다. 생산되는 잉여 가치의 증가가 피착취 로동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때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로동력의 가치도 또한 불변적

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량의 잉여 가치가 생산될 때에 어떤 한 요인(要因)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에 의하여 보상(補償)될 수 있다. 만약 가변 자본이 감소하나 그와 동시에 잉여 가치률이 동일한 비율로 높아진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의연히 불변일 것이다. 앞에서 설정한 가정 하에서 자본가가 매일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는 100탈레르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만약 잉여 가치률이 50%라고 한다면 이 100탈레르의 가변 자본은 50탈레르의, 즉 100×3 노동 시간분의 잉여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잉여 가치률이 2배로 된다면 즉 노동일이 6시간으로부터 9시간까지가 아니라 6시간으로부터 12시간까지로 연장된다면 절반으로 감소된 가변 자본 50탈레르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50탈레르의, 즉 50×6 노동 시간분의 잉여 가치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감소는 노동력의 착취 정도의, 그에 비례하는, 증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으며 또는 종업 노동자수의 감소는 노동일의, 그에 비례하는, 연장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자본이 강요할 수 있는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게 된다²⁰². 반대로 잉여 가치률의 감소는 만약 가변 자본의 크기 또는 종업 노동자수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잉여 가치률의 증대 또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노동자수 또는 가변 자본의 크기의 보상(補償)은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든지 간에, 노동

202 이 초보적인 법칙이 즉류 경제학 진영에 속하는 제세베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전도된 아르키메데스로서 노동의 시장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 가운데서 제세베를 뒤집어 었기 위한 거점(據點)이 아니라 제세베를 정지시키기 위한 거점을 발견하였다고 믿고 있다.

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2시간이 되든 혹은 10시간이 되든 간에, 노동자가 나날이 생산할 수 있는 총가치는 24 노동 시간이 물화되어 있는 가치보다는 항상 작은 것이며 만약 이 물화된 24노동 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12셀링, 즉 4탈레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12셀링, 즉 4탈레르보다는 작은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 생산하기 위하여 즉 노동력의 구매에 선대된 자본 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일 6노동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는 우리의 종전의 가정 밑에서는 500명의 노동자를 100%의 잉여 가치물로써, 즉 12시간 노동일로써 사용하는 500탈레르의 가변 자본은 매일 500탈레르의, 또는 6×500 노동 시간분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매일 10명의 노동자를 200%의 잉여 가치물로써, 즉 18시간 노동일로써 사용하는 100탈레르의 자본은 겨우 200탈레르의, 또는 12×100 노동 시간분의 잉여 가치량을 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총가치, 즉 선대된 가변 자본 플러스 잉여 가치의 등가물은 어느 날에나 400탈레르의 또는 24×100 노동 시간분의 금액에 달할 수는 결코 없다. 자연적으로 항상 24시간보다는 적은 평균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잉여 가치물의 증대에 의하여 가변 자본의 감소를 보상하는 데 대한, 또는 노동력의 착취 정도의 제고에 의하여 피착취 노동자수의 감소를 보상하는 데 대한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 이 대단히 명백한 제2의 법칙은 우리가 아래서 론급하게 될 자본의 경향, 즉 자본에 의하여 고용되는 노동자수를, 또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을 가급적 더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이것은 가급적 다량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려는 자본의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허다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반대로 만약 사용 노동력의 수량 또는 가변 자본의 크기가 증대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 증대가 잉여 가치물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감소될 것이다.

제3의 법칙은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잉여 가치불과 선대된 가변 자본의 크기라는 두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흘러 나온다. 만약 잉여 가치불, 즉 노동력 착취의 정도와 노동력의 가치 즉 필요 노동 시간의 크기가 소여의 것이라면 가변 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 및 잉여 가치량이 더욱 클 것은 자명하다. 만약 노동일의 한계와 그리고 또 필요 노동 부분의 한계가 소여의 것이라면 개별적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양은 오로지 그가 운용하고 있는 노동의 수량에 의존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가 운용하는 노동의 양은, 소여의 가정 밑에서는,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즉 노동자의 수에 의존하며 이 수는, 그것대로 또 그에 의하여 선대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잉여 가치불이 소여의 것이고 또 노동력의 가치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 생산되는 잉여 가치의 양은 선대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부분을 그는 생산 수단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자본의 불변적 부분이다. 다른 한 부분을 그는 산 노동력으로 전환시킨다. 이 부분은 그의 가변 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 방식의 기초 우에서도 각이한 생산 부문들에 있어서는 자본의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으로의 각이한 분할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동일한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이 비율은 생산 과정의 기술적 기초와 사회적 결합의 변동과 더불어 변동한다. 그러나 소여의 자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에 분할되든지 간에, 전자의 후자에 대한 비가 $1:2$ 이든 혹은 $1:10$ 이든 혹은 $1:X$ 이든, 우에서 수립된 법칙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한 분석에 의하면 불변 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된다 할지라도 새로 창조된 가치에는 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1,000명의 방적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방적공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원료, 방추 등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추가적인 생산 수단들의 가치는 그것이 등귀하든 저락하든 혹은 불변이든 간에 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이러한 생산 수단들을 운전하는 로동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치 증식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확립된 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각이한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양은 로동력의 가치가 소여의 것이며 로동력 착취의 정도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 자본들의 가변적 구성 부분의 크기에, 다시 말하면 산 로동력에 전환된 그 구성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법칙은 현상의 외관에 기초를 둔 일체의 경험과 분명히 모순된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사용 총자본의 백분비(百分比) 계산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많은 불변 자본과 적은 가변 자본을 사용하는 면방직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변 자본과 적은 불변 자본을 운용하는 빵 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리윤, 즉 잉여 가치를 짜내는 것은 아니다. 이 외견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중간 고리를 필요로 하는바 그것은 마치 초등 대수학의 톱'장으로부터는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중간 고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고전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을 결코 정식화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본능적으로 이 법칙에 달라 붙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가치 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고전 경제학은 이 법칙을 란포한 추상에 의하여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원(救援)해 내려고 시도한다. 리카도 학파가 어떻게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던가 하는 것은 후에 이르러²⁰³ 보게 될 것이

203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것은 《제1부》에 있다.

다. 《사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 경제학은 여기서도, 다른 어디서나와 마찬가지로 현상의 법칙에 대립하여 현상의 외관을 붙잡는다. 속류 경제학은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무식(無識)은 충분한 돈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정 사회의 총자본에 의하여 나날이 운용되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한 노동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레컨대 노동자의 수가 100만이고 개별적 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시간으로 된다. 이 노동일의 길이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는——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육체적 조건이든 혹은 사회적 조건이든 간에——잉여 가치의량은 오직 노동자수의, 즉 노동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구의 증가는 사회 총자본에 의한 잉여 가치 생산의 수학적 한계로 된다. 반대로 인구의 크기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 이 한계는 노동일의 가능한 연장에 의하여 규정된다²⁰⁴. 다음 장(章)에서 우리는 이 법칙이 오직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하여 온 잉여 가치 형태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

잉여 가치의 생산에 관한 이때까지의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하게 된다. 즉 온갖 임의의 화폐액 또는 가치액이 자본으로 전화될 수는 없고 반대로 개별적인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일정한 최소한의 화폐 또는 교환 가치가 준비되는 것이 이 전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가변 자본의 최소한, 이것은 잉여 가치의 획득을 위하여 1년간을 통해서 나날이 리용되는 노동력의 한 단위를 구매하는 데

201 《사회의 노동, 즉 경제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레컨대 인구 100만이 하루에 각각 10시간씩 노동하여 합계 1,000만 시간으로 되는 것과 같다……자본은 자기 증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는, 온갖 소여의 시기에 있어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에 의하여 설정된다》(《개 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술》, 런던, 1831년, 47, 48페이지).

지출되는 금액이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가 노동자로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에게는 그의 생활 수단의 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만으로 이를테면 하루에 8시간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로 하는 생산 수단도 역시 8로동 시간분이면 족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노동자로 하여금 이 8시간 이외에 이를테면 4시간의 잉여 로동을 수행하게 하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밑에서 그는 매일 취득되는 잉여 가치로써 노동자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도 벌써 두 사람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그의 생산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 유지에 있지 재부의 증가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하에서는 부의 증가가 전제로 되어 있다. 그가 보통 노동자보다 겨우 2배 더 낮게 생활하며 또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반을 자본에 재 투자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함께 선대 자본의 최소한을 8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그는 몸소 자기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 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때에는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물인, 《소 경영주》로 되어 버릴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정한 수준은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다시 말하면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전체 시간을 타인의 로동의 점유와 그 관리를 위하여 또 이 로동의 생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요구한다²⁰⁵. 중세기의 동업 조합 제도는 개별적 장주(匠主)

205 《농장주는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뢰할 수 없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체 일에 대한 전빈적 감시이다. 그는 타곡자(打穀者)를 감시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곡되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수를 극히 적은 수의 최대한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수공업적 장주가 자본가로 전화하는 것을 억지로 방지하려 하였다.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는 생산에 섰던 최소한 금액이 중세기적 최대한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그때에야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에게로 전화된다. 순전한 '량'적 변화가 일정점에 도달하면 질'적 차이로 이행한다는, 헤겔이 자기의 《논리학》에서 발견한, 법칙의 정당성이 여기에서도 자연 과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확증된다^{205a}.

지 않은 곡물에 대하여 지불되는 로임이 그의 손실로 될 것이다. 또 그는 자기의 애초자(刈草者), 수확자(收穫者) 등등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는 항상 자기의 농장 구내를 순회(巡回)해야 할 것이며 그는 구내에 조금도 등한시된 일이 없는가를 보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한 장소에만 매달려 있게 된다면 등한이 되는 일이 생겨 날 것이다》(《식량의 현재의 가격과 농장의 규모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 어떤 농장주의 저작》, 런던, 1773년, 12페이지). 이 저작은 대단히 흥미 있다. 우리는 이 저작에서 《자본가적 농장주》 또는 저자가 로임적으로 명명(命名)하는 바와 같이 《상인적(商人的) 농장주》의 발생을 연구할 수 있으며 또 생활의 유지가 주요 문제로 되어 있는 《소농장주》에 비한 그의 자체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자본가 계급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국 가서는 철저하게 손 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 (《제 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강의안》, 리차드 존즈 목사의 저작, 허트포드, 1852년, 제3 강의, 39페이지) [리차드·존즈 《경제학 저작집》, 쓰면 사회 경제 서적 출판소, 1937년, 316페이지 참조].

205a 현대 화학에 적용되고 있으며 로탄 및 제라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된 분자설(分子說)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법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3판에 대한 추가. 화학에 통달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막연한 이 주의 해석을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43년에 C·제라르가 처음으로 《동족렬(同族列)》이라고 명명한 탄소 화합물(炭水化合物)에 관한 것인데 그 때까지 제렬은 자기 자신의 대수적 조성식(代數的組成式)을 가지고 있다. 레컨데 파라핀의 제렬은 C_nH_{2n+2} 이고, 표준적인 알콜의 제렬은 $C_nH_{2n+2}O$ 이고, 표준적인 지방산(脂肪酸)의 제렬은 $C_nH_{2n}O_2$ 이고, 기타 이런 것이 많다. 상술한 페에 있어서는 분자식(分子式)에 CH_2 를 단순히 '량'적으로 추가하면 그 때마다

개별적인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액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변동하며 또 소여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도 생산 분야가 다르면 생산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일정한 생산 부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개시 당초에 벌써 그 당시 아직까지 개별적인 개인의 수중에는 현존하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콜베르 시대의 불탄서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독일 연방국들에 있어서와 같이 사²적 인물들에 대한 국가적 보조금 지출의 원인으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업 부문과 상업 부문의 경영에 대한 법률상 독점권을 가지는 회사(會社)²⁰⁶——현대적 주식 회사의 선구자——의 설립의 원인으로 된다.

우리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 과정의 진행중에 일어난 변화들의 상세한 점은 일일이 취급하지는 않기로 하겠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제 규정도 이 이상 더 전개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강조하는 데 그치겠다.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다시 말하면 활동중에 있는 노동력에 대한, 또는 노동자 그 자신에 대한 지휘에까지 발전하였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

질'적으로 각이한 물체가 형성된다. 이 중요한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의, 맑스가 파데 평'가한, 로탄 및 제라르의 기여에 관하여는 코프의 《화학의 발전》, 런던, 1873년, 709, 716페이지, 그리고 또 쇼르렘머의 《유기화학의 발생과 발달》, 런던, 1879년, 51페이지를 참조하라——F·엥겔스).

²⁰⁶ 이런 종류의 시설을 마르틴 루테르는 《독점 회사》라고 칭한다.

기의 일을 제대로, 또 상당한 강도(強度)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 계급으로 하여금 그를 자신의 좁은 범위의 생활상 욕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로동을 수행케 하는 강제적 관계에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근면을 추동하여 잉여 로동을 흡수하며 로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과 탐욕과 효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강제 로동에 립각하는 기왕의 모든 생산 체계를 룡가(羨駕)하고 있다.

자본은 우선은 력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제 조건을 그대로 리용하여 로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대번에는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하여 온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다시 말하면 로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생산 방식 그 자체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와도 무관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구식 빵 굽기에 있어서도 현대적 면방적업에 있어서 보다 못하지 않게 효과적인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생산 과정을 노동 과정의 전지로부터 고찰한다면 로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의 수단 및 재료로서 상대하는 것이다. 레컨대 피혁 공장에서 그는 가죽을 단순히 자기의 노동 대상으로서 취급한다. 그는 자본가를 위해 가죽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생산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의 전지로부터 고찰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생산 수단은 즉시로 타인의 로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한다. 이제는 벌써 로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수단이 로동자를 사용한다. 로동자가 생산 수단을 자기의 생산 활동의 물재적 요소로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수단이 로동자를 그 자신의 생활 과정의 효모(酵母)로서 소비한다. 그리고 자본의 생활 과정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

다. 야간에 휴식하여 산 로동을 조금도 흡수하지 않는 용광로와 로동용 건물은 자본가로 보아서 《순수한 손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로동용 건물은 로동력의 《야간 로동에 대한 청구'권》을 구성한다. 화폐가, 생산 과정의 물질적 요인인 생산 수단에로 전화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생산 수단은 타인의 로동과 잉여 로동을 지배하는 법률적 권리와 강제적 권리로 전화된다. 최후로 드는 다음 실례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유하며 또 그것을 특징 짓는 이와 같은 전도가 즉 심지어 죽은 로동과 산 로동간의, 가치와 가치 창조력간의 관계의 전도가 어떻게 자본가들의 두뇌에 반영되는가를 보이여 준다. 1848—1850년간에 있어서의 영국 공장주들의 반역의 시기에, 1752년 이래 존속하고 있으며 대대(代代)로 동일한 가족이 경영하여 온 서부 스코틀랜드에 있어서의 가장 력사가 길고 가장 명성 있는 상회의 하나인 카라일 선즈 앤드 캄파니 회사라는, 페이즐리의 아마—면화 방적 공장 사장(社長)인, 비상히 유식한紳士(紳士)가 1849년 4월 25일부 《글라스코. 데일리 메일》에 《릴레이 제도》라는 제목으로 일편의 서한²⁰⁷을 기고(寄稿)하였는데 그 속에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구절이 있다.《이제 로동 시간을 12시간으로부터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생겨 나오는 폐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그것은 공장주의 전망과 소유'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에 <귀착>된다. 만약 그가 (즉 그의 <직공들>이) 과거에는 12시간 작업하였는데 장차는 10시간으로 제한을 당한다면 그의 공장의 기계 또는 방추의 매 12개가 10개로 축소될 것이며 또 만약 그가 자기의 공장을 판매할 생각을 가진다 해도 그것들은 10개로 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니 그 결과 전국에 있어서의 매개 공장은 자기 가치의 6분의 1을 잃어 버리게

207 《1819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9페이지.

될 것이다》²⁰⁸.

카라일 상회 사장이 망상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공장이 판매될 때 그는 비단 방추의 가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우에 또 방추의 가치 증식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으며 비단 방추 속에 들어 있는, 그리고 바로 같은 그 종류의 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방추로써 매일 페이지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그 잉여 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받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망상이 나올 정도로 서부 스코틀랜드의 전래(傳來)의 자본가적 두뇌로 보아서는 방추 등등의 생산 수단의 가치와, 자기 증식을 수행하는, 즉 타인의 무상(無償) 노동의 일정량을 매일 삼키는, 그 자본주의적 속성과는 불가분적(不可分的)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리유에서 그는 노동일을 2시간 단축시키면 그와 동시에 매 12개의 방적 기계의 판매 가격이 매 10개의 판매 가격에까지 축소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8 동상 보고서, 60페이지. 그 자신 스코틀랜드인이요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과는 반대로 전연 자본가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공장 감독관 스튜어트는 그가 자기의 보고서에 수록한 이 서한이 《릴레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어떤 공장주가 쓴 것으로서 특히 이 제도에 대한 편견과 의혹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장 유익한 통신이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제 4 편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 10 장 상대적 잉여 가치의 개념

자본에 의하여 지불된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는 노동일 부분을 우리는 이 때까지 불변한 크기로 간주하여 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사회의 조여의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의 주어진 생산 조건하에서는 불변한 크기이다. 노동자는 이러한 필요 노동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등을 더 일할 수 있다. 잉여 가치물과 노동일의 길이는 이 연장의 대소에 의존한다. 필요 노동 시간은 이와 같이 불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반하여 전체로서의 노동일은 가변적인 크기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노동일의 전체 길이와 또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의 그 분할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폐컨대 직선(直線) ac 즉 a ————— b ——— c 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되 ab 부분은 10시간의 필요 노동을, bc 부분은 2시간의 잉여 노동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제 ac 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 의 이 이상의 연장은 전연 관계 없이 어떻게 하면 잉여 가치의 생산이 증대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잉여 노동이 연장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로동일 ac 의 한계는 소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bc 는 그 중점 c ——그것은 동시에 로동일 ac 의 종점(終点)으로 되어 있다——를 넘어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始点) b 를 반대 방향인 a 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연장될 수 있는 듯 하다. 가령 직선 a ————— b' — b — c 에서 b' — b 는 bc 의 절반, 즉 1로동 시간과 동일하다 하자. 이제 만약 12시간 로동일 ac 에 있어서 b 점을 b' 에까지 이동시킨다면 bc 는 $b'c$ 의 길이로 연장되어, 로동일은 종전대로 12시간이지만 잉여 로동은 그 절반만큼 증대하여 2시간으로부터 3시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잉여 로동이 bc 로 부터 $b'c$ 으로, 2시간으로부터 3시간으로 연장되는 것은 분명히 동시에 필요 로동이 ab 로부터 ab' 으로, 10시간으로부터 9시간으로 단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잉여 로동의 연장은 필요 로동의 단축과 합치한다. 즉 로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로동 시간의 일부분이 자본가를 위하여 지출되는 로동 시간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변동되는 것은 로동일의 길이가 아니고 필요 로동과 잉여 로동에로의 로동일의 분할 비율일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력의 가치가 소여의 것이라면 잉여 로동의 크기 그 자체도 소여의 것으로 될 것은 분명하다. 로동력의 가치, 다시 말하면 로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은 로동력의 가치의 재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로동 시간이 반셸링 즉 6펜스의 금 분량으로 표현된다면 또 만약 로동력의 1일분 가치가 5셸링이라면 로동자는 자본에 의하여 그에게 지불된 자기 로동력의 1일분 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1일분 생활 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씩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 수단의 가치는 로동력의 가

치를 규정하며¹ 노동력의 가치는 또한 필요 노동 시간의 길이를 규정한다. 그런데 잉여 노동의 크기는 노동일 전체로부터 필요 노동 시간을 공제한 것과 같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공제하면 2시간이 남는데 소여의 조건 밑에서는 이 2시간 이상으로 잉여 노동은 증대시킬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듯 하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5셸링 대신에 4셸링 6펜스만을, 혹은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4셸링 6펜스의 가치를 재 생산하기 위해서는 9노동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에서 2시간 대신에 3시간이 잉여 노동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며 그리하여 잉여 가치 그 자체는 1셸링으로부터 1셸링 6펜스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임금을 그의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그가 9시간 동안에 생산하는 4셸링 6펜스를 가지고는 이전보다 10분의 1만큼 더 적은 분량의 생활 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노동력의 축소 재 생산이 일어 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잉여 노동은 정상적 한계의 침

1 1일분 평균 임금의 가치는 《생활하며 노동하며 번식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윌리엄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 태부》 1673년, 61페이지). 《노동의 가격은 항상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으로써 구성된다》. 《만약……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그물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많은 식구들 그의 노동자로서의 낮은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게 부양할 가능성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J·반머턴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런던, 1731년, 15페이지). 《손과 기능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단순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데가 밖에 받지 못한다……어떤 부분의 노동에 있어서나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며 또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류트고 《부의 형성 및 분배에 관한 고찰》, 저작집, 메르 편찬, 제1권, 10페이지).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이 사실에 있어서 노동의 생산비이다》(말사스 《지대의 성질 및 발전과 그것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48페이지, 주).

법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잉여 노동의 영역은 필요 노동 시간의 영역에 대한 란포한 강점에 의해서만 확대될 수 있다. 잉여 노동의 이와 같은 증대 방법은 비록 로임의 현실적 운동에서 증대한 역할을 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따라서 노동력도 또한——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이상 노동력의 생산, 또는 그 가치의 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임금의 그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저락에 의하여 감소될 수는 없으며,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의 저락에 의하여서만 감소될 수 있다. 노동일의 길이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 잉여 노동의 증대는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의 결과 일어 나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잉여 노동의 증대의 결과 일어 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때에는 필요 노동 시간이 $1/10$ 만큼, 즉 10시간으로부터 9시간에까지 축소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잉여 노동이 2시간으로부터 3시간에까지 증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1/10$ 만큼 저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노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만큼 저락된다는 것은 또한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 것과 동일한 분량의 생활 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 생산력의 제고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령 테컨매 어떤 재화공이 소여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12시간 노동일에 한 켄매의 장화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이것과 동일한 시간에 두 켄매의 장화를 제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노동 생산력이 2배로 제고되어야 하며 그의 노동 생산력은 그의 노동 수단에나 그의 노동 방법에, 또는 동시에 양쪽에 변화가 일어 나지 않고서는 2배로 제고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노동의 생산 조건에서 즉 그의 생산 방식에서, 따라서 또한

로동 과정 그 자체에서, 혁명이 일어 나야 한다. 여기서 로동 생산력의 제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여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그리하여 더 적은 양의 로동이 더 많은 양의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로동 과정 내부에서의 일체의 변화를 의미한다². 그리하여 잉여 가치 생산을 지금까지 고찰하여 온 형태에서 연구할 때에는 생산 방식을 어떤 소여의 것으로 전제하였지만, 필요로동의 잉여 로동체로의 전화에 의한 잉여 가치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로동 과정을 역사적으로 계승된 현존 형태에서 점유하고 오직 그 계속 시간만을 연장시킨다고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전연 불충분하다. 로동 생산력을 제고시키며 로동 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로동력의 가치를 저락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치의 재 생산에 필요한 로동일 부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로동 과정의 기술적 및 사회적 제 조건이 또 따라서 생산 방식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

로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 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칭한다. 이에 반하여 필요 로동 시간이 단축되며, 이에 대응하여, 로동일의 두 구성 부분의 양³적 비율이 변화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잉여 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칭한다.

로동력의 가치가 저락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이 로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산업 부문들, 다시 말하면 그 생산물이 일상적 생활 수단의 범위에 속하든가,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

² 《수공업이 완성되어 갈 때 문제는 일정한 작업이 더 적은 수의 사람을 가지고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수행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에 귀착된다》(칼리나니 《화폐론》, 쿠스트디 편찬 《이래리 정치 경제학 고전집》, 제3권, 현대부, 밀라노, 1893년, 158, 159페이지). 《생산비의 절약은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량의 절약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시스몬디 《……연구》 제1권, 22페이지).

는 그러한 산업 부문들에서 생산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후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로동의 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의 생산 수단들 속에 들어 있는 로동의 양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레컨대 장화의 가치는 비단 제화공의 로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피혁, 밀랍(蜜臘) 실 등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 필수품들의 제조를 위하여 불변 자본의 물질적 제 요소, 즉 로동 수단과 로동 재료를 제공하는 산업 부문들에서 로동 생산력이 제고되며 그에 대응하여 상품들이 저렴하게 되는 결과로서도 로동력의 가치가 저하된다. 이에 반하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생활 필수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 수단을 제공하지도 않는 생산 부문들에서 생산력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저렴화는 물론 이 상품이, 로동력의 재 생산에 참가하는 정도만큼만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레컨대 내의는 하나의 필수적 생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허다한 생활 필수품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품의 저렴화는 내의에 대한 로동자의 지출을 감소시킬 뿐이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들의 총량은 특수한 제 산업 부문의 다양한 생산물인 각종 상품들로써 구성되며, 그러한 매개 상품의 가치는 항상 로동력의 가치의 해당하는 일부분을 형성한다.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의 재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며, 이러한 로동 시간의 총감소량은 상술한 특수 생산 부문들 전체에서 축감된 로동 시간의 총화와 동일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반적 결과를 마치 그것이 매개의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인 목적인듯이 간주한다. 개별적 자본가가 로동 생산력의 제고로써 레컨대 내의의 가치를 저락시킬 때, 그는 그만큼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또 따라서 필요 로동 시간을 감축시킬 것을 전혀 자기 목적으로 삼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결과에 협력하는 그만큼만은 일반적 잉여 가치불의 인상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³. 자본의 일반적이며 필연적인 경향을, 이 경향의 현상 형태와 구별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이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의 외부적 운동 속에 발현되며, 경쟁의 강제적 법칙으로 작용하며, 그리하여 개별적 자본가들의 활동의 추진적 동기로서 그들의 의식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고찰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 한점만은 분명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이 이해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바 이것은 천체(天體)의 외관상 운동이 직접 감각으로는 지각될 수 없는, 그 현실적 운동을 아는 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분석에서 이미 얻어진 결과들만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 둘 필요가 있다.

만약 1로동 시간이 6펜스 즉 1/2셸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면 12시간 로동일의 하루에는 6셸링의 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로동 생산력의 소여의 수준 밑에서 이 12로동 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제조된다고 하자. 이 상품의 매 1개에 소비되는 생산수단, 즉 원료 및 기타의 가치는 6펜스라고 하자. 이러한 사정 밑에서 매개 상품의 가치는 1셸링이다. 즉 6펜스는 생산수단의 가치이고 6펜스는 이 상품의 가공시에 새로 첨가된 가치이다. 이제 어떤 자본가가 로동 생산력을 2배로 하는데 성공하여 그 결과 그는 12시간 로동일 하루에 이 종류 상품을 12개가

3 《공장주가 기계 설비의 개량에 의하여 생산물을 배가시킬 때…… 그가 리득을 얻는 것은 (결국) 그가 이로 말미암아 로동자에게 더 많은 부분이 로동자의 몫으로 되는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람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런던, 1831년, 168, 169페이지).

아니라 24개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 하자. 만약 생산 수단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매개 상품의 가치는 이제 9펜쓰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 수단의 가치가 6펜쓰이고 최후의 로동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가치가 3펜쓰로 될 것이다. 노동 생산력이 2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로동일은 지금도 전과 같이 6셸링의 새 가치를 창조한다. 다만 이 새 가치는 이제는 2배 더 많은 분량의 생산물에 배분될 뿐이다. 그러므로 매개의 개별적 생산물에는 이러한 총가치의 $1/12$ 대신에 겨우 $1/24$ 이, 즉 6펜쓰 대신에 3펜쓰가 차폐된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 수단들이 완성 생산물로 전환될 때 그것에 이제는 매개 상품당, 전과 같이 온근 한 로동 시간이 아니라 반로동 시간만이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적 가치는 이제 그 사회적 가치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평균적인 사회적 조건 밑에서 생산된 대다수의 동종 제품들에 비해서 더 적은 로동 시간이 들었다. 이 상품 1개는 평균 1셸링의 가치를 가진다. 즉 2시간의 사회적 로동을 대표한다. 변화된 생산 방식 하에서는 그것의 가치는 9펜쓰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 속에는 겨우 $1\frac{1}{2}$ 시간의 로동이 들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개별적 가치가 아니라 그 사회적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이 상품의 생산자가 개개의 경우에 사실상 들이는 로동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 시간에 의해서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셸링이라는 그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것을 그 개별적 가치보다 3펜쓰만큼 더 고'가로 판매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3펜쓰의 초과적 잉여 가치 (Extra mehrwert)를 실현한다. 다른 한편 그에 대하여서는 12시간 로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 대신에 24개의 상품으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1로동일 분의 생

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는 2배의 판로(販路) 즉 2배 더 큰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그 가격의 인하에 의해서만 더 큰 범위의 시장을 정복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그 상품을 그 개별적 가치보다는 고'가로,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럼'가로, 때컨대 1개당 10펜트로 판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아직 매 1개로부터 1펜트의 초과적 잉여 가치를 짜낸다. 그에게 있어서 잉여 가치의 이러한 증대는 그의 상품이 생활 필수품의 부류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것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에 결정적 요소로서 참여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상관 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최후에 든 사정에는 상관 없이 매개의 개별적 자본가에게 노동 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상품 가치를 저렴화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잉여 가치 생산의 증대는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그에 대응하는 잉여 노동의 연장으로부터 발생한다^{3a}. 이제 필요 노동 시간이 10시간이며, 즉 노동력의 1일분 가치가 5셸링이며 잉여 노동이 2시간이라고, 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 가치가 1셸링이라고 하자.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는 24개의 상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1개당 10펜트에, 즉 전부를 240셸링에 판매한다. 생산 수단의 가치는 12셸링이기 때문에 142 $\frac{2}{5}$ 개의 상품은 다만 선대된 불변 자본의 가치를 보상한다. 12시간 노동일은

3a <어떤 사람이 일하는 리유는 그가 타인의 노동 생산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동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그가 그의 노동자의 로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 자기의 제품을 더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면 그가 이익을 볼 것은 분명하다……그 때에는 그가 생산하는 물건의 보다 적은 부분으로도 이 노동을 운용하는 데 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게 된다> (네명씩 <정치 경제학 개론>, 런던, 1832년, 19, 50페이지).

나머지 $9\frac{3}{5}$ 개로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격=5셸링인 까닭에 필요 노동은 6개의 생산물로 표현되며 잉여 노동은 $12\frac{3}{5}$ 개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필요 노동의 잉여 노동에 대한 비(比)는 사회적 평균 조건하에서는 5:1이던 것이 이제는 겨우 5:3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는 20셸링이다. 그중 12셸링은 생산물의 가치 속에 재현되는 데 지나지 않는 생산 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8셸링이 한 노동일을 대표하는 가치의 화폐적 표현으로서 남는다. 이 화폐적 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 노동의 화폐적 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 노동의 12시간은 다만 6셸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지는 노동은 여러급한 노동으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시간내에 동일 종류의 사회적 평균 노동에 비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1일분 가치에 대하여는 지금도 종전대로 5셸링만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는 이 가치의 재 생산을 위하여 종전의 10시간 대신에 $7\frac{1}{2}$ 시간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 노동은 $2\frac{1}{2}$ 시간이 증가하며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 가치는 1셸링으로부터 3셸링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 부문의 다른 자본가들에 비하여 노동일의 더 큰 부분을 잉여 노동으로서 점유한다. 그는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에 있어서 전체 자본이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초과적 잉여 가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그리하여 더 럽'개로 생산되는 상품의 개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소멸된다.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자본가에게는 그가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형태로 느껴지는,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의 법

척은 경쟁의 강제적 법칙으로서 이 자본가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 방법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⁴. 그러므로 노동 생산력의 제고가 생활 필수품의 범위에 속하며,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의 요소를 구성하는, 상품들의 생산 부문에 보급되며 그리하여 그러한 상품들의 가치를 저렴하게 하는 때에만 이 전체 과정은 일반적 잉여 가치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 생산력에 반비례한다. 노동력의 가치도 역시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력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 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제고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된다. 12시간이라는 사회적 평균 노동일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항상 6셸링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며 그것은 이 가치 총액이 노동력의 가치의 등'가물과 잉여 가치에로 분할되는 그 비분여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만약 노동 생산력이 제고된 결과로 매일의 생활 수단의 가치, 따라서 노동력의 1일분 가치가 5셸링으로부터 3셸링으로 저락된다면 잉여 가치는 1셸링으로부터 3셸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재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10노동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다만 6노동 시간이 필요하다. 4노동 시간이 해방되어 잉여 노동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상품 가치를 저렴하게 하며 또 상품 가

4 《간악 나의 이웃 사람이 더 적은 노동량으로써 더 많이 생산하여 렵'가로 판매할 수 있다면 나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렵'가로 판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더 적은 직공의 노동을 가지고, 따라서 더 렵'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온갖 방법, 도구 또는 기계를 다른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방법, 도구 또는 기계를 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과 유사한 어떤 발명을 함으로써 이클데면 경쟁할 필요성을 야기하며 드디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처하게 되어 누구나 자기의 이웃 사람보다 더 렵'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년명색 《동인도 무역의 영국에 대한 리익》, 런던, 1720년, 67페이지).

치를 저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신의 가치를 저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동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자본의 내재적인 충동과 부단한 경향이 나온다⁵.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에게 상품의 절대적 가치 그 자체는 관심사가 아니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 속에 들어 있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에 실현되는 잉여 가치 뿐이다. 잉여 가치의 실현은 그 자체가 선대된 가치의 보상을 전제로 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 생산력의 발전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데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력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상품을 렘'가로 만드는 동시에 상품 속에 들어 있는 잉여 가치를 크게 만들거 때문에, 바로 이것으로써 교환 가치의 생산만을 넘두에 두는 자본가가 상품의 교환 가치를 부단히 저락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실의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정치 경제학 창시자의 한 사람인 케네가 그것으로써 자기의 반대론자들을 괴롭혔으며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그에 대하여 답변을 주지 못한 하나의 모순이다. <공업 생산물의 제조에 있어서——케네는 말한다——생산에 해를 끼침이 없이 비용 또는 고'가의 로동을 더 많이 절약하는 비 성공하면 할수록 이 절

5 <노동자와 화폐 지출이 감소되는 바로 그 정도로, 만약 그와 동시에 산업에 대한 모든 구축들이 철폐된다면, 그의 임금도 감소될 것이다> (너명서 <목물 수출 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고칠>, 런던, 1753년, 7페이지). <상공업의 리익은 목물 및 일체의 식료품이 가급적 더 렘'가로 되는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이 고'가로 되면 로동도 역시 고'가로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산업이 구축을 받고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식료품 가격은 로동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로동의 가격은 생활 필수품이 렘'가하게 될 때에는 언제나 저락한다 (동상서 3페이지). <임금은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비례로 감소한다. 기계가 생활 수단들을 렘'가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로동자도 또한 렘'가로 만든다> (너명서 <경제와 협동의 공적들의 비교에 관한 현상 논문>, 런던, 1831년, 27페이지).

약은 제품의 가격을 저감시키는 까닭에 더 유리하다고 당신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제조자들의 로동으로부터 나오는 부의 생산은 그들의 제품의 교환 가치의 증가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로동 생산력의 발전의 결과로 얻어지는 로동의 절약은⁷ 결코 로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일정량의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의 단축만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가 자기의 로동 생산력의 제고의 결과 한 시간 동안에 이전보다 가령 10배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며 따라서 이 상품의 매 1개에 이전의 10분지 1밖에 안되는 로동 시간을 들인다 해도 이것은 현재도 그가 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로동하도록, 또 그 12시간 동안에 종전의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강요 당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이때 그의 로동일은 심지어 연장되어 그가 이제는 14시간 동안에 1,400개를 생산하는 등등으로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맥컬록크, 유어, 시노어 및 기타 모든 이와 같은 류파에 속하는 경제 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페이지에는 노동자는 필요 로동 시간을 단축시

6 케네 《상업 및 공업 로동에 관한 문답》, 메르 편찬 《중능주의자》, 파리, 1816년, 188, 189페이지.

7 《그들이 그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로동을 그러럼 절약하는 이 투기자(投機者)들, 운운》(J·N·비노 《공업적 기술 및 상업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관하여》, 파리, 1828년, 13페이지). 《기업가는 시간과 로동을 절약하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할 것이다》(듀갈드 스튜아르 저작집, 씨·W·하밀톤 편찬, 에딘버러, 1855년, 제8권 《정치 경제학 강의》, 318페이지). 《그들(자본가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생산력을 될수록 크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위는 거의 전'적으로 이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된다》(R·존스 《제 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강의안》, 히트포드, 1852년, 제3장 [39페이지] [또한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판 리차드 존스 《경제학 저작집》, 1937년, 316페이지 참조]).

키는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자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써여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대신에 장차는 15시간 노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써여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노동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해야 하는 노동일 부분을 단축하여,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일의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결과가 상품 가치를 저락시킴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고찰하고자 하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개별적 방법들의 고찰시에 분명하게 될 것이다.

제 11 장 협업 (協業)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은 동일한 개별적 자본이 동시에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따라서 노동 과정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물을 대량적인 규모로 공급하게 되는 그 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또는 동일한 노동 장소에서라고 해도 괜찮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동일한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으로 된다. 생산 방식 그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레컨데 마누팩투라는, 그 시초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동시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동업 조합적 수공업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동업 조합 장주(匠主)의 작업장이 확대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소여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 가치의 양은 개별적 노동자가 제공하는 잉여 가치를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로써 승한 것과 같다. 이 고용 노동자의 수는 그 자체로서는 잉여 가치를, 즉 노동력의 착취 정도에 조금도 변동을 가져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 가치 일반의 생산이 문제로 되는 한 노동 과정의 모든 질적 변화는 도대체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치의 본성에 기인한다. 만약 12시간 노동일의 하루가 6펠링에 대상화된다면 그러한 로

동일의 1,200날은 6셀링 $\times$ 1,200에 대상화될 것이다. 한 경우에 있어서는 12 $\times$ 1,200 로동 시간이, 생산물에 체화되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12로동 시간만이 체화된다. 가치의 생산에 있어서 다수는 언제나 개별적 단위의 합계로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가치 생산의 전제로부터 볼 때에는 1,200명의 로동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 밑에 통합되어 있든 그것은 전연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일정 한계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에 물화된 로동은 사회적 평균적 질의 로동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평균적 로동력의 발현이다. 그러나 하나의 평균량은 언제나 동일한 종류의 다수의 각이한 개별적인 량의 평균으로서만 존재한다. 매개 산업 부문에 있어서 페레라든지 파울이라든지 하는 개별적 로동자는 다소간 평균적 로동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수학상 용어로 오차(誤差)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 불일치는 우리가 상당한 다수의 로동자를 모기만 한다면 상쇄(相殺)되어 소멸된다. 유명한 케번가이며 아첨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농장 경영주로서의 자기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심지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농촌 품팔이'군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조그만 집단》에서도 벌써 로동에 있어서의 모든 개인적 차이가 소멸되며 따라서 성년 남자에 속하는 영국 농촌 품팔이'군을 누구든지 닮는 대로 5명만 함께 모아 놓으면 그들은 동일한 시간내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영국 농촌 품팔이'군이 하는 일과 꼭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⁸. 어쨌든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다수 로동자의 총로

8 《각이한 사람들의 로동의 가치간에는 힘과 숙련과 성실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라 막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임의의 5명은 전체로서는 내가 위에서 말한 년령에 속하는 다른 어떠한 5명과도 같은 분량의 로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는 나의 주밀한 관찰에 힘입어 확신하는 바이다. 이것은 이러한 5명중 1명

동일을 노동자의 수로써 제(除)하면 그 자체가 사회적 평균 노동의 1일인 것은 명백하다. 한 사람의 노동일이 떼 켜면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에 고용되는 12명의 노동자의 노동일은 144시간이라는 총노동일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12명의 각자의 노동은 다소간 사회적 평균 노동과 일치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개인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사회적 평균 시간에 비해서 얼마간 더 많거나 혹은 얼마간 더 적은 시간을 들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시간이라는 총노동일의 12분의 1로 간주되는 매 개인의 노동일은 사회적 평균적 질을 소유한다. 그러나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에게는 노동일은 12명 전체의 총노동일로서만 존재한다. 매개의 개별적 노동자의 노동일은, 이를 12명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이전, 또는 그들의 노동의 상호간 연계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는 점 이외에는 없는 경우이진, 그것과는 전연 상관 없이 총노동일 중 해당하는 일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만약 이 12명의 노동자중 2명씩이 한 사람의 조경영주에게 고용된다면 각개 경영주가 동일한 가치액을 생산하는 여부, 따라서 일반적 잉여 가치불을 실현하는 여부는 우연적인 것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개인적 배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만약 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즉 평균적인 노동 시간과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는 우량한 일'군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멸등한 일'군이며 기타의 3명은 혹은 전자에 가까우며 혹은 후자에 가까운 중등 일'군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5명이라는 그와 같은 소집단 속에서도 벌써 당신들은 5명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의 완전한 복합체(複合體)를 발전할 것이다》(R. 버크 《결집에 관한 의견과 사실》, 런던, 1809년, 15, 16페이지). 이 밖에 케트페의 평균적 개인에 관한 논설을 참조하라.

의 노동은 평균적 노동으로서 통용될 수 없으며 그의 노동력은 평균적 노동력으로서 통용될 수 없다. 그러한 노동력은 혹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혹은 노동력의 평균 가치 이하로 팔리게 되든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 능력의 일정한 최저한이 전제로 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후에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최저한을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한은——비록 노동력에 대하여 그 평균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지라도——평균적 수준으로부터 배리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중에서 어떤 자는 일반적 잉여 가치분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뽑아 내며 어떤 자는 그보다 더 적은 잉여 가치를 뽑아 낸다. 이 불합치는 전 사회적으로는 상쇄되지만 개별적 경영주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치 증식의 법칙은 개별적 생산자에게 대하여서는 오직 그가 자본가로서 생산하며 동시에 다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당초부터 사회적 평균 노동을 운용하는 경우에야만 완전히 실현된다⁹.

노동의 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라도 다수 노동자의 동시적 사용은 노동 과정의 물'적 제 조건에 혁명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하는 건물, 원료 및 기구를 위한 창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또는 번갈아 쓰이는 용기(容器), 기구, 장치 등등, 한 마디로 말하여 생산 수단의 일부분이 이제는 노동 과정에서 공동적으로 소비된다. 한편으로

9 코수 로셰트 씨는 코수 부인을 위하여 2일간 일하는 한 사람의 침모(針母)는 코수 부인이 같은 하루에 일시키는 두 사람의 침모보다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이 코수 씨는 아동실에서, 주요 등장 인물인 자본가가 없는 환경 속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할 것이었다 [로셰트 《국민 경제학 원리》, 제3판, 1853년, 88—89페이지].

상품의 교환 가치, 따라서 생산 수단의 교환 가치는 그 사용 가치를 더 고도로 리용한다 해서 조금이라도 등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규모는 확대된다. 2 명의 직조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조자가 2명의 장인(匠人)을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20명을 수용하는 한채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는 노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 드는 것 보다 작은 노동이 들며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대규모적이며 집중된 공동적인 생산 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 수단의 규모와 그 유용적 효과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수단은 개개의 생산물에 자기 가치의 더 적은 부분을 이전하는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 생산 수단이 넘겨 주는 총가치가 동시에 더 많은 량의 생산물에 배분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 수단이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수단에 비하여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작용 범위로 보아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불변 자본에 속하는 가치의 구성 부분이 감소되며 따라서 이 가치 부분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품의 총가치도 역시 감소된다. 마치 그 상품의 생산 수단이 더 '렴'가로 생산되는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겨난다. 생산 수단의 사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절약은 오직 노동 과정에서 다수인이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데택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수단은 고립적인 독립적 노동자 또는 소경영주의 분산적인 비효적 비싼 생산 수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 조건 또는 노동의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이러한 성격을, 지어 다수인이 공간적으로 통합될 뿐이고 협동적으로 노동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획득한다. 생산 수단의 일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노동 과정 그 자체가 아직 사회적 성격을 획득하기 전에 벌써 획득한다.

생산 수단의 절약은 일반적으로 이중적 견지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로는 그것이 상품을 저렴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에 있어서이다. 둘째로는 그것이 투하 총자본에 대한, 즉 그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의 가치 총액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을 변동시키는 한에 있어서이다. 후자에 관한 것은 이 저작의 제3부 제1편에서 비로소 고찰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곳에서 언급해야 할 많은 문제까지도 서술의 내'적 면판을 위하여 그리로 미루겠다. 분석의 행정이 대상의 이와 같은 절단(切斷)을 요구하나 또 이 절단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에도 합치한다. 대체 자본주의적 생산하에서는 노동 조건이 어떤 독립적인 것으로서 노동자에 대립하기 때문에 그 절약도 또한 노동자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따라서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과는 분리된 어떤 특수한 조작(操作)으로 되는 것이다.

다수인이 하나의 동일한 생산 과정에, 혹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관된 생산 과정들에, 계획적으로 함께 참가하는 노동 형태를 협업(kooperation)¹⁰이라고 칭한다.

기병(騎兵) 1개 중대의 공격력 또는 보병 1개 연대의 방어력이 개별적인 기병 및 보병이 전개할 수 있는 공격력과 방어력의 총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노동자들의 힘의 기계적 총화는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적(不可分的)인 작업에서, 떼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든가 권양기(捲揚機)를 돌린다든가 도로에서 장애물을 치운다든가 해야 할 때 협력하는 경우에 전개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¹¹. 이러한 모든 경우에 결합 노동이

10 《힘의 결합》(메스튀르 드 트라쎈 《의지와 그 효과에 관한 문술》, 파리, 1826년, 80페이지).

11 《그 이상 더 세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나 그러나 다수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그러한 작업이 많이 있다. 떼컨

달성하는 성과는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전혀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만 또는 극히 작은 규모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는 비단 협업에 의하여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된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상 집체적인 힘일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생산력이 새로 창조된다는 데 있다^{11a}.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체적인 힘으로 융합되는 데서 생겨나는 새로운 역량은 고사하고라도 매다수의 생산적 노동에 있어서 사회적 접촉만도 개별적 사람들의 개인적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경쟁과 혈기(血氣)의 독특한 양양을 일으킨다. 그 결과 12명이 같이 일하면 144시간이라는 공동적인 노동일에 생산하는 생산물은 각각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적인 노동자들, 또는 12일 동안 계속하여 일하는 1명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¹². 이것은 대체 인간은 그 본

대 큰 통나무를 달구지에 들어 올리는 일…… 요컨대 다수인의 손끝이 하나의 불가분적인 동일한 작업에서 동시적으로 상호 협조함이 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온갖 일이 그러하다》(E·G·웨이크필드 《식민(植民)의 방식에 관한 견해》, 런던, 1849년, 168페이지).

11a 《중량 한문의 집을 들어 올리는 일은 한 사람으로써는 전연 불가능하며 열 사람이면 전력을 다하여야 겨우 가능하지만 백 사람이면 각인이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여도 할 수 있다》(존 벨러즈 《공업대학 창립에 관한 제안》, 런던, 1696년, 21페이지).

12 《이 경우에 (10명의 농장 경영자가 각각 30에이커의 경지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의 노동자를 1명의 농장 경영자가 300에이커의 경지에 사용하는 경우에) 또한 많은 농업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데서 생겨나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실천가가 아니면 용이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 대 4의 비가 3 대 12의 비와 같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이 명제가 들어 맞지 않는다. 수확기 및 긴급을 요하는 다른 많은 작업들에서, 다수 노동자를 함께 결합시킨다면 일은 더 낮게 더 신속하게 수행된다. 예컨대 수확 노동에서 2명의 '달구지'군, 2명의 '집실기'군, 2명의 '던지기'군, 2명의 '작쟁이'군 및 기타 곡초며미 또는 곡창(穀倉)에서 일하는 몇명의 사람들은 각이한 농장들에 분산하여 소집단으로 되어서 일하는 동수의 노동자들에 비하여 2배

성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 동물¹³은 아닐지라도 하여간 사회적 동물이라는 데 기인한다.

비록 다수인이 같은 시간에 공동적으로 동일한 혹은 동종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각인의 개인적 노동은 총로동의 일부분으로서 그 자체가 어떤 노동 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바, 이때 노동 대상은 협업의 결과 이러한 단계들을 더 신속하게 통과하게 된다. 페컨대 만약 12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건축중의 건물 밑바닥으로부터 꼭대기까지 올리기 위하여 순차적인 렬을 짓는다면 그들 각인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별적 작업은 하나의 공통적인 작업의 연속적인 부분을, 즉 매개의 벽돌이 노동 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단계들을 이룬다. 그리하여 벽돌은 전체 노동자의 24개의 손을 통과함으로써 발판을 오르 내리는 매개 개별적 노동자의 2개의 손을 거칠 때 보다 더 신속하게 제자리에 날라진다¹⁴. 노동 대상은 동일한 공간을 더 짧은 시간에 통과한다. 다른 한편 페컨대 건물의 축조에 여러 방면으로부터

나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식량의 현재의 가격과 농장의 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어떤 농업주의 저작》, 런던, 1773년, 7, 8페이지).

1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도시 공화국의 공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한 프랑클린의 정의가 양키의 시대에게 특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는 고전적 고대에게 역시 특징적인 것이다.

14 《이 밖에도 이와 같은 부분적 분업은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다. 페컨대 벽돌을 손에서 손을 거쳐 높은 발판까지 나르는 벽돌공들은 모두가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분업이 존재하는바, 그 분업은 그들의 각자는 벽돌을 일정한 거리만큼 옮겨 놓는에 전체를 합치면 그들의 각자가 벽돌을 단독으로 높은 발판까지 운반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신속하게 그것을 현장에 옮겨 놓는에 있다》(F·스카르베코 《사회적 부의 이론》, 제2판, 파리, 1840년, 제1권, 67, 68페이지).

터 동시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비록 협업하는 일'군들이 이때 동일한 또는 동종류의 로동을 한다 할지라도 로동의 결합이 일어난다. 결합된 노동자 또는 총체적 노동자는 앞 뒤에 눈과 팔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편적 존재성을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144시간이라는 결합 로동일에 있어서는 로동 대상은 각이한 방면으로부터 동시적으로 가공된다. 그렇게 되면 총생산물은 어떤 로동 대상에 한 방면으로부터 착수하는 수 밖에 없는 어느 정도 고립된 12명의 노동자의 12시간 로동일에 있어서보다 더 신속하게 완성된다.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물 부분이 동시적으로 성숙(成熟)된다.

우리는 서로 보충하는 다수 노동자가 동일한 혹은 동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동적 로동의 이와 같은 가장 간단한 형태는, 협업의 가장 발전된 형태에 있어서도 역시 중대한 역할을 놀기 때문이다. 만약 로동 과정이 복잡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사실만으로도 각이한 노동자들 간에 각이한 작업을 배정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그 작업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총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한다¹⁵.

많은 생산 부문들에는 결정적 순간, 즉 로동 과정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동안에 반드시 일정한 로력 성과가 달성되어야 하는, 어떤 시기가 있다. 레컨대 한페의 양

15 《만약 복잡한 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각종 작업들이 동시에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여 모두가 함께 한 사람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성과의 달성을 촉진시킨다. 한 사람은 로를 저을 때에 또 한 사람은 키를 잡고 제3의 사람은 그물을 던지든가 또는 작살로써 고기를 찌르든가 한다. 그리하여 고기잡이는 그러한 노력의 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를 올린다》(메스류트 드 트라세 《의지와 그 효과에 관한 논술》, 파리, 1823년, 78페이지).

을 전모(剪毛)한다든가 혹은 일정수의 모르겐의 곡물을 베어서 거둬 들여야 할 때, 생산물의 량과 질은 이 작업이 특정 시점에 시작되어 특정 시점에서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가에 달린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기간은 떼컨대 청어 잡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다. 개개인은 1주야로부터 떼컨대 12시간의 1로동일 이상을 말라 낼 수 없지만 이에 반하여 떼컨대 100사람의 협업은 12시간의 하루를 1,200시간의 1로동일로 확대시킨다. 결정적 순간에 작업 장소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크기가 노동 기간의 단기성을 보상한다. 이 경우에 제때에 성과를 올리고 못 올리는 여부는 다수의 결합 노동일의 동시적 적용에 달려 있고 유용적 효과의 대소는 노동자의 수에 달려 있다.——그러나 이 노동자의 수는 고립적으로 작업하면서 그와 동일한 시간내에 그와 동일한 규모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수보다 언제나 적다¹⁶. 북 아메리카 합중국의 서부에서 매년 다량의 곡물이 못쓰게 되며, 또 영국의 통치로 인하여 전래의 공동체가 파괴된 동(東)—인도 지역들에서 매년 다량의 면화가 못 쓰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협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¹⁷.

16 《그것 (농업 노동)을 결정적 순간에 수행하는 것은 거대한 중요성을 가진다》(년명색 《식량의 현재의 가격과 농장의 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7페이지). 《농업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리비히 《농업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천에 관하여》, 1856년, 23페이지).

17 《아마 중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많이 노동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재액(災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면화의 수확에 충분한 수의 노동자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량의 면화가 수확되지 않은 채로 방임되며 또 기타 부분은 면화가 이미 땅에 떨어져서 변색되며 또 부분적으로는 썩어 버린 후에 땅 위에서 수집된다. 그리하여 재배업자는 적당한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탓으로 영국에서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수확물의 큰 부분을 사실상 잃어 버리지 않을 수 없다》(《헨갈 후르카루》 격월(隔月) 잡지 국의 정보 요람, 1861년 7월 23일호).

협업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며 또 그런고로 어떤 노동 과정들에서는 노동 대상의 공간적인 배치 그 자체가 벌써 협업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레컨대 배수(排水) 공사, 제방 축조, 관개 공사에 있어서 운하 굴착, 도로, 철도의 건설 공사 및 기타에서 협업은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협업은 생산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 분야를 공간적으로 축소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노동의 작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무용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절약하게 하는바, 이와 같은 축소는 많은 노동자의 집중과 각종 노동 과정의 융합과 노동 수단의 집중으로부터 생겨난다¹⁸.

개별적인 개인적 노동일의 동일한 크기의 합계에 비하여 결합 노동일은 더 다량의 사용 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어떤 유용적 효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감소시킨다. 매개의 개별적 경우에 노동 생산력의 그와 같은 제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즉 혹은 노동의 기계적 힘이 제고되며 혹은 노동의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확대되며 혹은 생산의 공간적인 범위가 생산의 규모에 비하여 축소되며 혹은 결정적 순간에 다량의 노동이 짧은 기간내에 적용되며 혹은 개별적 사람들의 경쟁심이 고취되어 그들의 열기가 왕성하게 되며 혹은 다수인의 동일 종류의 작업에 연속성과 다방면성의 각인(刻印)이 찍히며 혹은 각이한 작업들이 동시적으로 수행되며

18 《농업의 진보에 따라 전에는 500에이커의 조방적(粗放的)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자본과 노동의 전량이, 그리고 아마 그 이상되는 것이, 이제는 100에이커의 일종 집약적(集約的)인 경작에 집중된다》. 《적용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에 비해서 지면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생산의 범위는 이전에 매개의 개별적인 독립 생산자가 경작할 때의 생산 범위에 비해서 확대되었다》 (R. 존즈 《부의 분배에 관한 문술》 중 《지대에 관하여》, 런던, 1831년, 191페이지) [리처드 존즈 《경제학 저작집》, 쓰럼 사회 경제 서적 출판소 판, 1937년, 131페이지 참조].

혹은 생산 수단이 그 공동적 사용에 의하여 절약되며 혹은 개별적 노동이 사회적 평균 노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결합 노동일의 특수한 생산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그것은 협업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계획적 협력에 있어서 노동자는 그의 개인적 한계를 벗어 나서 그의 종족적(種族的) 능력을 전개한다¹⁹.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로의 그들의 집결이 그들의 협업의 조건으로 된다면, 임금 노동자들은 동일한 자본, 동일한 자본가가 그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라야, 즉 그들의 노동력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에라야 비로소 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력들의 총가치, 즉 노동자들에 대한 1일분, 1주일분 등등의 임금 총액은 이러한 노동력들 자체가 생산 과정에서 통합되기 전에 이미 자본가의 주머니 속에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300명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다만 하루 분이라도 단번에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소수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1주일에 한번씩 1년간에 지불하는 것보다 더 다액의 자본 지출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협업 노동자의 수, 즉 협업의 규모는 우선 개별적 자본가가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 다시 말하면 매개의 개별적 자본가가 다수 노동자의 생활 수단을 지배하는 정도 여하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가변 자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변

19 《매개 인간의 힘은 보잘 것 없으나 그러나 이 보잘 것 없는 힘의 결합은 이 부분적인 힘들의 총화보다 더 큰 전체적인 힘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힘은 그것을 결합하기만 해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자기의 작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P·배리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초판 1773년)에 대한 J·R·카를리의 주. 쿠스토디 편찬, 이래리 경제학자 저작집, 현대 부, 제15권, 196페이지).

자본에 대해서도 타당한다. 레컨대 3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명의 자본가에게 있어서의 원료의 지출은 각각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명의 자본가의 매인에게 있어서보다 30배 더 크다. 공동적으로 리용되는 노동 수단의량은 그 가치에 있어서나 그 현물량에 있어서나 종업 노동자수의 증가와 동일한 비례로서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적 자본가들의 수중예로의 생산 수단의 대량적 집적은 임금 노동자들의 협업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며 협업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는 생산 수단의 이러한 집적의 정도에 의존한다.

제일 처음에 개별적 자본의 일정한 최소한의 크기는 동시에 착취되는 노동자들의 수, 따라서 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고용주 자신을 손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소경영주를 자본가에게로 전화시켜, 그리하여 형식상 자본주의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 충분한 정도에 달해야만 했다. 이제는 자본의 이 최소한의 크기는 다수의 분산된, 서로 독립한 개인적 로동 과정들이 하나의 결합된 사회적 로동 과정으로 전화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휘도 본래,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자본가의 권력 밑에서 로동한다는 사실의 형식적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다수 임금 노동자의 협업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지휘는 로동 과정 그 자체의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되며 생산의 현실적 조건으로 된다. 생산 마당에 있어서의 자본가의 명령은 이제는 전투 마당에 있어서의 장군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이다.

비교적 대규모로 수행되는 온갖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또는 공동적인 로동은 개별적 활동들 간의 조화(調和)를 매개하며 독립적 기관(器官)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전체 생산체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휘를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필요로 한다. 바이오린 독주자는 자신이 자신을 지휘하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지휘와 감독과 조절이라는 이 기능은, 자본에 예속된 로동이 협업적 로동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기능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의 특수 기능으로서의 지휘의 기능은 특수한 독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추진적 동기가 되며 결정적 목표로 되는 것은 자본 가치의 가급적 더 많은 자기 증식²⁰, 다시 말하면 가급적 더 많은 잉여 가치의 생산, 따라서 자본가에 의한 가급적 더 많은 로동력의 착취이다.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로동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반항도 장성하며 그에 따라 이 반항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압박도 필연적으로 장성한다. 자본가의 지휘는 비단 사회적 로동 과정의 성질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여 이 과정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특수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 로동 과정의 착취의 기능이며, 그런 까닭에 착취자와 그의 착취의 원료간의 제거될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의하여 필요하게 된다. 또 그리고 임금 로동자에게 타인의 소유물로서 대립하는 생산 수단의 규모가 증대하는에 따라 그것의 합목적적인 사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증대한다²¹. 그 위에 또 임금 로동자들의 협업은 이

20 《리운은……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다》(J·반더린트 《화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런던, 1734년, 11페이지).

21 영국 측물(俗物)들의 신문인 《스펙테이터》는 1866년 5월 26일 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만체스터 철선 제조 회사》에서 자본가와 로동자간에 일종의 조합 제도가 창설된 이후의 《제일의 결과는 재료의 낭비가 돌연히 감소된 사실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료의 낭비는 아마 무시못한 부채에 다음 가는 공업상 손실의 최대의 원천인 것이다》. 같은 이 신문은 로치 델의 협동 조합의 실험의 근본적 결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단체가 소매점, 공장 및 거의 모든 형태의 산업을 능히 성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며 주었으며 또

로동자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본의 활동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로동자들의 기능들의 련관과 생산적 집합체로서의 그들의 통일은 그들 자신의 외부에, 즉 그들을 련결시키며 그들을 집합시키는 자본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로동의 련관은 관념적으로는 자본가의 계획으로서 그들에 대립하며 실천적으로는 자본가의 권위로서, 그들의 활동을 자기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타인의 의지의 권력으로서 그들에 대립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휘하는 생산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는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로동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으로 보아서는 전제적(專制的)이다. 협업이 팽대한 규모로 발전하는 데 따라 이 전제주의도 자기에게 특유한 형태들을 발전시킨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가는 그의 자본이,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크기에 도달하자마자 우선 손로동으로부터 해방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는 개별적 로동자들 및 로동자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며 계속적인 감시의 기능도 특수한 부류의 고용 일'군들에게 넘겨 준다. 군대가 장교와 하사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공동 로동에 통합된 다수의 로동자에게도 로동 과정의 진행중 자본의 이름으로 지휘하는 상업 장교(지배인들)와 하사관(직공장,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이라는 로동이 그들의 전속적 기능으로 고정화된다. 경제학자는 독립 농민 또는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 방식을 노예 제도에 빗대는 식민지 재배 경리(栽培經理)와 비교할 때

로동자를 자신의 형편을 비상히 개선하였다. 그러나 (!) 그것은 자본가한테는 이렇다 할만한 자리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에는 이 감독 로동을 생산상의 비생산적 비용에 산입한다^{21a}. 이에 반하여 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고찰할 때에는 공동적 로동 과정의 성질 자체로부터 나오는 한에 있어서의 지휘의 기능과 이 과정의 자본주의적인 따라서 적대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한에 있어서의 지휘의 기능과를 동일시한다²². 자본가는 그가 산업상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자본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 시대에 군사상 및 재판상의 최고 권력이 로지 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상의 최고 권력은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23a}.

로동자는 그가 자기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자본가와 흥정을 하는 동안은 자기 로동력의 소유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즉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단독적인 로동력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사정은 자본가가 단 하나의 로동력이 아니라 100의 로동력을 구매하며, 또는 단 한 사람의 로동자와가 아니라 서로 독립하여 있는 100명의 로동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21a 케안즈 교수는 《로동에 대한 감시》를 북 아메리카 남부 제주에 있어서의 노예 소유자적 생산의 주요 특징으로서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자기 로지의 생산물 전체를 자신이 점유하는 자작농(북부의)은 로동에 대한 다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감시하는 것이 전연 무용이다》(케안즈 《노예의 힘》, 런던, 1882년, 48, 49페이지).

22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 방식들의 특징적인 사회적 특성을 명찰하는데 탁월한 새 제임스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업에서 대기업이 소기업을 파괴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노예 로동의 단순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정치 경제학 원리》, 런던, 1767년, 제1권, 167, 168페이지).

22a 그러므로 오귀스트 콩트 및 그의 학파는 그들이 자본가 나라들의 영원한 필연성을 실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써 봉건 령주 나티들의 영원한 필연성을 능히 실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본가는 이 100명의 노동자를 그들 간에 협업을 설정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100의 독립적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지 100의 결합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인 인물들로서는 노동자들은 동일한 자본과 일정한 판계를 맺었지만 상호간에는 판계를 맺지 않은 개별적 사람들이다. 그들의 협업은 노동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노동 과정 내부에서는 노동자들은 벌써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과정에 들어 온 후부터는 자본의 일부분으로 되어 버렸다. 상호간에 협업하는 자들로서는,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성원들로서는 그들 자신이 자본의 특수한 존재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사회적인 노동자로서 전개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조건 밑에 놓여지자마자 무상(無償)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자본은 노동자들을 바로 이러한 조건 밑에 놓는 것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은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자본에 속하기 전에는 노동자에 의해서 전개되지 않는 것인 까닭에, 그것은 본래 자본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단순 협업의 효과는 고대의 아세아 인민들, 애굽인, 에트루리아인 등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대한 축조물들에 대규모로 나타나 있다. 《과거 시대에 있어서 이 아세아 제 국가는 그 행정상 및 군사상 지출을 지변한 후에 생활 수단의 얼마간의 잉여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호화로운 건축물과 유용한 토목 공사에 충당(充當)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비농업 인구의 노력이 그들의 권력하에 있었으며……또 우에서 말한 잉여물에 대한 배타적 처분권이 국왕과 승려들에 속하여 있었던 덕택으로 그들은 국내의 도처에 있는 거대한 기념물

들의 건설을 위한 수단들을 가질 수 있었다…… 거대한 상(像)들을 세우며 거창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그런 것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 벌써 경탄할 일이다——거의 전'적으로 인간로동만이 가장 해프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로동자들과 그들의 노력(努力)의 집중만으로 충분하였다. 례컨대 산호초(珊瑚礁)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각개의 개별적인 산호충은 미소하고 빈약하고 가소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해(大海)의 깊은 물속으로부터 거대한 산호초가 솟아올라 섬과 례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세아의 왕국의 비농업 로동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육체적 힘 이외에는 공사에 제공할 아무 것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가 그들의 힘이였다. 그리고 이들 대중을 유일적으로 지휘하는 권력이 상술한바 거대한 공사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로동자들을 먹여 살릴만한 수입이 한 사람 또는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으로만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 가능하였다》²³.

아세아 및 애굽의 국왕들과 에트루리아의 신관(神官) 및 기타의 이러한 권력은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 넘어 갔다. 이에 있어서 자본가가 개별적 자본가로서 등장하든 혹은 주식회사에서 모는 바와 같이 결합된 자본가로서 등장하든 그것은 아무때도 좋다.

우리가 인류 문화의 시초 단계에서 즉 수렵 인민들^{23a} 간

23 R. 콘즈 <……강의안>, 히트포드, 1852년, 77, 78페이지 [리차드 콘즈 <경제학 저작집>, 소턴 사회 경제 서적 출판소, 1837년, 348, 349 페이지 참조]. 런던 및 기타의 구라파의 수도들에 있는 고대 왓씨리아, 애굽 등등의 수집물을 보면 이러한 협업적 로동 과정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23a 양계는 자기의 <시민법의 리론> 가운데서 수렵을 협업의 최초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인간 사냥(전쟁)을 수렵의 최초의 형태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

에서나 또는 인도의 농업 공동체 내에서 발견하는 로동 과정 내부의 협업은 한편으로는 생산 제 조건의 공동적 소유에 밑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자기를 씨족 또는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태²⁴를 아직 끊지 못하고, 마치 개별적인 꼴벌이 아직 벌 동지와 결부되어 있듯이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에 밑각한다. 이 두개의 사정은 이러한 협업을 자본주의적 협업과 다르게 만든다. 고대 세계와 중세기와 현대 식민지에서 간혹 채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대체로는 노예 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협업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당초부터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 로동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업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역사적으로는 농민 경리와 독립적 수공업 생산에——이것이 동업 조합적 형태를 가지는 아니 가지는 간에——대립하여 발전한다²⁴. 자본주의적 협업은 이것들에 대립하여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 특유하며 그리하여 그 독특한 특성을 이루는 역사적 형태인듯이 보인다.

협업에 의하여 제고되는 로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듯이 협업 그 자체도 분산적인 독립적 로동자 또는 소경영주의 생산 과정에 대립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독특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로동 과정 자체가 그것이 자본에 종속된 결과 체험하는 첫번째 변화이다. 이 변화는

24 소규모적 농민 경리와 독립적인 수공업 생산은 부분적으로는 봉건적 생산 방식의 토대를 형성하며 부분적으로는 봉건적 생산 방식이 해체된 후에 자본주의적 경영과 병행하여 나타난다. 동시에 그것들은 맨 처음의 동양적 공동체 소유가 벌써 해체되었으나, 노예 제도는 아직 본질적으로는 생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의 고전적 공동체의 전성기(全盛期)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초로도 되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 난다. 동일한 노동 과정에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이 변화의 전제 조건으로 되며 그것은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의 존재 그 자체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약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 과정의 사회적 과정으로의 전화를 위한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노동 과정의 이러한 사회적 형태는 노동 과정을 그 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더 유리하게 착취하기 위하여 자본이 채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과 같은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 협업은 대규모적인 생산과는 일치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어떤 특수한 발전 시기를 특징 짓는 고정적인 형태는 결코 아니다. 기껏 해서 그것은 마누팩투라의 아직 수공업적인 초기에²⁵ 또 그 형(型)으로 보아서는 마누팩투라 시기에 해당하나, 본질적으로는 오직 동시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수와 집적된 생산 수단의 규모에 의해서만 농민 경리와 구별되는 그러한 종류의 대규모 농업에서 대략 그와 비슷한 역할을 논다. 단순 협업은 자본이 큰 규모에서 작용하기는 하나 분업과 기계가 아직 중요한 역할을 놀지 못하는 생산 부문에서는 언제나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단순 협업은 그 자체가 더 발전된 협업 형태들과 병존(並存)하는 협업의 특수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협업은 의연히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본 형태이다.

25 《동일한 일에 다수인의 숙련과 근면과 경쟁심을 결합시키는 것이 이 일을 진척시키는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영국은 과연 이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 양모(羊毛) 공업을 그러한 고도로 완성시킬 수 있었겠는가?》 (버클레이 《질문자》, 런던, 1750년, 58페이지, 제521절).

제 12 장 분업과 마누팍뚜라

제 1 절 마누팍뚜라의 이중적 기원

분업에 기초를 두는 협업은 마누팍뚜라에서 자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특징적 형태로서는 그것은 대략 16세기 중엽으로부터 18세기의 최후 3분의 1기까지의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팍뚜라 시대에 지배적이었다.

마누팍뚜라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제1의 방식은 생산물이 최후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그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독립적 수공업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하나의 작업장 내에 통합되는 경우이다. 페컨대 승용 마차(乘用馬車)는 전에는 수레 제조공, 마구(馬具) 제조공, 재봉사, 철물 세공사, 돛쇠 세공사, 선반공, 세쓰 제조공, 유리쟁이, 화공(畫工), 칠쟁이, 도금(鍍金)쟁이 등등 허다한 독립 수공업자들의 노동의 공동 생산물이었다. 승용 마차 마누팍뚜라는 이 각종 수공업자들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 내부에 통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한다. 마차 제작이 끝나기 전에는 마차에 도금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수의 마차가 동시적으로 제작된다면 그것들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이 생산과정의 더 초기 단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부단히 도금될 수 있다. 이 한도내에서는 아직 우리는 기성 형태의 인'적 및 물'

적 재료를 사용하는 단순 협업의 지반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재봉사, 철물 세공사, 옷치 세공사 등등은 마차 제작을 전업으로 하게 되자 점차로 자기들의 종전의 수공업을 그 전체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습관을 잃어 버리게 되는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 버린다. 다른 한편 그들의 일면적인 활동이 이제는 어떠한 국한된 활동 영역을 위하여서는 가장 합목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본래 승용 마차 마누팩투라는 독립적 수공업들이 결합된 것이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마차 생산을 각종의 부분적 작업으로 분할하여 그 각개의 작업은 특정 노동자의 배타적 기능으로 결정(結晶)되며 작업의 총체는 이와 같은 부분 노동자들의 연합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사(羅紗) 마누팩투라 및 기타 많은 마누팩투라들이 동일한 자본가의 지휘 밑에 각종 수공업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²⁶.

26 마누팩투라의 이와 같은 형성 방식의 일층 현대적인 실태를 밝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실는다. 문 및 뉘에서의 전방적 공업과 전직조 공업은 《전연 가부장적 성격을 띤다. 이 공업 부문은 다수의 부녀자와 아동을 고용하고 있으나, 그들의 체력을 손상시키거나 그들의 건강에 해독을 주는 일이 없다. 노동자들은 이전 대로 드름 강, 바르 강, 이제르 강, 보크류즈 강의 아름다운 류역(流域)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에를 치며 고치에서 실을 뽑는다. 이 생산은 결코 진정한 공장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더 면밀히 관찰할 때에는…… 분업의 원칙은 여기에서는 독특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실감는 녀공, 실꼬는 녀공, 염색공, 풀칠쟁이, 또 끝으로 직조공이라는 전문 노동자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은 동일한 건물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또 동일한 경영주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가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A·블랑키 《공업 경제학 강의》, A·블레이즈 편찬, 파리, 1838—1839년, 78페이지). 블랑키가 이 책을 쓴 이후, 이 각종 독립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공장에 통합되었다 {제4권에 대한 추가. 그런데 맑스가 이것을 쓴 이후, 이 공장들에서는 동력 직조기가 채용되어 신속하게 수직기(手織機)를 구축하고 있다. 크메펠트의 전방적 공업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F·엥겔스}.

그러나 마누팩투라는 이것과는 반대의 길을 취해서도 발생한다. 동일한, 또는 동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페컨대 종이라든가 활'자라든가 바늘이라든가를 만드는 다수의 수공업자들이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 고용된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의 협업이다. 이 수공업자들의 각자는 (아마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장인(匠人)과 더불어) 한 상품의 전체를 만들며 따라서 그 상품의「제조에 필요한 각종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그는 여기서 계속하여 자기의 종전의 수공업적 방식에 의하여 작업한다. 그렇지만 외부적 사정은, 즉시로 동일한 장소에로의 노동자들의 집중과 그들의 노동의 동시성을, 다른 방식으로 리용하게 한다. 페컨대 일정 기일내에 더 다량의 완성 상품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 때문에 노동이 분할된다. 동일한 수공업자에게 각이한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시키는 대신에, 작업들은 서로 분리되며 고립화되며 공간적으로 병립되며 그 각개 작업이 서로 다른 수공업자에게 할당되며 전체 작업은 협업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우연적인 분할은 반복되는 동안에 그의 특유한 우'점을 나타내며 점차적으로 체계적인 분업으로 고착된다. 상품은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한 독립 수공업자의 개인적 생산물로부터 각자가 오직 하나의 동일한 부분적 작업만을 끊임 없이 수행하는 수공업자 연합체의 사회적 생산물로 전화한다. 독일의 동업 조합적 제지(製紙)업자들에 있어서는 일련의 순차적 작업으로서 서로 융합된 동일한 그 작업들이 화탄의 제지 마누팩투라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작업으로 되어 여기서 그것들은 다수 협업 노동자들의 부분적 작업으로서 동시적으로 수행된다. 뉴른베르히의 동업 조합적 제침(製針)업자는 영국의 제침 마누팩투라의 기본 요소로 된다. 그러나 뉴른베르히의 제침 수공업자는 아마 20종이나 되는 일련의 작업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영국의 제침 마누

팍뚜라에서는 20명의 수공업자들이 각기 20개의 작업중 하나만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작업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경험의 결과 일층 더 세분되며 고립화되어 개별적 노동자들의 배타적 기능으로 독립화된다.

이와 같이 마누팍뚜라는 이중적 경로를 밟아 수공업으로부터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그것은 각이한 종류의 독립적 수공업의 결합으로부터 출발하는바 이 경우에 독립적 수공업은,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서로 보충하는 부분적 작업으로 될 수 밖에 없으리만큼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면적으로 되어 버린다. 다른 한편으로 마누팍뚜라는 동일한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으로부터 출발하는바 이 경우에 그것은 소여의 개인 수공업을 각종의 특수 작업들로 분해하며, 그 매개의 특수 작업이 한 사람의 특수한 노동자의 배타적 기능으로 될 수 있으리만큼 고립화시키며 독립화시킨다. 그러므로 마누팍뚜라는 한편으로는 생산 과정에 분업을 도입(導入)하거나 혹은 분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이전에는 서로 독립되어 있었던 수공업들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그 특수한 출발점이 어떻든지 간에 그 종국적 형태는 항상 동일한 것, 즉 사람들이 그 기관(器官)들로 되어 있는 생산 기구(機構)이다.

마누팍뚜라 내부의 분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 과정의 그 특수 제 단계에로의 분해는 이 경우에 수공업적 활동의 그 각종 부분적 작업에로의 분해와 전연 일치한다. 그러한 작업은 복잡한 것이든, 간단한 것이든, 언제나 수공업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개 노동자가 자기의 도구를 사용할 때에 발휘하는 힘과 기교(技巧)와 민속성과 확실성에 의존한다. 수공업이 의연히 토대로 된다. 이 협해한 기술적 토대는 생산 과정의 진정한 과학적 분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왜냐 하면 산물이 통과하는 매개의 부분적 과정은 부분적인 수공업적

로동으로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공업적 기교가 의연히 생산 과정의 기초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까닭에 매개 로동자는 오로지 하나의 부분적 기능의 수행에만 적합하게 되며 또 그의 로동력은 전 생애에 걸쳐 이 부분적 기능의 기관(器官)으로 전화된다. 최후로 이 분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종류의 협업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가지는 허다한 우'점은 협업 일반의 공통적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협업의 이러한 특수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 2 절 부분 로동자와 그의 도구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볼 때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하게 된다. 즉 하나의 동일한 간단한 작업을 일생 동안 수행하는 로동자는 그의 신체 전체를 그러한 작업을 위한 자동적인 일면적인 기관(器官)으로 전화시키며 그런 까닭에 그 작업에는 수다한 작업을 번갈아 수행하는 수공업자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런데 마누콰뚜라의 산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총체로서의 결합된 로동자는 순전히 그와 같은 일면적인 부분 로동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독립적 수공업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로동 생산력이 제고된다²⁷. 부분 로동이 독립화하여 일정한 로동자의 배라적 기능으로 되는 결과 그 부분 로동의 방법도 역시 개선된다. 국한된 동일한 작업의 부단한 반복과 이 국한된 분야에서의 주의의 집중은, 소기의 유용적 효과를 힘의 최소의 지출로써 달

27 《복잡한 제조업의 로동이 분할되어 각이한 부분 로동자들 간에 더 많이 할당되면 될수록 그 로동은 시간과 로동은 더 적게 들이면서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수행된다》(니명세 《동인도 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71페이지).

곽뚜라에서는 20명의 수공업자들이 각기 20개의 작업중 하나만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작업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경험의 결과 일층 더 세분되며 고립화되어 개별적 노동자들의 배타적 기능으로 독립화된다.

이와 같이 마누팍뚜라는 이중적 경로를 밟아 수공업으로부터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그것은 각이한 종류의 독립적 수공업의 결합으로부터 출발하는바 이 경우에 독립적 수공업은,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서로 보충하는 부분적 작업으로 될 수 밖에 없으리만큼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면적으로 되어 버린다. 다른 한편으로 마누팍뚜라는 동일한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으로부터 출발하는바 이 경우에 그것은 소여의 개인 수공업을 각종의 특수 작업들로 분해하며, 그 매개의 특수 작업이 한 사람의 특수한 노동자의 배타적 기능으로 될 수 있으리만큼 고립화시키며 독립화시킨다. 그러므로 마누팍뚜라는 한편으로는 생산 과정에 분업을 도입(導入)하거나 혹은 분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이전에는 서로 독립되어 있었던 수공업들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그 특수한 출발점이 어떻든지 간에 그 증극적 형태는 항상 동일한 것, 즉 사람들이 그 기관(器官)들로 되어 있는 생산 기구(機構)이다.

마누팍뚜라 내부의 분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 과정의 그 특수 제 단계에로의 분해는 이 경우에 수공업적 활동의 그 각종 부분적 작업에로의 분해와 진연 일치한다. 그러한 작업은 복잡한 것이든, 간단한 것이든, 언제나 수공업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개 노동자가 자기의 도구를 사용할 때에 발휘하는 힘과 기교(技巧)와 민속성과 확실성에 의존한다. 수공업이 의연히 토대로 된다. 이 협소한 기술적 토대는 생산 과정의 진정한 과학적 분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생산물이 통과하는 매개의 부분적 과정은 부분적인 수공업적

로동으로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공업적 기교가 의연히 생산 과정의 기초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까닭에 매개 노동자는 오로지 하나의 부분적 기능의 수행에만 적합하게 되며 또 그의 노동력은 전 생애에 걸쳐 이 부분적 기능의 기관(器官)으로 전화된다. 최후로 이 분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종류의 협업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가지는 허다한 우점은 협업 일반의 공통적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협업의 이러한 특수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 2 절 부분 노동자와 그의 도구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볼 때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하게 된다. 즉 하나의 동일한 간단한 작업을 일생 동안 수행하는 노동자는 그의 신체 전체를 그러한 작업을 위한 자동적인 일면적인 기관(器官)으로 전화시키며 그런 까닭에 그 작업에는 수다한 작업을 번갈아 수행하는 수공업자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런데 마누팩투라의 산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총체로서의 결합된 노동자는 순전히 그와 같은 일면적인 부분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독립적 수공업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 생산력이 제고된다²⁷. 부분 노동이 독립화하여 일정한 노동자의 배타적 기능으로 되는 결과 그 부분 노동의 방법도 역시 개선된다. 국한된 동일한 작업의 부단한 반복과 이 국한된 분야에서의 주의의 집중은, 소기의 유용적 효과를 힘의 최소의 지출로써 달

27 《복잡한 제조업의 노동이 분할되어 각이한 부분 노동자들 간에 더 많이 할당되면 될수록 그 노동은 시간과 노동은 더 적게 들이면서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수행된다》(닉명씨 《동인도 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71페이지).

성하는 방법을 경험에 의하여 가르친다. 그런데 노동자의 각 이한 세대들이 동시적으로 공동 생활을 하며 또 동일한 마누팍뚜라내에서 함께 일하는 까닭에 상술한 방법으로 체득(體得)된 기술적 숙련의 수'법(手法)은 공고화되며 축적되며 또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급속히 전달된다²⁸.

마누팍뚜라는 사회 내부에서 일어 나는 직업의 자연 생장적 분화를 작업장 내부에서 재 생산하며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극도에까지 추진시킴으로써 사실상 부분 노동자들의 묘기(妙技)를 창조한다. 다른 한편 마누팍뚜라가 부분 로동을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직업으로 전화시키는 것은, 직업을 상속시키여 그것을 세습 신분(世襲身分)의 형태로 또는 동업 조합의 형태로——일정한 역사적 조건이 세습 신분 제도와는 상용(相容)되지 않는 개인의 변화성을 조성할 때에——교착시키려고 하는 종전 사회의 지향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습 신분과 동업 조합은 패전대 동 식물의 중과 아종(亞種)에로의 분화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있어서의 유일한 차이는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신분의 세습성과 동업 조합의 배타성은 사회적 법칙으로서 선포된다는 데 있다²⁹. 《다카에

28 《로동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숙련이 계승되기 때문이다》(토마스 호지스킨 《동족 정치 경제학》, 런던, 1827년, 48페이지).

29 《기독교도 역시…… 애급에서 상당한 정도로 완성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나라에서만 수공업자들은 다른 시민 계급들에게 속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질대로 금지 당하였고 그들은 법률에 의하여 세습적으로 그들의 일족(一族)에게 고정된 직업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수공업자들이 자기의 주의론 너무나 각양 각색의 대상(對象)물에 분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혹은 토지 경작을 해보기도 하며 혹은 장사 일에 참여해 보기도 하며 혹은 동시에 두개 내지 세개의 기술에 관계하기도 한다. 자유 제 국가에 있어서는 그들은 보통 국민 회의에 달력 다닌다…… 이에 반하여 애급에서는 국가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는 동시에 수개의 기술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는 누구든지 엄벌을 받는다. 그

서 생산되는 머스린(綿紗)은 그 섬세한 점에서, 또 코로만멜에서 생산되는 갡사(更紗) 및 기타의 직물은 그 색채(色彩)의 화려성과 내구성(耐久性)이라는 점에서 이때까지 무류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자본과 기계와 분업이 없이 생산되며 또 그 생산에는 구라파의 공장 제 조업에 그처럼 많은 우'점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들의 어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⁴⁰ 거기서 직조공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직물을 제조하며, 때로는 각재를 조잡하게 맞춘 가장 간단한 구조의 직기에서 일하는, 분리된 개인들이다. 그것들에는 심지어 날실을 감아두는 장치 까지도 없으며 따라서 직기는 언제나 그 전체 길이대로 늘여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자의 오막살이 집 방안에는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자리를 많이 잡으며 불편하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일기가 불순하게 될 때마다 일을 중지하게 되더라도 부득이 옥외(屋外)에서 일을 해야 한다³⁰. 이들 인도인에게 거미와도 같은 모기를 전달하여 주는 것은 다만 대대로 축적되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상속되는 특별한 숙련만이다. 그래도 마누팍뚜라 노동자의 대다수에 비해서는 그와 같은 인도인 직조공이 대단히 복잡한 로동을 수행한다.

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의 각종의 부분적 과정을 혼자서 차례 차례로 수행하는 수공업자는 혹은 장소를 이전해야 하며 혹은 도구를 바꾸어야 한다. 한 작업으로부터 다른 작업으로

리하여 그들이 자기의 직업에 열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위에 또 그들은 선조(先祖)들로부터 허다한 규칙을 계승한 데다가 새로운 개선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디오도루스 시쿠루스 《역사 문고》, 제1부, 제74장, [117—118페이지]).

30 《영명(英領) 인도……의 역사적 및 기술적 고찰》, 휴 머레이, 제임스 윌슨 등등에 의한 저작, 에딘버러, 1832년, 제2권, 439페이지. 인도의 직기는 직기 위에 날실을 수직(垂直)으로 늘여 놓기 때문에 대단히 키가 높다.

의 이행은 그의 로동의 진행을 중단시키며 그의 로동일의 중간에 이를테면 간극(間隙)을 만든다. 이러한 간극은 만약 그가 온근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면 좁아질 것이며 또는 그의 작업의 변경이 감소되는 정도에 따라 소멸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이 경우에 일정한 시간내에 있어서의 로동력 지출의 증대, 즉 로동 강도(強度)의 증가에 기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로동력의 비생산적 소비의 감소에 기인한다. 즉 정지로부터 운동으로 이행할 때마다 야기되는 힘의 여분의 지출은, 한번 탈성된 표준적 속도의 로동을 오래 계속함으로써 보상(補償)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단조한 로동의 연속은 정신의 긴장과 활동력의 양양을 저해하는바, 그것은 활동이 변화하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분 전환과 자극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로동 생산 능률은 로동자의 숙련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도구의 완전성에도 의존한다. 동일한 종류의 도구, 폐kin때 베며, 구멍을 뚫으며, 베밀며, 두드리는 등등의 일을 하는 도구가 각이한 로동 과정에서 사용되며 다른 한편 동일한 로동 과정에서 동일한 도구가 각이한 작업들에 쓰인다. 그러나 한 로동 과정의 각이한 작업들이 서로 분리되어 그 매개의 부분적 작업이 부분 로동자의 수중에서 가급적 더 적합한 따라서 배타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자, 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에 사용되던 도구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들의 이와 같은 형태 변화의 방향은 형태가 변하지 않은 도구를 리용함으로써 부탁치게 되는 특수한 곤난들의 경험에 비추어 분명해져진다. 동일한 종류의 도구가 그 특수 용도별로 특수한 고정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 로동 도구의 분화와 매개의 그와 같은 특수화된 도구가 오직 특수적 부분 로동자의 수중에서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로동 도구의 특수화는 마누파두라의 특징이다. 비밍감에서만도 약 500종에 달하는 각종 마

치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매개 종류가 특수한 생산 과정에 쓰일 뿐만 아니라 가끔 여러 가지 마치들이 동일한 과정의 각이한 작업에만 쓰인다. 마누팍두라 시대는 노동 도구를 부분 노동자들의 배타적인 특수 기능에 적응시킴으로써 그것을 간단화하며 개량하며 다양화한다³¹.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는 동시에 다수의 간단한 도구들의 결합인 기계의 물질적 조건중 하나를 창조한다.

부분 노동자와 그의 도구는 마누팍두라의 간단한 요소들을 형성한다. 이제 우리는 마누팍두라를 그의 전체 모습에서 보기로 하자.

제 3 절 마누팍두라의 두 기본 형태 : 이질적(異質的) 마누팍두라와 유기적 마누팍두라

마누팍두라는 그 내부 체제상 두 기본 형태로 나누어는바 이 양자는 때로는 엉클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이며 또 후월에 이르러 마누팍두라가 대규모 기계 공업에

31 다윈은 동 식물의 자연적 기관(器官)에 관하여 그의 획기적인 저작 《종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동일한 기관이 각이한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관의 변이성의 원인은 아마 그러한 경우에 자연 도태(自然淘汰)는 한 기관이 오직 일정한 특수 목적에만 쓰이는 경우에 비하여 형태의 매개의 미세한 편향(偏向)을 지지 또는 억압하는데 주밀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을는지 모른다. 페퀼 대 여덟 가지 물건을 베는 데 쓰이는 칼은 대체로 거의 같은 형태를 보존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어떤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도구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그 형태마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런던, 1859년, 149페이지. 로썸야어 판, K. A. 쾰이 라제브 번역, 농업 출판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1935년, 216페이지 참조].

로 전화할 때에는 전연 상이한 역할들을 논다. 마누팍뚜라의 이 이중적 성격은 제품의 성질 그 자체에 기인한다. 마누팍뚜라의 제품은 독립적인 부분품들의 순전히 기계적인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상호 연결된 순차적 과정 및 조작(操作)들에 의하여 그 완성 형태가 이루어지든가 한다.

일례를 들면 기관차는 5,000 이상의 독립적 부분품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공업의 생산물인 까닭에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팍뚜라의 제1종(第1種)의 실례로 쓰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제는 이러한 실례로서 적당하다. 벌써 윌리엄 페티도 마누팍뚜라적 분업을 해설하기 위하여 시제의 예를 들었던 것이다. 시제는 뉴른베르히의 수공업자의 개인적 생산물로부터 무수한 부분 노동자들의 사회적 생산물로 전화되었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부분 노동자들이다. 원재료 제조공, 시계태엽 제조공, 문'자판(文字板) 제조공, 유사 제조공, 시계용 석제(石製) 부분품 제조공, 보석공, 시계 바늘 제조공, 시계 껍질 제조공, 라사못 제조공, 도금(鍍金)공, 기타 다수의 세분품으로서, 페킨대 바퀴 제조공 (늦쇠 바퀴와 강철 바퀴는 따로 구분된다), 시계틀 제조공, 트는 장치와 바늘 회전 장치 제조공, 려동 장치 완성공 (바퀴를 틀에 고정시키며 보석의 모를 가는 일 등등을 한다), 추축(樞軸) 제조공, 조립공 (각종 바퀴와 틀을 제자리에 맞추어 놓는 일을 한다), 태엽 바퀴 완성공 (바퀴에 이'발을 지으며 구멍을 적당한 크기로 뚫으며 제역륜(制逆輪)을 고정시킨다), 정동 장치(整動裝置) 제조공, 그리고 씨린다 정동 장치인 경우에는 또 하나 씨린다 제조공, 정동륜 제조공, 평형륜(平衡輪) 제조공, 완급침(緩急針) (시계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제조공, 정동 장치 설치공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동 장치 제조공), 다음에는 태엽통 완성공 (태엽통과 제역장치의 조립을 완성한다), 강철 연마(研磨)

공, 바퀴 연마공, '라사못 연마공, 문'자 기입공, 에나멜공 (구리에 에나멜 칠을 한다), 통두 제조공 (시계 껍질의 통두고리만을 만든다), 접철 완성공 (시계 껍질의 접철에 낫쇠 축(軸)을 꼽는 등등의 일을 한다), 뚜껑 스프링 장치공 (뚜껑이 열리게 하는 스프링을 시계 껍질에 붙인다), 조각공(彫刻工), 부조공(浮彫工), 시계 껍질 연마공 등등, 그리고 최후로는 시계 전체를 최종적으로 조립하여 시계가 돌아 가도록 하는 완성공, 시계 부품품들의 극소부분만이 여러 사람의 손을 통과하며 그리하여 이 모든 갈간이 찢어진 부분들은 그것들을 최후적으로 단일한 완전한 기구(機構)로 결합시키는 한 사람의 손에서야 처음으로 집합된다. 완성된 생산물의, 그 다종 다양한 구성 부분들에 대한 이와 같은 외부적인 관계는 이 시계 생산의 경우에——기타의 유사한 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동일한 작업장내에 있어서의 부분 노동자들의 결합을 우연한 것으로 만든다. 부분 노동들은 그것대로 개별적인 독립 수공업으로서 수행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서서의 와트 주(州)와 누사텔 주에서 보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베른에 제베바에는 대규모의 시계 마누팩투라가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 자본의 지휘하에 부분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협업이 실시되고 있다.³² 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문'자판(文字板)과 태엽과 시계 껍질은 마누팩투라 자체 내에서 제작되는 일이 드물다. 여기에서는 마누팩투라적 결합 제작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들에만 유리하다. 왜냐 하면 자력에서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극히 치열하며, 다수의 이질적 과정에로의 생산의 세분은 노동 도구의 공동적 사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분산적인 제작하에서는 자본가는 작업용 건물 및 기타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자력에서 일한다 할지라

32 제베바에서 1854년에 8만개의 시계가 생산되었으나 이것은 누

도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 부분 노동자들의 지위는 자기 자신의 주문객을 위해서 일하는 독립 수공업자의 지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³³.

마누팩투라의 제2 종의 완성된 형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 제 단계, 즉 순차적인 일련의 제 과정을 통과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페컨대 제침(製針) 마누팩투라에 있어서의 철사는 72명, 심지어는 92명의 특수한 부분 노동자들의 손을 통과한다.

그러한 마누팩투라는 그것이 원래 분산되어 있던 수공업들을 결합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수적 생산 단계들 간의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킨다. 그와 동시에 제품이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며 따라서 이 이행을 매개하는 노동도 감소된다³⁴. 그리하여 수공업에 비해서 노동 생산 능률이 더 높아지며 그리고 그것이 높아지는

샤델 주(州)의 시계 생산의 5분의 1 이하이다. 하나의 단일한 시계 제조소로 볼 수 있는 쇼·드·폰만해³⁵도 시계의 년 생산액이 제네바보다 2 배나 더 크다. 1859년부터 1861년에 이르기까지 제네바는 75만개의 시계를 제조하였다. 《영국 공사관(公使館) 서기관(書記官)들의……상공업에 관한 보고》(제6호, 1863년) 중의 《시계업에 관한 제네바로부터의 보고》를 보라. 만약 조립만 하면 되는 제품의 생산이 나뉘어져 있는 그 개별적 제 과정간에 상호 의존 관계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그와 같은 마누팩투라의 대공업 기계 생산에로의 전화를 극도로 곤란하게 한다면 시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밖에 또 두개의 다른 장애가 첨부된다. 그것은 즉 시계의 구성 요소들의 미소성과 섬세성 그리고 시계가 사치품으로서 형태의 비장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정이다. 페컨대 런던의 최상급의 시계 제조소에서는 1년간을 통하여 같은 외양의 시계가 한 타스 제조되는 일이 거의 없다. 기계를 성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체론 앤드 콘스탄틴 시계 공장은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기껏해야 3—4종의 시계를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33 시계 생산이라는 이질적 마누팩투라의 이와 같은 전형적인 실태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수공업적 활동의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도구의 분화 및 특수화론 극히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다.

34 《사람들이 것처럼 밀집하여 일하는 곳에서는 운반 노동은 최소로 될 수 밖에 없다》(네명쎈 《동인도 무역의 이익》, 106페이지).

것은 마누콕뚜라의 일반적인 협업적 성격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마누콕뚜라에 고유한 분업의 원칙은 각이찬 생산 단계들의 고립화를 가져 오는바 이 생산 단계들은 그와 동수(同數)의 수공업적 성격을 가진 부분 노동들로 서로 분리된다. 고립화된 기능들 간의 연락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는 한 손으로부터 다른 손으로의, 한 과정으로부터 다른 과정으로의 제품의 부단한 이전이 필요하게 된다. 대공업의 전지로부터 볼 때 이 사정은 마누콕뚜라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특징적 결합으로 된다³⁵.

어떤 원료, 레컨대 제지(製紙) 마누콕뚜라에 있어서의 누테기 혹은 제침(製針) 마누콕뚜라에 있어서의 철사의 일정한 분량을 고찰한다면 그것은 중국적 형태로 완성될 때까지 각이찬 부분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생산 단계의 순차적인 계단을 통과한다. 이에 반하여 작업장을 하나의 총체적 기구(機構)로서 고찰한다면 원료는 생산의 모든 단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부분 노동자들의 결합으로써 구성된 총체로서의 노동자는 도구를 천 그 무수한 손의 일부분을 가지고 철사를 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그 손과 도구의 다른 일부분을 가지고 이 철사를 끝까지 만들며 또 다른 일부분을 가지고는 그것을 끊으며 끝을 뾰족하게 하는 등등의 일을 한다. 시간상 순차적으로 배치되었던 과정의 각이찬 여러 단계는 이제는 공간적으로 서로 병립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완성품이 제공된다³⁶. 비록 이 동시성은 총과정의 일반적

35 《손 로동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치 못할 마누콕뚜라의 각이찬 단계의 고립화는 생산비를 비정상히 높인다. 그리고 이 손실은 주로 개별적 생산 과정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 생기는 것이다》(닉명씨 《제 국민의 산업》, 런던, 1855년, 제2부, 200페이지).

36 《그것(분업)은 한 가지 일을 각이찬 부분 작업으로 분할하여 그 부분 작업을 모두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의 절약도 가져 온다…… 개개인이라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협업 형태로부터 생겨 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누팩투라는 비단 협업의 제 조건을 기성 형태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수공업적 활동을 분해함으로써 협업의 제 조건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 다른 한편 마누팩투라는 오직 소여의 노동자들을 동일한 세부 작업에 결박(結縛)시킴으로써만 노동 과정의 이와 같은 사회적 조직을 달성한다.

매개 부분 노동자의 부분 생산물은 동시에 동일한 제품의 어떤 하나의 발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만큼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게 또는 한 노동자 그루빠는 다른 노동자 그루빠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노동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노동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게 직접 일꺼리를 주고 있다. 매개의 부분 과정에서 목표로 되어 있는 유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경험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리하여 마누팩투라의 총체로서의 기구(機構)는 일정한 노동 시간내에 일정한 결과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직 이 전제 밑에서만 각종의 상호 보충적 노동 과정은 동시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병립(並立)하여,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개별적 작업들 따라서 개별적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매개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기능 수행상 오직 필요 노동 시간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그 결과 독립적 수공업에서는 또 지어 단순 협업에서도 전연 볼 수 없던 그러한 노동의 연속성과 획일성(劃一性)과 규칙성과 질서와⁸⁷ 또 특히 노동의 강도(強度)가 창조된다. 상품

안될 각이한 노동 과정 전체를 단번에 수행함으로써 레컨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바늘 한개를 꿰으며 또는 뾰족하게 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에 다수의 완성된 바늘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류갈드스튜아트 저작집, 씨·W·하밀톤 편찬, 에딘버러, 1855년, 제3권, 《정치 경제학 강의》, 319페이지).

37 《마누팩투라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종류가 다양하면 할수록……

의 생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만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상품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경쟁의 외부적 강제로서 발현한다. 왜냐 하면 피상적(皮相的)으로 표현한다면 개별적 생산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상품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마누팍뚜라에서는 일정한 노동 시간내에 일정한 분량의 생산물을 제조한다는 것은 생산 과정 그 자체의 기술적 법칙으로 된다³⁸.

그러나 각이한 작업은 동일하지 않은 시간을 요구하며 또 그런 까닭에 동일한 시간내에 동일하지 않은 양의 부분 생산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자가 날마다 항상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이상 종류가 다른 작업에는 각이한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레컨데 활'자 주조소에서 주자공(鑄字工)은 한 시간에 활'자 2,000개를 주조하며 절단공은 4,000개를 끊으며 연마공(研磨工)은 8,000개를 연마한다면 매 4명의 주자공에 대하여 2명의 절단공과 1명의 연마공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 협업의 원칙은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다수인의 노동의 동시적 사용이라는 그 가장 간단한 형태에 복귀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제는 일정한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비단 사회적 종로동자의 질'적으로 각이한 기관(器官)들을 간단화하며,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의 양'적 규모간의, 다시 말하면 매개의 이 전문적 기능들에서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양, 또는 노동자 그루뵘들의 상대적 크기간의 고정된 수학적 비율

매개 작업의 질서와 규칙성은 일층 크게 되며 동일한 작업이 더 적은 시간에 수행되며 노동은 더 적게 든다》(닉명세《동인도 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68페이지).

38 그렇기는 하나 마누팍뚜라적 경영은 많은 부문에서 이러한 결파를 오직 불완전하게 달성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 하면 마누팍뚜라적 경영은 생산 과정의 일반적인 화학적 및 물리학적·제 조건을 정확히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까지도 또한 창조한다. 마누콕뚜라적 분업은 사회적 노동 과정의 질'적 분할과 아울러 그 량'적 규준(規準) 및 비율까지도 발전시킨다.

일정한 규모의 생산을 위하여 부분 노동자들의 각종 그루빠간의 가장 합목적적인 수'적 비율이 경험상 확정된다면 생산 규모의 확장은 오직 매개의 개별적 그루빠들의 노동자수를 몇 배함으로써만 가능하다³⁹. 여기서 부언(附言)해야 할 것은 어떤 작업들은 그 규모의 대소 여하에 상관 없이 동일한 개인이 마친가지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정이다. 패킨대 감시 노동, 한 생산 단계로부터 다른 생산 단계에로의 부분 생산물의 운반 등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을 전문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독립적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은 종업 노동자수가 증가하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유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증가는 해당한 비율로 모든 그루빠를 동시적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동일한 부분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수의 노동자들의 매개 개별적 그루빠는 동일 종류의 요소들로서 구성되며 총기구의 특수한 기관(器官)을 형성한다. 그러나 약간의 마누콕뚜라들에게서는 매개의 그루빠들 그 자체가 분할된 성원들로 편성된 노동체(勞働體)이고 다른 한편 총체로서의 기구는 이러한 초보적 생산 유기체들의 반복 또는 배가(倍加)에 의하여 형성된다. 유리병 제조 마누콕뚜라를 실패로 들어 보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각이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준비 단계인데

39 《간략 경험의 매개의 마누콕뚜라의 생산물의 특수한 성질에 따라, 생산을 부분 작업들으로 분할하는 데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가 또 매개 작업에 요구되는 노동자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수'자의 정확한 배수(倍數)를 사용하지 않는 일체의 기업은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업 기업소들이 대규모로 확장되어 가는 이유의 하나이다》(찰스 밥베이지 《기계의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 제21장, 172, 173페이지).

유리 원료의 배합, 즉 모래와 석회 등등의 혼합물을 준비하며 이것을 류동적인 유리액으로 용해(熔解)시키는 일이 수행된다⁴⁰. 이 최초 단계에서 각종 부분 노동자들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그것은 최후 단계——건조로(乾燥爐)로부터 유리병을 꼬집어 내는 일, 품종별로 나누는 일, 짐을 꾸리는 일 등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단계의 중간에,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유리병 생산, 즉 류동적인 유리액의 유리병에로의 가공이 존재한다. 유리 로(爐)의 같은 아구리 옆에서, 영국에서 소위 《구멍 일》군이라고 칭하는 한 그루빠 즉 한명의 병 제조공 즉 완성공과 1명의 내부는 노동자와 1명의 수집공과 1명의 쌓는 노동자, 즉 정리공과 1명의 운반공으로써 이루어지는 한 그루빠가 일한다. 이 5명의 부분 노동자들은 하나의 통일체로서만 다시 말하면 오직 다섯 사람의 직접적 협업에 의해서만 작용할 수 있는 단일한 노동체(勞働體)의 다섯 개의 특수한 기관(器官)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 개의 부분으로 되는 노동체는 그 중의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마비된다.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유리로(爐)에는 몇 개의 아구리——때컨대 영국에서는 4개 내지 6개의——가 있는데 그 매개 아구리에는 액체 상태의 유리가 들어 있는 내화토제(耐火土製) 도가니가 달려 있고 이 매개 도가니에는 다 같이 5개의 전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속 노동자 그루빠가 붙어서 일한다. 이때 매개 개별적 그루빠의 편성은 직접적으로 분업에 밑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동일 종류의 여러 그루빠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산 수단의 하나,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리로(爐)를 공동 소비에 의하여 일층 경제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단순 협업이다. 4—6개의 노동자 그루빠를 가지는 한개의 그와 같은 유리로는

40 영국에서는 용해로는 유리 제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유리로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때컨대 빨기에서는 동일한 로(爐)가 양쪽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완전히 한개의 독립적 작업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리 마누팩투라는 몇개의 이러한 작업장들과, 예비적 및 종국적 생산 단계를 위한 설비 및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끝으로 마누팩투라는, 그 어떤 것들이 각종 수공업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각이한 마누팩투라들의 결합에로 발전할 수도 있다. 페컨대 영국의 대규모 유리 제조소는 내화질(耐火質) 도가니를 자신이 제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물의 품질이 이 도가니의 질 여하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 수단의 마누팩투라가 생산물의 마누팩투라와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일정한 생산물의 마누팩투라는 그 생산물 자체를 다시 원료로 쓰든가 혹은 후에 그것을 자기의 생산물과 결합시키는 다른 마누팩투라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 페컨대 연초자(鉛硝子) 마누팩투라는 유리 연마 마누팩투라 및 솟쇠 주조 마누팩투라와 결합되는 일이 있는데 후자는 여타 가지 유리 제품에 금속 장식을 박는 일을 한다. 이 경우에 결합된 각종 마누팩투라는 하나의 총체적 마누팩투라의,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을 형성하며 또 그와 동시에 그 각개가 자기 자신의 분업을 가진 서로 독립된 생산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결합된 마누팩투라는 몇 가지 우'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기초 우에서는 현실적인 기술적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기술적 통일은 마누팩투라가 기계 생산으로 전화될 때에 비로소 달성된다.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단축을 급속히 자기의 의식적 원칙으로 선포하는 마누팩투라 시대⁴¹는 산발적이지만 기계의 사용도 역시 발전시킨다. 특히 그 수행에 다수의 사람과

41 이것은 개중에도 W·페티, 존 벨머즈, 안드류 야렌톤의 저작물에서 《동인도 무역의 이익》에서 및 J·빈더린트의 저작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대량의 힘의 지출이 요구되는 약간의 간단한 준비 과정에서 그렇다. 레컨대 종이 마누팩투라에서는 누레기를 분쇄(粉碎)하는 일이 급속히 독특한 분쇄기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었고, 야금업(冶金業)에 있어서는 광석을 분쇄하는 일이 채광기(碎鑛機)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었다⁴². 모든 기계의 초보적인 형태는 일찌기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해 오는 물방아이다⁴³. 수공업 시대는 또한 라침판, 화약, 인쇄술 및 자동식 시계와 같은 위대한 발명을 남겼다. 그렇지만 대체로 기계는 아담 스미스가 분업과 대비하여 그것에 할당한 부차적인 역할을 계속 놓고 있다⁴⁴. 17세기에 있어서의 기계의 산발적 적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위대한 수학자들에게 현대적 기계학의 창조를 위한 실천적인 거점(據點)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누팩투라 시대의 독특한 장치는 의연히 다수의 부분로

42 16세기 말엽에 있어서도 아직 볼탄서에서는 광석을 분쇄하며 세광(洗鑛)하는데 손질구와 채(篩)가 사용되고 있었다.

43 기계 발전의 전체 역사는 제분기(製粉機)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로는 지금도 공장을 mill (제분소)이라고 부른다. 19세기의 최초의 수십년 간에 씌여진 기술학에 관한 독일의 저서들을 보면 역시 Mühle (제분기)이라는 용어는 비단 자연력을 동력으로 하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계적 장치를 응용하는 모든 마누팩투라에 대해서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44 독자는 장차 이 저작의 제4부에서 더 상세하게 보게 될 것이지만 아담 스미스는 분업에 관하여 단 하나의 새로운 명제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마누팩투라 시대의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특징 짓는 것은 그가 분업을 특히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기계에 할당한 중추적 역할은 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로버트밀의, 또 더 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유어의 반대론을 일으켰다. 그 밖에 또 아담 스미스는 도구의 분화를——여기서는 마누팩투라의 부분 노동자를 자신이 거대한 역할을 맡았다——기계의 발명과 혼동하고 있다. 기계의 발명에서 역할을 논 것은 마누팩투라 노동자들이 아니라 학자, 수공업자, 심지어 농민(부린들리) 등등이었다.

동자들로써 구성된 총체적 노동자 그 자체이다. 한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번갈아 수행되며 그의 노동 과정에서 하나의 전체에로 융합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그에게 각양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한 경우에는 더 많은 힘을,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속력을, 제3의 경우에는 더 많은 주의력 등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개인은 이러한 여러 자질을 동일한 정도로 소유하지는 못한다. 각종 작업이 분리되며 독립화되며 고립화된 후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장기(長技)에 따라 구분되며 분류되며 편성된다. 그리하여 만약, 노동자들의 타고난 특수성이 분업이 자라나는 지반으로 된다면 마누콰뚜라는 그것이 한번 도입된 이후에는 원래 오직 일면적인 특수 기능에만 적합한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이제는 총체로서의 노동자는 생산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일한 정도의 능숙성으로 구비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특수적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특수적 그루빠로 개별화된 자기의 매개 기관(器官)을 오로지 그의 독특한 기능(機能)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함으로써 그 능력들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지출한다⁴⁵. 부분 노동자의 일면성과 심지어는 그 단점까지도 그가 총노동자의 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 그의 장점으로 된다⁴⁶. 일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습은 부분 노동자로 하여금 본능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한 기관(器官)으로 되게 하며 그리고 총체로서의 기구의 편관은 그로 하여금 기계의 일부분과 같은 규칙성

45 《마누콰뚜라 경영자는, 노동을 각종 정도의 속면과 힘이 요구되는 다수의 각이한 작업으로 분할함으로써 매개의 작업에 적합한 량의 힘과 속면을 정확히 얻어 들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만약 일 전체가 한 사람의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개인이 극히 섬세한 작업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속면과 극히 어려운 작업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찰스 밥베이저 《기계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 제19장).

46 렉컨데 일면적인 근육의 발달, 골격의 완곡 및 기타.

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⁴⁷.

총로동자의 각종 기능에는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인 개별적 로동력들은 극히 각이한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또 그런 까닭에 극히 각이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마누팍뚜라는 로동력의 등급 제도를 발전시키여 로동 임금의 제층이 이에 대응한다. 만약 한편으로는 개별적 로동자가 일면적인 기능에 적응되어 일평생 그 기능에 결박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같은 정도로 각종 로동 작업이 선천적 및 후천적 능력들의 이러한 등급 제도에 적응하게 된다⁴⁸. 그러나 어떠한 생산 과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정한 간단한 조작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작도 이제는 생산 활동의, 더 내용이 풍부한 계기(契機)들과의 류동적인 관련을 끊어 버리고 하나의 배타적인 기능에로 굳어 버린다.

그러므로 마누팍뚜라는 그것이 점령하는 매개 수공업 내부

47 어떤 유리 마누팍뚜라의 총지배인 윌리암 마살 씨는 어떻게 하면 미성년 로동자들 간에 근면성(勤勉性)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조사 위원회의 한 성원의 질문에 대하여 극히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일에서 도저히 태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계의 부분품들과 꼭 같습니다》(《노동 조사 위원회, 제1회 보고, 1895년》, 247페이지).

48 유어 박사는 대공업에 대한 자기의 찬양에 있어서 마누팍뚜라에 특유한 성격을 그의 논쟁 문제에 무관심하였던 이전의 경제학자들에 비하여, 또 심지어 그의 동시대인(同時代人), 베컨대 수학자 및 기계학자로서는 그를 통가(凌駕)하지만, 대공업을 사실상 마누팍뚜라의 관점에서만 고찰하고 있는 밥베이저에 비해서도, 더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 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개의 특수 작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적응은 분업의 본질을 이룬다》. 다른 한편 그는 이 분업을 《각종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로동의 적응》이라고 칭하며 끝으로 전체 마누팍뚜라 제도를 《숙련의 정도에 의한 등급 제도》로서 《숙련의 각이한 정도에 의한 분업》 등등으로서 특징 짓고 있다 (유어 《마누팍뚜라의 철학》, 19—23페이지의 군데 군데).

에, 수공업적 생산 조직이 엄격히 배제하여 온 소위 불숙련 노동자라는 범주를 창조한다. 마누팩투라는 노동 일반에 대한 능력을 희생으로 하여 일면화된 전문을 모기(妙技)에까지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온갖 발전의 불충분성까지도 특수한 전문으로 전화시킨다. 등급 제도상 단계들과 아울러 노동자의 숙련 비숙련에로의 간단한 분할이 나타난다. 비숙련 노동자에 있어서는 교육비가 전연 없어지며 숙련 노동자에 있어서는 그들의 기능(機能)이 간단화되는 결과 교육비가 수공업자에 비해서 감소된다. 쌍방의 경우에 모두 노동력의 가치가 저락된다¹⁹. 수공업적 경영에 있어서는 혹은 전연 존재하지 않았던가 혹은 국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새로운 포괄적 기능들이 노동과정의 분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경우에는 폐외가 있을 수 있다. 수업비의 소멸 또는 감소에 기인하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가치 감소는 직접 자본 가치의 보다 큰 자기 증식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노동력의 재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모든 것은 잉여 노동의 분야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제 4 절 마누팩투라 내부에서의 분업과 사회 내부에서의 분업

우리는 처음에 마누팩투라의 기원(起源)을 고찰하였고 다음에 그것의 간단한 요소들인 부분 노동자와 그 도구를 그리고 최후에 그것의 총체로서의 기구를 고찰하였다. 이제는 마누팩투라적 분업과 모든 상품 생산의 일반적 기초로 되는 사회적 분업간의 관계를 간단히 고찰하기로 하자.

19 《매개의 수공업자는 …… 한 가지 일만을 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되므로…… 일종 지리한 일'군으로 된다》(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19페이지).

만약 로동 그 자체만을 안중(眼中)에 둔다면, 사회적 생산의 농업 공업 등등과 같은 류(類)들에로의 분할은 일반적 분업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류들에 속하는 생산의 종과 아종(亞種)에로의 구분은 특수적 분업이라고 칭하며 한 작업장 내부의 분업은 개별적 분업이라고 칭할 수 있다⁵⁰.

사회 내부에서의 분업과 그에 대응하는 특정 직업 범위로써의 개인의 제한은 마누팍뚜라 내부에서의 분업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대립적인 출발점들로부터 발전한다. 가족^{50a}의 내부에서, 그리고 일층의 발전에 따라, 씨족의 내부에서 성(性)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여, 즉 순전히 생리학적인 기초 위에서 자연적 분업이 발생하며, 그것은 공동체의 확대, 인구의 증가, 또 특히 각이한 씨족간의 충돌과 한 씨족의 다른 씨족에 의한 예속화와 더불어 자기의 영역을 확대한다. 다른 한편,

50 《분업은 극히 다종 다양한 직업들의 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누팍뚜라에서 보는 마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생산물의 제조물 다수로 동자가 분담하는 분업에까지 이른다》(슈로트호 《정치 경제학 강의》, 파리판, 제1권, 173페이지 [로썬야어 판, 이·웨·웨르나트스끼 감수(監修) 번역, 성 페페르부트그, 1881년, 제1권, 79페이지 참조]). 《우리는 일정 정도의 문명에 도달한 국민들에게서 세 종류의 분업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 분업이라고 칭하는 첫째 종류는 농업 생산자, 공업 생산자, 상인에로의 생산자의 분할인바 이들은 국민적 생산의 3대 주요 부문에 대응한다. 특수적 분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둘째 종류는 각 로동 부문의 종(種)들에로의 분할이다……결으로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분업 또는 로동의 분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째 종류의 생산의 분할은 개별적 수공업 또는 직업의 내부에서 일어 나며……대다수의 마누팍뚜라 및 작업장에서 볼 수 있다》(스카르베크 《사회적 부의 이론》, 제2판, 파리, 1840년, 제1권, 84, 85페이지).

50a 제3관 주. 저자가 후일에 진행한 인류의 원시 상태에 관한 근본적 연구는 저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다. 즉 제일 처음에 가족이 씨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씨족이 혈연 관계에 입각한 인류 사회 형성의 시초의 자연 발생적인 형태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가족 형태는 주일에 씨족 동맹이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비로소 발전하였다. {F·엔겔스}

내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각이한 가족들과 씨족들과 공동체들이 상호 접촉하는 지점들에서는 생산물의 교환이 발생한다. 왜냐 하면 인류 문화의 초기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개인들이 아니라 가족, 씨족 등등이 독립적 단위로서 피차간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각이한 공동체들은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각이한 생산 수단과 각이한 생활 수단을 발전한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들의 생산 방식과 생활 양식과 생산물은 피차간 다르다. 공동체가 상호 접촉할 때 생산물의 상호간 교환을, 따라서 이 생산물들의 상품에로의 점차적 전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차이인 것이다. 교환은 생산 영역들 간의 차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이한 영역들 간의 련계를 확립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회적 총생산의,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인 부문들로 전화시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분업은 본래 각이한, 그러나 상호 독립적인 생산 영역들 간의 교환에 의하여 발생한다. 생리적 분업이 출발점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련결된 전체의 특수한 기관(器官)들은 서로 분열되며 분해되며——이 분해 과정에 주요한 충동을 주는 것은 다른 공동체와의 상품 교환이다——독립화되어 드디어 각종 노동간의 련결은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교환을 통하여서만 유지되는 데까지 이른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에 독립적이었던 것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전에 비독립적이었던 것이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다.

상품 교환을 통하여 실현되는 온갖 발전된 분업의 기초는 도시와 농촌과의 분리이다⁵¹. 사회의 전체 경제사는 이 대립의 운동에 요약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 이상 더 상세하게 말하지 않겠다.

51 씨 제임스 스튜아트는 이 점을 가장 잘 구명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년이나 먼저 출판된 그의 저작이 현재 얼마나 알려져 있지 않는가는 재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마누콰뚜라 내부에 있어서의 분업의 물질적 전제로 되는 것은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일정 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분업의 전제로 되는 것은 인구의 크기와 그 밀도이다. 이 경우에 인구의 밀도는 동일한 작업장에 있어서의 인간의 밀집(密集)에 해당한다⁵². 그러나 이 인구의 밀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인구는 비교적 희박하나 발전된 교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발전되지 못한 교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더 주밀한 나라에 비하여 더 큰 인구 밀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페컨대 아메리카 합중국의 북부 제주는 인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더 크다⁵³.

상품 생산과 상품 류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일반적인 전제인 까닭에 마누콰뚜라적 분업은 이미 일정한 발전 정도에 까지 성숙한 사회 내부의 분업을 필요로 한다. 거꾸로 마누콰뚜라적 분업은 사회적 분업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일층 발전시키며 세분화한다. 노동 도구의 분화에 따라 이 도구를 제조하

즉 《인구》에 관한 말사스의 저작의 초판은 만약 그 순전히 연설(演說)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승려 월베스 및 타운센드로부터 표절(剽竊)해 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스튜아르로부터 표절해 온 것인데 이 사실까지도 말사스의 숭배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52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나 또 노동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는 힘의 결합을 위해서나 일정한 인구 밀도가 요구된다》(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런던, 1821년, 57페이지).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 사회의 생산력은 노동자수의 증가에 그칠 간의 분업의 효과를 승한 복비례(複比例)로 증가한다》(토마스 호지스킨 《통속 정치 경제학》, 120페이지).

53 1861년 이때 동인도의 원래 인구 주밀한 몇몇 지방에서 면화에 대한 큰 수요가 일어난 결과 면화의 생산이 쌀의 생산을 희생으로 하여 확장되었다. 그 때문에 부분적인 기근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물리적(物理的) 전략의 결여로 말미암아 한 지방에서의 쌀의 생산 부족을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반입(搬入)에 의하여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는 생산 부문들도 가일층 분화된다⁵⁴. 이때까지 본업(本業)과 부업(副業)이라는 형태로 다른 산업 부문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되어 온 어떤 산업 부문에 마누팩투라형의 생산이 보급될 때에는 즉시로 분리와 상호간의 독립화가 일어난다. 만약 어떤 상품의 개별적 생산 단계가 마누팩투라적으로 경영되게 된다면 그 상품의 여러 생산 단계는 독립적 직업들들로 전화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품이 부분 생산물들의 순전히 기계적인 결합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러 부분 노동은 그것대로 또 독자적 수공업으로 독립화될 수 있다. 마누팩투라 내부에서 분업을 더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여의 생산 부문은 그 원료가 다름에 따라 또는 동일한 원료가 취할 수 있는 형태가 다름에 따라 각이한 마누팩투라에로, 때로는 전연 새로운 마누팩투라에로 분열된다. 그리하여 벌써 18세기 전반에 불란서 한 나라만에서도 100여종의 각양한 전직물들이 생산되었고 또 레킨데 아비논에서는 《각 전직공은 한 종류의 제작의 수업에 전념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직물의 제조 방법을 동시에 수업하지 말것》이라는 법률이 존재하였다. 특수 생산 부문을 국내의 특수 지역에 고착시키는 지역별 분업은 일체의 특수성을 리용하는 마누팩투라적 경영에 의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⁵⁵. 마누팩투라 시대에 사회 내부의 분업에 대하여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시장의

54 그리하여 레킨데 화란(和蘭)에서는 직조용 복(梭)의 제조가 17세기에 벌써 하나의 특수한 공업 부문으로 되었다.

- 55 《영국의 양모(羊毛) 공업은 일정한 지방들에 전속된 여러 부분 혹은 부문으로 분할되어 이 지방들에서는 그 부문에만 생산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레킨데 섬세한 라사는 쏘머세트셔에서, 거칠은 라사는 요크셔에서, 폭이 넓은 라사는 엑세터에서, 견(絹) 직물은 새드베리에서, 축면(縮緬)은 노르위치에서, 면모포직은 켄달에서, 모포는 휘트니에서 생산되는 등등과 같다!》(버클레이 《질문자》, 1750년, 제520절).

확장과 식민 제도(植民制度)인바 이것들은 사회적 분업의 일반적 존재 조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분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영역과 아울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까지 포착하여, 가는 곳마다 협소한 전업(專業)과 전문을 형성하며 또 벌써 A·스미스의 스승인 A·화거손으로 하여금 《우리는 노예들만의 국민이며, 우리들 사이에 자유인은 없다!》⁵⁶라고 위치제한 인간의 일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닦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논증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 내부의 분업과 작업장 내부의 분업간에는 허다한 유사점과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비단 정도 상 차이 뿐만 아니라 본질상 차이를 가진다. 내부적 연관이 각종 생산 부문을 포괄하는 경우에 양자간의 유사성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폐쇄된 목축업자는 모피를 생산하며 피혁 제조업자는 그것을 피혁으로 전화시키며 제화업자는 피혁을 구두로 전화시킨다. 이 경우에 각자는 하나의 단계적(段階的) 생산물을 생산하며 그리고 최후의 완성품은 이 개별적 노동들의 결합 생산물이다. 또 여기에 첨가되는 것은 목축업자와 피혁 제조업자와 제화업자에게 생산 수단을 제공하는 각종 노동 부문이다. 누구나 A·스미스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 분업은 오직 주관적으로만 즉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마누팍뚜라적 분업과 구별되며 관찰자는 마누팍뚜라에서는 공간적으로 통합된 각종 부분 로동을 일견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업에서는 부분 노동들이 광대한 면적 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매개 특수 부문의 종업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관련이 애매하게 된다⁵⁷라고. 그러

56 A·화거손 《시민 사회사》, 에딘버러, 1767년, 제4부, 제2권, 285페이지.

57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팍뚜라에서 분업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개개의 각이한 노동 부문에

나 목축업자와 피혁 제조업자와 제화업자의 독립된 노동들 간에 연계를 지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마누콕뚜라적 분업을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서 부분 노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⁵⁸. 많은 부분 노동자들의 공동 생산물이 비로소 상품으로 전화된다고^{59a}. 사회

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가끔 동일한 작업장내에 집합할 수 있고 그리하여 관찰자는 그들을 모두 한눈으로 단거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주민 대중의 광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그러한 대 마누콕뚜라(!)들에 있어서는 매개의 개별적 노동 부문은 극히 다수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결과 그들 전체를 동일한 작업장내에 집합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분업은 이처럼 일목了然하지는 않다》(A. 스미스 《국부론》, 제1권, 제1장)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9페이지]. 같은 장에 있는 《번영하는 문명국의 가장 평범한 수공업자 또는 일용(日傭) 노동자의 생활 용품을 관찰하라, 운운》[동상서, 로씨야어 판, 11페이지]이라는 말로써 시작되어 다음 보통 노동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무수한 각종 생산 부문이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는 유명한 개소는 거의 문'자 그대로 B. 드. 만메빌이 그의 저서《물벌 이야기. 사'적 죄악과 공'적 이익》에 붙인 주석(註釋)에서 복사한 것이다(주석이 붙지 않은 초판은 1706년에 출판되었고 주석이 붙은 것은 1711년에 출판되었다).

58 《여기에는 우리가 개인의 노동에 대한 자연적 보수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아무 것도 없다. 매개 노동자는 오직 전체의 어떤 부분만을 생산하며 또 매개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유용성도 가지지 못하는 까닭에 여기에는 노동자가 손에 쥐고 이것은 나의 생산물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의 옹호》, 런던, 1825년, 25페이지). 이 탁월한 저술의 저자는 위에서 이미 인용한 T. 호지스킨이다.

58a 제2판 주. 양키는 사회적 분업과 마누콕뚜라적 분업간의 이차이를 실천적으로 입증하였다. 공민 전쟁 당시 워싱턴에서 새로 안출(案出)된 조세의 하나는 《전체 공업 생산물》에 부과된 6%의 간접 소비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공업 생산물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법'법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만

내부의 분업은 상이한 노동 부분들의 생산물의 매매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마누콰뚜라에 있어서의 부분 노동들 간의 련관은 각이한 노동력들이 그것들을 결합 노동력으로서 사용하는 동일한 자본가에게 판매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매개된다. 마누콰뚜라적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로의 생산 수단의 집중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분업은 서로 독립한 다수의 상품 생산자간에로의 생산 수단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마누콰뚜라에 있어서는 일정한 균형 또는 비율의 철칙(鐵則)이 특정수의 노동자들을 여러 기능들 간에 배분하는데 이에 반하여 상품 생산자와 그 생산 수단의 각이한 사회적 노동 부문간에로의 배분에 있어서는 우연과 자의(恣意)가 제멋대로 작용한다.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항상 균형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 하면 한편으로는 매개 상품 생산자는 어떤 사용 가치를 생산하여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욕망들의 크기는 양'적으로 각이하며 또 이 각이한 욕망들은 내부적으로 상호 련관되어 하나의 자연 발생적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전체 노동 시간 중 얼마만큼씩을 각개의 특정 상품의 생산에 지출할 수 있는가

들어진 이상》생산물이고 또한 판매를 위하여 준비된 이상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다수의 실례 가운데서 하나를 들어 보자.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마누콰뚜라는 이전에는 양산(傘)을 그것의 모든 부속품과 함께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양산은 전연 이질적(異質的)인 구성 부분들의 합성물인 까닭에 이 구성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서로 독립된 그리고 각이한 장소에서 경영되는 생산 부분들의 제작물로 되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부분 생산물은 독립적 상품으로서 양산 마누콰뚜라에 들어 오게 되었고, 양산 마누콰뚜라는 이 각이한 구성 부분들을 조립할 뿐이다. 양키는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집합(集合) 제품이라고 명명(命名)하였는데 그것은 이 명칭대로 현실적으로 조제의 집합점(點)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양산은 처음에는 매개의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에 대한 6%의 조제를 《집합》시키며, 다음에는 또 그 자신의 추가적에 대한 6%의 조제를 새로 《집합》시키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부단한 경향은 이 균형의 부단한 파괴에 대한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작업장 내부의 분업에서는 사전부터 또 계획적으로 준수되는 기준(基準)이 사회 내부의 분업에서는 시장 가격의 바로미터적 변동의 형태로만 지각될 수 있는, 또 상품 생산자들의 무규율적 자의(恣意)를 극복하는, 내부적이며 맹목적인 자연적 필연성으로서 오직 사후에만 작용한다.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자본가에게 속하는 종기구의 단순한 지체(肢體)를 이루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무조건적 권위(權威)를 전제로 하나, 사회적 분업은 경쟁이라는 권위 이외에는, 즉 상품 생산자들의 상호간 이해 관계의 투쟁이 그들에게 가하는 강제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적 상품 생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동물계에 있어서 《모든 자의 모든 자에 대한 싸움》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종(種)의 생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마누팍뚜라적 분업과, 노동자를 일평생 세부 작업에 얽어 매는 것과, 부분 노동자의 자본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예속을, 노동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노동 조직이라고 찬양하는 같은 그 부르조아적 의식이 사회적 생산 과정의 온갖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와 조절을, 개별적 자본가의 불가침한 소유'권과 자유와 자율적(自律的) 《독창성》에 대한 침해라고 마찬가지로 정도로 열렬하게 비난하는 것이다. 공장 제도의 열광적인 변호자들이 사회적 노동의 전반적 조직에 대해서, 그러한 조직은 사회 전체를 공장으로 전화시킬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더 반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만약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가지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분업의 무정부 상태와 마누팍뚜라적 분업의 전제(專制)제도가 호상 타방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직업

의 특수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되며 다음에 결정화되며 최 후에는 법률에 의하여 공고화되는 더 이전의 사회 제 형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의 계획적인 또 권위에 팀각하는 조직의 모습을 보이며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장 내부의 분업을 전연 배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오직 왜소(矮小)한 규모에서만, 또는 오직 산발적으로만 또 우연적으로만 발전시킨다⁵⁹.

레컨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원시적이며 소규모적인 인도 공동체는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우에, 수공업과 농업과의 직접적 결합 우에,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창설에 제하여는 생산에 관한 기성의 계획과 설계를 제공하여 주는 고정적인 분업 우에 팀각하고 있다. 매개의 그러한 공동체는 자족적인 생산 전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의 생산력역은 100 에이커로부터 수천 에이커에 달한다. 생산물의 대부분은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직접적 수요를 위하여 생산되며 그런 까닭에 생산 그 자체는 상품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전체 인도 사회의 분업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생산물의 과잉 부분만이 상품으로 전화될 뿐이며 그것조차도 대부분은 태고 시대로부터 현물 지대의 형태로 생산물의 일정량을 징수하여 온 국가의 수중에서만 비로소 상품으로 전화된다. 인도의 각이한 지방에는 각이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가장 간단한 형(型)의 공동체에서는 토지의 경작이 공동으로 수행되며, 생산물은 그 성원들 간에 분배되며 다른 한편 매개 가

59 《우리는……사회 내부의 분업이 권위에 예속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작업장 내부의 분업은 일층 더 발전하며 그리고 그것은 일층 더 개인의 권위에 예속된다는 것을 일반적 규칙이라고 인정할 수까지 있다. 그리하여 분업에 관해서는 작업장에 있어서의 권위와 사회에 있어서의 권위가 서로 반비례한다》 (칼 맑스 《철학의 빈곤》, 파리, 1847년, 130, 131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5권, 385페이지].

족은 가내 부업으로서 방직, 직조 등등에 종사한다. 동일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중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재판관과 경찰관과 징세관(徵稅官)을 일신에 겸하는 공동체 《수장》, 농경(農耕)에 관한 계산을 보며 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기장하며 등록하는 부기원, 범죄자를 추궁하며 의부로부터의 여행자를 보호하여 그를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으로 안내하여 주는 제3의 정무원, 린집 공동체를 상대로 공동체의 경계선을 경계하는 경계선직이, 관개용수를 공동체의 저수지로부터 분배하는 저수지 감시인, 종교적 예배(禮拜)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라문(波羅門)의 제관(祭官), 사반(砂盤)으로 공동체의 아동들에게 쓰기와 읽기를 가르치는 학교 교원, 점성사(點星師)로서 파종, 수확의 시기 및 여러 가지 농업 노동의 적기(適期)와 부적기를 지시하는 파라문의 사력승(司曆僧), 모든 농업 도구를 제작 수선하는 단야공과 목수, 존락용의 모든 용기(容器)를 제조하는 도기 제조공, 리발사, 의복을 세탁하는 세탁쟁이, 은세공사,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은세공사 대신에 존재하며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는 학교 교원 대신에 존재하는 시인(詩人). 이 10여명의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의 비용으로 부양된다. 만약 인구가 증가하면 미간지 위에 신 공동체가 구 공동체의 본을 따서 창설된다. 공동체의 기구는 계획적 분업을 보이며 주고 있으나 그러나 마누팩투라적 분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단야공, 목수 등등을 위한 시장에는 변화가 없고 단야공, 도기 제조공 등은 1명이 아니라면 기껏해야 존락의 크기에 따라 겨우 2—3명 있기 때문이다⁶⁰. 공동체의 분업을 규제하는 법칙은 여기서 자연 법칙의 불가침한 권위를 가지고 작용한다. 다른 한편 단야공 등등과

60 루군 중차 마크 윌크스 《인도 남부의 역사적 개술》, 런던, 1810—1817년, 제1권, 118—120페이지. 인도 공동체의 각종 형태의 알기 쉬운 예는 조지 캠벨의 《현대 인도》(런던, 1852년)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매개의 개별적 수공업자는 전래의 방식에 따라서, 그러나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작업장 내부에서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의 전문에 속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부단히 동일한 형태로 재 생산되며, 어찌다가 파괴될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재건되는⁶¹ 이러한 자족적인 공동체들의 생산 기구의 간단성은 아세아 제 국가의 부단한 흥망(興亡) 및 왕조(王朝)의 설재 없는 교체와는 그처럼 날카로운 대조(對照)를 이루고 있는 아세아 제 사회의 불변성의 비밀을 해명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 사회의 경제적 기본 요소들의 구조는 정치의 상층 영역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에 의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벌써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업 조합 규칙은 1명의 동업 조합 장주가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의 수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장주가 자본가로 전화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방지하였다. 또 마찬가지로 장주는 오로지 자기가 몸소 장주로 되어 있는 수공업에서만 장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동업 조합은 그것에 대립하는, 유일한 자유로운 자본 형태인 상인 자본측으로부터의 온갖 침해를, 질투심을 가지고 방어하였다. 상인은, 상품은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다만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구매할 수 없었다. 상인에게는 오직 수공업 생산물의 구매차

61 《이러한 간단한 형태로……이 나라 주민은 태고 시대부터 생활하여 왔다. 부락들의 경계선이 변동된 일은 드물다. 또 비록 부락 그 자체는 때로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에 의하여 멸락되며 심지어 황폐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시 동일한 명칭, 동일한 경계선, 동일한 이해 판계를 가지고, 또 심지어 동일한 가족들로서 부활되어 수세기 동안에 걸쳐 존속되었다. 나라가 파괴되거나 분할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촌락이 온전한 대로 남아 있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권력의 손에 넘어 가든지, 어떤 주권자에게 맡겨지든지 그런 것은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촌락의 내부적 경계는 의연히 변함이 없이 남는다》(전 야마 부총독, 트마쓰 스타프로드 타플쓰 《자바의 역사》, 런던, 1817년, 제1권, 285페이지).

(收買者)로서의 역할만이 용허되어 있었다.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분업을 일층 세분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 동업 조합이 아종(亞種)들로 분열되거나, 혹은 낡은 것과 아울러 새로운 동업 조합이 창설되거나 하였지만, 하나의 동일한 작업 장내에 각이한 수공업들이 통합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리하여 비록 동업 조합적 조직에 의한 직업들의 특수화, 고립화, 발전이 마누팍뚜라 시대의 물질적 전제 조건으로 되기는 하였지만 동업 조합적 조직 그 자체는 마누팍뚜라적 분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다. 대체로 노동자와 그의 생산 수단은, 마치 달팽이와 달팽이 집이 유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돈되진 말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따라서 노동자에 대립하는, 자본으로서의 생산 수단의 독립화라는 마누팍뚜라의 첫째 기초가 결여되어 있었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분업은 그것이 상품 교환을 매개로 하여 수행되든지 또는 그것과는 관계 없이 수행되든지 간에 극히 다종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들에서 볼 수 있음에 반하여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전연 독특한 창조물인 것이다.

제 5 절 마누팍뚜라의 자본주의적 성격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다수의 노동자가 집중된다는 것은 협업 일반의 자연 발생적 출발점으로 되는 동시에 마누팍뚜라의 자연 발생적 출발점으로도 된다. 거꾸로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사용 노동자수의 증가를 기술상 필요성으로 만든다. 이제 1명의 자본가가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수의 최소한은 현존 분업에 의하여 미리부터 결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일층 발전된 분업의 이익은 노동자수의 일층의 증가에 의해서만 얻어지

며 이 증가는 각종 생산 그루빠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두 단번에 증대되는 방식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개별적 구성 부분과 더불어 그 불변적 구성 부분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비단 건물, 로 등의 공동적 생산 조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히 원료의 양이——그것도 로동자수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여의 기간증, 소여의 로동량에 의하여 소비되는 원료의 양은 분업의 결과로 로동 생산력이 제고되는 데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적 자본가에게 필요한 자본의 최소한 액수의 증가, 즉 사회적 생활 수단과 생산 수단의 자본에로의 전회의 장성은 마누팩투라의 기술적 성격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법칙이다⁶².

단순 협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마누팩투라에 있어서도 기능하는 로동체는 자본의 존재 형태이다. 다수의 개별적인 부분 로동자들로써 구성되는 사회적 생산 기구는 자본가에 속한다. 그런 까닭에 각종 로동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팩투라는 비단 종전에 독립하여 있던 로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로동자 자신들 간

62 《수공업의 세분(細分)에 필요한 자본 (이것은 그에 필요한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 현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 밖에 이러한 자본이 대규모 생산을 하기에 충분할만큼 대량으로 기업가들의 수중에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분업이 발전하면 한수목 동일한 수의 로동자를 취업시키기 위해서도 도구 원료 등등의 형태로 더욱 더욱 큰 액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슈트르히 《정치 경제학 강의》, 파리판, 제1권, 250, 251페이지) [로썬야어 판, N·B·웨르나드스키, 김수 번역, 성 제페로부르그, 1881년, 135페이지 참조]. 《생산 수단의 집중과 분업이 불가분적 관계물 가지는 것은 마치 정치적 체제에 있어서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사'적 이익의 분렬이 불가분적 관계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파리, 1847년, 134페이지) [K·맑스, F·엔겔스 편집, 로썬야어 판, 제5권, 387페이지].

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단순 협업은 개별적 사람들의 로동 방식을 대체로는 변경시키지 않지만 마누콰뚜라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하여 개별적 로동력을 전'적으로 종속시킨다. 마누콰뚜라는 로동자의 생산상 취미와 소질의 일체를 억압하여 그의 단 하나의 일면적인 측면을 인위적으로 배양함으로써 로동자를 불구자로 만든다. 이것은 마치 라·플라타의 제주(州)에서 모피와 지방(脂肪)을 얻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단 개별적인 부분 로동이 각이한 개인들 간에 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 그 자체가 분할되어 일정한 부분 로동의 자동적 도구로 전화된다⁶³. 그리하여 인간을 그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묘사(描寫)하는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엉터리 없는 이야기가 현실화된다⁶⁴. 만약 시초에 로동자는, 상품 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에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한다면, 이제 그는 그의 개별적 로동력은 그것이 자본에게 판매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소용 없는 물건으로 되어 버린다. 로동력은 오직 다른 로동력들과의 련관에 있어서만 기능할 수 있는데 이 련관은 오직 판매된 후에 자본가의 작업장내에서만 비로소 실현된다. 자기의 자연적 소질에 따라 독립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 가능성을 박탈 당한 마누콰뚜라 로동자는 벌써 자본가의 작업장의 부속물로서만 생산 활동을 전개한다⁶⁵. 선발된 인민의 이마 우에는 그가 에호바의

63 두갈드 스투아르는 마누콰뚜라 로동자를 《세부(細部) 작업에 사용되는……산 자동 장치》라고 칭하였다 (쎄·W·하밀튼 편찬, 《저작집》, 에딘버러, 1855년, 제3권 《정치 경제학 강의》, 318페이지).

64 산호(珊瑚)에게 있어서는 매개의 개체는 실지로 전체 그루마의 위(臂)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귀족과 같이 영양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루마에게 공급하여 준다.

65 《자기의 수공업들》 그 전체 범위에서 『습득한 일』 군은 어메서나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제2의 일' 군 (마누콰뚜라 로동자)은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동료(同僚)들과 떨어져서는 로동의 능력도 로동을 위하여 필요

소유물이라는 것이 씌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은 마누팩투라 노동자에게 자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각인을 찍는다.

미개인이 자기 일개인의 책략(策路)으로써 전체 전쟁 기술의 요소들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가 비록 적은 규모에서라 할지라도 발휘하는 지식과 판단력과 의지는 이제 여기에서는 작업장 전체의 립'장에서만 요구된다. 생산의 정신적 능력은 그것이 다른 여러 방면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야말로 한 방면에서 그 규모를 확대한다. 부분 노동자들이 잃어 버리는 그것은 그들에 대립하여 자본에 집중된다⁶⁶. 물질적 생산 과정의 정신적 능력이 부분 노동자들에게는 타인의 소유물로서 또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대립하게 되는 것은 마누팩투라적 분업의 산물이다. 이 분리 과정은 자본가가 개별적 노동자에 대립하여 사회적 노동체의 통일과 의지를 대표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화시켜 그를 불구로 만드는 마누팩투라에서 발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을, 생산의 독립적인 역량으로서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여 자본에 복무하게 하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⁶⁷.

한 독립성도 소유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접수할 밖에 없다》(슈토르히 《정치 경제학 강의》, 베제르부르그판, 1815년, 제1권, 204페이지) [로썸야어 판, N·B·웨르나드스까 감수 번역, 성 베제르부르그, 1881년, 78페이지].

66 A·화거손 《시민 사회의 역사》, 에딘버러, 1767년, 제1부, 제1편, 281페이지, 《한편 사람들은 다른 편 사람들이 상실한 것을 리득으로 얻었다》.

67 《학식을 소유하는 사람들과 생산적 노동자와는 완전히 절연(絶緣)되어 과학은 노동자의 수중에서 그를 위하여 그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되는 대신에 거의 어메서나 노동자에 대립하고 있다…… 지식은 노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또 노동에 적대할 수 있는 도구로 된다》(W·록손 《부의 분배에 관한 법리의 연구》, 런던, 1821년, 274페이지).

마누콰뚜라에 있어서는 종체로서의 노동자, 따라서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이 풍부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개별적 생산력이 빈약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인 동시에 또 공업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사고력과 상상력은 자칫 하면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손과 발을 일정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사고력에도 상상력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누콰뚜라는, 정신 생활이 가장 억압되고, 그 결과 작업장이 인간을 부분품으로 하는 기제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가장 잘 번영한다》⁶⁸. 사실 18세기 중엽에 있어서 약간의 마누콰뚜라는, 간단은 하지만 그러나 공장의 비밀로 되어 있는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즐겨서 반백치(半百癡)를 사용했던 것이다⁶⁹.

A·스미스는 말한다——《대다수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사업에 적응하여 형성된다. 일생 동안을 소수의 간단한 작업의 수행으로 지내는 사람은……자기의 지'적 능력과 상상력을 발전시킬 기회와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그는 무릇 인간으로서서는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존재로 된다》. 스미스는 부분 노동자의 우둔성을 묘사한 뒤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그의 변화 없는 생활의 단조성은 자연 그의 정신상 용기를 저상(阻喪)시킨다……그것은 지어 그의 육체상 정력까지도 약화시키며 그로 하여금 그가 관습되어 있는 부분 작업 이외의 어떤 일에서도 활기 있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그의 특수한 직업에 있어서의 숙달(熟達)은 이와 같이 그의 지'적, 사회적 및 전투적 능력들을 희생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매개의 발전된 문

68 A·화거슨 《시민 사회의 역사》, 에딘버러, 1767년, 제4부, 제1편, 280페이지.

69 I·D·럭켓트 《노동 인구의 과거 및 현재의 상태의 역사》, 런던, 1816년, 제1편, 149페이지.

명 사회에서 근로 빈민들 즉 인민의 대다수는 불가피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⁷⁰. A·스미스는 분업의 결과인 인민 대중의 완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동종 료법(同種療法) 정도의 분량이기 는 하지만 국가에 의한 인민 교육의 조직을 추천하고 있다. 그의 저서의 불란서 역자이며 주석자인 G·가르니에——이 사람은 불란서의 제1차 제정(帝政)시에, 당연한 일이지만, 원로원 의원으로까지 되었다——는 이것을 철저히 반대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민 교육은 분업의 제1의 법칙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인민 교육을 실시하면 《우리의 사회 제도 전체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의 노동과 두뇌의 노동간의 분업도》⁷¹——그는 말한다——모든 다른 분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그는 이 용어를 정당하게도 자본, 토지 소유 및 그것들에 속하는 국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가 부(富)하여지는 데 따라 더욱 더욱 현격하게 되며 또 결정적으로 된다. 온갖 다른 분업과 마찬가지로 이 분업도 과거의 진보의 결과이며 또 장래의 진보의 원인으로 된다……그

70 A·스미스 《국부론》, 제5편, 제1장, 제2절, [로썸야어 판, 제2권, 사회 경제 서적 출판소, 1935년, 303페이지]. 분업의 유해한 결과를 논술한 A·화거손의 제자로서 A·스미스는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히 이해하였다. 그가 직책상 분업을 찬미하고 있는 그의 저서의 시초에서는, 그는 오직 지나가는 김에 잠'간, 분업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가 수입을 취급한 제6편에 가서야 비로소 화거손의 설을 재 생산하고 있다. 나는 이미 《철학의 빈곤》에서 화거손, A·스미스, 테몬데이, 셰이건의 부업의 비판에 있어서의 역사적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또한 나는 처음으로 마누콕투라적 분업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특수적 형태로 서술하였다 (칼 맑스 《철학의 빈곤》, 파리, 1847년, 122페이지 이하)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5권, 379—381페이지].

71 화거손은 이미 《시민 사회의 역사》, 에딘버러, 1767년, 제4부, 제1편, 28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유 자체까지도 이 분업의 시대에 있어서는 특수한 직업으로 될 수 있다》.

렇다면 과연 정부는 이 분업에 대하여 그 자연적인 진행을 억제해야 할 것인가? 과연 정부는 분할과 분리를 지향하는 이 두 부류의 로동을 혼합시키며 뒤섞어 놓으려는 시도를 위하여 국가 수입의 일부를 지출해야 할 것인가?》⁷².

어느 정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불구는 사회 전체내에 있어서의 분업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마누팩투라 시대는 로동 제 부문의 이러한 사회적 분할을 훨씬 더 심화시키는 까닭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누팩투라에 고유한 분업만이 비로소 개인의 생활에 근본적 손상을 주는 까닭에 역시 마누팩투라 시대만이 처음으로 산업 병리학에⁷³ 재료와 자극을 제공한다.

《인간을 분할하는 것은 만약, 그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면 사형 집행이라고 불리우며, 만약, 그 인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암살이라고 불리운다. 로동의 세분은 인민의 암살이다》⁷⁴.

72 G 가트리에 그의 불탄서어 번역 [스미스] 제5권, 4—5페이지.

73 파두아의 림상 의학 교수 라마제니는 1713년에 자기의 저작《산업병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그후 1781년에 불탄서어로 번역되었고 또 1841년에는 《의학 백과 사전 제7권, 고전적 저술가》속에 재수록되었다. 대공업 시대에 로동자의 직업병 목록은 물론 늘어갈 뿐이었다. 개중에도 다음 두개의 서적을 보라. 《대도시 일반, 특히 큰 시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 A. L. 폰테레 박사의 저서, 파리, 1858년 및 《각종의 신분, 연령 및 성(性)에 특유한 질병》, 전6권, 울름 1860년. 1854년에는 《기술 협회》가 산업병에 관한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에 의하여 수집된 문헌 일람표는 《르뤼쥬합 경제 박물관》의 목록 속에 들어 있다. 공식적인 《공중 보건에 관한 보고》도 극히 중요하다. 또 의학 박사 에두아드 라이호의 《인류의 퇴화에 관하여》, 에를랑겐, 1868년도 참조하라.

74 D 어프르 《일상 용어》, 런던, 1855년, 119페이지. 헤겔은 분업에 관하여 극히 이단적(異端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양 있는 인간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타인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는 자기의 《법철학》에서 말하고

분업에 립각하는 협업 즉 마누팩투라는 시초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난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견고성을 획득하고 충분히 광범하게 보급되자 마자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의식적인, 계획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형태로 된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팩투라의 력사는, 그것에 독특한 분업이 어떻게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이르면 등장 인물들의 배후에서처럼 합목적적인 형태를 획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에는 동업 조합적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발견된 형태를 전통적으로 고수하려고 애쓰며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수세기에 걸쳐서 고수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며 준다. 만약 이 형태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제2차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노동 도구의 혁명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적 마누팩투라는——나는 여기서 기계 사용에 립각하는 대공업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레컨데 피복 마누팩투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성립하는 대도시에서 자기의 사지(四肢)를 기성 형태로 발견하여 조각 조각으로 된 이 사지들을 주어 모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레컨데 제분업에서와 같이 분업의 원칙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공업적 생산의 각종 작업들을 특수한 부분 노동자들에게 떼어 맡기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매개 기능의 발휘에 필요한 노동자수의 적합한 비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경험도 요구되지 않는다⁷⁵.

있다 [헤겔 《법철학 개론》, 제2판, 베를린, 1840년, 217페이지. 로쉴러 판, 헤겔 《법철학》, 1931년, 제7권, 제2편, 187절, 216페이지 참조].

75 분업에서 개별적 자본가가 선험적(先驗的)인 발명의 천재(天才)를 발휘한다는 소박한 신앙은 레컨데 로쉴러와 같은 독일인 교수간에만 아직 남아 있다. 로쉴러씨는 분업이 자본가의 전능적 능력으로부터 완성되어 나오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본가에게 《각종 로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업이 적용되는 규모는 돈 주머니의 대소에 의존하는 것이지 천재의 정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수공업적 활동의 분해, 노동 도구의 전문화, 부분 노동자의 형성, 하나의 총기구에로의 부분 노동자들의 편성 및 결합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 과정의 질'적 분할과 량'적 균형성을, 즉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조직을 창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인 노동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형태로서——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그 역사적 기초 우에서는 자본주의적 형태로서 밖에는 발전할 수 없다——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 또는 노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보통 사회적 부, 《국부(國富)》 등등으로 불려지는 자본의 자기 증식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사회적인 노동 생산력을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동자의 불구화에 의하여 그것을 발전시킨다. 마누팍뚜라적 분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새로운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만약 한편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의 역사적 진보로 되며 필연적 계기(契機)로 된다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은 문명한, 세련된, 착취의 도구로 된다.

마누팍뚜라 시대에 비로소 독자적인 과학으로 된 정치 경제학은 사회적 분업 일반을 오직 마누팍뚜라적 분업의 틈'장에 서만 고찰한다⁷⁶. 다시 말하면 동일량의 노동으로써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따라서 상품 가격을 저렴화하며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고찰한다. 량과 교환 가치의 이러한 강조(強調)와는 정반대로 고전적 교대의 저술가

76 페티와 《동인도 무역의 이익》의 서명. 저자 등등과 같은, 더 오랜 저술가들은 A. 스미스보다 더 결정적으로 마누팍뚜라적 분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들은 오로지 질과 사용 가치에만 주의를 돌린다⁷⁷. 사회적 생산 부문들이 구분되어 있는 결과 상품은 더 좋게 제조되며, 사람들의 각이한 소질과 재능은 적당한 활동 부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바⁷⁸ 활동 부면의 국한이 없이는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도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⁷⁹. 그리하여 생산물로,

77 근대의 저술가들 중에서도 18세기의 몇 사람만은 예외로 되어 있다. 그들은 분업에 관한 문제에서 거의 전적으로 고대인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백카리아 및 제임스 하리스가 이에 속한다. 백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손과 리지(理智)를 항상 동일한 종류의 노동과 동일한 생산물의 제조에 사용한다면,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자신이 제조하는 경우에 비하여……보다 용이하게 더 크고 더 우수한 결과가 달성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일반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위하여 각이한 계급들과 각이한 신분들로 나누인다》(채자매 백카리아 《사회 경제 요론》, 쿠스토디 편찬, 현대부, 제2권, 28페이지). 제임스 하리스——후일의 말음쓰베리 백작이고 페페르부르크 주재 대사 시대에 관한 《일기장》으로 유명한——는 자기의 저서 《행복에 관한 문답》(런던, 1711년), (후에 《……3 논문》 제3판, 런던, 1772년 속에 재수록되었음)에 대한 하나의 자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의 자연성에 관한 모든 논문(바로 <직업의 분할> 원칙에 기초한 논문)은…… 플라톤의 <공화국> 제2부로부터 취해 온 것이다.

78 레컨대 오디세이 제14편 228절에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자는 이것을 좋아하고 다른 자는 저것을 좋아한다》[쥬요브쓰끼 번역, B·A·쥬요브쓰끼 전집 M·O·볼프 간행 성 페페르부르크—모스크바, 413페이지]라는 구절이 있고 또 아르킬로쿠스는 셰쓰루쓰엠퍼리쿠쓰 가운데서 《어떤 일은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79 《그는 많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아테베인은 스파르타인에 대하여 상품 생산자로서의 자기의 우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리유는 스파르타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인간은 가지고 있었으나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컨대 투류디메스는 페리클레스로 하여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베인을 고무하는 연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자기 자신의 수요를 위하여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화폐보다는 자기의 몸으로 싸우려 하고 있다》(투류디메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 제1부, 제141절) [로문판, 구즈베조프판, 모스크바, 1887년, 제1권, 135페이지]

생산자도 분업에 의하여 개선된다는 것이다. 만약 고전적 교대의 저술가들이 때로 생산물량의 증가에 관하여 언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 가치가 더 풍부하게 되는 것을 넘두에 둔 데 지나지 않는다. 교환 가치, 상품의 저렴화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용 가치의 견지는 분업을 사회의 신분상 구분의 기초로 간주하는 플라톤에 있어서나⁸⁰ 또 그 특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비인들의 리상은 의연히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까지도 분업에 대립하는 자급 자족이었던 것이다. 즉《분업으로 부리는 복리가 나오지만 자급 자족으로부터는 독립성도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넘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30명의 폭군(暴君)이 몰락하던 시기에 있어서까지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테비인은 5,000명에도 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80 플라톤은 공동체 내부의 분업을 개인의 욕망의 다양성과 소질의 일원성으로부터 끌어 낸다. 그의 주요한 명제는 일'군이 일에 적응해야 할 것이지 일이 일'군에 적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군이 한꺼번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때에는 즉 직업들 중 하나를 부업으로서 수행하는 때에는 일이 일'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일이 생산자의 여가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생산자가 자기의 일을 부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심 전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이것은 필연이다——모든 물건은, 사람이 자기의 소질에 적합한 한 가지 일만을 적당한 시기에 다른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어 수행할 때에 더 용이하게 더 럽호하게 더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는가?》(《공화국》, 제1편, 바이더, 오텔리 등등의 편찬, 제2판) [로문판 플라톤 전집, 제3부, 카르보브 교수 번역, 성 베세트부르그, 1863년, 《정치론 또는 국가론》, 제2편, 117페이지 참조]. 이와 유사한 견해를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 제1편, 제142절에서 볼 수 있다. 《항해술(航海術)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못하지 않은 하나의 기술이다. 그것을 부차적으로 부업으로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다른 어떠한 부업도 그것과 결합할 수 없는 사업이다》[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 구즈네조브판 모스크바, 1887년, 제1권, 136페이지 참조].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일이 일'군을 기다리게 된다면, 자주 생산상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 버리게 될 것이며 생산물은 못쓰게 될 것이며 《로동의 성과는 파멸될 것이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를 위하여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제정한 공장법의 조항을 반대하는 영국 표백업자(漂白業者)들의 항의에서 바로

정적인 부르주아적 본능을 가지고 이미 작업장 내부의 분업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크세노폰⁸¹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지배적이다. 플라톤이 그린 공화국은 분업이 국가의 구성 원리로 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애급의 신분 제도의 아테네적 리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애급은 플라톤의 동시대인인 다른 저술가들, 페컨대 이소크라테스⁸²에게 있어서도 산업국의 모범

이 플라톤적 견해를 보게 된다. 그들의 영업은 노동자들에게 순응시킬 수 없다. 왜냐 하면 《건조, 제척, 표백, 다림질, 운내기, 염색의 각종 작업에서 그 어느 하나도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예정된 시간에 중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전체 노동자를 위하여 동일한 의무적 식사 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귀중한 재물을, 미완성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손상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참말 플라톤주의는 도저에 숨어 있다!

81 크세노폰은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식탁으로부터 음식물을 받는 것은 비단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이 다른 것보다 더 맛있기 때문에 유쾌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대도시들에서는 다른 모든 기술이 특히 완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음식물도 그 품질이 무비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도시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람이 침상(寢床)도 문장도 보습도 탁자도 만든다. 그는 이 밖에 가끔 집도 짓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생활 유지에 충분할만한 주문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나 매개의 일'군이 다수의 구매자를 발견하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그는 단 하나의 수공업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의 수공업을 전체에 걸쳐서 알 필요까지도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남자용 구두만을 만들며 다른 사람은 여자용 구두만을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구두를 꿰매는 일만으로 살아 가고 다른 사람은 구두 가죽을 재단하는 일만으로 살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의복을 재단하는 일만을 하고 다른 사람은 헌갑 조각들을 꿰매는 일만을 한다. 가장 간단한 일을 하는 자가 그 일을 가장 완전하게 할 것은 필연적이다. 토리술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크세노폰 《치로페디아》, 제8부, 제2장) [로씨야어 판, 꺄에보, 1878년, 제8부, 제2장, 259—260페이지 참조]. 크세노폰은 분업의 규모가 시장의 범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으나 이 경우에 오로지 사용 가치의 품질에만 주위를 돌리고 있다.

82 《그 (부지리스)는 모든 사람을 자기 특수한 신분에 나누어 ……

이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의 회랍인들의 눈에서까지도 이러한 모범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었다⁸³.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팍뚜라 시대에는, 즉 마누팍뚜라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에 내재하는 경향의 완전한 실현은 여러 가지 장애에 봉착하게 된다. 비록 마누팍뚜라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자의 등급상 구별과 아울러 그들의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로서의 간단한 구분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미숙련 노동자의 수는 숙련 노동자의 압도적인 우세(優勢)로 말미암아 의연히 극히 제한되어 있다. 비록 마누팍뚜라는 개별적 작업들을 자기의 산 노동 기관(器官)들의 성숙(成熟)과 힘과 발전의 각이한 정도에 적응시키며 따라서 부녀자와 아동의 생산적 착취의 길을 개척하기는 하지만 이 경향은 그것이 성년 남성 노동자들의 관습과 모순되어 그들로부터의 반항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좌절을 당한다. 비록 수공업적 활동의 분해는 노동자의 교육비율, 또 따라서 노동자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하지만 비교적 곤란한 부분 노동들에 있어서는 의연히 장기간 수업이 필요하며 수업이 무용하게 된 곳에서까지도 그것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열심히 보존된다. 페컨대 영국에 있

동일한 사람은 항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자주 자기의 직업을 변경하는 자는 어떠한 직업에도 정통하지 못하나, 늘 동일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사업을 가장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실 기술과 수공업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분야에서 애급인은 거장(巨匠)이 미숙한 일'군을 통가하는 정도 이상으로 자기 경쟁자들을 통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왕'권(王權) 및 국가 제도의 수호를 위한 시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문제는 애급인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애급의 국가 제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하였을 정도로 그것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이 소크라테스 《부지리스》, 제8장).

83 디오도루스 사클루스 《시시리 출신 디오도루스의 역사 문고》, 제1부, 1831년 참조).

어서는 도제(徒弟)기간을 7년으로 규정한 《도제 제도에 관한 법률》은 마누팩투라 시대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였고 대공업의 진격에 의해서만 비로소 폐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수공업적 숙련은 의연히 마누팩투라의 기초이며 마누팩투라에서 기능하는 종체로서의 기구는 노동자들로부터 독립한 객관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까닭에 자본은 부단히 노동자측으로부터의 불복종 행위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잘 아는 유어는 다음과 같이 웨친다.

《인간의 본성은 심한 약점을 가지는 것이여서, 노동자는 숙련되면 될수록 일층 자의(恣意)적으로 되어 그를 규율에 복종시키기기가 더욱 곤란하게 되며 따라서 그는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종체로서의 기구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다》⁸⁴. 그러므로 마누팩투라 시대의 전체를 통하여 노동자의 무규율성에 대한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⁸⁵. 또 그 당시의 저술가들 측으로부터의 충언을 기다리지 않고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실들, 즉 16세기부터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에 자본은 마누팩투라 노동자들의 수중에 있는 노동 시간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누팩투라는 단명(短命)하여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데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그 소재지를 바꾸었다는 사실만 해도, 큰 문고(文庫)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재삼 인용한 《상공업에 관한 통술》의 저자는 1770년에 이와 같이 호소하였다. 《질서, 이것은 또 66년을 지나 안드류 유어 박사가 가로 말아 발킨한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분업이라는 번째 철학적 독단》을 기초로 하는 마누팩투라에는 《질서》가 없었으나 이제 《아크라이

84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20페이지.

85 본문에서 말한 것은 불탄서 보다는 잉국에 대하여, 또 화탄보다는 불탄서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타당하다.

토가 질서를 창조하였다》라고.

그와 동시에 마누콰두라는 사회적 생산을 그 전체 범위에
서 포섭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뿌리채 개혁할 수도 없었다. 마
누콰두라는 도시 수공업과 농촌 가내 공업의 광범한 기초 위에
선 경제적 진물의 장식물이었다. 그에 고유한 협소한 기술적
기초는 발전의 일정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의하여 창조
된 생산상 요구와 모순되게 되었다.

마누콰두라의 가장 완성된 산물의 하나는 로동 도구 그 자
체를, 특히 당시에 이미 적용되고 있던 복잡한 기계적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이었다. 《그와 같은 작업장은——유어는
말한다——모든 다양한 단계를 가지는 분업의 광경을 보이며
주었다. 찬공기(鑽孔機)와 절단기(切斷機)와 선반은 각각, 그
속련의 정도에 따라 어떤 등급에 속하는 자기 자신의 로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마누콰두라적 분업의 이와 같은 산물이 이번
에는 기계를 생산하였다. 기계는 사회적 생산의 기본 원리로
서의 수공업적 형의 로동을 제거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로동자를 일정한 부분적 기능에 일생 동안 얽매여 두는 기술적
기초가 제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리가 아직도 자본의
지배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던 장애들이 소멸한다.

칼 맑 스

자	본	문	번역 편집	박극채 리석심
발행소	조선	로동당	출판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인쇄소		
	평양	시		
문선회부	1955년	7월	5일	
인쇄회부	1955년	10월	5일	
7-50573	발행부수	20,000부		

(값 165 원)

정 오 표 (자본론 1의 2)

페이지 수	행 수	문	답
17	12	동력기와 전도 기구는 작업기의...	동력기와 전도 기구와 작업기의...
23	6	얻어지는 것은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23	16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52	8	일변시킨다는...	일변한다는...
69	4	속한다)파의 기계 노동자들의	속한다)과 기계 노동자들의
99	24	되고 있지만	되고 있지만.
219	1	그것의 실제로	그것의 실제로
236	10	)을 간주하는	)으로 간주하는
289	13~14	보인다 하더라도 상품 생산은 결코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329	8	그 구성의	그 구성이
333	9	지식은	지식은
433	2	침실에 있는	침실이 있는
473	5	(有期) 및 1년으로	(有期), 종신 및 1년으로
480	20	니지만 ²⁰³ ,	니지만 ²⁰³ .
482	16	것은 휴경지만이 아니라	것에는 휴경지만이 아니라
520	20	산업적 파권은 상업적 파권을	산업적 파권은 상업적 파권을